

ETHER LIBRARY

0002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Ἱστορίαι

투키디데스

Thucydides · c. 400 BC

역사 · 전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투키디데스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일러두기

이 책은 영역본을 옮긴 뒤 그리스어 원전과 대조해 고친 것이다. 처음 저본은 리처드 크롤리(Richard Crawley, 1840~1893)가 1874년에 펴낸 영역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였다. 제2판에서는 한국어 본문 전체를 문장마다 그리스어 원전(H. 스튜어트 존스 편, 옥스퍼드 고전 텍스트, J. E. 파월 개정 1942)과 맞대어 보고, 크롤리가 잘못 읽었거나 덧붙이거나 빠뜨린 자리를 원전에 따라 바로잡았다. 고친 곳은 450곳이 넘는다. 문장의 짜임과 장 구분은 여전히 크롤리 영역을 따르므로, 원전에서 직접 옮긴 번역과는 다르다는 점을 함께 밝힌다.

고유명사는 통용 표기를 따랐다. 아테네·스파르타·코린트·시칠리아로 적고, 희랍어 음차(아테나이·스파르테)는 쓰지 않았다. 널리 쓰이는 표기를 택해 처음 읽는 사람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저자는 *Lacedaemon* 계열과 *Sparta* 계열을 구분해 쓴다. 국가와 주민 일반을 가리킬 때는 스파르타·스파르타인으로, 완전시민권을 가진 계층을 가리킬 때는 '스파르타 시민'으로 옮기고 처음 나오는 자리에 각주를 달았다.

연설은 서술과 어조를 달리했다. 투키디데스는 결정적인 자리마다 인물의 연설을 직접화법으로 통째로 싣는다. 서술은 *-다*체로, 연설은 *-습니다*체로 옮겨 두 층이 섞이지 않게 했다. 멜로스 회담(17장)만은 형식이 달라, 원문이 문단 앞에 적어 둔 화자 표기를 그대로 살렸다.

화폐·도량형은 음차하고 본문에서 환산하지 않았다. 탈란톤·드라크메·스타디온을 현대 단위로 바꾸면 당시의 값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크롤리는 거리와 부피를 영국식 단위(마일·피트·파인트 등)로 바꾸어 적었으나, 이 판은

그리스어 원전을 따라 스타디온·플레트론·푸스·페키스·코이닉스·코틸레 같은 그리스 단위와 원전의 숫자를 썼다. 각 단위가 장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는 대략의 현대 값을 각주로 밝혔다.

저본의 탈자와 오식은 문맥으로 복원했다. 저본 전자 텍스트에는 낱말이 빠지거나 중복되거나 철자가 흔들리는 자리가 서른다섯 군데 있었다. 뜻이 분명한 경우에만 복원했고, 판본 대조가 필요한 자리는 손대지 않고 저본 그대로 두었다.

각주는 모두 옮긴이의 것이다. 크롤리의 각주가 아니다.

저본과 권리

원저	투키디데스(기원전 460?~400?),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영역	리처드 크롤리(Richard Crawley, 1840~1893)
영역 초판	1874년
저본 텍스트	크롤리 영역본을 따른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
대조 원전	그리스어 원전, H. Stuart Jones 편 *Thucydidis Historiae*(Oxford Classical Texts, 1900~1902; J. E. Powell 개정 1942), Perseus Digital Library 전자판
분량	8권 26장, 204,109단어

원저작물의 권리 상태. 투키디데스의 원저는 고대 저작으로 보호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역자 리처드 크롤리는 1893년에 사망했고 이 영역본은 1874년에 출판되었다.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 기간은 사후 70년이며,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크롤리의 영역본은 이 기준에 따라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한국어 번역에 대하여. 본문은 크롤리의 영어에서 새로 옮긴 뒤 제2판에서 그리스어 원전과 문장마다 대조해 고친 것이며, 기존의 다른 한국어 번역을 참조하거나 옮겨 쓰지 않았다. 각주·일러두기·용어 선택은 모두 이 판의 것이다.

이 책의 짜임

투키디데스는 이 역사를 여덟 권으로 나누어 썼다. 이 판은 그 여덟 권을 스물여섯 장으로 나누어 싣는다. 장의 구분과 제목은 저본을 따랐다.

권	장	다루는 때
제1권	1~5장	전쟁 이전 — 원인과 발단
제2권	6~8장	전쟁 제1~3년 — 아티카 침공, 역병
제3권	9~11장	제4~6년 — 미틸레네, 플라타이아, 코르키라
제4권	12~14장	제7~9년 — 필로스, 델리온, 암피폴리스
제5권	15~17장	제10~16년 — 니키아스 화약, 만티네이아, 멜로스
제6권	18~20장	제17~18년 — 시칠리아 원정의 시작
제7권	21~23장	제18~19년 — 시라쿠사와 원정군의 궤멸
제8권	24~26장	제19~21년 — 이오니아 전역, 사백인 정변

이 역사는 완성되지 않았다. 투키디데스는 전쟁 제21년을 적던 도중에 죽었고, 글은 문장이 끊기듯 멈춘다. 26장 끝의 그 자리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차례

1장 (제I권 제I장) — 가장 이른 시대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기까지의 그리스 10

2장 (제I권 제II장) — 전쟁의 원인 — 에피담노스 사건 — 포티다이아 사건 25

3장 (제I권 제III장) — 스파르타에서 열린 펠로폰네소스 동맹 회의 51

4장 (제I권 제IV장) — 페르시아 전쟁의 끝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까지 — 패권에서 제국으로 69

5장 (제I권 제V장) — 스파르타 제2차 회의 — 전쟁 준비와 외교적 공방 — 킬론 — 파우사니아스 — 테미스토클레스 86

6장 (제II권 제VI장) —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 — 아티카 첫 침공 —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 110

7장 (제II권 제VII장) — 전쟁 제2년 — 아테네 역병 — 페리클레스의 처지와 정책 — 포티다이아의 함락 140

8장 (제II권 제VIII장) — 전쟁 제3년 — 플라타이아 포위 — 포르미온의 해전 승리 — 시탈케스가 이끈 트라키아군의 마케도니아 침입 159

9장 (제III권 제IX장) — 전쟁 제4년과 제5년 — 미틸레네의 반란 186

10장 (제III권 제X장) — 전쟁 제5년 — 플라타이아인의 재판과 처형 — 코르키라 내란 219

11장 (제III권 제XI장) — 전쟁 제6년 — 데모스테네스의 서부 그리스 전역 — 암브라키아의 몰락 245

12장 (제IV권 제XII장) — 전쟁 제7년 — 필로스 점령 — 스팍테리아의 스파르타군 항복 265

13장 (제IV권 제XIII장) — 전쟁 제7년과 제8년 — 코르키라 내란의 종결 — 겔라의 강화 — 니사이아 함락 292

14장 (제IV권 제XIV장) — 전쟁 제8년과 제9년 — 보이오티아 침공 — 암피폴리스 함락 — 브라시다스의 빛나는 전과 313

15장 (제V권 제XV장) — 전쟁 제10년 — 클레온과 브라시다스의 죽음 — 니키아스 화약 355

16장 (제V권 제XVI장) — 펠로폰네소스에 퍼진 스파르타에 대한 반감 — 만티네이아인·엘리스인·아르고스인·아테네인의 동맹 — 만티네이아 전투와 동맹의 해체 374

17장 (제V권 제XVII장) — 전쟁 제16년 — 멜로스 회담 — 멜로스의 운명 416

18장 (제VI권 제XVIII장) — 전쟁 제17년 — 시칠리아 원정 — 헤르메스상 훼손 사건 — 원정대의 출항 427

19장 (제VI권 제XIX장) — 전쟁 제17년 — 시라쿠사의 당파 —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 이야기 — 알키비아데스의 실각 451

20장 (제VI권 제XX장) — 전쟁 제17년과 제18년 — 아테네군의 무위 — 스파르타의 알키비아데스 — 시라쿠사 포위 473

21장 (제VII권 제XXI장) — 전쟁 제18년과 제19년 — 길리포스의 시라쿠사 도착 — 데켈레이아 요새화 — 시라쿠사인의 성공 506

22장 (제VII권 제XXII장) — 전쟁 제19년 — 데모스테네스의 도착 — 에피폴라이에서의 아테네인 패배 — 니키아스의 어리석음과 고집 534

23장 (제VII권 제XXIII장) — 전쟁 제19년 — 대항구의 해전 — 아테네군의 퇴각과 궤멸 542

24장 (제VIII권 제XXIV장) — 전쟁 제19년과 제20년 — 이오니아의 이탈 — 페르시아의 개입 — 이오니아의 전쟁 571

25장 (제VIII권 제XXV장) — 전쟁 제20년과 제21년 — 알키비아데스의 책략 — 페르시아 보조금의 중단 — 아테네의 과두정 정변 — 사모스 군대의 애국심 599

26장 (제VIII권 제XXVI장) — 전쟁 제21년 — 알키비아데스의 사모스 소환 — 에우보이아의 반란과 사백인회의 몰락 — 키노세마 해전 625

1장 (제I권 제I장) — 가장 이른 시대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기까지의 그리스

아테네 사람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인과 아테네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역사를 썼다. 전쟁이 터진 바로 그 순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전쟁이 큰 전쟁이 되리라고, 그때까지 있었던 어떤 전쟁보다 기록할 값어치가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었다. 양쪽 교전국의 준비는 어느 분야에서나 더할 나위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 그리스인들이 이 싸움에서 어느 한쪽에 가담하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 당장 가담하지 않은 자들도 그럴 생각을 품고 있었다. 실로 이것은 그리스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움직임이었다. 이민족 세계의 일부까지 휩쓸었으니, 말하자면 인류의 대부분에 미친 셈이다. 먼 옛날의 사건은 물론이고 이 전쟁 바로 앞의 일들조차 세월이 흘러 분명히 밝혀낼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한 끝에 내가 믿을 만하다고 본 증거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킨다. 전쟁에서든 다른 일에서든 큰 규모의 것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를테면 지금 그리스라 불리는 땅에 옛날에는 정착한 주민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이주가 잦았고, 여러 부족이 수가 더 많은 쪽에 밀리면 살던 곳을 선뜻 버리고 떠났다. 교역도 없었고 뭍으로든 바다로든 마음 놓고 오갈 길도 없었다. 사는 데 필요한 만큼만 땅을 갈았고, 쌓아둔 재물이 없었으며, 나무를 심는 법도 없었다. 언제

침입자가 들이닥쳐 모조리 빼앗아 갈지 알 수 없었고, 정작 들이닥치면 그를 막아설 성벽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야 여기서나 저기서나 마찬가지라고 여겼으므로 거처를 옮기는 데 미련이 없었고, 그러니 큰 도시를 세우지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위대해지지 못했다. 가장 기름진 땅일수록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 지금 테살리아라 불리는 지역, 보이오티아, 아르카디아를 뺀 펠로폰네소스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에서 가장 비옥한 곳들이 그러했다. 땅이 좋으면 특정 개인의 세력이 커졌고, 그것이 파벌을 낳았으며, 파벌은 파멸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다. 좋은 땅은 또한 침략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아티카는 땅이 메마른 덕에 아주 먼 옛날부터 파벌 다툼을 겪지 않았고, 주민이 바뀐 적이 없었다. 이주야말로 다른 지역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내 주장을 여기서 적잖이 입증할 수 있다. 나머지 그리스에서 전쟁이나 파벌 싸움에 희생된 자들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아테네인에게로 몸을 의탁했고, 일찍부터 시민권을 얻어 안 그래도 많던 이 도시의 인구를 한층 부풀렸다. 마침내 아티카가 그들을 다 담기에 너무 좁아지자 그들은 이오니아로 식민단을 내보내야 했다.

옛 시대가 약했다는 내 확신에 적잖이 보태는 사정이 또 하나 있다. 트로이 전쟁 이전에는 그리스가 함께 움직인 흔적이 없고, 그리스라는 이름이 두루 쓰인 흔적도 없다. 오히려 데우칼리온의 아들 헬렌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호칭 자체가 없었고, 이 땅은 부족마다 다른 이름으로, 특히 펠라스기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헬렌과 그 아들들이 프티오티스에서 강성해져 다른 도시들에 동맹으로 초빙되고 나서야, 그 인연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그 이름이 모두에게 굳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호메로스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 태어난 그는 어디서도 그들 전체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프티오티스 출신으로 아킬레우스를 따르던 무리, 곧 본래의 그리스인을 빼고는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의 시에서 그들은 다나오스인, 아르고스인, 아카이아인으로 불린다. 그는 이민족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는데, 아마 그리스인이 아직 하나의 이름으로 나머지 세계와 갈라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여러 그리스 공동체는, 서로 말이 통하게 되면서 도시마다 먼저 그 이름을 얻은 쪽이든 나중에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쪽이든, 트로이 전쟁 이전에는 힘이 모자라고 서로 오가는 일이 없어 무엇 하나 함께 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 바다에 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원정을 위해 뭉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전하는 바로 처음 해군을 세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은 미노스다. 그는 지금 그리스해라 불리는 바다의 주인이 되었고 키클라데스를 다스렸으며, 그 대부분에 처음으로 식민단을 보내 카리아인을 몰아내고 제 아들들을 총독으로 앉혔다. 그러니 그는 마땅히 그 바다에서 힘닿는 데까지 해적을 소탕했을 것이다. 세수가 제게 더 잘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바닷길이 흔해지면서 그리스인이든 해안과 섬의 이민족이든 해적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졌고, 가장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을 이끌었다. 제 욕심을 채우고 궁핍한 자들을 먹여 살리려는 것이 동기였다. 그들은 성벽도 없이 마을 몇이 모여 있을 뿐인 고을을 덮쳐 약탈했다. 실로 이것이 그들의 주된 생계 수단이 되었으며, 그런 일에는 아직 아무 불명예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얼마간 영광이 따랐다. 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더러가 지금도 성공한 약탈자를 존경하는 것이 그 증거이고, 옛 시인들이 어디서나 사람들이 뱃사람에게 던지는 말로 그려 보이는 물음이 또한 그 증거다. "해적이오?" 묻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그것이 씌워서는 안 될 혐의라거나 나무랄 일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투다. 같은 약탈이 뭍에서도 판쳤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많은 곳이 여전히 옛 방식을 따른다. 오졸리아로크리스인, 아이톨리아인, 아카르나니아인, 그리고 그 일대의 본토가 그러하다. 이 본토 사람들 사이에는 무기를 지니고 다니는 관습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옛 해적질의 습관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 전체가 한때는 무기를 지니고 다녔다. 사는 곳에 방비가 없고 서로 오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로 무기를 차는 것은 이민족에게 그렇듯 그들에게도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스의 이 지역 사람들이 아직 옛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한때 같은 생활 방식이 모두에게 똑같이 퍼져 있던 시절을 가리킨다. 무기를 먼저 내려놓고 더 편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테네인이었다. 실제로 그곳의 부유한 노인들이 아마포 속옷을 입고 금빛 매미 장식으로 머리를 묶는 사치를 그만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며, 그 유행은 같은 핏줄인 이오니아인에게 퍼져 그곳 노인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이어졌다. 반대로 요즘 감각에 더 맞는 수수한 옷차림을 처음 받아들인 것은 스파르타인이었고, 부유한 자들이 제 생활을 여느 사람들의 것에 맞추려고 애썼다. 그들은 또한 알몸으로 겨루는 본보기를 세워, 체육 훈련에서 사람들 앞에 옷을 벗고 몸에 기름을 발랐다. 예전에는 올림피아 경기에서조차 겨루는 선수들이 허리에 띠를 둘렀고, 그 관행이 없어진 것은 몇 해 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이민족 가운데 더러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권투와 레슬링에 상이 걸리면 겨루는 자들이 띠를 두른다. 옛 그리스 세계의 삶과 오늘날 이민족의 삶 사이에서 닮은 점을 보여줄 만한 대목은 이 밖에도 많다.

고을로 말하자면, 뒷날 항해가 한결 수월해지고 재물이 더 넉넉해진 시대에 이르자 해안에 성벽을 두른 고을이 들어서고 지협이 교역과

이웃에 대한 방비를 위해 점유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옛 고을들은 해적질이 워낙 판쳤던 탓에 섬에서든 본토에서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세워졌고, 지금도 옛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해적들은 서로를 약탈했고, 바닷일을 하지 않으면서 해안에 사는 다른 주민들까지 약탈했기 때문이다.

섬사람들 또한 대단한 해적이었다. 이 섬사람들은 카리아인과 페니키아인이었는데, 섬 대부분이 그들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다음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번 전쟁 중에 아테네가 델로스를 정화할 때 섬의 무덤을 모두 파냈더니, 묻힌 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카리아인으로 밝혀졌다. 함께 묻힌 무구의 양식과 매장 방식으로 신원을 알아냈는데, 그 방식은 카리아인이 지금도 따르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미노스가 해군을 갖추자마자 바닷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그가 섬 대부분에 식민단을 보내 악한들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이제 해안 주민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더 바짝 매달리기 시작했고 생활이 더 안정되었다. 더러는 새로 얻은 부를 믿고 스스로 성벽을 쌓기 시작하기도 했다. 이익을 좇는 마음이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지배에 순응하게 만들었고, 쌓아둔 재물은 더 힘센 자가 작은 고을들을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트로이 원정에 나선 것은 이러한 전개가 얼마간 더 진행된 단계에서였다.

아가멤논이 그 군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에는 헬레네의 구혼자들을 묶어둔 틴다레오스의 맹세보다도 그의 힘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실로 가장 믿을 만한 전승을 물려받은 펠로폰네소스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맨 처음 펠롭스가 아시아에서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주민들 사이로 들어와 큰 세력을 얻었고, 이방인인데도 이 땅이 그의 이름을 따 불리게 되었다. 운명은 그 세력을 후손들의 손에서 한층 크게 불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에우리스테우스가

아티카에서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트레우스는 그의 외삼촌이었다. 크리시포스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있던 이 친척의 손에, 에우리스테우스는 원정을 떠나면서 미케네와 그 통치를 맡겨두었다. 세월이 흘러도 에우리스테우스가 돌아오지 않자 아트레우스는 미케네인들의 뜻에 따랐다. 그들은 헤라클레스 후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세력은 만만치 않아 보였고, 그는 민중의 환심을 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미케네의 왕홀과 에우리스테우스가 다스리던 나머지 영토를 넘겨받았다. 그렇게 펠롭스 후손들의 힘이 페르세우스 후손들의 힘보다 커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아가멤논이 물려받았다. 그는 또한 동시대의 누구보다도 훨씬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 생각에 그는 호의보다는 두려움으로 이 원정군을 모았다. 그의 해군이 강했다는 것은 그가 가장 많은 배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 그리고 아르카디아인의 배까지 그가 대주었다는 사실이 보여준다. 적어도 호메로스의 증언을 충분하다고 본다면 그러하다. 게다가 왕홀이 전해진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호메로스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숱한 섬들의, 그리고 온 아르고스의 왕.

그런데 아가멤논의 세력은 본토의 것이었다. 함대를 가지지 않고서는 가까운 섬들 말고는 어느 섬의 주인도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나마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 원정으로부터 우리는 그 이전 사업들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미케네가 작은 곳이었을 수도 있고 그 시대의 고을 상당수가 견주어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꼼꼼히 살피는 사람이라면 그 때문에 시인들과 전승이 전하는 군세의 규모에 대한 평가를 물리쳐도 된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스파르타가 폐허가 되어 신전과 공공 건물의 주춧돌만 남는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후세는 그

명성이 그 힘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들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펠로폰네소스의 오분의 이를 차지하고 그 전체를 이끌고 있으며, 바깥의 수많은 동맹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 도시는 한데 모아 지어지지도 않았고 웅장한 신전과 공공 건물로 꾸며지지도 않았으며 그리스의 옛 방식대로 마을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으니, 보잘것없다는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반면에 아테네가 같은 불운을 겪는다면, 눈에 보이는 모습에서 미루어 그 힘을 실제의 두 배로 짐작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심할 권리가 없고, 고을의 힘을 헤아리지 않은 채 겉모습만 살피고 만족할 권리도 없다. 다만 문제의 군세가 그 이전의 어떤 것보다 컸으되 오늘날의 노력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안전하다. 여기서도 호메로스 시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인데, 시인이 스스로에게 허락했을 과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것에 한참 못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것을 배 천이백 척으로 그려놓았다. 보이오티아 배는 한 척에 백이십 명, 필록테테스의 배는 오십 명이었다. 이로써 그는 최대와 최소의 승선 인원을 전하려 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 어쨌든 그는 배 목록에서 다른 어느 것의 인원도 밝히지 않는다. 그들이 모두 노꾼이면서 동시에 전사였다는 것은 필록테테스의 배에 관한 그의 서술에서 알 수 있는데, 거기서는 노를 잡은 자가 모두 궁수다. 왕들과 높은 장교들을 빼면 남는 인원이 많이 탔을 성싶지는 않다. 더구나 그들은 전쟁 물자를 싣고 넓은 바다를 건너야 했고, 배에는 갑판도 없이 옛 해적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러니 가장 큰 배와 가장 작은 배의 평균을 잡으면, 그리스 전체의 힘을 대표한 것치고는 항해에 나선 자의 수가 대단치 않아 보인다. 이는 사람이 모자라서라기보다 돈이 모자라서였다. 먹고사는 일이 어려웠던 탓에 침입자들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땅에서 먹고살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군대의 수를 줄여야 했다. 도착해서 거둔 승리

뒤에도 그 병력 전체가 동원되었다는 흔적은 없다. 승리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함대 진영의 방벽을 결코 쌓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보급이 모자라 케르소네소스를 경작하고 해적질을 하는 쪽으로 돌아섰던 것으로 보인다. 트로이인이 십 년 동안 그들에 맞서 버틸 수 있었던 진짜 까닭이 여기 있다. 적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트로이인은 뒤에 남은 분견대와는 늘 맞설 만했다. 만약 그들이 보급을 넉넉히 가져왔고 해적질과 농사로 흩어지지 않은 채 전쟁을 밀고 나갔다면, 들에서 트로이인을 쉽게 이겼을 것이다. 나가 있는 병력만으로도 이미 버틸 수 있었으니 말이다. 요컨대 그들이 포위를 고수했더라면 트로이 함락에 시간도 수고도 덜 들었을 것이다. 다만 돈이 모자란 것이 앞선 원정들의 약점이었듯, 같은 까닭으로 문제의 이 원정 또한, 이전 어느 것보다 이름났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이룬 바에 비추어 보면 그 명성에도 시인들의 가르침 아래 형성된 세간의 평판에도 못 미쳤다고 판정할 수 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리스는 여전히 옮겨 다니며 자리를 잡는 중이었고, 그러니 성장에 앞서야 할 안정을 얻지 못했다. 그리스인들이 일리온에서 늦게 돌아온 탓에 숱한 변란이 일어났고 거의 어디서나 파벌 싸움이 뒤따랐으며, 그렇게 쫓겨난 시민들이 새 도시를 세웠다. 일리온이 함락되고 육십 년 뒤, 오늘날의 보이오티아인이 테살리아인에게 아르네에서 쫓겨나 지금의 보이오티아, 곧 옛 카드메이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 전에도 그들 일부가 그곳에 나뉘어 살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일리온 원정에 참가했다. 다시 이십 년 뒤에 도리스인과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펠로폰네소스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니 그리스가 이주로 흔들리지 않는 오래가는 평온에 이르러 식민단을 내보내기 시작하기까지는 할 일이 많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아테네는 이오니아와 대부분의 섬으로,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대부분과 나머지 그리스의 몇몇 곳으로 내보냈다. 이 모든 곳은 트로이 전쟁 뒤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리스의 힘이 커지고 재물을 모으는 일이 더 큰 목표가 되면서 나라들의 세수가 늘었고, 그 재물을 바탕으로 거의 어디서나 참주정이 들어섰다. 옛 통치 형태는 권한이 정해진 세습 왕정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는 함대를 갖추고 바다에 더 바짝 매달리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조선 양식에 처음 다가선 것은 코린트인이었다고 하며,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삼단노선이 지어진 곳이 코린트였다고 한다. 코린트의 배 목수 아메이노클레스가 사모스인을 위해 배 네 척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전쟁이 끝난 때부터 헤아리면 아메이노클레스가 사모스로 간 것은 거의 삼백 년 전의 일이다. 또한 역사에 남은 가장 이른 해전은 코린트인과 코르키라인 사이의 것으로, 같은 시점에서 헤아려 이백육십 년쯤 전이다. 지협에 자리 잡은 코린트는 아득한 옛날부터 교역의 집산지였다. 예전에는 펠로폰네소스 안팎의 그리스인들 사이에 오가는 일이 거의 다 뭍으로 이루어졌고, 코린트 땅이 그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린트는 큰 재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옛 시인들이 이곳에 '부유한'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이 이를 보여준다. 바닷길 왕래가 흔해지자 그 재력으로 해군을 마련해 해적질을 눌렀고, 뭍과 바다 양쪽 교역에 시장을 내줄 수 있었으므로 큰 세수가 가져다주는 힘을 모두 제 것으로 삼았다. 그 뒤 이오니아인이 페르시아의 첫 왕 키루스와 그 아들 캄비세스의 치세에 큰 해군력을 갖추었고, 키루스와 싸우는 동안 한때 제 연안의 바다를 장악했다. 사모스의 참주 폴리크라테스 또한 캄비세스 치세에 강한 해군을 가지고 여러 섬을 굴복시켰으며, 그중 레네이아를 델로스의 아폴론에게 바쳤다. 이 무렵 포카이아인도 마르세유를 세우는 동안 해전에서 카르타고인을 이겼다. 이들이 가장 강한 해군이었다. 그런데 이들조차, 트로이 전쟁

이래 그토록 많은 세대가 흘렀는데도, 삼단노선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로이 시대의 해군처럼 여전히 오십노선과 긴 배로 꾸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로 시칠리아의 참주들과 코르키라인이 삼단노선을 많이 갖추게 된 것은 페르시아 전쟁과 캄비세스의 후계자 다리우스의 죽음이 있기 얼마 전의 일이다. 그 뒤로 크세르크세스의 원정이 있기까지 그리스에는 이렇다 할 해군이 없었다. 아이기나와 아테네를 비롯한 몇몇이 배를 얼마간 가지고 있었겠지만 대개 오십노선이었다. 아이기나와의 전쟁과 이민족 침입이 닥치리라는 전망 덕분에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인을 설득해 살라미스에서 싸운 함대를 짓게 한 것은 이 시기가 끝날 무렵이었고, 그 배들조차 갑판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기 동안 그리스인의 해군은 내가 말한 그대로였다. 보잘것없었음에도 그것을 가꾼 자들에게는 세수로 보나 지배력으로 보나 가장 큰 힘의 요소였다. 그것으로 섬에 배를 대고 섬들을 굴복시켰는데, 특히 제 땅이 넉넉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 뭍에서 벌어진 전쟁은 없었다. 적어도 그것으로 힘을 얻은 전쟁은 없었다. 흔한 국경 다툼이야 있었지만, 정복을 목적으로 멀리 나간 원정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들어본 바 없다. 큰 나라를 중심으로 예속 도시들이 뭉친 일도 없었고, 대등한 자들이 스스로 연합해 함께 원정에 나선 일도 없었다. 싸움이라고 해봐야 맞붙은 이웃끼리의 국지전이었을 뿐이다. 연합에 가장 가까웠던 것은 칼키스와 에레트리아 사이의 옛 전쟁으로, 이 다툼에서는 나머지 그리스도 얼마간 편을 갈랐다.

민족의 성장을 가로막은 장애 또한 곳마다 달랐다. 이오니아인의 힘이 빠르게 뻗어나가던 참에 키루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와 부딪혔다. 키루스는 크로이소스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할리스강과 바다 사이를

모조리 휩쓴 뒤에도 멈추지 않아 해안의 도시들까지 굴복시켰고, 섬들만 남아 뒷날 다리우스와 페니키아 해군에게 정복당했다.

또한 참주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오직 제 몸만 건사하고 제 안락과 집안의 번창만 바라보는 그들의 습성 탓에 안전이 정책의 큰 목표가 되었고, 그들에게서 큰일이 나오지 못했다. 저마다 바로 옆 이웃과의 다툼거리야 있었겠지만 말이다. 이는 본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시칠리아에서는 참주들이 아주 큰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그리스 어디서나, 나라들이 크고 민족적인 목적을 위해 뭉치지도 못하고 제힘으로 힘차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까닭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러나 마침내 아테네의 참주들과 그리스 나머지의 훨씬 오래된 참주정들이, 시칠리아의 것을 빼고는, 스파르타의 손에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왔다. 이 도시는 오늘날의 주민인 도리스인이 자리 잡은 뒤로 유례없이 오랫동안 파벌 싸움에 시달렸으면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좋은 법을 얻었고 참주에게서 벗어난 자유를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누렸다. 지난 전쟁이 끝난 때까지 헤아리면 사백 년 넘게 같은 통치 형태를 지켜왔고, 그리하여 다른 나라들의 일을 정리할 만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참주들이 쫓겨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메디아인과 아테네인 사이에 마라톤 전투가 벌어졌다. 그로부터 십 년 뒤 이민족이 그리스를 굴복시키려고 대함대를 이끌고 다시 왔다. 이 큰 위험 앞에서 연합한 그리스인의 지휘권은 힘이 남달랐던 까닭에 스파르타인이 맡았다. 아테네인은 메디아인이 쳐들어오자 도시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세간을 꾸려 배에 몸을 싣고는 바다의 백성이 되었다. 이 연합은 이민족을 물리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진영으로 갈라졌다. 대왕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리스인들도, 함께 싸웠던 그리스인들도 저마다 두 나라 가운데 한쪽에 붙었다. 한쪽 끝에는 아테네가, 다른 쪽 머리에는 스파르타가

섰다. 하나는 그리스 제일의 해군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일의 육군국이었다. 동맹은 잠시 유지되다가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이 다투어 저마다의 동맹과 함께 서로에게 전쟁을 걸었고, 나머지 그리스인들도 어디서든 서로 갈라서면 이제 이 두 나라 가운데 한쪽으로 붙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전쟁까지의 온 기간을, 평화로운 막간이 얼마간 있기는 했으나, 두 세력은 저마다 전쟁으로 보냈다. 맞수와 싸우거나 제게서 떨어져 나간 동맹과 싸웠으며, 그 덕에 군사에 관한 일을 끊임없이 익혔고 위험이라는 학교에서 얻는 경험을 쌓았다.

스파르타의 방침은 동맹에게서 공물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과두정을 세워 제 이익에 순응하도록 붙들어 두는 것이었다. 반대로 아테네는 키오스와 레스보스를 뺀 동맹 도시들에게서 차츰 배를 넘겨받고, 모두에게 돈으로 분담금을 물렸다. 이 전쟁을 앞두고 두 나라는 저마다, 동맹이 온전히 번성하던 때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재원을 갖추고 있었다.

이제 옛 시대에 관한 내 조사의 결과를 내놓았으니, 낱낱의 세부를 모두 믿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사람들 대부분이 전승을, 심지어 제 나라의 전승마저 다루는 방식은 아무런 비판적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전해지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테네의 일반 대중은 히파르코스가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의 손에 쓰러질 때 참주였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최고 권력을 쥐고 있던 것은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중 맏이인 히피아스였고 히파르코스와 테살로스는 그 아우들이었음을 알지 못한다.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은 거사하기로 정한 바로 그날, 아니 바로 그 순간에 공모자들이 히피아스에게 정보를 흘렸다고 의심했다. 그가 경고를 받았으리라 판단한 두 사람은 그를 치지 않았으나, 붙잡혀 헛되이

목숨을 걸기는 싫었으므로 레오스의 딸들의 신전 근처에서 히파르코스를 덮쳐, 그가 판아테나이아 행렬을 정돈하고 있을 때 죽였다.

나머지 그리스인들 사이에도 근거 없는 생각이 많이 나돈다. 세월에 가려지지도 않은 당대의 역사에 관해서조차 그렇다. 이를테면 스파르타의 왕들이 저마다 두 표를 가진다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 표뿐이고, 피타네 부대가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없다. 이렇듯 뭇사람은 진실을 캐는 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첫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인다. 그러나 대체로 내가 인용한 증거에서 끌어낸 결론은 믿고 기댈 만하다고 나는 본다. 제 기예에 따라 과장을 부리는 시인의 노래도, 진실을 대가로 삼아 읽는 맛을 낸 연대기 작가들의 글도 그 결론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다루는 소재는 증거가 닿지 않는 곳에 있고, 세월이 그 대부분을 전설의 영역에 앉혀놓아 역사로서의 값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에서 눈을 돌려, 우리는 가장 분명한 자료를 딛고 나아갔다는 것으로, 그토록 오래된 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 전쟁으로 말하자면, 싸움에 몸담은 자들이 그 중요성을 부풀려 보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옛일을 우러르는 성향이 있음은 알려진 바이지만, 그럼에도 사실을 따져보면 이 전쟁이 앞선 어떤 전쟁보다 훨씬 컸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 역사에 실린 연설로 말하자면, 더러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행해졌고 더러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행해졌다. 더러는 내가 직접 들었고 더러는 여러 경로로 전해 들었다. 어느 경우든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기억에 담아두기는 어려웠으므로, 나는 저마다의 자리가 연설자에게 요구했다고 내가 판단한 바를 말하게 하되 그들이 실제로 한 말의 전체 취지에는 되도록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사건의 서술로 말하자면, 손에 잡히는 첫 출처에서 끌어오는 일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 인상조차 믿지 않았다. 그것은 얼마간은 내가 직접 본 것에, 얼마간은 남이 나를 위해 본 것에 기대고 있으며, 보고의 정확성은 언제나 할 수 있는 한 가장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을 거쳤다. 같은 사건을 두고 목격자마다 말이 어긋났던 탓에 결론을 내는 데 적잖은 수고가 들었다. 그 어긋남은 때로 기억이 온전치 못해서였고 때로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마음 때문이었다. 내 역사에 이야깃거리가 없다는 점이 읽는 재미를 얼마간 덜어내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정확히 알아 앞일을 풀이하는 데 보탬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이 책을 쓸모 있다고 여긴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인간사의 흐름으로 보아 앞일은 지나간 일을 그대로 비추지는 않더라도 닮기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는 이 저작을 한때의 갈채를 얻으려는 글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재산으로 썼다.

지난 시대의 가장 큰 업적인 페르시아 전쟁조차 바다에서 두 번, 뭍에서 두 번 싸워 빠르게 판가름이 났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엄청나게 길게 이어졌고, 그동안 그리스가 겪은 불행은 같은 기간에 일찍이 없던 것이었다. 그토록 많은 도시가 함락되어 폐허가 된 적이 없었다. 이민족의 손에 그리되기도 했고 다투는 두 편의 손에 그리되기도 했으며, 옛 주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려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그토록 많은 추방과 피 흘림이 있었던 적도 없었다. 싸움터에서 그러했고 파벌 다툼에서도 그러했다. 전승으로 전해졌으나 겪어본 바로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던 옛이야기들이 갑자기 믿지 못할 것이 아니게 되었다. 유례없이 넓고 거센 지진이 있었고, 이전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빈도로 일식이 일어났다. 곳곳에 큰 가뭄이 들어 기근이 뒤따랐고, 가장 참혹하고 무섭도록 치명적인 재앙인 역병이 찾아왔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전쟁과 함께 그들에게 닥쳤다. 그 전쟁은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이 에우보이아를 정복한 뒤에 맺은 30년 휴전을 깨뜨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왜 조약을 깼느냐는 물음에는, 그들이 내세운 불만과 다툼의 지점부터 먼저 적어 답하겠다. 그리스인을 그만한 규모의 전쟁으로 밀어 넣은 직접적인 까닭을 누구도 나중에 묻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진짜 까닭은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가려져 있던 바로 그것이라고 나는 본다. 아테네의 힘이 커진 것, 그리고 그것이 스파르타에 불러일으킨 불안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도 조약이 깨지고 전쟁이 터지기까지 양쪽이 내세운 명분을 적어두는 것이 좋겠다.

2장 (제I권 제II장) — 전쟁의 원인 — 에피담노스 사건 — 포티다이아 사건

에피담노스는 이오니아만 입구의 오른쪽에 자리한 도시다. 그 일대에는 일리리아계 종족인 타울란티아인이 산다. 이 도시는 코르키라가 세운 식민시이며, 창건자는 에라토클레이데스의 아들 팔리오스였다. 헤라클레스의 후손 가문 사람으로, 옛 관례에 따라 모국 코린트에서 그 일을 맡도록 불려 온 인물이었다. 식민단에는 코린트인 몇 사람과 그 밖의 도리스족 사람들이 함께 들어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에피담노스는 크고 인구 많은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웃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하는 내분에 여러 해 동안 휘말려 크게 약해졌고, 세력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전쟁 직전의 마지막 사건은 민중이 귀족들을 내쫓은 일이었다. 쫓겨난 쪽은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도시에 남은 자들을 약탈했다. 사정이 다급해진 에피담노스인들은 코르키라에 사절을 보내, 모국이 자기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추방자들과의 일을 중재해 주기를,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건져 주기를 간청했다. 사절들은 헤라 신전에 탄원자로 앉아 코르키라인들에게 그렇게 청했다. 그러나 코르키라인들은 그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절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났다.

코르키라에서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에피담노스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델포이에

사람을 보내, 도시를 코린트인들에게 넘기고 창건자들에게서 얼마간의 도움을 얻어 보아야 할지 신에게 물었다. 신은 도시를 넘기고 코린트의 보호 아래 들어가라고 답했다. 에피담노스인들은 신탁의 명에 따라 코린트로 가서 식민시를 넘겼다. 자기들의 창건자가 코린트에서 왔음을 밝히고 신이 내린 답을 알린 뒤, 자기들을 죽게 두지 말고 도와 달라고 청했다. 코린트인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식민시가 코르키라인들의 것인 만큼 자기들의 것이기도 하다고 믿었으므로, 그 보호를 맡는 일이 일종의 의무라고 느꼈다. 게다가 그들은 모국을 업신여긴 코르키라인들을 미워하고 있었다. 다른 식민시라면 모두 공적인 집회에서 모국에 통상의 예우를 바치고 제사에서 우선권을 내주었으나, 코린트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재산으로 치면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공동체와도 견줄 만하고 군사력 또한 막강하며 이따금 제 섬의 해군력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못하는 세력에게 멸시를 당하는 처지였다. 그 해상의 명성은 섬의 옛 주민이던 파이아케스인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코르키라인들이 함대에 그토록 공을 들인 이유 하나가 여기에 있었고, 그 함대는 매우 강력해졌다. 실제로 코르키라는 삼단노선 120척을 갖고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원한이 겹치면서 코린트는 에피담노스에 약속한 원군을 보내는 데 더욱 열을 올렸다. 정착민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붙고, 암브라키아인과 레우카스인과 코린트인으로 이루어진 병력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코린트의 식민시인 아폴로니아까지 육로로 행군했다. 바닷길은 코르키라인에게 가로막힐 것이 두려워 피했다. 정착민과 군대가 에피담노스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식민시가 코린트에 넘어갔다는 것을 코르키라인들이 알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들은 곧바로 함선 25척을 이끌고 바다로 나갔고 뒤이어 다른 배들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쫓겨난 귀족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코린트 수비대와

정착민을 내보내라고 에피담노스인들에게 오만하게 요구했다. (여기서 미리 말해 둘 것이 있다. 에피담노스의 추방자들은 코르키라로 건너가 조상들의 무덤을 가리키며 같은 핏줄에게 자기들을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에피담노스인들은 이 모두를 못 들은 척했다. 이에 코르키라인들은 함선 40척의 함대로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 추방자들을 복귀시킬 작정으로 데려갔고, 일리리아인의 병력도 끌어들였다. 도시 앞에 진을 치고는, 원주민 가운데 원하는 자와 외지인은 해를 입지 않고 떠나도 좋으며 그러지 않으면 적으로 다루겠다고 알렸다. 그들이 거절하자 코르키라인들은 지협 위에 선 그 도시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한편 에피담노스가 봉쇄되었다는 소식을 받은 코린트인들은 군비를 갖추고,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에피담노스 식민단을 공고했다. 당장 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코린트 드라크메[1] 50을 내면 코린트를 떠나지 않고도 식민단에 지분을 가질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 공고에 응했는데,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한 자들도 있었고 정해진 돈을 낸 자들도 있었다. 코르키라인들이 항로를 막을 경우에 대비해 여러 도시에 호송을 부탁했다. 메가라가 8척으로 함께 가기로 했고, 케팔레니아의 팔레가 4척, 에피다우로스가 5척, 헤르미오네가 1척, 트로이젠이 2척, 레우카스가 10척, 암브라키아가 8척을 냈다. 테베인과 플리우스인에게는 돈을, 엘리스인에게는 돈과 함께 선체까지 청했다. 코린트 자신은 함선 30척과 중장보병 3,000명을 냈다.

코린트가 그렇게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코르키라인들은 스파르타와 시키온의 사절을 설득해 함께 데리고 코린트로 갔다. 그리고 코린트는 에피담노스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수비대와 정착민을 거두어 가라고 요구했다. 다만 코린트에 주장할 것이 있다면, 서로 합의해서 고른 펠로폰네소스의 도시들에 중재를 맡기고 중재자들이 어느 쪽에

귀속시키든 그 판정에 따라 식민시의 주인을 정하는 데 동의할 뜻이 있다고 했다. 델포이의 신탁에 맡기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기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전쟁에 호소한다면, 그 폭력에 밀려 자기들도 굳이 찾고 싶지 않은 곳에서 벗을 구하게 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정 앞에서 오래된 인연마저 뒤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코린트에서 돌아온 답은 이러했다. 함대와 이방인들을 에피담노스에서 물린다면 교섭의 여지가 있겠지만, 도시가 여전히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는 중재자 앞에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코르키라인들은 코린트가 에피담노스에서 군대를 물리면 자기들도 물리겠다고, 아니면 판정이 나올 때까지 휴전을 맺고 양쪽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해도 좋다고 되받았다.

이 제안들을 모두 못 들은 척한 코린트인들은 배에 인원을 채우고 동맹들이 모여들자 전령을 먼저 보내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함선 75척과 중장보병 2,000명을 거느리고 코르키라인들과 싸우러 에피담노스로 떠났다. 함대는 펠리카스의 아들 아리스테우스, 칼리아스의 아들 칼리크라테스, 티만테스의 아들 티마노르가 지휘했고, 육군은 에우리티모스의 아들 아르케티모스와 이사르코스의 아들 이사르키다스가 지휘했다. 아폴론 신전이 서 있는 암브라키아만 입구, 아낙토리온 땅의 악티움에 이르렀을 때 코르키라인들은 가벼운 배에 전령을 태워 보내 자기들을 치러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배에 인원을 채우고 있었다. 모든 배가 전투에 맞게 정비되어 있었고, 낡은 배들은 바다에 나갈 수 있도록 선체를 띠로 둘러 묶어 두었다. 전령이 코린트인들로부터 아무런 평화의 답도 얻지 못한 채 돌아오자, 이미 인원을 채운 배들로 그들은 바다에 나가 적을 맞았다. 함선 80척이었다. 나머지 40척은 에피담노스 포위에 매여 있었다. 그들은 전열을 짜고 싸움에 들어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코린트 배

15척을 부쉈다. 같은 날 에피담노스도 포위한 자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조건은 외지인은 팔아 넘기고 코린트인은 처분이 달리 정해질 때까지 전쟁 포로로 붙잡아 둔다는 것이었다.

싸움이 끝난 뒤 코르키라인들은 코르키라의 곶 레우킴메에 전승 기념물을 세웠고, 사로잡은 자들을 모두 죽였다. 다만 코린트인은 전쟁 포로로 남겨 두었다. 해전에서 패한 코린트인과 그 동맹들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일대의 바다는 모두 코르키라인의 것이 되었다. 코르키라인들은 코린트의 식민시인 레우카스로 배를 몰아 그 땅을 짓밟았고, 엘리스인의 항구 킬레네를 불태웠다. 엘리스인이 코린트에 배와 돈을 대 주었기 때문이다. 해전 뒤로 이어진 기간의 거의 전부에 걸쳐 그들은 바다의 주인이었고, 코린트의 동맹들은 코르키라 순찰선에 시달렸다. 마침내 동맹들의 고통에 움직인 코린트는 여름이 저물 무렵 배와 군대를 내보냈고, 이들은 레우카스와 그 밖의 우호 도시들을 지키려고 악티움과 테스프로티아의 키메리온 일대에 진영을 세웠다. 코르키라인들도 그에 맞서 레우킴메에 진영을 두었다.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서로 마주 본 채 버티고 있었고, 어느 쪽이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겨울이 닥쳐 있었다.

코르키라인들과의 전쟁에 격분한 코린트는 해전 뒤의 그해와 그다음 해를 온통 배를 짓는 일에, 그리고 쓸 만한 함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는 일에 바쳤다. 노잡이는 후한 보수를 미끼로 펠로폰네소스와 그 밖의 그리스 전역에서 끌어모았다. 코린트가 그렇게 준비한다는 소식에 놀란 코르키라인들은 그리스에 단 하나의 동맹도 없는 처지였다. 아테네 동맹에도 스파르타 동맹에도 자기들을 등록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테네로 가서 동맹을 맺고 지원을 얻어 보기로 했다. 코린트 역시 그들의 뜻을 듣고는 아테네에 사절을 보냈다. 코르키라 해군에 아테네 해군이 합세하여 전쟁을 제 뜻대로 끌고 갈 전망이 막히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민회가 소집되었고 맞선 두 편의 변론자가 나섰다. 코르키라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인 여러분! 지난날 이웃에게 이렇다 할 도움이나 지원을 준 일이 없어 갚아 달라 할 것도 없는 자들이, 지금 저희가 여러분 앞에 선 것처럼 도움을 청하러 나선다면, 먼저 몇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첫째로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이로운 일이거나 적어도 위태롭지 않은 일임을 보여야 하고, 둘째로 그 호의를 오래 기억할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분명히 세우지 못한다면, 퇴짜를 맞더라도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코르키라인은 도움을 청하는 이 자리에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답을 드릴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저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에 관한 저희의 정책은 여러분을 대하는 면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고, 저희 이익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위기에서 이롭지 못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하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지나온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웃 누구와도 동맹을 맺으려 한 적이 없는 나라가 이제 와서 자기와 동맹을 맺어 달라고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롭지 못하다고 하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코린트와 벌이는 이번 전쟁에서 그 정책은 저희를 완전한 고립에 남겨 두었고, 남들이 고른 위험에 끌려들지 않으려고 다른 세력과의 동맹에 얽히기를 마다한 것이 한때는 지혜로운 조심으로 보였으나 이제는 어리석음이요 약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해전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코린트인을 저희 해안에서 몰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펠로폰네소스와 그 밖의 그리스에서 더 큰 군비를 모아 두었습니다. 저희는 바깥의 도움 없이는 그들을 당해 낼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굴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뜻하는지를 보고서, 여러분과 그 밖의 모든 세력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한 정치적

고립이라는 오래된 원칙을 저희가 스스로 버리는 것을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칙은 무슨 흉한 뜻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청을 받아들이신다면, 이런 청을 받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축하하게 될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도움이 남을 해친 적 없이 남의 불의에 희생된 나라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희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이 이번 싸움에 걸려 있으니, 이런 처지의 저희를 맞아 주시는 일은 호의의 증거가 되어 여러분이 저희 가슴에 쌓아 둘 감사를 언제까지나 살아 있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을 빼면 저희가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해군 세력입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드물고 여러분의 적에게 이보다 더 낙담을 안기는 행운을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돈과 호의를 치르고라도 얻고 싶었을 그 세력이 스스로 청하지도 않은 걸음으로 찾아와, 위험도 비용도 없이 여러분 손에 자기를 내어 놓고, 나아가 세상의 눈에 높은 평판을 얻는 길과 여러분이 돕게 될 자들의 감사와 여러분 자신의 큰 힘의 보탬까지 얻는 길을 열어 주는 일 말입니다. 온 역사를 뒤져 보아도 한 나라가 이 모든 이익을 한꺼번에 얻은 예는 많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온 세력이 동맹을 청하는 상대에게 자기가 받을 만큼의 안전과 명예를 줄 수 있었던 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뿐이라고 누가 말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전쟁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크게 잘못 짚은 것이며, 스파르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바란다는 사실, 그리고 코린트가 그곳에서 힘을 쓴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코린트는 바로 여러분의 적이며, 여러분을 치기 전의 준비로 지금 저희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코린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와 여러분이

같은 적을 두고 하나가 되어 자기가 둘을 함께 상대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고, 또 저희 힘을 꺾거나 저희 힘을 제 것으로 삼는 두 길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보다 먼저 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먼저 손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코르키라가 동맹을 제안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코린트가 저희를 겨누어 세우는 계획을 깨뜨리려 기다리지 말고, 저희 쪽에서 코린트를 겨누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코린트의 식민시를 동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코린트가 주장한다면,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잘 대접받은 식민시는 모두 모국을 받들지만, 불의를 당하면 모국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식민단은 뒤에 남은 자들의 종이 되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한 자가 되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코린트가 저희를 해쳐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피담노스를 둘러싼 분쟁을 중재에 맡기자는 제안을 받고도, 그들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전쟁으로 제 불만을 밀어붙이는 길을 골랐습니다. 같은 핏줄인 저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경고로 삼으십시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그들의 노골적인 요구에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맞선 자에게 내주는 양보는 결국 자기를 책망하는 일로 끝납니다. 그런 양보를 더 엄격히 피할수록 안전을 얻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저희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과 스파르타 사이의 조약을 깨는 일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면, 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중립국이며, 그 조약의 명문 조항 하나가 중립인 그리스 국가는 어느 편에든 마음대로 가담할 수 있다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트는 제 동맹들뿐 아니라 그 밖의 그리스에서까지 해군의 인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를 여러분의 속국이 대 주는데, 저희는 조약이 열어 둔 동맹에서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을 도움에서도 밀려나고, 여러분은 저희 청을

들어주면 정치적으로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는다니, 이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저희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여러분을 원망할 이유가 훨씬 큽니다. 위험에 놓인 데다 여러분의 적도 아닌 저희가 여러분에게 퇴짜를 맞는데, 먼저 공격한 자이며 여러분의 적인 코린트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딸린 땅에서 전쟁 물자를 끌어가도록 허락받는다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토에서 코린트가 사람을 모으는 일을 막든가, 아니면 저희에게도 옳다고 여기시는 만큼의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취해야 할 길은 저희를 드러내어 지지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 길의 이로움은 저희가 연설의 처음에 밝힌 대로 여럿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으뜸일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원수인 그 세력이 저희와도 원수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세력이 배신을 벌할 힘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보다 저희의 신의를 더 분명히 보증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내륙 세력의 동맹을 마다하는 것과 해상 세력의 동맹을 마다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것 말고는 어떤 해군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가장 강한 해군의 우호를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희 말이 이롭다고 믿으면서도 조약을 깨는 일이 될까 두려워 그 믿음대로 움직이기를 꺼리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든 여러분의 힘은 상대에게 무섭게 보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어떤 안심을 얻든 여러분의 약함은 강한 적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못합니다. 또 이 결정이 코르키라만의 일이 아니라 아테네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 닥친 전쟁이 터질 때를 대비하려고 애타게 지평선을 살피는 이 시기에, 가담하든 멀어지든 가장 중대한 결과를

품고 있는 한 곳을 제 편으로 붙이기를 망설인다면, 여러분은 아테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방면의 연안 항로에 편리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쪽에서 펠로폰네소스인에게 가는 함대를 막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함대를 호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더없이 바람직한 기지입니다. 일반적인 고려와 개별적인 고려를 모두 아울러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이것으로 알아주십시오. 그리스에 이렇다 할 해군 세력은 셋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아테네와 코르키라와 코린트입니다. 이 셋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 코린트가 저희를 제 것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코르키라와 펠로폰네소스의 연합 함대를 상대로 바다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받아들이신다면, 그 싸움에서 여러분을 도울 저희 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코르키라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코린트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방금 들으신 연설에서 코르키라인들은 여러분 동맹에 받아들여지는 문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자기들은 정당하지 못한 전쟁의 희생자라고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말의 나머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짚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주장의 근거를 여러분이 더 바르게 알고, 그들의 청을 물리칠 좋은 이유를 갖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어떤 동맹 제안도 마다해 온 저들의 오래된 정책은 절제의 정책이었습니다. 실은 좋은 목적이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동맹이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동의를 구하는 것도 결코 바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지리적 위치는 그들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을 해쳤을 때 그 판정은 서로 합의해 세운 재판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내립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배를 보내는 일이 드문데, 코르키라에 들르지 않을 수 없는 외국 배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완전한 고립이라는 그럴듯한 정책으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남의 죄에 함께 물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들만의 것으로 독차지하려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짓밟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속이며, 그렇게 얻은 것을 부끄러움 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처하는 대로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남이 자기를 붙잡을 끈이 적을수록 옳은 것을 주고 옳은 것을 받음으로써 자기 정직을 더 밝은 빛 아래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에게 한 일도 저희에게 한 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식민시가 저희에게 보인 태도는 늘 멀어지는 태도였고 이제는 적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학대받으라고 내보내진 것이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되받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모욕당하려고 식민시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되고 마땅한 존중을 받으려고 세웠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다른 식민시들은 저희를 받들고, 저희는 식민시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저희에게 만족한다면 이들만 홀로 불만을 품을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며, 뚜렷한 도발을 받지 않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저희가 잘못한 쪽이라면, 저희 뜻에 물러서 주는 것이 그들에게 명예로운 일이고 그들의 절제를 짓밟는 것이 저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물이 주는 교만과 방종에 취해 저희에게 거듭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 딸린 에피담노스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들은 그 도시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하러 나서자 그들이 그 도시를 빼앗았고, 이제 무력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중재에 맡기고 싶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보면 이런 것이 뻔히 드러납니다. 안전하게 우세한 자리를 차지한 쪽에서 나오는 그런 제안은, 무기에 호소하기 전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기를 상대와 같은 자리에 놓는 자에게만 돌아가야 할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포위하기 전에 중재를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순순히 참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서야 중재라는 그럴듯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지른 잘못으로도 모자라, 이제 이 자리에 나타나 동맹이 아니라 죄에 함께하자고, 저희와 원수진 자들을 그럼에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던 때는 가장 굳건히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위험에 놓인 이때가 아닙니다. 자기 힘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없는 자들을 여러분의 보호에 끌어들이고, 여러분이 손댄 적 없는 죄를 지은 자들과 똑같은 만큼의 비난을 저희에게서 받게 되는 이때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운명을 자기들과 나누자고 청하기 전에 자기들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호소하러 온 불만이 실재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 상대가 폭력적이고 탐욕스럽다는 것은 둘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직 들으셔야 합니다. 조약의 조항 하나가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어떤 국가든 원하는 편에 가담할 수 있다고 정해 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가담의 목적이 다른 세력을 해치는 데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정이 이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들,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이 분별이 있다면 그들에게 평화 대신 전쟁을

가져다주지 않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바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조력자가 되면서 저희의 벗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가담한다면, 지키는 쪽이 그들에게 내리는 벌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중립을 지킬 가장 온당한 권리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저희와 함께 그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코린트는 적어도 여러분과 조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코르키라와는 휴전조차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탈을 후원해도 된다는 원칙을 세우지 마십시오. 사모스인이 이탈했을 때 저희가 여러분에게 맞서는 표를 던졌습니까? 그들을 도울지를 두고 나머지 펠로폰네소스 세력이 반으로 갈렸던 그때에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느 세력이나 제 동맹을 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자를 모두 받아들여 돕는 것을 정책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에게 딸린 땅들도 그만큼 저희에게 넘어올 것이고, 여러분이 세운 그 원칙은 저희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무겁게 누를 것입니다.

그리스인 사이의 법이 저희에게 권리로서 요구할 자격을 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드릴 조언도 있고 여러분의 감사에 걸 청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적이 아니어서 여러분을 해칠 위험이 없고 저희 우호는 그리 자주 오가는 사이에 이르지도 못했으니, 그 청구는 바로 이 시점에 갚아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페르시아 침공 전에 여러분이 아이기나인과 싸울 군선이 모자랐을 때 코린트는 배 20척을 대 주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모스 문제에서 저희가 취한 태도, 곧 펠로폰네소스인들이 그들을 돕지 않게 만든 것이 저희였다는 사실 덕분에 여러분은 아이기나를 정복하고 사모스를 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이 적과 싸울 때 승리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잊기 마련인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를

돕는 자를 그가 여태 원수였더라도 벗으로 여기고, 자기를 막는 자를 그가 여태 벗이었더라도 원수로 여깁니다. 실로 싸움에 온 마음을 빼앗겨 제 진짜 이익이 상하는 것도 내버려 둡니다.

이 점들을 잘 헤아리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른들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한 대로 저희에게 하겠다고 마음먹게 하십시오. 저희 말이 옳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전쟁이 닥칠 경우에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다투게 하지는 마십시오. 대체로 가장 곧은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게다가 코르키라인들이 여러분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겁주는 데 써먹은 그 전쟁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끌려가 코린트의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적의를 얻을 값어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메가라를 대한 여러분의 처사가 남긴 좋지 않은 인상을 지우려 애쓰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때맞추어 베푼 마지막 호의는 작더라도 더 큰 원한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해군 동맹이라는 전망에 홀리지 마십시오. 다른 일급 세력에게 어떤 불의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잠시의 이익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 오래 지킬 평온을 내던져 얻는 그 무엇보다 더 튼튼한 성탑입니다. 저희가 스파르타에서 세운 원칙, 곧 어느 세력이나 제 동맹을 벌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으로 이제는 저희가 이로움을 볼 차례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에게서 같은 것을 받기를 청하며, 저희가 표로 여러분을 이롭게 한 것을 여러분이 표로 저희를 해치는 것으로 갚는 데 항의합니다. 오히려 받은 만큼 돌려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도움을 주는 자가 가장 벗이고 맞서는 자가 가장 원수인 바로 그 위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르키라인들을 두고는, 저희를 업신여기며 동맹으로 받아들이지도 마시고 그들의 죄에 부추기는 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기대할 권리가 있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도 가장 잘 맞는 길을 고르시는 것입니다.

코린트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아테네인들은 양쪽 말을 모두 듣고 두 차례 민회를 열었다. 첫 번째 민회에서는 코린트 쪽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기색이 뚜렷했다. 두 번째 민회에서는 여론이 바뀌어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코르키라와 동맹을 맺기로 정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동맹이어야 했다. 펠로폰네소스와 맺은 조약을 깨는 일도 아니었다. 아테네가 코린트를 치는 데 코르키라와 함께 나서도록 요구받을 수는 없었다. 다만 계약을 맺은 양쪽은 자기 영토든 동맹의 영토든 침공을 당할 때 서로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닥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코르키라만 한 규모의 해군 세력이 코린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둘이 서로 싸워 힘을 깎게 놓아둘 수 있다면, 아테네가 언젠가 코린트와 그 밖의 해군 세력들과 겨루게 될 싸움을 위한 준비로는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동시에 그 섬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로 가는 연안 항로에 편리하게 놓여 있는 듯했다. 이런 판단으로 아테네는 코르키라를 동맹으로 받아들였고, 코린트인들이 떠난 뒤 오래지 않아 배 10척을 도우러 보냈다. 지휘는 키몬의 아들 라케다이모니오스, 스트롬비코스의 아들 디오티모스, 에피클레스의 아들 프로테아스가 맡았다. 그들에게 내린 지시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코린트 함대와 충돌을 피하라는 것이었다. 코린트 함대가 코르키라로 항해해 그 해안이나 그에 딸린 어느 곳에 상륙하려 한다면 힘을 다해 막으라는 것이었다. 이 지시는 조약을 깨지 않으려는 염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테네 배들은 그렇게 코르키라에 닿았다. 코린트인들은 준비를 마치자 배 150척으로 코르키라로 향했다. 그 가운데 엘리스가 10척,

메가라가 12척, 레우카스가 10척, 암브라키아가 27척, 아낙토리온이 1척, 코린트 자신이 90척을 냈다. 파견대마다 제 사령관이 있었고, 코린트 파견대는 에우티클레스의 아들 크세노클레이데스가 동료 네 사람과 함께 지휘했다. 레우카스에서 출항한 그들은 코르키라 건너편 대륙에 닿았다. 테스프로티아 땅 키메리온 항구에 배를 세웠는데, 그 위쪽으로 바다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엘라이아티스 지구[2]의 도시 에피레가 있다. 아케루시아 호는 이 도시 옆에서 바다로 물을 쏟아 낸다. 호수의 이름은 테스프로티아를 지나 호수로 떨어지는 아케론 강에서 왔다. 그곳에는 티아미스 강도 흘러 테스프로티아와 케스트리네의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이 두 강 사이에서 키메리온 곶이 솟는다. 코린트인들은 대륙의 이 자리에 배를 세우고 진영을 차렸다. 코르키라인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배 110척에 인원을 채웠고, 메이키아데스와 아이시미데스와 에우리바토스가 지휘를 맡았으며, 시보타 섬들 가운데 하나에 자리를 잡았다. 아테네 배 10척도 함께 있었다. 레우킴메 곶에는 육군과 자킨토스에서 도우러 온 중장보병 1,000명을 배치했다. 본토의 코린트인들에게도 동맹이 없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큰 무리로 도우러 몰려들었는데, 대륙의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동맹이었다.

코린트인들은 준비를 마치고 사흘 분 식량을 챙겨 밤에 키메리온을 떠났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에 항해하던 그들은 바다로 나와 자기들 쪽으로 오는 코르키라 함대를 보았다. 서로를 알아보자 양쪽 모두 전투 대형을 짰다. 코르키라의 오른쪽 날개에는 아테네 배들이 섰고, 나머지 전열은 코르키라 배들이 세 개 분대로 나뉘어 채웠으며 분대마다 세 사령관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했다. 코르키라의 대형은 그러했다. 코린트의 대형은 이러했다. 오른쪽 날개에 메가라와 암브라키아의 배들이 서고 가운데에 나머지 동맹들이 차례로 섰다.

그러나 왼쪽은 코린트 해군에서 가장 잘 달리는 배들로 채워, 아테네 배들과 코르키라의 오른쪽 날개를 맞게 했다. 양쪽에서 신호가 오르자 곧 싸움이 붙었다. 양쪽 모두 갑판에 중장보병을 많이 태우고 있었고 궁수와 투창병도 많았다. 아직 옛날식의 덜 갖춰진 무장이 널리 쓰이던 때였다. 해전은 완강했으나 기술이 돋보이지는 않았다. 실은 육지의 싸움에 더 가까웠다. 서로 돌진할 때마다 배가 많고 뒤엉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승리의 희망은 주로 갑판의 중장보병에게 걸려 있었으니, 배가 멈춰 선 채 그들이 서서 대형을 지키며 싸웠다. 전열을 뚫는 기동은 시도되지 않았다. 요컨대 이 싸움에서는 기술보다 힘과 배짱이 더 큰 몫을 했다. 어디서나 아우성이 넘쳤고 싸움은 온통 혼란의 장면이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 배들은 코르키라인들이 밀릴 때마다 다가와 적을 겁주는 구실을 했으나, 지휘관들은 받은 지시가 두려워 싸움에 끼어들지 못했다. 코린트의 오른쪽 날개가 가장 크게 상했다. 코르키라인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배 20척으로 흩어진 적을 대륙까지 쫓았으며, 적 진영까지 올라가 비어 있는 천막을 태우고 물자를 약탈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코린트인과 그 동맹들이 패하고 코르키라인들이 이겼다. 그러나 코린트인들 자신이 있던 왼쪽에서는 그들이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다. 넉넉하지 못한 코르키라 병력은 추격에 나간 배 20척이 빠져 더욱 약해져 있었다. 코르키라인들이 심하게 밀리는 것을 보고 아테네인들은 마침내 더 드러내어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느 배에도 돌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이 눈에 뻔해지고 코린트인들이 밀어붙이자 결국 누구나 달려드는 때가 왔고 모든 구분이 사라졌으며, 끝내는 코린트인과 아테네인이 서로에게 손을 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패주가 시작된 뒤 코린트인들은 부수어 놓은 배의 선체를 붙들어 매어 끌고 가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 눈을 돌렸다. 지나가며 사람을

베었고 포로로 잡는 데는 그리 마음을 두지 않았다. 오른쪽 날개가 패한 것을 알지 못해 제 편 사람까지 잘못 알고 죽인 일도 있었다. 양쪽 배가 많고 바다를 덮은 범위가 넓어, 한번 뒤엉킨 뒤에는 이긴 쪽과 진 쪽을 가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싸움에 나선 배의 수로 보면 이 해전은 그전의 어떤 것보다, 적어도 그리스인들 사이의 어떤 것보다 훨씬 컸다. 코린트인들은 코르키라인들을 육지까지 쫓은 뒤 난파선과 자기들 주검으로 돌아갔고, 그 대부분을 거두어 시보타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시보타는 이방인 동맹이 낸 육군의 집결지였다. 알아 둘 것은, 시보타가 테스프로티아의 인적 없는 항구라는 점이다. 이 일을 마친 그들은 다시 모여 코르키라인들에게로 배를 몰았다. 코르키라인들도 쓸 만하게 남은 배를 모두 이끌고 아테네 배들과 함께 그들을 맞으러 나아갔다. 자기들 땅에 상륙을 시도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새 시간이 늦어 공격을 알리는 파이안[3]까지 불렀는데, 그때 코린트인들이 갑자기 노를 거꾸로 저어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테네 배 20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아테네인들은 코르키라인들이 패하고 자기들의 몇 척 안 되는 배로는 그들을 지킬 수 없을까 걱정해, 뒤이어 그 10척을 보강하려고 그 배들을 내보낸 것이었다. 그 걱정은 결과로 보아 옳았다. 이 배들을 코린트인들이 먼저 보았다. 아테네에서 온 배라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뒤에 더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코르키라인들은 그 배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잘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린트인들이 왜 노를 거꾸로 젓는지 의아해하던 중에 몇 사람이 그 배들을 알아보고 앞쪽에 배가 보인다고 외쳤다. 그러자 코르키라인들도 물러났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코린트인들이 물러나면서 싸움은 멈춘 상태였다. 그렇게 양쪽은 서로 떨어졌고 싸움은 밤과 함께 끝났다. 코르키라인들이 레우킴메의 진영에 있을 때, 레아그로스의 아들 글라우콘과 레오고라스의 아들

안도키데스가 지휘하는 아테네의 그 배 20척이 주검과 난파선을 헤치고 들어와 진영으로 올라왔다. 그들이 눈에 들어온 지 오래지 않아서였다. 이미 밤이었으므로 코르키라인들은 적의 배일까 두려워했으나 곧 알아보았고, 배들은 닻을 내렸다.

이튿날 아테네 배 30척이 바다로 나갔고, 항해할 수 있는 코르키라 배들이 모두 따랐다. 그들은 코린트인들이 있는 시보타 항으로 가서 상대가 싸움에 응할지 보았다. 코린트인들은 육지에서 나와 넓은 바다에 전열을 짰으나 그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치고 나갈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에서 온 새 증원이 도착한 것을 보았고, 자기들은 여러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다. 배에 실은 포로를 지켜야 했고, 인적 없는 곳이라 배를 손볼 방도가 전혀 없었다. 그들이 더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였다. 벌어진 충돌로 조약이 깨졌다고 아테네인들이 여겨 자기들의 출항을 막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배 한 척에 사람을 태워 전령의 지팡이[4]도 없이 아테네인들에게 보내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인들이여,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조약을 깨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적을 벌하는 일에 나섰을 뿐인데, 당신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르키라로, 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디로든 항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고 조약을 깨겠다는 뜻이라면, 먼저 여기 있는 우리를 잡아 적으로 다루십시오." 그들이 한 말은 그러했다. 그 말이 들리는 거리에 있던 코르키라 군대는 모두 곧바로 저들을 잡아 죽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답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이여,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조약을 깨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코르키라인들이 우리 동맹이고 우리는 그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디로 항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코르키라나 그에 딸린 어느 곳을 치러 항해한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에게서 이 답을 받은 코린트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고, 대륙 쪽 시보타에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한편 코르키라인들은 물살에, 그리고 밤에 일어나 사방으로 흩어 놓은 바람에 밀려 자기들 쪽으로 온 난파선과 주검을 거두었고, 승자로서 섬 쪽 시보타에 자기들의 기념물을 세웠다. 양쪽이 승리를 주장한 근거는 이러했다. 코린트인들은 밤이 오기까지 해전에서 이기고 있었다. 그래서 난파선과 주검 대부분을 거둘 수 있었고, 전쟁 포로를 1,000명 넘게 붙잡았으며 배를 70척 가까이 가라앉혔다. 코르키라인들은 배 30척쯤을 부수었고, 아테네인들이 도착한 뒤 자기들 쪽의 난파선과 주검을 거두었다. 게다가 전날 코린트인들이 아테네 배들을 보자 노를 거꾸로 저으며 자기들 앞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았고, 아테네인들이 도착한 뒤에는 시보타에서 자기들을 치러 나오기를 거절하는 것도 보았다. 그렇게 양쪽 모두 승리를 주장했다.

코린트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암브라키아만 입구에 있는 아낙토리온을 손에 넣었다. 그곳은 코르키라인과 코린트인의 공동 소유였는데 속임수로 넘어갔다. 코린트인 정착민을 거기 들여놓은 뒤 그들은 본국으로 물러갔다. 코르키라인 포로 가운데 800명은 노예였으므로 팔아 넘겼고, 250명은 붙잡아 두고 크게 마음을 써서 대접했다. 그들이 돌아가면 제 나라를 코린트 쪽으로 끌어와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마침 그 대부분이 코르키라에서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코르키라는 코린트와의 전쟁에서 국가로서의 존립을 지켰고, 아테네 배들은 섬을 떠났다. 이것이 코린트가 아테네인들에게 품은 전쟁의 첫 원인이었다. 곧 조약이 살아

있는 동안 아테네인들이 코르키라인들과 함께 자기들에게 맞서 싸웠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바로 뒤에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 전쟁에 제 몫을 보탰다. 코린트는 보복할 계획을 짜고 있었고 아테네는 그 적의를 의심했다. 팔레네 지협에 사는 포티다이아인은 코린트의 식민시였으나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는 동맹이었는데, 팔레네를 바라보는 성벽을 허물고 인질을 내놓고 코린트의 정무관들을 내보내며 앞으로는 매년 그들을 잇도록 코린트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페르디카스와 코린트인들의 설득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트라키아 방면의 나머지 동맹들까지 함께 반란으로 끌어들일까 두려웠던 것이다. 포티다이아인에 대한 이 예방 조치는 코르키라 해전 직후에 아테네인들이 취한 것이었다. 코린트가 마침내 드러내어 적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마케도니아인의 왕이며 알렉산드로스의 아들인 페르디카스도 오래된 벗이자 동맹에서 적으로 돌아섰다. 아테네인들이 그에게 맞서 한편이 된 그의 형제 필리포스, 그리고 데르다스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적이 된 것이었다. 놀란 그는 스파르타에 사람을 보내 아테네인을 펠로폰네소스인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했고, 포티다이아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코린트를 제 편으로 얻으려 애썼다. 또 트라키아 방면의 칼키디케인과 보티아이아인에게도 손을 내밀어 반란에 함께하자고 설득했다. 국경의 이 지역들을 제 동맹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의 협력을 얻어 전쟁을 치르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알아챈 아테네인들은 도시들의 반란을 앞질러 막고자 이렇게 했다. 마침 그때 그들은 배 30척과 중장보병 1,000명을 리코메데스의 아들 아르케스트라토스와 동료 네 사람의 지휘 아래 그의

나라로 보내려던 중이었다. 함장들에게는 포티다이아인에게서 인질을 받고 성벽을 허물며 이웃 도시들의 반란을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동안 포티다이아인은 자기들 문제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설득해 볼 셈으로 아테네에 사절을 보냈다. 또 필요할 때 지원을 확보하려고 코린트인들과 함께 스파르타에도 갔다. 오랜 교섭에도 아테네인들에게서 만족스러운 것을 얻지 못했고, 무슨 말을 해도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어 있던 배들이 자기들에게도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아테네인들이 포티다이아를 공격하면 아티카를 침공하겠다는 약속을 스파르타 정부로부터 받아 냈다. 이렇게 때가 자기들에게 유리해진 포티다이아인은 마침내 칼키디케인과 보티아이아인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페르디카스는 칼키디케인을 꾀어 바닷가의 도시들을 버리고 허물게 하고, 내륙의 올린토스에 모여 살면서 그 한 도시를 튼튼한 곳으로 만들게 했다. 아울러 제 말을 따른 자들에게는 아테네인들과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살 곳으로 볼베 호 주변 미그도니아의 자기 영토 일부를 주었다. 그들은 그에 따라 도시들을 허물고 내륙으로 옮겨 가 전쟁을 준비했다. 트라키아 지역에 이른 아테네 배 30척은 포티다이아와 나머지 도시들이 반란 중임을 알게 되었다. 지휘관들은 지금의 병력으로 페르디카스와 싸우면서 연합한 도시들까지 상대하기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보고 본래의 목적지였던 마케도니아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서, 내륙에서 그 나라로 들어온 필리포스와 데르다스의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이어 갔다.

그러는 동안 코린트인들은 포티다이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테네 배들이 마케도니아 해안에 있다는 소식에 그곳의 안전을 걱정했고, 그곳의 위험이 곧 자기들의 위험이라고 여겨 코린트에서 지원자를, 그 밖의 펠로폰네소스에서 용병을 보냈다. 모두 중장보병 1,600명과 경장병 400명이었다. 원정의 지휘는 늘 포티다이아인의 든든한 벗이었던

아데이만토스의 아들 아리스테우스가 맡았고, 코린트에서 온 사람 대부분이 지원한 것은 주로 그를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포티다이아가 반란을 일으킨 지 40일 만에 트라키아에 도착했다.

아테네인들도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곧 받았다. 아리스테우스와 그 증원이 오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시민 가운데 중장보병 2,000명과 배 40척을 칼리아데스의 아들 칼리아스와 동료 네 사람의 지휘 아래 반란한 곳들로 보냈다. 그들은 먼저 마케도니아에 이르러, 앞서 보낸 1,000명의 병력이 막 테르메를 손에 넣고 피드나를 포위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도 포위에 합세해 한동안 피드나를 쳤다. 그 뒤 포티다이아 일이 다급하고 아리스테우스가 이미 그곳에 이르렀으므로, 페르디카스와 조건을 정하고 마지못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에서 물러나 베로이아로 갔고 거기서 스트렙사로 갔다. 스트렙사를 치려던 시도가 헛되게 끝난 뒤, 자기 시민 가운데 중장보병 3,000명과 그 밖에 여러 동맹 병력, 그리고 필리포스와 파우사니아스를 따르는 마케도니아 기병 600명을 이끌고 육로로 포티다이아를 향해 행군했다. 이들과 함께 배 70척이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짧은 행군을 이어 사흘째에 기고노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는 동안 포티다이아인과 아리스테우스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인은 지협에서 올린토스를 바라보는 쪽에 진을 치고 아테네인들을 기다리며, 시장은 도시 밖에 두었다. 동맹들은 아리스테우스를 보병 전체의 장군으로 뽑았고, 기병의 지휘는 페르디카스에게 주었다. 페르디카스는 아테네인의 동맹을 곧바로 버리고 포티다이아인 쪽으로 되돌아왔으며, 이올라오스를 제 장군으로 대신 세웠다. 아리스테우스의 계획은 자기 병력을 지협에 두고 아테네인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칼키디케인과 지협 바깥의 동맹들, 그리고 페르디카스에게서 온 기병 200명은 올린토스에 머물러

있다가 아테네인들이 자기를 치러 나아올 때 그 뒤를 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적을 두 불 사이에 놓으려 했다. 아테네 장군 칼리아스와 그 동료들은 그쪽에서 아무 움직임도 나오지 못하도록 마케도니아 기병과 동맹 몇을 올린토스로 보냈고, 아테네인들 자신은 진영을 걷고 포티다이아로 행군했다. 지협에 이르러 적이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맞서 대형을 짰고, 오래지 않아 싸움이 붙었다. 아리스테우스의 날개는 코린트인들과 그 주변의 뽑힌 병력과 함께 맞선 날개를 무너뜨리고 한참을 쫓아갔다. 그러나 포티다이아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의 나머지 병력은 아테네인들에게 패해 성벽 안으로 도망쳤다. 추격에서 돌아온 아리스테우스는 나머지 병력이 패한 것을 알아보았다. 올린토스로 갈 것인가 포티다이아로 갈 것인가, 두 위험 가운데 어느 쪽을 고를지 몰라 망설이다가, 끝내 병력을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공간으로 모아 달려서 포티다이아로 뚫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빗발치는 화살과 창 속을 지나 방파제를 따라 바다를 건너는 일은 쉽지 않았으나, 그는 병력 대부분을 무사히 데리고 들어갔다. 잃은 수는 적었다. 그러는 동안 올린토스에 있던 포티다이아인의 지원 병력은 싸움이 시작되고 신호가 오르자 도우려고 조금 나아갔다. 올린토스는 약 60스타디온[5] 떨어져 있어 포티다이아가 보이는 곳이었다. 마케도니아 기병이 그것을 막으려 그들 앞에 대형을 짰다. 그러나 승리가 빠르게 아테네인들에게 돌아가고 신호가 내려지자 그들은 성벽 안으로 물러났고, 마케도니아 기병은 아테네인들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기병은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뒤 아테네인들은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휴전 아래 포티다이아인에게 그들의 주검을 돌려주었다. 포티다이아인과 그 동맹은 300명 가까이 죽었고, 아테네인은 자기 시민 150명과 장군 칼리아스를 잃었다.

지협 쪽 성벽에는 곧 공성 시설이 세워지고 아테네인들이 배치되었다. 팔레네 쪽 성벽에는 공성 시설이 세워지지 않았다. 지협에 수비대를 두면서 동시에 팔레네로 건너가 거기에도 시설을 세울 만큼 자기들이 강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병력이 갈린 것을 틈타 포티다이아인과 그 동맹이 자기들을 칠까 두려웠다. 그러는 동안 본국의 아테네인들은 팔레네에 공성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 뒤 자기 시민 가운데 중장보병 1,600명을 아소피오스의 아들 포르미온의 지휘 아래 내보냈다. 팔레네에 이른 그는 아피티스에 본진을 두고, 나아가면서 그 땅을 짓밟으며 짧은 행군으로 군대를 포티다이아로 이끌었다. 들에서 그를 맞으려 나서는 자가 없었으므로 그는 팔레네 쪽 성벽에도 공성 시설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포티다이아는 마침내 양쪽에서 단단히 포위되었고, 바다에서도 봉쇄에 힘을 합친 배들에 둘러싸였다. 포위가 완성된 것을 보고 아리스테우스는 펠로폰네소스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거나 그 밖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도시가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식량이 더 오래 가도록 5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바람을 기다려 배로 빠져나가라고 권했다. 남는 쪽에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 그는, 다음 방책을 취해 밖의 사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해 두려고 아테네의 경비선을 피해 빠져나갔다. 칼키디케인 사이에 머물며 그는 전쟁을 이어 갔다. 특히 세르밀리아인의 도시 근처에 매복을 두어 그들 다수를 베었고, 펠로폰네소스와 연락하며 도움을 가져올 방법을 꾸미려 애썼다. 그러는 동안 포티다이아 포위를 마친 포르미온은 그 1,600명을 칼키디케와 보티케를 짓밟는 데 썼다. 도시 몇 곳도 그의 손에 넘어갔다.

---

1. 드라크메 — 그리스의 은화 단위.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대략 1드라크메였다고 전한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2. 엘라이아티스 지구 — 테스프로티아 안의 한 지구. 펠로폰네소스의 도시국가 엘리스와는 관계가 없다.

3. 파이안 — 신에게 바치는 노래. 그리스인은 싸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4. 전령의 지팡이 — 전령임을 알리는 표지. 이것을 든 사람은 해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지팡이 없이 보냈다는 것은 정식 사절이 아니라는 뜻이며, 따라서 신변 보장을 요구할 수 없었다.

5.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3장 (제I권 제III장) — 스파르타에서 열린 펠로폰네소스 동맹 회의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이 서로에게 품은 앞선 불만의 근거는 이러했다. 코린트의 불만은 자기 식민시 포티다이아와 그 안에 있는 코린트인과 펠로폰네소스인 시민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펠로폰네소스인을 겨눈 아테네의 불만은 그들이 아테네 동맹의 일원이며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는 도시 하나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몸소 찾아와 포티다이아인 편에 서서 드러내어 아테네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전쟁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얼마간은 여전히 휴전이 이어졌다. 이 일은 아직 코린트 혼자 벌인 사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포티다이아 포위는 코린트의 방관을 끝냈다. 그 안에 자기 사람들이 있었고, 게다가 그곳이 어찌 될지 두려웠다. 코린트는 곧바로 동맹들을 스파르타로 불러 모으고 스스로 찾아가, 아테네가 조약을 깼고 펠로폰네소스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큰 소리로 규탄했다. 아이기나인은 아테네가 두려워 공식적으로는 대표를 내지 않았으나, 조약이 자기들에게 보장한 독립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은밀하게는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결코 덜 절박하지 않은 쪽임을 드러냈다. 스파르타인은 아테네의 침해를 두고 불만을 말할 만한 동맹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소집을 넓힌 뒤 통상의 민회를 열고 그들에게 발언을 청했다. 앞으로 나와 저마다 규탄을 쏟아 낸 자가 많았다. 그 가운데

메가라인은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면서, 조약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아테네 제국의 항구들과 아테네의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에 특별히 눈길을 돌리게 했다. 맨 마지막으로 코린트인이 앞으로 나왔다. 앞선 사람들이 스파르타인의 마음에 불을 지르도록 내버려 둔 다음, 이런 뜻의 연설로 뒤를 이었다.

스파르타인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국가 제도와 사회 질서에 자신이 있으므로 다른 세력을 두고 저희가 내놓는 어떤 견해든 얼마간 의심하며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의 절제가 여기서 솟아나지만, 여러분이 바깥 정치를 다룰 때 드러내는 저 꽤나 좁은 식견도 여기서 솟아납니다. 아테네가 저희에게 내리려는 타격을 두고 저희 목소리는 거듭 여러분에게 경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여러분은 저희가 전한 것이 얼마나 값있는지 수고로이 확인해 보는 대신 말하는 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에 움직인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떨어지기 전에 이 동맹들을 불러 모으는 대신, 저희가 그 아래서 쓰라림을 겪을 때까지 그 일을 미루었습니다. 이 동맹들 가운데 말할 자격이 저희에게 가장 못하지는 않습니다. 호소할 불만이 가장 크기 때문이며, 그 불만은 아테네의 폭거와 스파르타의 방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권리를 겨눈 이 공격이 어둠 속에서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을 깨우쳐 드리는 것이 저희 의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예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이에게는, 특히 저희 동맹에게는 그것이 꾸며지고 있으며, 침략자가 전쟁의 시각을 겨누어 오래도록 준비해 온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긴 연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묻겠습니다. 그들이 코르키라를 가로채 저희 뜻을 거슬러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포티다이아 포위는 무슨 뜻입니까? 포티다이아는 트라키아 방면의

도시들을 겨눈 어떤 작전에도 더없이 편리하게 놓여 있고, 코르키라는 펠로폰네소스인에게 매우 큰 해군을 보태 주었을 곳입니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1] 뒤에 그들이 제 도시에 성벽을 쌓도록, 그 뒤에는 장성을 세우도록 처음으로 허락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들이 노예로 삼은 자들뿐 아니라 여태 여러분의 동맹이던 자들까지 언제나 자유에서 떼어 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 민족을 굴복시킨 참된 주인은 손을 직접 댄 자라기보다, 그것을 막을 수단을 가지고도 그대로 두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그리스의 해방자라는 영광을 바라는 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모였습니다.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고, 지금도 저희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직 따져야 할 것은 저희가 당한 일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저희를 지킬 수단입니다. 저희의 망설임에 맞세울 무르익은 계획을 갖춘 침략자들은 이미 위협을 내던지고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테네인이 어떤 길로 다니는지, 그들이 조금씩 이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딘 눈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아테네가 얼마간 자신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보면서도 끼어들 마음이 없음을 알게 될 때 그 전진이 받을 추진력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파르타인 여러분, 모든 그리스인 가운데 오직 여러분만이 움직이지 않으며,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할 듯이 보임으로써 자기를 지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적의 힘을 갓 자란 때에 으깨는 대신 그것이 처음의 두 배가 되어 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러분을 믿을 만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우에는 세상이 사실보다 많이 말한 것이 아닌지 저희는 걱정합니다. 저희 자신이 아는 일입니다만, 메디아인은 그 이름에 값할 만한 여러분의 병력이 맞으러 나서는 일 없이 땅끝에서 펠로폰네소스까지 올 시간을 넉넉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데 있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어떻든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아테네를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테네를 상대로 여러분은 치고 나가기보다 막아 서기를 좋아하고, 그가 처음보다 훨씬 강해질 때까지 싸움을 미루어 그것을 운에 맡기는 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민족이 부딪혀 부서진 암초는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저희 적 아테네가 저희를 거듭 멸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보호보다 그의 실책에 빚진 바가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로 여러분에게 걸었던 기대가 이미 여러 사람을 망쳐 놓았고, 그 믿음이 그들을 준비 없이 지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 항의의 말을 적의의 말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벗에게 항의하고, 규탄은 자기를 해친 원수에게 아껴 둡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웃의 잘못을 짚어 낼 권리가 누구에게도 못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두 나라의 성격 사이에 놓인 그 큰 대비를 헤아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한 여러분은 그 대비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인에게서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될지, 그가 여러분과 얼마나 넓게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지 여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은 새로운 것에 빠져 있고, 그들의 계획은 착상에서나 실행에서나 똑같이 빠릅니다. 여러분은 손에 쥔 것을 지키는 데 타고난 재주가 있으나 새로 지어내는 힘은 조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일 때에도 결코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제 힘을 넘어서 일을 벌이고 제 판단을 넘어서 대담하며 위험 속에서 낙관합니다. 여러분은 제 힘이 허락하는 것보다 적게 시도하고 제 판단이 옳다고 한 것조차 믿지 않으며 위험에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습관입니다. 나아가 그들 쪽에는 민첩함이 있고 여러분 쪽에는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는 때가 없고

여러분은 집을 떠나는 때가 없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 있음으로써 제 소유를 넓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앞으로 나감으로써 뒤에 남긴 것을 위태롭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밀어붙이는 데 빠르고 좌절에서 물러나는 데 느립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제 몸을 아낌없이 쓰고, 나라에 쓰일 것이므로 제 지력을 시샘하듯 아껴 둡니다. 그들에게는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 뚜렷한 손실이고 성공한 사업이 상대적인 실패입니다. 하려던 일이 어긋나 생긴 빈자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금세 메워집니다.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빠르기로 바라던 것을 손에 넣은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평생 내내 고생과 위험 속에서 애써 나아가며, 늘 얻는 일에 매여 누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휴일이란 그때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고, 그들에게는 고된 일에 매이는 것이 조용한 삶의 평온보다 덜한 불행입니다. 그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그리자면, 자기도 쉬지 않고 남도 쉬게 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해도 참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대 아테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스파르타인 여러분은 여전히 미루며, 평화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곳은 제 힘을 옳게 쓰는 데 마음을 쏟는 것에 못지않게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 보이는 자들의 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는 공정한 처신은 이런 원칙에 서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다면, 남이 자기를 해치는 것을 막으려고 제 운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으로는 여러분과 같은 이웃을 두고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보여 드린 대로, 여러분의 관습이 그들의 것에 견주어 낡았습니다. 기술에서 그러하듯 정치에서도 개량이 언제나 이긴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공동체에게는 굳어진 관행이 가장 좋을

수 있으나, 끊임없이 움직여야 할 필요에는 끊임없는 방법의 개량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방대한 경험이 새로움의 길에서 그를 여러분보다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미루는 버릇을 끝내십시오. 우선은 약속한 대로 아티카를 서둘러 침공해 여러분의 동맹들을, 특히 포티다이아를 도우십시오. 벗과 같은 핏줄을 그들의 가장 독한 원수에게 내주어 저희 나머지를 절망 속에서 다른 동맹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그렇게 걸음을 옮기더라도 저희의 맹세를 받은 신들도, 그 맹세를 지켜본 사람들도 저희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약을 깬 죄는 버림받아 새로운 관계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 자들에게 씌울 것이 아니라, 제 동맹을 돕지 않은 세력에게 씌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저희는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며, 저희가 이만큼 뜻이 맞는 동맹을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옳은 길을 고르시고, 여러분의 패권 아래 있는 펠로폰네소스가 여러분 조상들의 패권 아래서 누렸던 명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코린트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마침 다른 일로 스파르타에 와 있던 아테네 사절들이 있었다. 연설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이 스파르타인 앞에 나서야 한다고 여겼다. 도시들이 자기들에게 씌운 혐의 가운데 어느 것도 변호할 뜻은 없었고, 이 일은 서둘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을 전체를 아우르는 눈으로 보여 주려는 뜻이었다. 아테네의 큰 힘에 눈을 돌리게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기억을 새로 일깨우며 젊은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자기들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전쟁보다 평온을 고르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파르타인에게 가서, 이의가 없다면 자기들도 민회에서 말하고 싶다고 했다. 스파르타인은

앞으로 나오라고 청하는 것으로 답했다. 아테네인들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사명의 목적은 여러분의 동맹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라가 저희를 보낸 그 일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겨누어 터져 나오는 아우성이 어찌나 격한지, 그것에 밀려 앞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도시들의 규탄과 맞서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여러분은 저희나 그들이 변론을 올릴 심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맹들의 설득에 너무 쉽게 넘어가 중대한 일에서 잘못된 길을 고르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발의 전부를 다시 살피는 자리에서 저희가 가진 것에 정당한 권리가 있고 저희 나라가 헤아려 달라 할 것이 있음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먼 옛일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전승의 목소리에 호소할 수는 있어도 여기 듣는 분들의 경험에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전쟁과 그 뒤의 역사는 짚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시 꺼내는 일이 저희로서도 꽤 지겹기는 합니다. 그 전쟁에서 저희가 한 일을 보면, 저희는 몇 가지 이득을 얻기 위해 큰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여러분은 그 단단한 결실에서 제 몫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이 저희에게 가져다줄 좋은 것에서 저희 몫을 모두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의를 물러 달라 빌기보다 적의에 맞서 증언하기 위해서이며, 여러분이 어리석은 조언에 끌려 아테네와 싸움에 들어간다면 그가 어떤 상대로 드러날지 보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라톤에서 저희가 맨 앞에 섰고 홀로 이민족과 맞섰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왔을 때 뭍에서는 그를 당해 낼 수 없어 저희는 온 백성과 함께 배에 올라 살라미스의 싸움에 함께했습니다. 이로써 그가 펠로폰네소스의 나라들을 하나씩 집어삼키고 함대로 짓밟는 일이 막혔습니다. 그의 배가 그렇게 많았으니

자기를 지키려는 어떤 연합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침략자 자신이 내놓았습니다. 바다에서 패한 그는 제 힘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여기고 군대의 대부분을 데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물러갔습니다.

그 일의 결말은 그러했고, 그리스의 명운이 그리스의 함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에 저희는 매우 요긴한 세 가지를 보탰습니다. 곧 가장 많은 배와 가장 뛰어난 사령관과 가장 망설임 없는 애국심입니다. 저희가 낸 배는 전체 400척의 3분의 2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사령관은 테미스토클레스였고, 저희 명운을 건졌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 해협의 싸움이 벌어진 것은 주로 그를 통해서였습니다. 실로 여러분이 그를 어떤 외국 손님에게도 베푼 적 없는 예우로 맞아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편 담대한 애국심을 두고는 저희에게 견줄 자가 없었습니다. 뭍에서 저희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고, 저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가 모두 이미 굴복한 것을 보면서도 저희는 이런 기백을 품었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재산을 내던진 뒤에도 (동맹의 나머지를 버리거나 흩어져 저희 힘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는 대신) 배에 몸을 실어 위험을 맞으며, 여러분이 저희를 돕지 않은 것을 원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받은 만큼을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싸워 지킬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온 도시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집으로 가득했고,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누릴 전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온 것은 저희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어떻든 저희에게 잃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닌 도시를 뒤에 남겨 두고, 절망적인 희망 속에만 존재하는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그렇게 여러분의 구원과 저희의 구원에 온전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들을 따라 했다면, 영토를 걱정하는 마음에 밀려 여러분이 오기 전에 메디아인에게 복종을 내주었거나 저희의 파멸에 기백이 꺾여 배에 오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해군이 열세였으니 해전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목적은 평화롭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스파르타인 여러분, 저희가 그 위기에서 보인 애국심으로도 저희 결정의 지혜로도 저희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받는 이 극심한 미움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으며, 적어도 저희 제국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제국을 얻은 것은 폭력을 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민족과의 전쟁을 끝까지 밀고 갈 뜻이 없었기 때문이고, 동맹들이 스스로 저희에게 붙어 지휘를 맡아 달라고 자청해 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국을 지금의 높이까지 밀어 올리도록 처음에 저희를 몰아세운 것은 일의 성질 자체였습니다. 두려움이 저희의 으뜸 동기였고, 명예와 이익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모두가 저희를 미워하게 되었을 때, 이미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자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한때의 벗이기를 그치고 의심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제국을 내놓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떠나는 자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넘어갈 터였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험이 걸린 일에서 제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를 한다고 어떤 백성을 두고 다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든 스파르타인 여러분은 제 패권을 써서 펠로폰네소스의 나라들을 여러분 마음에 맞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한 그 시기에 여러분이 일을 끝까지 버텨 내고 지휘하는 자리에서 미움을 샀더라면, 여러분도 동맹들에게 똑같이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강한 통치와 여러분 자신의 위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주어진 제국을 저희가 받아들인 일, 그리고 두려움과 명예와 이익이라는 가장 강한 세 동기의

압력 아래 그것을 내놓기를 거절한 일은 그리 놀라운 행동도 아니고 인류의 통례에 어긋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 선례를 세운 것도 저희가 아닙니다. 약한 쪽이 강한 쪽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법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저희가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믿었고,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저희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익의 계산이 여러분에게 정의를 외치게 만든 지금에 이르러서야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정의라는 고려는, 힘으로 무엇을 얻을 기회를 쥐었을 때 제 야심을 막으려고 그것을 끌어낸 사람이 여태 아무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대로 남을 다스리게 되었더라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의롭게 처신하는 자라면 누구나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저희의 절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길은 저희 자리에 놓인 다른 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공정함마저 매우 부당하게도 저희에게 인정 대신 규탄을 안겨 주었습니다. 동맹들과의 계약 재판[2]에서 저희가 제 권리를 눌러 낮추고 그 재판을 아테네에서 공평한 법으로 판결하게 한 것이, 저희에게 송사를 좋아한다는 평판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덜한 절제로 속국을 다루는 다른 제국 세력들에게는 왜 이 책망이 씌워지지 않는지 아무도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힘을 쓸 수 있는 곳에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속국들은 저희와 동등한 자로 어울리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 제 정의감에 부딪히는 어떤 패소든 그것이 법의 판결에서 나왔든 저희 제국이 저희에게 주는 힘에서 나왔든, 제 소유의 대부분을 그대로 지니도록 허락받은 것에 고마워하기를 잊게 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법을 내던지고 제 탐욕을 드러내어 채웠을 경우보다 일부를 빼앗기는 것에 더 분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다면 약한 쪽이 강한 쪽에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다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폭력에 따른 침해보다

법에 따른 침해에 더 크게 일어나는 듯합니다. 앞의 것은 동등한 자에게 속는 것처럼 보이고, 뒤의 것은 위에 있는 자에게 강요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그들은 메디아인에게서 이보다 훨씬 나쁜 대접을 받고도 그것을 어떻게든 참아 냈는데, 저희의 지배는 가혹하다고 여깁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정복당한 자에게는 현재가 언제나 무겁게 내리누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뒤엎고 저희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오늘 여러분의 정책이 메디아인에 맞서 지휘하던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이 보여 준 표본과 조금이라도 들어맞는다면, 저희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입혀 준 그 인기를 여러분은 금세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국 생활만 남들의 것과 어울릴 수 없는 규범과 제도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여러분의 시민들은 그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고 나머지 그리스가 인정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결심을 세우는 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남들의 의견과 불만에 설득되어 여러분 자신에게 화를 불러들이지 말고, 전쟁에 발을 들이기 전에 전쟁에서 우연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헤아리십시오. 전쟁이 이어지면 그것은 대체로 운의 일이 됩니다. 저희도 여러분도 그 운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그 결말은 어둠 속에서 걸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들어갈 때 흔히 하는 잘못은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것, 곧 먼저 움직이고 나서 재앙이 닥친 뒤에 일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결코 그렇게 잘못 이끌리지 않았고, 저희가 보는 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옳게 고르는 길이 아직 저희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는 동안, 저희는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조약을 깨거나 여러분의 맹세를 어기지 말고, 저희 사이의 다툼을 저희가 합의한 바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맹세를 들은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겠으며, 여러분이 적대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고르든 그것을 물리치는 데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겠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인을 겨눈 동맹들의 불만과 아테네인 쪽의 소견을 다 듣고 나서 모두를 물러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앞에 놓인 문제를 의논했다. 다수의 의견은 모두 같은 결론으로 갔다. 아테네인은 드러난 침략자이며 전쟁을 곧바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혜롭고 절제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함께 지닌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가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스파르타인 여러분, 저는 여러 전쟁을 겪지 않고 이만큼 오래 살아온 것이 아니며,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어서, 또는 전쟁이 이롭고 안전하다고 믿어서 전쟁을 갈망하는 저 흔한 불행에 빠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논의하는 이 전쟁은, 일을 차분히 헤아려 보면 가장 큰 규모의 전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인과 이웃들을 상대로 싸울 때는 우리 힘이 저들과 같은 성질이고, 여러 지점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땅에 살고, 바다에 남달리 익숙하며, 그 밖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백성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다릅니다. 사사로운 재산과 공적인 재산, 배와 말과 중장보병, 그리고 그리스의 어느 곳도 견줄 수 없는 인구, 마지막으로 조공을 바치는 여러 동맹까지 가진 백성입니다. 그런 싸움을 경솔하게 시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 없이 그 안으로 달려들 만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배입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열세입니다. 훈련해서 저들과 맞먹게 되려 한다면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우리 돈입니까? 그 점에서는 모자람이 훨씬 큽니다. 국고에도 없고, 사사로운 재산에서 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장보병과 인구에서 우리가 앞선다는 데에는 자신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 힘으로 저들의 땅을

침공하고 짓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인은 제국 안에 다른 땅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을 바다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또 저들의 동맹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켜 보려 한다면, 그 대부분이 섬사람이니 함대로 그들을 받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저들을 이기든가 저들의 해군을 먹이는 세수를 끊어 놓든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것은 재앙 말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명예는 계속 싸우는 데 걸려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다툼을 시작했다는 여론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들의 땅을 짓밟아 전쟁이 빠르게 끝나리라는 저 치명적인 희망에 우리가 결코 들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테네인의 기백이 제 땅의 종이 되거나 아테네인의 경험이 전쟁에 겁을 먹는 일은 그만큼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여러분의 동맹을 해치는 것을 참고 넘기라거나 저들의 음모를 벗겨 내지 말라고, 그렇게 무정하게 굴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곧바로 무기를 들지는 말고, 사람을 보내 전쟁을 너무 내비치지도 않고 굴복을 너무 내비치지도 않는 어조로 항의하며,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 준비를 완전하게 다지는 데 쓰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첫째로 동맹을 얻는 것입니다. 해군에서든 재정에서든 우리 힘에 보탬이 되기만 한다면 그리스인이든 이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인이든 이민족이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까닭은, 우리처럼 아테네인의 계획에 겨눠진 모든 자에게는 그런 보탬에 따르는 오명이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법으로 걷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본국의 자원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사절의 말을 듣는다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두세 해가 지난 뒤 우리 처지는 실질적으로 튼튼해져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옳다고 여긴다면 저들을

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쯤에는 우리 준비를 눈으로 보고 그에 못지않게 뜻이 분명한 말까지 뒤를 받치는 터라, 저들의 땅이 아직 손상되지 않고 저들의 의논이 아직 망가지지 않은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기울 수 있는 동안에 저들이 굴복할 마음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들의 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길은 그것을 여러분 손에 쥔 인질로 보는 것이며, 잘 가꾸어져 있을수록 더 값있는 인질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그것을 아껴 두고, 저들을 절망으로 몰아 상대하기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없는 터에 동맹들의 불만에 떠밀려 우리가 그 땅을 짓밟게 된다면, 펠로폰네소스에 깊은 수치와 깊은 곤경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불만이든 개인의 불만이든 맞추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의 이익을 위해 연합이 벌인 전쟁, 그 걸음을 미리 내다볼 방도가 없는 전쟁은 명예롭게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동맹이 한 도시를 치기 전에 걸음을 멈추는 것을 누구도 비겁함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테네인에게도 우리만큼 많은 동맹이 있고 그 동맹들은 조공을 바치며, 전쟁은 무기의 일이라기보다 돈의 일이어서 무기를 쓸 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뭍의 세력과 바다의 세력이 겨루는 싸움에서는 이 말이 어느 때보다 더 맞습니다. 그러니 먼저 돈을 마련하고,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동맹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시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책임을 가장 크게 나누어 질 것이 우리이니, 그것을 차분히 따져 볼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느림과 미루는 버릇, 저들의 비판이 우리 성격에서 가장 크게 두들기는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그 시작을 서둘러서 그 끝을 미루기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유롭고 이름난 도시가 온 시대에 걸쳐 우리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규탄하는 그 성질은 실은 지혜로운 절제일 뿐입니다. 그것을 지녔기에 우리만이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고 불행에 남들보다 덜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이 그르다고 한 위험으로 우리를 부추기는 응원 소리를 듣는 즐거움에 휩쓸리지 않으며,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규탄으로 우리를 격발하려는 시도에 조금도 더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강하면서 지혜롭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질서 감각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강한 까닭은 염치가 절제와 가장 깊이 닿아 있고 용기가 염치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까닭은, 법을 업신여길 만큼 많이 배우지 않은 교육을 받고 법을 어길 수 없을 만큼 엄한 자제 속에서 자라며,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밝지 않도록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론으로는 적의 계획을 그럴듯하게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성공적으로 그것을 치지 못하는 그런 지식 말입니다. 대신 우리는 적의 계략이 우리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리고 운의 변덕은 계산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여기도록 배웁니다. 실제로 우리는 적을 상대할 준비를 언제나 그의 계획이 훌륭하다는 가정 위에 세웁니다. 실로 우리의 희망을 그의 실책에 대한 믿음에 두지 않고 우리 대비가 튼튼하다는 것에 두는 것이 옳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믿지 말고, 가장 엄한 학교에서 길러진 자에게 우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이로움을 본 이 관행들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목숨과 재산과 많은 도시가 걸려 있고 명예가 깊이 얽힌 문제를 하루의 짧은 시간에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되며, 차분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아테네인에 대해서는, 포티다이아 문제로 사람을 보내십시오. 동맹들이 당했다고 하는 침해 문제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들이 법으로 만족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내놓는 자를 죄인처럼 치고 나가는 일은 법이 금합니다. 그러는 동안 전쟁 준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결정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고 여러분의 상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아르키다모스는 그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해의 감독관(에포로스)[3] 가운데 한 사람인 스테넬라이다스가 앞으로 나와 스파르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인의 긴 연설은 제가 알아들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칭송하는 말을 많이 했으나, 우리 동맹과 펠로폰네소스를 해치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때 메디아인에 맞서 훌륭하게 처신했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쁘게 처신한다면, 훌륭한 자이기를 그친 것과 나쁜 자가 된 것을 두고 두 배로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들이며, 우리가 지혜롭다면 동맹이 당한 침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을 것이고 오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자들을 돕는 의무를 내일로 미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많은 돈과 배와 말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좋은 동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테네인에게 내주어서는 안 되고, 송사와 말로 이 일을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를 입은 것은 결코 말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 강력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당한 처지에서 신중히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린다는 말을 듣지 않기로 합시다. 긴 숙고는 오히려 불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스파르타인 여러분, 스파르타의 명예가 요구하는 대로 전쟁에 표를 던지십시오. 아테네가 더 커지는 것을 허락하지도 말고 우리 동맹을 파멸에 내주지도 말며, 신들과 함께 침략자들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감독관으로서 스파르타인 민회에 스스로 그 문제를 물었다. 그는 어느 쪽 함성이 더 큰지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스파르타인은 표결이 아니라 함성으로 결정을 내렸다.) 실은 그들이 제 의견을 드러내어 밝히게 만들고 그리하여 전쟁을 향한 열의를 키우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약이 깨졌고 아테네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스파르타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저기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자리를 가리켰다. "반대 의견인 사람은 모두 저기로 가십시오." 이에 그들은 일어나 갈라섰고, 조약이 깨졌다고 본 쪽이 뚜렷한 다수였다. 동맹들을 불러 모은 그들은, 아테네가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이 자기들의 의견이지만 모든 동맹을 소집해 표결에 올리고 싶다고 알렸다. 전쟁을 하기로 정한다면 공동의 결의로 하려는 뜻이었다. 이렇게 뜻을 이룬 대표들은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테네 사절들은 제 사명의 목적을 마친 뒤 조금 늦게 돌아갔다. 조약이 깨졌다고 판정한 이 민회의 결정은 에우보이아 사건 뒤에 맺은 30년 휴전의 제14년에 내려졌다.

스파르타인들이 조약이 깨졌고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표를 던진 것은 동맹들의 논변에 설득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리스의 대부분이 이미 아테네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아테네인의 힘이 자라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

1. 페르시아 전쟁 — 원문은 Median War다. 그리스인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에 앞선 메디아를 뭉뚱그려 '메디아'라 불렀으므로,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기원전 490년과 480년의 페르시아 침공이다. 같은 이유로 본문의 '메디아인' 역시 페르시아 쪽 군세와 그 왕을 뜻한다.

2. 계약 재판 — 아테네 시민과 동맹 도시 시민 사이에 계약을 두고 생긴 분쟁을 다루는 재판. 아테네는 이 재판을 아테네 법정에서 공평한 법으로 판결하게 했고, 연설자는 그것이 제국의 특권을 스스로 눌러 낮춘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3. 에포로스 — 스파르타의 최고 정무관. 매년 5명을 뽑았고 왕을 견제하는 권한까지 가졌다. 원문 ephor를 옮긴 것으로, 이 번역에서는 감독관(에포로스)으로 적는다.

4장 (제I권 제IV장) — 페르시아 전쟁의 끝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까지 — 패권에서 제국으로

아테네가 그 세력을 키우게 된 사정이 마련된 경위는 이러했다. 메디아인이 그리스인에게 바다와 육지에서 패해 유럽에서 물러간 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배를 타고 미칼레로 달아난 자들이 섬멸된 뒤, 미칼레에서 그리스인을 지휘한 스파르타 왕 레오티키데스는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동맹들과 함께 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아테네인과, 이때 페르시아 왕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오니아와 헬레스폰토스의 동맹들은 남아서 여전히 메디아인이 쥐고 있던 세스토스를 포위했다. 성 앞에서 겨울을 보낸 뒤 이방인들이 그곳을 비우자 그들은 그 도시의 주인이 되었고, 그런 다음 헬레스폰토스를 떠나 각기 자기 도시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 사람들은 이방인이 자기 나라에서 떠나자마자 맡겨 두었던 곳에서 아이들과 아내들과 남겨 두었던 재산을 곧바로 옮겨 오고 도시와 성벽을 다시 세울 준비를 했다. 성벽 둘레는 띄엄띄엄 몇 군데만 서 있었고 집도 대부분 허물어져 있었으며, 페르시아 귀족들이 숙소로 쓴 몇 채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린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로 사절을 보냈다. 그들 자신도 아테네든 다른 어느 도시든 성벽을 갖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나, 여기서 그들을 움직인 것은 주로 동맹들의 부추김이었다. 동맹들은 아테네가 새로 얻은 해군의 힘과 메디아인과의 전쟁에서 보인 용맹에 놀라 있었던 것이다. 사절들은 아테네에게 스스로 성벽을 쌓는 일을 그만두라고, 그뿐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밖 도시들에 아직 온전히 남아 있는 성벽을 허무는 일에 함께하라고 청했다. 그 권고의 참뜻, 곧 그 안에 담긴 아테네인들에 대한 의심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내세운 이유는 이러했다. 이방인이 다시 침입해 올 경우 지금 테베에서 그랬듯 작전의 근거지로 쓸 만한 견고한 자리를 어디서도 얻지 못하게 하자는 것, 그리고 물러나는 데도 치는 데도 펠로폰네소스 하나면 모두에게 넉넉한 근거지가 된다는 것이었다. 스파르타인들이 이렇게 말하자 아테네인들은 테미스토클레스의 권고에 따라 그들을 곧바로 돌려보냈고, 그 문제를 논의할 사절을 스파르타로 보내겠다는 답을 주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자기를 서둘러 스파르타로 보내되 동료 사절들은 뽑아 놓고도 곧바로 보내지 말고 성벽이 방어가 가능한 높이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테네인들에게 일렀다. 그동안 도시의 모든 사람이, 아테네인 자신과 그 아내와 아이들이 성벽 쌓는 일에 매달려야 하며, 사사로운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그 일에 쓸 만한 건물이라면 하나도 아끼지 말고 모두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지시하고 그곳 일은 다른 무엇이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덧붙인 뒤 그는 떠났다. 스파르타에 이른 그는 당국에 면담을 청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정부 사람 누군가가 왜 민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는 무슨 일에 걸려 아테네에 붙들린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래도 곧 올 줄로 알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처음에 스파르타인들은 테미스토클레스와의 친분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어느 높이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아 분명히 말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를

알아차린 그는, 소문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니 믿을 것이 아니라고, 스파르타에서 평판 있는 사람 몇을 보내 살펴보게 하고 그 보고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 말대로 사람들을 보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사람들에 관해 아테네인들에게 몰래 전갈을 보내, 드러나게 억류하지는 않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붙들어 두고 자기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놓아주지 말라고 했다. 리시클레스의 아들 아브로니코스와 리시마코스의 아들 아리스테이데스, 곧 그의 동료들이 성벽이 충분히 올라갔다는 소식과 함께 이미 그에게 와 있었으므로, 스파르타인들이 사실을 알고 나면 자기들을 놓아주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그 전갈대로 사절들을 붙들어 두었고, 테미스토클레스는 스파르타인들 앞에 나아가 마침내 드러내어 말했다. 아테네는 이제 그 주민을 지킬 만큼 성벽을 갖추었으며, 앞으로 스파르타인이나 그 동맹이 아테네에 사절을 보내려 한다면 자기들이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제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함께 가릴 줄 아는 이들임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테네인들이 도시를 버리고 배에 오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반대로 스파르타인들과 함께 의논한 자리에서는 어디서나 판단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이제 자기들의 도시가 성벽을 갖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그것이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그리스 동맹 전체에도 더 이로울 것이라고 했다. 군사력이 대등하지 않으면 공동의 이익을 두고 대등하거나 공정한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동맹에 속한 모든 나라가 성벽 없이 지내든지 아니면 이번 걸음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는 덧붙였다.

스파르타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테네인들에게 노여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그 사절은 방해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아테네 정부의

의논을 이끌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그때 스파르타 시민[1]들의 마음은 아테네가 메디아와의 싸움에서 보인 애국심 때문에 아테네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래도 바라던 일이 어그러진 것이 속으로 언짢지 않을 수 없었다. 양쪽 나라의 사절들은 불평 없이 본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도시에 성벽을 둘렀다. 그 구조물에는 오늘날까지도 급하게 지은 흔적이 남아 있다. 기초는 온갖 종류의 돌로 놓였고, 어떤 자리에서는 다듬거나 맞추지도 않은 채 여러 사람의 손이 실어 온 순서 그대로 놓였으며, 무덤에서 뽑아 온 기둥과 조각된 돌도 다른 돌들과 함께 끼워 넣었다. 도시의 경계를 둘레 어느 쪽으로든 넓혔으므로 그 급한 중에 예외 없이 무엇에나 손을 댔던 것이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또한 전에 자기가 아르콘[2]으로 재임한 해에 시작해 둔 피레우스의 성벽을 마무리하도록 그들을 설득했다. 천연의 항구 셋을 가진 그 자리의 뛰어남도, 아테네인들이 바다의 백성이 됨으로써 세력을 얻는 데서 크게 앞서 나가리라는 것도 그를 움직인 이유였다. 바다를 붙잡으라고 그들에게 감히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그였고, 그는 곧바로 제국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피레우스를 둘러 지금도 알아볼 수 있는 그 두께의 성벽을 쌓은 것 또한 그의 권고에 따른 일이었는데, 돌은 서로 마주 오는 수레 두 대가 실어 올렸다. 그렇게 세운 두 겹 사이에는 잡석도 회반죽도 없이 네모지게 떠서 서로 맞춘 큰 돌만 있었고, 바깥쪽에서 쇠와 납으로 서로를 물려 두었다. 그가 뜻한 높이의 절반쯤이 완성되었다. 그 크기와 두께로 적의 공격을 막아 낸다는 생각이었고, 그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로 이루어진 적은 수비대만으로도 그 성벽을 넉넉히 지킬 수 있고 나머지는 함대에 쓸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함대였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그는 왕의 군대에게 바닷길이 육로보다 쉽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또 그는 위쪽 도시보다 피레우스가 더 값지다고 여겼으며, 실제로 육지에서 몰릴 날이 오면 피레우스로 내려가 함대로 온 세상에 맞서라고 아테네인들에게 늘 권했다. 그러므로 아테네인들은 그렇게 성벽을 완성했고, 메디아인이 물러간 직후에 다른 건물들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클레옴브로토스의 아들 파우사니아스가 그리스인의 총사령관으로 펠로폰네소스의 함선 20척과 함께 스파르타에서 파견되었다. 아테네인들도 함선 30척으로 그와 함께 나아갔고 다른 동맹도 여럿 따랐다. 그들은 키프로스로 원정해 섬의 대부분을 굴복시켰고, 이어 메디아인의 손에 있던 비잔티움을 쳐서 항복시켰다. 이 일은 스파르타 시민들이 아직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일어났다. 그러나 파우사니아스의 난폭함은 이미 그리스인들에게, 특히 이오니아인들과 이제 막 해방된 주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들은 아테네인들에게 찾아가 같은 핏줄로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파우사니아스 쪽에서 나오는 어떤 난폭한 처사도 막아 달라고 청했다. 아테네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은 무엇이든 억누르며 그 밖의 모든 것도 자기들의 이익에 맞다고 보이는 대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는 사이 스파르타인들은 자기들에게 들어온 보고를 조사하려고 파우사니아스를 불러들였다. 스파르타에 오는 그리스인들이 그를 두고 여러 가지 무거운 혐의를 들고 왔으며, 겉으로 보기에도 그에게는 장군의 태도보다 참주를 본뜬 티가 더 짙었다. 마침 그의 소환은, 그가 불러일으킨 미움 때문에 동맹들이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병사들만 빼고 그를 버리고 아테네인 편에 서게 된 바로 그때에 이르렀다. 스파르타에 이른 그는 사사로이 저지른 횡포로 책망을 받았으나 가장 무거운 죄목에서는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아 둘 것이 있는데, 메디아 쪽에 붙었다는 혐의가 그에게 걸린 주된

죄목 가운데 하나였고 겉으로 보기에 근거도 가장 튼튼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그를 지휘 자리에 되돌리지 않고 도르키스와 다른 몇 사람을 적은 병력과 함께 내보냈는데, 이들은 동맹이 더는 자기들에게 패권을 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알아차린 그들은 떠났고, 스파르타인들은 그 뒤를 이을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나가는 자들이 파우사니아스에게서 보인 것과 같은 타락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웠고, 게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손을 떼고 싶었으며, 아테네인들이 그 자리를 맡을 만하고 그때로서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파우사니아스에 대한 미움 때문에 동맹들이 스스로 넘긴 패권을 그렇게 이어받은 아테네인들은 어느 도시가 이방인을 상대하는 데 돈을 내고 어느 도시가 배를 낼지 정했으며, 왕의 땅을 짓밟아 자기들이 당한 것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내세운 목적이었다. 아테네인들이 '그리스 재무관'이라는 직책을 처음 세운 것이 이때였다. 이 관리들이 공납을 받았는데, 내는 돈을 그렇게 불렀다. 공납은 처음에 460탈란톤[3]으로 정해졌다. 공동의 금고는 델로스에 두었고 회의는 신전에서 열렸다. 그들의 패권은 공동 회의의 결의에 따라 움직이는 독립된 동맹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패권은 페르시아 전쟁과 지금의 전쟁 사이의 기간에 이방인을 상대로, 자기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동맹을 상대로, 그리고 여러 계기에 부딪치게 된 펠로폰네소스 세력을 상대로 벌인 다음과 같은 전쟁과 통치의 일들로 그 성격이 드러났다. 내가 이 일들을 적고 이렇게 본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릅쓰는 까닭은, 이 대목의 역사를 앞선 사람들이 모두 빼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페르시아 전쟁 이전의 그리스 역사나 페르시아 전쟁 자체에만 머물렀다. 헬라니코스가 자기 아테네 역사에서 이 일들을 다룬 것은 사실이나, 그는 다소 간략하고 연대가

정확하지 않다. 게다가 이 일들의 역사 안에는 아테네 제국이 어떻게 커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먼저 아테네인들은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의 지휘 아래 스트리몬 강의 에이온을 메디아인에게서 포위해 빼앗고 그 주민을 노예로 삼았다. 다음으로 그들은 돌로피아 주민이 사는 에게해의 섬 스키로스를 쳐서 주민을 노예로 삼고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았다. 이어 카리스토스를 상대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에우보이아의 나머지는 중립을 지켰고 전쟁은 조건을 붙인 항복으로 끝났다. 그 뒤 낙소스가 동맹에서 빠져나가 전쟁이 일어났고, 낙소스는 포위를 겪은 뒤 돌아와야 했다. 동맹 도시를 굴복시켜 약정을 깨뜨린 첫 사례가 이것이었으며, 나머지 도시들도 사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전례를 뒤따랐다. 떨어져 나간 온갖 이유 가운데 공납과 함선의 체납, 그리고 복무 불이행에 얽힌 것이 으뜸이었다. 아테네인들이 매우 엄하고 가차 없이 요구했으며, 꾸준한 노역에 익숙하지도 않고 실은 그럴 뜻도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의 고삐를 조여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다른 몇 가지 점에서도 아테네인들은 처음에 그랬던 그 인기 있는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맹과 대등한 처지로 함께 출정하지도 않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를 다시 굴복시키는 일도 쉬웠다. 이는 동맹들 자신의 탓이었다. 복무를 면하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이 자기 몫의 비용을 배 대신 돈으로 내기로 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을 피했던 것이다. 그렇게 아테네는 그들이 낸 자금으로 해군을 키웠고, 반란을 일으키면 그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물자도 경험도 없었다.

다음은 팜필리아의 에우리메돈 강에서 아테네인과 그 동맹이 메디아인을 상대로 벌인 육지와 바다의 싸움이다. 이때 아테네인들은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의 지휘 아래 같은 날 두 싸움을 다 이겼고, 함선 200척으로 이루어진 페니키아 함대를 모두 붙잡아 부수었다. 얼마 뒤

타소스인이 떨어져 나갔는데, 트라키아 건너편 해안의 시장과 자기들이 가진 광산을 둘러싼 다툼이 그 원인이었다. 아테네인들은 함대를 이끌고 타소스로 가서 그들을 바다에서 이기고 섬에 상륙했다. 같은 무렵 그들은 자기 시민과 동맹에서 정착민 1만 명을 보내, 그때는 엔네아 호도이 곧 '아홉 길'이라 불리고 지금은 암피폴리스라 불리는 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그들은 에도니인에게서 엔네아 호도이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으나, 트라키아 내륙으로 나아가다가 에도니인의 도시 드라베스코스에서 트라키아인의 집결한 병력에게 전멸했다. 트라키아인들은 엔네아 호도이에 정착하는 것을 적대 행위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들에서 패하고 포위를 겪던 타소스인은 스파르타에 호소해 아티카를 침입하여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청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또 그럴 뜻이었으나, 지진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헬롯[4]과 페리오이코이[5] 가운데 투리아인과 아이타이아인이 이토메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헬롯은 대부분 옛날에 노예가 된 메세니아인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그들 전부가 메세니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스파르타인들이 이토메의 반란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타소스인은 포위 3년째에 성벽을 허물고 배를 내놓고 요구된 돈을 당장 치르고 앞으로 공납을 내며 대륙의 소유지를 광산과 함께 포기하기로 하여 아테네인들에게서 조건을 얻어 냈다.

한편 스파르타인들은 이토메의 반란자들을 상대로 한 전쟁이 오래 갈 듯하자 동맹들의 도움을 청했고 특히 아테네인들을 불렀는데, 아테네인들은 키몬의 지휘 아래 적지 않은 병력을 이끌고 왔다. 이렇게 다급히 부른 이유는 그들이 공성에 능하다는 평판에 있었다. 오래 끈 포위가 스파르타인들에게 자기들이 그 기술에 서투르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들이쳐서 그곳을 빼앗았을 것이다.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 사이의 첫 공개된 불화가 이 원정에서 나왔다. 들이쳐도 그곳을 빼앗지 못하자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인들의 진취적이고 변혁을 좋아하는 성격을 꺼렸고, 게다가 그들을 다른 핏줄로 여겼으므로, 그들이 남아 있으면 이토메에서 포위된 자들의 꾐에 넘어가 정치적 변혁을 시도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을 입에 올리지 않고 이제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만 말하며 동맹 가운데 아테네인만 돌려보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자기들을 돌려보낸 것이 두 이유 가운데 더 떳떳한 쪽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품게 된 의심에서 나온 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파르타인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안은 채 깊이 상해서 떠났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온 순간 메디아인에 맞서 맺었던 동맹을 끊고 스파르타의 적인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었으며, 약정을 맺은 양쪽은 각기 테살리아인과도 같은 맹세를 하고 같은 동맹을 맺었다.

그러는 동안 이토메의 반란자들은 10년에 걸친 저항을 더 끌 수 없어 스파르타에 항복했다. 조건은 신변을 보장받아 펠로폰네소스를 떠나고 다시는 그 땅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었으며, 뒤에 그곳에서 발견되는 자는 누구든 잡은 사람의 노예가 되기로 했다. 알아 둘 것이 있는데, 스파르타인들에게는 이토메의 제우스 탄원자를 놓아주라는 델포이의 오랜 신탁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과 아내들과 함께 떠났고, 이제 스파르타인들에게 품은 미움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인 아테네가 얼마 전 오졸리스의 로크리스인에게서 빼앗은 나우팍토스에 자리를 얻었다. 아테네인들의 동맹에는 메가라인이 또 하나로 더해졌는데, 메가라인은 코린트가 강요한 경계 문제의 전쟁에 시달려 스파르타 동맹을 버리고 넘어왔다. 아테네인들은 메가라와 페가이를 차지하고 메가라인에게 도시에서 니사이아까지 이르는 긴 성벽을 쌓아 주었으며

그곳에 아테네 수비대를 두었다. 코린트인이 아테네에 그토록 사무친 미움을 품게 된 주된 원인이 이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프삼메티코스의 아들이며 이집트 변경에 사는 리비아인의 리비아 왕인 이나로스가, 파로스 위쪽 도시 마레아에 본거를 두고 이집트의 대부분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게서 떨어지게 일으켰고, 스스로 그 우두머리가 되어 아테네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테네인들은 마침 자기들과 동맹의 배 200척으로 벌이고 있던 키프로스 원정을 버려두고 이집트에 이르러 바다에서 나일강으로 올라갔고, 그 강과 멤피스의 3분의 2를 손에 넣은 뒤 '흰 성채'라 불리는 남은 3분의 1을 치는 데 나섰다. 그 안에는 거기로 피해 들어온 페르시아인과 메디아인, 그리고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이집트인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들은 함대에서 할리아이에 상륙했다가 코린트인과 에피다우로스인의 병력과 맞붙었고, 코린트인이 이겼다. 그 뒤 아테네인들은 케크리팔리아 앞에서 펠로폰네소스 함대와 맞붙어 아테네인이 이겼다. 이어 아이기나와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터졌고, 양쪽이 각기 동맹의 도움을 받아 아테네인과 아이기나인 사이에 아이기나 앞바다에서 큰 해전이 벌어졌다. 승리는 아테네인에게 돌아갔고, 그들은 적의 배 70척을 빼앗고 그 땅에 상륙해 스트로이보스의 아들 레오크라테스의 지휘 아래 포위를 시작했다. 이에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아이기나인을 돕고자 전에 코린트인과 에피다우로스인 밑에서 복무했던 중장보병 300명을 아이기나에 들여보냈다. 그러는 동안 코린트인과 그 동맹은 게라네이아 고지를 차지하고 메가라 땅으로 내려갔는데, 큰 병력이 아이기나와 이집트에 나가 있으니 아테네가 아이기나의 포위를 풀지 않고는 메가라인을 도울 수 없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아이기나의 군대를

움직이는 대신 도시에 남아 있던 노인과 젊은이로 병력을 일으켜 미로니데스의 지휘 아래 메가라 땅으로 행군했다. 코린트인과의 싸움이 무승부로 끝난 뒤 두 군대는 각기 자기들이 이겼다고 여기며 헤어졌다. 그래도 굳이 따지면 아테네인들이 오히려 유리했고, 코린트인들이 떠나자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코린트인들은 자기 도시의 노인들에게 비웃음을 듣고 떠밀려 준비를 갖추었고, 12일쯤 뒤에 와서 승자로서 자기들의 기념물을 세웠다. 아테네인들은 메가라에서 쳐 나가 기념물을 세우는 일에 매달린 무리를 끊어 놓고 나머지와 싸워 이겼다. 패한 군대가 물러나는 중에 상당한 규모의 한 부대가 추격에 몰리고 길을 잘못 들어, 사방에 깊은 참호가 둘려 있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어느 사유지의 밭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을 알고 있던 아테네인들은 중장보병으로 그 앞을 막고 경보병을 둘레에 둥그렇게 세워 안에 들어간 자들을 모두 돌로 쳐 죽였다. 코린트는 여기서 심한 타격을 입었다. 그 군대의 대부분은 본국으로 물러나기를 이어 갔다.

이 무렵 아테네인들은 바다로 내려가는 장성, 곧 팔레론 쪽 성벽과 피레우스 쪽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포키스인들은 보이온과 키티니온과 에리네온이라는 도시를 품은, 스파르타인의 옛 고향인 도리스로 원정했다. 그들이 그 도시들 가운데 하나를 빼앗았을 때, 아직 미성년인 파우사니아스의 아들 플레이스토아낙스 왕을 대신해 지휘하던 클레옴브로토스의 아들 니코메데스 아래의 스파르타인들이 자기들의 중장보병 1,500명과 동맹의 1만 명을 이끌고 도리스인을 도우러 왔다. 포키스인에게 조건을 붙여 그 도시를 돌려주게 한 뒤 그들은 물러나기 시작했다. 크리사 만을 건너는 바닷길은 아테네 함대에게 막힐 위험이 있었고, 게라네이아를 넘는 길은 아테네인들이 메가라와 페가이를 쥐고 있었으므로 도무지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 그 길목은 험한 곳이었고 늘 아테네인들이 지켰으며, 이번에는 아테네인들이 자기들의 통행을 막을

뜻이라는 정보가 스파르타인들에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오티아에 머물면서 어느 행군로가 가장 안전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먹은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아테네에서 민주정의 통치와 장성 공사를 끝장내고 싶어 하던 한 무리가 그들에게 몰래 부추김을 보내 온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들은 자기들의 전군과 아르고스인 1,000명, 그리고 나머지 동맹이 각기 낸 병력을 이끌고 그들을 치러 행군했다. 모두 1만 4,000명이었다. 스파르타인들이 통행할 길을 찾지 못해 막막해한다는 생각이, 그리고 민주정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의심이 이 행군을 재촉했다. 테살리아 동맹에서 온 기병도 아테네인들에게 합류했으나, 이들은 싸움 도중에 스파르타인 쪽으로 넘어갔다.

싸움은 보이오티아의 타나그라에서 벌어졌다. 양쪽이 크게 잃은 뒤 승리는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에게 돌아갔다. 스파르타인들은 메가라 땅에 들어가 과실수를 베어 넘긴 뒤 게라네이아와 지협을 건너 본국으로 돌아갔다. 싸움이 있은 지 62일 뒤에 아테네인들은 미로니데스의 지휘 아래 보이오티아로 행군해 오이노피타에서 보이오티아인을 싸움으로 이기고 보이오티아와 포키스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타나그라인의 성벽을 헐고, 오푼토스의 로크리스인 가운데 가장 부유한 100명을 인질로 잡고, 자기들의 장성을 끝냈다. 이어 아이기나인이 조건을 붙여 아테네에 항복했으니, 그들은 성벽을 허물고 배를 내놓았으며 앞으로 공납을 내기로 했다. 아테네인들은 톨마이오스의 아들 톨미데스 아래 펠로폰네소스를 돌아 항해하며 스파르타의 조선소를 불태우고 코린트인의 도시 칼키스를 빼앗았으며, 시키온에 상륙해 시키온인을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는 동안 이집트에 있던 아테네인과 그 동맹은 아직 그곳에 머물며 전쟁의 온갖 곡절을 겪었다. 처음에는 아테네인들이 이집트의

주인이었고, 왕은 페르시아인 메가바조스를 돈과 함께 스파르타로 보내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티카를 침입하도록 매수해 아테네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려 했다. 그 일이 진척되지 않고 돈만 헛되이 쓰이는 것을 알고 왕은 남은 돈과 함께 메가바조스를 불러들이고, 페르시아인 조피로스의 아들 메가비조스를 큰 군대와 함께 이집트로 보냈다. 육로로 이른 그는 싸움에서 이집트인과 그 동맹을 이기고 그리스인들을 멤피스에서 몰아냈으며, 마침내 프로소피티스섬에 몰아넣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다. 끝내 그는 운하의 물을 다른 물길로 돌려 빼내어 그들의 배를 마른땅에 얹어 놓고 섬의 대부분을 육지에 잇더니, 걸어서 건너가 그곳을 함락했다. 그렇게 그리스인의 사업은 6년에 걸친 전쟁 끝에 무너졌다. 그 큰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이 리비아를 지나 무사히 키레네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은 죽었다. 그리하여 이집트는 다시 왕의 지배 아래로 돌아갔는데, 늪지대의 왕 아미르타이오스만은 늪이 넓어 붙잡을 수 없었으므로 예외였다. 늪지대 사람들은 이집트인 가운데 가장 싸움에 능한 자들이기도 했다. 이집트 반란을 홀로 일으킨 리비아 왕 이나로스는 배신을 당해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는 동안 배 50척으로 이루어진 구원 함대가 아테네와 나머지 동맹에서 이집트로 떠나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나일강의 멘데스 하구에 배를 댔다. 육지 쪽에서는 군대에게, 바다 쪽에서는 페니키아 해군에게 공격을 받아 배는 대부분 부수어졌고, 남은 몇 척만 물러나 살아났다. 아테네인과 그 동맹이 이집트로 벌인 그 큰 원정의 끝은 그러했다.

그러는 동안 테살리아 왕 에케크라티다스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테살리아에서 쫓겨나 망명한 처지로 아테네인들에게 자기를 복귀시켜 달라고 설득했다. 아테네인들은 동맹인 보이오티아인과 포키스인을 데리고 테살리아의 파르살로스로 행군했다.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으나 진영 바로 근처에서만 그러했고, 그 밖으로는 테살리아 기병이 두려워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도시를 빼앗지도 원정의 다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오레스테스와 함께 돌아갔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아테네인 1,000명이 페가이에 있던 배에 올라(페가이는 이제 그들의 것이었음을 기억해 둘 것이다)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의 지휘 아래 해안을 따라 시키온으로 항해했다. 시키온에 상륙해 맞서 나온 시키온인을 이긴 그들은 곧바로 아카이아인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아카르나니아의 오이니아다이로 행군해 그곳을 포위했다. 그러나 빼앗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3년 뒤 펠로폰네소스인과 아테네인 사이에 5년 기한의 휴전이 맺어졌다. 그리스 안의 전쟁에서 풀려난 아테네인들은 키몬의 지휘 아래 자기들과 동맹의 배 200척으로 키프로스로 원정했다. 그 가운데 60척은 늪지대의 왕 아미르타이오스의 청에 따라 이집트로 떼어 보냈고, 나머지는 키티온을 포위했으나 키몬이 죽고 식량이 모자라 물러나야 했다. 키프로스의 살라미스 앞바다로 나아간 그들은 페니키아인과 키프로스인과 킬리키아인을 상대로 육지와 바다에서 싸워 양쪽 모두에서 이긴 뒤 본국으로 떠났고, 이집트에서 돌아온 함대도 그들과 함께 돌아갔다. 그 뒤 스파르타인들은 신성한 전쟁에 나아가 델포이의 신전을 차지하고 그것을 델포이인의 손에 넘겼다. 그들이 물러난 직후에 아테네인들이 나아가 그 신전을 차지하고 포키스인의 손에 넘겼다.

그 뒤 얼마 지나, 오르코메노스와 카이로네이아와 보이오티아의 다른 몇 곳이 보이오티아 추방자들의 손에 있었으므로, 아테네인들은 톨마이오스의 아들 톨미데스의 지휘 아래 아테네 중장보병 1,000명과 동맹이 낸 병력을 이끌고 앞에 말한 그 적대적인 곳들을 치러 행군했다. 그들은 카이로네이아를 빼앗아 주민을 노예로 삼고 수비대를 남긴 뒤 돌아오기 시작했다. 길에서 그들은 코로네이아에서 오르코메노스에서

온 보이오티아 추방자들과 로크리스인 얼마와 에우보이아 추방자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싸움에서 패했고, 더러는 죽고 더러는 사로잡혔다. 아테네인들은 그 사람들을 되찾는다는 조약을 맺고 보이오티아 전역에서 물러났으며, 추방되어 있던 보이오티아인들이 돌아오고 나머지 모두와 함께 독립을 되찾았다.

그 뒤 오래지 않아 에우보이아가 아테네에서 떨어져 나갔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인의 군대를 이끌고 이미 그 섬으로 건너간 때에, 메가라가 반란을 일으켰고 펠로폰네소스인들이 곧 아티카를 침입하려 하며 아테네 수비대가 니사이아로 피한 몇 사람만 빼고 메가라인에게 끊겨 죽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 메가라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코린트인과 시키온인과 에피다우로스인을 도시에 들여놓았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페리클레스는 서둘러 에우보이아에서 군대를 되돌렸다. 그 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파우사니아스의 아들 플레이스토아낙스 왕의 지휘 아래 엘레우시스와 트리오스까지 아티카로 행군해 그 땅을 짓밟고, 더 나아가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테네인들은 페리클레스의 지휘 아래 다시 에우보이아로 건너가 섬 전체를 굴복시켰다. 히스티아이아만 빼고 모두 협정으로 정리했고, 히스티아이아인은 집에서 내쫓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다.

에우보이아에서 돌아온 지 오래지 않아 그들은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과 30년 기한의 휴전을 맺고, 펠로폰네소스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인 니사이아와 페가이와 트로이젠과 아카이아를 내놓았다. 휴전 6년째에 사모스인과 밀레토스인 사이에 프리에네를 두고 전쟁이 터졌다. 전쟁에서 밀린 밀레토스인들은 사모스인을 두고 큰 소리로 불평하며 아테네로 왔다. 정부를 뒤엎고 싶어 하던 사모스 자체의 사사로운 사람들 몇도 여기에 함께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배 40척으로 사모스로 항해해 민주정을 세우고, 사모스인에게서 소년

50명과 같은 수의 성인을 인질로 잡아 렘노스에 두었으며, 섬에 수비대를 남긴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모스인 가운데 더러는 섬에 남지 않고 대륙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도시에 있는 가장 힘 있는 자들과 약정을 맺고 당시 사르디스의 태수였던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피수트네스와 동맹을 맺어 용병 700명을 모았고, 밤을 타 사모스로 건너갔다. 그들의 첫 걸음은 민중에게 들고일어나 그 대부분을 손에 넣은 것이었고, 다음은 렘노스에서 자기들의 인질을 빼내 온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자기들에게 남겨져 있던 아테네 수비대와 그 지휘관들을 피수트네스에게 넘기고, 곧바로 밀레토스를 치는 원정을 준비했다. 비잔티움인도 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아테네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배 60척으로 사모스를 치러 항해했다. 그 가운데 16척은 페니키아 함대를 살피러 카리아로, 또 지원군을 부르는 명령을 돌리러 키오스와 레스보스로 갔으므로 싸움에는 들지 않았다. 그러나 페리클레스가 동료 아홉 사람과 함께 지휘한 배 44척은 트라기아섬 앞에서 밀레토스에서 항해해 오던 사모스 배 70척과 싸움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20척은 수송선이었다. 승리는 아테네인에게 돌아갔다. 그 뒤 아테네에서 온 배 40척과 키오스와 레스보스의 배 25척으로 보강을 받은 아테네인들은 상륙해, 육지에서 우세를 쥐고 성벽 셋으로 도시를 둘러쌌으며 바다에서도 그 도시를 둘러쌌다. 그러는 동안 페리클레스는 페니키아 함대가 사모스인을 도우러 다가온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므로 봉쇄 함대에서 배 60척을 떼어 서둘러 카우노스와 카리아로 떠났다. 실제로 스테사고라스와 다른 사람들이 그 함대를 데려오려고 배 5척으로 섬을 떠나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사모스인들이 갑자기 쳐 나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영을 들이쳤다. 그들은 감시선들을 부수고 자기들을 맞으러 물에 띄우던 배들과 싸워 이겨, 14일 동안 자기들의 바다를 쥐고 마음대로

실어 들이고 실어 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가 돌아오자 그들은 다시 갇혔다. 그 뒤 새 지원군이 이르렀다. 투키디데스와 하그논과 포르미온과 함께 아테네에서 온 배 40척, 틀레폴레모스와 안티클레스와 함께 온 20척, 그리고 키오스와 레스보스에서 온 배 30척이었다. 잠시 싸워 보려 한 뒤 사모스인들은 더 버틸 수 없어 9개월에 걸친 포위 끝에 굴복하고 조건을 붙여 항복했다. 그들은 성벽을 허물고 인질을 내주고 배를 내놓았으며 전쟁 비용을 나누어 갚기로 했다. 비잔티움인도 전과 같이 복속하기로 했다.

---

1.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2. 아르콘 — 아테네의 정무관직. 해마다 뽑았고 그 가운데 수석 아르콘의 이름으로 그해를 불렀다.

3.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4.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땅을 갈던 신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딸린 예속민으로, 수가 많아 스파르타인은 늘 그들의 봉기를 경계했다.

5. 페리오이코이 — 스파르타 주변의 자유민. 스파르타에 딸린 도시에 살며 군역을 졌으나 완전시민권은 없었다.

5장 (제I권 제V장) — 스파르타 제2차 회의 — 전쟁 준비와 외교적 공방 — 킬론 — 파우사니아스 — 테미스토클레스

그 뒤로 그리 여러 해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마침내 이미 이야기한 일들, 곧 코르키라와 포티다이아의 사건과 이번 전쟁의 구실이 된 사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인이 서로에게, 또 이방인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은 크세르크세스가 물러간 때부터 이번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의 약 50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 기간에 아테네인은 자기들의 제국을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고, 본국의 힘 또한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스파르타인은 그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으나 잠깐 동안만 맞섰을 뿐, 예로부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몰리지 않는 한 전쟁에 나서기를 더디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번에는 국내의 전쟁에 발이 묶여 있었던 까닭에 그 기간의 대부분을 손 놓고 있었다. 그러다 아테네의 세력이 자라는 것을 더는 못 본 척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들의 동맹이 그 침식의 대상이 되었다. 그제야 그들은 더 견딜 수 없다고 느꼈고, 이제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 적대 세력에 몸을 던져 할 수 있다면 이번 전쟁을 일으켜 그것을 꺾어야 할 때가 왔다고 여겼다. 스파르타인은 조약이 깨졌다는 것과 그 죄가 아테네인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굳혔으나, 그래도 델포이에 사람을 보내 전쟁에 나서면 일이 잘되겠는지 신에게 물었다. 전하는 바로는, 전쟁에 온 힘을

쏟는다면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신 자신이 부름을 받든 받지 않든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고도 그들은 동맹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전쟁을 벌이는 것이 옳은지 표를 받기를 원했다. 동맹들의 사절이 도착하고 회의가 열리자 모두가 제 생각을 말했는데, 대다수가 아테네인을 규탄하며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린트인이 특히 그러했다. 그들은 이전에도 제 나름으로 도시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전쟁에 표를 던지도록 설득했는데, 포티다이아를 구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도 그들은 참석했고, 맨 마지막에 나서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동맹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파르타인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쟁에 표를 던졌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모았습니다. 의무라고 말하는 까닭은, 패권에는 패권의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이해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일 말고도, 앞장서는 자에게는 남들이 다른 여러 면에서 바치는 특별한 예우에 대한 보답으로 공동의 복리를 특별히 돌볼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말하면, 이미 아테네인과 상대해 본 이라면 누구도 그들을 경계하라는 경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륙에 더 깊이 들어앉아 교통의 큰길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안의 세력들을 떠받치는 일을 빠뜨린다면 그 결과로 제 산물을 내보내는 길과 그 대가로 바다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받는 길이 다 함께 상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지금 하는 이 말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 무심한 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해안 세력들이 희생되고 나면 언젠가 그 위험이 내륙까지 뻗어 오리라고 예상해야 하며, 자기들의 이해 또한 이 논의에 깊이 걸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평화를 전쟁과 맞바꾸기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해를 입지 않는 동안 잠잠히 있지만, 용감한 자는 해를 입으면 평화를

버리고 전쟁으로 나아가며 좋은 기회가 오면 다시 화해로 돌아갑니다. 곧 그들은 전쟁에서 거둔 성공에 취하지도 않고, 평화가 주는 달콤한 고요를 위해 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실로 그런 달콤함을 위해 주저하는 것은, 그대로 손 놓고 있는다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안식의 단맛을 가장 빠르게 잃는 길입니다. 반면 전쟁의 성공에서 터무니없는 야심을 품는 것은 여러분을 들뜨게 한 그 자신감이 얼마나 텅 빈 것인지를 잊는 일입니다. 잘못 세운 계획이 적의 더 큰 아둔함 덕에 성공한 일이 많다면, 잘 세운 듯 보였던 계획이 오히려 수치로 끝난 일은 그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의 자신감이 그것을 실행할 때 온전히 정당함을 얻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궁리는 안전한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만, 막상 행동에 이르면 두려움이 실패를 낳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전쟁에 불을 붙인다면 그것은 해를 입은 데 몰려서 하는 일이며 불평할 근거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인을 징벌한 뒤에는 때를 보아 손을 거둘 것입니다. 성공을 기대할 이유는 여럿입니다. 첫째로 수와 군사 경험에서 앞선다는 점이고, 둘째로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복종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가진 해군력에 맞먹는 것은 우리가 각자 이전부터 지닌 재원과 올림피아와 델포이에 있는 재물로 갖출 것입니다. 거기서 빌린 돈이 있으면 더 높은 품값을 내밀어 그들의 외국인 수부들을 꾀어낼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힘은 나라의 것이라기보다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은 같은 위험에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 힘은 돈보다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한 번 패하면 그것이 그들의 파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버텨 낸다면, 그만큼 우리가 해상의 일을 익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기술에서 대등한 자리에 이르는 즉시, 용기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지는 굳이 물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나 가진 이점은 그들이 교육으로 얻을 수 없지만, 그들이 기술에서 앞선 것은 우리가 익히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드는 돈은 우리가 내는 분담금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저들의 동맹들은 제 예속을 위해 돈을 내면서도 지치지 않는데 우리는 복수와 자기 보존을 위해 재물을 쓰기를 마다해야 한다는 말, 게다가 그렇게 마다함으로써 그 재물을 아테네의 탐욕에 빼앗기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파멸에 쓰이는 꼴을 보게 된다는 말보다 더 괴이한 말은 실로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이어 갈 다른 방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들의 동맹을 반란으로 이끄는 것이 그 하나인데, 이는 저들의 힘의 원천인 수입을 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들의 땅에 요새 거점을 세우는 것도 있고, 지금은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작전도 있습니다. 무릇 전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 가장 적고 급한 사태에 맞설 방책을 주로 그 자신에게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싸움에 맞서면서 마음을 가장 잘 다스리는 쪽이 가장 큰 안전을 얻고, 그 일로 마음을 잃는 쪽은 그만큼의 재앙을 얻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맞선 이웃 사이의 땅다툼이 몇 건 있는 것뿐이라면 견딜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테네라는 적은 우리 연합 전체와 맞먹고, 그 구성원 어느 하나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또 각 종족과 각 도시로서 한마음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아테네는 갈라진 우리를 하나하나 손쉽게 정복할 것입니다. 그 정복이 무섭게 들릴지라도 그 끝에 있는 것은 순전한 노예 상태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펠로폰네소스는 그 말을 귓속말로 듣는 것조차 수치 없이는 할 수 없고, 그토록 많은 나라가 한 나라에 짓밟히는 것을 수치 없이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의 평은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거나, 우리가 비겁해서 그것을 참고 있다거나,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스에 준 자유를 우리 자신에게조차 지켜 내지 못하는 못난 자식임이 드러났다거나, 개별 나라에서는 단독 지배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여기면서도 그리스 안에 폭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평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처신이 가장 무거운 세 가지 허물, 곧 분별의 결핍과 용기의 결핍과 경계의 결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경우에 치명적임이 드러난 저 적을 업신여기는 마음에 몸을 숨겼다고는 우리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넘어뜨린 사람의 수가 하도 많아서, 이제 그것은 업신여김이 아니라 그 반대 이름인 어리석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돌아보는 것은 지금 일에 도움이 되는 데까지만 이로울 뿐입니다. 앞날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고 힘을 배로 쏟아 대비해야 합니다. 수고의 열매로 훌륭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재물과 재원에서 조금 앞선다 해도 그 습속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궁핍 속에서 얻은 것을 넉넉함 속에서 잃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담대하게 전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이 그것을 명하고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나머지 그리스도 한편은 두려움에서 한편은 이익에서 모두 이 싸움에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전쟁에 나서라 권하면서 이미 깨졌다고 판정한 그 조약을 먼저 깨뜨리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짓밟힌 조약을 떠받치는 쪽이 될 것입니다. 실로 조약을 깨뜨리는 것은 맞서는 쪽이 아니라 먼저 침해하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처지는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전쟁에 나서는 것을 넉넉히 정당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권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나라들 사이든 사람들 사이든 이해가 하나인 것이 가장 든든한 끈임을 잊지 않고서입니다. 그러니 포티다이아를 돕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도리스의 도시가 이오니아인에게 포위당해 있으니,

이는 사물의 순서가 뒤집힌 일입니다. 나머지 도시들의 자유를 세우는 일도 미루지 마십시오. 더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기다림이 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부에게는 당장의 재앙이요, 우리가 모여 의논만 하고 스스로를 지키러 나설 엄두는 내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나머지에게도 머지않아 같은 재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동맹 여러분. 이 위기가 어쩔 수 없는 것임과 이 권고가 지혜롭다는 것을 확신하고, 당장의 두려움에 물러서지 말고 그 뒤에 올 오래가는 평화를 멀리 바라보면서 전쟁에 표를 던지십시오. 평화는 전쟁에서 새로운 안정을 얻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위해 안식을 버리기를 마다하는 것은 위험을 피하는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 못 됩니다. 그리스 안에 세워진 저 폭군의 도시가 모두를 똑같이 겨누어 세워졌으며, 일부는 이미 이루었고 일부는 아직 꾀하는 중인 보편 제국의 계획을 품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쳐서 꺾고, 우리 자신에게는 앞날의 안전을, 지금 예속된 그리스인에게는 자유를 얻어 줍시다."

코린트인의 말은 이러했다. 스파르타인은 이제 모두가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다 들은 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동맹 나라의 표를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차례로 받았다. 다수가 전쟁에 표를 던졌다. 그렇게 정해졌으나 준비가 모자라 곧바로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다만 필요한 수단을 각 나라가 마련하기로, 그리고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필요한 준비에 시간이 들었음에도 한 해가 채 지나기 전에 아티카가 침공을 받고 전쟁이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사이의 기간은 아테네에 불평을 담은 사절을 보내는 데 쓰였다. 아테네가 그것을 아예 거들떠보지 않을 경우에 전쟁의 구실을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얻어 두려는 것이었다. 스파르타의 첫 사절은 아테네인에게 여신의 저주를 쫓아내라고 요구하는 일을 맡았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여러 세대 전에 킬론이라는 이름의 아테네인이 있었다.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로 좋은 가문에 세력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때 메가라의 참주였던 메가라인 테아게네스의 딸과 혼인했다. 이 킬론이 델포이에 물었을 때, 제우스의 큰 축제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차지하라는 답을 신에게서 받았다. 그리하여 테아게네스에게서 병력을 얻고 자기 벗들을 설득해 끌어들인 뒤, 펠로폰네소스의 올림피아 축제가 오자 스스로 참주가 될 뜻으로 아크로폴리스를 차지했다. 그것이 제우스의 큰 축제이며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에게 어울리는 때이기도 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 큰 축제가 가리키는 것이 아티카의 것인지 다른 곳의 것인지는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였고, 신탁도 그것을 풀어 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아테네인에게도 자비로운 제우스, 곧 제우스 메일리키오스의 큰 축제라 불리는 축제가 있는데 디아시아[1]가 그것이다. 이 축제는 도시 밖에서 치러지며, 온 백성이 실제 희생 짐승이 아니라 그 나라에 고유한 피 없는 제물 여러 가지를 바친다. 그러나 킬론은 제가 옳은 때를 골랐다고 여기고 일을 벌였다. 아테네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시골에서 하나같이 몰려들어 와 자리를 잡고 성채를 포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봉쇄의 고역에 지쳐 대부분이 떠나갔고, 지키는 책임은 모든 것을 제 판단에 따라 처리할 전권과 함께 아홉 아르콘[2]에게 맡겨졌다. 그때는 정치의 기능 대부분을 이 아홉 아르콘이 맡아 보았음을 알아 두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포위된 킬론과 그 동료들은 먹을 것과 물이 없어 곤경에 빠졌다. 그리하여 킬론과 그 아우는 빠져나갔다. 그러나 나머지는 심하게 몰리고 더러는 굶어 죽기까지 하여 아크로폴리스의 제단에 탄원자로 앉았다. 지키는 임무를 맡은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신전 안에서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아무 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 아래 그들을 일으켜 밖으로 데려간 뒤 죽였다.

지나가는 길에 존엄한 여신들의 제단으로 몸을 피한 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일로 그들을 죽인 자들은 저주받은 자, 여신에게 죄를 지은 자라 불렸고 그 자손들도 그러했다. 그리하여 이 저주받은 자들은 아테네인에게 쫓겨났고, 뒤에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와 아테네의 한 당파에게 다시 쫓겨났다. 산 자는 내쫓기고 죽은 자의 뼈는 파내어졌으니, 그렇게 그들은 내버려졌다. 그럼에도 그들은 뒤에 돌아왔고, 그 자손들은 아직도 그 도시에 있다.

스파르타인이 쫓아내라고 요구한 저주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바로는 그 일을 움직인 첫째 동기가 신들의 명예를 돌보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가 어머니 쪽으로 그 저주에 얽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를 추방하면 아테네를 겨눈 자기들의 계획이 크게 진척될 것이라 여겼다.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내기를 참으로 바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쟁이 부분적으로는 그의 불운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을 심어 같은 나라 사람들의 눈에 그를 향한 반감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었다. 당대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요 아테네를 이끄는 정치가였던 그는 무슨 일에서나 스파르타인에게 맞섰고 어떤 양보도 하려 하지 않았으며, 늘 아테네인을 전쟁으로 밀어붙였다.

아테네인은 스파르타인에게 타이나론의 저주를 쫓아내라고 요구하며 맞받았다. 스파르타인은 언젠가 타이나론의 포세이돈 신전에서 헬롯[3] 탄원자 몇 사람을 일으켜 끌고 나가 죽인 적이 있었다. 스파르타에 일어난 큰 지진이 그 일의 응보라고 그들은 믿는다. 아테네인은 청동의 집 여신의 저주도 쫓아내라고 요구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스파르타인 파우사니아스는 헬레스폰토스의 지휘직에서 스파르타 시민[4]들에게 소환되었고(이것이 그의 첫 소환이다) 그들에게 재판을 받아 무죄가 되었으나 다시 공적인 자격으로 파견되지는 않았다. 그러자

그는 스파르타의 허가 없이 제 책임으로 헤르미오네의 배 한 척을 얻어 사인의 신분으로 헬레스폰토스에 갔다. 겉으로는 그리스인의 전쟁을 위해 온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왕과의 밀통을 이어 가기 위해서였다. 그 밀통은 소환되기 전에 이미 시작한 것이었으며, 그는 그리스 전체를 다스리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왕에게 처음으로 신세를 지우고 그 계획 전체의 첫걸음을 떼게 해 준 사정은 이러했다. 그가 키프로스에서 돌아온 뒤 처음 비잔티움에 있을 때 그 도시를 메디아인에게서 빼앗았는데, 그때 왕의 인척과 친족 몇 사람이 붙잡혔다. 그는 이 포로들을 다른 동맹들이 모르게 왕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제게서 도망쳤다고 말을 맞추었다. 이 일은 비잔티움과 포로들을 맡겨 둔 에레트리아인 곤길로스의 도움으로 해냈다. 그는 곤길로스에게 왕에게 전할 편지도 주었는데, 뒤에 밝혀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스파르타의 장군 파우사니아스가 당신께 호의를 베풀고자 이 전쟁 포로들을 보냅니다. 또한 당신의 허락을 얻어 당신의 딸과 혼인하고, 스파르타와 나머지 그리스를 당신께 복속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힘을 합해 주신다면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무엇이든 마음에 드시면, 앞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을 바다로 보내 주십시오."

그 글에서 드러난 것은 이것이 전부였고, 크세르크세스는 그 편지를 기뻐했다. 그는 파르나케스의 아들 아르타바조스를 바다로 보내면서, 다스킬리온 태수령의 이전 총독 메가바테스를 대신하고, 자기가 맡기는 편지를 되도록 빨리 비잔티움의 파우사니아스에게 건너보내며, 그에게 왕의 인장을 보이고, 왕의 일에 관해 파우사니아스에게서 받는 어떤 지시든 온 정성과 충실로 수행하라고 명했다. 아르타바조스는 도착하자 왕의 명을 그대로 실행하고 편지를 건너보냈다. 그 편지에 담긴 답은 다음과 같았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파우사니아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바다 건너 비잔티움에서 나를 위해 구해 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집안에 너를 향한 은의가 영원히 기록되어 쌓였다. 그리고 너의 제안에 나는 매우 만족한다. 나에게 한 약속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지런히 이루는 일을 밤도 낮도 막지 못하게 하라. 금이 들든 은이 들든 그 일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고, 어디든 병력이 필요한 곳에서 그 수가 문제 되지 않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존경할 만한 사람 아르타바조스와 더불어, 우리 둘의 명예와 이익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도록 나의 일과 너의 일을 담대하게 진척시켜라."

전부터 플라타이아의 영웅으로 그리스인에게 큰 존경을 받아 온 파우사니아스는 이 편지를 받은 뒤 어느 때보다 거만해져서 더는 여느 때의 생활을 이어 갈 수 없었다. 메디아 옷을 입고 비잔티움을 나섰고, 트라키아를 지나는 행군에서는 메디아인과 이집트인 호위대를 거느렸으며, 페르시아식 식탁을 차렸고, 제 속뜻을 도무지 감추지 못해 언젠가 더 큰 규모로 펼치려던 야심을 사소한 처신으로 드러내 버렸다. 또 그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고,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어찌나 거센 성미를 보였는지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실로 동맹이 아테네인 쪽으로 넘어간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위에서 말한 처신이 스파르타인의 귀에 들어간 것이 그의 첫 소환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의 명 없이 헤르미오네의 배로 두 번째로 나간 뒤에도 그는 비슷한 행태의 증거를 내놓았다. 아테네인에게 비잔티움에서 포위되어 쫓겨난 그는 스파르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트로아스의 콜로나이에 자리를 잡고 이방인들과 밀통하며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은 목적에서가 아니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감독관(에포로스)[5]들은 이제 더 망설이지 않고 전령과 스키탈레[6]를 보내어 전령을 따라오지 않으면 공적인 적으로 선포하겠다고 명했다. 무엇보다 의심을 피하고 싶었고 돈으로 그 혐의를 눌러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한

그는 두 번째로 스파르타에 돌아왔다. 처음에는 감독관들에게 감옥에 갇혔으나(그들의 권한은 왕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 곧 일을 타협해 다시 나왔고, 자기에 관해 조사를 열고자 하는 누구에게든 재판을 받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스파르타 시민들에게는, 그의 적들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왕가의 사람이며 그 순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벌하는 데 필요한 저의심할 수 없는 종류의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었다. 그는 레오니다스의 아들로 아직 미성년인 플레이스타르코스 왕의 섭정이었고, 그 왕과는 사촌 사이였다. 그러나 법을 업신여기고 이방인을 본뜬 그 태도는 그가 세워진 질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심의 근거를 크게 만들어 주었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통상의 관습에서 벗어난 모든 경우가 다시 들추어졌고, 그리스인이 메디아인에게서 얻은 전리품의 첫 몫으로 델포이에 바친 삼각대에 그가 제 마음대로 다음 2행시를 새겨 넣게 했던 일이 떠올려졌다.

그리스인의 총수로서 메디아인의 군대를 무찌른 파우사니아스가 포이보스께 이 기념물을 바쳤노라.

그때 스파르타인은 곧바로 그 2행시를 지우고, 이방인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보태고 그 봉헌물을 바친 도시들의 이름을 새겼다. 그럼에도 파우사니아스가 여기서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여겨졌으며, 그 죄는 그 뒤 그가 취한 태도의 빛으로 해석되면서 새로운 뜻을 얻어 지금 그의 계획과 아주 잘 들어맞는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그가 헬롯들과도 밀통하고 있다는 정보가 그들에게 들어왔다.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었으니, 그는 그들이 함께 봉기하고 자기 계획을 끝까지 이루도록 도와준다면 자유와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감독관들은 헬롯 자신들의 증언조차 믿지 못해 그를 상대로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의 일에 지켜 온 통상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곧 다툴 수 없는 증거 없이는 스파르타 시민에 관한 일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를 더디게 한다는 관습이었다. 마침내, 전하는 바로는, 왕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아르타바조스에게 전하러 가려던 사람이 밀고자가 되었다. 아르길로스 사람으로, 한때 파우사니아스가 총애하던 소년이었고 그에게 누구보다 충실한 자였다. 앞서 간 심부름꾼 가운데 누구도 돌아온 적이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쳐 겁이 난 그는, 제 짐작이 틀렸을 경우나 파우사니아스가 무언가 고치자고 할 경우에 들키지 않도록 봉인을 위조해 두고서 편지를 풀어 보았다. 그리하여 자기가 의심했던 추신, 곧 자기를 죽이라는 명을 찾아냈다.

그 편지를 보게 된 감독관들은 이제 한결 확신을 얻었다. 그래도 그들은 파우사니아스가 제 입으로 증거가 될 말을 하는 것을 자기들 귀로 듣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약속대로 탄원자로서 타이나론에 가서 칸막이로 둘로 나눈 움막을 짓고, 그 안에 감독관 몇 사람을 숨겨 모든 일을 또렷이 듣게 했다. 파우사니아스가 그를 찾아와 탄원자로 앉은 이유를 물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에 관해 파우사니아스가 써 놓은 그 명을 두고 그를 꾸짖었고, 나머지 사정을 하나하나 다 말했다. 자기가 파우사니아스와 왕 사이의 심부름꾼으로 쓰이는 동안 한 번도 그를 어떤 위험에도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그의 여느 종들 무리와 똑같이 죽음으로 보답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파우사니아스는 이 모두를 인정하고 그 일로 노여워하지 말라 이르면서, 신전에서 그를 일으켜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되도록 빨리 길을 떠나 지금 하는 일을 막지 말아 달라고 청했다.

감독관들은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물러났으며, 그 순간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확신에 이른 만큼 도시에서 그를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하는 바로는, 그가 길에서 체포되려던 때에

감독관 한 사람의 얼굴에서 그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에게 몰래 신호를 보내 호의에서 그 일을 알려 주었다. 그는 바로 가까이에 그 구역이 있는 청동의 집 여신의 신전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성역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 날씨에 몸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신전의 일부인 작은 방에 들어가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추격에서 한동안 뒤처졌던 감독관들은 뒤에 그 방의 지붕을 벗겨 내고, 그가 안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그를 그 안에 가두고 문을 막아 버렸으며, 그 앞에 머물러 굶겨서 그를 무너뜨렸다. 그가 그 방에서 그대로 숨이 끊어지려 하는 것을 알고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를 신전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죽었다. 그들은 죄인을 던져 넣는 곳인 카이아다스[7]에 그를 던지려 했으나 마침내 근처 어딘가에 묻기로 정했다. 그러나 뒤에 델포이의 신은 스파르타인에게 그 무덤을 그가 죽은 자리로 옮기라고 명했으며 (기념물에 새긴 글이 밝히는 대로 그는 지금 그 신성한 땅에 누워 있다), 또 저지른 일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으므로 청동의 집 여신에게 하나가 아니라 둘의 몸을 돌려 드리라고 명했다. 그래서 그들은 청동 상 두 개를 만들게 하여 파우사니아스를 대신하는 것으로 바쳤다. 아테네인은 신 자신이 저주라고 선언한 것을 쫓아내라고 스파르타인에게 말하며 맞받았다.

파우사니아스가 메디아에 붙은 일로 돌아가자. 그 조사 과정에서 테미스토클레스를 얽어 넣을 자료가 나왔고, 그리하여 스파르타인은 아테네인에게 사절을 보내 파우사니아스를 벌한 것과 같이 그를 벌하라고 요구했다. 아테네인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런데 마침 그는 도편추방[8]을 당한 상태여서 아르고스에 거처를 두고 펠로폰네소스의 다른 지역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추격에 함께 나설 준비가 되어 있던 스파르타인과 더불어, 그를

찾아내는 곳이 어디든 잡아 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들의 뜻을 눈치채고 펠로폰네소스를 벗어나 자기에게 신세를 진 코르키라로 달아났다. 그러나 코르키라인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노여움을 사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그를 숨겨 줄 엄두를 낼 수 없다고 말하고, 그를 건너편 대륙으로 옮겨 보냈다. 그의 행적에 관한 소문에 매달려 쫓아오는 관리들에게 추격을 받으며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지 막막해진 그는,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몰로소이인의 왕 아드메토스의 집에 멈추어야만 했다. 아드메토스는 마침 집에 없었으나, 그가 탄원자로 몸을 낮춘 그 아내가 자기들의 아이를 품에 안고 화로 옆에 앉으라고 알려 주었다. 얼마 뒤 아드메토스가 들어왔고, 테미스토클레스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한 뒤, 아테네에 있던 테미스토클레스에게서 그의 청이 받았을지 모를 어떤 반대든 망명 중인 테미스토클레스에게 갚으려 하지 말아 달라고 청했다. 실로 그는 이제 그의 복수를 받기에는 너무나 낮은 처지였으며, 보복은 대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명예로운 것이었다. 게다가 그가 왕에게 맞선 일은 청이 이루어지는지에만 영향을 주었을 뿐 그 신변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왕이 그가 말한 추격자들과 그들이 그에게 정해 둔 운명에 자기를 넘긴다면, 그것은 그를 확실한 죽음에 내주는 일이 될 뿐이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가장 효험 있는 탄원의 방식대로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던 그를 제 아들과 함께 일으켰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를 내주기를 거절했으며, 그가 페르시아 왕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그를 육로로 다른 쪽 바다에 있는 알렉산드로스의 영토 안 피드나로 보냈다. 거기서 그는 막 이오니아로 떠나려는 상선 한 척을 만났다. 배에 오른 그는 폭풍에 밀려 낙소스를 봉쇄하고 있던 아테네 함대에 이르렀다.

겁이 난 그는(다행히 배 안의 사람들은 그를 몰랐다) 선장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달아나는지를 말하고, 자기를 구해 주기를 거절한다면 선장이 뇌물을 받고 자기를 태웠다고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안전은 항해에 좋은 때가 올 때까지 아무도 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다. 자기 뜻을 따라 준다면 마땅한 보답을 하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선장은 그가 원하는 대로 했고, 함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루 낮 하루 밤을 배를 세워 둔 뒤 마침내 에페소스에 이르렀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의 벗들과 아르고스에 숨겨 둔 자기 재물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선장에게 돈을 선물로 주어 보답한 뒤, 해안 지방의 페르시아인 한 사람과 함께 내륙으로 떠났고, 막 왕위에 오른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 테미스토클레스가 당신께 왔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의 침공에 맞서 저 자신을 지켜야만 했을 때 그리스인 가운데 누구보다도 당신 집안에 큰 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해는 그가 물러갈 때 제가 그에게 베푼 이로움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 일은 저에게는 아무 위험도 가져오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많은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일로 보면 당신은 저에게 호의를 빚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살라미스에서 크세르크세스에게 물러나라고 보낸 경고를 언급했고, 왕이 다리가 끊기지 않은 것을 발견한 일도 함께 들면서 그것이 자기 덕이라고 거짓으로 내세웠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당신께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향한 우의 때문에 그리스인에게 쫓기며 이곳에 와 있습니다. 다만 한 해의 여유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온 목적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바로는 왕이 그의 뜻에 감탄하며 그가 말한 대로 하라고 일렀다고 한다. 그는 그 사이의 기간을 페르시아 말과 그 나라의 관습을 익히는 데 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으로 썼다. 한 해가 끝날 무렵 궁정에 이른 그는 거기서 그때까지 어떤 그리스인도 가져 본 적 없는 매우 높은 대우를 얻었다. 한편으로는 그의 빛나는 전력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왕을 위해 그리스를 복속시켜 주겠다고 내건 희망 때문이었으나, 주로는 그의 능력을 경험이 날마다 증명해 준 덕이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천재의 가장 의심할 수 없는 표징을 보여 준 사람이었다. 실로 이 점에서 그는 아주 남다르고 견줄 데 없는 감탄을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 배움으로 다듬어지지도 보태지지도 않은 타고난 능력만으로 그는 숙고할 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저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가장 뛰어난 판단자였고, 가장 먼 가능성에까지 이르는 앞날의 가장 뛰어난 예언자였다. 자기 실무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이론으로 훌륭히 풀어낼 수 있었던 그는, 경험이 없는 일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힘이 없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앞날에 숨어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그는 뛰어나게 알아맞혔다. 요컨대 그의 타고난 힘의 크기를 보든 그가 들인 공부의 적음을 보든, 이 남다른 사람이 급한 사태를 직관으로 맞서는 능력에서 다른 모든 이를 뛰어넘었음은 인정해야 한다. 그는 병으로 생을 마쳤다. 다만 왕에게 한 약속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독을 마셔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아시아의 마그네시아 광장에 그를 기리는 기념물이 있다. 그는 그 지구의 총독이었다. 왕이 그에게 빵을 위해 한 해 50탈란톤[9]이 들어오는 마그네시아를, 포도주를 위해 가장 풍요로운 포도주 산지로 여겨지던 람프사코스를, 그 밖의 양식을 위해 미우스를 주었기 때문이다. 전하는 바로는 그의 뼈는 그의 뜻에 따라 친족들이 고향으로 옮겨 아티카 땅에 묻었다고 한다. 이 일은 아테네인이 모르게

이루어졌다. 반역으로 법 밖에 놓인 자를 아티카에 묻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스파르타인 파우사니아스와 아테네인 테미스토클레스, 당대 그리스에서 가장 이름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다.

스파르타인에게로 돌아가자. 저주받은 자들을 추방하는 문제를 두고 그들의 첫 사절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전한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불러온 반박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이야기했다. 그 뒤로 두 번째 사절이 와서 아테네에 포티다이아의 포위를 풀고 아이기나의 독립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그 사절은 메가라인을 아테네 제국의 항구들과 아티카의 시장에서 쓰지 못하게 배제한 메가라 포고를 철회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테네에 아주 또렷이 알렸다. 그러나 아테네는 그 포고를 철회할 뜻도 그들의 다른 제안을 받아들일 뜻도 없었다. 아테네는 메가라인이 신성한 땅과 국경의 울 없는 땅까지 경작을 밀어 넣었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도망 노예를 숨겨 주었다고 탓했다. 마침내 스파르타의 최종 통고를 들고 한 사절이 도착했다. 사절은 람피아스와 멜레시포스와 아게산드로스였다. 예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다만 이것뿐이었다. “스파르타는 평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그리스인을 독립된 채로 두려 한다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에 아테네인은 민회를 열어 그 문제를 심의에 올렸다. 그들의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논의하고 답을 주기로 결의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어느 한쪽을 편들었는데, 전쟁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포고를 철회해야 하며 그것이 평화를 가로막게 두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가 나섰다. 당대 아테네의 첫째 인물로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똑같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아테네인 여러분, 제가 무슨 일에서나 지켜 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인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전쟁을 하도록 설득당하는 동안 사람들을 북돋우는 기개가 막상 행동에서는 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정이 바뀌면 결의도 바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과 같이, 거의 글자 그대로 같은 권고가 저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설득을 받아들이려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이 뒤집히는 경우에도 나라의 결의를 떠받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공하는 경우에도 그 결의가 지혜로웠다는 공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일의 흐름은 때로 사람의 계획만큼이나 종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면 무엇이든 흔히 운수를 탓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우리를 겨눈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은 전에도 분명했고 지금은 한층 더 분명합니다. 조약은 우리가 서로의 다툼을 법에 따른 해결에 맡기고 그동안 각자 가진 것을 그대로 지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파르타인은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에게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려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평이 협상이 아니라 전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들이 이 자리에서 따지는 어조를 버리고 명령하는 어조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포티다이아의 포위를 풀라고, 아이기나를 독립하게 두라고, 메가라 포고를 철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을 독립된 채로 두라고 경고하는 최종 통고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불평 앞머리에 놓여 있고 그것을 철회하면 전쟁을 면한다고 하는 저 메가라 포고를 우리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찮은 일로 전쟁에 나서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또 가벼운 이유로 전쟁에 나섰다는 듯한 자책의 감정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게 하지도 마십시오. 이 하찮은 일이야말로 여러분의 결의를 봉인하고 시험하는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러선다면, 처음부터 겁을 먹고 복종한 것이 되므로 곧바로 더 큰 요구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단호히 거절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더 대등한 상대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곧 결정하십시오. 해를 입기 전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저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그래야 하겠으나 전쟁에 나서기로 한다면, 겉으로 내세워진 이유가 큰지 작은지는 마음에 두지 말고 양보하지도 않고 우리 소유를 불안한 조건으로 붙들고 있기에 동의하지도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서 그렇게 하십시오. 대등한 자에게서 오는 요구가 법에 따른 해결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명령으로 이웃에게 들이밀어진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뜻하는 바는 하나뿐이며 그것은 곧 노예 상태입니다.

전쟁과 양편의 재원을 두고 말하면, 자세히 견주어 보아도 아테네가 뒤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인은 제 손으로 제 땅을 갈며 사사로운 재산도 공적인 재원도 없고, 가난이 서로에 대한 공격에 엄한 한계를 두는 까닭에 바다를 건너 오래 싸우는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세력은 함대에 사람을 자주 채우거나 군대를 자주 내보내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집을 오래 떠나 있는 것도 제 재산에서 비용을 내는 것도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며, 게다가 그들은 바다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버티게 하는 것은 억지로 걷은 분담금보다 쌓아 둔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부란 돈주머니로 봉사하기보다 언제나 제 몸으로 봉사하기를 더 마다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몸은 그 위험을 넘기고 살아남으리라 자신하면서도 돈주머니가 때 이르게 바닥나지 않으리라고는 결코 그만큼 자신하지 못합니다. 전쟁이 그들의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라면 펠로폰네소스인과 그 동맹들은 그리스 전체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성격이 다른 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이어 가는 일에는 그들이 무능합니다. 신속하고 힘찬 행동에 반드시 필요한 단일한 평의회실이 없고 그 자리를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진 회의체가 대신하는데, 거기서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각자 제 목적을 밀어붙이므로 결국 아무 행동도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의 큰 소망은 특정한 적에게 복수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큰 소망은 제 주머니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더뎌서, 공동의 목적을 헤아리는 데는 시간의 아주 작은 몫만 들이고 대부분은 제 목적을 밀고 나가는 데 씁니다. 그러는 동안 각자는 제가 소홀히 한 데서 아무 해도 오지 않으리라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자기 몫을 돌보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저마다 같은 생각을 품음으로써 공동의 대의는 눈에 띄지 않게 썩어 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돈이 없어 겪게 될 장애입니다. 돈이 더디게 들어오는 탓에 지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기회는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아티카에 요새를 세울 가능성도 그들의 해군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요새 체계로도 맞겨루는 도시를 세우기는 평화로운 때에도 어려운 일이며, 적의 땅에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테네가 그 요새를 겨누어 방비를 갖춘 것이 그 요새가 아테네를 겨누어 갖춘 것과 다르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한편 한낱 초소라면 침입으로, 또 도망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 땅에 얼마간 해를 입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땅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 거기에 요새를 세우고 우리의 강력한 함대로 보복하는 것을 막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해상 기술이 육지의 일에 우리에게 쓸 데가 있는 것이, 그들의 육상 기술이

바다의 일에 그들에게 쓸 데가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익숙해지는 일은 그들에게 쉽게 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메디아의 침공 때부터 줄곧 그것을 익혀 온 여러분도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면, 농사를 짓고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게다가 아테네에서 보낸 강력한 감시 함대가 늘 그 앞에 있어 연습조차 못 하게 될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것을 이루어 낼 가망이 있겠습니까? 작은 함대를 상대로라면 수로 제 무지에 용기를 더하며 한번 싸움을 걸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한 병력에 억눌리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연습이 모자라 더 서툴러지고 따라서 더 겁이 많아질 것입니다. 뱃일도 다른 무엇과 똑같이 기술의 문제여서 한가한 때의 소일거리로 이따금 손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어떤 일에 쓸 한가한 틈도 남기지 않을 만큼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올림피아나 델포이의 재물에 손을 대어 더 높은 품값의 유혹으로 우리의 외국인 수부들을 꾀어내려 한다 해도, 그것이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시민과 우리 사이에 사는 외국 거류민을 배에 태워도 여전히 그들과 맞먹을 수 없는 경우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그들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 시민 가운데 있는 토착 조타수와 수부의 층이 나머지 그리스 전체보다 더 넓고 더 높다는 점입니다. 그런 걸음에 따르는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외국인 수부 가운데 누구도 며칠분의 높은 품값 때문에 제 나라에서 법 밖에 놓인 자가 되어, 희망이 더 적은 그들 편에 들어가 함께 싸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펠로폰네소스인의 처지를 꽤 공정하게 밝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테네의 처지는 제가 그들에게서 비판한 결함이 없고, 그들이 맞설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자체의 다른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으로 진군하면 우리는 그들의

땅으로 배를 몰고 갈 것이며, 그때 아티카 전체가 황폐해지는 것이 펠로폰네소스의 한 조각이 황폐해지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 말고는 그 모자람을 메울 방도가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섬에도 대륙에도 땅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지배한다는 것은 실로 큰 일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사람이라고 해 봅시다. 이보다 더 뚫을 수 없는 처지를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처지를 되도록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땅과 집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바다와 도시를 빈틈없이 지켜야 합니다. 앞의 것을 두고 우리가 느낄 어떤 분함도 우리를 수에서 앞서는 펠로폰네소스인과의 전투로 몰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한다 해도 그 뒤에 오는 것은 같은 우세를 상대로 하는 또 한 번의 전투일 뿐입니다. 패배는 우리 힘의 원천인 동맹들을 잃는 일을 뜻하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진군할 수 없게 된 다음이면 그들은 하루도 잠잠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집과 땅을 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잃은 일입니다. 집과 땅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과 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나가서 제 손으로 그것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적어도 그런 일로는 여러분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펠로폰네소스인에게 보이라고 명했을 것입니다.

좋은 결말을 바랄 다른 이유도 저에게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새로운 정복의 계획을 겹쳐 놓지 않기로 동의하고, 스스로 나서서 다른 위험에 몸을 얽어 넣기를 삼가 주신다면 말입니다. 실로 저는 적의 계략보다 우리 자신의 실책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태가 요구할 때 다른 연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 사람들을 다음과 같은 답과 함께 돌려보내십시오. 스파르타인이 우리와 우리 동맹에게 이롭도록 자기들의 외국인 배제

조치를 거둔다면 우리도 메가라에게 우리 시장과 항구를 쓰도록 허락하겠다고, 조약에는 어느 쪽도 막는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또 우리가 조약을 맺었을 때 독립된 상태로 보았던 도시들이라면 우리는 그 도시들을 독립된 채로 둘 것이며, 스파르타인 또한 자기들의 도시에 스파르타의 이익에 종속되지 않고 각자가 저마다 바라는 그런 독립을 허락할 때 그러하겠다고 하십시오. 또 우리 합의가 명시한 법에 따른 만족을 우리는 줄 뜻이 있으며, 우리가 먼저 적대 행위를 시작하지는 않겠으나 먼저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맞서겠다고 하십시오. 이것이 아테네의 권리와 아테네의 품위에 동시에 맞는 답입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일임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더 선선히 받아들일수록 맞선 자들의 열기는 더 식을 것임을, 그리고 가장 큰 위험에서 공동체와 개인이 가장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재원으로, 게다가 그 재원마저 버려야 했을 때에도 메디아인에게 맞서지 않았습니까? 행운보다는 지혜로, 힘보다는 담대함으로 이방인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일을 지금의 이 높이까지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뒤처져서는 안 되고, 무슨 수를 써서든 또 쓸 수 있는 모든 수로 우리 적들에게 맞서야 하며, 우리 힘을 손상 없이 후손에게 물려주려 힘써야 합니다."

페리클레스의 말은 이러했다. 아테네인은 그의 권고가 지혜롭다고 납득하여 그가 원한 대로 표를 던졌고, 개별 항목에서나 전체에서나 그가 권한 대로 스파르타인에게 답했다. 명령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으나 휴전 조항이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불평들이 공정하고 치우침 없이 해결되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고향으로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들이 전쟁 전에 맞선 두 세력 사이에 있던 고발과 다툼이었으며, 에피담노스와 코르키라의 사건에서 곧바로 생겨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왕래는 그대로 이어졌고 서로 오가는 연락도 이어졌다. 그 왕래는 전령 없이 이루어졌으나 의심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조약을 깨뜨린 것에 맞먹고 전쟁의 사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 디아시아 — 아테네인이 자비로운 제우스(제우스 메일리키오스)를 위해 도시 밖에서 치른 큰 축제.

2. 아르콘 — 아테네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아홉 명을 뽑았고, 킬론의 때에는 정치의 기능 대부분을 이들이 맡아 보았다.

3.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토지를 갈던 계층. 시민권이 없었고 수가 많아 스파르타는 늘 이들의 봉기를 경계했다.

4.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5. 에포로스 — 스파르타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5명을 뽑았고 왕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번역에서는 '감독관'으로 옮기고 첫 등장에만 원어를 함께 밝혔다.

6. 스키탈레 — 스파르타가 공문을 보낼 때 쓴 막대. 같은 굵기의 막대 두 개를 한 쌍으로 만들어, 한쪽에 가죽띠를 감아 글을 쓰고 풀어서 보내면 같은 막대에 다시 감아야 글이 읽혔다. 전령이 이것을 들고 온다는 것은 국가의 정식 소환을 뜻했다.

7. 카이아다스 — 스파르타에서 죄인의 주검을 던져 넣던 깊은 구렁.

8. 도편추방 — 아테네의 제도. 민회에서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적어 투표해 한 사람을 10년간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 시민권과 재산은 그대로 남았으므로 반역자에 대한 처벌과는 달랐다.

9.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및 화폐 단위. 은의 무게로 셈했고 큰 액수를 헤아릴 때 썼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6장 (제II권 제VI장) —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 — 아티카 첫 침공 —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 그리고 양편 동맹들 사이의 전쟁은 이제 정말로 시작된다. 이때부터 전령을 통하는 것 말고는 모든 왕래가 끊겼고, 적대 행위가 시작되어 쉼 없이 이어졌다. 이 역사는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일이 일어난 차례를 따른다.

에우보이아를 정복한 뒤에 맺은 30년 휴전은 14년 동안 이어졌다. 그 15년째 되던 해, 아르고스에서 크리시스가 여사제로 지낸 지 48년째 되는 해, 스파르타에서 아이네시아스가 감독관(에포로스)[1]으로 있을 때, 아테네에서 피토도로스가 아르콘[2] 임기를 아직 두 달 남겨 두고 있던 때, 포티다이아 전투가 있은 지 여섯 달 뒤,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300명이 조금 넘는 테베 병력이 보이오타르케스[3]인 필레이데스의 아들 피탄겔로스와 오네토리데스의 아들 디엠포로스의 지휘 아래, 밤의 첫 야경 무렵에 무장한 채 플라타이아로 들어갔다. 플라타이아는 보이오티아의 도시이면서 아테네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 성문을 열어 준 것은 나우클레이데스라는 플라타이아 사람이었다. 그와 그 일파가 테베인을 불러들인 것으로, 맞선 당파의 시민들을 죽이고 도시를 테베에 넘겨 제 손에 권력을 쥐려는 속셈이었다. 이 일은 테베에서 가장 세력이 큰 인물인 레온티아데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를 통해 꾸며졌다. 플라타이아는 예부터 테베와 사이가 나빴다. 테베는 전쟁이 코앞에

왔음을 내다보고, 적대가 실제로 터지기 전 평화로운 때에 오랜 원수를 기습하고자 했다. 실로 그래서 그들은 들키지 않고 그토록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파수가 하나도 서 있지 않았던 것이다. 병사들이 장터에 무기를 내려놓자, 그들을 불러들인 자들은 곧바로 일에 착수해 원수들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테베인은 그러기를 마다하고, 회유하는 포고를 내어 될 수 있으면 시민들과 우호적인 합의에 이르기로 정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전령이, 동족의 연방에서 옛 자리를 되찾기를 바라는 자는 누구든 자기들과 함께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알렸다. 그렇게 하면 도시가 선선히 자기들 편에 서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테베인이 성문 안에 들어와 있고 도시가 느닷없이 점령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플라타이아인은 놀란 나머지 실제보다 더 많은 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밤이라 그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조건을 받아들여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테베인이 그들 누구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은 것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교섭하는 동안 그들은 테베인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쉽게 쳐서 제압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플라타이아인 대다수는 아테네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집과 집 사이의 벽을 뚫어, 거리를 지나는 모습을 들키지 않고 서로 합칠 수 있었다. 거리에는 짐승을 떼어 낸 수레를 놓아 바리케이드로 삼았고, 그 밖의 것도 그 자리에 맞아 보이는 대로 갖추어 두었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때를 살피다가 집에서 나와 적에게로 향했다. 아직 밤이었으나 동틀 녘이 가까웠다. 날이 밝은 뒤라면 자기들의 공격이 용기에 찬, 자기들과 대등한 사람들과 맞부딪히리라고 보았다. 반면 어둠 속이라면 겁에 질린 군대를 덮치게 될 것이고, 게다가 적은 지리에 밝은 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불리함까지 안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바로 들이쳤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맞붙었다.

테베인은 자기들이 속았음을 알고 곧바로 대오를 좁혀 쏟아지는 공격을 막아 냈다. 두세 번은 치고 드는 자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남자들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여자들과 노예들은 집에서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며 돌과 기왓장을 퍼부었다. 게다가 밤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용기가 꺾였고, 그들은 돌아서서 도시를 가로질러 달아났다. 달아나는 자들 대부분은 나가는 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에 진창과, 그믐에 가까운 달이 만든 어둠과, 뒤쫓는 자들은 길을 훤히 알아 손쉽게 앞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겹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았다. 열린 문은 그들이 들어온 문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 어느 플라타이아인이 빗장에 쐐기 대신 투창의 물미를 꽂아 닫아 버렸다. 그리하여 여기서도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이제 그들은 도시 곳곳에서 쫓겼다. 더러는 성벽에 올라 몸을 던졌으나 대개 목숨을 잃었다. 한 무리는 사람이 없는 문을 하나 찾아내어 어느 여자에게서 도끼를 얻어 빗장을 끊었으나, 곧 눈에 띄는 바람에 빠져나간 자는 몇 되지 않았다. 다른 자들은 도시 여기저기에서 따로따로 끊겨 죽었다. 가장 많고 가장 뭉쳐 있던 무리는 성벽에 잇닿은 큰 건물로 뛰어들었다. 그 건물의 문이 마침 열려 있었고, 테베인은 그것이 도시의 성문이며 바로 바깥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플라타이아인은 적이 덫에 걸린 것을 보고, 건물에 불을 질러 그대로 태워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의논했다. 그러다 마침내 이들과, 도시를 헤매다 발견된 나머지 테베인 생존자들이 자기들과 무기를 플라타이아인에게 조건 없이 넘기기로 했다.

플라타이아 안의 무리가 그런 운명을 맞는 동안, 먼저 들어간 부대에 무슨 일이 어긋날 경우에 대비해 동트기 전에 전군을 이끌고 합류하기로

되어 있던 나머지 테베인은 길에서 그 소식을 받고 구하러 서둘러 나아갔다. 플라타이아는 테베에서 70스타디온[4] 떨어져 있는데, 밤에 내린 비 때문에 행군이 늦어졌다. 아소포스 강이 불어 건너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빗속을 행군하고 강을 건너는 데 발이 묶인 그들은 너무 늦게 닿았고, 무리가 모두 죽거나 사로잡힌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자 그들은 곧 도시 밖의 플라타이아인을 노릴 계획을 세웠다. 공격이 평화로운 때에, 그것도 전혀 뜻밖에 벌어진 터라 들에는 당연히 사람과 가축이 나와 있었다. 테베인은 될 수 있으면 포로 몇을 잡아, 도시 안의 제 동포가 산 채로 붙잡혀 있다면 그들과 맞바꾸고자 했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플라타이아인은 그 뜻이 세워지기도 전에 낌새를 채고, 도시 밖의 동료 시민들이 걱정되어 테베인에게 전령을 보냈다. 휴전 중에 제 도시를 빼앗으려 한 파렴치한 짓을 꾸짖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손에 쥔 자들을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다만 테베인이 제 땅에서 물러나면 포로들을 그 벗들에게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이 일에 대한 테베 쪽 이야기이며, 그들은 그때 맹세를 받았다고 말한다. 반면 플라타이아인은 곧바로 넘기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뒤이어 교섭하기에 달린 일이었다고 하며, 맹세는 아예 부인한다. 어느 쪽이든, 테베인이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제 땅에서 물러나자 플라타이아인은 들에 있던 것을 서둘러 거두어들이고 곧바로 그 사람들을 죽였다. 포로는 180명이었고, 배신자들이 교섭한 상대인 에우리마코스도 그중 하나였다.

이 일을 마치고 플라타이아인은 아테네로 사람을 보냈고, 휴전 아래 테베인에게 주검을 돌려주었으며, 당장의 위급함에 맞추어 도시의 일을 가장 낫다고 여겨지는 대로 정돈했다. 한편 아테네인은 일이 벌어진 직후에 소식을 받고, 아티카에 있던 보이오티아인을 모조리 붙잡아

두었으며, 아테네의 지시 없이는 테베인 포로를 극단으로 몰지 말라고 플라타이아인에게 전령을 보내 금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물론 닿지 않은 뒤였다. 첫 전령은 테베인이 막 들어섰을 때 플라타이아를 떠났고, 둘째 전령은 그들이 패해 붙잡힌 직후에 떠났으므로 그 뒤의 소식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테네인은 사실을 모른 채 명령을 보냈고, 전령이 닿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 뒤 아테네인은 플라타이아로 행군해 식량을 들여놓고 그곳에 수비대를 남겼으며, 여자와 아이들과 쓸모가 가장 적은 남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플라타이아의 일로 조약은 드러난 행위로써 깨어졌고, 아테네는 곧바로 전쟁을 준비했으며 스파르타와 그 동맹들도 그러했다. 양편은 대왕에게, 그리고 어느 쪽이든 도움을 기대할 만한 다른 이방 세력들에게 사절을 보내기로 했고, 그리스 안의 독립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 스파르타는 이미 가진 함대에 더하여,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서 자기 편에 선 나라들에 배를 지어 모두 500척을 채우라고 명했다. 도시마다 몫은 그 크기로 정했고, 정해진 액수의 돈도 내게 했다. 이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아테네 배는 한 번에 한 척씩만 항구에 들이기로 했다. 아테네는 제 동맹을 점검하고, 펠로폰네소스에 더 가까이 붙은 곳들에 사절을 보냈다. 코르키라와 케팔레니아와 아카르나니아와 자킨토스였다. 이들에게 기댈 수 있다면 펠로폰네소스를 빙 둘러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양편 모두 가장 대담한 희망을 품고 전쟁에 온 힘을 쏟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열의는 언제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높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때 펠로폰네소스와 아테네는 둘 다 젊은이로 가득했는데, 그들은 겪어 본 일이 없었기에 무기 들기를 열망했다. 한편 나머지 그리스는 으뜸가는 두 도시가 부딪치는 것을 지켜보며 흥분으로

팽팽했다. 어디서나 예언이 읊어지고 신탁이 노래로 불렸다. 그런 것을 모으는 자들이 그렇게 했으며, 이는 싸우는 두 도시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이보다 얼마 앞서 델로스에 지진이 있었으니, 그리스인의 기억에 남은 것으로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닥쳐올 일의 조짐이라고 이야기되었고 또 그렇게 여겨졌다. 실로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면 무엇 하나 말없이 지나가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의 호의는 스파르타 쪽으로 크게 기울었는데, 특히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의 해방자라고 내세웠기 때문이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사로운 노력도 공적인 노력도 빠짐이 없었다. 저마다 자기가 직접 챙기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대의가 해를 입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아테네에 대한 분노는 그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 그 제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이든, 거기에 삼켜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든 마찬가지였다. 싸움이 열릴 때의 준비와 마음가짐은 그러했다.

싸운 두 편의 동맹은 다음과 같았다. 스파르타의 동맹은 이러했다. 지협 안쪽 펠로폰네소스인 전부였는데, 중립을 지킨 아르고스인과 아카이아인은 빼야 한다. 아카이아 도시 가운데 처음부터 전쟁에 들어온 것은 펠레네뿐이었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 본을 따랐다. 펠로폰네소스 밖에서는 메가라인, 로크리스인, 보이오티아인, 포키스인, 암브라키아인, 레우카스인, 아낙토리온인이 있었다. 이 가운데 배를 낸 것은 코린트인, 메가라인, 시키온인, 펠레네인, 엘리스인, 암브라키아인, 레우카스인이었고, 기병을 낸 것은 보이오티아인, 포키스인, 로크리스인이었다. 나머지 나라들은 보병을 보냈다. 이것이 스파르타 연맹이었다. 아테네 쪽에는 키오스인, 레스보스인, 플라타이아인, 나우팍토스의 메세니아인, 아카르나니아인 대부분, 코르키라인, 자킨토스인, 그리고 다음 지역에 있는 조공을 바치는 도시들이 들어 있었다. 곧 바다에 면한 카리아와 그에 이웃한 도리스계 도시들,

이오니아, 헬레스폰토스, 트라키아의 도시들, 펠로폰네소스와 크레타 사이에 놓여 동쪽으로 뻗은 섬들, 그리고 멜로스와 테라를 뺀 키클라데스 전부였다. 이 가운데 배를 낸 것은 키오스와 레스보스와 코르키라였고, 나머지는 보병과 돈을 냈다. 양편의 동맹과 전쟁에 쓸 그들의 밑천은 그러했다.

플라타이아의 일이 있은 직후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의 도시들과 그 밖의 연맹에 명을 돌려, 아티카를 침공하기 위해 바깥 원정에 필요한 병력과 식량을 갖추게 했다. 여러 나라가 정해진 때에 준비를 마치고 지협에 모였는데, 도시마다 낸 몫은 제 전체 병력의 3분의 2였다. 온 군대가 모이자 원정을 이끄는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가 모든 나라의 장군들과 주요 인사와 장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훈시했다.

펠로폰네소스인과 동맹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펠로폰네소스 안팎에서 여러 차례 원정을 치렀고, 여기 있는 나이 든 이들도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병력을 이끌고 나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와 정예함이 놀랄 만하다면, 우리가 향해 가는 나라의 힘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상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서도, 우리 자신의 이름값에 못 미쳐서도 안 됩니다. 온 그리스의 희망과 눈길이 이번 일에 쏠려 있고, 그 마음은 미움받는 아테네의 적에게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공하는 군대가 아무리 많아 보이고, 적이 들에 나와 우리를 맞지 않으리라고 누군가 확신하더라도, 그것이 행군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해도 좋다는 구실은 되지 못합니다. 도시마다 장교와 병사는 제가 맡은 자리에 위험이 닥칠 것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리 볼 수 없고, 그 공격은 대개 그 순간의 충동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이 준비를 업신여긴 자리에서, 지혜로운 조심이 더 많은 수를 상대로 버텨 낸 일이 흔합니다. 침공하는

군대에 자신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적의 땅에서는 조심이 주는 경계가 그 자신감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둘이 맞물릴 때 군대는 한 대 치기에 가장 좋게 고무되고, 한 대 맞는 것을 가장 잘 막아 냅니다. 이번 경우에 우리가 향해 가는 도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는커녕, 오히려 어느 모로나 더없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맞아 들에 나오리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며, 우리가 닿기 전에 이미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 땅에서 재산을 짓밟고 부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그리할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해를 입을 때, 그것도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언제나 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따져 볼 마음이 가장 없을 때 가장 뜨겁게 행동으로 달려듭니다. 아테네인이야말로 누구보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니, 그들은 나머지 세상을 다스리려 하고, 제 땅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보기보다 이웃의 땅을 침범하고 짓밟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해 가는 나라의 힘을 헤아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조상과 우리 자신에게 얻거나 잃을 이름의 크기를 헤아려, 이끄는 대로 따르면서 규율과 경계를 으뜸으로 여기고 전해지는 명령에 선뜻 따르기를 잊지 마십시오. 큰 무리를 하나의 규율로 묶는 것만큼 군대의 명예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모임을 파한 뒤, 아르키다모스는 먼저 디아크리토스의 아들이며 스파르타 시민[5]인 멜레시포스를 아테네로 보냈다. 펠로폰네소스인이 실제로 행군에 나선 것을 보면 아테네가 좀 더 굽히려 들지 모른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인은 그를 도시에도 민회에도 들이지 않았다. 페리클레스가 이미, 스파르타인이 한 번 군대를 몰고 나선 뒤에는 그들의 전령도 사절도 받아들이지 말자는 안을 통과시켜 둔 터였다.

그리하여 전령은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돌려보내졌고, 그날 안으로 국경 밖으로 나가라는 명을 받았다. 앞으로 그를 보낸 자들이 내놓을 제안이 있다면 아테네로 사절을 보내기 전에 제 땅으로 물러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멜레시포스에게는 누구와도 말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호송이 딸렸다. 그가 국경에 이르러 막 풀려나려 할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날이 그리스인에게 큰 불행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오." 그가 진영에 닿고 아테네인이 여전히 굽힐 뜻이 없다는 것을 아르키다모스가 알게 되자, 그는 마침내 행군을 시작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땅으로 나아갔다. 한편 보이오티아인은 제 몫의 병력과 기병을 펠로폰네소스 원정군에 보내고, 나머지를 이끌고 플라타이아로 가서 그 땅을 짓밟았다.

펠로폰네소스인이 아직 지협에 모여 있거나 아티카를 침공하기 전 행군 중일 때, 아테네의 열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는 침공이 있을 것을 알고 이런 생각을 했다. 마침 자기 벗이기도 한 아르키다모스가 자기 땅만은 짓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개인으로서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향한 의심을 만들어 내라는 스파르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저주받은 가문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을 때 이미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민회에서 아테네인에게 미리 밝혀 두었다. 아르키다모스가 제 벗이기는 하나 그 우정이 나라를 해치는 데까지 미쳐서는 안 되며, 적이 자기 집과 땅만은 다른 것과 달리 두고 노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곧바로 나라의 재산으로 내놓겠으니, 그 일로 자기가 의심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그는 당장의 일에 대해 전과 같은 뜻으로 시민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전쟁을 준비하고 들에 있는 재산을 들여오라는 것이었다. 싸우러 나가지 말고 도시로 들어와 그것을 지키며, 참된 힘이

있는 함대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동맹들의 고삐를 단단히 잡으라고도 했다. 아테네의 힘은 그들이 바치는 돈에서 나오고, 전쟁의 성패는 주로 판단과 넉넉한 돈에 달렸으므로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른 수입원과 별도로, 동맹의 공납에서 나오는 수입이 해마다 평균 은 600탈란톤[6]이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에는 주화로 된 은이 아직 6,000탈란톤 있었으니, 한때 거기 있던 9,700탈란톤에서 아크로폴리스의 문간과 그 밖의 공공 건물과 포티다이아에 쓴 돈을 뺀 것이었다. 여기에는 공적으로나 사사로이 바친 주화가 아닌 금과 은, 행렬과 경기에 쓰는 신성한 기물, 페르시아 전쟁의 전리품, 그리고 그와 비슷한 밑천 500탈란톤어치는 들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그는 다른 신전들의 재물을 더했다. 그것도 결코 적지 않았고 마땅히 쓸 수 있는 것이었다. 아니,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면 아테나 여신 자신의 금 장식까지 벗겨 쓸 수 있었다. 그 상은 순금 40탈란톤을 담고 있었고 모두 떼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데 쓸 수 있으나, 한 푼도 빠짐없이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들을 북돋웠다. 다음으로 그들에게는 중장보병 13,000명이 있었고, 그 밖에 수비대와 아테네 안의 근무에 16,000명이 더 있었다. 이것이 침공이 있을 때 파수에 서는 사람의 처음 수였고, 가장 나이 많은 징집대와 가장 어린 징집대와 중무장을 갖춘 거류 외국인으로 이루어졌다. 팔레론 성벽은 도시를 둘러싼 성벽과 이어지기까지 35스타디온을 뻗었고, 그 도시 성벽 가운데 43스타디온에 파수가 섰으나 일부는 파수 없이 두었으니, 곧 장성과 팔레론 성벽 사이의 구간이었다. 다음으로 피레우스까지 이르는 장성이 있었으니 40스타디온 거리였고, 그 가운데 바깥쪽에 사람이 배치되었다. 끝으로 무니키아를 아우른 피레우스의 둘레는 60스타디온이었으나 그 절반만 지켜졌다. 페리클레스는 또 그들에게 말 탄 궁수를 넣어 기병이 1,200명,

말 타지 않은 궁수가 1,600명, 그리고 항해할 수 있는 삼단노선이 300척 있음을 보여 주었다. 펠로폰네소스의 침공이 닥치고 적대가 시작될 때 아테네가 부문마다 가진 밑천은 그러했다. 페리클레스는 전쟁이 좋은 결말에 이를 것을 기대할 만하다는, 늘 하던 논거도 함께 내놓았다.

아테네인은 그의 조언을 따라, 들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온 살림살이를 들여오기 시작했으며 집의 목재까지 뜯어 옮겼다. 양과 짐 끄는 가축은 에우보이아와 그에 잇닿은 섬들로 보냈다. 그러나 옮기는 일은 그들에게 힘겨웠으니, 대부분이 늘 들에서 사는 데 익숙했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시절부터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테네인에게 더 그러했다. 케크롭스와 첫 왕들 아래에서 테세우스가 다스릴 때까지, 아티카는 언제나 여러 독립한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 제 공회당과 정무관을 두었다. 위험한 때가 아니면 아테네의 왕에게 묻지 않았다. 여느 때에 그들은 왕이 끼어들지 않은 채 스스로 다스리고 제 일을 정했다. 때로는 왕과 싸우기까지 했으니, 엘레우시스인이 에우몰포스와 함께 에레크테우스에게 맞선 일이 그러했다. 그러나 테세우스에 이르러 그들은 지혜와 힘을 함께 갖춘 왕을 얻었다. 그가 나라를 짜면서 한 일 가운데 으뜸가는 것 하나는 작은 도시들의 평의회당과 정무관을 없애고 그것을 지금 수도의 단일한 평의회당과 공회당에 합친 것이었다. 개인은 전과 똑같이 제 재산을 누릴 수 있었으나, 이때부터 정치의 중심을 오직 하나, 곧 아테네만 두도록 강제되었다. 그리하여 아테네는 아티카의 모든 주민을 제 시민으로 헤아리게 되었으니, 테세우스가 죽을 때 그는 큰 나라를 남겨 놓은 것이었다. 실로 그에게서 시노이키아, 곧 통합의 축제가 비롯되었다. 이 축제는 나라가 비용을 대며, 아테네인은 아직도 여신을 기려 그것을 지킨다. 이보다 앞서 도시는 지금의 성채와 그 아래 남쪽으로 기울어진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은 아테나의 신전 말고도 다른 신들의

신전이 성채 안에 있다는 사실로 드러난다. 성채 밖에 있는 것들조차 대개 도시의 이 구역에 자리 잡고 있으니,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 피티아의 아폴론 신전, 땅의 신전, 그리고 늪지의 디오니소스 신전이 그러하다. 뒤의 신을 기려 더 오래된 디오니시아가 오늘날까지 안테스테리온 달에 치러지는데, 아테네인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오니아계 후손들도 그렇게 한다. 이 구역에는 다른 오래된 신전들도 있다. 샘도 그러했다. 참주들이 손을 본 뒤로 엔네아크루노스, 곧 아홉 수도라고 불리게 되었으나 물이 드러나 있던 때에는 칼리로에, 곧 맑은 물이라는 이름으로 통했던 이 샘은 그 시절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였다. 실로 혼례 전에, 그리고 그 밖의 신성한 일에 그 물을 쓰는 옛 관례는 아직도 지켜진다. 또한 옛적에 그 구역에 살았던 까닭에, 성채는 아테네인 사이에서 아직도 도시라고 불린다.

이렇게 아테네인은 오랫동안 아티카 곳곳에 독립한 촌락으로 흩어져 살았다. 테세우스가 하나로 모은 뒤에도 옛 습관이 여전했다. 그리하여 이른 시절부터 이번 전쟁에 이르기까지 아테네인 대부분은 여전히 들에서 가족과 살림을 데리고 살았으니, 이제 옮기는 것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다. 페르시아 침공 뒤에 제 살림을 겨우 되세운 터라 더욱 그러했다. 집과, 옛 제도에서 물려받은 신전들을 버리고,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저마다 제 고향 도시로 여기던 것에 작별을 말해야 하는 데서 그들의 괴로움과 불만은 깊었다.

아테네에 닿았을 때 몇몇은 갈 만한 제 집이 있거나 벗이나 친척에게 몸을 붙일 수 있었으나, 훨씬 많은 수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도시의 빈 자리와 영웅들의 신전과 사당에 머물러야 했다. 다만 아크로폴리스와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 신전, 그리고 늘 닫아 두는 그 밖의 자리는 빼야 한다. 성채 아래 놓인 펠라스고이라 불리는 땅에 사는 일은 저주로

금지되어 있었고, 게다가 조짐이 좋지 않은 피티아 신탁의 한 조각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펠라스고이의 땅은 비워 두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곳도 그때의 다급함에 밀려 건물이 들어섰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신탁이 참으로 들어맞았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반대되는 뜻에서였다. 나라의 불행은 그 땅을 법 없이 차지한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다급함이 전쟁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으나, 그 땅에 사람이 살게 되는 날이 아테네에 나쁜 날이 될 것임을 내다보았다. 많은 사람이 성벽의 탑에, 또는 그 밖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들어 살았다. 모두가 들어오고 나니 도시는 그들을 담기에 너무 작았던 것이다. 그래도 나중에는 장성과 피레우스의 상당 부분을 구획으로 나누어 거기 자리를 잡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전쟁에는 큰 힘이 쏟아지고 있었다. 동맹들이 모이고 있었고, 펠로폰네소스로 보낼 배 100척이 갖추어졌다. 아테네의 준비 형편은 그러했다.

그러는 동안 펠로폰네소스 군대는 나아가고 있었다. 아티카에서 그들이 처음 닿은 도시는 오이노에였는데, 그곳으로 그 땅에 들어가려던 것이었다. 그 앞에 진을 치고 그들은 공성 기계와 그 밖의 방법으로 성벽을 치려고 준비했다. 오이노에는 아티카와 보이오티아의 경계에 서 있어 당연히 성벽을 두른 도시였고, 아테네인이 전쟁 때에 요새로 쓰던 곳이었다. 그리하여 펠로폰네소스인은 공격을 준비하며 그 앞에서 값진 시간을 얼마 허비했다. 이 늦어짐은 아르키다모스에게 적지 않은 비난을 불러왔다.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에도 그는 미지근한 방책을 내세운 탓에 무르다는, 아테네에 마음이 기울었다는 평을 얻었다. 그리고 군대가 모인 뒤에는 지협에서 어정거리고 나머지 행군을 더디게 끌고 온 것으로 사람들의 평판을 더 해쳤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오이노에에서 늦어진

것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에 아테네인은 재산을 들여오고 있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은 그가 미적거리지 않고 빠르게 나아갔다면 모든 것이 아직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으리라고 믿었다. 포위하는 동안 군대가 아르키다모스에게 품은 마음은 그러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인이 제 땅이 짓밟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아직 성하는 동안에 굽히리라고 기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이노에를 치고도 함락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아테네에서 전령이 오지 않자, 그는 마침내 진영을 걷고 아티카를 침공했다. 이는 테베가 플라타이아를 노린 일이 있은 지 여든 날쯤 뒤, 곡식이 익은 한여름이었고, 스파르타 왕이며 제욱시다모스의 아들인 아르키다모스가 지휘했다. 엘레우시스와 트리아평야에 진을 친 그들은 짓밟기를 시작했고, 레이티, 곧 개울이라 불리는 곳에서 아테네 기병 얼마를 쫓아낸 뒤 아이갈레오스 산을 오른쪽에 두고 크로피아를 지나 나아가 아카르나이에 이르렀다. 아카르나이는 아테네의 데모스, 곧 촌락 가운데 가장 큰 곳이었다. 그 앞에 진을 치고 그들은 거기 진영을 세워 오랫동안 짓밟기를 이어 갔다.

이번 침입에서 아르키다모스가 평야로 내려가지 않고 아카르나이에 전투 대형으로 머문 까닭은 이러했다고 한다. 그는 아테네인이 젊은이의 많음과 전에 없던 군비의 정예함에 이끌려 싸우러 나와 제 땅이 짓밟히는 것을 막으려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래서 그들이 엘레우시스나 트리아평야에서 자기를 맞지 않았으므로, 아카르나이에 진영이 선 광경으로 그들을 자극해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본 것이다. 그는 그 자리 자체가 진을 치기에 좋다고 보았다. 게다가 아카르나이의 중장보병 3,000명이라는 나라의 그만한 몫이 제 재산이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두려 하지 않고 나머지 시민들에게 싸움을 밀어붙일 법해 보였다. 반면 아테네인이 이번 침입에 들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침공에서는 마음 놓고 평야를 짓밟고 아테네 성벽 바로 앞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아카르나이 사람들이 제 재산을 잃은 뒤라면 이웃의 재산을 위해 자기를 내걸 마음이 덜할 것이니, 아테네의 의논이 갈릴 터였다. 아르키다모스가 아카르나이에 머문 동기는 그러했다.

그러는 동안 군대가 엘레우시스와 트리아평야에 있는 한, 더 가까이 오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다. 스파르타 왕이며 파우사니아스의 아들인 플레이스토아낙스가 14년 전에 펠로폰네소스 군대를 이끌고 아티카를 침공했으나 엘레우시스와 트리아보다 더 나아가지 않고 물러갔던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실로 그 일이 그가 스파르타에서 추방된 까닭이 되었으니, 물러가라고 뇌물을 받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아카르나이에 군대가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참을성을 모두 잃었다. 아테네의 땅이 아테네인의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었으니, 젊은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노인들도 페르시아 전쟁에서만 본 광경이었다. 그것은 자연히 뼈아픈 모욕으로 여겨졌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가 그것을 막자는 결의가 온통 퍼졌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논쟁했다. 나가자는 제안이 열렬히 권해진 만큼 반대되는 자리도 있었기 때문이다. 온갖 뜻의 신탁이 그것을 모으는 자들에게서 읊어졌고, 다투는 어느 한쪽에서 열심인 청중을 얻었다. 나가자고 가장 앞장서 밀어붙인 것은 아카르나이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 나라의 군대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했고 짓밟히는 땅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도시 전체가 몹시 들끓었다. 페리클레스는 사람들의 분노가 향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가 앞서 준 조언은 까맣게 잊혔다. 그는 제가 지휘하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먹었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 전부에 책임이 있다고 몰렸다.

한편 그는 분노와 어리석음이 지금 우세하다는 것을 보았고, 나가기를 마다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겼으므로, 민회도 백성의 모임도 소집하지 않았다. 신중함이 아니라 격정에서 나온 논쟁이 부를 치명적인 결과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도시를 지키는 일에 나서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두었고, 다만 적의 유격대가 도시 가까운 땅을 노략하지 못하도록 기병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프리기아에서 테살리아인과 함께한 아테네 기병 한 부대와 보이오티아 기병 사이에 자그마한 충돌이 있었다. 거기서 앞쪽이 다소 우세했으나, 중장보병이 보이오티아인을 도우러 나아오자 테살리아인과 아테네인이 무너져 몇 사람을 잃었다. 다만 그 주검은 그날 안에 휴전 없이 거두었다. 이튿날 펠로폰네소스인은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테살리아인을 아테네를 돕도록 이끈 것은 오래된 동맹이었고, 온 이들은 라리사인, 파르살로스인, 크라논인, 피라소스인, 기르톤인, 페라이인이었다. 라리사 쪽 지휘자는 라리사의 두 당파 지도자인 폴리메데스와 아리스토노스였고, 파르살로스 쪽 장군은 메논이었으며, 다른 도시들도 저마다 제 지휘자를 두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이 싸우러 나오지 않았으므로 펠로폰네소스인은 아카르나이에서 진영을 걷고 파르네스 산과 브릴레소스 사이의 촌락 얼마를 짓밟았다. 그들이 아티카에 있는 동안 아테네인은 펠로폰네소스를 돌게 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배 100척을 내보냈으니, 중장보병 1,000명과 궁수 400명을 태우고 크세노티모스의 아들 카르키노스, 에피클레스의 아들 프로테아스, 안티게네스의 아들 소크라테스[7]가 지휘했다. 이 함대는 닻을 올려 순항에 나섰고, 펠로폰네소스인은 식량이 가는 동안 아티카에 머문 뒤 들어올 때와 다른 길로 보이오티아를 지나 물러갔다. 오로포스를 지나면서 그들은 그라이아의 땅을 짓밟았는데, 이곳은 아테네에 예속된 오로포스인이

사는 땅이었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에 이르러 저마다 제 도시로 흩어졌다.

그들이 물러간 뒤 아테네인은 전쟁 동안 상시 배치할 자리를 정해 육지와 바다에 파수를 두었다. 또 아크로폴리스의 돈 가운데 1,000탈란톤을 따로 떼어 특별한 기금으로 두기로 했다. 이것은 쓰지 않고, 전쟁의 그때그때 드는 비용은 달리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적이 함대를 끌고 와 바다에서 치려 할 때 도시를 지키는 일 말고 어떤 목적으로든 이 돈을 쓰자고 발의하거나 표결에 부치는 자가 있으면 죽음으로 다스릴 죄로 삼았다. 이 돈과 함께 그들은 삼단노선 100척을 특별 함대로 따로 두었으니, 해마다 가장 좋은 배를 함장과 함께 골랐다. 그런 위험이 닥칠 경우 그 돈과 함께, 그 위험에 맞서는 일 말고는 이 배들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펠로폰네소스를 돌던 배 100척의 아테네인은 코르키라 배 50척과 그 일대 동맹의 다른 배 얼마가 보태져 해안을 돌며 그 땅을 짓밟았다. 여러 곳 가운데 그들은 라코니아에 상륙해 메토네를 쳤다. 그곳에는 수비대가 없었고 성벽도 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 텔리스의 아들이며 스파르타 시민인 브라시다스가 그 지역을 지키는 파수를 지휘하고 있었다. 공격 소식을 듣고 그는 중장보병 100명과 함께 포위된 자들을 도우러 서둘렀고, 들에 흩어져 성벽에 눈을 돌리고 있던 아테네 군대를 뚫고 달려 메토네로 뛰어들었다. 들어가는 데 몇 사람을 잃었으나 그곳을 지켜 냈고, 그 공으로 스파르타의 감사를 얻어 이 전쟁에서 그런 주목을 받은 첫 장교가 되었다. 아테네인은 곧 닻을 올려 순항을 이어 갔다. 엘리스의 페이아에 닿아 이틀 동안 그 땅을 짓밟고, 엘리스 골짜기와 그 가까운 곳에서 구하러 온 뽑힌 병력 300명을 물리쳤다. 그러나 거센 돌풍이 그들을 덮쳤고, 항구가 없는 곳에서 그것을 맞기가 꺼려져 대부분이 배에 올라 익티스 곶을 돌아 페이아

항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배에 오르지 못한 메세니아인과 그 밖의 얼마가 육로로 넘어가 페이아를 손에 넣었다. 함대는 나중에 돌아와 그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다. 엘리스의 본군이 그때 올라왔으므로 페이아는 버려졌다. 아테네인은 순항을 이어 가며 해안의 다른 곳들을 짓밟았다.

같은 무렵 아테네인은 로크리스를 돌며 에우보이아도 지키게 하려고 배 30척을 보냈고,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클레오폼포스가 지휘했다. 그는 함대에서 상륙해 바닷가 몇 곳을 짓밟고 트로니온을 함락시켜 거기서 인질을 받았다. 또 알로페에서 자기를 막으려 모인 로크리스인을 물리쳤다.

같은 여름에 아테네인은 아이기나에서 아이기나인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내쫓았으니, 그들이 전쟁에 대해 자기들에게 적잖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아이기나는 펠로폰네소스에 너무 가까이 있어 제 식민단을 보내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고, 오래지 않아 정착민이 보내졌다. 쫓겨난 아이기나인은 티레아에서 몸 붙일 곳을 얻었으니, 스파르타가 그들에게 준 것이었다. 아테네와 다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진과 헬롯[8]의 반란이 있던 때에 아이기나인이 스파르타에 신세를 지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티레아의 땅은 아르골리스와 라코니아의 경계에 있으며 바다까지 내려간다. 여기에 자리 잡지 않은 아이기나인은 그리스의 나머지 땅으로 흩어졌다.

같은 여름, 달이 새로 시작될 때에, 말하자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때에, 해가 정오를 지나 가려졌다. 초승달 모양이 되고 별 몇이 나타난 뒤에 해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같은 여름에 아테네인은 압데라 사람이며 피테스의 아들인 님포도로스를 프록세노스[9]로 삼아 아테네로 불렀다. 시탈케스가 그의 누이와 혼인한 사이였다. 그들은 그때까지 그를 적으로 여겼으나, 그가

시탈케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군주를 제 동맹으로 삼고자 했다. 시탈케스는 테레스의 아들이며 트라키아인의 왕이었다. 시탈케스의 아버지 테레스는 오드리사이의 큰 왕국을 트라키아의 나머지 땅 대부분에 걸치도록 처음 넓힌 사람이었으니, 트라키아인 가운데 많은 무리는 독립해 있었다. 이 테레스는 아테네에서 판디온의 딸 프로크네를 아내로 맞은 테레우스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실은 트라키아의 같은 지역에 속하지도 않았다. 테레우스는 지금 포키스라 불리는 땅의 일부인 다울리스에 살았는데, 그때에는 트라키아인이 거기 살고 있었다. 여자들이 이티스에게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도 이 땅에서였고, 많은 시인이 나이팅게일을 말할 때 다울리스의 새라고 부른다. 게다가 판디온이 딸의 혼인을 맺을 때라면 서로 도울 이로움을 헤아렸을 터이니, 아테네와 오드리사이 사이를 가르는 여러 날의 여정보다 위에 말한 알맞은 거리의 혼처를 자연히 더 좋게 보았을 것이다. 또 이름도 다르다. 그리고 이 테레스는 오드리사이의 왕이었으며, 말하자면 이렇다 할 힘에 이른 첫 사람이었다. 이제 그의 아들 시탈케스를 아테네인이 동맹으로 구했으니, 트라키아의 도시들과 페르디카스를 굴복시키는 데 그의 도움을 바랐던 것이다. 아테네에 와서 님포도로스는 시탈케스와 동맹을 맺었고, 그의 아들 사도코스를 아테네 시민으로 만들었으며, 시탈케스를 설득해 트라키아 기병과 경방패병[10] 병력을 아테네인에게 보내게 함으로써 트라키아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아테네인을 페르디카스와 화해시키고 테르메를 그에게 돌려주게 했다. 그러자 페르디카스는 곧 아테네인과 포르미온에 합세해 칼키디케인을 치러 나섰다. 이렇게 테레스의 아들이며 트라키아인의 왕인 시탈케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아들이며 마케도니아인의 왕인 페르디카스가 아테네의 동맹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배 100척의 아테네인은 여전히 펠로폰네소스를 돌고 있었다. 코린트에 딸린 도시 솔리온을 함락시켜 그 도시와 땅을 팔라이라의 아카르나니아인에게 준 뒤, 그들은 아스타코스를 쳐서 그 참주 에우아르코스를 내쫓고 그곳을 제 연맹에 넣었다. 다음으로 케팔레니아 섬으로 항해해 힘을 쓰지 않고 그것을 끌어들였다. 케팔레니아는 아카르나니아와 레우카스 앞바다에 있으며 네 나라, 곧 팔레인과 크라네인과 사메인과 프로네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래지 않아 함대는 아테네로 돌아왔다. 그해 가을로 접어들 무렵 아테네인은 거류 외국인까지 넣어 전군을 이끌고 메가라 땅을 침공했으니,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가 지휘했다. 펠로폰네소스를 돌던 배 100척의 아테네인은 돌아오는 길에 막 아이기나에 닿았는데, 본국의 시민들이 전군으로 메가라에 있다는 것을 듣고 그리로 건너가 합세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아테네인이 모은 가장 큰 군대였으니, 나라가 아직 힘의 한창때에 있었고 역병도 아직 찾아오지 않은 터였다. 꼬박 중장보병 10,000명이 들에 나와 있었고 모두 아테네 시민이었으며, 포티다이아 앞의 3,000명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다음으로 침입에 함께한 거류 외국인이 적어도 3,000명이었고, 그 밖에 경무장한 병력이 무리로 있었다. 그들은 그 땅의 대부분을 짓밟고 물러갔다. 그 뒤로도 전쟁 동안 아테네인은 해마다 메가라 땅에 침입했으니, 때로는 기병만으로 때로는 전군으로 그러했다. 이것은 니사이아가 함락될 때까지 이어졌다. 오푼토스 해안 앞의 사람 없는 섬 아탈란테도 이 여름이 저물 무렵 아테네인이 요새로 만들었으니, 오푼토스와 그 밖의 로크리스에서 사략선이 나와 에우보이아를 노략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이 아티카에서 돌아간 뒤 이 여름에 있었던 일은 그러했다.

이어진 겨울에 아카르나니아 사람 에우아르코스는 아스타코스로 돌아가고자 코린트인을 설득해 배 40척과 중장보병 1,500명을 이끌고 건너와 자기를 복귀시키게 했고, 자신도 용병 얼마를 사서 썼다. 이 병력의 지휘는 아리스토니모스의 아들 에우파미다스, 티모크라테스의 아들 티모크세노스, 크리시스의 아들 에우마코스가 맡았다. 그들은 건너와 그를 복귀시켰고, 손에 넣고자 했던 아카르나니아 해안의 몇 곳을 노린 시도가 실패한 뒤 본국으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다. 해안을 따라가다 케팔레니아에 닿아 크라네의 땅에 상륙했는데, 협상하기로 합의한 뒤 느닷없이 덮친 크라네인의 배신으로 몇 사람을 잃고 다소 서둘러 바다로 나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같은 겨울에 아테네인은 이 전쟁에서 처음 쓰러진 자들을 나라의 비용으로 장사했다. 이는 그들 조상의 관례였고, 그 절차는 이러하다. 예식 사흘 전에 죽은 자들의 뼈를 세워 둔 천막에 늘어놓고, 그 벗들이 제 친족에게 원하는 대로 제물을 가져온다. 장례 행렬에서는 편백나무 관을 수레에 실어 나르는데, 부족마다 하나씩이고 죽은 자의 뼈는 제 부족의 관에 놓인다. 이 가운데 빈 상여 하나를 꾸며 함께 나르니, 없는 자들, 곧 주검을 거둘 수 없었던 자들을 위한 것이다. 원하는 시민이나 외지인은 누구든 행렬에 함께하고, 여자 친족들은 매장할 때 곡하러 온다. 죽은 자들은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외에 있는 공동 묘지에 놓이는데, 전쟁에서 쓰러진 자는 언제나 거기 묻힌다. 다만 마라톤에서 죽은 자들은 그 남다르고 빼어난 용맹으로 인해 쓰러진 자리에 묻혔으니 여기서 빼야 한다. 주검을 땅에 놓은 뒤에는 나라가 고른 사람, 지혜가 인정되고 이름이 높은 사람이 그들을 두고 그에 맞는 찬사를 말하며, 그것이 끝나면 모두 물러간다. 장사의 절차는 그러했고,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그럴 일이 생길 때마다 세워진 관례가 지켜졌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쓰러진 자들이었으므로,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가

그들의 추도사를 말하도록 뽑혔다. 때가 되자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무리가 들을 수 있도록 묘지에서 높이 세운 단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 섰던 제 앞의 사람들은 대개 이 연설을 법의 한 부분으로 만든 이를 기렸고, 싸움에서 쓰러진 자들을 장사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행위로 드러난 값어치라면 행위로 보이는 예우만으로도 넉넉히 갚아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백성의 비용으로 마련된 이 장례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용감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의 입에 걸려, 그가 잘 말하는가 못 말하는가에 따라 서거나 넘어지는 위태로움에 놓이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이에게 납득시키기조차 어려운 주제를 두고 알맞게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야기의 사실을 하나하나 아는 벗은 어떤 대목이 자기가 바라고 또 마땅하다고 아는 만큼 충분히 펼쳐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은 제 본성을 넘는 무엇을 들으면 시샘에 끌려 과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칭송받는 것을 들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저마다 그 이야기되는 행적에 자기도 견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동안까지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시샘이 들어오고 그와 함께 믿지 않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이 관례에 승인의 도장을 찍어 두었으므로, 법에 따르고 여러분 각자의 바람과 생각을 되도록 채워 드리려 애쓰는 것이 제 의무가 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맨 먼저 언급되는 명예를 그들이 받는 것은 옳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 끊김 없이 이 땅에 살았고, 그 용맹으로 이 땅을 자유롭게 지켜 오늘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더 먼 조상들이 칭송받을 만하다면 우리

아버지들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물려받은 것에 우리가 지금 가진 제국을 보탰고, 얻은 것을 이 세대의 우리에게 남겨 주려고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더 많은 부분은 아직 대개 한창 나이에 있는 여기 우리 자신이 늘렸습니다. 한편 모국은 전쟁이든 평화든 제 밑천으로 버틸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땅을 갖게 해 준 군사적 업적을 말하는 부분, 또는 우리나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스인의 침략이든 이방인의 침략이든 그 밀물을 막아 낸 선선한 용맹을 말하는 부분은 여기 듣는 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여서 제가 늘여 말할 것이 아니니, 그것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로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우리의 큼이 자라난 통치의 형태는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국민의 습속에서 솟아났는지, 이런 물음은 이 사람들에 대한 찬사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풀어 보려 할 만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말하는 이가 알맞게 머물 만한 주제이며, 시민이든 외지인이든 모인 모든 분이 유익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도는 이웃 나라의 법을 본뜨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본뜨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본이 되는 쪽입니다. 그 통치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합니다. 그래서 민주정이라고 불립니다. 법을 보면, 사사로운 다툼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의를 줍니다. 사회적 지위를 보면, 공적인 삶에서의 올라섬은 능력이 있다는 평판에 돌아가며 신분을 따지는 일이 값어치를 가로막게 두지 않습니다. 가난도 길을 막지 않습니다.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처지가 미천하다는 것이 그를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통치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의 일상에도 미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로를 시샘하며 감시하기는커녕, 이웃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그에게 성낼 까닭을 느끼지 않으며, 벌을 주지는 않아도 반드시 상하게 하는 그 사나운 눈길조차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관계에서의 이 모든 편안함이 우리를 시민으로서 법 없는 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의 으뜸 방패는 두려움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정무관과 법을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특히 해를 입은 자를 지키는 것에 관한 법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법전에 적혀 있든, 적혀 있지 않으나 어기면 누구나 인정하는 수치를 면할 수 없는 그 규범에 속하든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일에서 벗어나 새로워질 길을 넉넉히 마련합니다. 우리는 한 해 내내 경기와 제사를 치르며, 우리 집안의 우아함은 날마다 즐거움의 샘이 되어 음울함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우리 도시의 큼은 세상의 산물을 우리 항구로 끌어들이니, 아테네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의 열매도 제 나라의 것만큼 익숙한 호사입니다.

우리의 군사 방침으로 눈을 돌려 보아도 거기서도 우리는 상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도시를 세상에 열어 두며, 외지인을 배척하는 조치로 그들이 무엇을 배우거나 살필 기회를 막는 일이 없습니다. 적의 눈이 이따금 우리의 너그러움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도와 방책보다 시민들의 타고난 기개를 더 믿습니다. 또 교육을 보면, 우리의 맞수들은 요람에서부터 괴로운 규율로 사내다움을 좇지만 아테네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도 그들과 대등한 위험에 맞서는 데 그들 못지않게 나섭니다. 그 증거로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인은 우리 땅을 홀로 침공하지 않고 동맹을 모두 데려옵니다. 반면 우리 아테네인은 도움 없이 이웃의 땅으로 나아가며, 남의 흙에서 싸우면서도 대개 제 집을 지키는 사람들을 손쉽게 꺾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인 것을 만나 본 적은 어떤 적에게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함대를 돌보면서 동시에 시민들을 육지의 백 가지 다른 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이 우리 힘의 그런

조각과 부딪칠 때마다, 분견대를 상대로 얻은 성공은 민족 전체를 이긴 것으로 부풀려지고, 한 번의 패배는 우리 온 백성의 손에 당한 것으로 부풀려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생이 아니라 편안함의 습관을 지니고, 법의 강제가 아니라 몸에 밴 기질의 용기를 지니고서도 여전히 위험에 맞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겹의 이로움을 가진 것입니다. 미리 고생을 겪지 않아도 되고, 정작 필요한 때에는 고생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자들만큼이나 두려움 없이 그것을 맞이하니 말입니다.

우리 도시가 우러름을 받을 만한 점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치에 빠지지 않는 세련을 기르고, 무름에 빠지지 않는 지식을 기릅니다. 재물은 자랑보다 쓰임에 씁니다. 가난의 참된 수치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과 싸우기를 마다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공인들은 정치 말고도 돌볼 제 일이 있으며, 여느 시민들도 생업에 매여 있으나 여전히 공적인 일을 제대로 가릴 줄 압니다. 다른 어느 민족과도 달리 우리 아테네인은 이런 의무에 아무 몫도 하지 않는 사람을 야심 없는 자가 아니라 쓸데없는 자로 여기며, 스스로 일을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판단할 줄은 압니다. 그리고 의논을 행동의 걸림돌로 보는 대신, 지혜로운 행동이라면 어느 것에나 없어서는 안 될 앞단계로 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는 대담함과 숙고가 저마다 가장 높은 데까지 이르러 같은 사람 안에 함께 있는 남다른 광경을 보여 줍니다. 흔히 결단은 알지 못함의 열매이고 망설임은 곰곰이 따짐의 열매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기의 월계관은 분명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옳게 돌아갈 것입니다. 고생과 즐거움의 차이를 가장 잘 알면서도 위험 앞에서 물러설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너그러움에서도 우리는 그만큼 남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베풀어서 벗을 얻습니다. 물론 둘 가운데 더 굳은 벗은 은혜를 베푼 쪽입니다. 친절을 이어 가며 받은 쪽을 제 빚 속에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빚진 쪽은, 제가 갚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갚음이 될 것임을 아는 그 마음 때문에 덜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뒤에 올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로움을 따져서가 아니라 너그러움을 믿고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테네인뿐입니다.

요컨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로서 우리는 그리스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하나에 기대야 하는 자리에서 그토록 많은 다급함에 맞설 수 있고, 그토록 복된 다재로 빛나는 사람을 이 세상이 아테네 사람 말고 또 낼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위해 던진 한갓 자랑이 아니라 뻔한 사실이라는 것은, 이런 습속으로 얻은 나라의 힘이 증명합니다. 같은 시대의 나라 가운데 시험해 보았을 때 제 평판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테네뿐이며, 자기에게 진 자들이 어떤 상대에게 졌는가를 두고 얼굴 붉힐 일이 없게 하고 제 속국이 그 다스릴 자격을 값어치로 따져 의심할 일이 없게 하는 것도 아테네뿐입니다. 오히려 오늘과 뒤에 올 시대의 우러름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증인 없이 두지 않고 큰 증거로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사를 읊어 줄 호메로스가, 또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구는 한때 사람을 사로잡을 뿐이어서, 그것이 준 인상은 사실에 닿으면 녹아 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바다와 모든 땅으로 하여금 우리 대담함의 큰길이 되게 했고, 나쁜 일로든 좋은 일로든 어디에나 스러지지 않는 기념물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잃지 않겠다는 결의를 내세우며 고귀하게 싸우다 죽어 간 아테네는 그러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 남은 이들 누구나 그 대의를 위해 고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마땅합니다.

실로 제가 우리 나라의 성격을 얼마간 길게 말한 것은, 이 싸움에 걸린 우리의 몫이 잃을 그런 복이 없는 자들의 몫과 같지 않음을 보이려 한 것이며, 아울러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찬사가 뚜렷한

증거로 세워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 찬사는 이제 크게 보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기린 아테네는 이들과 이들 같은 사람들의 영웅다움이 만들어 낸 것일 뿐이며, 이들의 이름은 그리스인 대다수와 달리 그 값어치에 딱 맞는 것으로 드러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값어치를 재는 시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그들의 값어치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 준 경우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려 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 나라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 사람의 다른 모자람을 덮어 주는 겉옷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행위가 나쁜 것을 지워 버렸고, 시민으로서의 값어치가 한 개인으로서의 흠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누구도 앞으로 누릴 즐거움이 딸린 재물이 제 기개를 무르게 하도록 두지 않았고, 언젠가 그것을 벗어나 부유해지리라는 희망이 딸린 가난이 제 발을 위험에서 물러서게 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 어떤 사사로운 복보다 바랄 만하다고 여겼고, 이것을 걸어 볼 만한 것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으로 헤아려, 그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원수 갚음을 확실히 하며 제 바람은 기다리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끝의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희망에 맡기면서, 눈앞의 일에서는 담대하게 움직이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굽히고 사는 것보다 맞서다 죽는 것을 골랐으니, 오직 불명예에서만 달아났고 위험은 얼굴을 맞대고 맞았으며, 잠깐의 한순간이 지난 뒤 운의 정점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제 영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테네인에 걸맞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남은 여러분은 들에서 그만큼 흔들림 없는 결의를 갖기로 마음먹어야 하며, 다만 그 끝이 더 복되기를 빌 수는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딸린 이로움을

말로 들어 얻은 생각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처럼 그것에 밝은 청중 앞이라면 말하는 이에게 값진 재료가 되겠지만, 여러분은 아테네의 힘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날마다 그 도시를 눈에 담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채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 크기가 여러분에게 밀려들 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용기와 의무를 아는 마음과 행동에서 명예를 절실히 느끼는 마음 덕분이었음을, 어떤 일에서 개인이 실패했다 해도 그것이 제 나라에서 제 용맹을 빼앗는 데 동의하게 만들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헌물로 그것을 나라의 발 앞에 놓았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바친 이 목숨의 헌물로 그들은 저마다 늙지 않는 그 이름을 받았고, 무덤으로는 그 뼈가 놓인 곳이라기보다 그 영광이 쌓여 있는 가장 고귀한 성소를 받았습니다. 행위든 이야기든 그것을 기릴 일이 생기는 자리마다 그 영광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말입니다. 영웅들에게는 온 땅이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에서 먼 땅에서는, 비석이 새긴 글로 그것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도, 글로 적히지 않고 그것을 지킬 서판도 없는 기록이 가슴마다 모셔져 있으니 그 서판은 오직 마음입니다. 이들을 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행복은 자유의 열매이고 자유는 용맹의 열매라고 판단해 전쟁의 위험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쪽은 비참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이 이어지면 아직 모르는 뒤바뀜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넘어진다면 그 결과가 가장 끔찍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개 있는 사람에게라면, 힘과 모두가 함께 품은 희망이 한창인 가운데 닥쳐 느끼지도 못하는 죽음보다 비겁이 주는 낮아짐이 헤아릴 수 없이 더 쓰라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실 죽은 이들의 부모께 제가 드릴 것은 조문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우연에 놓여 있는지는

그분들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슬픔을 부른 그 죽음처럼 빛나는 죽음을 제 몫으로 뽑은 사람, 그리고 삶이 그토록 알맞게 재어져 그 살아온 복 속에서 끝난 사람은 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임을 압니다. 한때 여러분도 자랑했던 복을 남의 집에서 보며 끊임없이 떠올리게 될 이들이 걸린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슬픔은 한 번도 알지 못한 것이 없어서라기보다 오래 익숙했던 것을 잃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를 낳을 나이인 분들은 그들을 대신할 다른 아이를 얻으리라는 희망으로 버티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잃은 이들을 잊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라에는 보탬이자 지킴이 될 것입니다. 남들처럼 아버지의 이해와 근심을 결정의 자리에 들고 오지 않는 시민에게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방침을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창때를 지난 분들은 삶의 가장 좋은 부분이 복되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축하하셔야 하며, 남은 짧은 시간은 떠난 이들의 이름이 밝혀 줄 것입니다. 늙지 않는 것은 오직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더러 그렇게들 말하듯 이득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죽은 이들의 아들이나 형제에게로 눈을 돌리면, 여러분 앞에 힘겨운 싸움이 보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모두가 그를 기리게 마련이니, 여러분의 값어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이름을 따라잡기는커녕 가까이 가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살아 있는 이는 시샘과 다투어야 하지만, 우리 길에서 사라진 이는 겨룸이 끼어들지 않는 호의로 기려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제 홀로 남게 되실 분들께 여자의 뛰어남을 두고 무언가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 짧은 권고에 모두 담길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에 못 미치지 않는 데에 여러분의 큰 영광이 있을

것이며, 좋은 일로든 나쁜 일로든 남자들 사이에서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이가 가장 큰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제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제 힘이 닿는 데까지 그것을 해냈고, 적어도 말로는 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채워졌습니다. 행위가 걸린 일이라면, 여기 묻힌 이들은 이미 그 예우의 일부를 받았고, 나머지로는 그들의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나라의 비용으로 길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이 용맹의 겨룸에서 승리의 화관으로 값진 상을 내놓아, 쓰러진 이들과 남은 이들 모두에게 갚습니다. 그리고 값어치에 주는 상이 가장 큰 곳에 가장 좋은 시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친족을 위한 곡을 마쳤으니 물러가셔도 좋습니다.

---

1. 감독관(에포로스) — 스파르타의 최고 정무관으로 다섯 사람이었다. 왕을 견제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후로는 「감독관」으로만 적는다.

2. 아르콘 — 아테네의 정무관. 그 이름으로 해를 세었다.

3. 보이오타르케스 — 보이오티아 연방의 최고 정무관.

4.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이 장의 다른 거리 표기도 모두 같다.

5.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6.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화폐 단위.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7. 소크라테스 — 아테네 장군.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동명이인이다.

8.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된 농민 계층.

9. 프록세노스 —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도시에서 대리하고 보호하는 명예직. 오늘날의 명예 영사에 가깝다.

10. 경방패병 — 가벼운 방패를 든 병종으로 중장보병보다 가볍게 무장했다.

7장 (제II권 제VII장) — 전쟁 제2년 — 아테네 역병 — 페리클레스의 처지와 정책 — 포티다이아의 함락

그해 겨울에 치러진 장례는 그러했고, 그와 함께 전쟁의 첫해가 끝났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펠로폰네소스인과 그 동맹들은 전과 같이 병력의 3분의 2를 이끌고 제욱시다모스의 아들이며 스파르타의 왕인 아르키다모스의 지휘 아래 아티카를 침공했고, 진을 치고 그 땅을 짓밟았다. 그들이 아티카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역병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렘노스 일대와 그 밖의 여러 곳에서 이 병이 터진 일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만한 범위와 이만한 사망률의 역병은 어디에서도 기억되는 바가 없었다. 의사들도 처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 병을 다루는 올바른 방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병자를 가장 자주 찾아다닌 만큼 그들 자신이 가장 빽빽하게 죽어 갔고, 사람의 어떤 기술도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신전에서 올리는 탄원과 점술과 그 밖의 것들도 똑같이 헛된 것으로 드러났고, 마침내 재앙의 압도적인 성격이 그런 일들을 아예 그만두게 만들었다.

이 병은 이집트 위쪽 에티오피아 지방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거기에서 이집트와 리비아로, 그리고 페르시아 대왕의 영토 대부분으로 내려왔다. 그러다 갑자기 아테네에 들이쳐 먼저 피레우스의 주민을

덮쳤는데, 그곳에는 아직 샘이 없었으므로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말이 이때 나왔다. 그 뒤로는 위쪽 도시에도 나타났고, 그때부터 죽는 사람이 훨씬 잦아졌다. 이 병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온갖 추측은, 이만큼 큰 격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원인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문외한이든 전문가든 다른 저술가들에게 맡긴다. 나로서는 이 병의 성질을 그저 적어 두고, 혹시라도 다시 터지는 일이 있을 때 살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증상을 밝혀 두려 한다. 나는 그 병을 직접 앓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았으므로, 이 일을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다.

그해는 이 병을 빼면 전례 없이 질병이 없던 해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나마 생긴 몇 안 되는 병례도 모두 이 병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없었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심한 열이 오르고 눈이 붉어지며 부어오르는 증세에 붙잡혔으며, 목구멍이나 혀 같은 안쪽 부위가 피에 젖어 부자연스럽고 역한 숨을 내뿜었다. 이 증상들에 뒤이어 재채기가 나고 목이 쉬었으며, 그런 다음 곧 통증이 가슴에 이르러 거친 기침을 일으켰다. 병이 위에 자리를 잡으면 위를 뒤집어 놓아, 의사들이 이름 붙여 놓은 온갖 종류의 담즙이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아주 심한 괴로움이 따랐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헛구역질이 이어져 심한 경련을 일으켰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곧 그쳤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뒤에야 그쳤다. 몸은 겉으로 만져 보면 그리 뜨겁지 않았고 빛깔이 창백하지도 않았으나, 붉은 기가 돌고 검푸르게 변했으며 작은 고름집과 헌데가 돋아났다. 그러나 속은 하도 타올라 병자는 아주 얇은 옷이나 아마천조차 몸에 걸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실은 알몸이 아닌 어떤 상태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한 것은 찬물에 몸을 던지는 일이었고, 실제로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병자 가운데 더러는 가시지 않는 갈증의 괴로움 속에 우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을 적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쉴 수도 잠들 수도 없는 참담한 느낌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다. 그러는 동안 몸은 병이 한창인 동안에는 여위지 않고 그 파괴에 놀랍도록 잘 버텼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처럼 이레째나 아흐레째에 몸속의 염증에 굴복할 때에도 그들에게는 아직 얼마간 힘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고 병이 더 아래로 내려가 창자에 이르러 거기에 심한 궤양을 일으키고 그와 함께 극심한 설사가 따르면, 이것이 대개 목숨을 앗아 가는 쇠약을 불러왔다. 이 병은 처음에 머리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온몸으로 퍼져 나갔으며, 목숨을 앗아 가지 않은 경우에도 몸의 끝부분에 흔적을 남겼는데, 음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것들을 잃고서 목숨을 건졌고 더러는 눈까지 잃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막 회복되었을 때 기억을 완전히 잃어, 자기 자신도 벗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병의 성질은 어떤 서술로도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공격은 사람의 본성으로 견디기에 너무 혹독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보통의 모든 질병과 다르다는 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다음의 사정에서였다. 사람의 주검을 먹이로 삼는 새와 짐승은 모두 그것에 손을 대지 않거나 (묻히지 못한 주검이 많았는데도 그랬다) 맛을 본 뒤에 죽었다. 이것의 증거로, 그런 새들이 실제로 사라진 것이 눈에 띄었으니 주검 주변에 없었고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내가 말한 이런 일들은 개처럼 사람이 기르는 짐승에서 가장 잘 살필 수 있었다.

여러 가지이고 저마다 특이했던 개별 병례의 차이들을 지나친다면, 이 병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러했다. 그러는 동안 도시는 보통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떤 병례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이 병으로 끝났다. 돌봄 없이 죽은 사람이 있었고, 온갖 보살핌을 받으며 죽은 사람도 있었다. 특효약으로 쓸 만한 치료법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한 경우에 좋았던 것이 다른 경우에는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튼튼한 체질과 약한 체질이 똑같이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더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려 먹였는데도 모두가 한결같이 쓸려 갔다. 이 병에서 단연 가장 무서운 특징은 누구든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느낄 때 뒤따르는 낙담이었으니, 곧바로 빠져드는 절망이 버티는 힘을 앗아 가 그들을 병에게 훨씬 쉬운 먹이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며, 그뿐 아니라 서로를 돌보다가 병이 옮아 사람들이 양처럼 죽어 가는 끔찍한 광경이 있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죽음을 낳았다. 한편으로 서로를 찾아가기를 두려워하면 돌봄 없이 죽어 갔으니 실제로 간병할 사람이 없어 사는 이가 모두 사라진 집이 많았고, 다른 한편으로 무릅쓰고 찾아가면 죽음이 그 결과였다. 선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러했는데, 명예가 그들로 하여금 벗의 집에서 간병하는 일에 자기를 아끼지 않게 만들었고, 그 집에서는 마침내 가족들까지 죽어 가는 이들의 신음에 지쳐 재앙의 힘에 굴복했다. 그러나 병자와 죽어 가는 이들이 가장 큰 동정을 얻은 것은 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서였다. 이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겪어서 알았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으니, 같은 사람이 두 번 붙잡히는 일은 없었고 적어도 두 번째가 목숨을 앗아 가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의 축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 또한 그 순간의 들뜬 기분에 앞으로는 어떤 병에서도 안전하다는 헛된 희망을 반쯤 품었다.

이미 있던 재앙을 더 무겁게 만든 것은 시골에서 도시로 밀려든 사람들이었고, 이는 새로 들어온 이들이 특히 절실하게 느꼈다. 그들을 받아들일 집이 없었으므로 한 해의 더운 철에 숨 막히는 판잣집에 묵어야 했고, 거기에서 죽음이 거리낌 없이 날뛰었다. 죽어 가는 사람의 몸이 서로 겹쳐 누워 있었고, 반쯤 죽은 것들이 거리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지낸 신성한 곳들 또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주검으로, 죽은 그 모습 그대로 가득했으니, 재앙이 모든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신성한 것이든 세속의 것이든 무엇에도 완전히 무심해졌기 때문이다. 전에 쓰이던 장례의 모든 의식이 온통 뒤집혔고, 그들은 되는 대로 주검을 묻었다. 이미 벗이 너무 많이 죽어 마땅한 도구를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더없이 부끄러운 매장에 의지했는데, 어떤 때는 장작을 쌓아 놓은 자들을 앞질러 그 남의 장작더미 위에 자기 쪽 주검을 던져 놓고 불을 붙였고, 어떤 때는 나르고 있던 주검을 이미 타고 있는 다른 주검 위에 얹어 놓고 그대로 가 버렸다.

역병에서 비롯된 무법의 방종이 이것 하나만은 아니었다. 번영을 누리던 자가 갑자기 죽고 전에 아무것도 없던 자가 그 재산을 물려받는 그 빠른 뒤바뀜을 본 사람들은, 전에는 구석에서 그것도 마음대로는 하지 못하고 하던 일을 이제 태연히 무릅쓰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도 재물도 한가지로 하루짜리 것이라고 여겨 빨리 쓰고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명예라 부르던 것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었는데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목숨이 남아 있을지가 너무나 불확실했기 때문이며, 대신 지금의 즐거움과 그에 보탬이 되는 모든 것이 명예롭고도 유익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들을 억제할 신의 두려움도 사람의 법도 없었다. 앞의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죽어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신을 받들든 받들지 않든 매한가지라고 판단했고, 뒤의 것에 대해서는 자기 죄로 재판에 불려 나갈 때까지 살아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저마다 훨씬 더 가혹한 선고가 이미 모두에게 내려져 늘 머리 위에 걸려 있다고 느꼈으니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삶을 조금 즐기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일 뿐이었다.

재앙의 성질은 그러했고, 그것은 아테네인들을 무겁게 짓눌렀다. 도시 안에서는 죽음이 날뛰고 바깥에서는 땅이 짓밟혔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떠올린 것들 가운데는, 아주 자연스럽게도, 오래전에 읊어졌다고 노인들이 말하는 다음의 시구가 있었다.

도리스 전쟁이 오고 그와 함께 죽음이 오리라.[1]

그래서 그 시구의 낱말이 기근이지 죽음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일었다. 그러나 지금의 고비에서는 물론 뒤의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억을 자기들의 고통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뒷날 또 다른 도리스 전쟁이 우리에게 닥치고 마침 기근이 그와 함께 온다면 그 시구는 아마 그에 맞게 읽힐 것이다. 스파르타인들에게 내려졌던 신탁 또한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떠올랐다. 전쟁에 나서야 할지 신에게 물었을 때, 신은 그들이 힘을 다해 싸우면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자기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답했다. 사건들이 이 신탁과 들어맞는다고 여겨졌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티카를 침공하자마자 역병이 터졌고, 역병은 펠로폰네소스에는 적어도 이야기할 만한 정도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아테네에서 가장 심하게 휩쓸었으며, 아테네 다음으로는 그 밖의 도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들에서 그랬기 때문이다. 역병의 경과는 그러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평야를 짓밟은 뒤 파랄리아 지역으로 나아가 아테네의 은광이 있는 라우리온까지 이르렀고, 먼저 펠로폰네소스를 바라보는 쪽을 짓밟고 다음으로 에우보이아와 안드로스를 마주 보는 쪽을 짓밟았다. 그러나 아직 장군직에 있던 페리클레스는 앞선 침공 때와 같은 생각을 지켰고, 아테네인들이 그들에게 맞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평야에 있고 파랄리아 땅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그는 펠로폰네소스로 갈 함선 100척의 군비를 갖추어 두었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바다로 나갔다. 배에는 아테네의 중장보병 4,000명을 태웠고 기병 300명을 기병 수송선에 태웠는데, 그 수송선은 그때 처음으로 낡은 군선을 고쳐 만든 것이었다. 키오스와 레스보스의 배 50척도 이 원정에 함께했다. 이 아테네 군대가 바다로 나갈 때 그들은 아티카의 파랄리아 지역에 펠로폰네소스인들을 남겨 두고 떠났다. 펠로폰네소스의 에피다우로스에 이른 그들은 그 땅 대부분을 짓밟았고 공격으로 그 도시를 손에 넣을 희망까지 품었으나, 이 일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에피다우로스에서 출항한 그들은 모두 펠로폰네소스 해안의 도시인 트로이젠과 할리에이스와 헤르미오네의 땅을 짓밟았고, 거기에서 라코니아의 바닷가 도시 프라시아이로 항해해 그 땅 일부를 짓밟고 그 도시 자체를 손에 넣어 약탈했으며, 그 뒤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이미 떠나 아티카에 더는 없음을 알게 되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티카에 있고 아테네인들이 배를 타고 원정에 나가 있던 그 기간 전체에 걸쳐, 원정군에서도 아테네에서도 사람들이 역병으로 계속 죽어 갔다. 실제로 펠로폰네소스인들이 그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떠났다는 주장까지 있었는데, 그들은 탈영병들에게서 그 병이 도시 안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침공에서 그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오래 머물며 온 나라를 짓밟았으니, 아티카에 40일쯤 있었다.

같은 여름에 페리클레스의 동료인 니키아스의 아들 하그논과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클레오폼포스가 그가 얼마 전에 썼던 그 군대를 이끌고, 트라키아 방면의 칼키디케인과 아직 포위 중이던 포티다이아를 치러 원정을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포티다이아에 공성 기계를

들이대고 온갖 방도로 그곳을 손에 넣으려 했으나, 도시를 함락시키는 데도 그들의 준비에 걸맞은 그 밖의 어떤 일을 해내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역병이 여기에서도 그들을 덮쳐 그들을 완전히 주저앉힐 만큼 큰 피해를 입혔으니, 앞선 원정에 나가 그때까지 건강했던 병사들까지 하그논의 군대에서 병이 옮았으며, 포르미온과 그가 지휘한 1,600명은 이때 이미 칼키디케인 근처에 있지 않았다. 결국 하그논은 40일쯤 만에 중장보병 4,000명 가운데 1,050명을 잃고서 배를 이끌고 아테네로 돌아갔으나, 전부터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병사들은 그 나라에 남아 포티다이아 포위를 이어 갔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의 두 번째 침공 뒤에 아테네인들의 마음에 변화가 왔다. 그들의 땅은 이제 두 번 짓밟혔고, 전쟁과 역병이 한꺼번에 그들을 무겁게 눌렀다. 그들은 자기들을 설득해 전쟁에 들게 한 자이며 자기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페리클레스를 탓하기 시작했고, 스파르타와 화해하고 싶어 안달했으며, 실제로 그곳에 사절을 보냈으나 그 사절들은 임무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의 절망은 이제 완전한 것이 되었고 그 전부가 페리클레스에게 쏟아졌다. 그는 그들이 지금의 사태 전개에 격분하여 자기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아직 장군직에 있었다는 점이다) 자신감을 되살리는 것과 그들을 이 노여움의 감정에서 더 차분하고 더 희망을 품은 마음 상태로 이끄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민회를 소집했다. 그는 그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받아 온 이 노여움을 저는 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점을 여러분에게 일깨우고, 여러분이 저에게 까닭 없이 노여워하거나 겪는 고통에 기가 죽는 일에 항의하려고 민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나라의 위대함이, 공적인 굴욕과 짝을 이룬 어떤 개인의 안녕보다 사사로운 시민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아무리 잘살더라도 그 나라가 망하면 그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번영하는 나라는 불행한 개인에게 언제나 살아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 나라는 사사로운 시민의 불행을 떠받칠 수 있지만 그들은 나라의 불행을 떠받칠 수 없으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처럼 집안의 괴로움에 정신을 잃고 공동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리며 전쟁을 권했다고 저를 탓하고 그것을 표로 정했다고 여러분 자신을 탓하는 것이 의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에게 노여워한다면, 그것은 제가 믿는 바로는 올바른 정책을 아는 데서도 그것을 밝혀 설명하는 능력에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게다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돈에 꺾이지 않는 사람에게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지녔으나 밝혀 설명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에 아무 생각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재능을 다 가졌으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이익을 위한 차가운 변호인에 그칠 것이고, 그 나라 사랑이 뇌물을 견디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값에 팔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 조언을 받아들여 전쟁에 나섰을 때 제가 이런 자질에서 그럭저럭이라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책망을 받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자유로이 고를 수 있고 다른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고를 수 있는 길이 독립을 잃고 굴복하는 것과 그 독립을 지킬 희망을 품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 둘뿐이었다면, 그런 경우에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무릅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같은 사람이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는 쪽은 여러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다치지 않았을 때 제 조언을 받아들였고 불행이

닥치기를 기다려 그것을 후회했으며, 제 정책이 잘못으로 보이는 까닭은 여러분의 결심이 허약한 데 있습니다. 그 정책이 가져오는 고통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나 겪고 있는데 그 이로움은 아직 누구에게나 멀고 희미하며, 크고 갑작스러운 역경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바람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결심을 끝까지 지켜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뜻밖이며 헤아림에 가장 들어오지 않는 것 앞에서 정신은 위축되기 마련이며, 다른 모든 것을 제쳐 두더라도 역병은 분명히 그런 종류의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위대한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났고 그 태생에 걸맞은 습속으로 길러졌으니, 가장 큰 재앙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름의 빛을 흠 없이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판정은 제 몫보다 높이 오르려는 교만을 시샘하는 것만큼이나 이미 인정받은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약함에도 무자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사로운 괴로움을 슬퍼하기를 그치고, 그 대신 나라의 안전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전쟁이 요구하는 수고 앞에서 여러분이 물러서고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걱정에 근거가 없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증명해 보인 그 이유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란다면, 여러분의 지배권이 큰 데서 나오는 이점 하나를 이제 밝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여러분에게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이고, 제가 앞선 연설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이며, 그 울림이 어찌나 대담한지 제 주위에 보이는 이 부자연스러운 낙담이 없었다면 지금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제국이 동맹들에게만 미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의 무대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땅과 바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전부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으뜸이니, 지금 쓰고 있는 범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맞다고 여기는 어떤 더 넓은 범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여러분의 해군 자원은, 대왕도 땅 위의 다른 어떤 나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이 여러분의 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과 집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큰 박탈로 여길지라도 이 힘은 그와는 아주 다른 것임을 보아야 하며, 그것들 때문에 애태우기보다는 실로 그것들을 큰 재산을 꾸미는 정원이나 그 밖의 부속물쯤으로 여기고 견주어 보면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켜 낸 자유는 우리가 잃은 것을 쉽게 되찾아 줄 것이나 한번 무릎을 굽히면 지금 가진 것마저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이 재산을 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손에서 얻었으며, 자기들의 수고로 얻은 것을 놓쳐 버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온전히 넘겨주었습니다. 얻는 일과 지키는 일,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여러분은 그들보다 못하지 않음을 보여야 하니, 얻은 것을 잃는 것이 얻으려다 막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을 기백만이 아니라 멸시로 맞서야 합니다. 자신감이야 행복한 무지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겁쟁이의 가슴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시는 우리처럼 자기가 상대보다 낫다는 것을 헤아림으로 확인한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승산이 같은 자리에서 지식은 그 결과인 경멸로써 용기를 튼튼하게 하며, 그 지식이 믿음을 두는 곳은 절망한 자의 지팡이인 희망이 아니라 지금 가진 자원에 근거한 판단이니 그 판단의 예상이 더 믿을 만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나라는 그 지위의 영광을 떠받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바치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랑거리이며, 여러분은 제국의 짐을 마다하면서 그 명예를 나누어 갖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맞서 싸우는 것이 독립과 맞바꾸는 노예 상태만이 아니라 제국을 잃는 일이며 그것을

행사하면서 쌓은 원한에서 오는 위험이기도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 순간의 두려움 속에서 그런 야심 없는 처신의 정직함에 반해 버렸다 하더라도, 이제 물러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은 다소 노골적으로 말하면 참주의 권력이니, 그것을 쥔 일은 어쩌면 잘못이었겠으나 그것을 놓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러서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을 제 편으로 돌리면 나라를 금세 망칠 것이며, 그들이 홀로 독립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러서려 하고 야심 없는 자들은 곁에 힘센 보호자가 없으면 결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런 자질은 제국의 도시에는 쓸데없는 것이며, 다만 속국이 시달림 없는 종살이에 이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시민들에게 꾀여서는 안 되며 저에게 노여워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한 것과 똑같이 한 것일 뿐입니다. 적이 여러분의 나라를 침공하여, 여러분이 그의 요구를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그가 반드시 하리라고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그 일을 했다 해도 그렇고, 우리가 헤아려 둔 것에 더해 역병이 우리에게 닥쳤다 해도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의 계산이 틀린 곳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받았을 것보다 더 큰 미움을 받게 된 데에 이것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은 전혀 마땅하지 않은 일이니, 우연이 여러분에게 안겨 줄 어떤 성공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저에게 공을 돌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늘의 손은 체념으로 견뎌야 하고 적의 손은 굳센 마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오래된 방식이었으니, 여러분은 그것이 지금도 그러한 것을 막지 마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 나라가 재앙 앞에서 한 번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많은 목숨과 수고를 전쟁에 쏟아 여태까지 알려진 어떤 것보다 큰 힘을 제 것으로 얻었고 그 기억이 가장 먼 후손에게까지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쇠퇴의 일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언젠가 굽히도록 내몰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어떤 그리스 국가보다 많은 그리스인을 다스렸고 그들의 연합한 힘에 맞서서도 갈라진 힘에 맞서서도 가장 큰 전쟁들을 버텨 냈으며 자원에서도 규모에서도 다른 어느 곳과도 견줄 수 없는 도시에 살았다는 것은 그래도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느리고 야심 없는 자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력 있는 가슴에서는 그것이 본받으려는 마음을 깨우고, 그것 없이 지내야 하는 자들에게는 시샘 섞인 아쉬움을 깨울 것입니다. 남을 다스리려 한 모든 자에게 당장의 미움과 인기 없음은 언제나 돌아온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사야 하는 자리라면 참된 지혜는 가장 높은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삽니다. 미움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빛나는 것과 미래의 영광을 만드는 것은 영원히 잊히지 않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영광과 지금의 명예를 위해 결정하고, 당장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두 목적을 함께 이루십시오. 스파르타에 전령을 보내지 말고 지금 겪는 고통에 짓눌린다는 낌새를 조금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재앙에 마음이 가장 덜 흔들리고 행동으로는 가장 굳세게 버티는 자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자기를 향한 아테네인들의 분노를 고치고 그들의 생각을 당장의 괴로움에서 돌려놓으려 쓴 논증은 그러했다. 공동체로서 그는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스파르타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모두 버렸을 뿐 아니라 전쟁에 더 큰 힘을 쏟았다.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으로서는 겪는 고통에 쓰라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것을 빼앗겼고 높은 계층은 시골의

값진 시설과 건물을 갖춘 좋은 재산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나쁘게도 평화 대신 전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를 향한 여론은 그가 벌금을 물게 되기까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군중의 방식대로 그들은 그를 다시 장군으로 뽑아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맡겼는데, 이제 사사롭고 집안에 얽힌 괴로움에 덜 예민해졌고 공적인 필요에는 그가 누구보다 가장 나은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평화 시절에 그가 나라의 머리에 있는 동안 그는 절제 있게 나라를 이끌고 안전하게 지켜 냈으며, 그의 시대에 나라의 위대함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는 자기 나라의 힘을 바르게 재어 본 듯하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뒤 2년 6개월을 더 살았고, 전쟁에 관한 그의 예견이 옳았다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더 잘 알려졌다.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기다리고 해군에 마음을 쓰고 새로운 정복을 시도하지 말고 전쟁 동안 도시를 어떤 위험에도 내놓지 말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그 반대였으니, 보기에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서 사사로운 야심과 사사로운 이익이 자기들을 이끌어 자기들에게도 동맹들에게도 부당한 계획으로 끌고 가게 놓아두었는데, 그것은 성공해도 사사로운 개인의 명예와 이익에나 도움이 될 계획이었고 실패하면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 확실한 재앙을 안기는 계획이었다. 그 원인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다. 페리클레스는 실로 그 지위와 능력과 널리 알려진 청렴함으로 군중을 독립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으니, 요컨대 그들에게 끌려가는 대신 그들을 이끌 수 있었다. 그는 옳지 않은 수단으로 권력을 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아첨할 필요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평판이 하도 높아 반대하여 그들을 노엽게 할 여유를 누렸다. 그들이 때에 맞지 않게 오만하게 들뜬 것을 볼 때마다 그는 한마디로 그들을 놀라 움츠러들게 했고, 반대로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곧바로 자신감을 되돌려 줄 수

있었다. 요컨대 이름으로는 민주정이던 것이 그의 손에서 으뜸 시민의 통치가 되었다. 그를 이은 자들에게서는 사정이 달랐다. 서로 더 비슷한 처지였고 저마다 으뜸 자리를 움켜쥐려 했으므로, 그들은 끝내 나라의 일을 꾸리는 것까지 군중의 변덕에 맡기고 말았다. 크고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수많은 실책을 낳았고 그 가운데 시칠리아 원정이 있었는데, 다만 이 원정이 실패한 것은 그것이 겨눈 상대의 힘을 잘못 계산한 탓보다는 보낸 자들이 그 뒤에 나가 있는 자들을 돕는 데 가장 좋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민중의 지도권을 두고 사사로운 파벌 다툼에 매달리기를 골랐다는 잘못 탓이었으며, 그 다툼으로 그들은 싸움터의 작전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본국에 내부의 불화까지 처음으로 끌어들였다. 그런데도 시칠리아에서 다른 병력에 더해 함대의 대부분을 잃고 도시 안에서 이미 파벌이 우세해진 뒤에도, 그들은 3년 동안 본래의 적들을 버텨 냈으니 그 적들에는 시칠리아인뿐 아니라 거의 모두 반란을 일으킨 자기들의 동맹들까지 가담했고 마지막에는 펠로폰네소스 해군에 자금을 댄 대왕의 아들 키루스까지 가담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안의 내분에 희생되기까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페리클레스의 천재가 도움받지 못한 펠로폰네소스인의 힘을 상대로 전쟁에서 쉬운 승리를 내다본 근거가 된 그 자원은 그토록 넘치도록 넉넉한 것이었다.

같은 여름에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은 함선 100척으로 자킨토스를 치러 원정을 떠났다. 엘리스 해안 앞바다에 놓인 섬으로,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아카이아인 식민단이 사는 곳이며 아테네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 배에는 스파르타의 중장보병 1,000명이 타고 있었고, 스파르타 시민[2]인 크네모스가 제독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 그 나라 대부분을 짓밟았으나, 주민들이 굴복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같은 여름이 끝날 무렵 코린트인 아리스테우스와 스파르타에서 온 사절인 아네리스토스와 니콜라오스와 프라토다모스, 그리고 테게아인 티마고라스와 아르고스에서 온 폴리스라는 개인이 대왕을 설득해 자금을 대고 전쟁에 함께하게 하려고 아시아로 가는 길에, 트라키아의 테레스의 아들 시탈케스에게 왔다. 될 수 있으면 그를 꾀어 아테네와의 동맹을 버리고 그때 아테네 병력에 포위되어 있던 포티다이아로 진군하게 하려는 생각이었고, 아울러 그의 힘으로 헬레스폰토스를 건너 목적지인 파르나바조스의 아들 파르나케스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파르나케스가 그들을 내륙으로 올려 보내 대왕에게 이르게 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침 시탈케스의 곁에 아테네 사절 몇이 있었으니 칼리마코스의 아들 레아르코스와 필레몬의 아들 아메이니아데스였고, 이들은 새로 아테네 시민이 된 시탈케스의 아들 사도코스를 설득해 그 사람들을 자기들 손에 넘기게 하여, 그들이 대왕에게 건너가 그가 고른 나라를 해치는 데 제 몫을 하는 일을 막게 했다. 그에 따라 그는 레아르코스와 아메이니아데스와 함께 미리 보낸 무리로 하여금 그들이 헬레스폰토스를 건널 배로 가려고 트라키아를 지나가는 중에 그들을 붙잡게 했고 아테네 사절들에게 넘기라고 명령했으며, 사절들은 그들을 아테네로 데려갔다. 그들이 도착하자 아테네인들은 포티다이아와 자기들의 트라키아 영지를 둘러싼 앞선 일들에서 눈에 띄게 주동자였던 아리스테우스가 빠져나가면 살아남아 자기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칠까 두려워, 재판도 열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한 변호도 듣지 않은 채 그날 안에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주검을 구덩이에 던졌다. 스파르타인들이 펠로폰네소스 주변에서 상선에 타고 있다가 붙잡힌 아테네인과 동맹의 상인을 모두 죽여 구덩이에 던지면서 시작한 그 전쟁 방식을 보복으로 쓰는 것이 자기들에게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될 무렵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의

동맹이든 중립국 사람이든 바다에서 붙잡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겨 도륙했다.

같은 무렵 여름이 저물어 갈 때, 암브라키아 병력이 자기들이 모은 수많은 이방인과 함께 암필로키아의 아르고스와 그 나라의 나머지를 치러 진군했다. 그들이 아르고스인에게 품은 원한의 기원은 이러했다. 이 아르고스와 암필로키아의 나머지는 암피아라오스의 아들 암필로코스가 식민한 곳이었다. 트로이 전쟁 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 사정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암브라키아만에 이 도시를 세우고, 제 나라의 이름을 따 아르고스라 불렀다. 이곳은 암필로키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 주민은 가장 강력했다. 여러 세대가 지난 뒤 불행에 몰린 그들은 암필로키아 국경의 이웃인 암브라키아인을 불러들여 제 식민시에 함께 살게 했고, 암브라키아인과 이렇게 하나가 된 덕분에 지금 쓰는 그리스 말을 배웠으니, 암필로키아인의 나머지는 이방인이었다. 얼마 뒤 암브라키아인은 아르고스인을 내쫓고 그 도시를 자기들이 차지했다. 이에 암필로키아인은 아카르나니아인에게 자기들을 맡겼고, 둘은 함께 아테네인을 불렀으며, 아테네인은 포르미온을 장군으로 하여 배 30척을 보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암필로키아인과 아카르나니아인은 아르고스를 공격으로 손에 넣고 암브라키아인을 노예로 만들었으며, 그 도시에 함께 살았다. 이 일 뒤에 아테네인과 아카르나니아인 사이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암브라키아인이 아르고스인에게 품은 원한은 이렇게 자기 시민이 노예가 된 일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 전쟁 동안 그들은 자기들과 카오니아인과 그 밖의 이웃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병력을 모았다. 아르고스 앞에 이른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으나, 도시를 치는 일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 저마다 제 종족에게로 흩어졌다.

여름의 일들은 그러했다. 이어진 겨울에 아테네인들은 배 20척을 펠로폰네소스 주변으로 보냈는데 포르미온의 지휘 아래였고, 그는 나우팍토스에 자리를 잡고 코린트와 크리사 만으로 드나드는 자를 경계해 지켰다. 다른 6척은 멜레산드로스의 지휘 아래 카리아와 리키아로 갔으니, 그 지역에서 조공을 걷고 아울러 펠로폰네소스의 사략선이 그 바다에 자리를 잡아 파셀리스와 페니키아와 그에 잇닿은 대륙에서 오는 상선의 통행을 괴롭히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멜레산드로스는 배에서 내린 아테네 병력과 동맹 병력을 이끌고 리키아 내륙으로 올라갔다가 싸움에서 패해 죽었고 병력 일부를 잃었다.

같은 겨울에 포티다이아인은 마침내 자기들을 포위한 자들에게 더는 버틸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티카를 쳐들어간 일은 아테네인들이 포위를 풀게 하는 바라던 효과를 내지 못했다. 식량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포티다이아에서 어찌나 심해졌는지 그 밖의 여러 끔찍한 일에 더해 사람들이 서로를 먹은 일까지 있었다. 이 막다른 처지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을 맞아 지휘하던 아테네 장군들에게 항복을 제안했는데, 에우리피데스의 아들 크세노폰과 아리스토클레이데스의 아들 헤스티오도로스와 칼리마코스의 아들 파노마코스였다. 장군들은 겨울 추위가 혹독한 곳에서 군대가 겪는 고생을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게다가 나라는 이미 그 포위에 탈란톤[3] 2,000을 쓴 터였다. 항복 조건은 이러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와 아내와 원군은 자유로이 나갈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옷 한 벌씩 여자에게는 두 벌씩, 그리고 여행에 쓸 정해진 액수의 돈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그들은 저마다 힘이 닿는 대로 칼키디케와 그 밖의 곳으로 나갔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본국의 지시 없이 조건을 내주었다고 장군들을 탓했는데, 그곳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뒤 포티다이아에 자기들의 정착민을 보내 그곳을 식민시로 삼았다. 겨울의 일들은 그러했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전쟁의 둘째 해는 그렇게 끝났다.

---

1. 죽음과 기근 — 크롤리의 영역본은 이 시구의 낱말을 death(죽음)로 옮기고, 논쟁의 대상이 된 낱말을 그와 소리가 닮은 dearth(기근)로 옮겨 원문의 말장난을 살렸다. 한국어로는 두 낱말의 소리가 닮지 않으므로 그 효과가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2.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3.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고 전한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8장 (제II권 제VIII장) — 전쟁 제3년 — 플라타이아 포위 — 포르미온의 해전 승리 — 시탈케스가 이끈 트라키아군의 마케도니아 침입

이듬해 여름 펠로폰네소스인과 그 동맹들은 아티카를 침공하는 대신 스파르타 왕 제욱시다모스의 아들 아르키다모스의 지휘 아래 플라타이아로 진군했다. 그가 군대를 진영에 들이고 그 땅을 짓밟으려 하던 참에 플라타이아인들은 서둘러 그에게 사절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아르키다모스와 스파르타인 여러분, 플라타이아의 땅을 침공하는 일로 여러분은 그 자체로 옳지 않은 일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들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사람인 클레옴브로토스의 아들 파우사니아스는, 우리 도시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의 위험을 감당하려 한 그리스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를 메디아인에게서 해방한 뒤, 플라타이아의 장터에서 해방자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맹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플라타이아인에게 그 도시와 땅을 되돌려주면서, 그것이 독립되어 있으며 침략이나 정복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일이 시도된다면 그 자리에 있던 동맹들이 각자 힘에 따라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그 위태로운 시절에 우리가 보인 용기와 열성에 이렇게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의 가장 지독한 원수인 테베인과 함께 와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맹세를 바친 신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신들에게, 끝으로 우리 나라의 신들에게 호소하며, 우리 땅을 침해하거나 그 맹세를 어기는 일을 그만두고 파우사니아스가 정한 대로 우리를 독립된 채로 살게 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플라타이아인들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아르키다모스가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플라타이아인 여러분, 여러분의 말대로 행한다면 그 말에는 옳음이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가 준 것에 따라 여러분 자신은 계속 독립되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위험을 함께 겪고 여러분에게 맹세를 함께 바쳤으나 지금은 아테네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다른 이들을 해방하는 일에 함께 나서십시오. 이 모든 준비와 이 전쟁이 이루어진 것은 그들과 나머지를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수고를 나누고 여러분 자신이 그 맹세를 지켜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을 하십시오. 중립을 지키고 여러분의 것을 누리십시오. 어느 편에도 들지 말고 양편을 다 벗으로 받아들이되, 전쟁의 동맹으로는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르키다모스의 말은 이러했다. 플라타이아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도시로 들어가 벌어진 일을 백성에게 알렸고, 곧 아테네인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그가 제안한 것을 할 수 없다는 답을 가지고 돌아왔다. 자기들의 아이들과 아내가 지금 아테네인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도시를 두고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에 아테네인이 와서 도시를 자기들 손에서 빼앗는 것을, 또는 그 맹세에 들어오게 될 테베인이 제안된 중립을 이용해 도시를 두 번째로 차지하려 드는 것을 무엇이 막아 주겠는가? 이 점들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해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여러분은 도시와 집을 우리 스파르타인에게 넘기고, 여러분 땅의 경계와 과수의 수와 그 밖에 수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알려 주고, 여러분 자신은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어디로든 바라는 곳으로 물러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되돌려주겠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맡아 지키고 땅을 계속 갈면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몫을 지급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은 다시 도시로 들어가 백성과 상의한 뒤, 먼저 이 제안을 아테네인에게 알리고 그들이 승인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휴전을 허락하고 자기들의 땅을 짓밟지 말아 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그는 오가는 데 필요한 날수만큼 휴전을 허락하고 그동안 그들의 땅을 짓밟는 일을 삼갔다. 플라타이아 사절들은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인과 상의하고, 도시에 있는 이들에게 다음 전언을 가지고 돌아왔다. "플라타이아인 여러분, 아테네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동맹이 된 뒤로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적에게 버려둔 적이 없으며, 이번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힘닿는 대로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바친 맹세를 걸고, 이 동맹을 고치지 말고 지켜 달라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사절들이 이 전언을 전하자 플라타이아인들은 아테네인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기로, 어쩔 수 없다면 제 땅이 짓밟히는 것도 그 밖에 자기들에게 닥칠 어떤 시련도 견디기로, 다시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성벽에서 스파르타인이 제안한 대로 할 수 없다고 답하기로 결의했다. 이 답을 받자마자 아르키다모스 왕은 먼저 그 땅의 신들과 영웅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엄숙히 호소했다. "플라타이아 땅의 신들과 영웅들이시여, 저의 증인이 되어 주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침략자로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며, 이 사람들이 먼저 공동의 맹세를 버리기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음을 증언해 주소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메디아인을 꺾기 전에 당신들에게 기도를 바쳤고, 당신들은 이 땅을 그리스의 무기에 상서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취하게 될 방책에서도 우리는 침략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한 제안을 여럿 내놓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그 일로 벌을 받도록, 그리고 의롭게 복수를 내릴 자들이 그 복수를 이루도록 어여삐 허락해 주소서."

신들에게 이렇게 호소한 뒤 아르키다모스는 군대를 움직였다. 먼저 그는 베어 낸 과수로 방책을 세워 도시를 둘러싸, 플라타이아에서 더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도시를 향해 흙언덕을 쌓아 올렸는데, 투입한 병력이 큰 만큼 그곳을 빠르게 함락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키타이론에서 재목을 베어 와 양쪽에 격자처럼 엮어 쌓아 올려, 흙언덕이 옆으로 퍼지지 않게 막는 벽으로 삼았고,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밖에 그것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재료는 무엇이든 실어 왔다. 그들은 70일 낮과 밤을 쉼 없이 흙언덕 일에 매달렸는데, 교대조로 나뉘어 일부가 나르는 동안 다른 일부는 잠과 먹을 것을 얻게 했고, 각 분견대에 딸린 스파르타 장교가 사람들을 일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나 플라타이아인들은 흙언덕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무로 벽을 짜서 흙언덕이 쌓이고 있는 성벽의 그 부분 위에 얹고, 그 안쪽을 이웃한 집들에서 뜯어 온 벽돌로 채워 올렸다. 재목은 구조물을 한데 묶어, 높이가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것을 막는 구실을 했다. 또 거기에는 가죽과 생가죽을 덮어 불붙은 발사물의 공격에서 목재를 지키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했다. 그리하여 성벽은 크게 높아졌고, 그 앞의 흙언덕도 그에 못지않게 빠르게 올라갔다. 플라타이아인들은 또 다른 방책도 생각해 냈다. 그들은 흙언덕이 맞닿은 성벽의 한 부분을 뜯어내고 그 흙을 도시 안으로 실어 들였다.

이것을 알아챈 펠로폰네소스인들은 갈대로 엮은 채롱에 진흙을 비벼 넣어 흙언덕에 생긴 구멍에 던져 넣었다. 그렇게 해서 흙언덕을

단단하게 묶어 흙처럼 실려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막히자 플라타이아인들은 방식을 바꾸어, 도시에서 굴을 파 흙언덕 아래로 길을 어림해 들어가 전과 같이 그 재료를 실어 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졌으나 밖에 있는 적은 알아채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위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흙언덕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아래에서 실려 나가고 빈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타이아인들은 그렇게 해도 수에서 앞선 적을 끝까지 버텨 내지 못할까 두려워 또 하나를 고안했다. 그들은 흙언덕 앞의 큰 구조물에 손을 멈추고, 그 양 끝에서 안쪽으로, 옛 낮은 성벽에서 시작해 도시 쪽으로 파고드는 초승달 모양의 새 성벽을 쌓았다. 큰 성벽이 함락되더라도 이것이 남아 적이 그것을 향해 흙언덕을 새로 쌓아야 하고, 안으로 나아갈수록 같은 수고를 되풀이해야 할 뿐 아니라 양옆에서 발사물에 노출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흙언덕을 쌓는 동안 펠로폰네소스인들은 공성 기계도 도시로 끌어 올렸다. 그 가운데 하나는 흙언덕 위로 올려 저 큰 구조물을 때려 그 상당 부분을 무너뜨렸으니, 플라타이아인들은 적지 않게 놀랐다. 다른 기계들은 성벽의 여러 지점으로 나아갔으나 플라타이아인들이 올가미를 걸어 부수었다. 그들은 또 성벽에 걸쳐 밖으로 내민 장대 두 개의 양 끝에서 긴 쇠사슬로 큰 들보를 매달아 두었다가, 어느 지점이 공성 기계에 위협받으면 그 들보를 비스듬히 끌어올리고, 붙든 손을 놓아 사슬이 늘어진 채로 들보를 떨어뜨려, 그것이 세차게 내려와 파성추의 머리를 부러뜨리게 했다.

그 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자기들의 공성 기계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흙언덕이 맞선 공사에 막히는 것을 보고, 지금 가진 공격 수단으로는 도시를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시를 둘러싸는 포위벽을 쌓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들은 불의 효과를

시험해, 도시가 크지 않으니 바람의 도움을 받아 태워 버릴 수 있는지 보기로 했다. 실로 그들은 봉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곳을 함락시킬 수 있을 만한 방책이라면 무엇이든 다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잔나무 다발을 가져와 흙언덕에서 던져 넣었다. 먼저 흙언덕과 성벽 사이의 공간에 던졌고, 일하는 손이 많아 그곳이 곧 가득 차자 다음에는 흙언덕 위에서 닿는 데까지 도시 안쪽으로 다발을 쌓아 올린 뒤, 유황과 역청으로 불을 붙여 나무를 태웠다. 그 결과는 사람의 손으로 일으킨 것으로는 일찍이 누구도 본 적 없는 큰 불이었다. 물론 산의 숲에서 바람이 가지를 맞비벼 저절로 일어난다고 알려진 큰 불과는 견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불은 그 규모만으로 남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많은 위험을 지나온 끝에 하마터면 플라타이아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뻔했다. 도시의 큰 부분이 아예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적이 바라던 대로 그곳에 바람이 불었다면 아무것도 그들을 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큰비와 천둥이 몰려와 불이 꺼지고 위험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하자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병력의 일부를 그 자리에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낸 뒤, 도시를 둘러싸는 포위벽을 쌓고 그 자리를 참가한 여러 도시에 나누어 맡겼다. 포위선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호를 파고 거기서 벽돌 흙을 얻었다. 아르크투루스[1]가 떠오를 무렵 모든 것이 끝나자 그들은 성벽의 절반을 지킬 만한 인원을 남겼고, 나머지 절반은 보이오티아인이 맡았다. 그리고 군대를 물려 각자의 도시로 흩어졌다. 플라타이아인들은 그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싸울 수 없는 이들 대부분을 아테네로 보내 두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 포위를 받은 수는 그들 자신의 시민 400명과 아테네인 80명, 그리고 빵을 구울 여자 110명이었다. 포위가 시작될

때의 총수가 이러했고, 성벽 안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 밖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플라타이아 봉쇄를 위한 조치는 이러했다.

같은 여름, 플라타이아 원정과 때를 같이하여 아테네인들은 곡식이 익어 갈 무렵 중장보병 2,000명과 기병 200명을 거느리고 트라키아 쪽 칼키디케인과 보티아이아인을 향해 진군했다. 지휘는 에우리피데스의 아들 크세노폰과 두 동료가 맡았다. 보티아이아의 스파르톨로스 앞에 이르자 그들은 곡식을 짓밟았고, 성안 한 당파의 내밀한 움직임을 통해 도시가 넘어오리라는 기대를 얼마간 품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쪽에서 올린토스로 사람을 보냈으므로 중장보병과 그 밖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수비대가 그에 따라 도착했다. 이들이 스파르톨로스에서 쳐 나오자 아테네인들이 도시 앞에서 맞섰다. 칼키디케의 중장보병과 그들과 함께 있던 얼마간의 보조 병력은 패해 스파르톨로스로 물러났으나, 칼키디케의 기병과 경무장 병력은 아테네인의 기병과 경무장 병력을 이겼다. 칼키디케인에게는 이미 크루시스에서 온 경방패병[2]이 몇 있었고, 전투가 끝난 직후 올린토스에서 다른 몇이 더 와서 합류했다. 이들을 보고 스파르톨로스의 경무장 병력은 이 증원과 앞서 거둔 성공에 힘을 얻어, 칼키디케 기병과 방금 도착한 증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아테네인을 쳤다. 아테네인은 짐과 함께 남겨 두었던 두 부대로 물러났다. 아테네인이 나아가면 상대는 물러났고, 아테네인이 물러서기 시작하는 순간 발사물로 그들을 몰아붙였다. 칼키디케 기병도 마음대로 달려들어 치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그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켜 그들을 무너뜨리고 멀리까지 뒤쫓았다. 아테네인들은 포티다이아로 피했고, 그 뒤 휴전을 맺어 자기들의 주검을 되찾았으며, 남은 병력을 거느리고 아테네로 돌아갔다. 430명과 장군 전원이 쓰러졌다. 칼키디케인과 보티아이아인은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자기들의 주검을 거두어 각자의 도시로 흩어졌다.

같은 여름,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암브라키아인과 카오니아인은 아카르나니아 전체를 굴복시켜 아테네에서 떼어 놓으려는 마음으로, 스파르타인을 설득해 연합에서 함대를 갖추어 중장보병 1,000명을 아카르나니아로 보내게 했다. 육지와 바다에서 함께 움직이면 해안의 아카르나니아인이 도우러 올 수 없게 되고, 아카르나니아를 차지하면 자킨토스와 케팔레니아의 정복도 쉽게 뒤따르므로 아테네인이 펠로폰네소스를 돌아 순항하는 일이 더는 그렇게 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다. 게다가 나우팍토스를 차지할 희망도 있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인은 곧 배 몇 척을 크네모스와 함께 내보냈는데, 그는 여전히 해군 총사령관이었고 중장보병이 그 배에 탔다. 그리고 함대는 되도록 빨리 갖추어 레우카스로 오라는 명을 두루 돌렸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것은 코린트인이었으니, 암브라키아인이 그들의 식민시였기 때문이다. 코린트와 시키온과 그 일대에서 배들이 준비되는 동안, 먼저 도착한 레우카스와 아낙토리온과 암브라키아의 배들은 레우카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크네모스는 중장보병 1,000명과 함께 나우팍토스 앞에 배치된 아테네 함대의 지휘관 포르미온을 피해 만 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육상 원정 준비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한 그리스 병력은 암브라키아인과 레우카스인과 아낙토리온인, 그리고 그가 데려온 펠로폰네소스인 1,000명이었다. 이방인 병력은 카오니아인 1,000명이었는데, 이들은 왕이 없는 종족으로 그해의 수장 자리를 맡은 왕가의 두 사람 포티스와 니카노르가 이끌었다. 카오니아인과 함께, 그들처럼 왕이 없는 테스프로티아인 얼마가 왔고, 아직 미성년인 타립스 왕의 후견인 사빌린토스가 이끄는 몰로시아인과 아틴타니아인 얼마가 왔으며, 파라바이아인이 그들의 왕 오로이도스 아래 왔고, 안티오코스 왕의 신민으로 그가 오로이도스의 지휘 아래 둔 오레스티아인 1,000명이 따라왔다. 페르디카스가 아테네인

모르게 보낸 마케도니아인 1,000명도 있었으나 이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크네모스는 이 병력을 거느리고 코린트에서 오는 함대를 기다리지 않은 채 떠났다. 암필로키아의 아르고스 땅을 지나며 성벽 없는 마을 림나이아를 약탈한 그들은 아카르나니아의 중심 도시 스트라토스로 나아갔다. 이곳을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 지역도 빠르게 뒤따를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아카르나니아인들은 육지에서 큰 군대에 침공을 받고 바다에서 적의 함대에 위협받는 처지가 되자, 힘을 합쳐 맞서려 하지 않고 각자 제 집을 지키려 그 자리에 남았으며, 포르미온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 포르미온은 코린트에서 함대가 막 출항하려는 때에 나우팍토스를 지키지 않은 채로 둘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는 동안 펠로폰네소스인과 그 동맹들은 세 부대로 나뉘어 스트라토스로 나아갔다. 그 근처에 진을 치고, 교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면 힘으로 성벽을 쳐 보려는 것이었다. 행군 순서는 이러했다. 중앙은 카오니아인과 나머지 이방인이 맡고, 오른쪽에는 레우카스인과 아낙토리온인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왼쪽에는 크네모스가 펠로폰네소스인과 암브라키아인과 함께 있었다. 각 부대는 서로 멀리 떨어져 때로는 서로가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스인들은 질서를 지켜 나아가며 경계를 놓지 않다가 좋은 자리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카오니아인은 자신감에 부풀어 있었고 그 대륙 그 지역의 종족들 사이에서 용맹으로 가장 높은 이름을 얻고 있었으므로, 진영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머지 이방인과 함께 달려 나갔다. 도시를 들이쳐 차지하고 이 일의 영예를 홀로 얻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들이 몰려오는 동안 스트라토스인들은 사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아채고, 이 부대를 꺾으면 그 뒤에 있는 그리스인들의 기세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여겨 도시 주변에 매복을 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오자마자 도시와 매복에서 나와 가까이 붙어 싸웠다. 카오니아인은 공포에 사로잡혀 많은 수가 베였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자마자 나머지 이방인도 돌아서 달아났다. 동맹들이 앞서 나간 거리가 멀었던 까닭에 그리스 부대 어느 쪽도 이 전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진을 치러 서둘러 가는 중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달아나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안으로 밀려들자 그들은 대열을 열어 받아들이고 부대를 한데 모아 그날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스트라토스인들은 나머지 아카르나니아인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과 맞붙으려 하지 않고 멀리서 돌팔매를 던지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무장을 갖추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그것이 그들을 크게 괴롭혔다. 이런 방식의 싸움에서는 아카르나니아인이 뛰어난 듯하다.

밤이 되자마자 크네모스는 서둘러 군대를 스트라토스에서 80스타디온[3] 떨어진 아나포스강으로 물렸다. 이튿날 휴전을 맺어 자기 주검을 되찾고, 거기서 우호적인 오이니아다이인과 합류한 뒤 적의 증원이 오기 전에 그들의 도시로 후퇴했다. 거기서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갔고, 스트라토스인들은 이방인들과 벌인 전투를 기려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그러는 동안 크리사 만에 있던 코린트와 나머지 연합국의 함대는 크네모스와 함께 움직여 해안의 아카르나니아인이 내륙의 같은 나라 사람들과 합치는 것을 막기로 되어 있었으나, 스트라토스의 전투와 거의 같은 때에 포르미온과 나우팍토스에 배치된 아테네 함선 20척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몰려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만을 나와 해안을 따라가는 것을 포르미온이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는 열린 바다에서 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코린트인과 동맹들은 해전을 벌일 생각은 조금도 없이, 군사를 나르는 수송선에 더 가까운 배로 아카르나니아를 향해 떠났다. 게다가 그들은 아테네 함선 20척이 자기들의 47척과 감히

맞붙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해안을 따라가는 동안 아테네인들은 그들과 나란히 줄지어 항해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카이아의 파트라이에서 아카르나니아로 가는 길에 건너편 본토로 건너가려 하자, 아테네인들이 칼키스와 에우에노스 강에서 다시 나와 자기들을 맞으러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밤에 닻을 풀고 빠져나갔으나 발각되어, 마침내 건너는 도중 바다 위에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무장에 배를 낸 나라마다 제 장군이 있었고, 코린트의 지휘관은 마카온과 이소크라테스와 아가타르키다스였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틈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큰 원으로 배를 늘어세우고 뱃머리를 밖으로 배 뒤를 안으로 두었으며, 함께 온 작은 배는 모두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가장 잘 달리는 배 5척은 언제라도 즉시 튀어나가 적이 위협하는 지점을 떠받칠 수 있게 두었다.

아테네인들은 한 줄로 늘어서서 그들 주위를 돌고 또 돌며, 끊임없이 스칠 듯 지나가고 당장 들이칠 듯이 하여 그들의 원을 좁아들게 만들었다. 포르미온이 신호를 줄 때까지는 실제로 치지 말라고 미리 일러 두었기 때문이다. 그의 기대는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육지의 군대처럼 대형을 지키지 못하고 배들이 서로 부딪치며 작은 배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만에서 바람이 불어오면(그가 계속 그들 주위를 돈 것은 이것을 기다린 것이었고, 그 바람은 흔히 아침이 되면 일었다) 그들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 그는 자기 배들이 더 빠르므로 치는 때를 자기가 고를 수 있다고, 그리고 바람이 오는 때에 맞춘 공격이 가장 잘 먹힐 것이라고 여겼다. 바람이 내려왔을 때 적의 배들은 이미 좁은 자리에 몰려 있었고, 바람과 부딪쳐 오는 작은 배들 때문에 곧바로 혼란에 빠졌다. 배가 배에 부딪쳤고, 수부들은 장대로 배를 밀어냈으며, 소리치고 욕하고 서로 다투는 바람에 선장의 명령도 갑판장의 외침도 다 함께 들리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연습이 모자라 거친 물에서 노를 빼내지 못해 배가 조타수의 손에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이 순간에 포르미온이 신호를 주었고 아테네인들이 들이쳤다. 먼저 제독의 배 한 척을 가라앉힌 뒤 그들은 마주치는 배는 모두 못 쓰게 만들었으므로, 아무도 그 혼란 속에서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카이아의 파트라이와 디메로 달아났다. 아테네인들은 뒤를 쫓아 함선 12척을 잡았고, 거기서 사람 대부분을 끌어낸 뒤 몰리크리온으로 항해했다. 리온 곶에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포세이돈에게 배 한 척을 바친 뒤 나우팍토스로 돌아갔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남은 배로 곧 디메와 파트라이에서 해안을 따라 엘리스의 병기창인 킬레네로 갔다. 스트라토스의 전투 뒤에 크네모스와, 그들과 합치기로 되어 있던 레우카스의 배들도 거기에 도착했다.

이제 스파르타인은 크네모스에게 위원 세 사람, 곧 티모크라테스와 브라시다스와 리코프론을 함대로 보내, 이번에는 운이 더 나아지도록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배 몇 척에 바다에서 밀려나지 말라고 명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낭패를 본 일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고, 그것이 자기들의 첫 해상 시도였던 만큼 더욱 그랬다. 그래서 자기들의 해군이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비겁함이 있었다고 여겼고, 아테네인의 오랜 경험을 자기들이 쌓은 적은 연습과 견주어 헤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원들은 노여움을 품고 보내졌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크네모스와 함께 여러 나라에 배를 요구하고 이미 가진 배를 싸울 수 있게 갖추는 일에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포르미온은 그들의 준비와 자기가 거둔 승리를 아테네에 알리고, 날마다 전투를 기다리는 처지이니 되도록 많은 배를 빨리 보내 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20척이 보내졌으나 그 지휘관에게는 먼저 크레타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고르티스 사람으로 아테네인의 프록세노스[4]였던 크레타인 니키아스가, 적대하는 도시 키도니아를 굴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설득해 그곳을 치러 가게 했던 것이다. 그의 진짜 바람은 키도니아인의 이웃인 폴리크네인의 뜻을 받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배들과 함께 크레타로 가서 폴리크네인과 함께 키도니아인의 땅을 짓밟았고, 거스르는 바람과 거친 날씨로 적지 않은 시간을 거기서 허비했다.

아테네인들이 이렇게 크레타에 붙들려 있는 동안, 킬레네에 있던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싸울 준비를 마치고 해안을 따라 아카이아의 파노르모스로 갔는데, 거기에는 그들을 떠받치러 온 육군이 있었다. 포르미온도 해안을 따라 몰리크리온의 리온으로 가서, 전에 싸울 때와 같은 함선 20척으로 그 앞에 닻을 내렸다. 이 리온은 아테네인에게 우호적이었다. 펠로폰네소스에 있는 또 하나의 리온이 그 건너편에 놓여 있는데, 둘 사이의 바다는 너비가 약 7스타디온으로 크리사 만의 입구를 이룬다. 그들의 군대가 있던 파노르모스에서 멀지 않은 이곳 아카이아의 리온에, 아테네인들이 닻을 내리는 것을 보고 펠로폰네소스인들도 함선 77척으로 닻을 내렸다. 엿새나 이레 동안 그들은 서로 마주 본 채 머물며 전투를 위해 연습하고 준비했다. 한쪽은 이미 겪은 재앙이 두려워 두 리온 사이를 나가 열린 바다로 들어서지 않기로 굳혔고, 다른 쪽은 좁은 물에서 싸우는 것이 적에게 이롭다고 여겨 그 해협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굳혔다. 마침내 크네모스와 브라시다스와 나머지 펠로폰네소스 지휘관들은 아테네에서 증원이 오기 전에 되도록 빨리 전투를 붙이기를 바랐고, 사람들 대부분이 앞서의 패배에 겁을 먹어 이 일에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먼저 그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북돋웠다.

펠로폰네소스인 여러분, 지난번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몇 분에게 지금 앞에 놓인 싸움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지 모르나, 그 싸움은 실로 걱정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 싸움에 대한 준비는 넉넉하지 못했고, 우리가 배를 낸 목적도 해전을

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육상 원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운이 우리에게 크게 거슬렀고, 어쩌면 첫 해전에서 우리가 실패한 데에는 경험 부족도 얼마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패배를 낳은 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으며, 힘으로 꺾이지 않은 결의, 아직 적에게 할 말이 남아 있는 결의가 우연한 일의 결과로 무디어져서도 안 됩니다. 운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용감한 마음은 언제나 용감해야 하며 그렇게 있는 동안에는 비겁해진 변명으로 경험 부족을 내세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경험에서 적에게 뒤진 만큼 용기에서는 그들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의 기술은 용맹이 함께한다면 배운 것을 위급한 때에 실행할 침착함까지 갖추겠지만, 겁먹은 마음은 위험 앞에서 모든 기술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침착함을 앗아 가고, 용맹이 없으면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앞선 경험에는 여러분의 앞선 담대함을 맞세우고, 패배에서 생긴 두려움에는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맞세우십시오. 또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수에서 앞선다는 이점이 있고, 우리 중장보병의 떠받침을 받으며 우리 해안 앞에서 싸운다는 이점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대개 수와 장비가 승리를 줍니다. 그러므로 어느 점에서도 패배는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두고 말하면,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앞날을 위해 우리를 더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 조타수와 수부들은 마음 놓고 각자의 임무에 힘쓰십시오. 누구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두고 말하면,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의 이전 지휘관들만큼은 잘 이 싸움을 준비하겠으며 누구에게도 비겁해질 구실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렇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고, 용감한 자는 용맹에 알맞은 상으로 기려질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지휘관들이 자기 사람들을 북돋운 말은 이러했다. 그러는 동안 포르미온도 자기 사람들의 용기를 두고 걱정이 없지 않았고, 그들이 저희끼리 무리를 지어 수의 차이에 놀라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들을 불러 모아 지금의 위급한 사정에서 자신감과 조언을 주고자 했다. 그는 전부터 그들에게 거듭 말해 왔고 그 생각에 그들의 마음을 익숙하게 만들어 두었으니, 그들이 맞설 수 없는 수의 우세란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들 자신도 아테네인이라면 펠로폰네소스 함선이 아무리 많아도 물러날 필요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눈앞의 광경에 기가 죽은 것을 보았으므로, 그는 그들의 자신감을 되살리고자 그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적의 수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저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 모았습니다. 실로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게 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펠로폰네소스인은 이미 패한 자들이고 자기들조차 우리와 맞먹는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대등한 조건으로 우리를 맞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배를 우리에게 맞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 곧 자기들에게 타고난 것이라고 여기는 용기를 두고 말하면, 그 자신감은 육상에서 복무하며 쌓은 경험이 흔히 그들에게 안겨 주는 성공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며, 그들은 그것이 바다에서도 자기들에게 같은 것을 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이점이 그 영역에서 그들의 것이라면, 이 영역에서는 온당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에서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제 분야의 경험에 따라 더 자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파르타인은 동맹에 대한 자기들의 패권을 제 영광을 위해 쓰므로, 그들 대부분은 제 뜻과 어긋나게 위험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뚜렷한 패배를 겪은 뒤에 새로운 싸움에 나설 엄두를 결코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세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근거 있는 두려움을 그들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승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토록 뚜렷한 승리에 걸맞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들을 맞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들처럼 수에서 앞선 적은 결의보다 힘을 더 믿고 싸움에 들어옵니다. 반면 엄청난 수적 열세를 스스로 나서서 맞서는 자는 끌어낼 내면의 힘이 매우 커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펠로폰네소스인은 우리의 이치에 닿지 않는 담대함을, 그들과 걸맞은 준비를 우리가 갖추었을 때 두려워했을 것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많은 군세가 기술의 부족이나 때로는 용기의 부족으로 자기보다 못한 상대에게 굴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 결함 어느 것도 확실히 없습니다. 전투를 두고 말하면, 제가 막을 수 있는 한 그것은 만 안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저는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서툴게 다루어지는 많은 배와 작고 빠르고 잘 다루어지는 함대 사이의 싸움에서, 바다의 여유가 없는 것은 의심할 것 없는 불리함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한참 먼 데서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들이받을 수 없고, 몰리면 필요할 때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대열을 뚫을 수도 없고 그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데, 그것이야말로 빠른 배에 맞는 전술입니다. 오히려 해전이 어쩔 수 없이 육지의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가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배 옆의 제자리를 지키고 명령의 말을 재빨리 받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이토록 짧은 거리에서 살피고 있으니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는 질서와 침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전쟁 전반에 쓸모 있고 특히 해전에 쓸모 있는 자질입니다. 또 적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지난 업적에 걸맞게 처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걸린 것은 큽니다. 펠로폰네소스인의 해상의

희망을 부수는 것, 또는 아테네인에게 바다를 두고 품는 두려움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들 대부분을 꺾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드립니다. 한번 꺾인 사람은 같은 결의로 두 번 위험을 맞지 못합니다.

포르미온의 훈시는 이러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아테네인들이 만과 좁은 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고, 그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새벽에 배를 내어 네 줄로 늘어서서, 닻을 내리고 있던 그대로 오른쪽 날개를 앞세우고 만 안쪽 자기들 땅 쪽으로 항해했다. 이 날개에는 가장 잘 달리는 배 20척을 두었다. 포르미온이 그들의 목적이 나우팍토스라고 여겨 그곳을 구하러 해안을 따라 그리로 갈 경우, 아테네인들이 그 날개 밖으로 빠져나가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그 배들에게 끊기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상한 대로 포르미온은 그때 수비대가 비어 있던 그곳을 걱정해, 그들이 배를 내는 것을 보자마자 마음에 꺼리면서도 서둘러 배에 올라 해안을 따라 항해했고, 메세니아 육군도 그를 떠받치려 나란히 움직였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그가 배를 한 줄로 늘여 해안을 따라가며 그렇게 만 안쪽 육지에 가까이 붙은 것을 보고, 그것이 그토록 바란 일이었으므로 한 번의 신호에 갑자기 방향을 돌려 이물을 나란히 하고 가장 빠른 속력으로 아테네인들에게 내리덮쳤다. 함대 전체를 끊어 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선 배 11척은 펠로폰네소스의 날개와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벗어나 더 열린 물에 이르렀다. 나머지는 빠져나가려다 붙잡혀 해안으로 밀려 못 쓰게 되었고, 수부 가운데 배에서 헤엄쳐 빠져나가지 못한 이들은 베였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배 몇 척을 자기 배에 묶어 빈 채로 끌고 갔고, 한 척은 사람들이 탄 채로 잡았다. 다른 몇 척도 막 끌려가려는 참이었으나, 메세니아인들이 무장한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 올라탄 갑판에서 싸워 그 배들을 건져 냈다.

여기까지는 승리가 펠로폰네소스인의 것이었고 아테네 함대는 무너졌다. 그러는 동안 오른쪽 날개의 배 20척은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벗어나 더 열린 물에 이른 아테네 함선 11척을 뒤쫓고 있었다. 이 배들은 한 척만 빼고 모두 그들을 앞질러 무사히 나우팍토스에 들어갔고, 아폴론 신전 앞 해안 가까이에 뱃머리를 적 쪽으로 두어 늘어서서, 펠로폰네소스인들이 해안 쪽으로 자기들을 치러 들어올 경우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얼마 뒤 펠로폰네소스인들이 다가오며 승리를 기려 파이안[5]을 불렀다. 남은 아테네 배 한 척은 나머지보다 한참 앞선 레우카스 배 한 척에 쫓기고 있었다. 그런데 정박지에 닻을 내리고 있던 상선 한 척이 있었으므로, 아테네 배는 때맞추어 그 배를 돌아 쫓아오던 레우카스 배의 허리를 들이받아 가라앉혔다. 이토록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은 일은 펠로폰네소스인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켰다. 그리고 승리에 들떠 대열이 흐트러져 있던 터라, 일부는 본대가 따라오게 하려고 노를 놓고 배를 세웠는데 적의 뱃머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안전하지 못한 짓이었고, 다른 일부는 그 지형을 몰라 얕은 데에 배를 대어 걸렸다.

이 일에 기운을 얻은 아테네인들은 한마디 말에 함성을 지르고 적에게 달려들었다. 적은 제 실수와 스스로 빠진 혼란에 발이 묶여 한순간만 버티다가 배를 내었던 파노르모스로 달아났다. 아테네인들은 뒤를 바짝 쫓아 가장 가까운 배 6척을 잡고, 싸움이 시작될 때 해안 가까이에서 못 쓰게 되어 끌려갔던 자기들의 배를 되찾았다. 그들은 수부 가운데 일부를 죽이고 일부는 사로잡았다. 상선 앞에서 가라앉은 레우카스 배에는 스파르타인 티모크라테스가 타고 있었는데, 그는 배가 가라앉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주검은 나우팍토스 항구로 밀려 올라왔다. 아테네인들은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배를 내어 싸움을 뒤집은 그 자리에 전승 기념물을 세웠고, 자기들 해안에 있던 난파물과 주검을 거두고

휴전을 맺어 적에게 그들의 주검을 돌려주었다. 펠로폰네소스인들도 해안 가까이에서 못 쓰게 만든 배들에 입힌 패배를 두고 승자로서 전승 기념물을 세웠고, 잡은 배는 아카이아의 리온에 그 기념물과 나란히 바쳤다. 그 뒤 그들은 아테네에서 올 증원을 걱정해, 레우카스인만 빼고 모두 크리사 만을 거쳐 코린트로 항해했다. 그들이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투 전에 포르미온과 합치기로 되어 있던 아테네 함선 20척이 나우팍토스에 도착했다.

이렇게 그 여름이 끝났다. 겨울이 가까워졌으나, 코린트와 크리사 만으로 물러났던 함대를 흩기 전에 크네모스와 브라시다스와 나머지 펠로폰네소스 지휘관들은 메가라인의 설득에 마음이 기울어 아테네의 항구 피레우스를 쳐 보기로 했다. 아테네가 바다에서 뚜렷하게 앞서 있었던 까닭에 그 항구는 자연히 지키는 이도 없고 열려 있는 채로 남아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다. 사람들이 각자 제 노와 깔개와 노걸이 끈을 들고 코린트에서 아테네 쪽 바다까지 육로로 가서 되도록 빨리 메가라에 이른 뒤, 마침 니사이아의 선거에 있던 배 40척을 물에 내려 곧바로 피레우스로 항해한다는 것이었다. 그 항구에는 지키는 함대가 없었고, 적이 기습을 시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드러내어 치는 일이라면 일부러 감행할 리 없고,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테네에 곧 알려질 것이라고 여겼다. 계획을 세운 다음 걸음은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었다. 밤에 도착해 니사이아에서 배를 내린 그들은, 처음에 뜻한 대로 피레우스로 항해하지 않고 메가라를 바라보는 살라미스의 곶으로 갔다. 그 위험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게다가 바람이 그들을 멈추게 했다는 말도 얼마간 있다. 그곳에는 메가라로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한 요새와 함선 3척의 함대가 있었다. 그들은 이 요새를 들이치고 삼단노선들을 빈 채로 끌고 갔으며, 주민들을 기습해 섬의 나머지를 짓밟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에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올랐고, 전쟁 기간에 일어난 어떤 것에도 못하지 않은 공황이 거기에 일었다. 도시에서는 적이 이미 피레우스로 들어왔다고 여겼고, 피레우스에서는 적이 살라미스를 차지했으며 언제라도 항구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조금만 더 굳었다면 그것은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었고, 어떤 바람도 그들을 막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날이 새자마자 아테네인들은 전군을 모아 배를 내리고 서두름과 요란함 속에 올라타 함대와 함께 살라미스로 갔으며, 육군은 피레우스에서 경비를 섰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구원이 오고 있음을 알아채고, 살라미스 대부분을 휩쓴 뒤 약탈물과 사로잡은 사람들과 부도론 요새에서 가져온 배 3척을 끌고 서둘러 니사이아로 떠났다. 자기들 배의 상태도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오랫동안 뭍에 올려 두었다가 내린 배라 물이 새지 않을 만큼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가라에 이른 그들은 걸어서 코린트로 돌아갔다.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더는 살라미스에 없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항구를 닫고 그 밖에 알맞은 방비를 갖추어, 앞날에 피레우스를 더 부지런히 지킬 조치를 취했다.

이 겨울이 시작될 무렵 거의 같은 때에, 트라키아의 오드리사이인 왕인 테레스의 아들 시탈케스가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의 아들 페르디카스와 트라키아 근처의 칼키디케인을 향해 원정을 벌였다. 그의 목적은 한 약속은 이행하게 하고 다른 한 약속은 자기가 이행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페르디카스는 전쟁이 시작될 때 몰린 처지에서 그에게 약속을 한 바 있었다. 시탈케스가 아테네인을 자기와 화해시키고 자기의 형제이며 적인 왕위 요구자 필리포스를 되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약속을 이행할 뜻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시탈케스 자신은 아테네인과 동맹을 맺으면서 트라키아의 칼키디케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그가 침공한 두

목적이었다. 그는 마케도니아 왕좌에 앉히려는 필리포스의 아들 아민타스와, 이 일로 그의 궁정에 와 있던 아테네 사절 몇 사람과, 장군으로서 하그논을 함께 데려왔다. 아테네인은 함대와 모을 수 있는 만큼의 군사로 그와 함께 칼키디케인을 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드리사이인에서 시작해, 그는 먼저 하이모스 산과 로도페 산 사이, 그리고 흑해와 헬레스폰토스 사이에서 자기에게 예속된 트라키아 종족들을 불러냈다. 다음으로는 하이모스 너머의 게타이인과, 게타이인처럼 스키타이인과 접하고 그들과 같은 무장을 갖춘, 곧 모두가 말 탄 궁수인, 흑해 가까이 도나우강 남쪽에 자리 잡은 다른 무리들을 불러냈다. 이들 말고도 그는 디이인이라 불리며 대부분 로도페 산에 사는 산악의 독립된 트라키아 검병 다수를 불러 모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용병으로, 일부는 자원해 왔다. 또 아그리아네스인과 라이아이인, 그리고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나머지 파이오니아 종족들도 불렀다. 이들은 그 제국의 변경에 살며 라이아이의 파이오니아인과 스트리몬 강까지 뻗어 있었는데, 그 강은 스콤브로스 산에서 흘러 아그리아네스인과 라이아이인의 땅을 지난다. 거기서 시탈케스의 제국이 끝나고 독립된 파이오니아인의 땅이 시작된다. 역시 독립된 트리발리인과 접해 트레레스인과 틸라타이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스콤브로스 산 북쪽에 살며 해가 지는 쪽으로 오스키오스 강까지 뻗어 있다. 이 강은 네스토스강과 헤브로스강이 솟는 것과 같은 산맥, 곧 로도페와 이어진 거칠고 넓은 산줄기에서 솟는다.

오드리사이인의 제국은 해안을 따라 압데라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도나우강 입구까지 뻗어 있었다. 이 해안을 가장 짧은 길로 항해하면 상선으로 줄곧 순풍을 받아 나흘 낮과 나흘 밤이 걸린다. 육로로는 발 빠른 사람이 가장 짧은 길로 가면 압데라에서 도나우강까지 열하루에 이를 수 있다. 그 해안선의 길이가 이러했다. 내륙으로는 비잔티움에서

라이아이인과 스트리몬 강까지, 곧 내지로 가장 멀리 뻗은 한계까지 발빠른 사람이 열사흘을 가는 길이다. 이방인 지구 전체와 그리스 도시들에서 들어온 공납은, 시탈케스의 뒤를 이어 그것을 가장 높이 끌어올린 세우테스 때에 들어온 것으로 셈하면 금과 은으로 약 400탈란톤[6]에 이르렀다. 그에 못하지 않은 액수의 금과 은 선물도 있었고, 그 밖에 무늬 없는 천과 수놓은 천과 다른 물건들이 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드리사이의 영주들과 귀족들에게도 바쳐졌다. 여기에는 페르시아 왕국에 퍼져 있던 것과 정반대의 관습이 세워져 있었으니, 곧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관습이었다. 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것보다 청을 받고 주지 않는 것에 더 큰 수치가 붙었다. 이것이 트라키아의 다른 곳에도 퍼져 있었으나 강력한 오드리사이인 사이에서 가장 널리 행해졌으므로, 선물 없이는 무슨 일도 되게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매우 강력한 왕국이었고, 수입과 전반적인 번영에서 이오니아만과 흑해 사이 유럽의 모든 나라를 앞섰으며, 수와 군사 자원에서는 스키타이인 다음으로 뚜렷하게 둘째였다. 실로 스키타이인과는 유럽의 어떤 민족도 견줄 수 없으며, 그들이 한마음이라면 아시아에서도 홀로 그들과 맞먹을 나라가 없다. 물론 일반적인 지력과 문명 생활의 기술에서는 그들이 다른 종족들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

이제 군을 일으킬 준비를 한 것은 이 제국의 주인이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자 그는 마케도니아를 향해 행군에 나섰는데, 먼저 자기 영토를 지나고 다음으로 신티인과 파이오니아인을 가르는 황량한 케르키네 산줄기를 넘었다. 그가 넘은 길은 앞서 파이오니아인을 치러 갔던 원정에서 나무를 베어 그 자신이 낸 길이었다. 이 산들을 넘어 오른쪽에 파이오니아인을 두고 왼쪽에 신티인과 마이디인을 두고 가서, 그는 마침내 파이오니아의 도베로스에 이르렀다. 행군 중에 병으로 잃은 것

말고는 군대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얼마간 늘었으니, 독립된 트라키아인 다수가 약탈의 희망을 품고 자원해 그와 합류했다. 그리하여 전체가 통틀어 15만에 이르는 큰 수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보병이었으나 3분의 1쯤은 기병으로, 주로 오드리사이인 자신이, 그다음으로 게타이인이 냈다. 보병 가운데 가장 잘 싸우는 이들은 로도페에서 내려온 독립된 검병들이었고, 그를 따른 나머지 뒤섞인 무리는 주로 수로써 두려움을 주었다.

도베로스에 모인 그들은 산 높은 데서 페르디카스의 영토가 있는 아래 마케도니아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링케스티스인과 엘리미오타이인, 그리고 더 내륙에 있는 다른 종족들은 핏줄로는 마케도니아인이며 같은 핏줄인 이들의 동맹이자 예속민이면서도, 여전히 자기들만의 왕국을 따로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마케도니아라 불리는 해안 지역은 페르디카스의 아버지 알렉산드로스와 그 조상들이 처음 얻었으며, 그들은 본디 아르고스에서 온 테메노스의 후손이었다. 이 일은 피에리아에서 피에리아인을 몰아내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그 뒤 스트리몬 너머 팡가이온 산 아래의 파그레스와 다른 곳들에 살았다(실로 팡가이온과 바다 사이의 땅은 지금도 피에리아만이라 불린다). 또 지금 칼키디케인의 이웃인 보티아이아인을 보티아에서 몰아내면서, 그리고 파이오니아에서 악시오스 강을 따라 펠라와 바다까지 뻗은 좁은 띠를 얻으면서 이루어졌다. 악시오스와 스트리몬 사이의 미그도니아 지구도 에도니인을 몰아내면서 덧붙였다. 에오르디아에서도 에오르디아인이 쫓겨나 대부분 죽었고, 다만 그 가운데 몇이 아직 피스카 주변에 산다. 알모피아에서는 알모피아인이 쫓겨났다. 이 마케도니아인들은 다른 종족들에게 속한 곳들도 정복했으니, 안테무스와 크레스토니아와 비살티아와 마케도니아 본토의 많은 부분이 지금도 그들의 것이다. 그

전체가 이제 마케도니아라 불리며, 시탈케스가 침공할 때에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들 페르디카스가 왕위에 있었다.

이 마케도니아인들은 그토록 수 많은 침공자를 맞아 싸움터에 나설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있는 튼튼한 곳과 요새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런 곳은 수가 많지 않았다. 지금 그 땅에서 볼 수 있는 것 대부분은 그 뒤 페르디카스의 아들 아르켈라오스가 왕위에 올라 세운 것이며, 그는 곧은 길도 내고 말과 무기와 그 밖의 군수 물자를 두고도 앞선 여덟 왕이 모두 한 것보다 더 나은 기반 위에 왕국을 올려놓았다. 도베로스에서 나아간 트라키아 군은 먼저 한때 필리포스의 통치 아래 있던 곳을 침공해 이도메네를 들이쳐 차지했고, 고르티니아와 아탈란타와 다른 몇 곳은 교섭으로 얻었다. 이 마지막 곳들은 그때 시탈케스와 함께 있던 필리포스의 아들 아민타스를 사랑해 넘어온 것이었다. 에우로포스를 포위했으나 차지하지 못한 그는, 다음으로 펠라와 키로스 왼쪽으로 마케도니아의 나머지로 나아갔으나 이보다 더 들어가 보티아이아와 피에리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미그도니아와 크레스토니아와 안테무스를 짓밟았다.

마케도니아인들은 보병으로 그를 맞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트라키아 군은 기회가 나는 대로 그들의 기병 한 줌씩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 기병은 내륙의 동맹들에게서 증원을 받은 것이었다. 흉갑을 갖추고 뛰어난 말꾼이었던 이들은 달려드는 곳마다 앞에 있는 것을 모두 엎어 놓았으나, 적의 큰 무리에 스스로 얽혀 드는 적지 않은 위험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런 시도를 그만두었으니, 그토록 앞선 수를 상대로 감행할 만큼 자기들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시탈케스는 자기 원정의 목적을 두고 페르디카스와 교섭을 열었다. 그리고 아테네인이 그가 오리라고 믿지 않아 선물과

사절은 보냈으나 함대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자기 군대의 일부를 칼키디케인과 보티아이아인을 향해 내보내 그들을 성벽 안에 몰아넣고 그 땅을 짓밟았다. 그가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더 남쪽에 있는 사람들, 곧 테살리아인과 마그네시아인과 테살리아인에게 예속된 다른 종족들, 그리고 테르모필레까지의 그리스인은 모두 그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 나아올까 두려워하며 그에 맞추어 준비했다. 이 두려움은 북쪽으로 스트리몬 너머 평야에 사는 트라키아인들도 함께 품었으니, 파나이아인과 오도만티인과 드로이인과 데르사이인이 그러했고 이들은 모두 독립되어 있었다. 아테네의 적인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그가 자기 동맹의 청을 받아 자기들을 향해서도 나아오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말까지 돌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칼키디케와 보티케와 마케도니아를 손에 쥐고 그 모두를 짓밟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침공의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또 자기 군대에 식량이 없고 계절의 혹독함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스파라도코스의 아들이자 자기 조카이며 자기 다음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세우테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지체 없이 물러나기로 정했다. 이 세우테스는 페르디카스가 제 누이를 지참금과 함께 주겠다는 약속으로 몰래 끌어들여 놓은 사람이었다. 이 조언에 따라 그는 모두 30일을 머물고 그 가운데 여드레를 칼키디케에서 보낸 뒤 되도록 빨리 본국으로 물러났다. 페르디카스는 그 뒤 약속한 대로 제 누이 스트라토니케를 세우테스에게 주었다. 시탈케스의 원정에 관한 일은 이러했다.

이 겨울이 지나는 동안,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흩어진 뒤에 나우팍토스에 있던 아테네인들은 포르미온의 지휘 아래 해안을 따라 아스타코스로 가서 배에서 내려, 아테네 중장보병 400명과 메세니아인 400명을 거느리고 아카르나니아 내륙으로 진군했다. 스트라토스와 코론타와 다른 곳들에서 의심스러운 사람 몇을 몰아내고 테올리토스의

아들 키네스를 코론타에 되세운 뒤, 그들은 배로 돌아왔다. 겨울철에는 오이니아다이를 향해 진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아카르나니아의 나머지와 달리 언제나 그들에게 적대적이었다. 핀도스 산에서 흘러 돌로피아와 아그라이아인과 암필로키아인의 땅과 아카르나니아의 평야를 지나고 그 상류에서는 스트라토스 도시를 지나는 아켈로오스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오이니아다이 주변에 호수를 이루어 물 때문에 겨울에는 군대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오이니아다이 건너편에는 에키나데스라 불리는 섬들이 대부분 놓여 있는데, 아켈로오스의 하구에 너무 가까워서 그 힘센 물줄기가 끊임없이 그 섬들에 흙을 쌓아 이미 몇 섬을 대륙에 붙였고 머지않아 나머지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물살이 세고 깊고 흐리며, 섬들이 서로 빽빽하게 놓여 있어 쌓이는 흙을 붙잡아 두고 흩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섬들이 한 줄로 놓이지 않고 어긋나 있어 물이 열린 바다로 곧장 빠져나갈 길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섬들은 사람이 살지 않고 크지도 않다.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암피아라오스의 아들 알크마이온이 제 어머니를 죽인 뒤 떠돌던 동안 아폴론에게서 이곳에 살라는 명을 받았는데, 그가 어머니를 죽일 때 해가 보지 못한 땅, 또는 땅으로 있지 않았던 땅을 찾아 거기 살기까지는 그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신탁이었다는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곳은 그에게 더럽혀진 땅이었다. 이야기는 이어지기를, 이 말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가 마침내 아켈로오스가 쌓아 놓은 이 흙을 보고, 제 어머니의 죽음과 제 떠돌이 생활의 시작 이후로 흘러간 긴 세월 동안 목숨을 부지할 만한 땅이 쌓여 올랐을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오이니아다이 주변 지구에 자리 잡고 하나의 지배를 세웠으며, 그 땅에 제 아들 아카르난의 이름을 남겼다. 알크마이온에 관해 우리가 전해 받은 이야기는 이러하다.

아테네인들과 포르미온은 아카르나니아에서 돌아 나와 나우팍토스에 이른 뒤, 봄에 아테네로 배를 몰아 돌아갔다. 잡은 배들과, 지난 싸움들에서 사로잡은 사람들 가운데 자유인인 이들을 함께 데려갔는데, 이들은 한 사람에 한 사람씩 맞바꾸어 풀려났다. 그리고 이렇게 이 겨울이 끝났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쓴 이 전쟁의 제3년이 끝났다.

---

1. 아르크투루스 — 목동자리의 으뜸별. 그리스인은 이 별이 해 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때를 여름이 끝나고 거친 날씨가 시작되는 표지로 삼아 계절을 가늠했다.

2. 경방패병 — 작은 방패와 투창으로 무장한 경보병. 중장보병처럼 밀집 대형으로 싸우지 않고, 흩어져 던지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싸웠다.

3.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뒤에 나오는 바다의 너비도 같다.

4. 프록세노스 —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두었던 명예 대표. 제 나라에 살면서 상대 나라 사람들의 편의를 돌보고 그 이익을 대변했다.

5. 파이안 — 신에게 바치는 노래. 그리스인은 싸움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승리를 기릴 때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6.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및 화폐 단위. 은의 무게로 셈했고 큰 액수를 헤아릴 때 썼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9장 (제III권 제IX장) — 전쟁 제4년과 제5년 — 미틸레네의 반란

이듬해 여름, 곡식이 막 익어 갈 무렵 펠로폰네소스인과 그 동맹들은 스파르타 왕 제욱시다모스의 아들 아르키다모스의 지휘 아래 아티카를 침입해 진을 치고 땅을 유린했다. 아테네 기병대는 여느 때처럼 할 수 있는 곳마다 그들을 공격해, 경보병의 주력이 진영에서 나와 도시 가까운 곳을 짓밟지 못하게 막았다. 침입군은 가져온 식량이 버티는 동안 머물다가 물러갔고 저마다 제 도시로 흩어졌다.

펠로폰네소스인의 침입이 끝난 직후 메팀나를 뺀 레스보스 전역이 아테네에 반란을 일으켰다. 레스보스인은 전쟁 전에도 반란을 원했으나 스파르타인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막상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뜻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떠밀려 나서야 했다. 그들은 항구의 방파제와 짓고 있던 함선과 성벽이 완성되기를, 또 폰토스에서 들여오던 궁수와 곡식과 그 밖의 물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그들과 사이가 나빴던 테네도스인과 메팀나인, 그리고 미틸레네 자체의 파당 사람 몇, 곧 아테네의 프록세노스[1]였던 자들이 아테네인에게 알렸다. 미틸레네인이 섬을 힘으로 눌러 제 주권 아래 하나로 묶는 중이며, 그토록 부지런히 벌이고 있는 준비는 모두 반란을 노려 같은 혈족인 보이오티아인과 스파르타인과 짜고 하는 일이니, 당장 막지 않으면 아테네가 레스보스를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테네인은 역병에 시달리고 얼마 전 터져 지금 한창인 전쟁에 지쳐 있었으므로, 함대를 갖추고 재원이 아직 온전한 레스보스를 적의 명단에 더하는 일을 중대한 문제로 여겼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발을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나친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사절이 문제가 된 통합과 준비를 그만두도록 미틸레네인을 설득하지 못하자, 아테네인은 불안해져 먼저 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하여 펠로폰네소스를 돌 준비가 되어 있던 함선 40척을 데이니아스의 아들 클레이피데스와 다른 두 사람의 지휘 아래 갑작스레 보냈다. 도시 밖에서 말레아의 아폴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고 미틸레네 사람 전체가 그것을 지킨다는 말이 들어왔으므로, 서둘러 가면 그들을 불시에 덮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이 계획이 들어맞으면 그것으로 좋고, 그러지 않으면 미틸레네인에게 함선을 내놓고 성벽을 허물라고 명하며 따르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이 지시였다. 함선들은 그렇게 떠났고, 동맹 조항에 따라 아테네 함대에 와 있던 미틸레네 몫의 함선 10척은 아테네인이 억류하고 그 승무원들을 가두었다. 그러나 미틸레네인은 그 원정을 미리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아테네에서 에우보이아로 건너가 육로로 게라이스토스까지 간 뒤, 마침 바다로 나서려던 상선을 붙잡아 거기서 배를 타고 아테네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미틸레네에 닿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틸레네인은 말레아의 신전으로 나가는 일을 그만두었고, 그뿐 아니라 아직 절반밖에 짓지 못한 성벽과 항구의 자리에 방벽을 두르고 둘레에 파수를 세웠다.

오래지 않아 아테네인이 배를 몰고 들어와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 장군들은 지시받은 명령을 전했고 미틸레네인이 따르기를 거부하자 싸움을 시작했다. 미틸레네인은 예고도 없이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전쟁에 떠밀린 처지였으나, 처음에는 함대를 끌고 나와

항구에서 조금 앞쪽에서 싸울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아테네 함선들에 밀려 물러나자 곧바로 지휘관들에게 교섭을 청했는데, 견딜 만한 조건이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여 당장은 그 함선들을 물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테네 지휘관들은 그 청을 받아들였다. 레스보스 전체를 상대하기에는 힘이 모자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휴전이 맺어지자 미틸레네인은 이미 제 행실을 후회하고 있던 밀고자 한 사람과 그와 함께 갈 다른 이들을 아테네로 보내, 자기들의 의도에 잘못이 없음을 아테네인에게 설득하고 함대를 되돌리게 하려 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에서 좋은 답이 오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사절을 태운 함선 한 척을 스파르타로도 보냈는데, 도시 북쪽 말레아에 정박해 있던 아테네 함대의 눈에 띄지 않게 한 일이었다.

이 사절들이 큰 바다를 건너는 어려운 길을 지나 스파르타에 닿아 구원을 보내 달라고 교섭하는 사이, 아테네로 갔던 사절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자 미틸레네인과 레스보스의 나머지가 곧바로 싸움을 시작했다. 다만 메팀나인은 임브로스인과 렘노스인, 그리고 다른 동맹 몇과 함께 아테네인을 도우러 왔다. 미틸레네인은 전군을 끌고 아테네 진영으로 출격했다. 싸움이 벌어져 그들이 밀리지 않았으나 그래도 물러났는데, 싸움터에서 밤을 지낼 만큼의 자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그들은 조용히 있었다. 두 번째로 나서기 전에 펠로폰네소스에서 지원군이 올 기회를 기다리고 싶었던 것인데, 라코니아인 멜레아스와 테베인 헤르마이온다스가 온 것이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봉기 전에 파견되었으나 아테네 원정대보다 먼저 레스보스에 닿지 못했다가 이 싸움 뒤에 함선 한 척으로 몰래 들어온 것이었고, 또 한 척의 함선과 사절을 자기들과 함께 보내라고 권했으며 미틸레네인은 그대로 했다.

그동안 아테네인은 미틸레네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크게 힘을 얻어 동맹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고, 레스보스인이 이렇다 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동맹들은 그만큼 더 빨리 왔다. 아테네인은 함선들을 도시 남쪽의 새 정박지로 돌려 세우고 도시 양쪽에 각각 하나씩 진영 둘을 쌓아 요새로 만든 뒤 두 항구를 모두 봉쇄했다. 이로써 바다는 미틸레네인에게 닫혔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합류한 나머지 레스보스인과 함께 시골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아테네인이 쥔 것은 제 진영 둘레의 한정된 구역뿐이어서 말레아는 주로 함선을 세우는 자리와 장터로 쓰고 있었다.

미틸레네에서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아테네인은 이해 여름 거의 같은 무렵에 함선 30척을 포르미온의 아들 아소피오스의 지휘로 펠로폰네소스에 보내기도 했다. 아카르나니아인이 보내는 지휘관은 포르미온의 아들이거나 친족이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함선들은 해안을 따라가며 라코니아의 연안을 유린했다. 그 뒤 아소피오스는 함대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12척을 이끌고 나우팍토스로 갔다가, 아카르나니아의 전 주민을 일으켜 오이니아다이를 치는 원정에 나섰으니 함대는 아켈로오스강을 따라 올라가고 육군은 땅을 짓밟았다. 그러나 주민들이 굴복할 낌새를 보이지 않자 그는 육군을 해산하고 자신은 레우카스로 배를 몰아 네리코스에 상륙했는데, 물러나는 길에 그 지역에서 함께 달려 나온 사람들과 몇 안 되는 수비병에게 당해 자신과 병력 일부가 죽었다. 그 뒤 아테네인은 휴전을 맺고 레우카스인에게서 전사자들을 거두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동안 첫 배로 보내진 미틸레네 사절들은 나머지 동맹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올림피아로 오라는 말을 스파르타인에게서 들었고, 그래서 그곳으로 떠났다. 로도스의

도리에우스가 두 번째 우승을 거둔 올림피아 제전의 해였다. 사절들은 축제가 끝난 뒤 연설하도록 안내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파르타인과 동맹 여러분, 그리스인 사이에 세워진 통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 반란을 일으켜 전에 속했던 연합을 버린 자들은, 받아들이는 쪽에 쓸모가 있는 한 호의로 대접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의 벗들을 배신한 자로 여겨져 낮게 평가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쪽과 그들이 떨어져 나온 세력이 정책과 마음에서 하나이고 재원과 힘에서 서로 맞먹으며 반란에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판단이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테네인 사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때에 그들에게서 예우를 받다가 위험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를 낮추어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와 정직을 우리 연설의 첫 주제로 삼겠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청하는 것이 동맹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대의 정직함을 믿고 대체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든든한 우정이란 결코 있을 수 없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이름값을 하는 결합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서 행동의 다름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테네인 사이의 동맹은 여러분이 페르시아 전쟁[2]에서 물러나고 그들이 남아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아테네인의 동맹이 된 것이 아니라, 메디아인에게서 그리스인을 해방하기 위해 그리스인의 동맹이 된 것입니다. 아테네인이 우리를 공정하게 이끄는 동안 우리는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디아인에 대한 적의를 늦추고 동맹들을 예속시키는 일을 꾀하려 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표를 가진 연합 성원의 수가 많아 하나로 뭉쳐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으므로,

우리와 키오스인을 뺀 동맹 전부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만은 독립된 처지로, 이름으로는 자유로운 자로서 계속 우리 몫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앞에 나온 선례들로 판단할 때 우리는 더는 아테네를 지도자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연합에 있던 자들을 굴복시킨 아테네가 힘이 생기기만 하면 남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여전히 독립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들이 어떤 변화도 꾀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더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들의 예속민이 된 반면에 우리는 대등한 자로 대접받고 있었으니, 다수의 복종과 견주어 홀로 남은 이 독립의 사례를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그들은 날마다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고립되어 갔으므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동맹의 유일하게 확실한 토대는 양쪽이 서로를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침범하고 싶어 하는 쪽은 형세가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억제됩니다. 또한 우리가 독립한 채 남겨진 것은, 그들이 힘의 길보다 겉만 번듯한 말과 정략의 길로 가는 것이 제국에 이르는 길을 더 뚜렷하게 보여 준다고 여겼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 자신처럼 표를 가진 세력이라면 공격받는 쪽에 잘못이 없는데도 제 뜻을 어겨 가며 그들의 원정에 따라나설 리 없다는 증거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방식은 그들이 더 강한 나라들을 앞세워 더 약한 나라들을 먼저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강한 쪽은 마지막까지 남겨 두어 제 자연스러운 동맹들을 빼앗기고 저항할 힘이 줄어든 상태가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아직 제 재원을 제 손안에 두고 있고 모여 결집할 중심이 있던 때에 그들이 우리부터 시작했다면, 굴복시키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해군이 그들에게 얼마간 근심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세력과 합쳐 아테네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민중과 그때그때의 지도자들에게 바친 비위 맞추기도 우리가 독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나머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보아 온 선례들로 보건대 그것을 그리 오래 지켜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 같은 우정이나 자유에 어떻게 믿음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마음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이 전쟁 때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비위를 맞추게 하고 평화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비위를 맞추게 했습니다. 신뢰의 통상적 토대인 서로에 대한 마음은 그 자리를 공포에 내주었고, 우리를 그 동맹에 붙들어 둔 것은 우정보다 두려움의 몫이 컸습니다. 그리하여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먼저 마음이 동한 쪽이 상대에게 신의를 깨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격을 그들이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내려질지 아닐지를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우리 쪽에서 미루지 않고 먼저 떨어져 나왔다고 우리를 나무라는 것은 이 일을 그릇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음모에 맞서고 그들처럼 미룰 수 있는 힘을 그들과 대등하게 갖추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등한 자일 것이고 그들의 예속민이 될 까닭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의 자유가 늘 그들의 것이라면 먼저 막아설 자유는 분명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스파르타인과 동맹 여러분, 우리 반란의 근거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온당하다는 것을 듣는 이들에게 납득시키기에 충분히 분명하고, 우리 자신을 불안하게 해 어떤 안전의 방도로 돌아서게 하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기를 바랐고 아직 평화가 이어지던 때에 그 일로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여러분이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뜻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오티아인이 우리를 부르자 우리는 곧 그 부름에 응해 두 겹의 이반을 결정했습니다. 그리스인에게서 떨어지고 아테네인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인데, 아테네인을 도와 그리스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의 해방에 함께하려는 것이며, 아테네인이 끝에 가서 우리를 없애 버리게 두지 않고 때를 놓치기 전에 그들에게 맞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란은 때 이르게,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우리를 동맹으로 받아들여 신속한 구원을 보내는 일이 더욱 마땅하며, 그리하여 여러분이 벗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동시에 적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더욱 마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전에 가져 본 적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병과 지출이 아테네인을 소진시켰습니다. 그들의 함선은 여러분의 해안을 돌고 있거나 우리를 봉쇄하는 데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바다와 육지로 두 번째 침입을 한다면 그들에게 여유로 남을 함선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배들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해안과 우리 쪽 바다 양쪽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레스보스가 멀리 있어 보일지 모르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충분히 가까이 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전쟁이 결판나는 곳은 아티카가 아니라 아티카를 떠받치는 나라들입니다. 아테네의 수입은 동맹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면 그 수입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재원이 그들의 것에 더해질 것이고, 우리는 앞서 노예가 된 자들보다 더 나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를 선선히 지지한다면 여러분 편에 큰 해군을 가진 나라를 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크게 모자란 것입니다. 또 아테네인에게서 그 동맹들을 떼어 내어

그들을 무너뜨리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그 동맹들은 넘어올 마음을 크게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던져진 비난에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를 해방자로 드러내 보이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우세를 잡으리라고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이 여러분에게 걸어 둔 희망을 존중하고, 우리가 탄원자나 다름없이 그 신전 안에 서 있는 올림피아의 제우스를 존중하십시오. 미틸레네인의 동맹이자 수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몸의 위험은 우리 홀로 무릅쓰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그 일에서 모두에게 두루 좋은 것이 돌아오고, 여러분이 도움을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가 무너지면 그만큼 더 두루 해가 미치는 일입니다. 그리스인이 여러분을 그렇다고 여기고 우리의 두려움이 그렇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미틸레네인의 말은 이러했다. 스파르타인과 연합 성원들은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청한 것을 받아들여 레스보스인을 동맹으로 삼았고, 아티카 침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한 뒤 그 자리에 있던 동맹들에게 병력의 3분의 2를 이끌고 되도록 빨리 이스트모스로 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그곳에 이르러, 바다와 육지에서 한꺼번에 공격하고자 함선을 코린트에서 아테네 쪽 바다로 옮겨 넘길 끄는 기계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열의를 나머지 연합 성원들은 따라 하지 않았고, 곡식을 거두는 일에 매여 있었고 원정에 나서는 일에도 넌더리가 나 있었으므로 더디게 모여들었다.

그동안 아테네인은 적이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자기들이 약하다고 확신한 데서 나온 일임을 알고 있었고, 그 생각이 틀렸음을, 또 레스보스에 있는 함대를 움직이지 않고도 펠로폰네소스에서 오는 위협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음을 적에게 보이고자 했다. 그래서 기사

계층과 펜타코시오메딤노이[3]를 뺀 아테네 시민과 거류 외국인을 태워 함선 100척에 승무원을 채웠고, 이스트모스로 나아가 힘을 과시하며 마음에 드는 곳마다 펠로폰네소스에 상륙했다. 이토록 두드러진 실망을 맛본 스파르타인은 레스보스인이 참말을 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연합 성원들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펠로폰네소스를 돌던 함선 30척이 그들의 주변민 땅을 유린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겹쳐 곤란해져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뒤에 그들은 레스보스로 보낼 함대를 마련해, 동맹의 여러 도시에서 모두 40척을 내라고 명하고 해군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알키다스를 그 원정의 지휘자로 세웠다. 그동안 함선 100척에 타고 있던 아테네인은 스파르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들도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함대가 바다에 나가 있던 때에 아테네가 한 시점에 보유한 것으로는 거의 가장 많은 수의 일급 함선을 현역에 두고 있었다. 다만 전쟁이 시작되던 때에도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두고 있었다. 그때에는 100척이 아티카와 에우보이아와 살라미스를 지켰고 또 100척이 펠로폰네소스를 돌고 있었으며, 그 밖에 포티다이아와 다른 곳들에 쓰인 함선이 있었으니, 한 해 여름에 실전에 투입된 함선이 모두 합쳐 250척이었다. 아테네의 수입을 가장 크게 바닥낸 것이 포티다이아와 더불어 바로 이것이었다. 포티다이아는 중장보병 부대가 봉쇄하고 있었는데(한 사람이 하루에 2드라크메[4]를 받았으니 자기 몫으로 1드라크메, 종의 몫으로 1드라크메였다) 처음에 3,000명이었고 포위가 끝날 때까지 이 수가 유지되었으며, 그 밖에 포르미온과 함께 있던 1,600명이 포위가 끝나기 전에 떠났고, 함선들에도 모두 같은 비율로 값을 치렀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의 돈은 처음부터 소진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아테네가 여태 승무원을 채운 함선 가운데 가장 많은 수였다.

스파르타인이 이스트모스에 있던 것과 거의 같은 무렵, 미틸레네인은 용병을 데리고 육로로 메팀나를 치러 나아갔는데, 내응으로 그 도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도시를 공격했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그들은 안티사와 피라와 에레소스로 물러났고, 이 도시들의 방비를 더 낫게 할 조치를 취하고 성벽을 튼튼히 한 뒤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뒤 메팀나인이 안티사로 나아갔으나 안티사인과 그들의 용병이 출격해 와 패했고, 많은 수를 잃은 뒤 급히 물러났다. 이 소식이 아테네에 이르고 미틸레네인이 시골을 장악했으며 자기들의 병사들이 그들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테네인이 알게 되자, 그들은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에피쿠로스의 아들 파케스를 지휘를 맡도록 보내고 아테네 중장보병 1,000명을 함께 보냈다. 이들은 스스로 노를 저어 건너갔고, 미틸레네에 이르러 도시를 한 바퀴 둘러싸는 성벽 하나를 쌓고 가장 견고한 몇 곳에는 요새를 세웠다. 이로써 미틸레네는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빈틈없이 봉쇄되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가까워졌다.

아테네인은 포위에 쓸 돈이 필요했으므로, 처음으로 자기 시민들에게서 200탈란톤[5]의 분담금을 거두었으면서도 이제 동맹들에게서 돈을 걷으려고 리시클레스와 다른 네 사람을 지휘로 하여 함선 12척을 내보냈다. 여러 곳을 돌며 돈을 물린 뒤, 리시클레스는 카리아의 미우스에서 내륙으로 올라가 마이안드로스 평야를 지나 산디오스 언덕까지 갔다가, 카리아인과 아나이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자기 병사 다수와 함께 죽었다.

같은 겨울, 여전히 펠로폰네소스인과 보이오티아인에게 포위되어 있던 플라타이아인은 식량이 다하여 시달리고 아테네에서 오는 구원의 희망도 다른 어떤 안전의 방도도 보이지 않자, 함께 포위되어 있던 아테네인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적의 성벽을 힘으로 넘어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 이 시도를 내놓은 이는 예언자인 톨미데스의 아들 타이아이네토스와 그들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다이마코스의 아들 에우폼피데스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함께하기로 했으나 뒤에 절반이 위험이 크다고 여겨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220명쯤이 제 뜻으로 그 시도를 밀고 나갔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적의 성벽 높이에 맞추어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높이는 벽돌의 층으로 재었으니 그들 쪽으로 향한 면이 회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벽돌층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세었다. 몇몇은 셈을 놓칠 수 있었으나 대다수는 맞게 세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이 거듭거듭 세었고 성벽에서 그리 멀지 않아 그 목적에 맞게 볼 만큼은 충분히 보였기 때문이다. 사다리에 필요한 길이는 이렇게 벽돌의 두께에서 셈해 얻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의 성벽은 다음과 같이 지어져 있었다. 그것은 도시 둘레로 두 겹으로 둘러 세워졌는데, 하나는 플라타이아인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에서 아테네가 올 공격을 막는 것으로, 두 겹 사이는 16푸스[6]쯤 떨어져 있었다. 그 16푸스의 사이 공간은 파수 보는 병사들에게 나누어 준 막사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한 덩어리로 지어져 양쪽에 흉벽이 달린 두꺼운 성벽 하나처럼 보였다. 흉벽 열 개마다 한 번씩 상당한 크기의 탑이 있었는데, 성벽과 같은 너비로 안쪽 면에서 바깥쪽 면까지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그 가운데를 통하는 길 말고는 지나갈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폭풍이 불고 비가 오는 밤에는 흉벽을 비워 두고 탑에서 파수를 보았는데, 탑들은 서로 멀지 않았고 위에 지붕이 덮여 있었다.

플라타이아인을 봉쇄한 성벽의 구조가 이러했다.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바람과 비가 몰아치고 달이 없는 밤을 기다렸다가 이 일을 꾸민 자들의 인도를 받아 나섰다. 먼저 도시를 둘러 난 호를 건넌 뒤 파수병들에게 들키지 않고 적의 성벽에 이르렀는데, 파수병들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보지 못했고 바람이 그 울부짖음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지워 버렸으므로 듣지도 못했으며, 그 밖에도 그들은 무기가 부딪는 소리에 들키지 않으려고 서로 꽤 멀찍이 떨어져 걸었다. 또 그들은 가볍게 차렸고 진창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왼발에만 신을 신었다. 그들은 흉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던 사이 공간 가운데 한 곳에서 흉벽에 다가갔다. 사다리를 든 자들이 먼저 가서 그것을 세웠고, 다음으로 단검과 흉갑만 갖춘 경무장 병사 열둘이 올랐는데 그들을 이끈 것은 코로이보스의 아들 암미아스였고 성벽에 가장 먼저 오른 것도 그였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그를 따라 올라가 탑마다 여섯씩 갔다. 이들 뒤로 창을 든 또 한 무리의 경보병이 왔는데, 더 쉽게 나아가도록 그들의 방패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왔고 적과 마주치게 되면 건네주기로 되어 있었다. 꽤 많은 수가 올랐을 때 탑에 있던 파수병들에게 들켰는데, 플라타이아인 한 사람이 흉벽을 붙잡다가 기와 한 장을 떨어뜨려 낸 소리 때문이었다. 곧 경보가 울리고 병사들이 성벽으로 달려왔으나, 어두운 밤과 몰아치는 날씨 때문에 위험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게다가 도시 안의 플라타이아인도 포위하는 자들의 주의를 돌리려고, 자기들 쪽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곳의 반대편에서 펠로폰네소스인의 성벽을 향해 출격하려고 바로 그때를 골라 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제 초소에서 갈팡질팡했고, 아무도 자기 자리를 떠나 도우러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동안 비상시에 쓰도록 따로 떼어 둔 300명이 경보가 난 쪽으로 성벽 밖으로 나갔다. 공격을 알리는 봉화도 테베 쪽으로 올렸다. 그러나 도시 안의 플라타이아인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여러 개의 다른 봉화를 곧 올렸는데, 적의 신호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나간 동료들이 탈출을 마치고 안전해지기 전에 적의 벗들이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알고 도우러 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올라간 등반대의 선두는 탑 두 개를 모두 빼앗고 파수병들을 칼로 베어 넘긴 뒤, 자기들에게 맞서 지나오는 자가 없도록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성벽에서 사다리를 세워 여러 사람을 탑 위로 올려 보내, 그 정상과 밑에서 올라오는 적 모두를 던지는 무기로 막아 세웠다. 그러는 사이 본대는 성벽에 사다리 여러 개를 걸치고 흉벽을 무너뜨려 탑들 사이로 넘어갔고, 넘어간 사람은 저마다 곧 호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동료들의 통행을 막으려고 성벽을 따라 오는 자들에게 화살과 창을 퍼부었다. 모두가 넘어가자 탑에 있던 무리가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사람들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이 호로 나아갈 때 마침 300명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호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플라타이아인은 상대를 잘 볼 수 있었으므로 그들 몸의 무장하지 않은 부분에 화살과 창을 날렸고, 반면 자기들은 횃불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만큼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까지 호를 건넜으나 힘과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호에 얼음이 얼어 있었는데 걸어 다닐 만큼 단단하지 않고 북쪽보다 동쪽에 가까운 바람이 불 때 흔히 생기는 물기 많은 얼음이었으며, 그 바람이 밤새 내리게 한 눈으로 호의 물이 불어 있어 건널 때 가슴으로 물을 가르기가 힘겨웠다. 그러나 그들이 탈출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로 폭풍이 거셌던 덕분이었다.

호에서 출발한 플라타이아인은 영웅 안드로크라테스의 사당을 오른쪽에 두고 테베로 가는 길을 따라 모두 함께 나아갔다. 펠로폰네소스인이 그들이 갔으리라고 가장 마지막에나 의심할 길이 적들의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적이 횃불을 들고 키타이론과 드루오스케팔라이, 곧 '참나무 머리'로 향하는 아테네 길에서 추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테베로 가는 길을 6, 7스타디온을 간 뒤 플라타이아인은 길을 벗어나 산으로, 에리트라이와

히시아이로 가는 길을 잡았고, 산에 이르러 아테네로 무사히 달아났으니 처음 나선 더 많은 수 가운데 212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몇은 성벽을 넘기 전에 도시 안으로 되돌아갔고 궁수 한 사람은 바깥 호에서 포로가 되었다. 그동안 펠로폰네소스인은 추격을 그만두고 제 초소로 돌아갔다. 도시 안의 플라타이아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되돌아온 자들에게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날이 밝자 곧 전령을 보내 주검을 거두기 위한 휴전을 맺으려 했으나 사실을 알고 나서 그만두었다. 이렇게 해서 플라타이아 사람들의 무리는 성벽을 넘어 목숨을 건졌다.

같은 겨울이 끝나 갈 무렵 스파르타인 살라이토스가 함선 한 척에 실려 스파르타에서 미틸레네로 보내졌다. 그는 바다로 피라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가서 포위 성벽의 선을 지날 수 있는 급류의 바닥을 따라 들어갔고, 그렇게 들키지 않고 미틸레네에 들어가 정무관들에게 말했다. 아티카는 반드시 침입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정해진 함선 40척도 올 것이며, 자기는 이를 알리고 일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도록 먼저 보내졌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미틸레네인은 용기를 얻어 아테네인과 교섭하려던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이 끝났고, 그와 함께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전쟁의 제4년이 끝났다.

이듬해 여름 펠로폰네소스인은 함선 42척을 해군 총사령관 알키다스의 지휘로 미틸레네에 보내고, 자기들과 동맹들은 아티카를 침입했다. 두 방향의 움직임으로 아테네인의 주의를 갈라, 미틸레네로 가는 함대에 맞서 움직이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침입의 지휘자는 클레오메네스였는데, 그의 조카로 아직 어린 나이였던 플레이스토아낙스의 아들 파우사니아스 왕을 대신한 것이었다. 침입군은 전에 짓밟았던 곳에서 다시 돋아난 것을 못 쓰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앞선 침입에서 지나쳤던 땅까지 유린을 넓혔으므로, 이 침입은 두 번째 것을 빼면 어느 침입보다도 아테네인에게 혹독하게 느껴졌다. 적은 레스보스에서 자기들의 함대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며 나라의 대부분을 휩쓸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함대가 이제는 건너갔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한 결과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식량도 떨어져 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물러나 저마다 제 도시로 흩어졌다.

그동안 미틸레네인은 식량이 다해 가는데 펠로폰네소스에서 오는 함대는 미틸레네에 나타나지 않고 길에서 어물거리고 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은 경로로 아테네인과 화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살라이토스 자신도 함대가 오리라는 기대를 버렸으므로, 이제 민중에게 전에는 갖지 못했던 중장 무구를 주어 아테네인을 향해 출격할 생각을 품었다. 그러나 민중은 무기를 손에 쥐게 되자마자 더는 상관들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고, 무리를 지어 모여서는 유력자들에게 식량을 공개된 자리로 내와 모두에게 나누라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아테네인과 화약을 맺고 도시를 내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막을 힘이 자기들에게 없음을, 또 항복 조건에서 제외되면 스스로 위험에 놓일 것임을 알았으므로, 파케스와 그 군대와 모두 함께 합의해 미틸레네를 상대의 처분에 맡겨 항복하고 군대를 도시에 들이기로 했다. 다만 미틸레네인이 아테네에 사절을 보내 제 처지를 변호하게 하고, 그 사절이 돌아오기까지 파케스가 시민 누구도 가두거나 노예로 삼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항복의 조건은 이러했다. 그럼에도 스파르타와의 교섭을 주도한 자들은 군대가 들어오자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제단 옆으로 가서 앉았고, 파케스는 그들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일으켜 세운 뒤 아테네인이 그들에 대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그들을 테네도스에

두었다. 파케스는 함선 몇 척을 보내 안티사도 차지했고, 그 밖에 자기가 적절하다고 여긴 군사 조치들을 취했다.

그동안 함선 40척에 타고 있던 펠로폰네소스인은 미틸레네를 구원하려고 온 힘을 다해 서둘러야 했으나, 펠로폰네소스 자체를 돌아오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남은 항해도 느긋하게 이어 가, 아테네에 있던 아테네인의 눈에 띄지 않고 델로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이카로스와 미코노스에 닿았을 때 미틸레네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다. 사실을 알고자 그들은 도시가 함락된 지 이레쯤 뒤에 에리트라이 땅의 엠바톤에 들어갔다. 여기서 그들은 사실을 알게 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고, 엘리스인 테우티아플로스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했다.

알키다스, 그리고 이 군세의 지휘를 나와 함께 맡고 있는 펠로폰네소스 여러분, 내 조언은 우리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지금 이대로 미틸레네로 배를 몰자는 것입니다. 도시를 막 함락시킨 자들이 흔히 그렇듯 아테네인도 그만큼 경계를 풀고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반드시 그럴 것인데, 거기서는 적이 자기들을 공격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고 마침 우리 힘이 주로 놓여 있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육군까지도 승리에 마음을 놓아 집집에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에 불시로 그들을 덮친다면, 도시 안에 아직 남아 있을 우리 편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아 그곳의 주인이 되리라는 희망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위험을 꺼려 물러서지 말고, 이야말로 전쟁에 흔한 근거 없는 공황이 일어날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제 쪽에서는 그런 공황을 막아 내고 공격이 적을 그런 불리한 처지에서 맞닥뜨리게 될 순간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장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테우티아플로스의 이 말이 알키다스를 움직이지 못하자, 원정에 함께한 이오니아 망명자 몇과 레스보스인들이 그에게 권하기 시작했다. 그 일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면 이오니아의 도시 하나나 아이올리스의 도시 키메를 차지해 이오니아의 반란을 일으키는 근거지로 쓰자는 것이었다. 그들이 오는 것을 어디서나 반겼으므로 이는 결코 희망 없는 일이 아니었다. 이 움직임으로 노리는 것은 아테네에게서 수입의 주된 원천을 빼앗는 것이자, 아테네가 그들을 봉쇄하기로 한다면 그 지출까지 떠안기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아마 피수트네스를 끌어들여 전쟁에 함께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알키다스는 이 제안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나쁘게 받아들였다. 미틸레네에는 너무 늦게 왔으니 되도록 빨리 펠로폰네소스로 돌아가 있고 싶은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엠바톤에서 나와 해안을 따라 나아갔고, 테오스령 도시 미온네소스에 들러 오는 길에 잡은 포로 대부분을 그곳에서 죽였다. 그가 에페소스에 닻을 내렸을 때 아나이아에 있던 사모스인들이 사절을 보내와, 자기에게 손 한 번 든 적 없는 사람들, 그의 적이 아니고 제 뜻을 어겨 가며 아테네의 동맹이 된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그리스를 해방하려 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또 그만두지 않으면 적을 벗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벗을 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키다스는 이 말에 수긍해 아직 자기 손에 있던 키오스인 전부와 잡아 둔 다른 이들 일부를 놓아주었다. 주민들은 그의 배를 보고 달아나기는커녕 오히려 다가왔는데, 그것을 아테네 배로 여겼기 때문이고, 아테네인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펠로폰네소스 함선이 감히 이오니아까지 건너오리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키다스는 에페소스에서 서둘러 배를 띄워 달아났다. 그는 클라로스 앞바다에 아직 닻을 내리고 있을 때 마침 아테네에서 항해해 오던 살라미니아호와 파랄로스호[7]에 목격되었다. 추격을 두려워한 그는 이제

큰 바다를 가로질러, 되도록 펠로폰네소스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들르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동안 그에 관한 소식이 에리트라이 땅에서, 실로 사방에서 파케스에게 들어왔다. 이오니아에는 성벽이 없었으므로, 해안을 따라 지나가는 펠로폰네소스인이 머물 뜻이 없다 해도 지나는 길에 상륙해 도시들을 약탈할지 모른다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파랄로스호와 살라미니아호가 클라로스에서 그를 본 일을 스스로 알려 왔다. 그래서 파케스는 맹렬히 뒤를 쫓아 파트모스섬까지 추격을 이어 갔으나, 알키다스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나갔음을 알고 되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는 큰 바다에서 그들과 마주치지 못한 터에 그들이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어느 곳에서 그들을 따라잡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그랬다면 그들을 봉쇄하는 수고를 그가 지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안을 따라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여러 곳에 들렀고 그중에 콜로폰의 항구 노티온도 있었다. 파당 싸움에서 어떤 개인들이 불러들인 이타메네스와 이방인들에게 위쪽 도시가 함락된 뒤 콜로폰인이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그 도시의 함락은 펠로폰네소스인의 두 번째 아티카 침입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노티온에 자리를 잡은 뒤 다시 파당으로 갈렸고, 그 가운데 한쪽이 피수트네스에게서 아르카디아인과 이방인 용병을 불러들여 따로 떨어진 한 구역에 그들을 참호로 둘러 세우고, 위쪽 도시에서 그들에게 합류한 콜로폰인 가운데 메디아 편에 선 자들과 함께 새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들의 반대편은 망명해 물러나 있다가 이제 파케스를 불러들였고, 파케스는 요새화된 구역에 있던 아르카디아인의 지휘자 히피아스를 회담에 불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를 탈 없이 온전하게 그 요새로 돌려보낸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히피아스가 그에게 나오자 파케스는 그에게 쇠사슬을 채우지는 않았으나 감시 아래 두었고, 갑작스레 공격해 그

요새를 불시에 빼앗고 그 안에 있던 아르카디아인과 이방인들을 칼로 베어 넘겼다. 그런 뒤 약속한 대로 히피아스를 그 안으로 들여보냈다가, 그가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붙잡아 화살로 쏘아 죽였다. 그 뒤 파케스는 메디아 편이 아닌 콜로폰인들에게 노티온을 넘겼다. 나중에 아테네에서 이주자들이 보내졌고, 여러 도시에서 찾아낸 콜로폰인을 모두 모은 뒤 그곳은 아테네의 법에 따라 식민지로 세워졌다.

미틸레네에 이른 파케스는 피라와 에레소스를 굴복시켰고, 스파르타인 살라이토스가 도시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 테네도스에 두었던 미틸레네인들과 반란에 관여했다고 여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를 아테네로 보냈다. 그는 병력의 대부분도 돌려보내고 나머지와 함께 남아, 미틸레네와 레스보스의 나머지를 자기가 가장 좋다고 여긴 대로 정리했다.

살라이토스와 함께 포로들이 도착하자 아테네인은 살라이토스를 곧 죽였는데, 그가 여러 가지를 내놓으며 여전히 포위되어 있던 플라타이아에서 펠로폰네소스인이 물러나게 해 주겠다고까지 했으나 그러했다. 그리고 포로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뒤, 그 순간의 격분에 사로잡혀 아테네에 있는 포로들만이 아니라 미틸레네의 성년 남자 전부를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기로 결정했다. 미틸레네는 나머지처럼 제국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처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아테네인의 분노를 무엇보다 크게 부풀린 것은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미틸레네를 돕고자 감히 이오니아까지 건너왔다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오래 곱씹어 준비한 반란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선 한 척을 보내 이 결의를 파케스에게 전하고 지체 없이 미틸레네인을 처리하라고 명했다. 이튿날이 후회를 가져왔고, 죄 있는 자들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운명을 도시 전체에 선고한 그 결의가 얼마나 끔찍하게 잔혹한지를 되짚어 보게 했다.

아테네에 있던 미틸레네 사절들과 그들을 지지하던 아테네인들이 이를 알아차리자마자 그들은 관헌을 움직여 그 문제를 다시 표결에 올리게 했는데, 관헌이 그렇게 하는 데 더 쉽게 응한 것은 시민 대다수가 누군가 이 일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뚜렷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 민회가 소집되었고, 양쪽에서 많은 의견이 나온 뒤에 클레아이네토스의 아들 클레온이 다시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틸레네인을 죽이자는 앞선 동의를 통과시킨 바로 그 사람이며, 아테네에서 가장 격한 인물이고 그때 민중에게 단연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였다.

나는 전부터 민주정이 제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신해 왔으나, 미틸레네 일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바꾼 것만큼 그것을 확신하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오가는 사이에서 두려움도 음모도 모르고 지내므로 동맹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끼며,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거나 스스로의 동정심에 굽히는 데서 끌려드는 잘못이 여러분 자신에게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무름에 대해 동맹들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얻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제국은 전제이며 여러분의 예속민은 앙심을 품은 음모자들이고, 그들의 복종을 붙들어 두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양보가 아니라 그들의 충성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힘이 여러분에게 준 우위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잊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가 늘 방침을 바꾸리라는 위협에 놓인 듯 보인다는 것이고, 다음의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결코 바뀌지 않는 나쁜 법이 권위 없는 좋은 법보다 도시에 낫고, 절제를 갖춘 무지가 방종한 영리함보다 쓸모 있으며, 보통 사람이 저보다 재능 있는 동료들보다 나랏일을 대개 더 잘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뒤쪽 사람들은 늘 법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고 싶어 하고

앞에 나온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뒤집으려 하며, 더 중대한 일에서는 제 재치를 보일 데가 없다고 여겨 그런 짓을 하다가 너무 자주 제 나라를 망칩니다. 반면 제 영리함을 믿지 않는 이들은 법보다 덜 배운 자로 있는 데 만족하고 훌륭한 연설자의 말에서 흠을 찾아내는 데 덜 능한 것으로 만족하며, 겨루는 선수가 아니라 공평한 판관이 되어 일을 대개 성공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들이며, 영리함과 지력의 겨룸에 끌려가 우리의 진짜 생각과 다른 것을 여러분 백성에게 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앞서의 의견을 그대로 지키며, 미틸레네인의 사건을 다시 열자고 제안한 자들에게 놀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내는 지체는 온전히 죄 있는 자들에게 이로우며, 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분노의 날이 무디어진 채로 가해자를 상대하게 만듭니다. 복수가 잘못에 가장 가까이 뒤따를 때 그것이 잘못과 가장 잘 맞먹고 가장 넉넉하게 되갚는데도 그렇습니다. 반대를 주장하며 미틸레네인의 범죄가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의 불행이 동맹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보여 주는 척할 사람이 누구일지도 나는 의아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둘 중 하나입니다. 한번 확정된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증명해 보이겠다고 나설 만큼 제 말재주를 믿는 자이거나, 돈을 받고 공들인 궤변으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 자입니다. 그런 겨룸에서 나라는 상은 남에게 주고 위험은 제가 집니다. 나무랄 사람은 이런 겨룸을 벌여 놓을 만큼 어리석은 여러분입니다. 구경거리를 보러 가듯 연설을 보러 가고, 사실은 남의 말로 주워 담으며, 어떤 계획이 될 만한 일인지를 그것을 주장하는 자의 재치로 판단하고, 지난 일의 진실을 두고 제 눈으로 본 사실보다 귀로 들은 영리한 논평을 믿는 여러분입니다. 새로 꾸며진 논변에 쉽게 걸려들고 이미 받아들여진 결론은 따르려 하지 않으며, 새 역설이라면 무엇에나 종처럼 매이고 흔한 것은 업신여기는

여러분입니다. 사람마다 첫 소원이 제가 직접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소원은 말할 수 있는 자들과 겨루는 것이어서, 한 방이 터지기도 전에 미리 갈채를 보내며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따라잡은 듯 보이려 하고, 논변을 붙잡는 데는 그 결과를 내다보는 데 더딘 만큼이나 빠른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과는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바로 그 조건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분이며, 귀의 즐거움에 철저히 매인 종이어서 도시의 평의회라기보다 웅변가의 청중에 더 가까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이런 데서 지켜 내기 위해, 나는 어느 한 나라도 미틸레네만큼 여러분을 해친 적이 없음을 이제 보이겠습니다. 우리의 지배를 견딜 수 없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나 적에게 떠밀려 그렇게 한 자들은 내가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갖춘 섬을 가졌고, 우리의 적을 바다에서만 두려워할 처지였으며 거기서는 자기들을 지킬 제 함선 부대를 가졌고, 독립을 누리며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예우를 받던 자들이 이들이 한 것처럼 행동했다면 그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반란이라는 말에는 억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뜻을 세워 저지른 까닭 없는 침략이고, 우리의 가장 독한 적들 편에 서서 우리를 망치려 한 시도이며, 힘을 얻고자 제 몫으로 벌인 전쟁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이미 반란을 일으켰다가 굴복한 이웃들의 운명도 그들에게는 교훈이 되지 않았고, 자기들의 번영도 그들이 위험에 맞서려는 것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날을 두고 눈먼 자신에 차고 제 힘을 넘어서지만 제 야심을 넘어서지는 않는 희망으로 가득해, 그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옳음보다 힘을 앞세우기로 결정했으며, 그 공격을 정한 것은 어떤 도발이 아니라 유리해 보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큰 행운이 갑작스럽게 뜻밖에 찾아오면 나라는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에게는 이치를 벗어난 성공보다 이치에 맞는 성공이

더 안전하며, 번영을 지켜 내기보다 역경을 막아 내기가 더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미틸레네인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특별하게 가려 대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머지와 똑같이 대했더라면 그들이 그토록 제 분수를 잊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비위를 맞추는 자는 업신여기고 굽히지 않는 자는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을 벌하십시오. 그리고 귀족들을 단죄하면서 민중은 면해 주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것은 그들이 모두 가림 없이 여러분을 공격했다는 것이며, 우리 편으로 넘어와 지금 다시 제 도시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 그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에게 떠밀려 반란한 동맹과 제 뜻으로 그렇게 한 자를 여러분이 같은 벌에 내놓는다면, 그들 가운데 아주 작은 구실만으로도 반란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의 보상은 자유이고 실패의 벌은 그리 끔찍할 것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한 나라 한 나라를 상대로 우리 돈과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다 해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폐허가 된 도시뿐이고 우리 힘이 걸려 있는 수입을 거기서 더는 끌어낼 수 없습니다. 실패한다면 우리 손에 적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있는 적들과 싸우는 데 쓸 수 있을 시간을 우리 자신의 동맹들과 전쟁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재주가 심어 줄 수 있거나 돈이 사들일 수 있는 희망, 곧 사람의 약함에 응당 돌아가는 자비의 희망을 미틸레네인에게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죄는 본의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악의에서 나온 것이고 뜻을 세워 저지른 것이며, 자비는 마음에 없이 잘못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에도 그랬듯 지금도, 여러분이 첫 결정을 뒤집는 것에, 또 제국에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허물, 곧 연민과 감상과 관용에 굽히는 것에 끝까지 맞섭니다. 동정은 그 마음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결코 우리를 되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들, 본래부터 필연으로 우리의 적인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감상으로 우리를 홀리는 연설자들은 제 재주를 펼칠 다른 덜 중요한 무대를 찾아보면 됩니다. 도시는 한순간의 즐거움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그들 자신은 번듯한 말솜씨로 후한 보답을 챙기는 이런 자리 대신에 말입니다. 그리고 관용은 앞으로 우리의 벗이 될 자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전에 그러했던 그대로 남아 전과 똑같이 우리의 적일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아닙니다. 짧게 추리면 내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내 조언을 따르면 미틸레네인에게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르게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에게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란한 것이 옳다면 여러분이 지배하는 것이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옳든 틀리든 지배하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은 그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여러분의 이익이 요구하는 대로 미틸레네인을 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다면 제국을 내놓고 위험 없이 정직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받은 그대로 되돌려 주기로 마음을 굳히십시오. 음모를 피해 살아난 쪽이 그것을 꾸민 자들보다 더 무감각하게 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이겼다면 어떻게 했겠는지를 되짚어 보십시오. 더욱이 먼저 침략한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이야말로 제 희생자를 죽음까지 몰아붙이는데, 적을 살려 두는 데서 앞날의 위험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는 해를 입은 자는 대등한 처지에서 맞선 적보다, 살아남았을 때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배신자가 되지 말고, 고통을 겪던 그 순간과 그때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두었던 지극한 중대함을 되도록 생생하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되갚으십시오. 지금의 무름에 굽히지도 말고 한때 여러분 머리 위에 걸려 있던 위험을 잊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마땅히 받을 대로 벌하고, 반란의 벌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른 동맹들에게 뚜렷한 본보기로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이것을 한번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이 제 연합의 성원들과 싸우는 동안 적들을 내버려 두어야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클레온의 말은 이러했다. 그 뒤로 에우크라테스의 아들 디오도토스가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앞선 민회에서도 미틸레네인을 죽이는 데 가장 강하게 반대해 말한 사람이었다.

나는 미틸레네인의 사건을 다시 연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며, 중대한 문제를 자주 논의하는 데 반대해 우리가 들은 항의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좋은 숙의에 가장 어긋나는 두 가지는 서두름과 격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두름은 대개 어리석음과 손을 맞잡고 가고, 격정은 거칢과 좁은 마음과 손을 맞잡고 갑니다. 말이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논변을 두고 말하면, 그것을 쓰는 사람은 분별이 없거나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앞날을 다른 어떤 수단으로 다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분별이 없는 것이고, 부끄러운 방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서 나쁜 명분을 두고 잘 말할 제 능력이 의심스러워 잘 겨눈 비방으로 반대자들과 듣는 이들을 겁주려 한다면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연설자가 돈을 받으려고 재주를 부린다고 몰아붙이는 일입니다. 무지만을 뒤집어씌운다면 뜻을 이루지 못한 연설자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은 못 얻을지언정 정직하다는 평은 지닌 채 물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직하다는 혐의는 그가 뜻을 이루면 그를 의심받게 만들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를 바보일 뿐 아니라 악당이라고까지 여기게 만듭니다. 이런 관행으로

도시가 얻는 것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도시에서 조언하는 이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상 우리 연설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려 든다면 그들이 아예 말할 수 없는 편이 나라에 더 나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지르는 실책이 줄 테니 말입니다. 훌륭한 시민은 반대자들을 겁주어서가 아니라 논변에서 정당하게 이겨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도시는 가장 나은 조언자들을 지나치게 떠받들지는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지 않으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조언자를 벌하기는커녕 그를 수치를 입은 자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뜻을 이룬 연설자들이 더 높은 명예를 바라 제 확신을 인기에 내놓고 팔 유혹을 가장 적게 받고, 뜻을 이루지 못한 연설자들이 다수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같은 인기 수법에 손을 뻗을 유혹도 가장 적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방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한다 해도 그것을 부정한 동기에서 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결국 그가 정말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 이득을 두고 그에게 그만한 앙심을 품어, 도시에서 확실한 이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하여 명백히 좋은 조언도 나쁜 조언에 못지않게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해로운 방안을 주장하는 자가 백성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써야 하는 정도와, 가장 훌륭한 조언자가 믿음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해야 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잔재주 때문에 오직 이 도시만은 드러내 놓고 감춤 없이 섬김을 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드러내 놓고 도시를 섬기는 자는 그 대가로 남몰래 제 이익을 챙긴다는 의심을 늘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걸려 있는 이해의 크기와 일의 형세를 헤아릴 때, 우리 연설하는 자들은 대뜸 판단하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멀리 보는 것을 제 일로 삼아야 합니다. 더구나 조언하는 우리는 책임을 지는데 듣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조언한

자들과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똑같이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더 차분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순간의 변덕이 여러분을 끌어들인 재난을 여러분은 조언자 한 사람에게 쏟아붓고, 잘못의 길에 함께한 수많은 동행인 여러분 자신에게는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틸레네 일에서 반박하려고도 고발하려고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실로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아무리 많이 증명한다 해도 그것이 이롭지 않다면 그들의 죽음을 권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관용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 해도 그것이 나라의 좋음에 분명히 들어맞지 않는다면 관용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현재보다 앞날을 위해 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란을 죽음으로 다스리면 유용한 억지 효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클레온이 그토록 단정하는 자리에서, 앞날의 이익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헤아리는 나는 그와 똑같이 단정하여 반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의 겉만 번듯한 고려를 위해 나의 유용한 고려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미틸레네를 향한 지금 여러분의 기분에는 그의 말이 더 정의롭게 보이는 매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은 법정이 아니라 정치의 민회이며, 문제는 정의가 아니라 미틸레네인을 어떻게 아테네에 유용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물론 공동체들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여러 죄에도 죽음의 벌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사람을 모험으로 이끌며, 제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속마음의 확신 없이 스스로를 위험에 내놓은 사람은 여태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키면서, 제 안에든 제 동맹에든 그 일에 알맞은 재원을 갖추었다고 믿지 않은 도시가 여태 있었습니까? 나라든 개인이든 모두가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며 그것을 막을 법이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서

스스로를 지킬 법조를 찾느라 벌의 목록을 남김없이 소진할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른 시대에는 가장 큰 죄에 대한 벌도 덜 혹독했을 것이고, 그것이 무시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차츰 죽음의 벌에 이르렀을 것이며, 그 죽음의 벌 또한 똑같이 무시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수단을 찾아내야 하거나, 이 억제가 쓸모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난이 사람에게 궁지의 용기를 주고 넉넉함이 오만과 교만에 딸린 야심으로 사람을 채우며 그 밖의 삶의 조건들이 저마다 어떤 치명적인 주인 격정의 굴레 아래 남아 있는 한, 사람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충동이 모자라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희망과 탐욕도 그렇습니다. 탐욕이 앞장서고 희망이 뒤따르며, 탐욕은 그 시도를 궁리하고 희망은 운이 넉넉히 따르리라고 속삭이면서 가장 넓은 파멸을 불러오는데, 보이지 않는 작용자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위험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운수 또한 그 미혹을 강하게 돕고, 이따금 뜻밖의 도움을 내주어 사람들이 뒤떨어지는 수단으로도 모험에 나서게 꾀어냅니다. 공동체에서는 특히 그러한데, 걸린 판돈이 자유나 제국이라는 가장 큰 것이고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에는 사람마다 제 능력을 이치에 닿지 않게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법의 힘으로도 다른 어떤 억지의 힘으로도 사람의 본성이 한번 마음을 굳힌 일을 하는 것을 막기란 불가능하며,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크게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벌이 효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릇된 정책에 스스로를 맡겨서도 안 되고, 반란한 자들에게서 회개하고 제 잘못을 일찍 속죄할 희망을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미 반란을 일으킨 도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아직 비용을 물어 줄 수 있는 동안에 화약을 맺고 그 뒤로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다른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늦게 항복하든 일찍 항복하든

마찬가지라면,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하고 포위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버티지 않을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복이란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 우리가 포위의 비용을 치르게 되고, 도시를 빼앗는다 해도 적에 맞선 우리의 진짜 힘을 이루는 수입을 더는 끌어낼 수 없는 폐허가 된 도시를 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도록 죄지은 자들의 엄한 재판관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절도 있는 징계로 우리 예속국들의 수입을 낳는 힘에서 앞날에 이익을 얻을 길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 줄 것을 법의 공포에서가 아니라 주의 깊은 통치에서 찾기로 마음을 굳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확히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예속에 붙들려 있던 자유로운 공동체가 당연한 일로 일어나 제 독립을 주장하면, 그것을 굴복시키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혹독하게 벌해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유인을 다루는 옳은 길은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호되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호되게 지켜보아 그런 생각을 아예 품지 못하게 막는 것이며, 봉기가 진압된 뒤에는 되도록 적은 수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클레온이 권하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실책을 저지르게 될지 생각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지금의 형세로는 모든 도시에서 민중이 여러분의 벗이며, 소수 지배자들과 함께 반란하지 않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곧 봉기한 자들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이 된 도시와의 전쟁에서 여러분은 다수를 제 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란과 아무 상관도 없었고 무기를 손에 쥐자마자 제 뜻으로 도시를 내준 미틸레네의 민중을 학살한다면, 첫째로 여러분은 은인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상층 계급의 손에 곧바로 패를 쥐여 주는 것인데, 그들이 제 도시를 일으켜 세울 때에는 곧 민중을

제 편에 두게 됩니다.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에게 같은 벌을 내린다고 여러분이 미리 알린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죄가 있었다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해야 하며, 아직 우리에게 우호적인 유일한 계층을 등 돌리게 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제국을 지키는 데는, 살려 두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자들을 아무리 정의롭게라도 죽이는 것보다 부당함을 제 뜻으로 참아 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나는 봅니다. 벌을 내리면서 정의의 요구와 이로움의 요구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클레온의 생각을 두고 말하면, 그런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실들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연민에도 관용에도 지나치게 양보하지 말고, 이 두 동기에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나도 클레온과 다르지 않으니, 여러분 앞에 놓인 사안의 명백한 시비만을 놓고 내 말에 설득되어, 파케스가 죄 있는 자로 보낸 미틸레네인들을 차분하게 재판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고 두십시오. 이것이 앞날에 가장 좋은 길이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적들에게 가장 무서운 길입니다. 적을 상대할 때 좋은 정책이 우악스러운 힘의 눈먼 공격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디오도토스의 말은 이러했다. 이렇게 나온 두 의견이 서로 가장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다. 아테네인은 마음이 바뀐 터였음에도 이제 표결로 나아갔고, 손을 든 수는 거의 같았으나 디오도토스의 동의가 이겼다. 그 사이에 첫 배가 레스보스에 닿아 도시가 이미 파괴된 것을 보게 될까 두려워 곧 다른 함선 한 척을 서둘러 보냈으니, 첫 배는 하루와 한 밤쯤 앞서 떠난 터였다. 미틸레네 사절들이 그 배에 포도주와 보리떡을 마련해 주고 때맞추어 닿으면 큰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항해에 그토록 힘을 다해 기름과 포도주에 반죽한 보리떡을 노를 저으면서 끼니로 먹었고 다른 이들이 노를 잡고 있는

동안 번갈아 잠만 잤다. 다행히 그들은 맞바람을 만나지 않았고, 첫 배는 그토록 끔찍한 심부름 길에 서두르지 않았던 데다 두 번째 배는 앞서 말한 대로 밀어붙였으므로, 첫 배가 그들보다 앞서 닿은 것이 아주 조금이어서 파케스가 결의를 읽고 그 선고를 집행할 준비를 할 겨를밖에 없었을 때 두 번째 배가 항구에 들어와 학살을 막았다. 미틸레네의 위험은 실로 컸다.

파케스가 반란의 주된 주도자로 보낸 다른 쪽 사람들은 클레온의 동의에 따라 아테네인의 손에 죽었는데, 그 수는 1,000명이 조금 넘었다. 아테네인은 미틸레네인의 성벽도 허물고 그들의 함선을 차지했다. 그 뒤 레스보스인에게 조공은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메팀나인의 땅을 뺀 그들의 온 땅을 3,000몫으로 나누어 그 가운데 300몫은 신들에게 바치는 거룩한 몫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는 섬으로 보내진 아테네인 지분 보유자들에게 제비로 배정했다. 레스보스인은 이들과 한 몫마다 해마다 2므나[8]의 지대를 내기로 합의하고 땅은 자기들이 갈았다. 아테네인은 미틸레네인에게 속한 대륙 쪽 도시들도 차지했고, 그 도시들은 이로써 앞으로 아테네에 예속되었다. 레스보스에서 일어난 일은 이러했다.

---

1. 프록세노스 — 다른 도시의 이해를 제 도시에서 대변하고 그 도시 사람을 맞아 주던 명예직. 아테네의 프록세노스란 미틸레네에 살면서 아테네 쪽의 이해를 돌보던 미틸레네 사람을 뜻한다.

2. 페르시아 전쟁 — 원문은 Median War다. 그리스인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에 앞선 메디아를 뭉뚱그려 '메디아'라 불렀으므로,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기원전 490년과 480년의 페르시아 침공이다. 같은 이유로 본문의 '메디아인' 역시 페르시아 쪽 군세와 그 왕을 뜻한다.

3. 펜타코시오메딤노이 — '500메딤노스 계층'. 해마다 곡물 500메딤노스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리는 아테네의 최상위 재산 등급으로, 기사 계층과 마찬가지로 중장보병이나 기병으로 복무했으므로 노 젓는 자리에는 태우지 않았다.

4. 드라크메 — 그리스의 은화 단위.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대략 1드라크메였다고 전한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5.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6. 푸스 — 그리스의 길이 단위로, 말뜻은 '발'이다. 1푸스는 약 30센티미터다. 뒤에 나오는 스타디온은 600푸스로 약 180미터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피트·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7. 살라미니아호·파랄로스호 — 아테네가 공적인 사명에 쓴 두 척의 전용 함선. 사절을 보내고 국가의 명령을 전하는 일을 이 두 배가 맡았다.

8. 므나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00드라크메에 해당했고 60므나가 1탈란톤이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10장 (제III권 제X장) — 전쟁 제5년 — 플라타이아인의 재판과 처형 — 코르키라 내란

같은 여름, 레스보스를 굴복시킨 뒤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가 이끄는 아테네인은 미노아섬을 겨누어 원정에 나섰다. 이 섬은 메가라 앞바다에 있었고, 메가라인이 그 위에 망루를 세워 요새 거점으로 쓰고 있었다. 니키아스가 바란 것은 아테네인이 부도론과 살라미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이 거점에서 봉쇄를 유지하게 하는 것, 펠로폰네소스의 전선과 사략선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섬에서 빠져나가는 일을 막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메가라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바다에서 공성 기계를 써서 니사이아 쪽으로 튀어나온 망루 둘을 빼앗고 섬과 해안 사이 물길의 입구를 치운 다음, 늪을 건너지르는 다리가 있어 섬으로 구원병을 들여보낼 수 있는 자리에 육지 쪽으로 성벽을 쌓아 모든 연락을 끊는 일에 착수했다. 섬은 대륙에서 멀지 않았다. 이 일은 며칠이면 되었고, 그 뒤 그는 섬에도 요새를 쌓았으며 거기에 수비대를 남겨 두고 병력을 이끌고 떠났다.

이 여름 거의 같은 때에 플라타이아인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 포위를 더 버틸 수 없게 되어 다음과 같은 경위로 펠로폰네소스인에게 항복했다. 성벽에 공격이 있었는데 플라타이아인은 그것을 물리칠 수 없었다. 스파르타 지휘관은 그들이 약해진 것을 알아보고 그 도시를 강습으로 빼앗는 일은 피하려 했다. 스파르타에서 내려온 지시가 그런

뜻으로 짜여 있었기 때문인데, 뒷날 언제든 아테네와 평화가 맺어져 양쪽이 전쟁 중에 빼앗은 곳을 서로 돌려주기로 합의하게 될 경우 플라타이아는 제 발로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전령을 보내, 죄가 있는 자는 벌하되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아무도 벌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스스로 도시를 스파르타인에게 넘기고 그들을 심판관으로 받아들일 뜻이 있는지 물었다. 플라타이아인은 이미 힘이 다한 끝에 있었으므로 전령이 전언을 전하자마자 도시를 넘겼다. 펠로폰네소스인은 스파르타에서 오는 심판관 다섯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며칠 동안 그들을 먹였다. 심판관들이 도착했으나 죄를 묻는 고발은 없었다. 그들은 그저 플라타이아인을 불러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준 일이 있는지 물었다. 플라타이아인은 더 길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청하고 자기들 가운데 두 사람을 대표로 세웠다. 아소폴라오스의 아들 아스티마코스와, 아에임네스토스의 아들로 스파르타인의 프록세노스[1]인 라콘이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스파르타인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넘길 때 우리는 여러분을 믿었고, 지금 이것보다는 법의 절차에 더 맞는 재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놓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기로 동의한 심판관은 여러분이었고 오직 여러분뿐이었으니, 여러분에게서라면 올바른 판결을 얻을 가망이 가장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두 겹으로 속은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까닭은 넉넉합니다. 재판에 걸린 사안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할 고발이

먼저 제기되지 않고 우리 쪽에서 말할 기회를 청해야 했다는 사실, 그리고 물음이 하도 짧게 던져진 탓에 그것에 참되게 답하면 우리에게 불리하고 거짓으로 답하면 곧 반박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런 궁지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아니 실로 하나뿐인 길은 무슨 위험이 있더라도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자리에서 잠잠히 있다가는, 말을 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저 저주스러운 생각에 시달리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여러분을 설득하는 일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 사실을 내놓아 이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하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나도 말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우리의 공덕이 여러분의 공덕에 못 미친다고 미리 단정하고 그것을 우리 죄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를 기쁘게 하려고 결과가 이미 정해진 재판에 우리가 끌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정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놓겠습니다. 테베인이 우리를 걸어 일으킨 다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머지 그리스인에게 말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친 훌륭한 봉사를 여러분에게 일깨우고, 여러분을 설득해 보려 애쓰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준 일이 있느냐는 여러분의 짧은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이 적으로서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바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벗으로서 묻는 것이라면, 우리를 겨누어 진군한 여러분에게 더 큰 허물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때에도, 메디아인에 맞서서도 우리는 훌륭히 처신했습니다. 이번에 평화를 먼저

깨뜨린 것은 우리가 아니며, 그때 메디아인에 맞서 그리스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선 보이오티아인은 우리뿐이었습니다. 내륙 사람이었으나 우리는 아르테미시온의 싸움에 나가 있었고, 우리 땅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여러분과 파우사니아스 곁에 서서 싸웠으며, 그때 그리스인에게 닥친 다른 위험한 일에도 빠짐없이 우리 힘에 넘치도록 함께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스파르타인으로서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은 뒤 헬롯[2]이 이토메로 떨어져 나가 스파르타가 큰 공포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시민의 3분의 1을 보내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이 크고 역사에 남은 자리들에서 우리가 고른 몫이 그러했습니다. 뒷날 우리가 여러분의 적이 되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탓이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테베인에 맞서 여러분의 동맹을 청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 청을 물리쳤고, 여러분은 너무 멀리 사니 이웃인 아테네인에게 가라고 일렀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했을 때 우리가 아테네인을 버리기를 마다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러선 자리에서 그들이 테베인에 맞서 우리를 도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명예를 지키면서 그들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청으로, 또 그들의 손에서 은혜를 입은 뒤에 그들의 동맹을 얻고 그들의 시민권까지 받았으니, 그들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의무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두 세력 가운데 어느 쪽이든 패권을 쥐고서 저지르는 허물은 따르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우두머리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테베인을 두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거듭 해를 입혔으며, 우리를 지금의 이 처지로 몰아넣은 그들의 마지막 침해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평화로운 때에, 게다가 그달의 거룩한 날에 우리 도시를

덮쳐 빼앗았으니 그들은 우리의 복수를 마땅히 받은 것이며, 침입자에게 맞서는 것을 허락하는 만민의 법에 그것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당장의 이익과 그들의 원한을 정의의 척도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옳음을 재는 심판관이 아니라 편의에 굽실거리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쓸 데가 있어 보인다 해도, 더 다급했던 때에 우리와 나머지 그리스인이 여러분에게 준 도움은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치는 편이고 남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위기의 때, 곧 이방인이 모두를 노예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던 때에 테베인은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보인 열의를 지금 우리의 잘못과 나란히 놓고 재는 것이 옳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적이 허물보다 무겁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적이 크세르크세스의 힘에 맞서 제 용기를 내놓을 그리스인이 몇 없던 때, 침공을 앞두고 제 이익을 헤아리는 안전한 길보다 명예의 위험한 길을 고른 자들에게 더 큰 칭송이 돌아가던 때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몇 안 되는 이들에 속했고 그 일로 높은 기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같은 원칙에 따라 다시 행동했다는 것, 이득을 좇아 스파르타를 고르기보다 정의를 좇아 아테네를 골랐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 보자면 같은 경우는 같게 판결해야 하며, 정책이라는 것도 좋은 동맹이 바친 봉사에 오래가는 고마움을 지니는 일에 자기 당장의 이익을 알맞게 돌보는 일을 더한 것 말고 다른 무엇을 뜻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인은 대체로 여러분을 훌륭함과 명예의 본으로 여깁니다. 이 사건은 이름 없는 사건이 아니고, 심판관인 여러분이 이름 높은 것과 갇힌 자인 우리가 죄 없는 것이 서로 맞먹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여러분이 부당한 선고를 내린다면, 명예로운 사람들의 일을 그들보다 더 명예로운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게 판결한 것을 두고, 또 그리스의 은인인 플라타이아인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그리스인 공동의 신전에 바친 것을 두고 불쾌함이 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스파르타인이 플라타이아를 무너뜨리는 일은 실로 끔찍하게 보일 것입니다. 훌륭한 봉사를 했다 하여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델포이의 세발솥[3]에 그 이름을 새긴 도시가 테베인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의 손에 그리스의 지도에서 지워지는 일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깊은 불운으로 떨어졌습니다. 메디아인이 이겼다면 그것이 우리의 파멸이었을 텐데, 이제는 테베인이 한때 우리를 향했던 여러분의 애정 속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위험, 그 어떤 것보다 큰 위험에 놓였습니다. 도시를 넘기지 않았다면 그때 굶어 죽었을 위험과, 지금 목숨을 걸고 재판을 받는 위험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인의 대의를 위해 우리 힘에 넘치도록 애쓴 우리 플라타이아인은 모두에게 내쳐져 버림받고 도움 없이 남았으며, 동맹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으니 우리의 하나뿐인 희망인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지조차 의심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때 우리 동맹을 지켜보던 신들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인의 대의에 우리가 바친 훌륭한 봉사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테베인이 여러분에게서 이미 얻어 냈을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결정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죽여 여러분에게 수치를 입히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선물을 되돌려 달라고 하십시오. 죄 있는 고마움이 아니라 깨끗한 고마움을 얻으십시오. 남을 기쁘게 하고 그 보답으로 여러분 자신이 수치를 받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숨은 금세 거두어 갈 수 있겠으나, 그 행위의 오명을 씻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당하게 벌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에 맞서 무기를 들도록 몰린 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 발로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려 손을 내민 포로이며 그리스의 법이 그런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한다는 것, 게다가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의 은인이었다는 것까지 헤아리신다면 말입니다. 메디아인의 손에 죽어 우리 땅에 묻힌 여러분 아버지들의 무덤을 보십시오. 우리는 해마다 나라의 이름으로 옷과 그 밖의 모든 예물로, 또 철마다 우리 땅이 낸 모든 것의 맏물로 그들을 기렸습니다. 벗의 나라에서 온 벗으로서, 옛 전우들에게 바치는 동맹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옳게 판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처신은 우리의 처신과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헤아려 보십시오. 파우사니아스는 그들을 벗의 땅에, 그만큼 벗다운 사람들 가운데에 누인다고 생각하며 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를 죽이고 플라타이아의 땅을 테베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와 친족을 적의 흙 속에, 그들을 죽인 자들 가운데에 남겨 두고 그들이 지금 받는 예우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인의 자유를 얻어 낸 땅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이 메디아인을 이기기 전에 기도를 올렸던 신들의 신전을 황폐하게 하며, 여러분 조상의 제사를 그것을 세우고 정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됩니다.

스파르타인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인의 공통된 법과 여러분 자신의 조상에게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은 아무 해를 입지 않았는데 남의 미움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의 은인인 우리를 죽이는 것도 여러분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고 도리에 맞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 몸을 맡기는 것이 더 큰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무서운 운명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는 자들의 됨됨이도, 또 그럴 까닭이 없는 이들에게조차 불운이 얼마나 빨리 닥칠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도 함께 헤아리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또 우리의 절박함에 몰린 자로서 여러분에게 빕니다. 모든 그리스인이 그 앞의 같은 제단에서 예배하는 신들을 큰 소리로 부르며, 우리 청을 들어 달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맹세했고 우리가 지금 근거로 삼는 그 맹세를 잊지 말아 달라고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들의 무덤을 걸어 탄원하며, 우리가 테베인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가장 가까운 벗이 그들의 가장 미워하는 원수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이미 가신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 아버지들 곁에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해낸 그날을 여러분에게 일깨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무서운 운명을 받게 될 듯한 우리가 그날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곧 말을 끝내는 일입니다. 말이 끝나면 우리 목숨의 위험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시를 테베인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영광 없이 굶어 죽기를 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전과 같은 자리로 되돌려 놓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운을 우리가 맞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스파르타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탄원하는 자들이며 그리스의 애국자 가운데 으뜸인 플라타이아인을 여러분의 손과 신의에서 떼어 내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인 테베인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머지 그리스인을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지는 마십시오."

플라타이아인의 말은 그러했다. 테베인은 스파르타인이 들은 말에 마음이 움직일까 두려워 앞으로 나와, 플라타이아인이 물음에 짧게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뜻과 달리 길게 말할 것을 허락받았으니 자기들도 말하고 싶다고 했다. 허락이 내려지자 테베인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플라타이아인 쪽에서 물음에 짧게 답하는 데 만족했더라면,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를 걸어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게다가 지금의 심문 밖에 있고 고발의 대상조차 아닌 일들을 두고 길게 자기 변호를 늘어놓고 아무도 허물 삼지 않는 것을 칭송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연설을 하게 해 달라고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그들의 고발에 답하고 그들의 자기 칭송을 논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이름도 그들의 좋은 이름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게 하고,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여러분이 참된 사실을 듣고서 판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툼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보이오티아의 나머지 땅을 얻은 뒤 얼마 지나 플라타이아에 사람을 들였고, 섞여 살던 주민을 몰아낸 다른 곳들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플라타이아인이 처음 정한 대로 우리의 패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나머지 보이오티아인에게서 떨어져 나가 조상의 관습을 어기는 자로 드러났으므로 우리는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테네인 편으로 넘어가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해를 입혔고, 우리는 그 일에 보복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방인이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메디아 편에 붙지 않은 보이오티아인은 자기들뿐이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가장 크게 내세우고 우리를 가장 심하게 헐뜯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메디아 편에 붙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테네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뒷날 아테네인이 그리스인을 쳤을 때 아테네 편에 선 보이오티아인이 또다시 플라타이아인뿐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기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양쪽 정치 체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 도시에는 귀족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과두 체제도 없었고 민주 체제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법과 좋은 통치에 가장 어긋나며 참주 정치에 가장 가까운 것, 곧 좁은 패거리의 지배였습니다. 이들은 메디아인이 이기면 제 개인의 권력이 굳어지리라 바라면서 힘으로 민중을 억눌렀고 그를 도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도시 전체는 그렇게 행동할 때 제 주인이 아니었으니, 제 체제를 빼앗긴 동안에 저지른 잘못을 두고 책망받아서는 안 됩니다. 메디아인이 물러가고 체제가 회복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만 살펴보십시오. 아테네인이 나머지 그리스를 치고 우리 나라를 정복하려 애쓰던 때, 당파 싸움이 이미 우리 나라의 대부분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네이아에서 싸워 이기고 보이오티아를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대의에 기병을 내놓고 동맹의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병력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땅의 해방에 힘껏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디아 편에 붙은 일에 대한 변명은 이것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플라타이아인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크게 그리스인에게 해를 입혔으며 마땅한 벌을 받을 자격이 우리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이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맞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아테네의 동맹이 되고 그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에 맞서 아테네인을 불러들이는 데서 그쳐야 했고, 그들과 함께 남들을 치는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따라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러분을 이끈다고 느낀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토록 힘주어 말하듯이 스파르타가 이미 메디아인에 맞선 여러분의 동맹이었으니 말입니다. 그것이면 우리를 떼어 놓기에, 무엇보다

여러분이 안전한 가운데 의논하기에 틀림없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제 뜻으로, 아무 강요도 없이 아테네와 운명을 함께하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인을 배신하는 것이 비루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노예로 만들고 있던 아테네인 하나를 버리는 것보다, 그리스를 해방하고 있던 여러분의 동맹 동료인 그리스인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비루하고 더 사악한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한 보답은 대등한 것도 명예로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자신이 짓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였다는데, 그러고는 남을 짓누르는 일에서 그들의 공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루함이란 정당하게 갚아야 할 것이되 갚으려면 부당해지는 것을 갚지 않는 데보다, 받은 것을 받은 그대로 갚지 않는 데 더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만 메디아 편에 붙지 않은 것이 그리스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테네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그들 편에 서서 나머지에게 맞서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뚜렷이 드러났는데도, 여러분은 이제 남들 덕분에 행하게 된 훌륭한 일의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테네인을 골랐으니 그들과 함께 서거나 그들과 함께 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그때 맺어진 동맹을 근거로 들어 그것이 이제 여러분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동맹을 버렸고, 그 구성원인 아이기나인과 다른 이들이 정복당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돕는 것으로 그 동맹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제도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경우와 달리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봉쇄당하기 전에 어느 편에도 들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청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명예의 가면을 쓰고 그리스인의 파멸을 노린 여러분보다 그리스인의 미움을 더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내세우는 지난날의 덕이 여러분의 됨됨이에 본래 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참으로 기울어 있는 쪽이 마침내 벗어날 길 없이 드러났습니다. 아테네인이 불의의 길로 갔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없이 메디아 편에 붙은 일과 여러분이 제 뜻으로 아테네 편에 선 일에 대한 우리 설명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마지막 잘못은,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평화로운 때에 축제 기간에 법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도시를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보다 더 큰 허물을 지었다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 뜻으로 여러분 도시를 무장하고 쳐서 여러분 땅을 짓밟았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과 가문에서 여러분 가운데 으뜸인 사람들이 외국과의 인연을 끊고 여러분을 보이오티아 공동의 나라로 되돌리려는 뜻에서 제 뜻으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대로, 잘못이 저질러진 자리에서는 따르는 자보다 이끄는 자가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잘못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민이며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걸고 있던 그들은 제 손으로 성벽을 열어 우리를 제 도시로 들였습니다. 원수로서가 아니라 벗으로서였고, 여러분 가운데 나쁜 자들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을 주며 사람을 치지 않고 원칙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도시에서 내쫓기는 것이 아니라 제 친족에게 돌아오는 것이었고, 누구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한결같은 벗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뜻이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처신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고, 겨레의 정부인 보이오티아의 통치 아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고 공개로 청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우리와 합의를 맺고 잠잠히 있었으며, 우리 수가 적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민중이 동의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들어간 일에 온전히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은 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폭력을 삼가고 협상으로 우리를 물러가게 하는 대신, 여러분은 합의를 어기고 우리에게 덮쳐들었습니다. 싸움에서 우리 가운데 몇을 죽인 일은 그리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얼마간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산 채로 사로잡혔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목숨을 우리에게 약속하기까지 한 다른 이들을 여러분은 법을 무시하고 도륙했습니다. 이것이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죄를 잇달아 저지르고서도, 곧 합의를 어긴 일과 그 뒤에 사람들을 죽인 일과 우리가 들의 재산을 해치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던 약속을 거짓으로 깨뜨린 일을 저지르고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은 우리라고 우기며 여러분 자신은 정의를 피해 가려 합니다. 여기 이 심판관들이 옳게 판결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대해 한꺼번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스파르타인 여러분, 사실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얼마간 길게 다룬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저 갇힌 자들에게 유죄를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복수에 정당함을 하나 더 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이 저들의 지난 덕을 듣고 마음이 녹는 일을 막고자 합니다. 저들에게 그런 덕이 있었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덕은 불의를 당한 자들이라면 정당하게 내세울 수 있으나 죄인에게는 벌을 두 배로 할 뿐입니다. 죄인은 제 더 나은 본성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이 울부짖는 것으로, 여러분 아버지들의 무덤과 자기들의 버림받은 처지를 들먹이는 것으로 무엇을 얻게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맞서 저들의 손에 도륙된 우리 젊은이들의 훨씬 더 무서운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들은 보이오티아를 여러분 편으로 데려오면서 코로네이아에서 쓰러졌거나, 빈집에 외로운 노인으로 남아 저 갇힌 자들에게 여러분의 정의를 내려 달라고 훨씬 더 큰 까닭을 가지고 빌고 있습니다. 저들이 호소하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그럴 까닭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들처럼 마땅히 고통받는 자들은 오히려 남이 기뻐할 거리입니다. 지금 저들이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것은 저들 자신의 탓입니다. 더 나은 동맹을 제 뜻으로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법을 무시한 행위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도 자극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결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정의가 아니라 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들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법의 선고로 고통받게 되는 것이며, 저들이 내세우는 대로 싸움 중에 목숨을 구하려 손을 내미는 탄원자로서가 아니라 재판을 받기로 합의하고 항복한 포로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파르타인 여러분, 저들이 깨뜨린 그리스의 법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침해를 당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열심이 받을 만한 보답을 내리십시오. 저들의 장황한 연설에 우리가 여러분의 호의에서 밀려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인을 부르는 겨룸은 말의 겨룸이 아니라 행동의 겨룸임을 그들에게 본으로 보이십시오. 훌륭한 행동은 짧게 말할 수 있으나, 잘못이 저질러진 곳에서는 그 흉한 꼴을 가리려고 말이 넉넉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장서는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대로

한다면, 곧 모두에게 똑같이 짧은 물음 하나를 던지고 그 답에 따라 판결한다면,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가리려고 고운 말을 찾으려는 마음은 덜할 것입니다."

테베인의 말은 그러했다. 스파르타 심판관들은 전쟁에서 플라타이아인으로부터 무슨 도움이라도 받은 일이 있느냐는 물음을 자기들이 던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메디아인을 물리친 뒤 파우사니아스가 맺은 본래의 약정에 따라 자기들은 늘 플라타이아인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청해 왔고, 봉쇄 전에도 같은 조건을 다시 분명히 내밀었기 때문이었다. 그 제안이 거절되었으므로 자기들은 이제 그 뜻이 정직했던 만큼 약정에서 풀려났다고 그들은 여겼다. 또 자기들이 플라타이아인의 손에 해를 입었다고 보았으므로, 그들은 플라타이아인을 다시 하나씩 불러들여 저마다에게 같은 물음, 곧 전쟁에서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준 일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졌고, 없다고 답하면 끌어내 죽였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그렇게 살육된 플라타이아인은 200명에 못 미치지 않았고, 포위를 함께 겪은 아테네인 25명도 함께 죽었다.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갔다. 도시는 테베인이 1년쯤 메가라에서 온 정치적 망명자들과 자기들 편에 섰던 살아남은 플라타이아인에게 주어 살게 했고, 그 뒤 주추까지 남기지 않고 땅바닥으로 헐어 버렸으며, 헤라의 성역에 붙여 사방 200푸스[4]의 숙사를 지었는데 위아래로 방을 죽 둘러 넣고 그 일에 플라타이아인의 집에서 나온 지붕과 문을 썼다. 성벽 안에 있던 나머지 세간인 청동과 쇠로는 침상을 만들어 헤라에게 바쳤고, 헤라를 위해 100푸스 길이의 돌 신전도 지었다. 땅은 몰수하여 10년 기한으로 테베인 차지인들에게 임대했다. 플라타이아 사건 전체에서 스파르타인이 취한 적대적인 태도는 거의 전적으로 테베인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때 벌어지고 있던 전쟁에 테베인이 쓸 데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플라타이아의 끝은 그러했다. 아테네의 동맹이 된 뒤 93년째의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레스보스인을 구원하러 갔다가 아테네인의 추격을 받으며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달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두고 온 펠로폰네소스의 함선 40척은 크레타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거기서부터 흩어진 채 펠로폰네소스로 돌아갔고, 킬레네에서 레우카스와 암브라키아의 전선 13척과, 얼마 전 알키다스의 조언자로 와 있던 텔리스의 아들 브라시다스를 만났다. 스파르타인은 레스보스 원정이 실패한 뒤 함대를 보강하여 내란이 터진 코르키라로 가기로 결의했는데, 나우팍토스에 있는 아테네 함선 12척이 아테네에서 증원을 받기 전에 그곳에 이르려는 것이었다. 브라시다스와 알키다스는 그에 맞추어 준비에 들어갔다.

코르키라의 내란은 에피담노스 앞바다의 해전에서 잡힌 포로들이 돌아온 데서 시작되었다. 코린트인은 그들을 놓아주었는데, 겉으로는 그들의 프록세노스들이 내놓은 800탈란톤[5]의 보증을 받고서였으나 실제로는 코르키라를 코린트 편으로 넘기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받고서였다. 이 사람들은 시민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설득에 나섰고 도시를 아테네에서 떼어 낼 셈으로 일을 꾸몄다. 사절을 태운 아테네 배와 코린트 배가 도착하자 회의가 열렸고, 코르키라인은 합의에 따라 아테네인의 동맹으로 남되 예전처럼 펠로폰네소스인의 벗이 되기로 표를 던졌다. 그러는 동안 돌아온 포로들은 아테네인의 자발적 프록세노스이며 민중파의 지도자인 페이티아스를 코르키라를 아테네에 노예로 넘긴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걸었다. 그는 무죄로 풀려난 뒤 맞받아쳐서, 그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다섯 사람을 제우스와 알키노오스에게 바쳐진 땅에서 말뚝을 잘라 냈다는 죄로 고발했다. 법에 정해진 벌은 말뚝 하나마다 1스타테르[6]였다.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

액수가 매우 커지자 그들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신전에 탄원자로 앉았다. 그러나 평의회의 한 사람이던 페이티아스는 그 기구를 움직여 법을 그대로 집행하게 했다. 그리하여 고발당한 자들은 법에 몰려 다급해졌고 게다가 페이티아스가 아직 평의회 의원인 동안에 민중을 설득해 아테네와 공수 동맹을 맺게 할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단검으로 무장하고 한데 뭉쳐 갑자기 평의회로 들이닥쳐 페이티아스와 다른 60명쯤을 죽였는데 의원도 있고 사인도 있었다. 페이티아스 편에 섰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던 아테네 전선으로 도망해 목숨을 건졌다.

이 난행을 저지른 뒤 음모자들은 코르키라인을 민회로 불러 모아, 이 일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며 아테네에 노예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어느 편이든 배 한 척으로 평화롭게 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보다 많은 수로 오면 적으로 다루자는 동의를 그들은 냈다. 동의를 낸 뒤 그들은 그것이 채택되도록 강요했고, 곧바로 아테네로 사절을 보내 저지른 일을 정당하다고 변명하고 그곳에 있는 망명자들이 반동을 불러올 만한 적대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말리게 했다.

사절단이 도착하자 아테네인은 사절들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들을 모두 내란을 꾸민 자로 붙잡아 아이기나에 가두었다. 그러는 동안 코린트 전선 한 척이 스파르타 사절을 태우고 섬에 도착하자, 코르키라에서 권세를 쥔 당파가 민중파를 쳐서 싸움에서 이겼다. 밤이 되자 민중파는 아크로폴리스와 도시의 높은 지역으로 피해 거기에 힘을 모았고 힐라이코스 항구도 손에 넣었다. 맞선 편은 자기들 대부분이 살던 시장과 그에 붙은, 대륙을 바라보는 항구를 차지했다.

이튿날은 대수롭지 않은 접전으로 지나갔고, 양편은 시골로 사람을 보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내밀며 자기 편에 들어오라고 청했다.

노예의 대다수는 민중파의 부름에 응했다. 그 맞선 편은 대륙에서 온 용병 800명으로 보강되었다.

하루를 건너 싸움이 다시 붙었고 승리는 민중파에게 돌아갔는데, 그들이 수와 자리에서 유리했고 여자들도 용감하게 그들을 도와 집에서 기와를 던지며 제 성에 걸맞지 않은 굳셈으로 난전을 떠받쳤기 때문이었다. 해 질 무렵 완전히 무너져 달아나던 과두파는 이긴 민중파가 단숨에 조선소를 덮쳐 빼앗고 자기들을 칼로 베어 버릴까 두려워, 그들이 나아오는 길을 막으려고 시장 둘레의 집들과 셋집들에 불을 질렀다. 제 집도 이웃의 집도 가리지 않았다. 그 불에 상인들의 물건이 많이 타 버렸고, 바람이 일어 불길을 부추겼다면 도시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었다. 싸움이 그치자 양편은 잠잠히 지키며 밤을 지냈고, 코린트 배는 민중파가 이긴 것을 보고 몰래 바다로 빠져나갔으며 용병 대부분도 남의 눈을 피해 대륙으로 건너갔다.

이튿날 아테네 장군 디이트레페스의 아들 니코스트라토스가 함선 12척과 메세니아 중장보병 500명을 이끌고 나우팍토스에서 올라왔다. 그는 곧 화해를 이루려 애썼고, 주모자 열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서로 조건을 맞추어 평화롭게 살며 아테네인과 공수 동맹을 맺기로 양편이 함께 합의하도록 설득했다. 재판에 넘기기로 한 열 사람은 곧 달아났다. 이 일이 정리되자 그는 배를 몰고 떠나려 했으나, 민중파의 지도자들이 맞선 편이 움직일 마음을 덜 먹게 하려면 그의 배 가운데 다섯 척을 남겨 달라고 그를 움직였고, 대신 자기들 배 같은 수에 사람을 채워 그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가 동의하자마자 그들은 그 배에 태울 사람으로 자기들의 적을 올리기 시작했다. 적들은 아테네로 보내질까 두려워 디오스쿠로이 신전에 탄원자로 앉았다. 니코스트라토스가 그들을 안심시켜 일어나게 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민중파는 이것을 구실로 무장하고서 맞선 편이 자기들과 함께

배를 타기를 마다한 것이 그 속뜻이 온당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집에서 무기를 꺼내 갔으니, 니코스트라토스가 막지 않았다면 마주친 자들 몇을 죽였을 것이다. 그 당파의 나머지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고 헤라 신전에 탄원자로 앉았는데 그 수가 400명에 못 미치지 않았다. 민중파는 그들이 무슨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들을 일으켜 신전 앞의 섬으로 건네 보냈고, 먹을 것을 그리로 실어 보냈다.

내란이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을 섬으로 옮긴 뒤 나흘인가 닷새 만에 펠로폰네소스 함선들이 도착했다. 이오니아에서 돌아온 뒤로 머물러 있던 킬레네에서 온 53척이었고, 여전히 알키다스가 지휘했으나 브라시다스도 그의 조언자로 배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대륙의 항구인 시보타에 닻을 내렸다가 날이 새자 코르키라로 배를 몰았다.

코르키라인은 도시의 사정과 침입자가 다가오는 것에 크게 어지러워하고 놀라, 곧 배 60척을 갖추어 사람이 채워지는 대로 적을 향해 내보냈다. 아테네인이 자기들을 먼저 나가게 하고 코르키라인은 뒤에 배를 모두 모아 한꺼번에 따라오라고 권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들의 배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채로 적에게 다가가자 두 척은 곧바로 적에게 넘어갔고, 다른 배에서는 선원들이 저희끼리 싸우고 있어 무엇 하나 질서 있게 되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펠로폰네소스인은 그 혼란을 보고 함선 20척을 코르키라인 쪽에 맞세우고 나머지는 아테네 함선 12척에 맞세워 늘어놓았는데, 그 12척 가운데에는 살라미니아호와 파랄로스호 두 척이 있었다.

코르키라인이 분별 없이 작은 무리로 나뉘어 치다가 이미 제 잘못으로 힘을 잃고 있는 동안, 아테네인은 적의 수와 포위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본진은 물론 자기들에게 맞선 부대의 중앙조차 치려 하지 않고 그 날개를 덮쳐 배 한 척을 가라앉혔다. 그러자 펠로폰네소스인은 원을 이루어 진을 짰고, 아테네인은 그 둘레를 노 저어 돌며 그들을

어지럽히려 했다. 이것을 알아본, 코르키라인 쪽에 맞섰던 부대는 나우팍토스의 재앙이 되풀이될까 두려워 제 편을 도우러 왔고, 이제 함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아테네인에게 몰려들었다. 아테네인은 그 앞에서 노를 거꾸로 저어 물러났는데, 적을 그렇게 붙들어 두는 동안 코르키라인이 달아날 시간을 벌어 주려고 되도록 천천히 물러났다. 이 해전의 성격은 그러했고, 싸움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코르키라인은 이제 적이 이긴 기세를 몰아 도시로 배를 몰고 와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내거나 그만큼 결정적인 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을 다시 헤라 신전으로 건너 데려오고 도시를 지켰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인은 해전에서 이겼음에도 도시를 치려 하지 않고, 사로잡은 코르키라 배 13척을 끌고 자기들이 떠나온 대륙으로 돌아갔다. 이튿날도 그들은 도시를 치지 않았다. 도시의 혼란과 공포가 극에 이르렀고 브라시다스가 상관인 알키다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고 전하는데도 그러했다. 브라시다스에게는 알키다스와 대등한 표결권이 없었다. 그들은 레우킴메 곶에 올라 들을 짓밟았다.

그러는 동안 코르키라의 민중파는 함대가 자기들을 칠까 여전히 크게 두려워하여 도시를 건지려고 탄원자들과 그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 가운데 몇을 설득해 배에 타게 했다. 다가올 공격에 맞서 그들은 그래도 배 30척에 사람을 채웠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인은 한낮까지 들을 짓밟은 뒤 배를 몰고 떠났고, 밤이 되어 갈 무렵 봉화 신호로 투클레스의 아들 에우리메돈이 지휘하는 아테네 함선 60척이 레우카스 쪽에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함대는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알키다스의 함대가 코르키라로 향한다는 소식에 아테네인이 보낸 것이었다.

그리하여 펠로폰네소스인은 곧 밤을 타 서둘러 해안을 따라 본국으로 떠났고, 레우카스의 지협을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도록 배를 육지로 끌어 그 지협을 넘겨 그렇게 떠났다. 코르키라인은 아테네 함대가 다가온다는 것과 적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성벽 밖에 있던 메세니아인을 도시 안으로 들였으며, 사람을 채워 둔 함대에 힐라이코스 항구로 돌아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그 함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손에 잡히는 적들을 죽였고, 배에 타도록 설득했던 자들도 뒤에 육지에 내리는 대로 죽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헤라의 성소로 가서 50명쯤을 설득해 재판을 받게 하고 모두 죽음을 선고했다. 그렇게 하기를 마다한 탄원자 대다수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고 그 거룩한 땅에서 서로를 죽였다. 어떤 이들은 나무에 목을 매었고, 다른 이들은 저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에우리메돈이 함선 60척을 이끌고 머문 이레 동안 코르키라인은 자기들의 적으로 여긴 동료 시민들을 도륙하는 일에 매달렸다. 씌워진 죄목은 민주 정치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었으나, 사사로운 미움 때문에 죽은 자도 있었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손에 그 빚 때문에 죽은 자도 있었다. 죽음이 그렇게 온갖 모습으로 날뛰었고, 그런 때에 흔히 그러하듯 폭력이 가지 않은 데가 없었고 그보다 더한 일까지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죽었고, 탄원자가 제단에서 끌려 나오거나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어떤 이들은 디오니소스 신전 안에 벽으로 막혀 갇힌 채 거기서 죽기까지 했다.

내란이 걸어간 길은 그렇게 피로 물들었고, 그것이 남긴 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난 첫 사례 가운데 하나였던 까닭에 더욱 컸다. 뒷날에는 그리스 세계 전체가 뒤흔들렸다고 말할 수 있으니, 어디서나 민중의 우두머리들은 아테네인을 끌어들이려 다투었고 과두파는 스파르타인을 들여오려 다투었다. 평화로운 때라면 그런 초청을 할 구실도 그럴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어느 당파든 맞선 편을 해치고 그만큼 제 이익을 얻기 위해 언제든 동맹을 불러 쓸 수 있었으므로, 내란을 일으킨 당파들에게 남의 나라 사람을 끌어들일 기회가 모자란 적이 없었다. 내란이 도시들에 안긴 고통은 많고 끔찍했으며, 그런 고통은 전에도 있었고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앞으로도 언제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우가 저마다 다름에 따라 더 심하거나 덜하고 그 증상도 달라진다. 평화롭고 넉넉한 때에는 나라도 개인도 더 나은 마음을 지닌다. 거스를 수 없는 다급함 앞에 갑자기 놓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은 날마다 쓰는 것이 쉽게 들어오던 길을 끊어 버리며,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의 됨됨이를 제 처지와 같은 높이로 끌어내리는 거친 스승임을 드러낸다. 내란은 그렇게 도시에서 도시로 제 길을 달렸고, 그것이 가장 늦게 닿은 곳들은 앞서 저질러진 일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궁리를 한층 더 극단으로 정교하게 밀고 갔으니, 그것이 그들의 계획의 교활함과 보복의 잔학함으로 드러났다. 낱말은 본래의 뜻을 버리고 이제 새로 주어지는 뜻을 걸쳐야 한다. 앞뒤 없는 담대함은 당파에 충실한 용기로 여겨지고, 신중한 망설임은 겉만 그럴듯한 비겁함이 된다. 절제는 사내답지 못함을 가리는 외투로 통하고, 문제의 모든 면을 볼 줄 아는 능력은 그 어느 면에서도 행동할 줄 모르는 무능이 된다. 미친 듯한 폭력은 사내다움의 속성이 되고, 안전을 위해 따져 보는 신중함은 몸을 빼려는 그럴듯한 핑계가 된다. 극단의 방책을 주장하는 자는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에게 맞서는 자는 의심할 사람이다. 음모를 이루어 내는 것은 머리가 날카로운 것이고 음모를 알아채는 것은 그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둘 가운데 어느 쪽도 하지 않아도 되게 미리 손을 쓰려는 것은 제 당파를 깨뜨리는 것이며 맞선 편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요컨대 죄를 지으려는 자를 앞질러 손쓰는 것이나 그런 생각이 없는 자에게 죄지을

생각을 일러 주는 것이나 똑같이 칭송을 받으니, 마침내 피붙이의 끈이 당파의 끈보다 약해지기에 이른다. 당파로 묶인 자들이 거리낌 없이 무슨 일에나 더 선선히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런 결사는 이미 세워진 제도에서 나오는 복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뒤엎으려는 야심에서 만들어지며,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는 근거는 어떤 종교의 제재보다도 함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있다. 맞선 편이 내미는 공정한 제안에 두 편 가운데 더 강한 쪽은 너그러운 믿음이 아니라 시기하는 경계로 답한다. 복수가 자기 보존보다 더 무겁게 여겨진다. 화해의 맹세는 어느 쪽에서든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려고 내밀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무기가 손에 닿지 않는 동안만 유효하다. 그러나 기회가 오면 먼저 그것을 낚아채어 적의 방심을 노린 자는 이런 배신의 복수가 드러내 놓고 하는 복수보다 더 달다고 여긴다. 안전을 헤아리는 문제를 접어 두더라도, 속임수로 얻은 성공이 그에게 더 뛰어난 지혜의 월계관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실로 사람들은 어수룩한 자를 정직하다고 부르기보다 악당을 영악하다고 부르기를 더 선선히 하며, 영악한 자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어수룩한 자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흔히 그러하다. 이 모든 악의 원인은 탐욕과 야심에서 생기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며, 한번 겨룸에 들어선 당파들의 폭력은 그 열정에서 나온다. 도시마다 우두머리들은 저마다 가장 그럴듯한 명분을 갖추고서, 한쪽은 민중의 정치적 평등을 외치고 다른 쪽은 절도 있는 귀족 정치를 외치며, 자기들이 아끼는 척하는 그 공공의 이익 속에서 제 몫의 상을 찾는다. 그리고 우위를 얻으려는 다툼에서 어떤 수단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가장 참혹한 지나침에 뛰어든다. 복수에 나설 때에는 그보다 더 멀리까지 가서, 정의가 요구하는 것에도 나라의 좋음이 요구하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그때그때 당파의 변덕만을 하나뿐인 기준으로 삼으며, 그 순간의 원한을 실컷 채우기 위해 부당한 판결의 유죄 선고든 힘센 팔의 권위든

똑같이 선선히 불러들인다. 그리하여 어느 편에서도 종교는 기림을 받지 못하고, 죄 있는 목적에 이르기 위해 고운 말을 쓰는 일이 높은 평판을 얻는다. 그러는 동안 시민 가운데 온건한 쪽은 두 편 사이에서 죽어 간다. 다툼에 끼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시기가 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지러움 탓에 그리스 나라들에는 온갖 형태의 불의가 뿌리를 내렸다. 명예가 크게 들어 있던 옛 순박함은 비웃음을 받아 사라졌고, 사회는 아무도 제 동료를 믿지 않는 진영들로 갈라졌다. 이것을 끝낼 만한 것으로는 믿고 기댈 약속도, 존중을 불러낼 맹세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당파는 사정이 오래 그대로 있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셈에 넣고 있었으므로 서로를 믿을 수 있기보다 자기를 지키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았다. 이 겨룸에서 대개 이긴 것은 머리가 둔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제 모자람과 맞선 자들의 영악함을 걱정하여 말다툼에서 밀릴까, 더 재주 있는 상대의 꾀에 허를 찔릴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곧바로 담대하게 행동에 손을 댔다. 반면 그 맞선 자들은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고, 계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건방지게 생각하다가 미리 조심하지 않은 탓에 흔히 희생되었다.

그러는 동안 코르키라는 여기서 말한 죄들의 대부분에 첫 사례를 내놓았다. 절제보다는 오만으로 다스림받던 자들이 제 때가 오자 받아 낸 보복의 첫 사례였다. 몸에 익은 가난을 벗어 버리려는 마음에서 이웃의 재물을 뜨겁게 탐한 자들이 내린 사악한 결의의 첫 사례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득을 노려서가 아니라 대등한 처지에서 그 싸움에 뛰어든 사람들이 다스릴 수 없는 열정에 몰려 빠져든 야만스럽고 가차 없는 지나침의 첫 사례였다. 도시들의 삶이 그렇게 어지러움 속에 던져진 가운데, 언제나 법에 맞서 반항하며 이제는 법의 주인이 된 사람의 본성은 열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의보다 힘이 세며 뛰어난

것이면 무엇이든 원수로 삼는 모습을 기꺼이 드러냈다. 시기의 저 치명적인 힘이 없었다면 복수가 종교 위에, 이득이 정의 위에 놓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사람들은 복수를 밀고 나가면서, 역경에 빠진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저 보편의 법들을 위험한 날 그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그대로 서 있게 두는 대신, 스스로 나서서 그것을 없애는 본을 보이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내란의 열정이 그렇게 코르키라의 당파 싸움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이에 에우리메돈과 아테네 함대는 배를 몰고 떠났다. 그 뒤 달아나는 데 성공한 코르키라 망명자 500명쯤이 대륙의 요새 몇을 빼앗고 바다 건너 코르키라 영토의 주인이 되어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섬에 있는 제 나라 사람들을 노략했고, 그 해가 하도 커서 도시에 심한 기근이 일었다. 그들은 또 스파르타와 코린트에 사절을 보내 제 복귀를 교섭하게 했다. 그러나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자 뒤에 배와 용병을 모아 모두 600명쯤으로 섬에 건너갔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 말고는 아무 희망도 남지 않도록 배를 태워 버린 뒤 이스토네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요새를 쌓고 도시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여 들을 손에 넣었다.

같은 여름이 끝날 무렵 아테네인은 멜라노포스의 아들 라케스와 에우필레토스의 아들 카로이아데스의 지휘 아래 함선 20척을 시칠리아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시라쿠사인과 레온티노이인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 시라쿠사인은 카마리나를 뺀 모든 도리스 도시를 동맹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도시들은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스파르타 동맹에 들어 있었으나 그 전쟁에 몸으로 나선 적은 없었다. 레온티노이인 편에는 카마리나와 칼키스계 도시들이 섰다. 이탈리아에서는 로크리스인이 시라쿠사인 편이었고, 레기온인은 제 친족인 레온티노이인 편이었다. 레온티노이인의 동맹들은 이제 아테네로 사람을 보내 옛 동맹과 같은 이오니아 혈통을 들어, 시라쿠사인이

육지와 바다에서 자기들을 봉쇄하고 있으니 함대를 보내 달라고 아테네인을 설득했다. 아테네인은 같은 혈통이라는 명분을 들어 함대를 보냈으나, 실제로는 시칠리아의 곡물이 펠로폰네소스로 실려 나가는 것을 막고 시칠리아를 예속시킬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탈리아의 레기온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동맹들과 힘을 합쳐 전쟁을 이어 갔다.

---

1. 프록세노스 — 어떤 도시가 다른 도시에 둔 대리인. 자기 도시에 살면서 상대 도시에서 온 사절과 시민을 돌보고 그 이익을 대변했다. 국가가 주는 공직이 아니라 개인이 맡은 구실이었으므로, 본문의 '자발적 프록세노스'는 상대 도시가 정식으로 지명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2.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땅을 갈던 신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딸린 예속민으로, 수가 많아 스파르타인은 늘 그들의 봉기를 경계했다.

3. 델포이의 세발솥 —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뒤 그리스인이 델포이에 바친 청동 기념물. 세 마리 뱀이 몸을 꼬아 올린 기둥 위에 황금 세발솥을 얹은 것으로, 기둥에는 그 전쟁에 함께 나선 나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4. 푸스 — 그리스의 길이 단위로, 말뜻은 '발'이다. 1푸스는 약 30센티미터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피트)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5.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고 전한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6. 스타테르 — 그리스의 은화 단위. 도시마다 무게와 값이 달랐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11장 (제III권 제XI장) — 전쟁 제6년 — 데모스테네스의 서부 그리스 전역 — 암브라키아의 몰락

여름이 끝났다. 이어진 겨울에 역병이 두 번째로 아테네인을 덮쳤다. 역병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으나 그 창궐이 눈에 띄게 잦아들어 있던 참이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역병은 적어도 1년을 끌었고 처음의 것은 2년을 끌었는데, 아테네인을 이보다 더 괴롭히고 그들의 힘을 이보다 더 깎아 낸 것은 없었다. 대오에 든 중장보병이 4,400명이나 이 병으로 죽었고 기병이 300명 죽었으며, 그 밖에 끝내 밝혀지지 않은 수의 민중이 죽었다. 같은 때에 아테네와 에우보이아와 보이오티아에서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특히 마지막에 든 지방의 오르코메노스가 심했다.

같은 겨울에 시칠리아의 아테네인과 레기온인이 함선 30척으로 아이올로스의 섬들을 치러 나섰다. 여름에는 물이 없어 그 섬들을 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섬들에는 크니도스의 식민단인 리파라인이 사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그리 크지 않은 리파라라는 섬에 자리를 잡고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나머지 섬 디디메와 스트롱길레와 히에라를 갈아 먹는다. 히에라에서는 그 일대 사람들이 헤파이스토스가 대장간을 두고 있다고 믿는데, 밤에는 불꽃이 낮에는 연기가 그 섬에서 그토록 많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 섬들은 시켈인과 메시나인의 해안

앞에 놓여 있고 시라쿠사의 동맹이었다. 아테네인은 그 땅을 짓밟았으나 주민들이 굴복하지 않으므로 레기온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겨울이 끝나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전쟁의 다섯째 해도 그와 함께 끝났다.

이듬해 여름 펠로폰네소스인과 그 동맹은 아르키다모스의 아들 아기스의 지휘 아래 아티카를 치러 나서서 이스트모스까지 갔으나,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나므로 침공하지 못한 채 되돌아갔다. 지진이 그토록 잦던 그 무렵에 에우보이아의 오로비아이에서는 바다가 그때의 해안선에서 물러났다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돌아와 도시의 일부를 덮쳤고, 다시 물러갈 때에도 그 일부를 물속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 그래서 한때 땅이던 곳이 지금은 바다다. 주민 가운데 높은 땅으로 제때 달려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죽었다. 오푼토스의 로크리스 해안 앞 섬 아탈란테에서도 비슷한 물난리가 일어나, 아테네의 요새 일부를 쓸어 가고 바닷가에 끌어올려 둔 두 배 가운데 한 척을 부수었다. 페파레토스에서도 바다가 조금 물러났으나 물난리가 뒤따르지는 않았고, 지진이 성벽 일부와 공회당과 그 밖의 건물 몇을 무너뜨렸다. 내 생각으로는 이 현상의 원인을 지진에서 찾아야 한다. 그 충격이 가장 세차게 닿은 지점에서 바다가 뒤로 밀려났다가 갑자기 배가된 힘으로 되돌아오면서 물난리를 일으키는 것이다. 지진이 없이 이런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같은 여름에 시칠리아에서는 교전하는 여러 세력이 저마다 작전을 벌였다. 시칠리아 그리스인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고 아테네와 그 동맹이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아테네인이 참여한 싸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 적기로 한다. 아테네 장군 카로이아데스가 싸움에서 시라쿠사인에게 죽자 함대의 지휘는 라케스 한 사람에게 돌아갔고, 그는 동맹과 힘을 합해 메시나인에게 속한 곳 밀라이로

함대를 이끌었다. 밀라이의 수비대로 있던 메시나인 2개 대대가 배에서 내리는 무리를 노려 매복했으나 아테네인과 그 동맹에게 크게 죽임을 당하고 무너졌으며, 아테네인과 동맹은 그대로 방벽을 들이쳐 그들에게 아크로폴리스를 내놓고 자기들과 함께 메시나로 진군하도록 강요했다. 이 도시 또한 뒤에 아테네인과 그 동맹이 다가오자 굴복하고 인질과 그 밖에 요구받은 모든 담보를 내놓았다.

같은 여름에 아테네인은 알키스테네스의 아들 데모스테네스와 테오도로스의 아들 프로클레스에게 함선 30척을 주어 펠로폰네소스를 돌게 하고,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에게 또 다른 60척과 중장보병 2,000명을 주어 멜로스를 치게 했다. 멜로스인은 섬사람이면서도 아테네의 속민이 되기를, 아니 그 동맹에 드는 것조차 거부했으므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한 것이었다. 그 땅을 짓밟았어도 굴복을 얻어 내지 못하자 함대는 멜로스에서 닻을 올려 그라이아 지방의 오로포스로 갔고, 해가 질 무렵 배를 대자 중장보병은 곧바로 배에서 내려 육로로 보이오티아의 타나그라를 향해 떠났으며, 그곳에서 미리 맞춰 둔 신호에 따라 칼리아스의 아들 히포니코스와 투클레스의 아들 에우리메돈이 이끄는 아테네의 총동원 병력과 만났다. 그들은 진을 치고 그날은 타나그라 땅을 짓밟으며 보낸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에는 맞서 나온 타나그라인과 그들을 도우러 올라온 테베인 몇을 쳐부수고 무구 얼마를 거두어 전승 기념물을 세운 다음 물러났는데, 한쪽 병력은 도시로 가고 다른 쪽은 배로 갔다. 니키아스는 함선 60척으로 해안을 따라가며 로크리스의 연안을 짓밟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무렵 스파르타인은 트라키스에 헤라클레이아 식민시를 세웠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말리스인은 모두 세 부족, 곧 파랄리아인과 히에라인과 트라키스인으로 나뉜다. 이들 가운데 마지막 부족이 이웃 오이타이아인과의 전쟁에서 크게 시달린 끝에 처음에는 아테네에

자기들을 맡기려 했으나, 나중에 아테네에서 바라는 안전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 티사메노스를 사절로 뽑아 스파르타로 보냈다. 이 사절에는 스파르타인의 모국 도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같은 청을 들고 함께 들었는데, 그들 또한 같은 적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스파르타인은 식민단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트라키스인과 도리스인을 돕고자 한 것이기도 했고, 세우려는 도시가 아테네인과의 전쟁에 유리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도 있었다. 그곳에서 에우보이아를 겨눈 함대를 갖출 수 있었고 그 섬으로 건너가는 길이 짧다는 이점이 있었으며, 그 도시는 트라키아로 가는 길목의 기지로도 쓸 만했다. 요컨대 모든 사정이 스파르타인으로 하여금 그곳을 세우는 데 열을 올리게 했다. 먼저 델포이의 신에게 물어 좋은 답을 받은 뒤 그들은 식민단을 내보냈는데, 스파르타 시민[1]과 페리오이코이[2]로 이루어졌고, 이오니아인과 아카이아인과 그 밖의 몇몇 종족을 뺀 나머지 그리스인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 오라고 불렀다. 식민시의 창건자로는 스파르타인 세 사람, 레온과 알키다스와 다마곤이 이끌었다. 정착을 마친 뒤 그들은 이제 헤라클레이아라 불리는 도시의 성벽을 새로 쌓았다. 테르모필레에서 약 40스타디온[3], 바다에서 20스타디온 떨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조선소를 짓기 시작하면서, 지키기 쉽도록 테르모필레 쪽 면을 바로 그 좁은 길목에 붙여 막았다.

이 도시를 세운 일은 분명히 에우보이아를 괴롭히려는 뜻이었으므로 (그 섬의 케나이온으로 건너가는 길이 짧았다) 처음에는 아테네에 적잖은 불안을 일으켰으나, 뒤에 일어난 일은 그 불안을 조금도 뒷받침하지 않았고 그 도시는 아테네에 아무 골칫거리도 되지 못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았다. 그 일대에서 주권을 쥐고 있었고 그 도시가 바로 자기들의 땅 위에 세워지고 있던 테살리아인은 그것이 아주 강력한 이웃이 될까 두려워하여 새 정착민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과 싸웠고,

마침내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정착민의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스파르타인이 세운 곳이니 번영이 보장되어 있다고 여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스파르타인 자신도 그들이 보낸 총독들을 통해 그 번영을 망치고 인구를 줄이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했다. 가혹하게, 더러는 공정하지 않게 다스려 주민 대부분을 겁주어 내보냈고, 그리하여 이웃이 그들을 누르기가 더 쉬워졌다.

같은 여름, 아테네인이 멜로스에 붙들려 있던 그 무렵에, 함선 30척으로 펠로폰네소스를 돌던 그들의 동료 시민들은 레우카스의 엘로메노스에서 매복으로 파수병 몇을 베어 없앤 뒤 이어서 큰 병력을 이끌고 레우카스 자체를 치러 갔는데, 오이니아다이를 뺀 아카르나니아인의 총동원 병력과 자킨토스인과 케팔레니아인과 코르키라에서 온 함선 15척이 그들을 보강하고 있었다. 레우카스인은 레우카스 도시와 아폴론 신전이 서 있는 지협의 밖과 안에서 자기 땅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적의 수가 압도적이어서 아무 움직임도 내지 못했고, 그동안 아카르나니아인은 아테네 장군 데모스테네스에게 성벽을 쌓아 그 도시를 본토에서 끊어 놓으라고 다그쳤다. 그렇게 하면 도시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늘 자기들에게 적이었던 도시를 치워 버릴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그러나 데모스테네스는 그동안 메세니아인에게 설득된 터였다. 이만한 큰 군대가 모인 지금이 아이톨리아인을 칠 좋은 기회이며, 아이톨리아인은 나우팍토스의 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굴복시키면 본토의 그쪽 나머지 지역까지 아테네인의 것으로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었다. 아이톨리아 민족은 수가 많고 싸움을 좋아했으나 성벽 없는 마을들에 멀찍이 흩어져 살았고 가벼운 무장밖에 없었으므로, 메세니아인의 말로는 구원이 닿기 전에 큰 어려움 없이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들이 권한 계획은 먼저 아포도티아인을 치고 다음에 오피오니아인을 치고 그다음에 에우리타니아인을 치는 것이었다. 에우리타니아인은 아이톨리아에서 가장 큰 부족으로, 전하는 바로는 알아듣기가 몹시 어려운 말을 쓰고 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는다. 이들을 한번 굴복시키면 나머지는 쉽게 따라 들어올 것이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 계획에 동의했다. 메세니아인의 뜻을 맞춰 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톨리아인을 본토의 다른 동맹에 더하면 본국의 도움 없이도 보이오티아인을 치러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졸리스의 로크리스를 지나 도리스의 키티니온으로 가서 파르나소스를 오른쪽에 두고 나아가 포키스인에게 내려가는 길이었다. 포키스인은 아테네와의 오랜 우의 때문에 기꺼이 함께 나설 것으로 보였고, 그러지 않더라도 힘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포키스에 이르면 그는 이미 보이오티아의 국경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아카르나니아인의 뜻을 거스르고 레우카스에서 닻을 올려 온 병력을 이끌고 해안을 따라 솔리온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기 뜻을 그들에게 알렸다. 레우카스를 포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동의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나머지 병력, 곧 케팔레니아인과 메세니아인과 자킨토스인과 제 함선에서 데려온 아테네 함상 보병 300명을 이끌고(코르키라의 함선 15척은 떠나 버렸다) 아이톨리아인을 치러 나섰다. 근거지는 로크리스의 오이네온에 두었는데, 오졸리스의 로크리스인이 아테네의 동맹이었고 온 병력을 이끌고 내륙에서 그와 만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톨리아인의 이웃이며 무장도 같았으므로 그 지방의 지형과 주민이 싸우는 법을 알고 있어 이 원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시인 헤시오도스가 네메아에서 죽으리라고 미리 알린 신탁에 따라 그 지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라고 전하는 네메아의 제우스 성역에서 군대와 함께 야영한 뒤, 데모스테네스는 날이 밝자

아이톨리아를 치러 떠났다. 첫날에는 포티다니아를 빼앗고 이튿날에는 크로킬레를, 사흘째에는 티키온을 빼앗았다. 티키온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전리품을 로크리스의 에우팔리온으로 돌려보냈는데, 오피오니아인까지 정복을 밀고 나가되 그들이 굴복하기를 거부하면 나우팍토스로 돌아가 그들을 두 번째 원정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동안 아이톨리아인은 그 계획이 세워진 순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군대가 자기 땅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부족이 큰 병력으로 몰려왔다. 말리스 만 쪽으로 뻗어 사는 가장 먼 오피오니아인, 곧 보미아인과 칼리아인까지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그러나 메세니아인은 처음의 권고를 굽히지 않았다. 아이톨리아인은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데모스테네스를 안심시키며, 온 민족이 그에게 맞서 무장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되도록 빨리 밀고 나아가 닿는 대로 마을들을 차례차례 빼앗으라고 다그쳤다. 조언자들에게 끌리고 자기 운을 믿고, 아무 저항도 만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자기에게 가장 모자란 경장 투창병을 보내 줄 로크리스의 원군도 기다리지 않은 채 나아가 아이기티온을 들이쳐 빼앗았다. 주민들은 그 앞에서 달아나 도시 위의 언덕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도시는 바다에서 약 80스타디온 떨어진 높은 땅에 서 있었다. 그동안 아이톨리아인은 구원하러 모여들어 이제 아테네인과 그 동맹을 쳤는데, 사방의 언덕에서 달려 내려와 투창을 던지고 아테네 군대가 나아오면 물러나고 물러나면 다시 달려들었다. 오랫동안 싸움은 이런 성격이었으니,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이 번갈아 되풀이되었고 그 두 가지 다에서 아테네인이 불리했다.

그래도 궁수들에게 화살이 남아 있고 그것을 쏠 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버텼으니, 경장의 아이톨리아인이 화살 앞에서는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수들의 지휘관이 죽고 그 부하들이 흩어진 뒤에는, 같은 힘씀을 끝없이 되풀이하느라 지치고 아이톨리아인의 투창에 몰린

병사들이 마침내 돌아서 달아났고, 길 없는 골짜기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져 들어가 그렇게 죽었는데, 길잡이였던 메세니아인 크로몬까지 불행히도 죽고 말았다. 아주 많은 수가 추격하는 발 빠르고 가볍게 무장한 아이톨리아인에게 따라잡혀 그들의 투창 아래 쓰러졌다. 그러나 더 많은 수는 길을 잃고 숲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숲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고 적이 곧 불을 놓아 그들을 둘러싸고 태웠다. 실로 아테네 군대는 온갖 모양의 죽음에 희생되었고 도주가 가져오는 온갖 변고를 다 겪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간신히 바다로, 그리고 처음 떠나온 곳인 로크리스의 오이네온으로 달아났다. 동맹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테네 중장보병도 120명쯤 죽었는데, 그만한 수가 모두 같은 한창때의 사람들이었다. 이 전쟁 중에 쓰러진 아테네 시민 가운데 이들이 단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죽은 사람 가운데에는 데모스테네스의 동료 지휘관 프로클레스도 있었다. 그동안 아테네인은 아이톨리아인에게서 휴전을 얻어 제 주검을 거두고 나우팍토스로 물러났으며, 거기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다. 데모스테네스는 나우팍토스와 그 근처에 남았으니, 그런 재앙을 겪은 뒤에 아테네인을 마주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무렵 시칠리아 연안의 아테네인은 로크리스로 항해해 가서 배에서 내려 상륙하여 자기들에게 맞서 온 로크리스인을 쳐부수고 할렉스 강의 요새 하나를 빼앗았다.

같은 여름에 아이톨리아인은 아테네의 원정이 있기 전에 오피오니아인 톨로포스와 에우리타니아인 보리아데스와 아포도티아인 티산드로스로 이루어진 사절을 코린트와 스파르타에 보내 두었는데, 아테네의 침공을 불러들인 나우팍토스를 치도록 군대를 보내 달라는 청을 얻어 냈다. 이에 스파르타인은 가을이 가까워질 무렵 동맹의 중장보병 3,000명을 내보냈는데, 그 가운데 500명은 트라키스에 새로

세운 도시 헤라클레이아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지휘는 스파르타 시민 에우릴로코스가 맡았으며 같은 스파르타 시민인 마카리오스와 메네다이오스가 그와 함께 갔다.

군대가 델포이에 모이자 에우릴로코스는 오졸리스의 로크리스인에게 전령을 보냈다. 나우팍토스로 가는 길이 그들의 땅을 지나갔고, 게다가 그는 그들을 아테네에서 떼어 낼 생각을 품고 있었다. 로크리스에서 그를 가장 많이 도운 것은 암피사인이었는데, 그들은 포키스인의 적의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들이 먼저 스스로 인질을 내놓고, 침공해 온 군대를 두려워하던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냈다. 먼저 가장 험한 길목을 쥐고 있던 이웃 미오니아인이 그리했고, 그다음으로 이프니아인과 메사피아인과 트리타이아인과 칼라이아인과 톨로폰인과 헤사인과 오이안테아인이 그리했으며, 이들은 모두 원정에 함께 들었다. 올파이인은 인질만 내놓는 것으로 그치고 침공에는 따라가지 않았으며, 히아이아인은 자기들 마을 가운데 하나인 폴리스가 함락될 때까지 인질 내놓기를 거부했다.

준비를 마친 에우릴로코스는 인질들을 도리스의 키티니온에 두고 로크리스인의 땅을 지나 나우팍토스로 나아갔으며, 가는 길에 그에게 합류하기를 거부한 그들의 도시 둘, 오이네온과 에우팔리온을 빼앗았다. 나우팍토스 땅에 이르러 이제 아이톨리아인까지 합류하자 군대는 그 땅을 짓밟고 성벽이 없던 도시의 바깥 구역을 빼앗았으며, 그다음에는 아테네에 예속된 코린트의 식민시 몰리크리온도 빼앗았다. 그동안 아이톨리아의 일이 있은 뒤로 나우팍토스 근처에 머물러 있던 아테네인 데모스테네스는 그 군대의 소식을 듣고 도시가 걱정되어 아카르나니아인에게 가서 나우팍토스를 구원하러 가자고 설득했는데, 그가 레우카스를 떠나 버린 일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 이에 그들은 중장보병 1,000명을 그의 함선에 태워 함께 보냈고, 이들이 그곳에

뛰어들어 도시를 구했다. 성벽은 길고 지키는 사람은 적어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도시는 가장 큰 위험에 놓였을 것이었다. 그동안 에우릴로코스와 그 동료들은 이 병력이 들어간 것을 알고 도시를 들이쳐 빼앗을 수 없음을 깨닫고 물러났는데, 펠로폰네소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한때 아이올리스라 불리고 지금은 칼리돈과 플레우론이라 불리는 지방과 그 근처의 여러 곳, 그리고 아이톨리아의 프로스키온으로 갔다. 암브라키아인이 와서 암필로키아의 아르고스와 암필로키아와 아카르나니아의 나머지를 치는 일에 힘을 합하자고 그들을 다그쳤기 때문이며, 이 지방들을 정복하면 본토 전체가 스파르타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에우릴로코스는 이에 동의하고 아이톨리아인을 돌려보낸 뒤, 암브라키아인이 싸움터로 나서고 자기가 아르고스 앞에서 그들과 합칠 때가 오기까지 군대와 함께 그 일대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여름이 끝났다. 이어진 겨울에 시칠리아의 아테네인은 그리스인 동맹과, 시라쿠사의 속민이거나 동맹이던 시켈인 가운데 시라쿠사를 버리고 자기들의 군대에 든 자들과 함께 시켈인의 도시 이네사로 진군했다. 그 아크로폴리스는 시라쿠사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시를 쳤으나 빼앗지 못하고 물러났다. 물러나는 길에 아테네인의 뒤를 따라 물러나던 동맹이 요새에서 나온 시라쿠사인에게 공격을 받아 그 군대의 일부가 무너지고 적잖은 수가 죽었다. 그 뒤 라케스와 아테네인은 배에서 내려 로크리스에 여러 차례 상륙했고, 카이키노스 강에서 카파톤의 아들 프로크세노스와 함께 맞서 온 로크리스인 300명쯤을 쳐부수고 무구 얼마를 거두어 떠났다.

같은 겨울에 아테네인은 델로스를 정화했는데, 어떤 신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에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 섬을 정화한 적이 있었으나, 섬 전체가 아니라 신전에서 보이는 만큼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섬 전체를 정화했다. 델로스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모두 파냈고, 앞으로는 누구도 그 섬에서 죽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레네아로 옮겨 가도록 명했다. 레네아는 델로스에 아주 가까워서, 사모스의 참주 폴리크라테스가 해상의 패권을 쥐고 있던 시절에 정복한 여러 섬에 레네아를 더한 뒤 그것을 쇠사슬로 델로스에 매어 델로스의 아폴론에게 봉납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아테네인은 정화를 마친 뒤 델로스 경기의 5년제 축제[4]를 처음으로 열었다. 실로 옛날에는 이오니아인과 이웃 섬사람들이 델로스에 크게 모였으니, 지금 이오니아인이 에페소스의 축제에 가는 것처럼 그 축제에 왔고, 그곳에서 운동 경기와 음악 경연이 열렸으며 여러 도시가 춤추는 무리를 데려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폴론 찬가에서 가져온 다음의 호메로스 시구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다.

포이보스여, 당신의 마음을 무엇보다 기쁘게 한 곳은 델로스였나니, 그곳에 옷자락 끌리는 이오니아인이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당신의 거리로 모여들어 겨룸의 자리를 마련할 때마다 권투와 춤과 노래로 당신을 기리며 당신을 기쁘게 하네.

사람들이 겨루러 간 음악 경연 또한 있었다는 것은 같은 찬가에서 가져온 다음 구절이 보여 준다. 그는 델로스 여인들의 춤을 기린 뒤에 이런 시구로 찬가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함께 가리킨다.

자, 아폴론께서 아르테미스와 함께 자비를 베푸시기를. 그대들 모두 안녕히. 그리고 뒷날에도 나를 기억해 다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생 많은 또 다른 나그네가 이곳에 와서 '처녀들이여, 이곳을 찾는 가객 가운데 누가 가장 달콤하며 그대들은 누구를 가장 즐기느냐' 묻는다면, 그대들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답해 다오. '눈먼 사람이니, 바위 많은 키오스[5]에 산다고.'

호메로스는 이렇게 옛날 델로스에 큰 모임과 축제가 있었음을 증언한다. 뒷날에는 섬사람들과 아테네인이 제물과 함께 춤추는 무리를 계속 보냈으나 아마도 고난 때문에 경연과 의식 대부분이 없어졌고, 그러다 이번에 아테네인이 경마라는 새로운 종목을 더해 그 경기를 열게 된 것이었다.

같은 겨울에 암브라키아인은 에우릴로코스의 군대를 붙들어 둘 때 그에게 약속한 대로 중장보병 3,000명을 이끌고 암필로키아의 아르고스를 치러 나아가, 아르고스 땅에 들어가 올파이를 차지했다. 올파이는 바다 가까운 언덕 위의 요새로, 전에 아카르나니아인이 성벽을 쌓아 온 민족의 재판을 여는 곳으로 쓴 데였으며, 해안에 있는 아르고스 시에서 약 25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그동안 아카르나니아인은 병력의 일부를 이끌고 아르고스를 구원하러 갔고 나머지는 암필로키아의 크레나이, 곧 '샘'이라 불리는 곳에 진을 쳐서 에우릴로코스와 그의 펠로폰네소스인을 지켜보며 그들이 지나가 암브라키아인과 합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면서 아이톨리아 원정을 이끌었던 데모스테네스를 자기들의 지휘자로 청해 불렀고, 티모크라테스의 아들 아리스토텔레스와 안팀네스토스의 아들 히에로폰이 지휘하여 펠로폰네소스 앞바다를 돌던 아테네 함선 20척도 불렀다. 한편 올파이의 암브라키아인은 제 도시로 사람을 보내 총동원 병력을 이끌고 도우러 와 달라고 청했다. 에우릴로코스의 군대가 아카르나니아인을 지나오지 못할까, 그리하여 자기들만 외롭게 싸워야 하거나 물러나고자 할 때 위험 없이는 물러날 수 없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에우릴로코스와 그의 펠로폰네소스인은 암브라키아인이 올파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합치려 프로스키온에서 서둘러 떠났으며, 아켈로오스를 건너 아카르나니아를 지나 나아갔는데, 주민들이 아르고스를 구원하러 가서 그 땅은 비어 있었다. 오른쪽에는

스트라토스인의 도시와 그 수비대를 두고 왼쪽에는 아카르나니아의 나머지를 두었다. 스트라토스인의 땅을 지나 피티아를 통과해 나아갔고, 다음에는 메데온을 스쳐 림나이아를 지났다. 그러고 나서 아카르나니아를 뒤로 두고 우호적인 땅인 아그라이아인의 지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아그라이아인에게 속한 티마오스 산에 이르러 그것을 넘고 날이 저문 뒤 아르고스 땅으로 내려갔으며, 아르고스 시와 크레나이의 아카르나니아 진지 사이를 지나 올파이의 암브라키아인과 합쳤다.

날이 밝을 때 여기서 하나가 된 그들은 메트로폴리스라 불리는 곳에 자리를 잡고 진을 쳤다. 오래지 않아 함선 20척의 아테네인이 아르고스인을 도우러 암브라키아 만으로 들어왔고, 데모스테네스와 메세니아 중장보병 200명과 아테네 궁수 60명이 함께 왔다. 함대가 올파이 앞바다에서 그 언덕을 바다 쪽에서 막고 있는 동안, 아카르나니아인과 암필로키아인 몇은 이미 아르고스에 이르러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암필로키아인 대부분은 암브라키아인이 힘으로 붙들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데모스테네스를 뽑아 자기들의 장군들과 함께 동맹군 전체를 지휘하게 했다. 데모스테네스는 그들을 올파이 가까이 이끌고 가서 진을 쳤는데, 큰 협곡이 두 군대를 갈라놓고 있었다. 닷새 동안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엿새째에 양편이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의 군대가 더 커서 맞선 편의 날개를 넘어 뻗었으므로, 데모스테네스는 자기 오른쪽이 둘러싸일까 두려워 떨기나무가 무성한 우묵한 길에 중장보병과 경장 병력 400명쯤을 매복시켜, 싸움이 붙는 순간에 튀어나와 앞으로 뻗어 나온 적의 왼쪽 날개 뒤를 잡게 했다. 양편이 준비를 마치자 싸움이 붙었다. 데모스테네스는 메세니아인과 아테네인 몇과 함께 오른쪽 날개에 있었고, 전열의 나머지는 아카르나니아인의 여러 부대와 암필로키아

투창병으로 채워져 있었다. 펠로폰네소스인과 암브라키아인은 뒤섞여 늘어섰고 만티네이아인만 왼쪽에 뭉쳐 있었으나 날개의 끝까지는 미치지 않았는데, 그 끝에서는 에우릴로코스와 그의 병력이 메세니아인과 데모스테네스를 마주하고 있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은 이제 싸움에 깊이 들어가 넘쳐 뻗은 날개로 적의 오른쪽을 돌아 꺾으려는 참이었는데, 그때 매복해 있던 아카르나니아인이 뒤에서 그들을 덮쳐 첫 공격에 무너뜨렸고 그들은 버티고 맞서지 못했다. 그들이 빠진 공포가 군대 대부분을 달아나게 했으니, 에우릴로코스의 부대와 자기들의 가장 좋은 병력이 베여 쓰러지는 것을 보고 한없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 일의 대부분은 싸움터의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던 데모스테네스와 그의 메세니아인이 해냈다. 그동안 암브라키아인(그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병사들이다)과 오른쪽 날개의 병력은 맞선 부대를 쳐부수고 아르고스까지 그것을 쫓아갔다. 추격에서 돌아온 그들은 본대가 패한 것을 알아보았고, 아카르나니아인에게 몰리면서 간신히 올파이로 길을 뚫었으나 가는 길에 큰 손실을 입었다. 규율도 대오도 없이 내달렸기 때문이며, 물러나는 동안 군대 가운데 대오를 가장 잘 지킨 만티네이아인만 예외였다.

싸움은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다. 이튿날 에우릴로코스와 마카리오스가 죽어 홀로 지휘를 이어받은 메네다이오스는 그토록 뚜렷한 패배를 겪은 뒤에 어떻게 머물러 포위를 견뎌야 할지 막막했으니 육지로도 막히고 바다로는 아테네 함대에 막혀 있었으며, 어떻게 무사히 물러날지도 그만큼 막막했으므로, 데모스테네스와 아카르나니아의 장군들에게 휴전과 퇴각의 허락을, 아울러 주검을 거둘 것을 두고 교섭을 열었다. 그들은 주검을 그에게 돌려주었고, 전승 기념물을 세운 뒤 자기들의 주검도 300구가량 거두었다. 요구받은 퇴각은 군대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그러나 데모스테네스와 그의 아카르나니아 동료들은 만티네이아인과 메네다이오스와 그 밖의 펠로폰네소스인 지휘관들과 유력자들에게는 지체 없이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몰래 주었다. 암브라키아인과 이방인 용병 무리에게서 그들을 받쳐 주는 자들을 떼어 내고자 했고, 무엇보다 그 일대의 그리스인에게 스파르타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이 배신자이며 제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라는 평판을 얻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적이 제 주검을 거두어 할 수 있는 대로 급히 묻고 허락을 얻은 자들이 몰래 퇴각을 꾸미던 동안, 데모스테네스와 아카르나니아인에게 소식이 들어왔다. 도시의 암브라키아인이 올파이에서 처음 온 전갈에 따라 총동원 병력을 이끌고 암필로키아를 지나 올파이의 동포와 합치러 행군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데모스테네스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갈 준비를 했고, 그러는 동안 곧바로 군대의 일부를 앞서 보내 길을 막고 요긴한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그사이 그 합의에 든 만티네이아인과 그 밖의 사람들은 풀과 땔나무를 모으러 간다는 구실로 밖에 나가 둘씩 셋씩 몰래 빠져나갔고, 가는 길에 나온 목적이라고 내세운 것들을 실제로 뜯어 모으면서 올파이에서 얼마간 멀어질 때까지 그리하다가 그다음에는 걸음을 빨리했다. 암브라키아인과 그들과 함께 더 큰 무리로 나온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서둘러 나아가며 따라잡으려고 달렸다. 아카르나니아인은 처음에 모두가 똑같이 허락 없이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펠로폰네소스인을 쫓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배신당하고 있다고 믿어, 그들을 막으며 허락이 주어진 것이라고 알려 준 자기들의 장군 몇에게 투창을 한두 자루 던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끝내는 만티네이아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을 지나가게 하고 암브라키아인만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 암브라키아인인지

펠로폰네소스인인지 가려내는 일에 다툼과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게 죽은 수는 200명쯤이었다. 나머지는 이웃한 아그라이아 땅으로 달아나 아그라이아인의 우호적인 왕 살린티오스에게서 피할 곳을 얻었다.

그동안 도시에서 온 암브라키아인은 이도메네에 이르렀다. 이도메네는 높은 언덕 둘로 되어 있는데, 데모스테네스가 앞서 보낸 병력이 날이 저문 뒤 그 가운데 높은 쪽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암브라키아인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암브라키아인은 그동안 낮은 쪽으로 올라가 그 아래에서 야영하고 있었다. 데모스테네스는 저녁을 먹고 날이 저물자 곧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떠났는데, 자기는 병력의 절반을 데리고 좁은 길목으로 향하고 나머지는 암필로키아의 언덕을 넘어가게 했다. 새벽에 그는 아직 자리에 누워 있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모르는 암브라키아인을 덮쳤는데, 그들은 다가오는 것이 제 동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데모스테네스가 일부러 메세니아인을 앞에 세우고 도리스 방언으로 말을 걸게 했기 때문이며, 아직 밤이어서 파수병들은 그들을 볼 수 없었으므로 그렇게 하여 믿음을 심어 주려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치자마자 그들의 군대를 무너뜨렸고, 대부분을 그 자리에서 죽였으며 나머지는 언덕을 넘어 달아나 흩어졌다. 그러나 길은 이미 막혀 있었고, 암필로키아인은 자기 땅을 알았으나 암브라키아인은 알지 못해 어느 쪽으로 돌아야 할지 가릴 수 없었으며, 게다가 가볍게 무장한 적을 상대로 무거운 무장을 걸치고 있었으므로 협곡으로, 그리고 자기들을 노려 놓아둔 매복으로 떨어져 들어가 거기서 죽었다. 온갖 방도로 벗어나려 애쓰던 가운데 더러는 멀지 않은 바다로 향했고, 싸움이 벌어지는 바로 그때 아테네 함선이 해안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리로 헤엄쳐 갔으니, 그 겁에 질린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야만스럽고 미움받는 암필로키아인의 손보다는 아테네인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렇게 무너진 암브라키아의 큰 병력

가운데 도시에 무사히 닿은 것은 몇 사람뿐이었다. 아카르나니아인은 주검에서 무구를 벗겨 내고 전승 기념물을 세운 뒤 아르고스로 돌아갔다.

이튿날 올파이에서 아그라이아인에게로 달아난 암브라키아인이 보낸 전령이 와서, 첫 싸움 뒤에 쓰러진 주검을 거두게 해 달라고 청했다. 만티네이아인과 그 일행이 진영을 떠날 때 그들처럼 허락을 받지는 못한 채 함께 나섰다가 쓰러진 자들이었다. 도시에서 온 암브라키아인의 무구를 보고 전령은 그 수에 놀랐는데, 그 참변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이 제 편 사람들의 무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에게 무엇에 그토록 놀랐느냐고, 그들 가운데 몇이 죽었느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또 이 전령이 이도메네의 병력에서 온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전령이 답했다. "200명쯤이오." 그러자 물은 사람이 말을 받았다. "아니, 여기 보이는 무구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의 것이오." 전령이 되물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싸운 자들의 무구가 아니오?" 상대가 답했다. "그들의 것이오. 적어도 그대들이 어제 이도메네에서 싸웠다면 말이오." "그러나 우리는 어제 아무와도 싸우지 않았소. 그저께 물러나는 길에 싸웠을 뿐이오." "그것이 어떻든, 우리는 어제 암브라키아 도시에서 그대들을 보강하러 온 자들과 싸웠소." 전령이 이 말을 듣고 도시에서 온 원군이 몰살했음을 알자 통곡을 터뜨렸고, 눈앞의 재앙이 얼마나 큰지에 넋을 잃고 제 일을 이루지도, 주검을 다시 청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떠나갔다. 실로 이것은 이 전쟁 동안 같은 날수 안에 어느 한 그리스 도시에 닥친 재앙 가운데 단연 가장 큰 것이었다. 죽은 사람의 수를 내가 적지 않은 것은, 전하는 수가 그 도시의 크기에 비해 너무 어울리지 않아 믿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내가 안다. 아카르나니아인과 암필로키아인이 아테네인과 데모스테네스가 권한 대로 암브라키아를 빼앗으려 했다면 첫 공격에

그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테네인이 그곳을 쥐면 지금보다 더 나쁜 이웃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 뒤 아카르나니아인은 전리품의 3분의 1을 아테네인에게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여러 도시에 나누었다. 아테네인의 몫은 본국으로 가는 뱃길에서 빼앗겼다. 지금 아티카의 신전들에 봉납되어 있는 무구는 아카르나니아인이 데모스테네스를 위해 따로 떼어 둔 무구 일습[6] 300벌이며, 그가 몸소 아테네로 가져온 것이다. 아이톨리아의 재앙을 겪은 뒤 그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이 공적으로 덜 위태로워졌다. 함선 20척의 아테네인도 나우팍토스로 떠났다. 아카르나니아인과 암필로키아인은 데모스테네스와 아테네인이 떠난 뒤, 살린티오스와 아그라이아인에게 피해 있던 암브라키아인과 펠로폰네소스인에게 오이니아다이에서 자유로이 물러가도록 허락했으니, 그들은 살린티오스의 땅에서 그곳으로 옮겨 가 있었다. 그리고 앞날을 위해 암브라키아인과 100년 기한의 조약과 동맹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맺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동맹이어야 했다. 암브라키아인은 아카르나니아인과 함께 펠로폰네소스인을 치러 나아가도록 요구받을 수 없고, 아카르나니아인도 암브라키아인과 함께 아테네인을 치러 나아가도록 요구받을 수 없었다. 그 밖에 암브라키아인은 암필로키아인에게서 쥐고 있던 땅과 인질을 내놓아야 했고, 아카르나니아인과 원수가 된 아낙토리온을 돕지 않아야 했다. 이 합의로 그들은 전쟁을 끝냈다. 그 뒤 코린트인은 자기 시민으로 이루어진 수비대를 암브라키아에 보냈는데, 중장보병 300명이었고 에우티클레스의 아들 크세노클레이데스가 이끌었으며, 본토를 가로지르는 힘든 길을 지나 목적지에 닿았다. 암브라키아 사건의 역사는 이러했다.

같은 겨울에 시칠리아의 아테네인은 내륙에서 히메라의 국경을 넘어 들어간 시켈인과 힘을 합해 배에서 내려 히메라 땅에 상륙했고, 아이올로스의 섬들로도 항해해 갔다. 레기온으로 돌아와서는 이솔로코스의 아들 아테네 장군 피토도로스가 라케스를 대신해 함대의 지휘를 맡으러 와 있는 것을 보았다. 시칠리아의 동맹이 아테네로 건너가 더 많은 배를 도우러 보내도록 아테네인을 움직여 놓은 것이었다. 이미 육지를 장악한 시라쿠사인이 몇 척 안 되는 배에 더는 바다에서 막히지 않으려고 해군을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아테네인은 그들에게 보낼 함선 40척에 사람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리하면 시칠리아의 전쟁이 더 빨리 끝나리라 생각했고 아울러 자기들의 해군을 훈련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피토도로스가 배 몇 척을 이끌고 먼저 파견되었고, 소스트라티데스의 아들 소포클레스[7]와 투클레스의 아들 에우리메돈이 본대를 이끌고 뒤따를 예정이었다. 그동안 피토도로스는 라케스의 함선을 지휘하게 되었고, 겨울이 끝날 무렵 전에 라케스가 빼앗았던 로크리스의 요새를 치러 갔으나 싸움에서 로크리스인에게 패한 뒤 돌아왔다.

바로 이 봄 무렵에 전에도 그랬듯이 에트나에서 불의 흐름이 흘러나와 에트나산에 사는 카타나인의 땅 얼마를 망가뜨렸다. 에트나는 시칠리아에서 가장 큰 산이다. 전하는 바로는 지난번 분출에서 50년이 지났고, 그리스인이 시칠리아에 산 뒤로 모두 세 번 있었다고 한다. 그해 겨울의 일은 이러했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전쟁의 여섯째 해가 그와 함께 끝났다.

---

1.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2. 페리오이코이 — 스파르타 주변의 자유민. 스파르타에 딸린 도시에 살며 군역을 졌으나 완전시민권은 없었다.

3.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이 장의 다른 거리 표기도 모두 같다.

4. 5년제 축제 — 크롤리는 이 축제를 quinquennial(5년마다)이라고 옮겼다. 그리스인은 해를 셀 때 시작하는 해와 끝나는 해를 모두 넣었으므로, 실제로는 4년마다 열린 축제였다. 올림피아 경기를 헤아리던 셈법과 같다.

5. 키오스 — 크롤리의 시구는 이 섬을 Scio라고 적었다. 중세 이래 서양에서 키오스를 부른 이름이다. 눈먼 사람은 호메로스 자신을 가리킨다.

6. 무구 일습 — 중장보병 한 사람이 갖추는 무구 전부를 한 벌로 헤아린 것이다. 방패와 투구와 가슴받이와 정강이받이에 창과 검이 딸렸다. 싸움에서 거둔 무구를 신전에 봉납하는 것이 관례였다.

7. 소포클레스 — 아테네 장군으로, 같은 이름의 비극 작가와는 다른 사람이다.

12장 (제IV권 제XII장) — 전쟁 제7년 — 필로스 점령 — 스팍테리아의 스파르타군 항복

이듬해 여름 곡식이 이삭을 맺을 무렵 시라쿠사 함선 10척과 같은 수의 로크리스 함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로 가서 그곳 주민들의 초청을 받아 도시를 차지했고, 메시나는 아테네에 반기를 들었다. 시라쿠사인들이 이 일을 꾸민 주된 까닭은 그곳이 시칠리아로 들어오는 길목이 되는 것을 보고 아테네인들이 뒷날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더 큰 군세로 자기들을 치지 않을까 두려워한 데 있었고, 로크리스인들의 까닭은 해협 양쪽에서 싸움을 이어 가며 제 원수인 레기온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한 데 있었다. 한편 로크리스인들은 레기온이 메시나를 돕지 못하게 하려고, 또 자기들 쪽에 와 있던 레기온 망명자 몇이 권하기도 하여 온 병력을 들어 레기온 땅으로 쳐들어갔다. 그 도시는 오랜 내분으로 갈가리 찢겨 당장은 맞설 힘이 없었으므로 침입자들에게는 그만큼 더 구미가 당기는 먹잇감이었다. 로크리스의 지상군은 그 땅을 짓밟은 뒤 물러갔고, 함선들은 메시나를 지키려 그대로 남았으며, 그곳을 근거지로 전쟁을 이어 가려고 같은 곳으로 보낼 다른 배들에도 사람을 태우고 있었다.

같은 무렵 봄에, 곡식이 여물기 전에 펠로폰네소스인과 그 동맹들은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의 아들 아기스의 지휘 아래 아티카를 침공하여 진을 치고 그 땅을 짓밟았다. 그사이 아테네인들은 시칠리아로 보내려고 준비해 두었던 함선 40척을 남은 장군인 에우리메돈과 소포클레스[1]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들의 동료인 피토도로스는 이미 먼저

그리로 가 있었다. 이들은 항해 길에 들러 도시 안의 코르키라인들을 살피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는데, 그들이 산속의 망명자들에게 약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망명자들을 돕고자 얼마 전 펠로폰네소스 함선 60척이 떠났으니, 도시에 번지는 굶주림 때문에 그곳을 굴복시키기가 쉬우리라고 여긴 것이었다. 아카르나니아에서 돌아온 뒤 맡은 일 없이 지내던 데모스테네스도 청을 넣어, 원한다면 펠로폰네소스 해안에서 이 함대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얻었다.

라코니아 앞바다에서 그들은 펠로폰네소스 함선들이 이미 코르키라에 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에우리메돈과 소포클레스는 그 섬으로 서둘러 가려 했으나 데모스테네스는 항해를 이어 가기 전에 먼저 필로스에 들러 거기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이의를 내놓는 사이 마침 돌풍이 일어 함대를 필로스로 몰아넣었다. 데모스테네스는 곧바로 그곳에 요새를 쌓자고 재촉했는데, 바로 이 일 때문에 항해에 따라나섰던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돌과 재목이 넉넉하고 지형 자체가 험해 지키기 좋으며 둘레의 넓은 땅과 더불어 비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짚어 보였다. 필로스, 곧 스파르타인들이 부르는 이름으로는 코리파시온은 스파르타에서 약 400스타디온[2] 떨어져 있었고 메세니아인의 옛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그에게, 그런 곳을 차지하여 나라에 비용을 지우고 싶다면 펠로폰네소스에 인적 없는 곶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곳이 바로 곁에 항구를 두었다는 점에서 그런 종류의 다른 곳들과 다르다고 보았고, 그 땅의 옛 주민으로 스파르타인과 같은 말을 쓰는 메세니아인들이 이곳에서 나가 침입하면 스파르타인에게 더없이 큰 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믿음직한 수비대가 되어 주리라고 보았다.

그는 장군들도 병사들도 설득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부대장들에게도 이야기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자, 날씨가 사나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병사들 자신이 할 일이 없어 지루해진 끝에 문득 둘러 가며 그곳에 요새를 쌓자는 마음이 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격적으로 일에 매달렸는데, 쇠 연장이 없었으므로 돌을 주워 모아 서로 맞는 대로 쌓아 올렸고, 반죽이 필요한 곳에서는 나를 통이 없어 등에 지고 날랐으니, 몸을 굽혀 반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두 손을 등 뒤로 맞잡아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다. 스파르타인들이 닿기 전에 가장 허술한 곳만이라도 마무리하려고 그들은 온 힘을 다했는데, 그곳 대부분은 더 쌓지 않아도 지형만으로 충분히 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파르타인들은 축제를 지내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 자기들이 마음먹고 나서기만 하면 적이 곧바로 그곳을 비우거나 힘으로 쉽게 빼앗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들의 군대가 아테네 앞에 나가 있었던 것도 이 지체에 얼마간 몫을 했다. 아테네인들은 엿새 만에 뭍 쪽과 가장 손질이 필요한 곳에 요새를 쌓았고, 데모스테네스에게 함선 5척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한 뒤 함대의 주력은 코르키라와 시칠리아를 향한 항해를 서둘렀다.

아티카에 있던 펠로폰네소스인들은 필로스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갔으니, 스파르타인들과 그들의 왕 아기스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 절실하게 닿는 문제라고 여겼다. 게다가 철 이르게, 곡식이 아직 푸를 때 침공한 터라 병력 대부분이 양식이 모자랐고, 날씨도 그 계절치고는 유난히 사나워 군대를 몹시 괴롭혔다. 이렇게 여러 까닭이 겹쳐 그들의 철수를 재촉했고 이번 침공을 매우 짧게 만들었으니, 실제로 그들은 아티카에 15일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같은 무렵 아테네 장군 시모니데스는 수비대들에서 아테네인 약간과 그 지방 동맹군 여럿을 끌어모아 트라키아의 에이온을 내응으로 빼앗았는데, 그곳은 멘데의 식민시로 아테네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손에 넣기가 무섭게 칼키디케인과 보티아이아인이 올라와 그를 거기서 몰아냈고 그는 병사를 많이 잃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티카에서 돌아오자 스파르타 시민[3]들과 가장 가까운 페리오이코이[4]가 곧바로 필로스로 떠났고, 나머지 스파르타인들은 막 다른 전역에서 돌아온 참이라 더 느리게 뒤따랐다. 펠로폰네소스 전역에 되도록 빨리 필로스로 오라는 전갈도 돌렸다. 한편 코르키라에 가 있던 펠로폰네소스 함선 60척을 불러들였는데, 승무원들이 레우카스의 지협 너머로 배를 끌어 옮긴 덕분에 자킨토스에 있던 아테네 함대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나 필로스에 닿았고, 그곳에는 지상군이 먼저 와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들어오기 전에 데모스테네스는 틈을 내어 함선 2척을 몰래 내보내, 자킨토스의 함대에 타고 있던 에우리메돈과 아테네인들에게 필로스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리고 구원을 청했다. 그 배들이 데모스테네스의 명을 좇아 서둘러 떠나는 동안 스파르타인들은 뭍과 바다 양쪽에서 요새를 들이칠 채비를 했는데, 급히 지은 데다 변변찮은 수비대가 지키는 진지쯤은 쉽게 빼앗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아테네 함선들이 자킨토스에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전에 그곳을 빼앗지 못할 경우에는 항구의 입구를 막아 그 안에 닻을 내리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스팍테리아섬이 항구 바로 앞에 길게 늘어서 있어 항구를 안전하게 해 주는 동시에 그 입구를 좁혀 놓았으니, 필로스와 아테네인의 요새에 가까운 쪽에는 함선 2척이 지날 만한 물길이, 나머지 본토에 가까운 쪽에는 8척이나 9척이 지날 만한 물길이 남았다. 그 밖에 이 섬은 온통 숲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아 가로지르는 길이 없었으며, 길이는 15스타디온쯤 되었다. 스파르타인들은 이 물목들을 함선을 다닥다닥 붙여 세우고 뱃머리를 바다 쪽으로 돌린 줄로 막을 작정이었다. 그러면서 적이 이 섬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하여 중장보병 얼마를 그리로 건네 보내고 다른 병력은 해안을 따라 배치했다. 이렇게 하면 섬도 대륙도 아테네인에게는 똑같이 적지가 되어 어느 쪽에도 내릴 수 없을 것이었고, 물목 바깥쪽으로 트인 바다를 향한 필로스 자체의 해안에는 항구가 없어 제 동포를 구원할 근거지로 삼을 만한 지점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자기들 곧 스파르타인들은 해전도 위험도 없이 십중팔구 그곳의 주인이 되리라고 보았으니, 그곳은 갑작스레 점령된 데다 양식도 갖추지 못한 터였다. 이렇게 정한 뒤 그들은 모든 부대에서 제비를 뽑아 중장보병을 섬으로 건네 보냈다. 그전에도 교대 부대로 건너간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마지막으로 그곳에 남은 이들은 420명이었고 헬롯[5] 시종들을 데리고 있었으며 몰로브로스의 아들 에피타다스가 지휘했다.

한편 데모스테네스는 스파르타인들이 바다와 뭍에서 한꺼번에 자기를 치려는 것을 보고 그 자신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남겨진 배들 가운데 아직 남아 있던 삼단노선들을 요새 아래로 끌어올려 목책으로 둘러쳤고, 거기서 내린 수병들을 변변찮은 방패로 무장시켰는데 대부분 버들가지로 엮은 것이었다. 그런 황량한 곳에서는 무구를 구할 길이 없었고, 그나마 이것들도 마침 그들에게 와 있던 메세니아의 30노 사략선 한 척과 메세니아 사람들의 배 한 척에서 얻은 것이었다. 이 메세니아인들 가운데는 중장보병 40명이 있었는데 그는 이들도 나머지와 함께 썼다. 무장한 자와 무장하지 않은 자 대부분을 안쪽으로 향한 곳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험한 자리에 세워 지상군의 어떠한 공격도 물리치라고 명한 다음, 그는 전 병력에서 중장보병 60명과 궁수 약간을 골라 이들을 데리고 성벽 밖으로 나가 바다까지 내려갔으니, 적이 상륙을 꾀할 만한 곳이 바로 거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곳은 땅이 험하고 바위투성이인 데다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바로 그곳이 성벽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적의

기세를 돋우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테네인들은 제 해군의 우세를 믿고 이곳의 방비에는 거의 마음을 쓰지 않았으므로, 적이 힘으로 상륙만 해낸다면 그곳을 빼앗는 것은 틀림없다고 여길 만했다. 그리하여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물가까지 내려가 중장보병을 세워 될 수 있는 대로 상륙을 막게 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북돋았다.

병사들이여, 이 모험을 함께하는 동지들이여, 지금 이 궁지에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둘러싼 온갖 위험을 낱낱이 헤아려 보임으로써 제 영리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승산을 따지느라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 적에게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을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것과 같은 다급한 자리에서 셈은 제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위험은 일찍 마주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버티고 서서 적의 수에 질려 우리가 가진 이점을 내버리지만 않는다면 승산의 대부분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 하나는 이곳이 상륙하기에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제자리를 지킬 때에만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지형이 아무리 험해도 막는 자가 없는 이상 상륙은 충분히 해낼 만한 일이 되고, 그때에는 물러나기가 어렵다는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적이 당장 더 무서운 상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물리친다고 할 때, 그 일은 그가 아직 배에 타고 있는 동안이 그가 뭍에 내려 대등한 자리에서 우리와 맞선 뒤보다 쉬울 것입니다. 적의 수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실 것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배를 대기가 어려우니 그는 한 번에 작은 무리로밖에 싸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맞서야 할 수의 우세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뭍 위의 군대가 가진 우세가 아니라, 배에 실린 병력이 가진 우세, 그것도 제대로 힘을 쓰려면 여러 가지 운이 따라 주어야 하는 물 위에서 누리는 우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적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수에서 모자라는

것과 넉넉히 맞비길 만하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나는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적지에 배로 상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자리를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고 부서지는 물결과 밀려드는 함선의 위협에도 겁먹어 물러나지 않는 적을 밀어내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겪어서 아는 아테네인으로서, 지금 이 다급한 자리에서 버티고 서서 물가에서 적을 쳐 물리치고 여러분 자신과 이곳을 지켜 내십시오.

데모스테네스에게 이렇게 북돋아진 아테네인들은 더 담대해져 적을 맞으러 내려가 바닷가를 따라 늘어섰다. 이제 스파르타인들이 움직여 지상군과 함선 43척으로 동시에 요새를 들이쳤으니, 함선은 스파르타 시민인 크라테시클레스의 아들 트라시멜리다스가 제독으로 이끌었고 그는 바로 데모스테네스가 예상한 곳을 쳤다. 그리하여 아테네인들은 뭍과 바다 두 쪽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적은 작은 무리로 나뉘어 노를 저어 올라와 서로 번갈아 들었는데(한꺼번에 많은 배를 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길을 열고 요새를 빼앗으려고 크게 기세를 올리며 서로를 격려했다.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브라시다스였다. 삼단노선 한 척의 선장이었던 그는, 선장들과 조타수들이 지형이 험한 데 질려 배를 부술까 두려워 상륙이 될 만해 보이는 곳에서도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재목을 아끼려고 적이 제 나라 땅에 요새를 쌓게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되며 배를 부수어서라도 상륙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동맹들에게도, 스파르타에게 받은 많은 은혜에 보답할 이런 때에 배를 바치기를 망설이지 말고 배를 과감하게 뭍에 몰아붙여 어떻게든 내려서 그곳과 그 수비대를 손에 넣으라고 일렀다.

이렇게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는 제 조타수에게 배를 해안으로 몰아붙이게 하고는 건널판에 올라 내리려 하다가 아테네인들에게 밀려났고, 여러 군데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었다. 노 받침대 쪽 뱃전으로

쓰러질 때 그의 방패가 팔에서 빠져 바다에 떨어졌고, 그것이 해안으로 밀려오자 아테네인들이 주워 두었다가 뒤에 이 싸움을 기려 세운 전승 기념물에 썼다. 나머지도 힘껏 애썼으나 땅이 험하고 아테네인들이 물러섬 없이 버텼으므로 내릴 수 없었다. 아테네인이 뭍에서, 그것도 라코니아의 땅에서 바다로 오는 스파르타인과 싸우고, 스파르타인이 이제 적지가 된 제 나라에서 아테네인을 치려고 배에서 내리려 애쓰는 것은 사물의 순서가 이상하게 뒤집힌 일이었다. 그 무렵 스파르타인은 내륙의 백성이자 뭍에서 뛰어난 것으로, 아테네인은 바다의 백성이자 견줄 데 없는 해군을 가진 것으로 이름이 높았는데도 그러했다.

그날과 이튿날 한동안 공격을 이어 간 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손을 멈추었고, 그다음 날에는 공성 기계를 만들 재목을 구하려 배 몇 척을 아시네로 보냈으니, 그 힘을 빌려 항구를 마주한 성벽을 그 높이에도 아랑곳없이 빼앗기를 바란 것이며 그곳이 상륙하기에 가장 쉬웠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자킨토스에서 아테네 함대가 닿았는데, 나우팍토스를 지키던 배 몇 척과 키오스 함선 4척이 더해져 이제 50척에 이르렀다. 해안과 섬이 모두 중장보병으로 빼곡하고 항구 안의 적선들이 나올 낌새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닻을 내릴 곳을 찾지 못해 우선 멀지 않은 무인도 프로테로 가서 거기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그들은 적이 맞서러 나오기를 고른다면 트인 바다에서 싸울 채비를 하고 출항했고, 적이 그러지 않는다면 안으로 들어가 치기로 마음을 굳혔다. 스파르타인들은 바다로 나오지 않았고, 작정했던 대로 물목을 막지도 않은 채 해안에 조용히 머물러 배에 사람을 태우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올 경우 꽤 넓은 이 항구 안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아테네인들은 양쪽 물목으로 나아가 적 함대를 들이쳤는데, 그때쯤 적선 대부분은 물에 떠 대열을 이루고 있었으나 아테네인들은 곧바로 그것을 쫓아 버렸고, 좁은 거리가 허락하는 데까지

추격하여 여러 척을 못 쓰게 만들고 5척을 빼앗았으니 그중 한 척은 승무원까지 탄 채였다. 그러고는 해안으로 피한 나머지 배들에 달려들어 아직 사람을 태우고 있던 몇 척을 나오기 전에 두들겼고, 승무원이 달아나 빈 배들은 제 배에 붙여 매어 끌고 갔다. 이 광경을 보고 스파르타인들은 섬에 있는 제 사람들을 끊어 놓는 이 재난에 이성을 잃고 구하러 달려들어, 무거운 무구를 걸친 채 바다로 들어가 배를 붙들고 되끌어내려 했으니 저마다 일의 성패가 자기 한 사람의 힘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뒤엉킨 싸움은 대단했고 두 쪽이 여느 때 쓰던 해전의 방식과는 아주 어긋나는 것이었으니, 스파르타인들은 흥분과 낭패 속에서 실제로 뭍 위에서 해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긴 아테네인들은 그 성공을 될 수 있는 데까지 밀어붙이려는 마음에 배에서 지상전을 벌이고 있었다. 두 쪽이 크게 힘을 쓰고 많은 상처를 입은 뒤에 서로 떨어졌고, 스파르타인들은 처음에 빼앗긴 것들만 빼고 빈 배들을 건져 냈다. 두 쪽이 모두 진영으로 돌아가자 아테네인들은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시신을 돌려주고 난파선들을 확보한 뒤, 곧바로 섬 둘레를 돌며 그 안에 끊긴 수비대를 샅샅이 감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제 파견대가 모두 올라온 대륙의 펠로폰네소스인들은 필로스 앞에 그대로 머물렀다.

필로스에서 벌어진 일이 스파르타에 전해지자 그 재난이 어찌나 중대하게 여겨졌던지 스파르타인들은 관헌들이 진영으로 내려가 그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결정하게 하기로 정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은 제 사람들을 도울 길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굶주림에 꺾이거나 수에 눌려 짓밟히는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아테네 장군들의 동의를 얻어 필로스에서 휴전을 맺고 아테네에 사절을 보내 협정을 얻어 내며 되도록 빨리 제 사람들을 되찾으려 애쓰기로 결정했다.

장군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휴전이 맺어졌다.

스파르타인은 지난 싸움에 나섰던 함선들과 라코니아에 있는 군선 전부를 필로스로 가져와 아테네인에게 인도할 것. 또한 뭍으로든 바다로든 요새를 치지 않을 것.

아테네인은 대륙의 스파르타인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반죽해 둔 곡물을 정해진 양만큼 보내는 것을 허락할 것. 곧 한 사람마다 아티카 되로 보릿가루 2코이닉스[6]와 포도주 2코틸레와 고기 한 조각이며, 시종 한 사람에게는 그 절반의 양으로 할 것.

이 배급은 아테네인이 보는 앞에서 들여보낼 것. 그리고 드러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면 어떤 배도 섬으로 가지 않을 것.

아테네인은 섬을 전과 같이 계속 감시하되 그 위에 내리지는 않을 것. 또한 뭍으로든 바다로든 펠로폰네소스 병력을 치지 않을 것.

어느 쪽이든 이 조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아주 사소한 대목에서 어기면 휴전은 곧바로 무효가 될 것.

휴전은 스파르타 사절이 아테네에서 돌아올 때까지 유효할 것이며 (아테네인은 삼단노선으로 그들을 그리로 보내고 다시 데려온다), 사절이 닿는 즉시 끝나며 아테네인은 함선을 받은 그대로의 상태로 돌려줄 것.

휴전의 조건은 이러했고, 함선은 60척가량이 인도되었으며 사절도 그에 따라 떠났다. 아테네에 닿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테네인 여러분, 스파르타는 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일을 수습할 길을 찾아보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로우면서도 이 불운 속에서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 우리의 체면에 어울리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소 길게 말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을 벗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지만, 밝혀야 할 중대한 일이 있고 그것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말을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말을

적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지하다고 여겨 가르치려 드는 것으로도 여기지 마시고, 이미 아는 이들에게 좋은 방책을 일깨워 드리는 말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이 성공을 잘 써서 얻은 것을 지키고 그 위에 명예와 명성까지 얻을 수 있으며, 뜻밖의 큰 행운을 만난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성공을 이미 거두었다는 그 이유로 희망에 이끌려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바뀌는 것을 가장 많이 겪어 본 이들이야말로 제 번영을 가장 덜 믿는 법이며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와 우리 나라에 이 교훈을 가르칠 경험은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불운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에서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선 세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전에는 지금 우리가 청하러 온 것을 우리 쪽에서 베풀 수 있다고 여겼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은 우리 힘이 쇠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세력이 커져 우쭐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은 늘 그대로이며, 우리가 저지른 것은 판단의 잘못, 누구나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라가 지금 누리는 번영과 최근에 더해진 것 때문에 운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편이리라고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 머리를 맑게 지키듯 제가 얻은 것도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만큼 신중하며, 전쟁이란 싸우는 자가 가두어 두고 싶어 하는 한계 안에 머무르기는커녕 그 우연이 정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군사적 성공을 믿고 우쭐대지 않는 까닭에 화를 당할 일이 적고, 운이 남아 있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화평을 맺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지금 우리와 더불어 그렇게 할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절했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재난을

면하고, 지금 쥔 이점마저 우연에 힘입은 것이라는 말을 듣는 일도 면하며, 그 대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힘과 지혜의 명성을 뒤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는 여러분에게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자고 청하며, 화평과 동맹을, 그리고 무슨 일에서나 어느 때나 가장 우애롭고 가까운 사이를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 대가로는 섬에 있는 사람들을 돌려 달라고 청합니다. 어떤 유리한 우연이 그들을 뚫고 나가게 해 주기를, 또는 봉쇄에 눌려 그들이 굴복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버티는 것은 두 쪽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큰 원한이 정말로 풀린다면, 그것은 복수와 군사적 성공으로, 또 상대에게 불리한 조약을 억지로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운이 좋은 쪽이 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너그러운 마음을 따라 아량으로 상대를 이기며 상대가 기대한 것보다 온건한 조건으로 화평을 허락할 때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폭력이 반드시 남기는 복수의 빚 대신 같은 것으로 갚아야 할 아량의 빚을 지게 되고, 명예심에 이끌려 제가 맺은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소한 다툼에서보다 가장 큰 원수를 상대할 때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사람은 본디 먼저 양보해 온 쪽에게는 기꺼이 물러서지만, 오만 앞에서는 제 판단으로도 옳지 않다고 여기는 위험까지 무릅쓰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 두 쪽에 적용해 봅시다. 화평이 두 쪽 모두에게 바람직한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 나라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여러분을 영원히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내놓는 이점을 놓치게 되기 전인 바로 이 순간입니다. 결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분 앞에는 명성과 우리의 우의가 놓여 있으며 우리 앞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불운을 매듭지을 길이 놓여 있는 지금, 서로 화해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전쟁 대신 화평을 고르고, 나머지 그리스인에게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허락합시다. 그들이 그 일로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리라는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시달리는 이 전쟁을 어느 쪽이 시작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전쟁을 끝맺는 화평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그들의 감사는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결정으로 여러분은 스파르타가 스스로 청하여 오는 우의 속에서 스파르타와 굳건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받아낸 청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도리어 은혜를 베푸는 청입니다. 그리고 이 우의에서 따라 나올 이점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티카와 스파르타가 하나가 되면 나머지 그리스는 그 우두머리들 앞에서 삼가며 아랫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스파르타인들의 말은 이러했다. 그들의 생각은 아테네인들이 이미 휴전을 바라면서 다만 스파르타 쪽의 반대에 막혀 있었을 뿐이므로 선선히 내놓는 화평을 기꺼이 받아들여 사람들을 돌려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섬에 있는 사람들을 쥐고 있었으므로 조약은 자기들이 맺기로 마음먹는 때에 언제든 마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다. 이 방침을 누구보다 앞장서 북돋운 사람은 클레아이네토스의 아들 클레온으로, 그 무렵의 민중 지도자이자 군중에게 대단한 힘을 쓰던 자였는데 그가 다음과 같이 답하도록 그들을 설득했다. 먼저 섬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와 제 무기를 내놓고 아테네로 끌려와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스파르타인이 니사이아와 페가이와 트로이젠과 아카이아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땅들은 모두 무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전의 협정으로 얻은 것이며, 지금보다 휴전이 더 절실했던 재난의 때에 아테네가 스스로 넘겨준 곳이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스파르타인은 제 사람들을

되찾아 가고 두 쪽이 합의하는 기간만큼 휴전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답에 사절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만 조항마다 함께 의논할 위원을 뽑아 달라고, 그래서 조용히 그 일을 이야기하며 어떤 합의에 이르려 해 보자고 청했다. 이에 클레온은 그들을 거세게 몰아세우며, 그들에게 바른 뜻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민중 앞에서 말하기를 마다하며 몇 사람과 은밀히 의논하려 하는 것으로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직한 뜻이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털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불운 속에서 어떤 양보를 할 마음이 있다 해도 군중 앞에서 그것을 말하여 결국 어그러질지도 모르는 교섭 때문에 동맹들에게 신용을 잃는 일은 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청하는 것을 온건한 조건으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아테네에서 돌아갔다.

그들이 닿자 필로스의 휴전은 곧바로 끝났고, 스파르타인들은 협정에 따라 제 함선을 돌려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휴전을 어기고 요새를 쳤다는 것과 그 밖에 입에 올릴 값도 없어 보이는 몇 가지 트집을 내세우며 돌려주기를 마다했고, 아주 사소한 위반으로도 휴전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들어 우겼다. 스파르타인들은 그 위반을 부인하고 함선 일에서 드러난 아테네인의 불신실을 항의한 뒤 떠나가 전쟁에 열심히 매달렸다. 이제 필로스에서는 두 쪽이 모두 힘을 다해 싸움을 이어 갔다. 아테네인들은 낮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함선 2척으로 섬 둘레를 돌았고, 밤에는 바람이 불 때의 바다 쪽을 빼고 온 함대로 섬을 둘러 닻을 내렸으니, 봉쇄를 도우러 아테네에서 온 함선 20척이 더해져 이제 70척에 이르렀다. 한편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대륙에 진을 친

채 머물러 요새를 치면서 제 사람들을 건져 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살폈다.

그사이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앞서 갖추고 있다고 적어 둔 증원 병력을 메시나를 지키던 함대에 올려 보내고 그곳을 근거지로 전쟁을 이어 갔는데, 이를 주로 부추긴 것은 레기온인을 미워하여 온 병력을 들어 그 땅을 침공한 로크리스인들이었다. 시라쿠사인들 또한 바다에서 운을 시험해 보고 싶었으니, 아테네인들이 레기온에 실제로 두고 있는 배가 몇 척뿐임을 보았고 그들과 합칠 예정이던 주력 함대가 그 섬을 봉쇄하는 데 매여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전에서 이기면 뭍과 바다로 레기온을 봉쇄하여 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런 성공을 거두면 그들의 형세는 곧바로 단단한 바탕에 올라설 것이었으니, 이탈리아 쪽의 레기온곶과 시칠리아 쪽의 메시나가 서로 아주 가까워 아테네인들이 그들을 겨누어 배를 돌리며 해협을 장악하기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제의 해협은 레기온과 메시나 사이의 바다로, 시칠리아가 대륙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지점이며, 이야기에서 오디세우스가 배를 몰고 지나갔다고 하는 카립디스가 바로 이곳이다. 물길이 좁고 드넓은 티레니아 바다와 시칠리아 바다에서 밀려드는 물살이 거센 까닭에 이곳이 험한 곳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이 해협에서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배 한 척이 지나가는 일을 두고 날이 저물 무렵 싸움에 끌려 들어갔으니, 30척 남짓을 내어 아테네 함선 16척과 레기온 함선 8척에 맞섰다. 아테네인들에게 져서 그들은 함선 한 척을 잃고 저마다 제 갈 길로 서둘러 메시나와 레기온에 있는 제 기지로 떠났으니, 싸움이 끝나기 전에 밤이 닥친 것이었다. 그 뒤 로크리스인들은 레기온 땅에서 물러났고,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의 함선들은 하나로 모여 메시나 땅의 펠로로스 곶에 닻을 내렸으며

그곳에서 지상군이 그들과 합쳤다. 여기로 아테네인과 레기온인이 배를 몰고 올라와 배에 사람이 타지 않은 것을 보고 공격했으나, 이번에는 그들이 함선 한 척을 잃었으니 쇠갈고리에 걸린 것이었고 승무원은 헤엄쳐 목숨을 건졌다. 그 뒤 시라쿠사인들이 배에 올랐고, 해안을 따라 메시나로 끌려가는 동안 다시 아테네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으나 갑자기 바다로 나가 공격하는 쪽이 되어 아테네인들에게 함선 한 척을 더 잃게 했다. 이렇게 해안을 따라가는 항해에서도 위에 적은 싸움에서도 제 몫을 지켜 낸 뒤 시라쿠사인들은 메시나 항구로 들어갔다.

그사이 아테네인들은 아르키아스와 그 무리가 카마리나를 시라쿠사인에게 넘기려 한다는 경고를 받고 그리로 배를 몰았고, 메시나인들은 이 틈을 타 온 병력을 들어 뭍과 바다에서 칼키스계 이웃인 낙소스를 쳤다. 첫날 그들은 낙소스인을 성벽 안에 몰아넣고 그 땅을 짓밟았으며, 이튿날에는 배로 돌아가 아케시네스강 쪽의 땅을 짓밟고 지상군은 도시를 공격했다. 그사이 시켈인들이 높은 지대에서 큰 무리로 내려와 메시나인에 맞서는 편을 도왔고, 그 광경에 들뜬 낙소스인들은 레온티노이인과 다른 그리스 동맹들이 자기들을 도우러 오고 있다는 믿음에 힘을 얻어 갑자기 도시에서 뛰쳐나와 메시나인을 쳐서 흩어 놓고 1,000명이 넘는 자를 죽였다. 살아남은 자들도 돌아가는 길에 이민족에게 공격을 받아 크게 시달렸고 대부분이 끊겨 죽었다. 함선들은 메시나로 들어갔고 뒤에는 저마다 제 고향으로 흩어졌다. 이에 레온티노이인과 그 동맹들은 아테네인과 함께 곧바로 이제 약해진 메시나로 무기를 돌려 쳐들어갔으니, 아테네인은 함선으로 항구 쪽을 치고 지상군은 도시 쪽을 쳤다. 그러나 메시나인들은 그 재난 뒤에 도시를 지키도록 남겨 두었던 데모텔레스와 로크리스인 얼마와 함께 뛰쳐나와 갑자기 쳐들어가 레온티노이 군대 대부분을 흩어 놓고 많은 수를 죽였다. 이를 본 아테네인들이 배에서 내려 흩어져 있던

메시나인을 들이쳐 도시 안으로 되몰아넣고 전승 기념물을 세운 뒤 레기온으로 물러갔다. 그 뒤로 시칠리아의 그리스인들은 아테네인 없이 뭍에서 서로 전쟁을 이어 갔다.

그사이 필로스의 아테네인들은 여전히 섬에 있는 스파르타인들을 포위하고 있었고, 대륙의 펠로폰네소스 병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먹을 것과 물이 모자라 봉쇄는 아테네인들에게 몹시 고된 일이었다. 샘은 필로스 성채 안의 것 하나뿐이었고 그마저 크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은 바닷가의 자갈을 파헤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물을 마셔야 했다. 또 좁은 곳에 진을 쳤으므로 자리가 모자라 시달렸고, 배를 댈 곳이 없었으므로 일부가 번갈아 뭍에서 끼니를 먹는 동안 나머지는 바다에 나가 닻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낙담케 한 것은, 마실 것이라고는 짠물뿐인 황량한 섬에 갇힌 한 무리의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데 뜻밖으로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었으니, 며칠이면 될 일이라고 여겼던 터였다. 사실은 스파르타인들이, 빻은 곡물과 포도주와 치즈와 그 밖에 포위를 견디는 데 쓸 만한 먹을 것을 섬으로 실어 갈 지원자를 널리 구한다고 알렸던 것이다. 높은 값을 내걸었고 그 일을 해내는 헬롯에게는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헬롯들이 누구보다 앞서 이 위험한 일에 나섰으니, 펠로폰네소스의 이곳저곳에서 배를 띄워 밤에 섬의 바다 쪽으로 몰아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안으로 실어다 줄 바람을 붙잡을 수 있을 때였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면 삼단노선들이 섬을 둘러 닻을 내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감시를 벗어나기가 더 쉬웠다. 한편 헬롯들은 제 배의 값을 돈으로 매겨 두었으므로 어떻게 닿든 개의치 않고 배를 뭍으로 몰아붙였으니, 상륙 지점에서 병사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이 좋을 때 이 일을 무릅쓴 자들은 모두 붙잡혔다. 잠수하는 자들도 항구 쪽에서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는데, 꿀에 갠 양귀비 씨와 빻은 아마 씨를 가죽 부대에 담아 줄에 매어 끌고 갔다. 처음에는 이들이 눈에 띄지 않았으나 뒤에는 이들을 노린 감시가 붙었다. 요컨대 두 쪽은 할 수 있는 온갖 꾀를 다 썼으니, 한쪽은 양식을 들여보내려고, 다른 쪽은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했다.

그사이 아테네에서는 군대가 크게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과 곡물이 섬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소식이 적지 않은 당혹을 일으켰고, 아테네인들은 겨울이 닥쳤을 때에도 자기들이 여전히 봉쇄에 매여 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되면 펠로폰네소스를 돌아 양식을 호송하기란 불가능할 것임을 그들은 알았다. 그 땅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여름에도 넉넉한 양을 돌려 보낼 수 없었다. 항구가 없는 곳의 봉쇄를 더는 이어 갈 수 없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포위가 풀려 빠져나가거나 사나운 날씨를 노려 곡물을 실어 오던 배를 타고 나가 버릴 것이었다. 더 큰 불안을 일으킨 것은 스파르타인들의 태도였으니,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더 이상 사절을 보내지 않는 것은 제 자리가 든든하다고 여기는 까닭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약을 물리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협정을 가로막은 일로 자기가 의심을 받고 있음을 알아차린 클레온은 이제 소식을 전한 자들이 참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그 전령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사람을 보내어 직접 보게 하라고 권하자 아테네인들은 클레온 자신과 테아게네스를 조사관으로 뽑았다. 이제 자기가 헐뜯던 그 사람들이 이미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거나, 그 반대로 말했다가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거나 둘 중 하나임을 알아차린 클레온은, 아테네인들이 새 원정에 아주 마음이 없지는 않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시간과 기회를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전하는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을 치러 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때 장군이었고

자기가 미워하던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를 가리키며, 장군다운 사람이 장군 자리에 있기만 하다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섬에 있는 자들을 잡아 오기란 쉬운 일이며 자기가 지휘를 맡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비웃듯 쏘아붙였다.

니키아스는 그토록 쉬운 일로 보인다면 지금 왜 배를 내지 않느냐며 아테네인들이 클레온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고, 나아가 자신이 공격의 표적이 된 것을 보고서 그에게, 장군들로서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원하는 병력을 골라 데려가 해 보라고 말했다. 처음에 클레온은 이 사임이 그저 말뿐이라고 여겨 갈 마음이 있었으나,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자 물러서서 장군은 자기가 아니라 니키아스라고 둘러댔다. 이제 겁이 난 것이었고, 니키아스가 자기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키아스는 제안을 되풀이하고 필로스를 겨눈 지휘권을 내놓으며 자기가 그렇게 했음을 아테네인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군중이 흔히 그러하듯, 클레온이 원정에서 몸을 빼수록 또 제가 한 말에서 발을 빼려 할수록 그들은 니키아스에게 지휘권을 넘기라고 더 북돋우고 클레온에게 가라고 더 크게 외쳤다. 마침내 제가 한 말에서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해 그는 원정을 떠맡고 나서서, 자기는 스파르타인이 두렵지 않으며 아테네에 와 있는 렘노스인과 임브로스인, 아이노스와 다른 곳에서 올라온 경방패병[7], 그리고 궁수 400명 말고는 이 도시에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배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들과 필로스에 있는 병사들만으로 20일 안에 스파르타인들을 산 채로 데려오거나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했다. 아테네인들은 그 허황함에 웃음을 참지 못했으나, 분별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 되어도 얻는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으니, 클레온을 떼어 내게 되거나(그들이 오히려

바란 쪽은 이것이었다) 그 기대가 어긋난다면 스파르타인들을 굴복시키게 될 것이었다.

민회에서 모든 일을 정하고 아테네인들이 원정의 지휘권을 표로 그에게 맡긴 뒤, 그는 필로스에 있는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데모스테네스를 동료로 골라 항해 준비를 밀고 나갔다. 데모스테네스를 고른 것은 그가 섬에 상륙할 것을 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처지가 어려워 시달리며 포위하는 쪽이라기보다 포위당한 쪽이었으므로 결판을 내고 싶어 했고, 섬에 불이 난 일은 그 장군의 자신을 키워 놓았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니, 그 섬이 사람이 살아 본 적이 없어 거의 온통 숲으로 덮이고 길이 없었으므로 이것이 적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큰 병력을 데리고 내릴 수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날아드는 공격에 손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숲은 적의 실수와 병력을 그의 눈에서 거의 가려 줄 것이지만 제 군대의 실책은 곧바로 드러날 것이었고, 그리하여 적은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골라 뜻하지 않은 때에 그를 덮칠 수 있으며 공격의 주도권은 늘 적에게 있을 것이었다. 다른 한편 그가 적을 숲 속에서 싸우게 몰아붙인다면 그 땅을 아는 적은 수가 그 땅을 모르는 많은 수보다 유리하리라고 그는 생각했고, 제 군대는 수가 많아도 서로 어디를 도와야 할지 볼 수 없으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끊겨 나갈 수 있었다.

얼마간은 숲 때문에 빚어진 아이톨리아의 재난이 이런 생각에 적지 않은 몫을 했다. 그러던 중 자리가 모자라 섬의 끝자락에 내려 끼니를 먹어야 했던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습을 막으려 파수를 세워 둔 사이에 뜻하지 않게 숲에 조금 불을 붙였고, 곧 바람이 일어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거의 온 숲이 타 버렸다. 데모스테네스는 이제 처음으로 스파르타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었으니, 그때까지는 그들이 더 적은 수를 위해 양식을 들여온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 이제 섬에 내리기가 더 쉬워졌음을 보고, 상대가 그만한 이상 아테네인들이 더 힘을 기울여 해 볼 만한 일이라고 여겨 그는 공격을 채비하여 이웃 동맹들에게 병력을 청하고 그 밖의 준비도 밀고 나갔다. 바로 이때 클레온이 제가 청한 병력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전갈을 미리 보낸 뒤 필로스에 닿았다. 두 장군이 만난 뒤 처음으로 한 일은 대륙의 진영으로 전령을 보내는 것이었으니, 모든 위험을 피할 마음이 있다면 섬에 있는 자들에게 스스로와 제 무기를 내놓으라고 명하겠느냐고 묻게 했고, 그러면 전반적인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너그러운 구금 아래 두겠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이 물리쳐지자 장군들은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중장보병 전부를 배 몇 척에 태워 밤에 출항했으며, 동이 트기 조금 전에 트인 바다 쪽과 항구 쪽 양쪽에서 섬에 내렸으니 800명쯤이었고, 달음질로 섬의 첫 초소를 향해 나아갔다.

적은 병력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두었다. 이 첫 초소에는 중장보병이 약 30명 있었고, 물이 있는 가운데의 가장 평평한 곳은 주력과 그들의 지휘관 에피타다스가 지켰다. 한편 작은 무리가 필로스를 향한 섬의 맨 끝을 지켰는데, 그곳은 바다 쪽이 깎아지른 데다 뭍에서 치기가 매우 어려웠고 돌을 거칠게 쌓아 올린 오래된 요새 같은 것도 있었으니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자기들에게 쓸모가 있으리라고 여긴 것이었다. 그들의 배치는 이러했다.

아테네인들이 이렇게 들이친 전방 초소는 곧바로 칼에 베였으니, 그 사람들은 자리에서 막 일어나 아직 무장하는 중이었고 상륙에 허를 찔린 것이었다. 배들이 여느 때처럼 밤을 지낼 자리로 가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마자 나머지 군대가 내렸으니, 곧 70척 남짓한 함선의 승무원 전부가 맨 아랫단 노 젓는 자들만 빼고 저마다 지닌 무기를 들고 내렸으며, 궁수 800명과 그보다 적지 않은 경방패병,

메세니아의 증원 병력, 그리고 요새의 수비대를 뺀 필로스 둘레의 다른 모든 병력이 내렸다. 데모스테네스의 전술은 이들을 200명 남짓씩, 어떤 곳은 그보다 적은 부대로 나누어 가장 높은 지점들을 차지하게 한 것이었으니, 사방에서 적을 둘러싸 손에 잡히는 상대가 없는 채로 두고 제 군세의 십자 사격에 내놓아 적을 마비시키려 했다. 적이 앞을 치면 뒤에 있는 자들이 그에게 퍼붓고, 한쪽 옆에 있는 자들을 치러 움직이면 다른 쪽 옆에 있는 자들이 퍼부을 것이었다. 요컨대 그가 어디로 가든 등 뒤에는 그를 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었고, 그것도 무엇보다 다루기 고약한 경무장 병사들이었다. 화살과 투창과 돌과 투석끈이 멀리서도 그들을 만만찮게 만들었고, 그들은 달아나면서도 이길 수 있었으며 쫓던 자가 돌아서는 순간 곧 그에게 달려들었으므로 가까이서 그들을 잡을 길이 없었다. 데모스테네스가 이 상륙을 구상할 때 그를 이끈 생각이 이러했고, 그 실행을 다스린 생각도 이러했다.

그사이 섬에 있던 주력 병력(에피타다스가 이끄는 쪽)은 제 전초가 끊긴 것과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 나아오는 것을 보고 대열을 촘촘히 하여 앞에 있는 아테네 중장보병과 맞붙으려 밀고 나갔으니, 경무장 병력은 그들의 옆과 뒤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맞붙지도, 제 뛰어난 솜씨를 살리지도 못했으니, 경무장 병력이 양쪽에서 던지는 무기로 그들을 막았고 중장보병은 맞으러 나오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경무장 병력이 달려들어 너무 가까이 다가온 곳에서는 스파르타인들이 그들을 흩어 놓았으나, 그들은 싸우면서 물러났고 가벼운 차림이었으므로 달아나는 데서 쉽게 앞섰으니, 여태 사람이 살지 않던 섬의 땅이 험하고 울퉁불퉁하여 스파르타인들은 무거운 무구를 걸친 채 그들을 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접전이 얼마쯤 이어진 뒤 스파르타인들은 공격받는 지점으로 전처럼 빠르게 뛰쳐나갈 수 없게 되었고, 경무장 병력은 그들이 이제 덜

힘차게 싸우는 것을 알고 더 담대해졌다. 제 수가 적의 몇 배나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제 적의 모습에 익숙해져 적이 덜 무섭게 느껴졌으니, 스파르타인을 친다는 생각에 노예처럼 질려 처음 내렸을 때 품었던 두려움이 결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두려움이 업신여김으로 바뀌어 그들은 이제 큰 함성을 지르며 한꺼번에 적에게 달려들어 손에 먼저 잡히는 대로 돌과 투창과 화살을 퍼부었다. 그들의 돌격에 따른 함성은 이런 싸움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스파르타인들을 어지럽혔다. 막 타 버린 숲에서 먼지가 일었고, 수많은 자들의 손에서 날아온 화살과 돌이 먼지 구름을 뚫고 오는 가운데 제 앞을 보기란 불가능했다. 이제 스파르타인들은 거친 싸움을 견뎌야 했다. 그들이 쓴 모자는 화살을 막아 내지 못했고, 투창은 부러진 채 부상자의 무구에 박혀 있었으며, 그들 자신은 공격할 힘이 없었으니 눈으로 제 앞을 보는 것이 막혔고 적이 일으킨 소란 때문에 명령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사방에서 그들을 둘러쌌고 지키거나 살아날 길의 희망은 없었다.

마침내 같은 자리에서 줄곧 이리저리 돌아서며 맞서느라 이미 많은 자가 상처를 입자, 그들은 촘촘한 대열을 짜 멀지 않은 섬 끝의 요새로,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제 동료들에게로 물러났다. 그들이 물러선 순간 경무장 병력은 더 대담해져 어느 때보다 크게 외치며 그들을 밀어붙였고 물러나는 길에 따라잡은 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스파르타인 대부분은 요새로 무사히 빠져나갔고, 그 안의 수비대와 함께 요새의 온 길이에 걸쳐 늘어서서 칠 만한 곳마다 막아 내려 했다. 쫓아온 아테네인들은 지형이 험해 그들을 둘러싸 가둘 수 없었으므로 정면으로 치며 그 자리를 들이치려 했다. 오랫동안, 실로 그날의 대부분에 걸쳐 두 쪽은 싸움과 목마름과 햇볕의 온갖 괴로움을 견뎌 냈으니, 한쪽은 적을 높은 자리에서 몰아내려 애썼고 다른 쪽은 그 자리를 지키려 애썼다.

이제 스파르타인들은 옆에서 둘러싸일 수 없었으므로 전보다 스스로를 지키기가 더 쉬웠다.

싸움이 끝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메세니아인의 지휘관이 클레온과 데모스테네스에게 와서 그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찾아내겠다고 나선 길로 적의 뒤로 돌아갈 궁수와 경무장 병력을 얼마 내어 준다면 그 오르는 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청한 것을 받자 그는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섬의 깎아지른 바위가 허락하는 곳마다 또 스파르타인들이 지형이 험한 것을 믿고 파수를 두지 않은 곳마다 기어올랐다. 그리고 더없이 어려운 끝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돌아 들어가는 데 성공하여 그들의 뒤쪽 높은 자리에 갑자기 나타났으니, 허를 찔린 적은 낭패했고 기다리던 제 동료들은 그보다 더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두 불길 사이에 놓인 스파르타인들은, 작은 일을 큰 일에 견주자면 테르모필레에서와 같은 궁지에 빠졌으니 그곳에서도 페르시아인들이 산길로 돌아 들어오는 바람에 지키던 이들이 끊겼던 것이다. 이제 앞과 뒤에서 함께 공격을 받아 그들은 밀리기 시작했고, 맞선 수에 눌리고 먹을 것이 없어 기운이 다해 물러났다.

아테네인들이 이미 오르는 길을 손에 넣었을 때, 클레온과 데모스테네스는 적이 한 걸음만 더 물러서면 제 병사들에게 몰살당할 것임을 알아차리고 싸움을 멈추어 부하들을 붙들어 두었다. 스파르타인들을 산 채로 아테네로 데려가고 싶었고, 조건을 내놓는 말을 들으면 그들의 고집이 풀려 항복하고 지금의 압도적인 위험에 굴복할지도 모른다고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스스로와 제 무기를 아테네인에게 내놓고 그 처분에 맡길 뜻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포고가 내려졌다.

이 제안을 듣고 스파르타인들 대부분은 방패를 내리고 손을 흔들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보였다. 이제 싸움이 멎고 클레온과 데모스테네스와, 저쪽의 파락스의 아들 스티폰 사이에 담판이 열렸다. 앞서 지휘한 이들 가운데 첫째인 에피타다스는 죽었고 그다음 지휘자인 히파그레타스는 아직 살아 있었으나 죽은 것으로 여겨져 시신들 가운데 버려져 있었으므로, 상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정한 법에 따라 지휘권이 스티폰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스티폰과 그 동료들은 대륙의 스파르타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테네인들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보내 주지 않고 자기들이 대륙에서 전령을 불러들였으며, 두세 번 물음이 오간 뒤 대륙의 스파르타인들에게서 마지막으로 건너온 사람이 이런 전언을 가져왔다. "스파르타인들은 그대들에게, 부끄러운 일만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결정하라고 이릅니다." 이에 그들은 함께 의논한 뒤 스스로와 제 무기를 내놓았다. 아테네인들은 그날 낮과 밤에 걸쳐 그들을 지킨 뒤 이튿날 아침에 섬에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떠날 채비를 하며, 포로를 무리별로 나누어 삼단노선 선장들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스파르타인들은 전령을 보내어 제 죽은 자들을 거두었다. 섬에서 죽은 자와 포로로 잡힌 자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중장보병 420명이 건너갔는데, 300명에서 8명이 모자라는 수가 산 채로 아테네로 끌려갔고 나머지는 죽었다. 포로 가운데 약 120명이 스파르타 시민이었다. 싸움이 맞붙어 벌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아테네인의 손실은 적었다.

봉쇄는 해전에서부터 섬에서 벌어진 싸움까지 헤아려 모두 72일 동안 이어졌다. 그 가운데 20일가량은 화평을 의논하러 간 사절이 떠나 있던 동안으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주어졌고, 나머지 기간에는 몰래 들여온 자들이 그들을 먹였다. 섬에서는 곡물과 그 밖의 양식이 발견되었으니, 지휘관 에피타다스가 병사들에게 있는 양보다 적게 나누어 주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은 각기 필로스에서 병력을 물려 본국으로 돌아갔고, 클레온의 약속은 터무니없었으나 그는 스스로 다짐한 대로 20일 안에 그 사람들을 아테네로 데려와 그것을 지켰다.

이 전쟁에서 벌어진 어떤 일도 그리스인을 이만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어떤 힘도 어떤 굶주림도 스파르타인에게 무기를 내놓게 할 수 없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우다가 무기를 손에 쥔 채 죽으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실로 사람들은 항복한 자들이 쓰러진 자들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처럼 믿을 수 없었다. 얼마 뒤 어떤 아테네 동맹 사람이 섬에서 잡혀 온 포로 하나에게 쓰러진 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느냐고 모욕하듯 물었다가 이런 대답을 받았다. 아트락토스[8], 곧 화살이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낼 줄 안다면 대단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으니, 죽은 자들이란 돌과 화살에 우연히 맞은 자들이었음을 빗댄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닿자 아테네인들은 화평이 맺어질 때까지 그들을 옥에 두기로, 그리고 그동안 펠로폰네소스인이 제 나라를 침공하면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필로스의 방비를 잊지 않았다. 나우팍토스의 메세니아인들은 필로스가 전에 속해 있던 제 옛 고향으로 무리 가운데 가장 알맞은 자들을 보내어 라코니아를 잇달아 침입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같았으므로 그 침입은 더없이 파괴적이었다. 그런 침입이나 그런 종류의 전쟁을 여태 겪어 본 적이 없던 스파르타인들은 헬롯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제 나라에 변란이 번질 것을 두려워하여 심각하게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이를 아테네인에게 드러내기를 꺼렸음에도 아테네로 사절을 보내기 시작하여 필로스와 포로들을 되찾으려 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계속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며 사절이 올 때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돌려보냈다. 필로스의 일은 이러했다.

1. 소포클레스 — 아테네 장군으로, 같은 이름의 비극 작가와는 다른 사람이다.

2.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이 장의 다른 거리 표기도 모두 같다.

3.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4. 페리오이코이 — 스파르타 주변의 자유민. 스파르타에 딸린 도시에 살며 군역을 졌으나 완전시민권은 없었다.

5.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땅을 갈던 신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딸린 예속민으로, 수가 많아 스파르타 시민들은 늘 그들의 봉기를 경계했다.

6. 코이닉스 — 그리스의 곡물 되. 아티카 1코이닉스는 약 1.1리터로, 어른 한 사람의 하루 곡식 몫으로 쳤다. 뒤에 나오는 코틸레는 그 4분의 1로 약 0.27리터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쿼트·파인트)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7. 경방패병 — 작은 방패와 투창으로 무장한 경보병. 중장보병처럼 밀집 대형으로 싸우지 않고, 흩어져 던지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싸웠다.

8. 아트락토스 — 라코니아 말로 화살을 가리킨 낱말. 본디 실을 감는 가락을 뜻했으므로, 이 대답에는 활과 화살을 사내답지 못한 무기로 낮추어 보던 스파르타 시민의 시각이 담겨 있다.

13장 (제IV권 제XIII장) — 전쟁 제7년과 제8년 — 코르키라 내란의 종결 — 겔라의 강화 — 니사이아 함락

같은 여름, 이 일들이 있은 직후 아테네인들은 함선 80척과 아테네 중장보병 2,000명, 그리고 기병 수송선에 태운 기병 200명을 이끌고 코린트 땅을 치러 나섰는데, 동맹에서는 밀레토스인과 안드로스인과 카리스토스인이 함께했고 지휘는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가 동료 두 사람과 함께 맡았다. 바다로 나아간 그들은 날이 밝을 무렵 케르소네소스와 레이토스 사이, 솔리기아 언덕 아래 땅의 해안에 배를 댔다. 옛적에 도리스인이 자리를 잡고 코린트에 살던 아이올리스인과 전쟁을 벌인 곳이 그 언덕이며, 지금은 그곳에 솔리기아라 불리는 마을이 서 있다. 함대가 닿은 해안은 그 마을에서 12스타디온[1], 코린트에서 60스타디온, 이스트모스에서 2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코린트인들은 아테네 원정군이 온다는 것을 아르고스에서 전해 듣고 오래전에 모두 이스트모스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스트모스 너머에 사는 자들과 암브라키아와 레우카스에 수비대로 나가 있던 500명만은 빠졌다. 그들은 총동원 병력으로 그곳에 머물며 아테네인들이 상륙하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어둠을 타고 들어와 그들의 눈을 피했다. 신호로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코린트인들은

아테네인들이 크롬미온을 치러 갈 경우에 대비해 절반을 켄크레아이에 남겨 두고, 나머지는 서둘러 구원하러 행군했다.

그 싸움에 나와 있던 두 장군 가운데 하나인 바토스는 한 부대를 이끌고 성벽 없는 마을 솔리기아를 지키러 갔고, 리코프론은 나머지 병력과 함께 남아 싸움을 맡았다. 코린트인들은 먼저 케르소네소스 앞에 막 상륙한 아테네인의 오른쪽 날개를 쳤고, 그다음에 나머지 병력을 쳤다. 싸움은 완강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맞붙어 겨루는 백병전이었다. 대열 끝에 배치된 아테네인과 카리스토스인의 오른쪽 날개는 코린트인들을 맞아 어렵사리 물리쳤고, 코린트인들은 뒤쪽 비탈진 땅 위의 담으로 물러나 위에서 그들에게 돌을 던진 뒤 다시 파이안[2]을 부르며 내려왔으며, 아테네인들이 이들을 맞아 다시 가까이 붙어 싸웠다. 이때 코린트의 한 부대가 자기 쪽 왼쪽 날개를 도우러 와서 아테네인의 오른쪽 날개를 무너뜨리고 바다까지 쫓았으나, 거기서 이번에는 함선에서 내려온 아테네인과 카리스토스인에게 도로 밀려났다. 그러는 동안 양쪽의 나머지 병력도 끈질기게 싸웠으며 특히 코린트인의 오른쪽 날개가 그러했으니, 거기서 리코프론은 솔리기아 마을을 치러 갈까 염려되던 아테네인의 왼쪽 날개의 공격을 버텨 냈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은 채 오래 버틴 끝에, 적에게는 없는 기병의 도움을 받은 아테네인들이 마침내 코린트인들을 무너뜨렸고, 코린트인들은 언덕으로 물러나 그곳에 멈춰 서서 다시 내려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죽은 것이 이 오른쪽 날개의 붕괴에서였으며, 그들의 장군 리코프론도 그 가운데 있었다. 나머지 병력은 이렇게 부서져 달아났으나 본격적으로 쫓기거나 몰리지는 않았으므로 높은 땅으로 물러나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테네인들은 적이 더는 싸움을 걸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적의 주검에서 무구를 벗기고 자기편 주검을 거둔 뒤 곧바로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들이 크롬미온으로 배를 몰까 대비해 켄크레아이에 남아 있던 코린트인 절반은 오네이온 산에 가려 싸움을 보지는 못했으나 먼지를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채고 서둘러 구원하러 올라왔고, 도시에 있던 나이 많은 코린트인들도 벌어진 일을 알고 나서 그렇게 했다.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모두 자기들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이웃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서 증원이 오는 것이라고 여겨, 노획물과 자기편 주검을 거두어 서둘러 함선으로 물러났는데, 찾지 못해 남겨 둔 주검 두 구만은 예외였다. 배에 올라 건너편 섬들로 건너간 그들은 거기서 전령을 보내 휴전을 맺고 남겨 두었던 주검을 거두어 갔다. 그 싸움에서 코린트인은 212명이 쓰러졌고 아테네인은 50명에 조금 못 미쳤다.

아테네인들은 섬들에서 닻을 올려 같은 날 코린트 땅의 크롬미온으로 갔는데, 그곳은 도시에서 120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다. 닻을 내린 그들은 그 땅을 짓밟고 거기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그들은 먼저 해안을 따라 에피다우로스 땅으로 가서 거기에 상륙한 뒤, 에피다우로스와 트로이젠 사이의 메타나에 이르러 반도의 지협을 가로질러 성벽을 쌓아 요새로 삼고 그곳에 초소를 두었으며, 그 뒤로 그 초소에서 트로이젠과 할리아이와 에피다우로스 땅으로 습격이 이루어졌다. 이곳에 성벽을 둘러친 뒤 함대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에우리메돈과 소포클레스[3]는 시칠리아로 가는 길에 아테네 함대를 이끌고 필로스에서 바다로 나아갔고, 코르키라에 이르러 도시 사람들과 함께 이스토네 산에 자리 잡은 무리를 치러 나섰다. 그 무리는 앞서 내란이 끝난 뒤 건너가 그 땅을 손에 넣고 주민들에게 큰 해를 끼치던 자들이었다. 공격으로 그들의 요새가 떨어지자 지키던 자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어느 높은 땅으로 피했고 거기서 항복했는데, 용병 원군을 내주고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들의 처분을 아테네 민중에게 맡긴다는 조건이었다. 장군들은 휴전

아래 그들을 프티키아 섬으로 실어 보내 아테네로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했는데, 달아나다 붙잡히는 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전부가 이 협정의 혜택을 잃는다는 양해가 붙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코르키라 민중파의 지도자들은 아테네인들이 포로들의 목숨을 살려 줄까 두려워 다음과 같은 계략을 썼다. 그들은 벗들을 몰래 섬으로 보내어 그곳에 있는 몇몇을 꾀어냈으니, 그 벗들이 받은 지시는 그 포로들에게 배 한 척을 마련해 주고, 마치 포로들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아테네 장군들이 그들을 코르키라 사람들에게 넘기려 하니 되도록 빨리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일러 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 먹혀들어, 그 사람들이 마련된 배를 타고 나가다 붙잡히도록 일이 짜였고, 그에 따라 협정은 무효가 되었으며 포로 전부가 코르키라인에게 넘겨졌다. 이 결과에는 아테네 장군들의 책임이 컸다. 시칠리아로 떠나 그 사람들을 아테네로 데려가는 영예를 남에게 넘기기를 그들이 내켜 하지 않는 것이 훤히 드러났고, 그것이 음모를 꾸민 자들의 계획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렇게 넘겨진 포로들을 코르키라인은 큰 건물 하나에 가두었다가 뒤에 20명씩 끌어내어 서로 묶은 채 양옆으로 늘어선 두 줄의 중장보병 사이로 지나가게 했으며, 줄에 선 자들은 제 원수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때리고 찔렀다. 그 곁에서는 채찍을 든 자들이 함께 걸으며 너무 느리게 걷는 자들을 재촉했다.

이런 식으로 60명이나 되는 사람이 끌려 나가 죽었으나 건물 안에 있던 나머지 포로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 그저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겨지는 줄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열어 사실을 알려 주자, 그들은 아테네인들을 향해 정 그럴 뜻이라면 당신들 손으로 우리를 죽이라고 외쳤고 더는 건물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으며 누구도 안으로 들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르키라인은 문으로 밀고 들어가기를 꺼려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기와를 던져 내리고 화살을 쏘아 댔으며, 포로들은 힘닿는 대로 몸을 가렸다. 그러는 동안 그들 대다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매달렸으니, 적이 쏜 화살을 제 목에 찔러 넣기도 하고 마침 거기 있던 침상에서 뽑은 끈이나 제 옷을 찢어 만든 띠로 목을 매기도 했다. 요컨대 스스로를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썼으며, 지붕 위에 있는 적이 던지는 것에 맞아 죽기도 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밤이 왔고, 그 일이 끝나기까지 밤은 거의 다 지나갔다. 날이 밝자 코르키라인은 그들을 짐수레에 켜켜이 쌓아 도시 밖으로 실어 냈다. 요새에서 붙잡은 여자들은 모두 노예로 팔렸다. 이렇게 해서 산에 있던 코르키라인들은 민중파에게 멸망했고, 그리하여 끔찍한 극단을 다 겪은 뒤에 당파 싸움이 끝났으니 적어도 이 전쟁의 기간에 관한 한 그러했다. 한쪽 당파에게는 사실상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들은 원래 목적지인 시칠리아로 떠나 그곳의 동맹들과 함께 전쟁을 이어 갔다.

여름이 저물 무렵 나우팍토스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아카르나니아인들은 암브라키아만 어귀에 자리한 코린트의 도시 아낙토리온을 치러 나아가 배신으로 그곳을 빼앗았고, 아카르나니아인들은 아카르나니아 곳곳에서 정착민을 보내 그곳을 차지했다.

이렇게 여름이 끝났다. 이어진 겨울에, 동맹들에게서 돈을 걷으러 보낸 아테네 함선의 지휘자 가운데 하나인 아르킵포스의 아들 아리스테이데스가 스트리몬 강가의 에이온에서 페르시아 사람 아르타페르네스를 붙잡았는데, 그는 왕에게서 스파르타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아테네로 끌려갔고, 아테네인들은 그가 지닌 공문서를 아시리아 문자에서 옮기게 하여 읽었다. 그 글은 다른 여러 문제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요지는 이러했으니, 스파르타인들이 보낸 많은 사절 가운데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둘도 없었으므로 왕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다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뜻이 있다면 이 페르시아 사람과 함께 사절을 보내도 좋다는 것이었다. 아테네인들은 그 뒤 아르타페르네스를 삼단노선에 태워 에페소스로 돌려보내면서 사절들을 함께 보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그 무렵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같은 겨울에 키오스인은 아테네인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새 성벽을 헐었으니, 아테네인들이 그들이 반란을 꾀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에 앞서 그들은 아테네인에게서 서약을 받아, 앞으로도 전과 같이 자기들을 대하리라는 보장을 될 수 있는 데까지 얻어 두었다. 그렇게 겨울이 끝났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전쟁의 일곱째 해도 그와 함께 끝났다.

이듬해 여름 첫 며칠 사이에 초승달 무렵 부분 일식이 있었고, 같은 달 초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는 동안 미틸레네와 그 밖의 레스보스 망명자들이 대부분 대륙에서 출발해, 펠로폰네소스에서 고용한 용병과 현지에서 모은 병력을 데리고 로이테이온을 빼앗았다가 포카이아 스타테르[4] 2,000을 받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채 돌려주었다. 그 뒤 그들은 안탄드로스로 진군해 배신으로 그 도시를 손에 넣었으니, 그들의 계획은 전에 미틸레네의 것이었으나 지금은 아테네인이 쥐고 있는 안탄드로스와 그 밖의 악타이아 도시들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요새를 마련하기만 하면 이다산이 가까워 목재가 넉넉한 덕에 배를 짓는 데 온갖 편의를 누리고 그 밖의 물자도 풍족히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근거지에서 멀지 않은 레스보스를 손쉽게 짓밟고 대륙의 아이올리스 도시들을 손에 넣을 수도 있었다.

망명자들의 계획이 이러한 가운데, 아테네인들은 같은 여름에 함선 60척과 중장보병 2,000명과 약간의 기병, 그리고 밀레토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온 동맹 병력을 이끌고 키테라를 치러 나섰으며, 지휘는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와 디이트레페스의 아들 니코스트라토스와 톨마이오스의 아들 아우토클레스가 맡았다. 키테라는 말레아 맞은편 라코니아 앞바다에 놓인 섬이다. 주민은 페리오이코이[5] 계층에 속하는 스파르타 사람들이며, 키테라 판관이라 불리는 관리가 해마다 스파르타에서 그곳으로 건너갔다. 중장보병 수비대도 정기적으로 그곳에 보냈고 그 섬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니,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오는 상선이 닿는 곳이었고 동시에 바다에서 오는 사략선의 공격으로부터 라코니아를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라코니아의 해안 전체가 시칠리아 바다와 크레타 바다 쪽으로 가파르게 솟아 있어 그곳이 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었던 것이다.

아테네인들은 원정군을 이끌고 이곳에 배를 대어, 함선 10척과 밀레토스 중장보병 2,000명으로 바닷가의 도시 스칸데이아를 빼앗았고, 나머지 병력으로는 말레아를 바라보는 쪽 섬 기슭에 올라 키테라의 아랫도시를 치러 갔는데 그곳에는 주민이 모두 나와 진을 치고 있었다. 싸움이 벌어지자 키테라인들은 얼마간 버티다가 돌아서서 윗도시로 달아났고, 오래지 않아 그곳에서 니키아스와 그 동료들에게 항복했는데 목숨만은 보장받고 제 운명은 아테네인의 결정에 맡긴다는 조건이었다. 그에 앞서 니키아스와 주민 몇 사람 사이에 연락이 오가고 있었는데, 그 덕에 항복이 더 빨리 이루어졌고 키테라인들에게 당장으로나 앞날로나 더 유리한 조건이 붙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스파르타 사람이라는 것과 그들의 섬이 라코니아에 아주 가깝다는 것 때문에 아테네인들에게 쫓겨났을 것이다. 항복이 이루어진 뒤 아테네인들은 항구 가까이의 도시 스칸데이아를 차지하고 키테라에 수비대를 둔 다음, 아시네와 헬로스를

비롯해 바닷가의 대부분의 고장으로 배를 몰아 상륙하고 편한 자리에서 밤을 뭍에서 지내며 이레쯤 그 땅을 계속 짓밟았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인들이 키테라의 주인이 된 것을 보고 자기 해안에도 그런 상륙이 있으리라 내다보았으나 어디서도 병력을 모아 맞서지 않았고, 위협받는 지점이 요구한다고 보이는 만큼의 중장보병으로 이루어진 수비대를 나라 곳곳에 여기저기 보냈으며 대체로 지키는 쪽에 크게 치우쳐 있었다. 그 섬에서 당한 혹독하고 뜻밖의 타격과 필로스와 키테라를 빼앗긴 일, 그리고 대비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전쟁이 사방에서 나타난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은 내부의 반란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았고, 이제 기병 400명과 궁수 부대를 새로 갖추는 보기 드문 조치를 취했으며 군사에 관한 일에서 어느 때보다 소심해졌다. 자기들의 체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바다의 싸움에 휘말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상대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은 언제나 놓쳐 버린 성공으로 여기는 아테네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짧은 사이에 뜻밖에 잇따라 닥친 숱한 불운이 그들의 기운을 완전히 꺾어 놓아, 그들은 섬에서 겪은 것과 같은 두 번째 재앙을 늘 두려워했고 그래서 싸움터에 나설 엄두를 거의 내지 못했으며 움직이기만 하면 실수를 저지르리라고 여겼으니, 역경을 겪어 본 적이 없던 터라 자기들에 대한 믿음을 모두 잃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대체로 아무 움직임도 없이 아테네인들이 자기 해안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상륙이 이루어진 곳 가까이에 있던 수비대들은 언제나 제 수가 모자란다고 여겼고 전체에 퍼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코티르타와 아프로디시아 가까이에서 감히 맞선 수비대가 하나 있어 흩어져 있던 경보병 무리를 돌격으로 겁에 질리게 했으나, 중장보병이 맞받아 나오자 몇 사람과 얼마간의 무구를 잃고 물러났으며, 아테네인들은 그 일로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키테라로 배를

돌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에피다우로스 리메라로 돌아가 그 땅의 일부를 짓밟고, 아르고스와 라코니아의 경계에 있는 키누리아 땅의 티레아에 이르렀다. 이 지구는 그 주인인 스파르타인이 쫓겨난 아이기나인에게 살라고 내준 곳이었으니, 지진이 일어나고 헬롯이 들고일어났을 때 그들이 베푼 도움에 보답한 것이었고, 또한 그들이 아테네에 딸린 처지이면서도 늘 스파르타 편에 섰기 때문이었다.

아테네인들이 아직 바다에 있는 동안 아이기나인은 해안에 쌓고 있던 요새를 버리고 자기들이 살던 윗도시로 물러났는데, 그곳은 바다에서 10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었다. 그 일을 돕고 있던 스파르타의 지구 수비대 가운데 하나는 아이기나인이 간청했는데도 함께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으니 성벽 안에 갇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높은 땅으로 물러나 가만히 있었으니 자기들이 적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들은 상륙하여 곧바로 전 병력으로 나아가 티레아를 빼앗았다. 그들은 도시를 불태우고 그 안에 있던 것을 털었으며, 싸움에서 죽지 않은 아이기나인들을 아테네로 데려갔고 상처를 입고 포로가 된 그들의 스파르타인 지휘관 파트로클레스의 아들 탄탈로스도 함께 데려갔다. 그들은 또한 옮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키테라 사람 몇도 데려갔다. 아테네인들은 이들을 섬들에 두기로 정했고, 나머지 키테라인은 제 땅을 그대로 갖되 공납으로 4탈란톤[6]을 내기로 했으며, 붙잡힌 아이기나인은 오래되고 뿌리 깊은 원한 때문에 모두 죽이고, 탄탈로스는 섬에서 잡힌 스파르타인들과 함께 가두기로 했다.

같은 여름에 시칠리아의 카마리나와 겔라 사람들이 먼저 서로 휴전을 맺었고, 그 뒤 다른 모든 시칠리아 도시의 사절단이 화평을 이루어 보려고 겔라에 모였다. 불평하는 여러 편이 저마다 지닌 원한과 주장에 따라 이쪽저쪽에서 많은 의견이 나온 뒤, 그들을 설득하는 데 가장 큰

몫을 한 시라쿠사 사람 헤르몬의 아들 헤르모크라테스가 모인 자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칠리아인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제 도시가 시칠리아에서 가장 작아서도 아니고 이 전쟁으로 가장 크게 고통받아서도 아니며, 이 섬 전체에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제게 보이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익숙한 명제여서 이를 길게 펼치는 일은 지루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얻을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몰라서 억지로 전쟁에 들어서는 일도 없고 두려움 때문에 전쟁 밖에 머무는 일도 없습니다. 앞의 사람에게는 이익이 위험보다 커 보이고, 뒤의 사람은 당장의 희생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위험을 무릅쓰려 합니다. 그러나 둘 다 마침 그렇게 움직일 때를 잘못 골랐다면 평화를 맺으라는 권고가 쓸모없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고비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쟁에 나선 것은 저마다 제 이익을 잘 꾀하려 해서였고, 지금 서로 따져 가며 화해하려 애쓰는 것도 그 때문이며, 저마다 공정한 몫을 얻고 흩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이 회의에 걸려 있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이익만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시칠리아를 구할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가 하는 물음도 걸려 있으며, 제가 보기에 시칠리아 전체가 아테네의 야심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으뜸가는 세력이 지금 우리 바다에 두고 있는 몇 척 안 되는 함선으로 우리의 실책을 지켜보며 동맹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우리 사이에 본디 있는 적의를 제 이익으로 돌리려 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아테네인에게서 제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절박한 화해의 권고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부르지 않은 곳에도

기꺼이 제 무기를 들고 가는 민족을 불러들여 우리를 돕게 하며, 제 비용으로 스스로를 해치면서 동시에 그들의 지배를 앞장서 여는 길잡이 노릇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지쳐 버린 것을 보고서 언젠가 더 큰 원정군을 이끌고 와 우리 모두를 예속시키려 들리라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동맹을 불러들이고 위험을 자초하는 일은 저마다의 나라를 새로 얻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어야지 이미 가진 것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동체를 그토록 치명적으로 해치는 내부의 불화가, 이 섬에 사는 우리가 제 동네 싸움에 빠져 공동의 적을 소홀히 한다면 시칠리아에도 똑같이 치명적이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려가 사람과 사람을, 도시와 도시를 화해시켜야 하며 시칠리아 전체를 구하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도리스인만이 아테네의 적이고 칼키스계 종족은 이오니아의 피 덕에 안전하다고 여길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문제의 그 공격은 두 겨레 가운데 하나를 미워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재산인 시칠리아의 좋은 것들을 탐내서 나온 것입니다. 칼키스인의 청을 아테네인이 받아들인 일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준 적 없는 동맹이 조약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서 기꺼이 받았습니다. 아테네인이 이런 야심을 품고 이런 방책을 쓰는 것은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며, 저는 지배하려는 자들을 탓하지 않고 섬기기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자들을 탓합니다. 자기에게 굽히는 자를 지배하는 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에게 맞서는 것도 똑같이 사람의 본성에 속하며, 어느 쪽도 다른 쪽에 못지않게 한결같습니다. 한편 이런 위험을 보면서도 제대로 대비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또는 공동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뭉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의무라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온 자들은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서로 평화를 맺는 것입니다. 아테네인은 제 나라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리로 부른 자들의 나라에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전쟁을 낳는 대신 평화가 조용히 우리의 다툼을 끝낼 것이며,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고 나쁜 목적으로 이곳에 온 손님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인에 관한 한, 지혜로운 방책에 본디 들어 있음이 증명된 큰 이점이 이러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평화가 축복 가운데 으뜸이라는 데에 모두가 뜻을 같이하는 마당에 우리가 어찌 우리끼리 평화를 맺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과 여러분이 호소하는 나쁜 것이 전쟁보다 평온함으로 더 잘 지켜지고 더 잘 고쳐지리라고, 또 평화에도 덜 위태로운 종류의 영예와 빛남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길게 늘어놓을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축복과,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전쟁의 비참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려는 여러분에게 제 말을 흘려듣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저마다 제 안전을 찾으라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정의로든 힘으로든 제 목적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대를 벗어난 결과에 쓰라리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잘못한 자를 벌하려 했다가 원수를 벌하지도 못하고 제 몸조차 건지지 못했으며, 이익을 얻으려 힘을 믿었던 많은 사람이 더 얻기는커녕 가진 것을 잃을 운명에 처했음을 그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이 저질러졌다고 해서 복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힘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날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요소가 가장 널리 힘을 미치며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실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쓸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두렵게 하여 서로를 치기 전에 생각해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아테네인이 눈앞에 있다는 당장의 공포가 제 본래의 인상을 남기도록 두고, 우리가 저마다 그려 두었을 계획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 장애들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여기고, 이 나라에서 침입자를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될 수 있는 한 긴 기간의 조약을 맺고 우리끼리의 다툼은 다른 날로 미룹시다. 요컨대 제 권고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저마다 자유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남아 제 운명을 스스로 판가름하며 선의든 악의든 똑같은 힘으로 갚을 수 있게 되지만, 이를 물리치면 우리는 남에게 매인 처지가 되어 모욕 하나 물리칠 힘도 없게 되고 가장 좋게 보아도 우리의 가장 지독한 원수와 벗이 되고 본디 벗이어야 할 이들과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로 말하자면, 처음에 말했듯이 큰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제 몸을 지키는 일보다 남을 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처지이지만, 이런 위험을 내다보고 무언가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수를 해치자고 저 자신을 무너뜨릴 뜻이 없으며, 제 계획과 마찬가지로 제가 어쩔 수 없는 운까지도 제가 주인이라고 여길 만큼 적의에 눈이 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치에 닿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머지도 적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제 뜻으로 제가 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를 청합니다. 같은 핏줄끼리 서로 양보하는 데에는 아무 수치도 없으니, 도리스인이 도리스인에게, 칼키스인이 제 형제에게 양보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웃이고 같은 땅에 살며 같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시칠리아인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때가 오면 우리는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열릴

회의를 통해 다시 우리끼리 평화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다면 바깥에서 온 침입자는 언제나 우리가 한데 뭉쳐 맞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하나가 다치는 것은 모두의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섬에 동맹도 중재자도 결코 불러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시칠리아에 두 가지 도움을 한꺼번에 주어 아테네인과 내전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하고, 앞으로는 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며 바깥에서 오는 위협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헤르모크라테스의 말은 이러했다. 시칠리아인들은 그의 권고를 받아들여 저마다 가진 것을 그대로 갖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기로 서로 뜻을 모았는데, 카마리나인은 시라쿠사인에게 치르기로 정해진 값을 내고 모르간티나를 갖기로 했다. 그리고 아테네의 동맹들은 지휘를 맡은 장교들을 불러 자기들이 평화를 맺을 것이며 그 조약에 그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군들이 동의하자 평화가 맺어졌고, 그 뒤 아테네 함대는 시칠리아에서 떠나갔다. 그들이 아테네에 이르자 아테네인들은 피토도로스와 소포클레스를 추방하고 에우리메돈에게는 벌금을 물렸으니, 시칠리아를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도 뇌물을 받고 떠났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번영이 시민들을 그토록 철저히 설득해 놓았던 것이니, 아무것도 자기들을 막아설 수 없고 가능한 일이든 될 수 없는 일이든 똑같이 이룰 수 있으며 수단이 넉넉하든 모자라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게 했던 것이다. 그 까닭은 전반적으로 남다른 성공을 거두어 온 데 있었으니,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제 힘과 제 희망을 뒤섞게 만들었다.

같은 여름에 메가라 시내에 있던 메가라인들은, 해마다 두 번씩 전 병력으로 자기 땅을 쳐들어오는 아테네인들의 적대 행위에 시달리고 내란 때 민중파에게 쫓겨나 페가이에 나가 있던 자기네 망명자들의

습격에 부대끼면서, 망명자들을 도로 받아들여 도시를 두 재앙 가운데 하나에서 풀어 주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서로 묻기 시작했다. 망명자들의 벗들은 이 동요를 알아채고 전보다 더 드러내 놓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민중파의 지도자들은 그 시절의 고통이 자기들을 떠받치던 자들의 한결같음을 지치게 했음을 보고 놀라, 아테네 장군들인 아리프론의 아들 히포크라테스와 알키스테네스의 아들 데모스테네스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도시를 넘기기로 마음먹었으니, 자기들이 추방한 당파가 돌아오는 것보다 그편이 자기들에게 덜 위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짜였다. 아테네인들이 먼저 도시에서 니사이아 항구까지 8스타디온쯤 뻗은 긴 성벽을 빼앗아 니사이아에 있는 펠로폰네소스인들이 구원하러 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었으니, 그곳의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메가라의 충성을 붙들어 두는 유일한 수비대였다. 그다음에 윗도시를 아테네인의 손에 넘기려 해 본다는 것이었고, 그때가 되면 윗도시가 더 쉽게 넘어오리라고 여겨졌다.

아테네인들은 자기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자들 사이에 말과 행동을 두고 계획이 다 짜인 뒤, 히포크라테스의 지휘 아래 중장보병 600명을 이끌고 밤에 메가라 앞바다의 섬 미노아로 배를 몰아 멀지 않은 흙구덩이에 자리를 잡았으니, 그곳은 성벽에 쓸 벽돌 흙을 파내던 데였다. 한편 또 한 사람의 지휘관 데모스테네스는 플라타이아 경보병 한 부대와 페리폴로이[7] 한 부대를 데리고 그보다 더 가까운 에니알리오스 신역에 매복했다. 그날 밤 알아야 할 일을 맡은 자들 말고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 날이 밝기 조금 전에 메가라 안의 배신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문을 열 구실을 마련해 두려고 오래전부터 밤마다 노략질을 핑계 삼아, 지휘를 맡은 장교의 허락을 받고 작은 노 젓는 배를 수레에 싣고 해자를 따라 밤에 바다까지 옮겨

타고 나갔다가 날이 밝기 전에 다시 수레에 실어 성문을 지나 성벽 안으로 들여오곤 했는데, 그들이 내세운 구실은 항구에 배가 한 척도 보이지 않게 하여 미노아에 자리 잡은 아테네인의 봉쇄를 헛수고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수레는 이미 성문에 와 있었고 배를 들이려고 여느 때처럼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 일을 함께 짜 두었던 아테네인들이 그것을 보고 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또 수레가 아직 거기 있어 문을 닫지 못하는 동안에 이르려고 매복한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달려 나왔다. 바로 그 순간 그들과 한패인 메가라인들은 성문을 지키던 자들을 죽였다.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제 플라타이아인들과 페리폴로이를 이끈 데모스테네스였으니, 지금 전승 기념물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였다. 그가 성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플라타이아인들은 놀라 구원하러 달려온 가장 가까운 펠로폰네소스인 무리와 맞붙어 이겼고, 다가오는 아테네 중장보병을 위해 성문을 확보했다.

그다음에는 아테네인들이 들어오는 대로 저마다 성벽을 치러 갔다. 펠로폰네소스 수비대 가운데 몇몇은 처음에 제자리를 지키며 공격을 물리치려 했고 그 가운데 몇이 죽었으나, 본대는 겁을 먹고 달아났으니 밤의 기습과 메가라의 배신자들이 무장하고 자기들에게 맞서는 광경이 그들로 하여금 메가라 전체가 적에게 넘어갔다고 여기게 했던 것이다. 마침 아테네의 전령이 제 생각으로 목소리를 높여 메가라인 가운데 원하는 자는 누구든 아테네 대열에 들어오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수비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무너져, 아테네인과 메가라인이 정말로 한편이 되어 자기들을 치고 있다고 믿고 니사이아로 피했다. 날이 밝을 무렵 성벽은 이미 빼앗겼고 도시 안의 메가라인들은 크게 술렁였는데, 아테네인들과 교섭했던 자들이 그 음모를 알고 있던 나머지 민중파의 뒷받침을 받아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 사이에 미리 짜인 것은, 성문이 열리는 순간 아테네인들이 밀고 들어오고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몸에 기름을 발라 나머지와 구별되어 다치는 일을 면한다는 것이었다. 성문을 여는 일은 그만큼 더 안전했으니, 엘레우시스에서 온 아테네 중장보병 4,000명과 기병 600명이 약속대로 밤새 행군해 이제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이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기름을 바르고 성문 곁 제자리에 서 있을 때, 그들과 한패이던 자 하나가 그 음모를 반대편에 일러바쳤다. 반대편은 한데 모여 떼를 지어 와서는, 나가서 싸워서는 안 되며(지금보다 병력이 더 많았을 때에도 한 번도 감히 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도시의 안전을 함부로 위태롭게 해서도 안 된다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싸움을 메가라 안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 밖에는 음모를 알고 있다는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은 채 제 권고가 가장 낫다고 굳게 우겼고, 그러면서 곁에 바싹 붙어 성문을 지켜보아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 제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

아테네 장군들은 무언가 장애가 생겼고 힘으로 도시를 빼앗는 일이 더는 될 수 없음을 보고 곧바로 니사이아를 에워싸는 일에 들어갔으니, 구원이 오기 전에 그곳을 빼앗을 수 있다면 메가라의 항복도 곧 뒤따르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쇠붙이와 석공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테네에서 빠르게 올라왔으므로, 아테네인들은 자기들이 차지한 성벽에서 시작해 그 지점에서 메가라를 바라보는 가로 성벽을 니사이아 양옆으로 바다까지 쌓았다. 해자와 성벽은 군대가 나누어 맡았고 돌과 벽돌은 변두리에서 가져왔으며, 과일나무와 재목은 필요해 보이는 곳마다 목책을 세우려고 베어 냈고, 변두리의 집들도 때로 흉벽을 덧붙여 그 방벽의 일부로 들어갔다. 이날 하루 내내 일이 이어졌고 이튿날 오후에는 성벽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그때 니사이아의 수비대는 먹을 것이 아주 바닥난 데 놀랐으니 그들은 날마다 윗도시에서 그날 먹을 것을 받아 오던 터였다. 펠로폰네소스인에게서 빠른 구원이

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고 메가라가 적대적이라고 여긴 그들은 무기를 내놓고 저마다 정해진 액수의 몸값을 치른다는 조건으로 아테네인에게 항복했으며, 그들의 스파르타인 지휘관과 그곳에 있던 그의 같은 나라 사람들은 아테네인의 처분에 맡겨졌다. 이 조건으로 그들은 항복하고 나왔고, 아테네인들은 긴 성벽이 메가라와 이어지는 지점에서 그것을 허물고 니사이아를 차지한 뒤 다른 준비를 이어 갔다.

바로 이 무렵 스파르타인 텔리스의 아들 브라시다스가 마침 시키온과 코린트 근처에 있으면서 트라키아로 보낼 군대를 갖추고 있었다. 성벽이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니사이아에 있는 펠로폰네소스인들과 메가라의 안전이 걱정되어, 보이오티아인들에게 사람을 보내 게라네이아 산 아래 메가라 땅에 있는 트리포디스코스라는 마을에서 되도록 빨리 만나자고 했고, 자신은 코린트 중장보병 2,700명과 플리우스인 400명과 시키온인 600명, 그리고 이미 모아 둔 제 병력을 이끌고 갔으니 니사이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리라 여긴 것이었다. 그곳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그는 밤에 트리포디스코스로 행군해 나와 있었다) 그는 자기가 온 것이 알려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군대에서 뽑은 300명을 데리고, 바닷가에 내려가 있던 아테네인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메가라로 올라갔다.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실제 목적도 니사이아를 쳐 보는 것이었으나 무엇보다도 메가라 안으로 들어가 그 도시를 붙들어 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니사이아를 되찾을 가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시 사람들에게 제 무리를 들여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메가라의 두 당파 가운데 한쪽인 민중파는 그가 자기들을 쫓아내고 망명자들을 도로 들여앉힐까 두려워했고, 다른 한쪽인 망명자들의 벗들은 바로 그 위험을 걱정한 민중파가 자기들에게 달려들어 도시가 성문 안의 싸움으로 무너지고 그것을 매복한

아테네인들이 지켜보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그는 들어오기를 거절당했고 두 당파는 다 가만히 있으면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기로 했으니, 저마다 아테네인들과 구원군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리라 내다보았고 제 편이 이기는 것을 보고 나서 그 편을 드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뜻을 이루지 못한 브라시다스는 나머지 군대로 돌아갔다. 날이 밝자 보이오티아인들이 그와 합류했다. 그들은 브라시다스에게서 기별을 받기도 전에 메가라의 위험을 자기들의 위험으로 여겨 그곳을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총동원 병력으로 플라타이아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 그의 전령이 이르러 그 결심에 박차를 더했다. 그들은 곧바로 중장보병 2,200명과 기병 600명을 그에게 보냈고 본대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모인 군대 전체는 중장보병만 6,000명을 밑돌지 않았다. 아테네 중장보병은 니사이아와 바다 곁에 대형을 짜고 있었으나, 들판에 흩어져 있던 경보병은 보이오티아 기병의 공격을 받아 바다까지 몰렸으니 전혀 뜻밖에 당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메가라인에게는 어디에서도 구원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번에는 보이오티아인들이 아테네 기병의 돌격을 받아 맞붙었고, 오래 이어진 기병전이 벌어졌는데 양쪽 다 이겼다고 주장했다. 아테네인들은 니사이아 바로 앞까지 돌격해 온 보이오티아 기병의 지휘자와 그 동료 몇을 죽여 무구를 벗겼고, 그 주검을 차지한 채 휴전 아래 돌려주고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그러나 싸움 전체를 보면 어느 쪽도 결정적인 이점을 얻지 못한 채 병력이 갈라섰으니, 보이오티아인들은 제 군대로, 아테네인들은 니사이아로 돌아갔다.

그 뒤 브라시다스와 그 군대는 바다와 메가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 편한 자리를 잡고 전투 대형을 갖춘 채 가만히 있었으니, 아테네인들이 쳐 오리라 여겼고 메가라인들이 어느 쪽이 이기는지 보려고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태도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어 보였다. 먼저 치고 나가지도 않고 스스로 싸움의 위험을 불러들이지도 않으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 그리하여 그날의 짐을 지지 않고도 그날의 영예를 당당히 거두는 셈이었고 동시에 메가라에서 제 이익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었다.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고 반드시 패한 쪽으로 여겨져 그 도시를 잃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테네인들이 그 도전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고도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일은 그렇게 되었다. 아테네인들은 긴 성벽 바깥에 대형을 짰고, 적이 치고 나오지 않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니 그들의 장군들이 위험을 지는 몫이 너무 고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로 그들의 목적은 대부분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싸움을 시작한다면 수가 더 많은 적을 상대해야 했으며, 이긴다 해도 얻는 것은 메가라뿐인데 지면 중장보병의 정수가 무너질 판이었다. 적에게는 사정이 달랐으니, 그의 군대에 실제로 참가한 나라들조차 저마다 제 전 병력의 일부만을 걸고 있었으므로 그는 얼마든지 더 대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쪽도 치고 나가지 않은 채 얼마 동안 기다린 뒤에 아테네인들은 니사이아로 물러났고, 펠로폰네소스인들도 그 뒤를 따라 자기들이 떠나왔던 자리로 물러났다. 이제 메가라 망명자들의 벗들은 망설임을 버리고 브라시다스와 여러 나라에서 온 지휘관들에게 성문을 열어 주었으니, 그를 이긴 자로 보고 아테네인들은 싸움을 마다한 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도시 안으로 맞아들인 뒤 함께 일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아테네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당파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그 뒤 브라시다스는 동맹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코린트로 돌아가, 처음부터 가려던 목적지인 트라키아 원정을 준비했다.

아테네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가자, 아테네와의 교섭에 가장 깊이 얽혀 있던 도시 안의 메가라인들은 자기들이 들통났음을 알고 곧바로 몰래 빠져나갔다. 남은 자들은 망명자들의 벗들과 의논하여 페가이에 있던 당파를 도로 불러들였는데, 지난 일로 복수하지 않고 오직 도시의 참된 이익만을 살피겠다는 엄숙한 맹세로 그들을 묶은 뒤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중장보병의 사열을 열고 부대를 갈라 세워, 제 원수들과 아테네인들과의 연락에 가장 깊이 얽혔다고 여겨진 자들 가운데 100명쯤을 골라내어 민중 앞에 세웠고, 표를 드러내 놓고 던지게 하여 그들을 유죄로 몰아 죽였으며 도시에 굳게 닫힌 과두정을 세웠다. 아주 적은 수의 당파 사람들이 이룬 일이었는데도 그 변혁은 매우 오래갔다.

---

1.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이 장의 다른 거리 표기도 모두 같다.

2. 파이안 — 신에게 바치는 노래. 그리스인은 싸움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승리를 기릴 때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3. 소포클레스 — 아테네 장군으로, 같은 이름의 비극 작가와는 다른 사람이다.

4. 스타테르 — 그리스의 주화 단위. 도시마다 무게와 재질과 값이 달랐으며, 포카이아 스타테르는 금과 은을 섞은 호박금으로 주조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5. 페리오이코이 — 스파르타 주변의 자유민. 스파르타에 딸린 도시에 살며 군역을 졌으나 완전시민권은 없었다.

6.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7. 페리폴로이 — 아테네의 국경 수비 부대. 젊은 시민들이 복무하며 아티카의 변경과 요새를 지켰다.

14장 (제IV권 제XIV장) — 전쟁 제8년과 제9년 — 보이오티아 침공 — 암피폴리스 함락 — 브라시다스의 빛나는 전과

같은 해 여름 미틸레네인이 앞서 뜻했던 대로 안탄드로스에 성벽을 두르려 할 때, 분담금을 거두는 일을 맡은 아테네 함대의 지휘관 데모도코스와 아리스테이데스가 헬레스폰토스에서 그곳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해 들었다(동료 지휘관 라마코스는 함선 10척을 이끌고 폰토스로 들어가 있었다). 두 사람은 그곳이 제2의 아나이아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아나이아는 사모스에서 쫓겨난 자들이 자리를 잡고 사모스를 괴롭히던 곳으로, 펠로폰네소스 함대에 수로 안내인을 보내거들고 도시를 뒤숭숭하게 만들며 사모스에서 추방된 자를 모조리 받아들이던 터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동맹들에게서 병력을 그러모아 배를 띄웠고, 안탄드로스에서 맞서 나온 군세를 싸움에서 이겨 그곳을 되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폰토스로 들어갔던 라마코스는 헤라클레이아 땅의 칼렉스 강에 대어 두었던 배를 잃었으니, 내륙에 비가 내려 불어난 물이 갑자기 그들에게 덮쳐 내려왔던 것이다. 그와 그의 군사는 아시아 쪽에 사는 비티니아의 트라키아인의 땅을 육로로 지나 폰토스 어귀의 메가라 식민시인 칼케돈에 이르렀다.

같은 해 여름 아테네의 장군 데모스테네스는 메가라 땅에서 돌아온 직후 함선 40척을 이끌고 나우팍토스에 이르렀다. 히포크라테스와 그는

보이오티아 여러 도시의 어떤 자들에게서 제안을 받아 둔 터였는데, 그들은 정체를 뒤엎고 아테네에서와 같은 민주정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었고 이 음모를 앞장서 꾸민 것은 테베에서 쫓겨난 프토이오도로스였다. 테스피아이 땅 크리사 만에 있는 항구 도시 시파이는 한 무리가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카이로네이아는 (전에는 미니아의 오르코메노스라 불렸고 지금은 보이오티아의 오르코메노스라 불리는 도시에 딸린 곳이다) 그 도시의 다른 무리가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로 했으니, 그곳에서 쫓겨난 자들이 이 일에 몹시 부지런해 펠로폰네소스에서 사람을 사들이고 있었다. 포키스인 몇 사람도 음모에 끼어 있었으니, 카이로네이아가 보이오티아의 변경 도시로서 포키스의 파노티스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테네인은 에우보이아를 바라보는 타나그라 땅의 아폴론 성소 델리온을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미리 정해 둔 하루에 한꺼번에 일어나야 했는데, 보이오티아인이 곳곳의 소란에 발이 묶여 델리온에서 힘을 모아 맞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일이 뜻대로 되어 델리온에 성벽이 서기만 한다면, 설령 보이오티아에 당장 정변이 따르지 않더라도 이 자리들을 손에 쥐고 그 땅을 들이쳐 시달리게 하며 일을 벌이는 파당 사람들이 저마다 가까운 데 피할 곳을 두게 되는 이상 형세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아테네인의 뒷받침을 받고 과두파의 힘은 갈라질 터이니 얼마 뒤에는 제 뜻대로 일을 매듭지을 수 있으리라고 이 계획을 꾸민 자들은 자신 있게 내다보았다.

꾸미고 있던 음모는 그러했다. 히포크라테스는 본국에서 일으킨 병력을 거느리고 보이오티아로 나아갈 알맞은 때를 기다렸고, 그러는 동안 데모스테네스를 앞서 말한 함선 40척과 함께 나우팍토스로 보냈다. 그 지방에서 아카르나니아인과 다른 동맹들의 군대를 일으킨 뒤 배를

띄워 음모에 가담한 자들에게서 시파이를 넘겨받으라는 것이었고, 두 작전을 한꺼번에 치를 날을 미리 맞춰 두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르러 보니 오이니아다이가 이미 힘을 합친 아카르나니아인에게 눌려 아테네 동맹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그 지방의 동맹을 모조리 일으켜 살린티오스와 아그라이아인을 치고 굴복시켰으며, 그런 다음 정한 때에 시파이에 닿는 데 필요한 준비에 매달렸다.

같은 해 여름 그 무렵에 브라시다스는 중장보병 1,700명을 거느리고 트라키아 지방을 향해 떠났고, 트라키스의 헤라클레이아에 이르자 그곳에서 파르살로스에 있는 벗들에게 전령을 보내 자기와 자기 군대를 그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아카이아의 멜리티아로 파나이로스와 도로스와 히폴로키다스와 토릴라오스와 칼키디케의 프록세노스[1]인 스트로파코스가 왔고, 그는 이들의 인도를 받아 다시 길을 떠났는데 다른 테살리아인도 따라왔으며 그 가운데에는 페르디카스의 벗인 라리사의 니코니다스가 있었다. 인도하는 자 없이 테살리아를 가로지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그리스 전역에서 무장한 군세가 이웃 나라의 땅을 허락 없이 지나가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테살리아 백성은 늘 아테네인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실제로 테살리아에 여느 때와 같은 좁은 과두정 대신 법에 따른 정체가 서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도 그는 에니페우스 강가에서 반대편 파당의 몇 사람에게 가로막혀 더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나라의 동의 없이 그런 일을 꾀한다는 나무람을 들었다. 이에 그를 인도하던 자들은 그들의 뜻을 거슬러 그를 데려갈 생각은 없으며, 뜻밖에 찾아온 손님을 벗으로서 모시고 갈 뿐이라고 대답했다. 브라시다스 자신도 말을 보태, 자기는 테살리아와 그 주민에게 벗으로 왔고 무기는 그들이 아니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아테네인을 겨누고 있으며, 테살리아인과 스파르타인 사이에는 서로의

땅을 오가지 못하게 할 만한 다툼이 있다고 들은 바 없으나 그들의 뜻을 거슬러 나아갈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으니 다만 자기를 막지 말아 달라고 청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대답을 듣고 물러갔고, 그는 자기를 인도하던 자들의 말을 좇아 자기를 막으려는 더 큰 군세가 모이기 전에 멈추지 않고 밀고 나아갔다. 그리하여 멜리티아를 떠난 그날 안에 파르살로스까지 그 거리를 모두 달려 아피다노스 강가에 진을 쳤고, 이어 파키온으로, 거기서 다시 페라이비아로 갔다. 여기서 테살리아인 인도자들은 돌아갔고, 테살리아에 딸린 페라이비아인이 그를 페르디카스의 영토인 디온에 내려놓았으니, 올림포스산 아래 테살리아를 바라보는 마케도니아의 도시였다.

이렇게 해서 브라시다스는 누구도 막을 채비를 갖추기 전에 테살리아를 서둘러 지나 페르디카스와 칼키디케에 이르렀다. 펠로폰네소스에서 군대가 떠나오게 만든 것은 아테네에 반란을 일으킨 트라키아 지방의 도시들과, 아테네인의 잇단 성공에 놀란 페르디카스였다. 칼키디케인은 아테네가 원정을 나선다면 자기들이 첫 목표가 되리라고 여겼는데, 아직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웃 도시들도 몰래 그 청에 함께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페르디카스 역시 드러내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아테네인과의 묵은 다툼 탓에 두려움을 품고 있었고, 무엇보다 링케스티스인의 왕 아르라바이오스를 굴복시키고자 했다. 마침 그때 스파르타인의 처지가 좋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군대를 펠로폰네소스 밖으로 내보내게 하기가 그만큼 덜 어려웠다. 아테네인이 펠로폰네소스를, 그중에서도 특히 라코니아를 치는 것은 맞받아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동맹에게 군대를 보냄으로써 가장 잘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이 있었고, 더구나 그 동맹들은 군대를 먹여 살리겠노라 하며 반란을 도우라고 청하고 있던 터였다. 스파르타인으로서도 헬롯[2]을 얼마간 나라 밖으로 내보낼 구실이 생긴

것이 반가웠으니, 지금의 형세와 필로스의 점령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실제로 헬롯의 수와 그 고집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파르타인은 이제 내가 적으려는 일까지 저질렀으니, 그들의 정책은 언제나 헬롯을 경계해야 한다는 필요에 매여 있었다. 헬롯에게 포고가 내려, 적을 맞아 가장 크게 공을 세웠다고 내세울 만한 자들을 저희들 가운데서 뽑으라 했고 자유를 주겠노라 했다. 이는 그들을 시험해 보려는 것으로, 먼저 나서서 자유를 요구하는 자들이 가장 기개가 높고 반란을 일으키기 쉬운 자들이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00명가량이 뽑혔고, 이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새로 얻은 자유를 기뻐하며 신전을 돌았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얼마 뒤 그들을 없애 버렸고, 그들이 저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헬롯 700명을 중장보병으로 삼아 기꺼이 브라시다스에게 딸려 보냈고, 나머지 병력은 브라시다스가 펠로폰네소스에서 돈을 들여 모았다.

브라시다스를 내보낸 것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바랐기 때문이었으나, 칼키디케인 또한 스파르타에서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철저함을 보여 준 이 사람을 몹시 얻고 싶어 했다. 그가 뒷날 나라 밖에서 한 일은 제 나라에 더할 나위 없이 쓸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때에 그가 여러 도시를 상대로 보인 올바르고 절도 있는 처신은 내통으로 손에 넣은 자리들 말고도 여러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하여 스파르타인이 뒷날 실제로 그렇게 했듯이 화평을 논하고자 했을 때 내어 줄 자리를 손에 쥐고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전쟁의 짐은 펠로폰네소스에서 다른 데로 옮겨 갔다. 전쟁이 한참 뒤로 흘러 시칠리아의 일이 있고 난 뒤, 어떤 이는 겪어서 알고 어떤 이는 소문으로 들어 알던 이때 브라시다스의 용맹과 처신이야말로 아테네의 동맹들에게 스파르타 쪽으로 기우는 마음을 일으킨 가장 큰 까닭이었다.

그는 맨 먼저 나라 밖에 나가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 주었고, 나머지도 그와 같으리라는 믿음을 남겼다.

한편 그가 트라키아 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테네인에게 알려지자마자 그들은 이 원정을 꾸민 자로 본 페르디카스에게 싸움을 선포했고, 그쪽 동맹들을 더 바짝 살폈다.

브라시다스와 그의 군대가 이르자 페르디카스는 곧바로 그들과 제 군세를 거느리고, 이웃해 있으면서 다툼이 있어 굴복시키고자 하던 링케스티스의 마케도니아인의 왕이자 브로메로스의 아들인 아르라바이오스를 치러 나섰다. 그러나 군대와 브라시다스를 거느리고 링코스로 들어가는 고개에 이르렀을 때 브라시다스는 그에게, 싸움을 벌이기에 앞서 가서 아르라바이오스를 설득해 스파르타의 동맹으로 삼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르라바이오스 쪽에서 이미 브라시다스를 둘 사이의 중재자로 삼겠다는 뜻을 비쳐 제안해 온 데다, 함께 온 칼키디케의 사절들이 페르디카스의 두려움을 없애지 말라고, 그래야 그가 저희 일에 더욱 열심을 내리라고 그에게 일러 둔 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페르디카스의 사절들은 스파르타에서 그가 제 둘레의 여러 자리를 스파르타와 동맹 맺게 하겠노라 말한 일이 있었으므로, 브라시다스는 아르라바이오스의 문제를 더 넓게 볼 수도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페르디카스는 저희 다툼을 중재하라고 그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적을 무찌르라고 데려온 것이며, 자기가 군대의 절반을 먹여 살리고 있는 터에 브라시다스가 아르라바이오스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맞받았다. 그럼에도 브라시다스는 페르디카스의 뜻을 저버리고 그가 반대하는데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말에 설득되어 아르라바이오스의 땅을 치지 않은 채 군대를 물렸다. 그러자 페르디카스는 자기에게 신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하여 군대를 먹이는 몫으로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을 내놓았다.

같은 해 여름 브라시다스는 때를 놓치지 않고 칼키디케인과 함께 안드로스의 식민시인 아칸토스로 진군했으니, 포도를 거두기 조금 전이었다. 그곳 주민은 그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두 패로 갈렸는데, 칼키디케인과 함께 그를 불러들인 자들과 민중파였다. 그러나 아직 거두지 않고 밭에 있던 열매에 대한 걱정 덕분에 브라시다스는 뭇사람을 설득해 자기 혼자만 들어가게 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할 말을 들어 보게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안으로 들어가 백성 앞에 섰고, 스파르타인치고는 말이 서투르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했다.

아칸토스인 여러분, 스파르타인이 저와 제 군대를 내보낸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그 이유를 참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곧 그리스를 자유롭게 하고자 아테네인과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는 것이 늦어진 것은 본국의 전쟁을 잘못 내다본 탓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걸지 않은 채로 아테네인을 이내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게 된 바로 그때에 왔고, 여러분의 도움을 얻어 그들을 굴복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문이 제 앞에 닫혀 있고 제가 더 나은 맞이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 스파르타인은 여러분을 우리를 간절히 맞고자 하는 동맹으로 여겼고, 우리 몸이 닿기 전부터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이미 우리를 반기리라 여겼습니다. 그런 기대로 우리는 낯선 땅을 여러 날 걷는 온갖 위험을 무릅썼으니, 우리의 열의가 우리를 그만큼 멀리까지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다른 뜻을 품고 여러분 자신의 자유와 그리스의 자유를 가로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를 막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저에게 덜 붙으려 할 것이니, 제가 맨 먼저 찾아온 여러분이, 아칸토스처럼 무게 있는 도시가, 아칸토스인처럼 사려 깊은 이들이 저를 받아들이기를 마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내세우는 이유가 참된 것임을 밝힐 길이 저에게 없어집니다. 제가 내놓는 자유에 온당치 못한 구석이 있다고들 하거나, 제 군세가 모자라 아테네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지켜 줄 수 없다고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거느린 이 군대로 니사이아를 구하러 갔을 때 아테네인은 저보다 군세가 많았는데도 감히 저와 맞붙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이 니사이아에 두었던 만큼 많은 군대를 바다 건너 여러분에게 보내는 일은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로 말하자면 그리스인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러 왔으니, 제가 끌어들이는 동맹은 독립을 누리게 하겠다고 제 나라를 묶어 둔 엄숙한 맹세가 그 증인입니다. 게다가 제가 온 뜻은 힘이나 속임수로 여러분의 동맹을 얻어 내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는 아테네인에 맞서 여러분을 돕도록 제 동맹을 내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내놓는 보증을 보고도 제 뜻을 의심하는 데 대해, 또 여러분을 지킬 제 힘을 의심하는 데 대해 저는 똑같이 항의하며,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사사로운 원수가 있어 제가 도시를 어느 한 파당의 손에 넘기지나 않을까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마음을 놓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 파당이나 저 파당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여러분의 정체를 저버리고 다수를 소수에게, 또는 소수를 다수에게 종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참된 뜻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낯선 나라의 멍에보다 무거울 것이며, 우리 스파르타인은 애쓴 보람으로 고마움을 받기는커녕 명예도 영광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나무람을 들을 것입니다. 아테네인과의 싸움에서 우리

손을 굳세게 해 주는 그 고발들을 우리 스스로 받아 마땅한 것으로 만들게 되고, 정직한 척하지도 않는 자들에게서보다 우리에게서 그것이 더 미움을 살 것입니다. 이름 있는 자가 탐내는 것을 드러난 힘으로 빼앗기보다 그럴듯한 속임수로 빼앗는 편이 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침해는 운이 준 힘이라는 구실이라도 있으나 뒤의 것은 그저 영리한 도둑질일 따름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닿은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지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맹세에 더해, 우리의 말을 실제로 드러난 사실과 견주어 볼 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확신이 절로 생기는 것을 보시는 마당에, 이보다 더 굳센 보증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할 수 없노라는 핑계를 내놓고 벗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거절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보기에 자유에는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며 자유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내어 주는 것이 옳지 아무에게나 그 뜻을 거슬러 억지로 씌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땅의 신들과 영웅들을 증인으로 삼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왔다가 물리침을 받았음을 밝히고, 여러분의 땅을 짓밟아 여러분을 억지로 따르게 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겠으며, 저를 몰아대는 필요가 저를 옳게 해 줍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우리 편에 붙지 않을 경우 벗인 여러분이 아테네인에게 바치는 돈으로 스파르타인이 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리스인이 종살이를 떨쳐 내는 것을 여러분이 가로막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하려는 대로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모두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빼고 나면, 원하지도 않는 이들을 자유롭게 할 무슨 까닭이 우리 스파르타인에게 있겠습니까?

제국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무너뜨리려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내어 주는 독립을 여러분이 가로막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이에게 그른 일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슬기롭게 결정하도록 힘쓰시고, 그리스인을 해방하는 일을 시작하는 자가 되도록 애쓰시며, 끝없는 명성을 스스로 쌓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사사로운 손해를 면하고 여러분의 나라를 영광으로 덮게 될 것입니다.

브라시다스의 말은 그러했다. 아칸토스인은 이 문제를 놓고 양쪽에서 말이 많이 오간 끝에 몰래 표를 던졌고, 브라시다스의 꾀는 논변과 열매에 대한 걱정에 이끌린 다수가 아테네에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가 나오기 전에 그의 나라가 맹세한 바, 곧 그가 끌어들이는 동맹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맹세에 대해 그에게서 몸소 보증을 받아 내기 전에는 군대를 들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드로스의 식민시인 스타기로스가 그 본을 따라 반란을 일으켰다.

이 여름의 일은 그러했다. 보이오티아의 자리들이 아테네 장군 히포크라테스와 데모스테네스의 손에 넘어오기로 되어 있던 것은 그해 겨울로 접어든 첫 며칠 사이였으니, 데모스테네스는 함선을 거느리고 시파이로, 히포크라테스는 델리온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저마다 떠나야 할 날을 헤아리는 데 잘못이 있었다. 먼저 시파이로 배를 몬 데모스테네스는 아카르나니아인과 그 지방 동맹 여럿을 배에 싣고 갔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니, 파노티스 출신의 포키스인 니코마코스가 음모를 일러바쳐 스파르타인에게 알렸고 스파르타인이 다시 보이오티아인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보이오티아 곳곳에서 구원병이 몰려들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않아 적의 힘을 갈라 놓지 못한 터였고, 시파이와 카이로네이아는

곧바로 지켜졌으며, 잘못을 전해 들은 음모자들은 감히 도시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히포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시민과 거류 외국인과 외국인을 총동원하여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보이오티아인은 이미 시파이에서 돌아온 뒤였고, 그는 군대를 앉히고 아폴론의 성소 델리온에 성벽을 두르는 일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신전과 신에게 바쳐진 땅을 빙 둘러 도랑을 파고 파낸 흙을 쌓아 올려 성벽을 삼았으며, 거기에 말뚝을 박고 성소 둘레의 포도나무를 베어 던져 넣었으며 가까운 집에서 헐어 낸 돌과 벽돌도 함께 넣었으니, 한마디로 방벽을 서둘러 올리는 데 쓸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썼다. 나무로 만든 망루도 필요한 자리마다 세웠고, 전에 있던 주랑이 무너져 내린 쪽처럼 신전 건물이 남아 있지 않은 자리에도 세웠다. 이 일은 본국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작해 나흘째 되는 날 내내 이어졌고 닷새째 되는 날 한낮 끼니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일이 거의 끝났으므로 군대는 델리온에서 약 10스타디온[3]을 돌아가는 길로 물러났다. 이 자리에서 경보병은 대부분 그대로 나아갔고 중장보병은 멈추어 그 자리에 머물렀다. 히포크라테스는 초소를 배치하고 아직 끝내지 못한 바깥 방어 시설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느라 델리온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날을 보내는 동안 보이오티아인은 타나그라에 모이고 있었고, 모든 도시에서 병력이 들어왔을 무렵에는 아테네인이 이미 돌아가는 길에 오른 것을 알았다. 보이오타르케스[4] 11명 가운데 나머지는 싸움을 벌이는 데 반대했으니, 적이 더는 보이오티아 안에 있지 않고 아테네인이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은 이미 오로포스 경계를 막 넘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베의 보이오타르케스이자(다른 한 사람은 리시마키다스의 아들 아리안티데스였다) 그때 총사령관이던 아이올리다스의 아들 파곤다스는 싸움에 걸어 보는 것이 가장 낫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모두가 한꺼번에 무기를 놓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중대별로 차례차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아테네인을 치고 싸움의 결판을 보자고 다그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이오티아인 여러분, 보이오티아 안에서 아테네인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장군인 우리 가운데 누구의 머리에도 떠올라서는 안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경계를 넘어 우리 땅에 요새를 세운 것은 보이오티아를 괴롭히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따라잡든 우리의 적이며, 적이 하는 짓을 하러 어디에서 왔든 마찬가지로 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안전을 이유로 그런 생각을 품었다면 이제야말로 그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제 나라가 위험에 빠져 공격을 받는 쪽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더 얻으려고 이웃을 칠 궁리나 하는 자들처럼 태연하게 무엇이 신중한 길인지 따지고 있기 어렵습니다. 제 나라 안에서든 밖에서든 쳐들어온 외적에게 똑같이 맞서는 것이 여러분 나라의 습속입니다. 더구나 그 외적이 아테네인이고 게다가 여러분의 경계에 붙어 사는 자라면 그렇게 해야 할 까닭은 갑절이 됩니다. 이웃끼리라면 대개 자유란 제 것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뜻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나 먼 데나 가리지 않고 종으로 삼으려 드는 이런 이웃을 두고서는 끝까지 싸워 결판을 내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에우보이아인의 처지와 그리스 나머지 땅 대부분의 처지를 보시고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남들은 이 경계냐 저 경계냐를 놓고 이웃과 싸우면 되지만,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진다는 것이 온 나라를 두르는 경계가 하나만 남고 그 경계를 놓고는 다툴 여지조차 없다는 뜻이니, 그들은 그저 와서 우리가 가진 것을 힘으로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웃에게서 두려워할 것이 다른 이웃에게서보다 그만큼 큽니다. 게다가 지금의 아테네인처럼 제 힘을 믿는 자만에

이끌려 이웃을 치는 자들은 대개 가만히 앉아 제 나라 안에서 지키기만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더없이 자신만만하게 진군해 오지만, 경계 밖으로 나와 저희를 맞고 틈이 보이면 먼저 치는 자들과 붙는 데는 두 번 생각합니다. 아테네인 스스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끼리의 다툼 탓에 그들이 이 땅을 차지했던 그때 코로네이아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안긴 패배가 오늘날까지 보이오티아에 큰 안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나이 든 이들은 지난날의 공적에 못지않아야 하고, 젊은이들은 그때 그 용사들의 아들이니 타고난 용맹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불경하게 요새로 바뀌어 버린 신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 제사에서 길하게 나온 제물을 믿고, 우리는 적을 향해 진군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거든 맞서지 않을 자를 찾아가 치라고, 그러나 제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싸울 채비가 되어 있고 남의 나라를 부당하게 종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음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를 그냥 보내 주지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논변으로 파곤다스는 보이오티아인을 설득해 아테네인을 치게 했고, 서둘러 진영을 거두어 군대를 앞으로 이끌었으니 이미 날이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적에게 가까이 이르자 그는 가운데 놓인 언덕이 두 군대가 서로를 보지 못하게 막아 주는 자리에 멈추어 대오를 짜고 싸울 채비를 했다. 그동안 델리온에 있던 히포크라테스는 보이오티아인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에 대오를 갖추라는 명령을 보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몸소 그들과 합류하면서 기병 300명쯤을 델리온에 남겨 두었으니 공격이 있을 경우 그곳을 지키게 하는 동시에 틈을 보아 싸움이 벌어지는 사이에 보이오티아인을 덮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보이오티아인은 이들을 맡을 한 부대를 떼어 두었고, 모든 것이 뜻대로 갖추어지자 언덕 위로 모습을 드러내어 정해 둔

대오대로 멈추어 섰으니, 중장보병 7,000명쯤과 경보병 10,000명이 넘는 수와 기병 1,000명과 경방패병[5] 500명이었다. 오른편에는 테베인과 그 관할 지역 사람들이, 가운데에는 할리아르토스인과 코로네이아인과 코파이인과 그 밖에 호수 둘레에 사는 사람들이, 왼편에는 테스피아이인과 타나그라인과 오르코메노스인이 있었고, 기병과 경보병은 양 날개 끝에 있었다. 테베인은 방패를 25겹으로 세웠고 나머지는 저마다 좋을 대로 세웠다. 보이오티아 군대의 세력과 배치는 그러했다.

아테네인 쪽에서는 군대 전체에 걸쳐 중장보병이 8겹으로 섰으니 수로는 적과 같았고, 기병은 양쪽 날개에 있었다. 제대로 무장한 경보병은 이 군대에 없었고 아테네에 일찍이 그런 병종이 있어 본 적도 없었다. 침공에 따라나섰던 자들은 적의 경보병보다 여러 곱절 많았으나 대부분 아테네의 시민과 외국인을 총동원한 데 따라 무장하지 않은 채 따라왔을 뿐이었고, 돌아가는 길에 먼저 떠났던 터라 그 자리에 있는 수가 많지 않았다. 두 군대가 이제 대오를 이루어 맞붙기 직전에 이르자 장군 히포크라테스는 아테네 대열을 따라 지나가며 다음과 같이 그들을 북돋웠다.

아테네인 여러분, 저는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용감한 사람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 없기 때문이며, 이 말은 다그침이라기보다 일깨움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굳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러 나섰다고 여기는 이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그들의 땅에서 벌어지지만 우리 땅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펠로폰네소스인은 보이오티아 기병 없이는 결코 여러분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한 번의 싸움으로 보이오티아를 얻고 어떤 뜻에서는 아티카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에서 으뜸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의 시민답게, 또 미로니데스와

함께 오이노피타에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하여 보이오티아를 차지했던 아버지들의 아들답게 나아가 그들을 맞으십시오.

히포크라테스가 군대의 절반쯤을 지나며 북돋우고 있을 때 보이오티아인은 파곤다스가 몇 마디를 급히 더 보탠 뒤 파이안[6]을 올리며 언덕에서 그들을 향해 내려왔고, 아테네인도 맞으러 나아가 달음질로 맞붙었다. 양쪽 군대의 맨 끝 날개는 싸움에 들지 못했으니 이쪽도 저쪽도 앞을 가로막은 물길에 걸렸기 때문이며, 나머지는 방패를 방패에 맞대고 더없이 끈질기게 싸웠다. 보이오티아의 왼편은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아테네인에게 밀렸다. 그 자리의 테스피아이인이 가장 심하게 당했다. 곁에 있던 병력이 물러나 버리자 그들은 좁은 자리에 에워싸여 손과 손을 맞대고 싸우다 베여 쓰러졌다. 아테네인 가운데에도 적을 에워싸다 어지러워져 서로를 잘못 알아보고 서로 죽인 자들이 있었다. 싸움터의 이쪽에서는 보이오티아인이 밀려 아직 싸우고 있던 병력 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테베인이 있던 오른편은 아테네인을 눌러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으나 점점 더 멀리 밀어냈다. 게다가 마침 파곤다스가 제 왼편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기병 두 무리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여 언덕을 돌아 보냈는데,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이기고 있던 아테네 날개는 또 다른 군대가 저희를 치러 오는 줄 알고 겁에 질렸다. 마침내 싸움터의 양쪽 모두가 이 겁에 흔들리고 밀고 들어오는 테베인에게 대오가 무너지면서 아테네 군대 전체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델리온과 바다로, 어떤 이는 오로포스로, 또 어떤 이는 파르네스 산으로, 저마다 살아날 가망이 있다고 본 곳으로 달아났고, 보이오티아인이 그들을 뒤쫓아 베었으니 그중에서도 기병이 그러했으니, 보이오티아 기병과 패주가 시작될 무렵에 막 구원하러 온 로크리스 기병이었다. 그러나 밤이 와서 추격이 끊긴 덕분에 달아나던 무리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보다 수월하게 벗어났다. 이튿날 오로포스와

델리온에 있던 병력은 델리온에 수비대를 남긴 뒤 바닷길로 돌아갔고, 패배를 당하고도 그곳은 계속 지켰다.

보이오티아인은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저희 죽은 자를 거두었으며 적의 죽은 자에게서는 무구를 벗겨 낸 뒤, 그 위에 파수를 남겨 두고 타나그라로 물러나 거기서 델리온을 칠 방책을 세웠다. 그동안 아테네인에게서 전령이 와서 죽은 자를 돌려 달라고 청했으나 보이오티아의 전령을 만나 되돌려 보내졌으니, 보이오티아 전령이 저 자신이 돌아오기 전에는 그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보이오티아 전령은 아테네인에게 가서 보이오티아인을 대신해, 그들이 그리스인의 법을 어겨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쳐들어간 나라의 신전을 지켜 주는 그 두루 통하는 관례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아테네인이 델리온에 성벽을 두르고 거기서 살면서 마치 신에게 바쳐지지 않은 땅에 있기라도 한 듯이 굴고, 보이오티아인이 거룩한 일에 쓸 때 말고는 결코 손대지 않는 물을 길어다 제 필요에 쓴다면 말이다. 그리하여 보이오티아인은 신을 위해서나 저희 자신을 위해서나, 관련된 신들과 아폴론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딸린 죽은 자를 거두어 가고자 한다면 먼저 신전에서 물러나라고 그들에게 청했다.

전령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아테네인은 저희 전령을 보이오티아인에게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들은 신전에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만큼을 넘어서는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그런 뜻으로 그곳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 맞서 그곳을 근거로 삼아 저희를 지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넓든 좁든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전을 차지하는 것이 그리스인의 법이며,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여느 때의 예식을 이어 갈 의무가 따라온다고 했다. 보이오티아인과 그

밖에 어떤 나라의 주인을 내쫓고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로서 들어간 신전을 이제 제 권리로 쥐고 있다고 했다. 아테네인이 보이오티아를 더 많이 정복할 수 있었더라면 저희도 그러했을 것이며, 형세가 이러한 만큼 손에 넣은 그 한 조각은 제 것으로 다루어야 하고 어쩔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물은 저희가 함부로 불러들이지 않은 필요에 몰려 건드린 것이니, 먼저 아티카를 쳐들어온 보이오티아인에 맞서 저희를 지키느라 그 물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전쟁과 위험에 짓눌려 한 일이라면 신의 눈으로 보아도 마땅히 너그러움을 청할 수 있으며, 그러지 않다면 제단이 어찌하여 마음먹지 않고 지은 죄의 피난처가 되겠느냐고 했다. 또 어김이란 뻔뻔하게 죄를 짓는 자에게 쓰는 말이지 형세에 밀린 자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고 했다. 요컨대 어느 쪽이 더 불경한가? 죽은 몸을 거룩한 자리와 맞바꾸려는 보이오티아인인가, 아니면 제 권리로 저희 것인 것을 얻기 위해 거룩한 자리를 내놓기를 마다하는 아테네인인가? 그러므로 보이오티아를 떠나라는 조건은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저희는 더는 보이오티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저희가 선 자리에 선 것은 칼의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보이오티아인이 할 일은 나라의 관례에 따라 휴전 아래 죽은 자를 거두어 가라고 저희에게 말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보이오티아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들이 보이오티아에 있다면 죽은 자를 거두기 전에 그 나라를 떠나야 하고, 저들의 땅에 있다면 저들이 좋을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마침 주검이 놓인 곳인 오로포스 땅이 (싸움이 경계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아테네에 딸린 곳이기는 하나, 저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테네인이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테네 땅을 위해 저희가 무엇하러 휴전을 허락하겠는가? 청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보이오티아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온당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리하여 아테네 전령은 이 대답을 받아 든 채 뜻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동안 보이오티아인은 곧바로 말리아 만에서 투창병과 투석병을 불러오게 했고, 싸움이 끝난 뒤 합류한 코린트 중장보병 2,000명과 니사이아에서 물러난 펠로폰네소스 수비대와 그들과 함께 온 메가라인 얼마를 거느리고 델리온으로 진군해 요새를 쳤으며, 여러 번 애쓴 끝에 마침내 다음과 같은 기계로 그곳을 손에 넣었다. 그들은 큰 통나무를 둘로 켜서 끝에서 끝까지 속을 파낸 뒤 다시 잘 맞추어 붙여 관처럼 만들었고, 한쪽 끝에 사슬로 큰 솥을 달았으며, 그 솥은 통나무에서 뻗어 나온 쇠 대롱으로 통나무와 통하게 했고 통나무 자체도 대부분 쇠를 입혔다. 이것을 멀리서 수레에 실어 주로 포도나무와 재목으로 이루어진 성벽 쪽으로 끌고 갔으며, 가까이 이르자 제 쪽 통나무 끝에 커다란 풀무를 끼워 바람을 불어넣었다. 좁은 통로에 갇힌 채 지나간 바람이 불붙은 숯과 유황과 역청이 담긴 솥으로 들어가 큰 불길을 일으켜 성벽에 불을 붙였고, 성벽은 이내 지키던 자들이 버틸 수 없는 곳이 되어 그들이 그곳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이렇게 하여 요새는 함락되었다. 수비대 가운데 얼마는 죽고 200명은 사로잡혔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배에 올라 본국으로 돌아갔다.

델리온이 떨어진 것은 싸움이 있은 지 17일 뒤였는데, 그 직후에 아테네 전령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은 자를 청하러 다시 왔고, 보이오티아인은 이제 처음처럼 대답하지 않고 죽은 자를 돌려주었다. 이 싸움에서 보이오티아인은 5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가 쓰러졌고, 아테네인은 장군 히포크라테스를 포함해 1,000명에 가까운 수가 쓰러졌으며, 그 밖에 경보병과 군을 따라다니던 자들도 많이 쓰러졌다.

이 싸움이 있은 직후 데모스테네스는 시파이로 간 항해와 그 도시에 대한 음모가 실패로 끝난 뒤, 아카르나니아인과 아그라이아인의 병력과 배에 태우고 있던 아테네 중장보병 400명을 써서 시키온 해안에 상륙했다. 그러나 그의 배가 모두 바닷가에 닿기 전에 시키온인이 몰려와, 이미 내린 자들을 쳐부수어 배까지 쫓으며 얼마는 죽이고 얼마는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휴전 아래 죽은 자를 돌려주었다.

델리온의 일이 있던 그 무렵에 오드리사이인의 왕 시탈케스가 죽었으니, 트리발리인을 치는 싸움에서 패했던 것이다. 그의 조카인 스파라도코스의 아들 세우테스가 오드리사이인의 왕위와 시탈케스가 다스리던 트라키아의 나머지 땅을 이어받았다.

같은 해 겨울 브라시다스는 트라키아 지방의 동맹들과 함께 스트리몬 강에 있는 아테네의 식민시 암피폴리스로 진군했다. 지금 그 도시가 서 있는 자리에 앞서 정착을 꾀한 것은 밀레토스인 아리스타고라스였으나(다레이오스 왕에게서 달아나던 때였다) 에도니인에게 밀려났고, 그로부터 32년 뒤에 아테네인이 그 일을 꾀해 제 시민과 그 밖에 가고자 하는 자들로 정착민 10,000명을 그곳으로 보냈다. 이들은 드라베스코스에서 트라키아인에게 몰살되었다. 그 뒤 29년이 지나 아테네인이 다시 와서(니키아스의 아들 하그논이 식민시의 지도자로 보내졌다) 에도니인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도시를 세웠으니, 전에는 엔네아 호도이, 곧 아홉 길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그들이 출발한 근거지는 강 어귀에 있는 저희 교역 항구 에이온으로, 지금의 도시에서 25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다. 하그논은 스트리몬이 그 도시의 두 면을 감돌아 흐르므로 그 도시를 암피폴리스라 이름 지었고, 바다에서나 땅에서나 한눈에 들어오도록 세웠으며, 강에서 강으로 긴 성벽을 가로질러 뻗어 둘레를 완성했다.

브라시다스는 이제 칼키디케의 아르네를 떠나 이 도시로 진군했다. 해질 무렵 볼베 호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아울론과 브로미스코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을 먹고 밤새 나아갔다. 날씨는 거칠고 눈발이 조금 날렸으니, 그것이 그를 재촉해 서둘러 나아가게 했다. 될 수만 있다면 도시를 넘겨줄 자들만 빼고 암피폴리스의 모든 사람이 뜻밖의 일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음모를 꾸민 것은 암피폴리스에 살던 안드로스의 식민시 아르길로스 출신 몇 사람이었고, 그곳에는 페르디카스나 칼키디케인이 끌어들인 다른 한패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일에 가장 부지런했던 것은 가까이 있는 아르길로스 자체의 주민이었으니, 그들은 늘 아테네인에게 의심을 받아 왔고 그곳을 노려온 터였다. 이제 이들은 브라시다스와 함께 기회가 왔음을 알아보았고, 얼마 전부터 암피폴리스에 있는 제 고향 사람들과 그 도시를 넘겨주는 일을 두고 편지를 주고받던 터였으므로 곧바로 그를 아르길로스로 받아들이고 아테네인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날 밤 그를 강 위의 다리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는 자기를 막아서는 작은 파수만을 보았으니, 도시가 그 건널목에서 얼마간 떨어져 있었고 성벽이 지금처럼 거기까지 내려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파수를 쉽게 쫓아냈으니, 얼마는 배신이 꾸며져 있었던 탓이고 얼마는 날씨가 거칠었던 탓이며 그의 공격이 갑작스러웠던 탓이었다. 그리하여 다리를 건넜고 곧바로 성벽 밖의 모든 재물을 손에 넣었으니, 암피폴리스인이 그 구역 곳곳에 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브라시다스가 건너온 것은 도시 안 사람들에게 아주 뜻밖의 일이었다. 성벽 밖에 있던 자들이 많이 붙잡히고 나머지가 성벽 안으로 달아난 것이 겹쳐 시민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켰으니,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 브라시다스가 멈추어 서서 약탈하는 대신 곧바로 도시를 향해 나아갔더라면 아마 그곳을 손에 넣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있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성벽 밖의 땅을 휩쓸었으며, 안에 있는 자기 편이 나서 주기를 헛되이 기다리면서 그때로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동안 배신자들에게 맞선 쪽은 성문이 곧바로 열리는 것을 막을 만큼 수가 많았고, 그곳을 지키려 아테네에서 와 있던 장군 에우클레스와 뜻을 합쳐 트라키아의 또 다른 지휘관인 올로로스의 아들 투키디데스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하러 와 달라고 했으니, 이 역사를 쓴 자로서 암피폴리스에서 반나절 뱃길인 파로스의 식민시 타소스섬에 있던 터였다. 이 전갈을 받자 그는 곁에 두고 있던 함선 7척으로 곧바로 배를 띄웠으니, 될 수만 있다면 암피폴리스가 항복하기 전에 닿아 그것을 막고, 그러지 못한다 해도 에이온만은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브라시다스는 타소스에서 바닷길로 구원병이 올 것을 두려워하고, 또 투키디데스가 트라키아 그 지방의 금광을 캘 권리를 지녔으므로 대륙의 주민들에게 큰 세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서, 될 수만 있다면 서둘러 그 도시를 얻고자 했다. 암피폴리스 사람들이 그가 왔다는 것에 힘을 얻어, 그가 바다와 트라키아에서 동맹의 군세를 그러모아 저희를 지켜 줄 수 있으리라 바라고 항복을 마다하게 되기 전에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온건한 조건을 내놓아, 암피폴리스인과 아테네인 가운데 원하는 자는 누구든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며 제 재산을 그대로 지닐 수 있고,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닷새 안에 제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고 포고했다.

주민의 대부분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으니, 시민 가운데 아테네인은 적은 수뿐이고 대다수는 여러 곳에서 온 자들이었으며 성벽 밖에서 붙잡힌 자들 가운데 성벽 안에 친척을 둔 이가 많았으므로 더욱 그러했다. 그들은 두려움이 저희에게 떠올려 주었던 것에 견주면 그 포고가 온당하다고 여겼다. 아테네인은 저희가

남들보다 더 큰 위험에 놓였다고 여기고 게다가 구원이 빨리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나가는 것이 반가웠고, 뭇사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지니게 되고 뜻하지 않게 위험에서 놓여난 것에 만족했다. 브라시다스 편에 선 자들은 백성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 자리에 있는 아테네 장군의 말에 더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드러내 놓고 이 길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항복이 이루어졌고 브라시다스는 자기 포고의 조건에 따라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도시를 내놓았고, 같은 날 늦게 투키디데스와 그의 배들이 에이온 항구로 들어왔으니, 브라시다스가 암피폴리스를 막 손에 넣은 뒤였고 에이온을 차지하기까지 하룻밤이 남았을 뿐이었다. 배들이 구원에 그만큼 빠르지 않았더라면 아침에는 에이온도 그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 뒤 투키디데스는 브라시다스가 지금이든 뒷날이든 공격해 오더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에이온의 모든 것을 갖추어 두었고, 맺은 조건에 따라 내륙에서 그곳으로 오기로 한 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브라시다스는 갑자기 배 여러 척으로 강을 따라 에이온으로 내려와, 성벽에서 뻗어 나온 곶을 차지해 그 입구를 눌러 볼 수 있을지 살폈고 같은 때에 육지로도 그것을 꾀했으나 양쪽에서 다 물리쳐졌으므로, 암피폴리스와 그 근방의 일을 갖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에도니인의 도시 미르키노스도 그에게 넘어왔으니, 에도니인의 왕 피타코스가 고악시스의 아들들과 자기 아내 브라우로에게 죽임을 당한 뒤였다. 또 타소스의 식민시인 갈렙소스와 오이시메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본을 따랐다. 페르디카스 역시 그곳이 함락된 직후에 올라와 이 일들을 갖추는 데 함께했다.

암피폴리스가 적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아테네에 큰 놀라움을 일으켰다. 그 도시는 배를 짓는 데 쓸 재목을 내주고 돈을 벌어들이게 해

주므로 값진 곳이기도 했으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테살리아인의 인도가 스파르타인에게 스트리몬까지 아테네의 동맹들에게 닿을 길을 내주었다 해도, 그들이 다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에이온 쪽에서는 아테네 함선들에게 감시를 받고 육지 쪽에서는 강물이 이룬 크고 넓게 퍼진 호수에 막혀 있는 동안은 더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이 열린 듯이 보였다. 또 동맹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으니, 브라시다스가 무슨 일에서나 보여 준 절도 있는 처신 때문이었고, 자기는 그리스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왔노라고 곳곳에서 내놓던 말 때문이었다. 아테네에 딸린 도시들은 암피폴리스가 함락된 일과 그곳에 주어진 조건과 브라시다스의 부드러움을 전해 듣고 제 처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을 그 무엇보다 크게 품었으며, 그에게 몰래 전갈을 보내 자기들에게 와 달라고 청했으니 저마다 먼저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 아무 위험이 없어 보였다. 아테네의 힘을 헤아리는 데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그 힘이 뒷날 드러난 그 크기만큼이나 컸고, 그들의 판단은 어떤 온전한 앞헤아림이 아니라 눈먼 바람에 더 많이 기대고 있었다. 사람이란 바라는 것은 무심한 희망에 맡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성을 제 마음대로 휘둘러 밀어내 버리는 것이 습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테네인이 얼마 전 보이오티아에서 입은 호된 타격에, 아테네인이 니사이아에서 그의 군대 하나를 감히 맞붙으려 하지 않았다는 브라시다스의 꾀는 말이 참되지는 않았으나 함께 겹쳐, 동맹들에게 자신을 심어 주고 아테네 군세가 저희를 치러 오지는 않으리라고 믿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당장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싶은 바람과 스파르타인이 시작할 때에는 열의로 가득할 것이라는 그럴 만한 짐작이 그들에게 걸어 볼 마음을 일으켰다. 아테네인은 이것을 보고 그처럼 갑작스러운 통고에 겨울철이기까지 한 사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여러 도시에 수비대를 보냈고, 그동안

브라시다스는 스파르타로 글을 보내 증원을 청하고 스스로도 스트리몬에서 함선을 지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으니, 얼마는 그 나라 으뜸 되는 자들의 시샘 때문이었고 얼마는 섬에서 잡힌 포로들을 되찾고 전쟁을 끝내는 데 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겨울 메가라인은 아테네인이 차지하고 있던 긴 성벽을 손에 넣어 바닥까지 허물었다. 그리고 브라시다스는 암피폴리스를 손에 넣은 뒤 동맹들과 함께 악테로 진군했으니, 왕의 운하에서 안으로 굽어 뻗어 나가 에게해를 바라보는 높은 산 아토스에서 끝나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여러 도시가 있는데, 운하 가까이 에우보이아 쪽 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안드로스의 식민시 사네가 있고, 그 밖에 티소스와 클레오네와 아크로토이와 올로픽소스와 디온이 있어 두 언어를 쓰는 여러 야만 종족이 섞여 살고 있다. 칼키디케 사람도 조금 있으나 대다수는 한때 렘노스와 아테네에 자리 잡았던 티레노펠라스기인과 비살티아인과 크레스토니아인과 에도니인이며, 도시는 모두 작다. 이들 대부분은 브라시다스에게 넘어왔으나 사네와 디온은 버텼고 그와 그의 군대에게 제 땅이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굴복하지 않으므로 그는 곧바로 칼키디케의 토로네로 진군했으니, 아테네 수비대가 지키던 곳으로 그 도시를 넘길 채비를 해 둔 몇 사람이 그를 불렀던 것이다. 날이 밝기 조금 전 어둠 속에 이르러 그는 도시에서 3스타디온쯤 떨어진 디오스쿠로이 신전 가까이 군대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토로네의 다른 사람들과 수비대의 아테네인은 그가 다가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의 편 사람들은(그중 몇은 몰래 나가 그를 맞았다) 그가 이르기를 살피고 있었고,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단검을 든 경무장한 자 7명을 데려갔으니, 이 임무를 받은 20명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감히 들어가려

했고 올린토스인 리시스트라토스가 그들을 이끌었다. 이들은 바다 쪽 성벽을 지나 눈에 띄지 않게 올라가 언덕 위에 선 도시의 가장 높은 초소의 수비병을 칼로 베었고, 카나스트라이온 쪽의 뒷문을 깨어 열었다.

그동안 브라시다스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주력과 함께 멈추어 섰고, 경방패병 100명을 앞서 보내 약속대로 성문이 열리고 봉화가 오르는 순간 맨 먼저 달려 들어갈 채비를 하게 했다. 얼마를 기다리며 왜 늦어지는지 의아해하다가 경방패병들은 차츰 도시 가까이 다가갔다. 그 사이 안에서 들어간 일행과 함께 일하던 토로네인은 뒷문을 부수고 빗장을 잘라 장터로 이어지는 성문을 열어 두었으며, 먼저 몇 사람을 둘러 데려와 뒷문으로 들여보냈으니, 뜻밖의 일을 당한 도시 사람들을 등 뒤에서 양쪽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쳐서 겁에 질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약속대로 불 신호를 올리고 장터 쪽 문으로 나머지 경방패병을 들였다.

브라시다스는 신호를 보고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이르고 앞으로 달려 나갔으며, 그의 군사들이 크게 지르는 함성이 얼이 빠진 도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퍼뜨렸다. 어떤 자들은 곧바로 성문으로 밀고 들어갔고, 어떤 자들은 돌을 끌어올리려고 성벽에 대어 둔 네모진 재목을 밟고 넘어 들어갔다(성벽이 무너져 다시 쌓는 중이었다). 브라시다스와 대부분은 곧바로 언덕을 올라 도시의 높은 쪽으로 향했으니, 위에서 아래까지 한꺼번에 아주 끝을 내려는 것이었고, 남은 무리는 사방으로 퍼졌다.

도시는 토로네인 대부분이 뜻밖의 일과 혼란에서 미처 깨어나기 전에 함락되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민 자들과 그들 편에 선 시민들은 곧바로 쳐들어온 자들과 합류했다. 마침 아테네 중장보병 50명쯤이 장터에서 잠들어 있다가 소란이 그들에게 닿았다. 이 가운데 몇은 싸우다 죽고

나머지는 벗어났으니, 얼마는 육지로, 얼마는 그곳에 대어 둔 배 두 척으로 갔으며, 바다로 뻗어 나가 좁은 지협으로 끊긴 도시의 한 구석에 있는, 저희 군사가 지키던 요새 레키토스로 피했다. 거기서 저희 편 토로네인이 그들과 합류했다.

이제 날이 밝고 도시가 확보되자 브라시다스는 아테네인에게로 피한 토로네인에게 포고를 내려, 원하는 자는 누구든 제 권리나 몸을 걱정하지 말고 나와 제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며, 전령을 보내 아테네인에게 휴전을 받아들이고 레키토스는 칼키디케의 땅이니 제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물러나라고 청했다. 아테네인은 이 제안을 마다했으나 죽은 자를 거둘 하루의 휴전을 청했다. 브라시다스는 이틀을 허락했고, 그 이틀 동안 가까운 집들을 요새로 다지는 데 힘을 썼으며 아테네인도 저희 자리에 같은 일을 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토로네인을 불러 모아 아칸토스에서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말을 했다. 곧 도시를 손에 넣는 일을 두고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자들을 나쁜 사람이나 배신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돈에 매수되어서나 도시를 종으로 만들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토로네의 좋음과 자유를 위해서였다고 했다. 또 이 일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도 그 열매를 똑같이 거두지 못하리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자기는 도시든 개인이든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테네인에게로 피한 자들에게 포고를 내린 까닭이 이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아테네인과 벗이었다 하여 그들을 낮추어 보지 않으며, 그들이 스파르타인을 한번 겪어 보기만 하면 그만큼, 아니 훨씬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니 스파르타인이 훨씬 더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금 스파르타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겪어 보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그러는 한편 그는 그들 모두에게 미리 일러, 흔들리지 않는 동맹이 될 채비를 하고 앞으로 저지르는 잘못에는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알아 두라고 했다. 지난 일로 말하자면 그들이 스파르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저희보다 너무 강한 다른 자들에게서 잘못을 입은 것이며, 그들이 자기에게 맞섰다 해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말로 그들을 북돋운 뒤 휴전이 끝나자 그는 곧 레키토스를 쳤다. 아테네인은 허술한 성벽과 흉벽을 올린 몇 채의 집에 의지해 저희를 지켰다. 하루는 그를 물리쳤다. 그러나 이튿날 적은 나무로 된 방어 시설에 불을 던지려고 기계를 끌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군사들은 기계를 끌어올리기에 가장 좋다고 여긴, 또 그 자리가 가장 치기 쉽다고 여긴 지점까지 이미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아테네인은 마주 보이는 집 위에 나무 망루를 올리고 물이 든 항아리와 통을 여럿과 큰 돌을 많이 끌어올렸으며 사람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너무 무겁게 실린 집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가까이 있어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겁을 먹기보다 짜증이 났으나, 그만큼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 더욱이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가 이미 함락된 줄 알고 서둘러 바다와 배로 달아났다.

브라시다스는 그들이 흉벽을 버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달려 나갔으며, 곧바로 그 요새를 손에 넣고 그 안에서 만난 자를 모두 칼로 베었다. 이렇게 하여 그곳은 아테네인에게서 비워졌고, 그들은 저희 배와 함선으로 팔레네로 건너갔다. 그런데 레키토스에는 아테나의 신전이 있었고, 브라시다스는 공격을 벌이던 그때 성벽에 맨 먼저 오르는 자에게 은 30므나[7]를 주겠노라고 포고해 둔 터였다. 그는 이제 그곳을 손에 넣은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여겼으므로, 그 30므나를 여신의 신전에 바쳤고, 레키토스를 허물어 치운 뒤 그 전부를 신에게 바쳐진 땅으로 만들었다. 그해 겨울의 나머지는 손에 넣은

자리들을 다스리고 나머지 자리들을 꾀하는 데 썼으며, 겨울이 다하면서 이 전쟁의 제8년이 끝났다.

이듬해 여름이 시작되는 봄에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은 1년 기한의 휴전 협정을 맺었다. 아테네인은 이렇게 하면 브라시다스가 저희 도시를 더 반란으로 이끌기 전에 넉넉히 틈을 두어 대비할 수 있고, 또 저희에게 알맞다면 전면적인 화약까지 맺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스파르타인은 아테네인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바를 알아차리고, 고생과 괴로움에서 한번 놓여나는 맛을 보고 나면 그들이 화해에 동의하고 포로를 돌려주며 더 긴 기한의 조약을 맺는 쪽으로 더 기울리라고 여겼다. 스파르타인의 가장 큰 생각은 브라시다스의 좋은 운이 이어지는 동안에 제 사람들을 되찾는 것이었다. 승리가 더 이어지면 칼키디케에서 벌이는 싸움이 덜 기울어진 것이 될지는 몰라도 저희 사람들은 여전히 빼앗긴 채일 터이고, 칼키디케에서조차 아테네인과 맞먹는 정도에 그쳐 승리를 결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와 그 동맹은 다음 조건으로 휴전 협정을 맺었다.

1. 피티아의 아폴론의 신전과 신탁소에 관하여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 조상의 관례에 따라 속임도 두려움도 없이 그곳에 드나들 수 있다는 데 우리가 합의한다. 스파르타인과 그 자리에 있는 동맹들은 이에 합의하며, 보이오티아인과 포키스인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도 이에 합의하도록 설득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2. 신의 재물에 관하여는, 우리와 그대들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밖의 모든 자가 다 함께 조상의 관례를 참되고 정직하게 따라, 그 재물을 함부로 쓴 자를 모두 찾아내는 데 힘쓰기로 합의한다. 이 점들에 관하여 스파르타인과 그 밖의 동맹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의한다.

3. 다음 일들에 관하여 스파르타인과 그 밖의 동맹들은, 아테네인이 조약을 맺을 경우 우리가 저마다 제 영토에 머물며 각자 얻은 것을

그대로 지니기로 합의한다. 코리파시온의 수비대는 부프라스와 토메우스 안에 머문다. 키테라의 수비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어떤 왕래도 꾀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들과도 그들이 우리와도 왕래하지 않는다. 니사이아와 미노아의 수비대는 니소스 사당 곁의 문에서 포세이돈 신전까지, 거기서 곧바로 미노아의 다리로 이어지는 길을 넘지 않는다. 메가라인과 그 동맹도 똑같이 이 길을 넘지 않을 의무를 지며, 아테네인은 저희가 차지한 섬을 그대로 지니되 어느 쪽도 왕래하지 않는다. 트로이젠에 관하여는 아테네인이 지금 가진 것을 트로이젠인이 아테네인과 맺어 둔 바에 따라 그대로 지닌다.

4. 바다를 쓰는 일에 관하여는, 저희 해안과 저희 동맹의 해안에 관한 한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노로 젓는 배로서 적재량이 500탈란톤[8]을 넘지 않는 배라면 어떤 배로든 그 바다를 오갈 수 있으며, 군선은 안 된다.

5. 전쟁을 끝내고 청구를 조정하기 위한 모든 전령과 사절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행원을 데리고, 육로와 해로로 펠로폰네소스나 아테네에 오가는 자유로운 통행을 누린다.

6. 휴전 기간에 도망한 자는 종이든 자유민이든 그대들도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나아가 그대들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대들에게 각자 나라의 공법에 따라 만족을 주며, 모든 다툼은 싸움에 의지하지 않고 법으로 가린다.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은 이 조항들에 합의한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더 온당하거나 더 올바른 제안이 있다면 스파르타로 와서 우리에게 알리라. 올바른 것이라면 무엇이든 스파르타인에게서도 동맹에게서도 반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는 자들은 그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대로 전권을 가지고 오게 하라. 휴전은 1년으로 한다.

백성이 이를 승인하였다.

아카만티스 부족이 프리타니스[9]를 맡았고 포이니포스가 서기였으며 니키아데스가 의장이었다. 라케스는 아테네인의 좋은 운의 이름으로,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휴전 협정을 맺을 것을 발의했다. 그리하여 민회에서 합의된 바는, 휴전을 1년으로 하고 바로 그날인 엘라페볼리온[10] 달 14일에 시작하며, 그 기간에 사절과 전령이 두 나라 사이를 오가며 화평의 바탕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또 장군들과 프리타네스가 민회를 불러, 아테네인이 그 자리에서 먼저 화평에 관하여, 사절단이 전쟁을 끝내는 일에 관하여 들여오는 제안에 따라 의논한다는 것이었다. 또 지금 와 있는 사절단은 이 휴전을 1년 동안 참되고 온전하게 지킨다는 약속을 백성 앞에서 곧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스파르타인은 스파르타 달 게라스티오스[11] 12일에 아테네인과 그 동맹과 협정을 맺었고, 동맹들도 맹세했다. 협정을 맺고 헌주를 따른 자들은 스파르타인으로 에케티미데스의 아들 타우로스와 페리클레이다스의 아들 아테나이오스와 에릭실라이다스의 아들 필로카리다스, 코린트인으로 오키토스의 아들 아이네아스와 아리스토니모스의 아들 에우파미다스, 시키온인으로 나우크라테스의 아들 다모티모스와 메가클레스의 아들 오나시모스, 메가라인으로 케칼로스의 아들 니카소스와 암피도로스의 아들 메네크라테스, 그리고 에피다우로스인으로 에우파이다스의 아들 암피아스였으며, 아테네 장군으로는 디이트레페스의 아들 니코스트라토스와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와 톨마이오스의 아들 아우토클레스였다. 휴전 협정은 그러했고, 그 기간 내내 화평을 두고 회담이 이어졌다.

이 회담을 오가며 보내던 그 며칠 사이에 팔레네에 있는 도시 스키오네가 아테네에 반란을 일으켜 브라시다스에게 넘어갔다. 스키오네인은 저희가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팔레네인이며, 저희를 처음

세운 이들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아카이아인이 만났던 그 폭풍에 밀려 이 자리로 들어와 여기 자리를 잡았다고 말한다. 스키오네인이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브라시다스는 밤에 스키오네로 건너갔으니, 우군 함선 한 척을 앞세우고 자기는 그 뒤로 얼마쯤 떨어져 작은 배에 타고 갔다. 작은 배보다 큰 배를 만나면 자기를 지켜 줄 함선이 있게 되고, 그 함선과 맞먹는 배라면 큰 배를 치려고 작은 배는 그냥 지나칠 것이 그럴 법하니 그동안 자기가 빠져나갈 틈이 생긴다는 생각이었다. 건너가는 일을 마친 뒤 그는 스키오네인을 불러 모아 아칸토스와 토로네에서 했던 것과 같은 뜻의 말을 했고, 거기에 그들이 더없이 큰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보탰다. 아테네인이 포티다이아를 차지하여 지협 안쪽의 팔레네가 끊겨 있고 저희 처지가 사실상 섬과 같은데도, 그들이 겁먹은 채 저희에게 뚜렷이 좋은 것을 힘으로 강요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 뜻으로 나아가 제 자유를 맞으러 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용맹하게 견뎌 낼 것임을 보여 주는 표지라고 했다. 또 자기가 뜻한 대로 일을 갖추게 되면 그들을 스파르타인의 가장 참되고 가장 진실한 벗으로 헤아릴 것이며 그 밖의 모든 길로도 그들을 높이겠다고 했다.

스키오네인은 그의 말에 크게 들떴고, 처음에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좋게 여기지 않던 자들조차 그 두루 퍼진 자신에 물들었으므로, 그들은 전쟁을 힘차게 밀고 나가기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예로 브라시다스를 맞았으며 그리스의 해방자로서 그에게 나라의 이름으로 금관을 씌웠다. 그러는 동안 사사로운 사람들도 그를 둘러싸고 몰려들어 마치 그가 경기의 승자라도 되는 듯이 화환을 걸어 주었다. 그러는 한편 브라시다스는 그때로서는 작은 수비대만을 그들에게 남기고 다시 건너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병력을 보냈으니 아테네인이 이르기 전에 스키오네인의 도움을 얻어 멘데와 포티다이아를 꾀해 볼

뜻이었다. 스키오네가 섬과 너무나 비슷해 아테네인이 그곳을 구하러 오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느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앞서 말한 도시들을 넘겨받는 일에 대해 안에서 통하는 연락을 두고 있었다.

그가 이 도시들을 꾀하는 한가운데에 휴전 협정의 소식을 돌려 알리는 위원들이 함선을 타고 이르렀으니, 아테네인 쪽에서는 아리스토니모스, 스파르타인 쪽에서는 아테나이오스였다. 이제 병력은 토로네로 되건너갔고 위원들은 브라시다스에게 협정을 알렸다. 트라키아에 있던 스파르타의 동맹은 모두 이미 이루어진 바를 받아들였다. 아리스토니모스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렵게 굴지 않았으나, 날을 헤아려 보니 스키오네인이 협정을 맺은 날보다 뒤에 반란을 일으켰음을 알고 그들을 협정에 넣기를 마다했다. 이에 브라시다스는 반란이 그보다 앞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힘써 맞섰고 그 도시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아리스토니모스가 이 일을 아테네에 알리자 백성은 곧바로 스키오네로 원정을 보낼 준비를 했다. 그러자 스파르타에서 사절이 와서, 그것은 휴전을 깨는 일이 될 것이라 하며 브라시다스의 주장을 믿는다며 그 도시에 대한 권리를 내세웠고, 그러는 한편 이 문제를 중재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재란 아테네인이 걸어 볼 마음이 없는 것이었으니, 곧바로 그곳에 군대를 보내기로 마음을 굳혔고 이제 섬사람들까지도 스파르타인의 육지 세력에 헛되이 기대어 감히 반란을 일으킨다는 데 노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란의 사실은 아테네인이 주장하는 쪽에 가까웠으니, 스키오네인은 협정을 맺은 지 이틀 뒤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클레온은 스키오네인을 굴복시켜 죽이라는 결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고, 아테네인은 이제 누리게 된 틈을 원정 준비에 썼다.

그러는 동안 팔레네에 있는 도시이자 에레트리아인의 식민시인 멘데가 반란을 일으켰고, 브라시다스는 그곳이 휴전 기간에 넘어온 것이

뚜렷했음에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으니, 아테네인이 휴전을 어긴 데가 몇 가지 있다고 그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멘데의 이 대담함은 얼마는 브라시다스가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본 데서, 또 그가 스키오네를 내놓기를 마다한 데서 끌어낸 결론에서 나온 것이었다. 게다가 멘데의 음모자들은 수가 적었고, 일단 그때 일을 벌이기로 한 뒤로는 더 물러서지 않았으며, 저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뭇사람을 그 뜻을 거슬러 억지로 끌고 갔다. 이 소식은 아테네인을 그 어느 때보다 노엽게 만들었고, 그들은 곧바로 두 도시를 겨누어 준비했다. 브라시다스는 그들이 올 것을 내다보고 스키오네인과 멘데인의 여자와 아이들을 칼키디케의 올린토스로 실어 보냈으며, 두 도시로 펠로폰네소스 중장보병 500명과 칼키디케 경방패병 300명을 건네보내 모두 폴리다미다스의 지휘 아래 두었다.

아테네인이 곧 이를 것에 맞서 두 도시가 함께 준비하도록 남겨 둔 뒤, 브라시다스와 페르디카스는 두 번째로 함께 링코스로 들어가 아르라바이오스를 치러 나섰다. 페르디카스는 자기에게 딸린 마케도니아인의 군세와 그 나라에 사는 그리스인으로 이루어진 중장보병 한 부대를 거느렸고, 브라시다스는 아직 곁에 두고 있던 펠로폰네소스인과 칼키디케인과 아칸토스인과 그 밖의 사람들을 저들이 낼 수 있는 만큼의 군세로 거느렸다. 모두 합해 그리스 중장보병이 3,000명쯤이었고, 거기에 마케도니아 기병 전부가 칼키디케인과 함께 1,000명에 가까운 수로 따랐으며, 그 밖에 야만인이 엄청난 무리로 따랐다. 아르라바이오스의 땅에 들어서자 그들은 링케스티스인이 진을 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저희도 마주 보는 자리를 잡았다. 양쪽 보병은 언덕 위에 있었고 그 사이에 들판이 있었는데, 두 군대의 기병이 먼저 그 들판으로 달려 내려가 기병끼리 싸움을 벌였다. 그런 뒤에 링케스티스의 중장보병이 제 언덕에서 내려와 기병과

합류하며 싸움을 걸었고, 이에 브라시다스와 페르디카스도 내려와 그들을 맞아 붙어 크게 죽이며 쳐부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높은 데로 피해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긴 쪽은 이제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페르디카스와 합류할 예정이던 일리리아 용병을 이틀이나 사흘 기다렸다. 그때 페르디카스는 더 나아가 아르라바이오스의 마을들을 치고 더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브라시다스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테네인이 배를 몰고 올까, 멘데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했고 게다가 일리리아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 바람을 거들기는커녕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일리리아인이 실제로 페르디카스를 배신하고 아르라바이오스에게 붙었다는 소식이 이르렀고, 그들의 싸움을 잘하는 성질이 일으킨 두려움 때문에 이제 두 쪽 모두 물러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여겼다. 그러나 다툼 탓에 언제 떠날 것인가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였다. 밤이 오자 마케도니아인과 야만인 무리는 큰 군대가 흔히 겪는 그 알 수 없는 겁의 하나에 순식간에 사로잡혀, 실제로 이른 군세보다 여러 곱절 많은 군대가 밀려와 바로 저희 앞에 닿았다고 믿고서 갑자기 무너져 고향 쪽으로 달아났으며, 그리하여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던 페르디카스까지 브라시다스를 보지 못한 채 떠나게 만들었으니 두 군대가 서로 꽤 멀리 떨어져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밝을 무렵 브라시다스는 마케도니아인이 가 버렸음을, 그리고 일리리아인과 아르라바이오스가 저희를 칠 낌새임을 알아차리고, 중장보병을 네모진 대형으로 짜고 경보병을 가운데 두었으며 자신도 물러날 준비를 했다. 그는 가장 젊은 군사들을 배치해 적이 치고 드는 곳마다 달려 나가게 했고, 자기는 골라 뽑은 300명과 함께 뒤에 서서 물러나는 동안 돌아서서 맞서며 가장 앞서

덮쳐 오는 자들을 물리치려 했다. 그러는 한편 적이 다가오기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급한 격려의 말로 군사들의 용기를 지탱하려 했다.

펠로폰네소스인 여러분, 수가 많은 야만의 적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홀로 받아 내게 되었다 하여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제게 없었더라면, 저는 여느 때처럼 더 설명하지 않고 몇 마디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세에서, 우리 벗들이 떠나 버리고 적의 수가 많은 것을 앞에 두고 저는 몇 가지 조언과 알려 드릴 것이 있으니, 짧게 말할 수밖에 없으나 더 중요한 대목에는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움에서 늘 보여 주는 용맹은 이 싸움에서나 저 싸움에서 동맹이 곁에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타고난 용기에 달린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나라와 같은 나라의 시민에게는 적의 수가 두려울 것이 없으니, 그런 나라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며 그 자리를 얻은 것은 싸움터에서의 뛰어남 말고 다른 무엇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야만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겪어 보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마케도니아인과 힘을 겨루어 본 일과, 다른 이들에게서 들은 바로 굳어진 저 자신의 판단만으로도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납득하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적이 강해 보이나 실은 약한 경우에는 사실을 참되게 아는 것이 맞서는 자를 더 담대하게 만들며, 만만치 않은 적수를 가장 자신만만하게 맞는 자가 그를 알지 못하는 자인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적은 겪어 보지 못한 이의 상상을 겁먹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덩치가 두렵고 크게 질러 대는 소리는 견디기 어려우며 허공에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은 위협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상대와 참으로 싸우게 되면 그들은 보이던 것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대오가 없으므로 심하게 몰릴 때 제자리를 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달아나는 것과 치고 드는 것이 똑같이 명예로운 일이어서 용기를 가릴 척도가 되지 못하며, 저마다 따로 싸우는 그들의 방식은 달아나고 싶은 자에게 그럴듯한 구실을 언제나 남겨 줍니다. 요컨대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여러분을 겁주는 것이 손과 손을 맞대고 맞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노름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뒤의 것을 하고 앞의 것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처음에 걸치고 있던 그 두려움이 눈과 귀에는 매우 두드러지나 실은 하찮은 것임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밀고 들어올 때는 자리를 지키고, 다시 틈을 기다려 대오를 지켜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더 빨리 안전한 곳에 이를 것이며, 이런 오합지졸이란 저희의 첫 공격을 받아 내는 자들에게는 멀찍이서 앞으로 저지를 무서운 일을 위협해 보이는 것으로 용기를 자랑할 뿐이지만 저희에게 물러서 주는 자들에게는 위험 없이 그럴 수 있게 되자마자 재빨리 뒤쫓으며 영웅인 양 나선다는 것을 그 뒤로 영원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말을 마치고 브라시다스는 군대를 이끌어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야만인들은 그가 달아나는 줄로, 저희가 그를 따라잡아 끊어 낼 수 있으리라 여기고 크게 소리치며 떠들썩하게 밀고 왔다. 그러나 그들이 덮치는 곳마다 젊은 군사들이 저희를 향해 달려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브라시다스는 골라 뽑은 부대와 함께 그들의 첫 기세를 받아 냈다. 그리하여 펠로폰네소스인은 적이 놀랄 만큼 첫 공격을 버텨 냈고, 그 뒤로도 그들이 밀고 오는 대로 맞아 물리쳤으며 맞선 자들이 잠잠해지는 대로 물러났다. 그러므로 야만인의 주력은 열린 들에서 브라시다스와 함께 있는 그리스인을 괴롭히기를 그쳤고, 그 행군을 시달리게 할 얼마간을 뒤에 남겨 둔 채 나머지는 달아나는 마케도니아인을 뒤따라가 마주치는 자를 베었으며, 그렇게

하여 아르라바이오스의 땅으로 이어지는 두 언덕 사이의 좁은 고개를 때맞추어 차지했다. 그들은 이것이 브라시다스가 물러날 수 있는 하나뿐인 길임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가 그 길의 가장 지나기 어려운 자리로 들어서는 바로 그때 그를 에워싸 끊어 내려 들었다.

브라시다스는 그들의 뜻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거느린 300명에게, 대오를 갖추지 않고 저마다 있는 힘껏 빨리 달려 가장 차지하기 쉬워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력이 그들과 합치기 전에 이미 거기 있는 야만인을 몰아내 보라고 일렀다. 이들은 언덕 위의 무리를 쳐서 눌렀고, 그리하여 그리스인의 주력은 이제 덜 힘들게 그 언덕으로 나아갔다. 야만인은 저쪽의 제 군사가 높은 데서 밀려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으며, 그들이 보기에 이미 경계에 이르러 무사히 빠져나간 주력을 더는 뒤따르지 않았다. 높은 데를 차지하자 브라시다스는 이제 더 안전하게 나아가 그날 안에 페르디카스의 영토에서 첫 도시인 아르니사에 이르렀다. 군사들은 마케도니아인이 떠나 버린 것에 노여워하여, 길에서 만난 멍에 멘 소를 모두 풀어 베어 넘기고 (밤중에 겁에 질려 물러날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떨어져 나뒹구는 짐이 있으면 무엇이든 제 것으로 챙기는 것으로 노여움을 풀었다. 이때부터 페르디카스는 브라시다스를 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아테네인의 적수가 품기에는 걸맞지 않은 미움을 펠로폰네소스인에게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제 본디의 이익에서 벗어나 아테네인과는 화해하고 펠로폰네소스인은 떨쳐 내려 힘쓰게 되었다.

브라시다스는 마케도니아에서 토로네로 돌아와 아테네인이 이미 멘데의 주인이 된 것을 알았고, 이제 팔레네로 건너가 멘데인을 돕는 것이 제 힘 밖의 일이라고 여겨 있던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으나 토로네는 잘 지켰다. 링코스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과 같은 무렵에 아테네인은 우리가 멘데와 스키오네를 겨누어 준비하는 것으로 두고 온

그 원정에 배를 띄웠으니, 함선 50척으로 그중 10척은 키오스의 것이었고, 아테네 중장보병 1,000명과 궁수 600명, 트라키아 용병 1,000명과 근방의 동맹에서 뽑은 경방패병 얼마를 거느렸으며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와 디이트레페스의 아들 니코스트라토스가 지휘했다. 함대는 포티다이아에서 닻을 올려 포세이돈 신전 앞에 배를 대고 멘데로 나아갔다. 멘데 사람들은 스키오네인 300명을 더 얻고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원군과 함께 모두 중장보병 700명으로 폴리다미다스의 지휘 아래 도시 밖 험한 언덕에 진을 치고 있었고 아테네인은 그들을 거기서 보았다. 니키아스는 경무장한 메토네인 120명과 아테네 중장보병에서 골라 뽑은 60명과 궁수 전부를 거느리고 언덕으로 오르는 길을 따라 그들에게 닿으려 했으나 상처를 입고 그 자리를 밀어낼 수 없음을 알았다. 그동안 니코스트라토스는 나머지 군대 전부를 거느리고 본래부터 험한 그 언덕을 더 멀리 돌아 다른 쪽에서 올라갔다가 아주 어지러워졌고, 아테네 군대 전체가 패배를 겪우면했다. 그날은 멘데인과 그 동맹이 물러설 낌새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아테네인은 뒤로 물러나 진을 쳤고, 멘데인은 밤이 들자 도시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테네인은 배를 돌려 스키오네 쪽으로 가서 도시 밖 마을을 차지하고 하루 내내 그 땅을 약탈했으나 아무도 그들을 맞으러 나오지 않았으니, 얼마는 도시 안의 내분 탓이었다. 그다음 밤에 스키오네인 300명은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이튿날 니키아스는 군대의 절반을 거느리고 스키오네의 경계까지 나아가 그 땅을 짓밟았고, 그동안 니코스트라토스는 나머지를 거느리고 포티다이아로 가는 길에 있는 윗문 가까이 도시 앞에 자리를 잡았다. 마침 성벽 안에서 멘데인과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원군의 무기가 그 구역에 쌓여 있었으므로, 폴리다미다스는 거기서 그들을 싸울 대오로 세우기 시작하며

멘데인에게 밖으로 치고 나가라고 북돋웠다. 그때 민중파의 한 사람이 그에게 파당의 말투로, 저희는 나가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대답한 탓에 폴리다미다스에게 팔을 잡혀 끌리며 얻어맞았다. 이에 노여움이 오른 민중은 곧바로 무기를 쥐고 펠로폰네소스인과, 그들 편에 선 맞선 파당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습격을 당한 병력은 곧바로 무너졌으니, 얼마는 싸움이 갑작스러웠던 탓이고 얼마는 아테네인에게 성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린 탓이었으니, 이 공격이 아테네인과 짜고 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자들은 모두 처음부터 지키고 있던 성채로 피했다. 그때쯤 니키아스도 돌아와 도시 가까이 있었으므로 아테네 군대 전체가 이제 아무 협정 없이 문을 열어 준 멘데로 밀고 들어가, 마치 힘으로 쳐서 함락시킨 듯이 그곳을 노략했으니 장군들이 주민을 학살하는 것까지 막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런 뒤 아테네인은 멘데인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지녀도 되며 반란을 꾀했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저희가 스스로 재판해도 된다고 말했고, 성채에 있는 무리는 양쪽에서 바다까지 성벽을 쌓아 끊어 놓은 뒤 병력을 두어 봉쇄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멘데를 확보한 뒤 그들은 스키오네로 나아갔다.

스키오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은 그들을 맞아 밖으로 나와 도시 앞의 험한 언덕을 차지했으니, 적이 그곳을 포위하려면 먼저 이 언덕을 손에 넣어야 했다. 아테네인은 그 언덕을 쳐서 그곳을 차지한 자들을 쳐부수고 몰아냈으며, 진을 치고 전승 기념물을 세운 뒤 포위벽을 쌓는 일에 들어갔다. 그들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멘데의 성채에 갇혀 있던 원군이 바닷가 쪽 파수를 밀어내고 밤에 스키오네에 이르렀으며, 그 대부분이 포위하는 군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스키오네를 에워싸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페르디카스는 아테네 장군들에게 전령을 보내 아테네인과 화평을 맺었으니, 링코스에서 물러난 일로 브라시다스에게 품은 앙심 때문이었고 실은 그때부터 이미 교섭을 시작했던 것이다. 마침 그때 스파르타인 이스카고라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육로로 브라시다스와 합치러 떠나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페르디카스는 이제 니키아스에게서 아테네인과의 화해가 진실하다는 증거를 얼마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자신도 더는 펠로폰네소스인을 제 나라에 들일 마음이 없었으므로, 늘 그 으뜸 되는 자들과 관계를 맺어 두던 테살리아의 벗들을 움직여 그 군대와 그 준비를 어찌나 효과 있게 막았던지 그들은 테살리아인에게 말을 걸어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스카고라스 자신은 아메이니아스와 아리스테우스와 함께 브라시다스에게 이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형세를 살펴보라는 임무를 스파르타인에게서 받은 터였고, 도시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지 않게 하려고 지휘를 맡길 저희 젊은이 몇을 (온갖 전례를 어겨 가며) 스파르타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하여 브라시다스는 클레오니모스의 아들 클레아리다스를 암피폴리스에, 헤게산드로스의 아들 파시텔리다스를 토로네에 앉혔다.

같은 해 여름 테베인은 아테네 편향이라는 죄목으로 테스피아이의 성벽을 헐었으니, 늘 그렇게 하고 싶어 했고 이제 테스피아이 젊은이의 꽃이 아테네인과의 싸움에서 죽었으므로 그것이 쉬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여름 아르고스의 헤라 신전도 불에 타 무너졌다. 여사제 크리시스가 불붙은 등잔을 화환 가까이 두고 잠들었으므로 화환에 모두 불이 붙어, 그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불길에 휩싸였던 것이다. 크리시스는 바로 그날 밤 아르고스인이 두려워 플리우스로 달아났고, 아르고스인은 그런 경우의 법에 따라 파이이니스라는 이름의 다른 여사제를 세웠다. 크리시스는 달아날 때까지 이 전쟁의 여덟 해와

아홉째 해의 절반 동안 여사제로 있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스키오네를 에워싸는 일이 마무리되었고, 아테네인은 봉쇄를 지킬 부대를 남기고 나머지 군대와 함께 돌아갔다.

그해 겨울에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은 휴전 협정으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만티네이아인과 테게아인은 저마다의 동맹과 함께 오레스티스 땅의 라오디키온에서 싸움을 벌였다. 양쪽이 저마다 마주한 날개 가운데 하나씩을 쳐부수었으므로 승리는 가릴 수 없는 채로 남았고, 두 쪽 모두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델포이로 전리품을 보냈다. 양쪽에 큰 손실이 있었으나 싸움은 결판이 나지 않았고 밤이 와서 싸움이 끊겼다. 그래도 테게아인은 싸움터에서 밤을 지내고 곧바로 전승 기념물을 세웠으며, 만티네이아인은 부콜리온으로 물러난 뒤에 저희 것을 세웠다.

같은 해 겨울이 끝날 무렵, 실은 거의 봄이었을 때 브라시다스는 포티다이아를 꾀했다. 그는 밤에 이르러 들키지 않고 성벽에 사다리를 대는 데 성공했으니, 종이 빈 구간으로 넘겨져 지나가고 그것을 넘겨준 자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 그 틈에 사다리를 걸었던 것이다.[12] 그러나 곧이어 수비대가 알아차렸고 그의 군사가 올라오기 전이었으므로,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군대를 이끌고 물러났다. 이렇게 겨울이 끝나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쓴 이 전쟁의 제9년이 끝났다.

---

1. 프록세노스 —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두었던 명예 대표. 제 나라에 살면서 상대 나라 사람들의 편의를 돌보고 그 이익을 대변했다. 칼키디케의 프록세노스란 테살리아에 살면서 칼키디케 쪽의 이해를 돌보던 테살리아 사람을 뜻한다.

2.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땅을 갈던 신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딸린 예속민으로, 수가 많아 스파르타인은 늘 그들의 봉기를 경계했다.

3.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이 장의 다른 거리 표기도 모두 같다.

4. 보이오타르케스 — 보이오티아 연방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11명을 뽑았고 연방의 군대를 지휘했으며, 테베는 그 가운데 두 자리를 차지했다.

5. 경방패병 — 작은 방패와 투창으로 무장한 경보병. 중장보병처럼 밀집 대형으로 싸우지 않고, 흩어져 던지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싸웠다.

6. 파이안 — 신에게 바치는 노래. 그리스인은 싸움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승리를 기릴 때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7. 므나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00드라크메에 해당했고 60므나가 1탈란톤이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8.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여기서는 배의 적재량을 무게로 헤아린 것이다. 현대 단위로 환산하지 않는다.

9. 프리타니스 — 아테네 평의회의 당번 기간. 열 부족이 차례로 한 해의 10분의 1씩 평의회의 상임 업무를 맡았고, 그 기간에 당번을 맡은 부족의 평의원을 프리타네스라 불러 민회를 소집하는 일을 맡겼다.

10. 엘라페볼리온 — 아테네 달력의 아홉째 달. 오늘날의 3월에서 4월에 걸친다.

11. 게라스티오스 — 스파르타 달력의 한 달 이름. 도시마다 달력과 달 이름이 달랐으므로 저자는 두 나라의 날짜를 따로 적었다.

12. 종을 돌리는 자 — 그리스의 수비대는 밤에 종을 초소에서 초소로 차례로 넘기게 하여 파수병이 깨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종을 넘기는 자가 지나간 직후가 성벽이 가장 허술해지는 순간이었다.

15장 (제V권 제XV장) — 전쟁 제10년 — 클레온과 브라시다스의 죽음 — 니키아스 화약

이듬해 여름에 1년 휴전이 피티아 제전[1]까지 이어진 끝에 만료되었다. 휴전이 이어지는 동안 아테네인은 델로스인을 델로스에서 내쫓았는데, 그들이 봉헌되던 때에 지은 어떤 오래된 죄로 부정을 탔음이 틀림없으며 내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죽은 자들의 무덤을 옮김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여겨졌던 앞서의 섬 정화에서 빠뜨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델로스인은 파르나케스에게서 아시아의 아트라미티온을 받아, 델로스를 떠난 그대로 저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는 동안 클레온은 휴전이 만료되면 아테네에서 낸 중장보병 1,200명과 기병 300명, 동맹의 큰 병력, 함선 30척을 이끌고 트라키아 방면의 도시들로 배를 몰고 가게 해 달라고 아테네인을 설득해 냈다. 먼저 아직 포위되어 있던 스키오네에 들러 그곳 군대에서 중장보병 얼마를 데려간 뒤, 그는 이어서 토로네의 영역에 있으며 그 도시에서 멀지 않은 항구 코포스로 배를 몰고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브라시다스가 토로네에 없으며 그곳 수비대가 자기와 싸움을 벌일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탈주병들에게서 알아내고, 함선 10척을 돌려 항구로 들어가게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그 도시로 나아갔다. 그가 처음 이른 곳은 브라시다스가 교외를 성 안에 넣으려고 얼마 전에 도시 앞에 세워 둔 방벽이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는 본래 성벽의 일부를 헐어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 스파르타 지휘관 파시텔리다스는 그곳에 있던 만큼의 수비대를 거느리고 아테네의 공격을 물리치려 이 지점으로 서둘러 왔다. 그러나 심하게 몰리는 데다 돌아가도록 보낸 함선들이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자, 파시텔리다스는 지키는 자들이 이르기 전에 그 배들이 도시에 닿을지 모르고 방벽마저 넘어가면 자기가 사로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 외곽 방어물을 버리고 도시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나 함선에서 내린 아테네인은 이미 토로네를 차지한 뒤였고, 바짝 뒤를 쫓은 육군은 헐려 있던 옛 성벽 자리를 넘어 그와 함께 단숨에 밀고 들어가 어지러운 싸움 속에서 펠로폰네소스인과 토로네인 얼마를 죽이고 나머지를 사로잡았으니 그들의 지휘관 파시텔리다스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동안 브라시다스는 토로네를 구원하러 나아가 이제 약 40스타디온[2]만 더 가면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길에서 그 도시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섰다. 클레온과 아테네인은 전승 기념물 둘을 세웠으니 하나는 항구 옆에, 다른 하나는 방벽 옆에 세웠고, 토로네인의 아내와 아이들을 노예로 삼은 뒤 남자들은 펠로폰네소스인과 그곳에 있던 칼키디케인을 아울러 모두 700명을 아테네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뒤에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갔으니, 펠로폰네소스인은 화약이 맺어지면서 돌아갔고 나머지는 올린토스인이 쥐고 있던 다른 포로들과 맞바꾸어 돌아갔다. 같은 무렵에 아테네 국경의 요새인 파낙톤이 보이오티아인에게 내응으로 함락되었다. 그러는 동안 클레온은 토로네에 수비대를 둔 뒤 닻을 올리고 암피폴리스로 가는 길에 아토스를 돌아 배를 몰았다.

같은 무렵에 에라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파이악스가 동료 두 사람과 함께 함선 2척을 이끌고 아테네의 사절로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향해 배를 몰았다. 레온티노이인은 화의가 이루어진 뒤 아테네인이 시칠리아를 떠나자 많은 수의 새 시민을 명부에 올렸고 민중은 땅을

다시 나눌 계획을 품고 있었으나, 상층 계급이 그 뜻을 알아채고 시라쿠사인을 불러들여 민중을 내쫓았다. 쫓겨난 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상층 계급은 시라쿠사인과 합의를 맺고 제 도시를 버려 황폐하게 만든 뒤 시라쿠사로 가서 살았고 그곳에서 시민이 되었다. 뒤에 그들 가운데 얼마가 이에 만족하지 못해 시라쿠사를 떠나 레온티노이 도시의 한 구역인 포카이아이와 레온티노이 땅의 요충지인 브리킨니아이를 차지했고, 쫓겨난 민중의 대부분이 그곳에서 합류하자 그 방벽들을 거점으로 삼아 전쟁을 이어 갔다. 아테네인은 이 소식을 듣고 파이악스를 보냈는데, 그곳의 동맹들과 나머지 시칠리아인에게 시라쿠사의 야심 찬 계획을 어떻게든 납득시켜 시라쿠사에 맞서는 전반적 연합을 이루도록 이끌 수 있는지, 그리하여 레온티노이의 민중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칠리아에 이른 파이악스는 카마리나와 아크라가스에서는 뜻을 이루었으나 겔라에서 거절을 당하자 나머지에게는 가지 않았으니, 그들에게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시켈인의 땅을 지나 카타나로 돌아갔고, 지나는 길에 브리킨니아이에 들러 그 주민들을 북돋운 뒤 배를 몰아 떠났다.

시칠리아를 오가며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동안 그는 이탈리아의 몇몇 도시와 아테네와의 우호를 주제로 교섭했고, 메시나에서 쫓겨난 로크리스 이주민 몇을 만나기도 했으니 이들은 시칠리아의 화의가 이루어진 뒤 메시나를 갈라놓은 파당 가운데 하나가 로크리스인을 불러들여 메시나가 한동안 로크리스인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곳으로 보내졌던 자들이었다. 본국으로 돌아가던 이들은 파이악스를 만났으나 그에게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는데, 로크리스인이 아테네와의 조약을 그와 합의해 두었기 때문이다. 시칠리아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아테네와 화약을 맺지 않은 것은 동맹 가운데 이들뿐이었고, 자기들의

국경에 살며 자기들이 내보낸 식민단이기도 한 히포니온인 및 메드마인과의 전쟁에 몰리지 않았더라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파이악스는 항해를 이어 갔고 마침내 아테네에 이르렀다.

토로네에서 암피폴리스로 가는 항해 중에 우리가 두고 온 클레온은 에이온을 근거지로 삼았고, 안드로스의 식민시 스타기로스를 쳤으나 이루지 못한 뒤 타소스의 식민시 갈렙소스를 들이쳐 빼앗았다. 그는 이제 페르디카스에게 사절을 보내 동맹의 조항에 정해진 대로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명했고, 다른 사절을 트라키아의 오도만티인 왕 폴레스에게 보내 트라키아 용병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데려오게 했으며, 자신은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에이온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브라시다스는 제 쪽에서 케르딜리온에 감시할 자리를 잡았는데, 강 건너 아르길로스 땅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암피폴리스에서 멀지 않으며 사방을 내려다보는 곳이었으므로 클레온의 군대는 그의 눈에 띄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클레온이 적의 수가 적은 것을 얕보고 제가 데리고 있는 병력으로 암피폴리스를 치러 진군해 오리라고 굳게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브라시다스는 준비를 갖추어 트라키아 용병 1,500명과 에도니인 전부, 곧 기병과 경방패병[3]을 제 깃발 아래 불러 모았다. 또 암피폴리스에 있던 자들 말고도 미르키노스와 칼키디케의 경방패병 1,000명과 모두 합쳐 약 2,000명에 이르는 중장보병 병력과 그리스 기병 300명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1,500명을 그는 케르딜리온에 데리고 있었고 나머지는 클레아리다스와 함께 암피폴리스에 배치되어 있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던 클레온은 마침내 브라시다스가 내다본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병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지쳐 제 지휘관의 나약함과 무능함이며 그에게 맞설 상대의 솜씨와

용맹이며 애초에 자기들이 그를 따라나서기를 꺼렸던 일을 진지하게 곱씹기 시작했다. 이 불평이 클레온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군대를 같은 자리에 붙들어 두어 넌더리를 내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진영을 걷어 앞으로 나아갔다. 이 장군의 기질은 필로스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았으니, 그때의 성공이 제 능력에 자신을 갖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 나와서 자기와 싸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둘러보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가 지원군을 기다린 것도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경우에 승리를 확실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에워싸고 들이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와서 암피폴리스 앞의 견고한 언덕 위에 군대를 세우고, 스트리몬이 이룬 호수와 그 도시가 트라키아 쪽으로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제 마음대로 물러날 수 있으리라 여겼으니, 성벽 위에 보이는 자도 없고 성문에서 나오는 자도 없었으며 문은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성 기계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은 것을 실수로 여기기까지 했다. 지키는 자가 없으니 그것만 있었으면 그 도시를 빼앗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었다.

브라시다스는 아테네인이 움직이는 것을 보자마자 제가 직접 케르딜리온에서 내려와 암피폴리스로 들어갔다. 그는 정규 대형을 갖추어 아테네인에게 맞서 나가는 모험을 하지 않았으니, 제 힘을 믿지 못했고 그런 시도에는 모자란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수에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수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질에서 모자랐고, 아테네 군대의 정예가 렘노스인과 임브로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계략으로 그들을 치려고 준비했다. 적에게 제 병력의 수와 그들을 무장시키느라 쓸 수밖에 없었던 임시변통을 보여 준다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자기들을 얕보는 것이 얼마나 근거 있는 일인지 적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보다 적을 이길 가망이 적어지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중장보병 150명을 골라내고 나머지를 클레아리다스에게 맡긴 뒤 아테네인이 물러나기 전에 갑작스레 치기로 마음을 정했으니, 그들의 지원군이 한번 올라오도록 두고 나면 그들만을 붙잡을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북돋우고 제 뜻을 밝히고자 이렇게 말했다.

펠로폰네소스인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나라의 기질, 곧 언제나 용맹에 제 자유를 빚져 온 나라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도리스인이고 여러분이 맞서 싸우려는 적은 여러분이 늘 이겨 온 이오니아인이라는 사실은 더 말을 보탤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밀고 나가려는 공격의 계책은 밝혀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병력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로 모험에 나선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겉보기에 불리한 자리에 세워 그 용기를 꺾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이 저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대열도 갖추지 않은 채 구경에 정신이 팔려 무심하게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낮추어 보고 있고 누군가 나와서 제게 맞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성공하는 군인은 언제나 이런 실책을 가장 잘 알아채는 사람, 제 수단을 꼼꼼히 헤아려 드러내 놓고 정규로 다가가기보다 그 순간의 기회를 붙잡아 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가장 완전하게 속임으로써 우리 편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이런 계략이야말로 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무심한 자신감이 이어지는 동안,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그러하듯 그들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물러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기세가 느슨하고 기대에 팽팽히 당겨져 있지 않은 동안에, 저는 제 지휘 아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될 수 있으면 그들의 허를 찔러 그 중앙으로 달려들겠습니다. 그리고 클레아리다스, 그대는 그 뒤에 제가 이미

그들에게 달려들어 짐작건대 그들 사이에 공포를 뿌리고 있는 것을 보거든, 암피폴리스인과 나머지 동맹을 데리고 갑작스레 성문을 열어 그들에게 돌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싸움에 뛰어드십시오. 그것이 그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킬 우리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 덤벼드는 자는 언제나 지금 맞붙고 있는 자보다 적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스파르타 시민[4]이니 마땅히 그답게 몸소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동맹 여러분, 사내답게 그를 따르십시오. 열의와 명예와 복종이 좋은 군인의 표지임을, 그리고 오늘 이 날 여러분이 용감히 싸우면 자유인이자 스파르타의 동맹으로 불리고, 그러지 못하면 아테네의 노예가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설령 여러분 자신이 자유나 목숨을 잃지 않고 벗어난다 해도 여러분의 예속은 전보다 더 가혹한 조건이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나머지 그리스인의 해방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걸려 있는 것이 이토록 큰 줄을 알았으면 여러분 쪽에서 비겁함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남에게 설교하는 것을 스스로 행할 수 있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연설을 마치고 브라시다스는 제가 직접 출격할 준비를 했고, 합의한 대로 자기를 지원하도록 나머지를 클레아리다스와 함께 트라키아 문에 세웠다. 그러는 동안 그가 케르딜리온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어 밖에서 안이 내려다보이는 그 도시 안에서 아테나 신전 가까이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요컨대 그의 움직임은 모두 관찰되고 있었으며, 그때 마침 둘러보러 나가 있던 클레온에게 적의 병력 전부가 도시 안에 보이고 성문 아래로 말과 사람의 발이 아주 많이 보이는 것이 출격을 꾀하는 듯하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보러 올라갔고, 보고 난 뒤에는 지원군이 올라오기 전에 싸움이라는 결정적인 걸음을 내딛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고 물러날 시간이 있으리라 짐작했으므로, 퇴각 신호를 울리게 하고 좌익을 에이온

방향으로 움직여 퇴각을 수행하라는 명을 병사들에게 보냈으니 실제로 그것이 유일하게 쓸 만한 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는 충분히 빠르지 않았으므로 그는 제가 직접 퇴각에 끼어들어 우익을 돌게 했고, 그리하여 무장하지 않은 쪽을 적에게 내주었다. 바로 그때 브라시다스는 아테네 병력이 움직이는 것과 제 기회가 온 것을 보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나머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자들은 결코 우리 앞에 버티고 서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의 창과 머리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군대가 돌격을 받아 내는 일은 드뭅니다. 누구든 서둘러 내가 말한 저 성문을 여십시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저들을 칩시다." 그리하여 그는 목책 문과 그때 있던 긴 성벽의 첫째 문으로 나가, 언덕에서 가장 가파른 곳을 지나갈 때 지금 전승 기념물이 서 있는 그 곧은 길을 따라 온 힘을 다해 달려서, 제 쪽의 어지러움에 공황이 일고 그의 대담함에 얼이 빠진 아테네인의 중앙을 덮쳐 무너뜨렸다. 바로 그 순간에 클레아리다스는 받은 명을 수행해 그를 지원하러 트라키아 문에서 나와 그 역시 적을 쳤다. 그 결과 아테네인은 양쪽에서 갑작스레 뜻하지 않게 공격을 받아 어지러움에 빠졌고, 이미 얼마쯤 나아가 있던 에이온 쪽 좌익은 곧바로 무너져 달아났다. 좌익이 한창 물러나고 브라시다스가 우익을 치러 옮겨 가던 바로 그때에 그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가 쓰러진 것을 아테네인은 알아채지 못했으니, 가까이 있던 자들이 그를 들어 올려 싸움터 밖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우익은 더 잘 버텼다.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없던 클레온은 곧바로 달아나다가 미르키노스의 한 경방패병에게 따라잡혀 죽었으나, 그의 보병은 언덕 위에서 밀집 대형을 이루어 클레아리다스의 공격을 두세 번 물리쳤고 미르키노스와 칼키디케의 기병 및 경방패병이 던지는 무기에 에워싸여 무너지기 전까지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이리하여 아테네 군대는 이제 모두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고, 싸움에서,

또는 칼키디케 기병과 경방패병의 손에 죽기를 면한 자들은 언덕들 사이로 흩어졌다가 어렵사리 에이온으로 길을 잡아 갔다. 브라시다스를 들어 올려 구해 낸 사람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그를 도시 안으로 데려갔다. 그는 제 병사들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살아 있었고 오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추격에서 클레아리다스와 함께 돌아온 나머지 군대는 죽은 자들의 무구를 벗겨 내고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이 뒤에 동맹 전부가 무장한 채 참례해 브라시다스를 나랏돈으로 도시 안, 지금 장터가 있는 자리 앞에 묻었고, 암피폴리스인은 그의 무덤을 울타리로 두른 뒤 그때부터 줄곧 그를 영웅으로 섬겨 제물을 바치고 경기와 해마다의 봉헌이라는 영예를 그에게 바쳐 왔다. 그들은 그를 자기네 식민시의 창건자로 세웠고, 하그논이 세운 건조물들을 헐어 내고 그가 그곳을 세웠다는 기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지워 버렸다. 브라시다스가 자기들을 지켜 준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며, 또 아테네가 두려워 스파르타의 동맹을 구하고 있던 터라 아테네와 지금처럼 적대하는 관계에서는 하그논에게 그의 영예를 바치는 일이 전과 같은 이로움도 만족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테네인에게 그들의 전사자도 돌려주었다. 아테네 쪽은 약 600명이 쓰러졌고 적 쪽은 겨우 7명이었는데, 정규 교전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 우연과 공황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사자를 거둔 뒤 아테네인은 배를 몰아 본국으로 떠났고, 클레아리다스와 그의 병사들은 암피폴리스의 일을 정리하려고 남았다.

같은 무렵에 스파르타인 세 사람, 곧 람피아스와 아우토카리다스와 에피키디다스가 중장보병 900명의 지원군을 이끌고 트라키아 방면의 도시들로 갔고, 트라키스의 헤라클레이아에 이르러 그곳의 일을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고쳤다. 그들이 그곳에서 지체하는 동안 이 싸움이 벌어졌고 그렇게 여름이 끝났다.

뒤이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 람피아스와 그 동료들은 테살리아의 피에리온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테살리아인이 그들이 더 나아가는 것을 막았고 그들이 지원하러 온 브라시다스는 죽은 뒤였으므로, 아테네인은 패해 떠났고 자기들은 브라시다스의 계획을 수행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보아 때가 지나갔다고 여기고는 본국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주된 이유는 자기들이 떠날 때 스파르타의 여론이 실은 화약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피폴리스 전투와 람피아스가 테살리아에서 물러난 일 바로 뒤에 양쪽 다 전쟁을 밀고 나가기를 그치고 화약에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아테네는 델리온에서 심하게 당했고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암피폴리스에서 다시 당했으므로, 그때그때의 성공이 불어넣은 최후의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전에는 교섭을 거부하게 했던 제 힘에 대한 자신감을 더는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아테네는 제 패배에 마음이 동한 동맹들이 더 널리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웠고, 필로스의 일이 내준 화약의 훌륭한 기회를 놓아 버린 것을 뉘우치고 있었다. 한편 스파르타는 그 땅을 짓밟음으로써 몇 해면 아테네인의 세력을 무너뜨리기에 넉넉하리라던 제 생각이 전쟁의 결과로 틀렸음이 드러났음을 알게 되었다. 스파르타는 그 섬에서 여태 스파르타에 알려진 적 없는 재앙을 겪었고, 필로스와 키테라에서 나온 자들에게 제 나라가 약탈당하는 것을 보았으며, 헬롯[5]들은 달아나고 있었고, 남아 있는 헬롯들이 바깥에 있는 자들을 믿고 형세를 이용해 옛 봉기의 시도를 되풀이할까 늘 근심에 잠겨 있었다. 이뿐 아니라 마침 아르고스인과 맺은 30년 휴전이 만료될 참이었는데 아르고스인은 키누리아를 자기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아르고스와 아테네를 한꺼번에 상대해 싸우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의 몇몇 도시가 아르고스 쪽으로 넘어갈 뜻을 품고 있다고 의심했는데 실제로 그러했다.

이런 사정들이 양쪽으로 하여금 타협할 마음을 먹게 했으며, 특히 스파르타인이 그러했으니 섬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되찾기를 애타게 바랐기 때문인데 그들 가운데 스파르타 시민들은 나라의 으뜸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지도층과 친족 관계에 있었다. 교섭은 그들이 사로잡힌 직후에 시작되었으나 승리의 때를 맞은 아테네인은 대등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델리온에서 그들이 패한 뒤에 스파르타는 그들이 이제 더 귀를 기울이리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1년 휴전을 맺었으며, 그동안 양쪽이 함께 의논해 더 긴 기간을 합의할 수 있는지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 아테네가 암피폴리스에서 패하고, 양쪽에서 화약에 맞선 주된 두 사람이었던 클레온과 브라시다스가 죽은 뒤로 두 도시에서 권력의 으뜸가는 후보였던 두 사람, 곧 스파르타 왕 파우사니아스의 아들 플레이스토아낙스와 당대에 가장 운이 좋은 장군이던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는 저마다 어느 때보다 화약을 간절히 바랐다. 브라시다스가 화약에 맞선 것은 전쟁이 그에게 준 성공과 명예 때문이었고, 클레온이 맞선 것은 평온이 돌아오면 제 죄가 더 쉽게 드러나고 제 중상이 덜 믿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니키아스는 아직 화를 입지 않고 존경받는 동안에 제 행운을 굳혀 두고, 자신과 제 나라 사람들이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후세에 평생 나라를 한 번도 실패에 빠뜨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물려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길은 위험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운에 제 몸을 되도록 적게 맡기는 것이며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화약뿐이라고 여겼다. 한편 플레이스토아낙스는 제 복권 때문에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제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패배가 닥칠

때마다 그 부당한 복권이 그 원인이라는 듯이 적들이 그를 번번이 사람들 앞에 내세워 헐뜯었다. 그 고발은 그와 그의 아우 아리스토클레스가 델포이의 여사제에게 뇌물을 주어, 그 신전에 잇따라 이른 스파르타 사절단에게 제우스의 반신 아들의 씨를 이국에서 본국으로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은으로 만든 보습으로 밭을 갈게 되리라고 말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사제가 스파르타인을 움직여, 리카이온으로 쫓겨난 지 열아홉째 해에(그는 아티카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방되었을 때 그곳으로 갔고, 스파르타인이 두려워 제 집의 절반을 제우스의 신성한 구역 안에 지어 두었다) 스파르타를 처음 세울 때 왕들을 앉히면서 치른 것과 똑같은 춤과 제물로 그를 복권시키게 했다고 사람들은 우겼다. 이 고발이 주는 쓰라림, 그리고 화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재앙도 일어날 수 없고 스파르타가 제 사람들을 되찾고 나면 적들이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는 생각이(전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가장 높은 자리가 언제나 잘못된 모든 일의 추문을 짊어져야 했으므로) 그로 하여금 타결을 간절히 바라게 했다. 그리하여 이해 겨울은 회담에 쓰였다. 그리고 봄이 빠르게 다가오자 스파르타인은 아티카에 요새를 세워 점령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여러 도시에 돌렸고, 아테네인이 제 제안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이것을 그들의 머리 위에 칼처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담에서 양쪽이 여러 요구를 내세운 끝에 다음과 같은 바탕 위에서 화약이 합의되었다. 양쪽은 저마다 정복한 것을 돌려주되 아테네는 니사이아를 갖기로 했으니, 아테네가 플라타이아를 요구하자 테베인은 자기들이 그곳을 힘이나 내응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이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붙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고 아테네 쪽 설명으로도 니사이아를 얻은 내력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리되자 스파르타인은

동맹들을 소집했고, 이 절차에 찬성하지 않은 보이오티아인과 코린트인과 엘리스인과 메가라인을 뺀 모두가 화약에 찬성표를 던지자 조약을 맺고 화약을 이루었으니, 계약을 맺는 양쪽이 저마다 다음 조항에 맹세했다.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은 조약을 맺고 도시마다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1. 그리스인이 함께 받드는 신전에 관하여는, 제물을 바치고 여행하고 신탁을 묻고 신탁소나 경기에 참석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제 나라의 관습에 따라 육로와 해로로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2.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과 성소, 그리고 델포이인은 그 땅과 그 사람을 아울러 제 나라의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법으로 다스리고, 자기들의 나라가 세금을 매기며, 자기들의 재판관이 재판한다.

3. 이 조약은 아테네인과 아테네인의 동맹에게, 그리고 스파르타인과 스파르타인의 동맹에게 50년 동안 구속력을 가지며,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속임도 해침도 없어야 한다.

4.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아테네인과 그 동맹에게, 또는 아테네인과 그 동맹이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에게 해를 입힐 뜻으로 무기를 드는 일은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쪽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양쪽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법과 맹세에 호소한다.

5.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은 암피폴리스를 아테네인에게 돌려준다. 다만 스파르타인이 아테네인에게 넘기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과 제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독립을 유지하며 아리스테이데스의 공납[6]만을 낸다. 또 조약이 맺어진 뒤에는 그 공납을 내는 한 아테네인이나 그 동맹이 그 도시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아르길로스, 스타기로스, 아칸토스, 스콜로스, 올린토스,

스파르톨로스다. 이 도시들은 중립을 지키며 스파르타인의 동맹도 아테네인의 동맹도 아니다. 다만 그 도시들이 동의한다면 아테네인이 그들을 제 동맹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나, 언제나 그 도시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메키베르나인과 사네인과 싱고스인은 올린토스인 및 아칸토스인과 마찬가지로 제 도시에 그대로 산다. 그리고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은 파낙톤을 아테네인에게 돌려준다.

6. 아테네인은 코리파시온과 키테라와 메타나와 프텔레온과 아탈란테를, 그리고 아테네의 감옥이나 아테네가 다스리는 그 밖의 곳에 있는 스파르타인을 돌려주며, 스키오네에 포위되어 있는 펠로폰네소스인과 스키오네에 있는 그 밖의 스파르타 동맹 전부와 브라시다스가 그곳에 들여보낸 자 전부, 그리고 아테네의 감옥이나 아테네가 다스리는 그 밖의 곳에 있을지 모르는 스파르타 동맹의 다른 누구든 풀어 준다.

7.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 손안에 있는 아테네인이나 그 동맹의 사람을 누구든 돌려준다.

8. 스키오네와 토로네와 세르밀리온, 그리고 아테네인이 보유한 그 밖의 어떤 도시에 대해서는 아테네인이 원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다.

9. 아테네인은 도시마다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에게 맹세한다. 저마다 제 나라에서 가장 구속력이 큰 맹세로 맹세하되 도시마다 17명이 한다. 맹세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이 합의와 조약을 정직하게 속임 없이 지키겠다." 같은 방식으로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아테네인에게 맹세한다. 그리고 이 맹세는 양쪽이 해마다 갱신한다. 비석은 올림피아와 피티아와 이스트모스에, 아테네에서는 아크로폴리스에, 스파르타에서는 아미클라이의 신전에 세운다.

10. 무엇이든 빠뜨린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에 관한 어떤 점이든, 정당한 논의를 거쳐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 양쪽이 함께 좋다고 보는

대로 그것을 고치는 일은 양쪽 모두에게 그 맹세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조약은 스파르타에서 플레이스톨라스의 감독관(에포로스)[7] 재임 중 아르테미시온 달,[8] 27일부터, 아테네에서 알카이오스의 아르콘,[9] 재임 중 엘라페볼리온 달 25일부터 시작된다. 스파르타인 쪽에서 맹세하고 헌주를 부은 사람은 플레이스토아낙스, 아기스, 플레이스톨라스, 다마게토스, 키오니스, 메타게네스, 아칸토스, 다이토스, 이스카고라스, 필로카리다스, 제욱시다스, 안티포스, 텔리스, 알키나다스, 엠페디아스, 메나스, 라필로스였다. 아테네인 쪽에서는 람폰, 이스트미오니코스, 니키아스, 라케스, 에우티데모스, 프로클레스, 피토도로스, 하그논, 미르틸로스, 트라시클레스, 테아게네스, 아리스토크라테스, 이올키오스, 티모크라테스, 레온, 라마코스, 데모스테네스였다.

이 조약은 겨울이 막 끝나는 봄에, 디오니소스의 도시 축제 바로 뒤에 맺어졌으니 아티카에 대한 첫 침입과 이 전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며칠의 차이를 빼면 꼭 10년이 되는 때였다. 이것은 지나간 일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여러 정무관이나 명예직의 이름을 열거하는 데 기대기보다 계절로 헤아려야 한다. 어떤 일이 그 재임 기간의 처음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일어났을 수도 있으며 어느 시점에든 일어났을 수 있는 곳에서는 정확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사에서 채택한 방법인 여름과 겨울로 셈해 보면, 그 하나하나가 반 년에 해당하므로 이 첫 전쟁 안에 여름이 열 번, 겨울도 그만큼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반환의 일을 먼저 시작하는 몫이 돌아간 스파르타인은 제 손안에 있던 전쟁 포로를 모두 곧바로 풀어 주었고, 이스카고라스와 메나스와 필로카리다스를 사절로 트라키아 방면의 도시들에 보내어 클레아리다스에게는 암피폴리스를 아테네인에게 넘기라고 명하고 나머지 동맹들에게는 저마다 제게 해당하는 대로 조약을 받아들이라고

명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클레아리다스도 칼키디케인의 뜻을 맞춰 주고 싶어 그 도시를 넘기지 않았으니, 그들의 뜻을 거슬러 그렇게 할 힘이 자기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온 사절들과 함께 제가 직접 서둘러 스파르타로 갔는데, 이스카고라스와 그 동료들이 제기할지 모르는 고발에 맞서 제 불복을 변호하고 또 그 합의를 고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이 이미 매여 있음을 알게 되자, 될 수 있으면 그곳을 넘기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펠로폰네소스인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그들에게서 받아 서둘러 다시 길을 떠났다.

마침 동맹들이 스파르타에 직접 와 있었으므로,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스파르타인이 이제 그것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지금 것보다 더 공정한 조약이 합의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제 결심을 굳게 지키자 스파르타인은 그들을 돌려보냈고, 이제 아테네인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다. 조약을 갱신해 달라는 암펠리다스와 리카스의 요청을 거절한 아르고스는 아테네가 없으면 더는 두려울 것이 없고, 탐나는 아테네의 동맹이 나머지 펠로폰네소스에게 닫혀 버린다면 그들이 조용히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테네 사절들과 회담한 뒤 다음 조건으로 동맹이 합의되고 맹세가 교환되었다.

1. 스파르타인은 50년 동안 아테네인의 동맹이 된다.

2. 어떤 적이든 스파르타의 영토를 침입해 스파르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아테네인은 제 힘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돕는다. 다만 침입자가 그 땅을 약탈한 뒤에 떠나 버린 경우에는, 그 도시를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적으로 삼아 양쪽이 함께 응징하며 한쪽이

다른 쪽 없이 화약을 맺지 않는다. 이는 정직하게, 신의를 지켜, 속임 없이 한다.

3. 어떤 적이든 아테네의 영토를 침입해 아테네인에게 해를 입히면, 스파르타인은 제 힘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돕는다. 다만 침입자가 그 땅을 약탈한 뒤에 떠나 버린 경우에는, 그 도시를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적으로 삼아 양쪽이 함께 응징하며 한쪽이 다른 쪽 없이 화약을 맺지 않는다. 이는 정직하게, 신의를 지켜, 속임 없이 한다.

4. 노예 인구가 봉기하면 아테네인은 제 힘에 따라 온 힘을 다해 스파르타인을 돕는다.

5. 이 조약은 앞의 조약에 맹세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 양쪽에서 맹세한다. 갱신은 해마다 하되 스파르타인이 디오니시아를 맞아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인이 히아킨티아[10]를 맞아 스파르타로 가서 한다. 그리고 양쪽이 저마다 비석을 세우되 스파르타에서는 아미클라이의 아폴론 상 가까이에, 아테네에서는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상 가까이에 세운다.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이 이 동맹에 어떤 점을 더하거나 거기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보면, 무엇이든 좋다고 보는 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양쪽 모두에게 그 맹세에 어긋나지 않는다.

스파르타인 쪽에서 맹세한 사람은 플레이스토아낙스, 아기스, 플레이스톨라스, 다마게토스, 키오니스, 메타게네스, 아칸토스, 다이토스, 이스카고라스, 필로카리다스, 제욱시다스, 안티포스, 알키나다스, 텔리스, 엠페디아스, 메나스, 라필로스였다. 아테네인 쪽에서는 람폰, 이스트미오니코스, 라케스, 니키아스, 에우티데모스, 프로클레스, 피토도로스, 하그논, 미르틸로스, 트라시클레스, 테아게네스, 아리스토크라테스, 이올키오스, 티모크라테스, 레온, 라마코스, 데모스테네스였다.

이 동맹은 조약이 맺어진 지 오래지 않아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테네인은 섬에서 잡은 사람들을 스파르타인에게 돌려주었고 제11년의 여름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앞선 10년 전체를 차지한 첫 전쟁의 역사가 마무리된다.

---

1. 피티아 제전 —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4년마다 열린 범그리스 경기. 올림피아 제전 다음가는 규모였고, 이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는 성스러운 휴전이 지켜졌다. 뒤에 나오는 조약의 '피티아'도 이 신역, 곧 델포이를 가리킨다.

2.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3. 경방패병 — 작은 방패와 투창으로 무장한 경보병. 중장보병처럼 밀집 대형으로 싸우지 않고, 흩어져 던지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싸웠다.

4.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5.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땅을 갈던 신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딸린 예속민으로, 수가 많아 스파르타인은 늘 그들의 봉기를 경계했다.

6. 아리스테이데스의 공납 — 페르시아 전쟁 뒤 델로스 동맹을 꾸릴 때 아테네의 아리스테이데스가 가입 도시마다 매긴 최초의 분담금이다. 조약은 이 도시들이 그 뒤에 올라간 액수가 아니라 처음의 액수만 내도록 정한 것이다.

7. 에포로스 — 스파르타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5명을 뽑았고 왕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번역에서는 '감독관'으로 옮기고 첫 등장에만 원어를 함께 밝혔다. 그해의 으뜸 감독관의 이름으로 그해를 불렀다.

8. 아르테미시온 달·엘라페볼리온 달 — 앞은 스파르타의 달 이름이고 뒤는 아테네의 달 이름이다. 그리스의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달력을 썼으므로 조약은 양쪽의 날짜를 나란히 적었다. 둘 다 봄에 드는 달이다.

9. 아르콘 — 아테네의 정무관직. 해마다 뽑았고 그 가운데 수석 아르콘의 이름으로 그해를 불렀다.

10. 히아킨티아 — 아미클라이에서 아폴론과 히아킨토스를 기려 해마다 사흘 동안 치른 스파르타의 큰 축제. 함께 나오는 디오니시아는 아테네가 디오니소스를 기려

봄에 치른 축제다.

16장 (제V권 제XVI장) — 펠로폰네소스에 퍼진 스파르타에 대한 반감 — 만티네이아인·엘리스인·아르고스인·아테네인의 동맹 — 만티네이아 전투와 동맹의 해체

10년 전쟁 뒤에 스파르타의 플레이스톨라스가 감독관(에포로스)[1]이고 아테네의 알카이오스가 아르콘[2]이던 때에 맺어진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 사이의 조약과 동맹이 이루어진 뒤,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코린트인과 펠로폰네소스의 몇몇 도시가 그 합의를 흔들려 들면서 동맹들이 스파르타를 겨냥한 새로운 동요를 곧바로 일으켰다. 나아가 스파르타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약의 몇몇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아테네인에게 의심을 샀고, 6년 10개월 동안 양쪽이 서로의 영토를 침입하는 일은 삼갔으나 바깥에서는 불안정한 휴전이 어느 쪽도 상대에게 더없이 실효성 있는 해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 마침내 양쪽은 10년 전쟁 뒤에 맺은 조약을 깨고 드러내 놓고 싸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의 역사도 같은 아테네인 투키디데스가 여름과 겨울로 사건의 차례를 좇아 적었으니,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아테네의 제국을 끝장내고 장성과 피레우스를 차지한 때까지이다. 그때까지 전쟁은 통틀어 27년 동안 이어졌다. 조약이 이어진 기간을 전쟁에 넣는 데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뿐이다.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기간을

평화 상태로 여기는 것이 이치에 닿지 않음이 드러날 것이니, 어느 쪽도 합의한 것을 다 내주지도 다 돌려받지도 않았고, 그것 말고도 만티네이아 전쟁과 에피다우로스 전쟁을 비롯한 여러 경우에 양쪽에서 조약을 어긴 일이 있었으며, 트라키아 방면의 동맹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드러내 놓고 적대하고 있었고 보이오티아인은 열흘마다 갱신하는 휴전밖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10년 전쟁과 그 뒤를 이은 믿을 수 없는 휴전과 그다음의 전쟁은, 계절로 헤아려 보면 내가 말한 햇수를 며칠 차이로 채우며, 신탁에 둔 믿음이 이번만은 사건으로 입증된 한 사례를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전쟁이 아홉 해의 세 곱절 동안 이어지리라는 말이 흔히 오가던 것을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사건을 이해할 나이가 되어 그 전부를 살아 넘겼고,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알고자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 또한 나는 암피폴리스에서 지휘를 맡은 뒤에 20년 동안 조국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는 운명을 맞았는데, 양쪽 편에 다 있어 보았고 추방된 탓에 특히 펠로폰네소스인 쪽에 있었던 만큼 일들을 어느 정도 꼼꼼히 살필 여유가 있었다. 그러니 이제 10년 전쟁 뒤에 생긴 불화와 조약의 파기와 그 뒤에 이어진 싸움을 이야기하겠다.

50년 휴전과 그에 뒤이은 동맹이 맺어진 뒤, 이 일로 소집되었던 펠로폰네소스의 사절단들이 스파르타에서 돌아갔다. 나머지는 곧장 제 나라로 갔으나 코린트인은 먼저 아르고스로 발길을 돌려 그곳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몇 사람과 협의를 열고,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를 복속시키는 것 말고는 좋은 목적을 품고 있을 리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한때 미워하던 아테네인과 결코 조약과 동맹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짚었으며, 이제 펠로폰네소스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아르고스에 떨어졌으니 아르고스는 원하는 그리스 나라라면 어디든 그 나라가 독립을 지키고 있고 법과 정의라는 공정하고 대등한 바탕 위에서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데 익숙하기만 하다면 아르고스인과 방어 동맹을 맺으라고 부르는 포고를 곧바로 통과시켜야 하며, 민중을 협상의 통로로 삼는 대신 전권을 가진 몇 사람을 세워 두어야 하니 그것은 청하러 온 자가 거절당하는 경우에 그가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스파르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많은 나라가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코린트인은 이렇게 제 뜻을 밝힌 뒤 제 나라로 돌아갔다.

코린트인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그 제안을 제 정부와 민중에게 보고했고, 아르고스인은 포고를 통과시켜 원하는 그리스 나라라면 어디와도 동맹을 맺을 열두 사람을 뽑되 아테네와 스파르타만은 빼놓았으니, 이 둘은 아르고스 민중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르고스가 이 계획에 선뜻 들어간 것은 휴전이 곧 만료될 참이라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 펠로폰네소스의 패권을 쥐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 무렵 스파르타는 잇단 재난으로 세상의 평판이 크게 떨어지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던 반면, 아르고스인은 아티카 전쟁에 전혀 끼지 않았을뿐더러 도리어 중립으로 크게 이득을 본 터라 더없이 번성한 형편에 있었다. 이리하여 아르고스인은 그리스인 가운데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 동맹으로 받아들일 채비를 했다.

스파르타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장 먼저 넘어온 것은 만티네이아인과 그 동맹이었다. 그들은 아테네와의 전쟁을 틈타 아르카디아의 일부를 복속시켜 둔 터라 이제 스파르타가 끼어들 여유가 생겼으니 저희가 차지한 것을 건드리지 않고 두지는 않으리라 생각했고, 그리하여 스파르타인의 오랜 적이자 같은 민주정을 가진 아르고스 같은 강한 도시로 기꺼이 돌아섰다. 만티네이아가 떨어져 나가자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도 곧바로 그 본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술렁이기 시작했으니, 만티네이아인이 그럴 만한 까닭 없이 편을 바꾸지는 않았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스파르타가 아테네와의 조약에 두 나라, 곧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이 함께 좋다고 보는 대로 조약에 무엇을 더하거나 거기서 빼는 것이 그 맹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펠로폰네소스에 퍼진 공황의 참된 근원은 바로 이 조항이었으니,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저희의 자유를 겨냥해 손을 잡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조약을 고치는 일은 마땅히 동맹 전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삼았어야 했다. 이런 걱정 속에서 나라마다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으려는 마음이 아주 널리 퍼졌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인은 펠로폰네소스에서 동요가 일고 있으며 코린트가 그 장본인이고 코린트 스스로도 아르고스인과 동맹을 맺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꾸며지고 있는 일을 막으려는 뜻으로 그곳에 사절을 보냈다. 사절들은 코린트가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고 나무라고, 신이나 영웅이 가로막지 않는 한 동맹 다수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분명히 합의해 두었음에도 아테네와의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미 저지른 죄에 맹세를 어긴 죄까지 더하지 않고서는 스파르타를 저버리고 아르고스의 동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린트는 저와 마찬가지로 조약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동맹들을 미리 불러 모아 그 앞에서 답을 내놓았는데, 아테네인에게서 솔리온이나 아낙토리온을 되찾지 못한 일이라든가 제가 손해를 보았다고 여긴 다른 어떤 점이라든가 스스로 호소하는 피해를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고, 트라키아 방면의 동맹을 저버릴 수 없다는 구실 뒤로 몸을 숨겼으니 그들이 포티다이아와 함께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그 뒤의 여러 경우에 코린트가 그들에게 따로 맹세를 해 준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린트는 아테네와의 조약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동맹에게 한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으니, 신들을 두고 트라키아의 벗들에게 맹세한 터라 그들을 정직하게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조항의 표현은 "신이나 영웅이 가로막지 않는 한"이었다. 그런데 코린트가 보기에 여기서는 신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것이 코린트가 앞서 한 맹세에 관하여 한 말이었다. 아르고스와의 동맹에 관하여는 벗들과 상의해 옳은 대로 하겠다고 했다. 스파르타 사절들이 제 나라로 돌아가는 참에 마침 코린트에 와 있던 아르고스 사절 몇이 코린트에 더 미루지 말고 동맹을 맺으라고 재촉했으나, 코린트에서 열릴 다음 회의에 참석하라는 답을 들었다.

그 직후에 엘리스 사절단이 이르러, 먼저 코린트와 동맹을 맺고 미리 정해 둔 대로 거기서 아르고스로 건너가 아르고스인의 동맹이 되었으니, 그 무렵 엘리스가 레프레온 문제로 스파르타와 사이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레프레온인과 아르카디아인 얼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레프레온인이 제 땅의 절반을 주겠다며 불러들인 엘리스인이 그 전쟁을 끝냈고, 땅은 그것을 부치던 레프레온인의 손에 그대로 두되 그들에게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바칠 1탈란톤[3]의 공납을 물렸다. 레프레온인은 아티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이 공납을 냈으나 그때 전쟁을 구실 삼아 더는 내지 않았고, 엘리스인이 힘을 쓰자 스파르타에 호소했다. 이리하여 사건은 스파르타의 중재에 부쳐졌으나, 엘리스인은 그 법정이 공정한지 의심스러워 중재를 물리고 레프레온의 영토를 짓밟았다. 그럼에도 스파르타인은 레프레온인이 독립되어 있고 엘리스인이 침략자라고 판정했으며, 엘리스인이 중재에 따르지 않자 레프레온으로 중장보병 수비대를 보냈다. 이에 엘리스인은 스파르타가 저희에게 반기를 든 속국 하나를 받아들였다고 여겨, 동맹국은 저마다 아티카 전쟁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지닌 채 그 전쟁에서 나온다고 정한 협정을 내세웠고, 정의가 저희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아르고스인 쪽으로 넘어갔으며 미리 정해 둔 대로 동맹을 맺었다. 그들 바로 뒤에 코린트인과 트라키아 방면의 칼키디케인이 아르고스의 동맹이 되었다. 한편 함께 움직이던 보이오티아인과 메가라인은 잠자코 있었으니, 스파르타가 그들을 내버려 두어 좋을 대로 하게 했고, 그들은 아르고스의 민주정이 저희의 귀족정과는 스파르타의 국제만큼 잘 맞지 않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거의 같은 무렵에 아테네는 스키오네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해 성인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아이를 노예로 삼았으며 그 땅은 플라타이아인이 살도록 주었다. 아테네는 또 싸움터에서 겪은 불운과 델포이의 신이 내린 명에 움직여 델로스인을 델로스로 데려왔다. 그러는 동안 포키스인과 로크리스인이 싸움을 시작했다. 이제 동맹이 된 코린트인과 아르고스인은 테게아를 스파르타에서 떼어 놓으려고 그곳으로 갔으니, 그만한 무게를 가진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펠로폰네소스 전체가 저희 편이 되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게아인이 스파르타를 거스르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때까지 열성을 다하던 코린트인은 움직임을 늦추고 이제 나머지 가운데 아무도 넘어오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을 품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들은 보이오티아인에게 가서 아르고스 및 저희와 동맹을 맺고 대체로 함께 움직이자고 설득하려 했고, 또 저희와 함께 아테네로 가서 50년 조약이 맺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테네인과 보이오티아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열흘 휴전을 저희를 위해 얻어 달라고, 그리고 아테네인이 거절하면 그 휴전을 내던지고 앞으로는 코린트 없이 어떤 휴전도 맺지 말아 달라고 청했다. 이것이 코린트인이 청한 바였다. 보이오티아인은 아르고스 동맹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었으나 함께 아테네로 가기는 했는데, 거기서 열흘 휴전을 얻는 데는 실패했으니 아테네인의 대답은 코린트인이 스파르타인의 동맹인 만큼

이미 휴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보이오티아인은 신의를 저버린다고 코린트인이 빌고 나무랐는데도 제 열흘 휴전을 내던지지 않았고, 코린트인은 아테네와 사실상의 휴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해 여름 스파르타인은 스파르타의 왕이자 파우사니아스의 아들인 플레이스토아낙스의 지휘 아래 온 병력을 이끌고 아르카디아로 진군해 파라시아인을 쳤으니, 그들은 만티네이아의 속민이었고 그 가운데 한 파벌이 스파르타의 도움을 청해 온 터였다. 스파르타인은 또 할 수만 있다면 만티네이아인이 라코니아의 스키리티스 지구를 괴롭히려고 파라시아 영토에 세워 수비대를 둔 킵셀라 요새를 헐어 버릴 작정이었다. 이리하여 스파르타인은 파라시아 땅을 짓밟았고, 만티네이아인은 제 도시를 아르고스 수비대의 손에 맡긴 뒤 저희 동맹을 지키는 데 나섰으나 킵셀라도 파라시아의 도시들도 구할 수 없어 만티네이아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인은 파라시아인을 독립시키고 그 요새를 허문 뒤 제 나라로 돌아갔다.

그해 여름 브라시다스와 함께 나갔던 트라키아의 병사들이 돌아왔으니, 조약이 맺어진 뒤에 클레아리다스가 그곳에서 데려온 것이다. 스파르타인은 브라시다스와 함께 싸운 헬롯[4]을 자유민으로 삼고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한다고 포고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네오다모데이스[5]와 함께 라코니아와 엘리스의 접경에 자리 잡은 레프레온에 정착시켰으니, 이 무렵 스파르타는 엘리스와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 그러나 섬에서 사로잡혀 무기를 내놓았던 스파르타 시민[6]들은 저희가 겪은 불운 탓에 어떤 격하를 당하리라 여겨, 시민권을 그대로 가진 채로 두면 변란을 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가운데 더러가 그때 공직에 있었음에도 곧바로 시민권을

잃어, 공직을 맡거나 무엇을 사고파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들에게 시민권이 되돌아왔다.

그해 여름 디온인이 아토스 곁 악테에 있으며 아테네와 동맹을 맺고 있던 도시 티소스를 차지했다. 이해 여름 내내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 사이의 왕래는 이어졌으나, 조약에 적힌 곳들이 돌려지지 않은 탓에 조약이 맺어진 직후부터 양쪽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먼저 암피폴리스와 그 밖의 도시들을 돌려주는 일이 제몫으로 떨어져 있던 스파르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파르타는 트라키아 방면의 동맹에게도 보이오티아인이나 코린트인에게도 조약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한 것이 마찬가지였으니, 그들이 더 오래 거부하면 아테네와 손잡고 따르게 만들겠다고 줄곧 약속하면서도 그러했다. 스파르타는 또 그때까지도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양쪽 모두의 적으로 선포할 시한을 거듭 못 박으면서도, 문서로 된 어떤 합의로도 스스로를 묶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은 이 약속들 가운데 무엇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스파르타가 품은 뜻이 정직한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필로스를 돌려 달라는 스파르타의 요구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섬에서 데려온 포로를 내준 것을 뉘우치고 스파르타 몫의 조약이 이행될 때까지 그 밖의 곳들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스파르타는 스파르타대로 제 손에 있던 아테네 전쟁 포로를 내주고 트라키아에서 물러나고 그 밖에 제 힘이 닿는 일은 다 했으니 할 수 있는 바를 했다고 말했다. 암피폴리스를 돌려주는 것은 제 힘 밖의 일이지만, 보이오티아인과 코린트인을 조약에 끌어들이고 파낙톤을 되찾고 보이오티아에 있는 아테네 전쟁 포로를 모두 돌려보내도록 애써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파르타는 필로스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제 군대가 트라키아에서 물러난 것처럼 메세니아인과 헬롯을 그곳에서 물리고 필요하다면 아테네인 자신이

그곳에 수비대를 두라고 요구했다. 여름 내내 여러 차례 회담을 거듭한 끝에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설득해 필로스에서 메세니아인과 나머지 헬롯과 라코니아에서 도망해 온 자들을 물리게 하는 데 성공했고, 아테네인은 이들을 케팔레니아의 크라니이에 정착시켰다. 이리하여 이해 여름에는 두 민족 사이에 평화와 왕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겨울에는 조약을 맺을 당시의 감독관들이 더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뒤를 이은 자들 가운데 더러는 조약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제 스파르타 동맹에서 사절단이 이르렀고 아테네인과 보이오티아인과 코린트인도 스파르타에 나타났는데, 저희끼리 많은 논의를 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저마다 제 나라로 흩어졌다. 그때 조약을 깨뜨리기를 누구보다 바라던 두 감독관 클레오불로스와 크세나레스가 이 기회를 틈타 보이오티아인 및 코린트인과 몰래 이야기를 나누어, 되도록 함께 움직이라고 권하면서 먼저 보이오티아인에게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은 다음 저희와 아르고스인을 함께 스파르타와의 동맹으로 끌어들여 보라고 일러 주었다. 그렇게 하면 보이오티아인이 아티카 조약에 들어오도록 강요당할 가능성이 가장 낮아질 것이고, 스파르타인은 아테네와 적대하고 조약이 깨지는 값을 치르더라도 아르고스의 우호와 동맹을 얻는 쪽을 더 좋아하리라는 것이었다. 보이오티아인은 아르고스와의 떳떳한 우호가 오래전부터 스파르타의 바람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니, 스파르타인은 그렇게 되면 펠로폰네소스 바깥에서 전쟁을 치르기가 훨씬 수월해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두 감독관은 보이오티아인에게 파낙톤을 스파르타의 손에 맡겨 달라고 청했으니, 할 수만 있다면 그것과 바꾸어 필로스를 얻고 그리하여 아테네와 싸움을 다시 벌일 처지에 더 가까이 서려는 것이었다.

스파르타에 있는 크세나레스와 클레오불로스와 그 벗들에게서 제 정부에 전할 이 지시를 받은 뒤 보이오티아인과 코린트인은 길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아르고스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과 합류했는데, 이 두 사람은 보이오티아인이 코린트인·엘리스인·만티네이아인과 함께 아르고스의 동맹이 될 수 있겠는지를 떠보았으니,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뭉친 힘으로 스파르타를 상대로든 다른 어떤 세력을 상대로든 저희 뜻대로 화약을 맺거나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보이오티아 사절들은 스파르타에 있는 제 벗들이 하라고 일러 준 바로 그 일을 뜻밖에도 남에게서 청받는 것을 듣고 기뻐했고, 두 아르고스인은 제 제안이 받아들일 만하게 여겨지는 것을 알아채고 보이오티아인에게 사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보이오티아인은 제 나라에 이르자 스파르타에서 들은 말과 저희를 만난 아르고스인이 한 말을 보이오타르케스[7]에게 보고했고, 보이오타르케스는 그 생각을 반겼거니와 스파르타에 있는 제 벗들이 바라던 바로 그것을 아르고스가 청해 온 운 좋은 우연에 더욱 기꺼워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얼마 뒤 아르고스에서 사절들이 앞서 말한 제안을 가지고 나타났고, 보이오타르케스는 그 조건을 옳다고 보아 동맹을 매듭지을 사절을 아르고스로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사절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는 동안 보이오타르케스와 코린트인과 메가라인과 트라키아에서 온 사절들은 먼저 저희끼리 맹세를 주고받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고 함께가 아니면 전쟁도 화약도 맺지 않기로 하고, 그런 뒤에 함께 움직이는 보이오티아인과 메가라인이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기로 정했다. 그러나 맹세를 주고받기에 앞서 보이오타르케스는 이 제안을 최고 권력이 놓여 있는 보이오티아의 네 평의회에 알리고, 보이오티아인과 방어 동맹에 들어오려는 도시라면 어디와도 맹세를

주고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보이오티아 평의회의 의원들은 동맹을 저버린 코린트와 한편이 되어 스파르타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 두려워 그 제안에 동의하기를 거부했다. 보이오타르케스가 스파르타에서 오간 일과 클레오불로스와 크세나레스와 그곳의 보이오티아 편 사람들이 준 조언, 곧 스파르타와 손잡는 데로 가는 첫걸음으로 코린트 및 아르고스의 동맹이 되라던 조언을 평의회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일을 말하지 않더라도 평의회가 보이오타르케스가 정하고 권한 바를 거슬러 표를 던지지는 않으리라 여겼던 탓이다. 이 난관이 생기자 코린트인과 트라키아에서 온 사절들은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한 채 떠났고, 이 일을 이룬 뒤에 아르고스와의 동맹을 성사시켜 보려던 보이오타르케스는 이제 아르고스 문제를 평의회에 내놓지도 약속했던 사절을 아르고스로 보내지도 않았으니, 이 일에는 전반적으로 냉담함과 지체가 뒤따랐다.

바로 그해 겨울에 메키베르나가 올린토스인의 공격을 받아 떨어졌으니, 그 안에는 아테네 수비대가 있었다.

그동안 내내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 사이에는 양쪽이 아직 쥐고 있는 정복지를 두고 협상이 오가고 있었는데,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보이오티아인에게서 파낙톤을 되찾는다면 저도 필로스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바라고 이제 보이오티아인에게 사절을 보내어 파낙톤과 저희가 가진 아테네 포로를 제 손에 맡겨 달라고, 그리하여 그것들을 필로스와 바꾸게 해 달라고 청했다. 보이오티아인은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맺은 것처럼 저희와도 따로 동맹을 맺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파르타는 어느 쪽도 다른 쪽 없이 화약을 맺거나 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해 둔 터라 이것이 아테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필로스와 바꾸기를 바라던 파낙톤을 얻고 싶었고 조약을 깨자고 몰아붙이던 쪽이 보이오티아와의

관계에 강하게 마음이 쏠려 있던 터라, 스파르타는 마침내 겨울이 봄으로 넘어갈 무렵에 그 동맹을 맺었으며 파낙톤은 곧바로 헐렸다. 이리하여 전쟁 제11년이 끝났다.

이듬해 여름 첫머리에 아르고스인은 보이오티아에서 오기로 약속된 사절이 이르지 않는 것과 파낙톤이 헐리고 있는 것과 보이오티아인과 스파르타인 사이에 따로 동맹이 맺어진 것을 보고, 아르고스만 홀로 남겨지고 동맹 전체가 스파르타 쪽으로 넘어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이오티아인이 스파르타인의 설득에 넘어가 파낙톤을 헐고 아테네인과의 조약에 들어간 것이며 아테네도 이 합의를 알고 있으니 아테네와의 동맹마저 이제는 저희에게 열려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스파르타와의 조약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양쪽 사이에 있는 불화를 믿고 아르고스인이 줄곧 기대 온 방책이었다. 이 궁지에서 아르고스인은 스파르타와의 조약을 갱신하기를 거부하고 펠로폰네소스의 패권을 바란 끝에 스파르타인과 테게아인과 보이오티아인과 아테네인을 한꺼번에 상대하게 될까 두려워, 이제 서둘러 에우스트로포스와 아이손을 스파르타에 사절로 보냈으니 이들이 가장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이며, 그 뜻은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어떤 조건으로든 스파르타인과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조약을 맺어 평온히 지내려는 것이었다.

스파르타에 이른 아르고스 사절들은 맺고자 하는 조약의 조건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다. 아르고스인이 먼저 요구한 것은 키누리아 땅 문제를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의 중재에 부치게 해 달라는 것이었으니, 그 땅은 양쪽이 예로부터 늘 다투어 온 접경의 한 조각으로 티레아와 안테네 두 도시를 품고 있으며 스파르타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스파르타인은 처음에는 이 점을 논의에 부칠 수 없으며 예전 조건대로 맺을 뜻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아르고스 사절들은 스파르타인에게서 이런

양보를 얻어 내는 데 성공했다. 우선은 50년 휴전을 두되, 스파르타에도 아르고스에도 역병이나 전쟁이 없는 때라면 어느 쪽이든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어 이 땅 문제를 싸움으로 가릴 수 있게 하며, 그것은 양쪽이 다 이겼다고 주장한 예전의 경우와 같은 방식이되 아르고스나 스파르타의 국경 너머로 뒤쫓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파르타인은 처음에는 이것이 어리석은 소리일 뿐이라고 여겼으나, 마침내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아르고스의 우호를 얻고 싶었던 터라 요구받은 조건에 동의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무엇이든 구속력을 갖기에 앞서 사절들은 아르고스로 돌아가 제 민중에게 알리고, 민중이 옳다고 하면 히아킨티아[8] 축제 때 와서 맹세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사절들이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아르고스인이 이 협상에 매달려 있을 때, 보이오티아인에게서 포로를 받아 그들과 파낙톤을 아테네인에게 돌려주기로 되어 있던 스파르타 사절 안드로메데스와 파이디모스와 안티메니다스는 보이오티아인이 이미 스스로 파낙톤을 헐어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구실은 그 일을 두고 다툼이 있은 뒤에 예로부터 저희 백성과 아테네인 사이에 맹세가 오갔는데 그 맹세가 어느 쪽도 그곳에 살지 않고 함께 가축을 먹이게 한다는 것이었다는 말이었다. 보이오티아인의 손에 있던 아테네 전쟁 포로는 안드로메데스와 그 동료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이 아테네로 데려가 돌려주었다. 사절들은 동시에 파낙톤이 헐렸음을 알렸으니, 그곳이 더는 아테네의 적을 들이지 않을 터라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돌려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테네인은 이 통고를 크게 분개하며 받아들였으니, 스파르타인이 저희를 속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그것은 서 있는 채로 돌려주었어야 할 파낙톤을 헐어 버린 일에서도 그러하고 조약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따르게 만드는 데 아테네와 함께하겠다고

앞서 약속해 놓고도 이제 들은 대로 보이오티아인과 따로 동맹을 맺은 일에서도 그러했다. 아테네인은 스파르타가 제 약정을 지키지 못한 다른 점들도 아울러 헤아렸고, 저희가 속아 넘어갔다고 여겨 사절들에게 노여운 답을 주어 돌려보냈다.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 사이의 틈이 이만큼 벌어지자 아테네에서도 조약을 무르고자 하던 쪽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으뜸은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알키비아데스였으니, 다른 어느 그리스 도시에서라면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으나 가문의 빛나는 명성으로 두드러진 자였다. 알키비아데스는 아르고스와의 동맹이 참으로 더 낫다고 보았으되, 개인의 앙심이 그가 조약에 맞선 데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스파르타인이 니키아스와 라케스를 통해 조약을 협상하면서 저가 젊다는 이유로 저를 지나쳐 버린 것에, 또 제 조부가 내놓은 뒤로 프록세노스[9]로서 제 가문이 그들과 맺어 온 오랜 인연에 마땅히 보였어야 할 존중을 보이지 않은 것에 언짢아하고 있었는데, 그 인연은 그가 섬에서 사로잡힌 그들의 포로를 돌보아 줌으로써 얼마 전 스스로 되살려 볼 생각을 하던 터였다. 이렇게 사방에서 홀대받았다고 여긴 그는 처음부터 조약에 반대해, 스파르타인은 믿을 만한 자들이 아니며 그들이 조약을 맺은 것은 오직 이를 빌미로 아르고스를 짓밟은 뒤에 아테네를 홀로 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위의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는 아르고스인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어 만티네이아인과 엘리스인을 데리고 동맹을 제안하러 되도록 빨리 아테네로 오라고 일렀으니, 때가 무르익었고 저도 그들을 돕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르고스인은 이 전갈을 받고 아테네인이 보이오티아 동맹을 알고 있기는커녕 스파르타인과 심각한 다툼에 얽혀 있음을 알게 되자, 조약 문제로 방금 스파르타에 보낸 사절단에는 더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아테네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니,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아르고스의 오랜 벗일 뿐 아니라 같은 민주정이며 바다에서 매우 강한 도시를 제 편에 두게 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곧바로 동맹을 맺으러 아테네로 사절을 보냈고, 엘리스와 만티네이아에서 온 사절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같은 무렵 스파르타에서 아테네인에게 호의를 품었다고 알려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절단, 곧 필로카리다스와 레온과 엔디오스가 서둘러 이르렀으니, 아테네인이 화가 난 나머지 아르고스인과 동맹을 맺을까 두려웠기 때문이고, 또 파낙톤과 바꾸어 필로스를 돌려 달라고 청하고 보이오티아인과의 동맹을 변호하여 그것이 아테네인을 해치려고 맺은 것이 아님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사절들이 평의회에서 이 점들을 두고 말하면서 저희가 양쪽 사이에 걸린 다른 모든 문제를 매듭지을 전권을 가지고 왔다고 밝히자, 알키비아데스는 그들이 이 말을 민회에서 되풀이하면 다수를 얻어 아르고스와의 동맹이 물리쳐질까 두려워 다음과 같은 꾀를 썼다. 그는 스파르타인에게 민회에서 전권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저가 필로스를 그들에게 돌려주겠고(그 반환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저 자신이 아테네인에게서 그것을 얻어 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다른 걸린 문제들도 매듭지어 주겠다고 엄숙히 다짐하여 그들을 설득했다. 그의 계획은 그들을 니키아스에게서 떼어 놓고, 그들이 품은 뜻에 진실함이 없고 말에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없는 자들임을 드러내어 민중 앞에서 망신을 주며, 그리하여 아르고스인과 엘리스인과 만티네이아인을 동맹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들어맞았다. 사절들이 민중 앞에 나서서 물음을 받았을 때 평의회에서 한 것과 달리 전권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지 않자, 아테네인은 참을성을 모두 잃었고 여느 때보다 더 우렁차게 스파르타인을 성토한 알키비아데스에게 휩쓸려 곧바로 아르고스인과 그

일행을 들여 동맹으로 받아들일 참이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지진이 일어나 이 민회는 미루어졌다.

이튿날 열린 민회에서 니키아스는 스파르타인이 스스로 속아 넘어간 데다 전권을 가지고 왔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까지 속게 내버려 두었음에도, 여전히 스파르타인과 벗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아르고스의 제안은 미루어 두고 스파르타에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미루는 것은 저희의 위세를 높이고 맞수의 위세를 해칠 뿐이니, 저희 형편이 더없이 좋은 만큼 이 번영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지키는 것이 저희에게 이로운 반면 스파르타의 형편은 너무나 절박해 그쪽으로서는 운을 다시 시험해 보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저를 포함한 사절을 보내도록 아테네인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니, 스파르타인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파낙톤을 온전한 모습으로 암피폴리스와 함께 돌려주고 보이오티아인이 조약에 들어오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과의 동맹을 버리라고, 어느 쪽도 다른 쪽 없이 협상하지 못하게 한 약정에 따라 그리하라고 청하려는 것이었다. 사절들은 또 아테네인이 거짓을 부리려 했다면 이미 아르고스인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아르고스인이 바로 그 일로 아테네에 와 있다고 말하도록 지시받았고, 아테네인이 내놓을 그 밖의 불만에 관한 지시도 받아 떠났다. 스파르타에 이른 사절들은 받은 지시를 전했고, 보이오티아인이 조약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스파르타인이 그들과의 동맹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테네인은 아테네인대로 아르고스인 및 그 벗들과 손을 잡겠다는 말로 끝맺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보이오티아와의 동맹을 버리기를 거부했으니, 감독관 크세나레스의 무리와 그 견해를 함께하는 자들이 이 점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 망신당하기를 두려워한 니키아스의 청에 따라 맹세를 갱신해 주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그가 맞은 운명이었으니 그는 스파르타와의 조약을 만든 장본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와 스파르타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테네인이 듣자 그들은 화를 터뜨렸고, 저희에게 신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알키비아데스가 들여놓은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이 와 있는 것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그들과 조약과 동맹을 맺었다.

아테네인과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과 엘리스인은 저희 자신과 저마다의 지배 아래 있는 동맹을 대신하여 100년 조약을 맺으니,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속임도 해침도 없어야 한다.

1. 아르고스인·엘리스인·만티네이아인과 그 동맹이 아테네인이나 아테네의 지배 아래 있는 동맹을 상대로, 또는 아테네인과 그 동맹이 아르고스인·엘리스인·만티네이아인이나 그 동맹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일은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테네인과 아르고스인과 엘리스인과 만티네이아인은 다음 조건으로 100년 동안 동맹이 된다.

2. 어떤 적이든 아테네인의 나라를 침입하면, 아르고스인과 엘리스인과 만티네이아인은 아테네인이 전갈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제 힘이 닿는 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테네를 구원하러 간다. 다만 침입자가 그 땅을 약탈한 뒤에 떠나 버린 경우에는, 그 죄를 지은 나라를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과 엘리스인과 아테네인의 적으로 삼아 이 도시들이 모두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위의 도시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 도시도 그 나라와 화약을 맺을 수 없다.

3. 마찬가지로 어떤 적이든 엘리스나 만티네이아나 아르고스의 나라를 침입하면, 아테네인은 위의 도시들이 전갈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제 힘이 닿는 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르고스와

만티네이아와 엘리스를 구원하러 간다. 다만 침입자가 그 땅을 약탈한 뒤에 떠나 버린 경우에는, 그 죄를 지은 나라를 아테네인과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과 엘리스인의 적으로 삼아 이 도시들이 모두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위의 도시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나라와 화약을 맺을 수 없다.

4. 어떤 무장 병력도 적대할 뜻으로 조약을 맺은 세력이나 저마다의 지배 아래 있는 동맹의 나라를 지나가거나 바닷길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모든 도시, 곧 아테네와 아르고스와 만티네이아와 엘리스가 그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원하러 간 병력은 그들을 요청한 도시에 이른 날부터 30일 동안 그들을 보낸 도시가 부양하며, 돌아갈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 복무가 더 오래 필요하면 그들을 부른 도시가 부양하되, 중장보병과 궁수와 경보병에게는 하루에 아이기나 오볼로스[10] 3닢, 기병에게는 아이기나 드라크메 1닢의 비율로 한다.

6. 전쟁이 제 나라에서 벌어지는 경우에는 병력을 부른 도시가 지휘권을 가진다. 다만 도시들이 함께 원정에 나서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휘권을 모든 도시가 똑같이 나눈다.

7. 이 조약은 아테네인이 저희 자신과 그 동맹을 대신하여,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과 엘리스인과 그 동맹이 나라마다 저마다 맹세한다. 저마다 다 자란 제물을 놓고 제 나라에서 가장 구속력이 큰 맹세로 맹세하며, 맹세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이 동맹과 그 조항을 정의롭게, 흠 없이, 진실하게 지키며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도 그것을 어기지 않겠다."

맹세는 아테네에서는 평의회와 정무관들이 하되 프리타니스[11]가 이를 주관하고, 아르고스에서는 평의회와 '80인'과 아르티나이가 하되 '80인'이 이를 주관하며, 만티네이아에서는 데미우르고이와 평의회와 그

밖의 정무관들이 하되 테오로이와 폴레마르코스가 이를 주관하고, 엘리스에서는 데미우르고이와 정무관들과 '600인'이 하되 데미우르고이와 테스모필라케스[12]가 이를 주관한다. 맹세의 갱신은 아테네인이 올림피아 경기가 열리기 30일 전에 엘리스와 만티네이아와 아르고스로 가서 하고,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과 엘리스인이 파나테나이아[13] 대제가 열리기 열흘 전에 아테네로 가서 한다. 조약의 조항과 맹세와 동맹은 아테네인이 아크로폴리스에, 아르고스인이 장터의 아폴론 신전에, 만티네이아인이 장터의 제우스 신전에 돌기둥을 세워 새긴다. 그리고 청동 기둥 하나를 곧 열릴 올림피아 경기에서 그들이 함께 세운다. 위의 도시들이 이 조항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면, 위의 도시들이 모두 함께 의논한 뒤에 합의하는 바는 무엇이든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조약과 동맹이 맺어졌음에도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 사이의 조약은 어느 쪽도 파기하지 않았다. 한편 코린트는 아르고스인의 동맹이면서도 이 새 조약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에 앞서 엘리스인과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 사이에 맺어진 공수 동맹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때 코린트는 방어만을 위한 것으로서 서로 돕게 하되 함께 남을 치도록 묶지는 않는 첫 동맹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리하여 코린트인은 제 동맹들과 거리를 두고 다시 스파르타 쪽으로 생각을 돌렸다.

그해 여름에 열린 올림피아 경기에서는 아르카디아인 안드로스테네스가 레슬링과 권투를 겸한 종목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는데, 이 경기에서 스파르타인은 엘리스인에게 신전 출입을 막혀 제물을 바치지도 겨루지도 못했으니, 엘리스인이 올림피아의 법에 정해진 벌금을 물렸으나 스파르타인이 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엘리스인은 스파르타인이 올림피아 휴전 기간에 피르코스 요새를 치고

제 중장보병을 레프레온에 들여보냈다고 주장했다. 벌금의 액수는 2,000므나[14]로, 법이 정한 대로 중장보병 한 사람에 2므나였다. 스파르타인은 사절을 보내어 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중장보병을 보냈을 때 스파르타에는 아직 휴전이 선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스인은 저희와 맺은 휴전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고 (엘리스인은 그것을 저희 사이에서 먼저 선포한다) 단언하면서, 저희가 평화로운 때처럼 조용히 지내며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 스파르타인의 공격이 불시에 닥쳤다고 했다. 이에 스파르타인은 엘리스인이 참으로 저희가 공격을 저질렀다고 믿었다면 그 뒤에 스파르타에서 휴전을 선포한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을 텐데도 엘리스인이 그런 일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는 듯이 선포를 했으며 그때부터 스파르타인은 엘리스의 나라를 조금도 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엘리스인은 공격이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말에는 무엇으로도 설득되지 않으리라던 제 말을 굽히지 않았고, 다만 스파르타인이 레프레온을 돌려준다면 저희 몫의 돈은 포기하고 신의 몫은 그들을 대신해 내주겠다고 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엘리스인은 두 번째 것을 내놓았다. 레프레온을 돌려주는 것에 반대한다면 그 대신에, 스파르타인이 그토록 신전에 들어가기를 바라니 올림피아의 제우스 제단에 올라가 벌금을 뒷날 반드시 내겠다고 그리스인 앞에서 맹세하라는 것이었다. 이것마저 거부되자 스파르타인은 신전과 제사와 경기에서 배제되어 제 나라에서 제물을 바쳤고, 참석하지 않은 다른 그리스인은 레프레온인뿐이었다. 그래도 엘리스인은 스파르타인이 힘으로 제물을 바칠까 두려워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중장보병 부대를 두어 지켰고, 아르고스인 1,000명과 같은 수의 만티네이아인이 그들과 합류했으며 축제 동안 하르피나에 머무른 아테네 기병도 얼마 있었다. 모여든 무리 사이에는

스파르타인이 무장하고 들어올까 하는 두려움이 컸으니, 아르케실라오스의 아들인 스파르타인 리카스가 경기장에서 심판들에게 매를 맞은 뒤로 더욱 그러했다.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제 말들이 이겼는데 그에게 출전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이오티아 백성이 우승자로 선포되자, 그 전차가 제 것임을 보이려고 경기장으로 나아가 마부에게 관을 씌워 주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며 소동이 일어나리라 굳게 내다보았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잠자코 있어 축제가 지나가게 두었다. 올림피아 경기가 끝난 뒤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은 코린트로 가서 저희 편으로 넘어오라고 청했다. 거기서 그들은 스파르타 사절 몇을 만났고 오랜 논의가 이어졌으나,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아무 결말도 없이 저마다 제 나라로 흩어졌다.

이렇게 여름이 지나갔다. 이듬해 겨울에는 트라키니아의 헤라클레이아인과 아이니아니아인·돌로피아인·말리스인과 테살리아인 얼마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으니, 이들은 모두 그 도시와 접경해 있으면서 제 나라를 곧바로 위협하는 그곳에 적대하던 부족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도시가 세워진 바로 그때부터 제 힘이 닿는 온갖 수단으로 그곳에 맞서고 그곳을 괴롭혀 온 끝에, 이제 이 싸움에서 헤라클레이아인을 무찔렀고 그들의 스파르타 지휘관인 크니디스의 아들 크세나레스가 죽었고 다른 헤라클레이아인도 여럿 죽었다. 이리하여 겨울이 끝나고 이 전쟁의 제12년도 함께 끝났다. 이 싸움 뒤에 헤라클레이아는 형편이 너무나 참혹하게 기울어, 이듬해 여름 첫머리에 보이오티아인이 그곳을 차지하고 스파르타인 아게십피다스를 잘못 다스렸다는 이유로 내보냈으니, 스파르타인이 펠로폰네소스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그 도시가 아테네인에게 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파르타인은 그들이 한 일에 언짢아했다.

그해 여름 이제 아테네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된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알키비아데스는 아르고스인 및 그 동맹과 손발을 맞추어, 아테네 중장보병과 궁수 얼마와 지나는 길에 거두어들인 그 지방 동맹의 병력 얼마를 데리고 펠로폰네소스로 들어갔고, 이 군대를 이끌고 펠로폰네소스 이곳저곳을 누비며 동맹과 얽힌 여러 일을 처리했으며, 그 가운데 파트라이인을 설득해 성벽을 바다까지 내려 쌓게 했고 저도 아카이아의 리온 가까이에 요새를 세울 작정이었다. 그러나 코린트인과 시키온인과 그것이 세워지면 손해를 볼 그 밖의 모든 자가 올라와 그를 막았다.

그해 여름 에피다우로스인과 아르고스인 사이에 전쟁이 터졌다. 구실은 에피다우로스인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도 저희 목초지에 대한 봉헌물을 아폴론 피타이오스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니, 그 신전의 관리를 주로 맡고 있는 것은 아르고스인이었다. 그러나 이 구실과는 별개로 알키비아데스와 아르고스인은 할 수만 있다면 에피다우로스를 손에 넣어 코린트의 중립을 확실히 해 두고, 아테네인이 스킬라이온을 돌아 배를 몰아야 하는 경우보다 아이기나에서 오는 증원 부대에게 더 짧은 길을 내어 주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리하여 아르고스인은 봉헌물을 받아 내려고 저희 힘만으로 에피다우로스를 칠 채비를 했다.

같은 무렵 스파르타인은 아르키다모스의 아들 아기스의 지휘 아래 온 백성을 이끌고 리카이온산 맞은편 제 접경의 레욱트라로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으니 병력을 보낸 도시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국경을 넘기에 앞서 바친 제사가 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자 스파르타인은 저희는 제 나라로 돌아가면서 동맹에게는 다음 달이 지난 뒤에 진군할 채비를 하고 있으라고 전갈을 보냈는데, 그 달은 마침 도리스인에게 거룩한 때인 카르네이오스 달[15]이었다. 스파르타인이

물러가자 아르고스인은 카르네이오스 앞 달의 마지막 날에서 사흘 앞선 날에 나아갔고, 밖에 나가 있는 내내 그날을 그대로 붙들어 두면서 에피다우로스를 쳐서 약탈했다. 에피다우로스인은 제 동맹에게 도우러 오라고 불렀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그달을 구실로 내세웠고 더러는 에피다우로스의 접경까지 와서 거기 머무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아르고스인이 에피다우로스에 있는 동안 아테네인의 초청으로 여러 도시의 사절단이 만티네이아에 모였다. 회담이 시작되자 코린트인 에우파미다스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그들이 앉아서 화평을 의논하고 있는 사이에 에피다우로스인과 그 동맹과 아르고스인이 무장하고 서로 맞서 늘어서 있다는 것이었다. 먼저 양쪽에서 대표를 보내어 두 군대를 갈라 놓고 그런 뒤에 화평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고 했다. 이 제안에 따라 그들은 가서 아르고스인을 에피다우로스에서 데리고 돌아왔고 그 뒤에 다시 모였으나 결론에 이르는 데는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했으며, 아르고스인은 두 번째로 에피다우로스를 쳐서 그 땅을 약탈했다. 스파르타인도 카리아이로 나아갔으나 국경의 제사가 다시 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자 되돌아갔고, 아르고스인은 에피다우로스 영토의 3분의 1쯤을 짓밟은 뒤 제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 중장보병 1,000명이 알키비아데스의 지휘 아래 그들을 도우러 와 있었으나, 스파르타의 원정이 끝나 저희가 더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여름이 지나갔다. 이듬해 겨울에 스파르타인은 아테네인의 감시를 따돌리고 아게십피다스의 지휘 아래 수비대 300명을 바닷길로 에피다우로스에 들여보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아르고스인은 아테네인에게 가서, 동맹이 적을 제 나라로 지나가게 두지 못하도록 한 조약의 조항이 있는데도 아테네인이 적을 바닷길로 지나가게 두었다고 따졌다. 그러므로 아테네인이 이제 스파르타인을 괴롭히도록

메세니아인과 헬롯을 필로스에 들여놓지 않는다면 저희 아르고스인은 저희에게 신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여기겠다는 것이었다. 아테네인은 알키비아데스의 설득에 따라 라코니아 기둥 아래쪽에 스파르타인이 제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고 새기고 크라니이에 있는 헬롯을 필로스로 옮겨 그 땅을 약탈하게 했으나, 그 밖의 일에서는 전처럼 잠자코 있었다. 이해 겨울 동안 아르고스인과 에피다우로스인 사이에 싸움이 이어졌으나 제대로 진을 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 습격과 매복만 있었을 뿐이어서, 잃은 것은 적었고 그것도 이쪽저쪽에 번갈아 떨어졌다. 겨울이 저물어 봄으로 접어들 무렵에 아르고스인은 사다리를 지고 에피다우로스로 갔으니, 전쟁 탓에 그곳이 지키는 자 없이 비어 있어 들이쳐 차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리하여 겨울이 끝나고 전쟁 제13년도 함께 끝났다.

이듬해 여름 한가운데에 스파르타인은 제 동맹인 에피다우로스인이 곤경에 빠져 있고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도 반기를 들거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보고, 이 병폐가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이제야말로 끼어들 때라고 판단했으며, 그리하여 헬롯까지 포함한 온 병력을 이끌고 스파르타의 왕인 아르키다모스의 아들 아기스의 지휘 아래 아르고스를 치러 나섰다. 테게아인과 스파르타의 다른 아르카디아 동맹도 이 원정에 함께했다.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 지역과 바깥에서 온 동맹은 플리우스에 모였으니, 보이오티아인은 중장보병 5,000명과 같은 수의 경보병과 기병 500명과 같은 수의 말에서 내려 싸우는 병사를 데려왔고, 코린트인은 중장보병 2,000명을 데려왔으며, 나머지는 저마다 형편되는 대로였고, 플리우스인은 군대가 제 나라에 있었던 만큼 온 병력을 냈다.

스파르타인의 준비는 처음부터 아르고스인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아르고스인은 적이 플리우스에서 나머지와 합류하러 길에 오를 때까지

나서지 않았다. 만티네이아인과 그 동맹, 그리고 엘리스 중장보병 3,000명의 증원을 받아 그들은 나아가 아르카디아의 메티드리온에서 스파르타인과 맞닥뜨렸다. 양쪽은 저마다 언덕에 자리를 잡았고, 아르고스인은 스파르타인이 홀로 있는 동안에 싸움을 걸 채비를 했다. 그러나 아기스는 밤중에 진을 거두어 그들을 따돌리고 플리우스에서 나머지 동맹과 합류하러 나아갔다. 아르고스인은 동이 틀 무렵에 이를 알아채고 먼저 아르고스로 갔다가 네메아 길로 나아갔으니,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그 길로 내려오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스는 그들이 예상한 이 길을 잡는 대신 스파르타인과 아르카디아인과 에피다우로스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험한 다른 길로 나아가 아르고스 평원으로 내려갔다. 코린트인과 펠레네인과 플리우스인은 또 다른 가파른 길로 나아갔고, 보이오티아인과 메가라인과 시키온인은 아르고스인이 진을 치고 있는 네메아 길로 내려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적이 평원으로 나아가 아기스의 병력을 치면 저희 기병으로 그 뒤를 들이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배치를 마친 뒤 아기스는 평원으로 쳐들어가 사민토스를 비롯한 여러 곳을 짓밟기 시작했다.

이를 알아챈 아르고스인은 이제 날이 밝은 뒤에 네메아에서 올라왔다. 오는 길에 그들은 플리우스인과 코린트인의 병력과 맞닥뜨려 플리우스인 얼마를 죽였고 저희 쪽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코린트인에게 죽었다. 그러는 동안 보이오티아인과 메가라인과 시키온인은 지시대로 네메아로 나아갔으나 아르고스인이 더는 그곳에 없음을 알았으니, 아르고스인은 제 재산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내려가 이제 싸움을 위해 대열을 짜고 있었고 스파르타인도 그 본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고스인은 이제 완전히 에워싸였다. 평원 쪽에서는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그들을 제 도시에서 갈라놓았고, 그들 위쪽에는 코린트인과

플리우스인과 펠레네인이 있었으며, 네메아 쪽에는 보이오티아인과 시키온인과 메가라인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군대에는 기병이 없었으니, 동맹 가운데 아테네인만이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의 대다수는 제 처지가 위태로움을 보지 못하고, 스파르타인을 아르고스 땅 안에서, 그것도 도시 가까이에서 가로막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싸움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르고스 군대에 있던 두 사람, 곧 다섯 장군 가운데 하나인 트라실로스와 스파르타의 프록세노스인 알키프론은 두 군대가 막 맞붙으려는 참에 아기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싸움을 벌이지 말아 달라고 권했으니, 아르고스인은 스파르타인이 저희에게 품은 불만이 무엇이든 공정하고 대등한 중재에 부칠 뜻이 있고 조약을 맺어 앞으로 평화롭게 지낼 뜻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한 아르고스인 두 사람은 민중의 명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고, 아기스 또한 제 판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 다수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저 원정에 따라온 고위 장교 하나에게만 그 일을 알린 뒤 아르고스인에게 그 약속을 이행할 넉 달의 휴전을 주었으며, 그러고는 다른 동맹 누구에게도 아무 설명 없이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떠났다.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은 법을 존중해 제 장군을 따라갔으나, 저희끼리는 그토록 좋은 싸움터를 두고(적은 보병과 기병에게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제 힘에 값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떠나 버렸다고 아기스를 큰 소리로 나무랐다. 참으로 이것은 그때까지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던 단연 가장 훌륭한 그리스 군대였다. 그것은 아직 네메아에서 하나로 뭉쳐 있을 때 보았어야 할 군대였으니, 온 병력을 낸 스파르타인, 그리고 아르카디아인과 보이오티아인과 코린트인과 시키온인과 펠레네인과 플리우스인과 메가라인이 있었고, 이들이 모두 저마다 제 나라의 정예여서 아르고스

동맹뿐 아니라 그만한 군대가 하나 더 보태진다 해도 맞설 만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 이리하여 군대는 아기스를 나무라며 물러갔고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르고스인은 민중과 상의하지 않고 휴전을 맺은 자들을 훨씬 더 큰 소리로 나무랐으니, 저희 도시의 성벽 아래에서 그것도 많고 용감한 동맹을 곁에 두고 싸울 수 있었을 터라 다시는 오지 않을 좋은 기회에 스파르타인을 놓쳐 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오자 카라드로스 강바닥에서 트라실로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으니, 그곳은 그들이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군무에 관한 모든 사건을 재판하는 자리였다. 트라실로스는 제단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으나, 그의 재산은 그들이 몰수했다.

그 뒤에 라케스와 니코스트라토스의 지휘 아래 아테네 중장보병 1,000명과 기병 300명이 이르렀다. 그럼에도 스파르타인과 맺은 휴전을 깨기를 꺼린 아르고스인은 그들에게 떠나 달라고 청하며 아테네인이 전할 말이 있다는데도 그들을 민중 앞에 데려가기를 거부했으나, 아직 아르고스에 있던 만티네이아인과 엘리스인이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 자리에 와 있던 사절 알키비아데스의 입을 빌려 아테네인은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에게, 동맹국들의 동의 없이 휴전을 맺을 권리가 그들에게는 애초에 없으며 이제 아테네인이 이토록 알맞은 때에 이르렀으니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변이 동맹들에게 먹혀들자 그들은 곧바로 오르코메노스로 나아갔는데, 아르고스인만은 남들처럼 동의해 놓고도 처음에는 뒤에 처져 있다가 끝내 다른 이들과 합류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자리를 잡고 오르코메노스를 에워싸 공격을 퍼부었으니, 이곳을 얻으려 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스파르타인이 아르카디아에서 데려온 인질을 그곳에 맡겨 두었기 때문이다. 오르코메노스인은 제 성벽이 약하고 적이 많으며

구원이 이르기 전에 죽을 위험이 있음에 놀라, 동맹에 들어오고 저희 인질을 만티네이아인에게 내주고 스파르타인이 맡겨 둔 인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항복했다. 이렇게 오르코메노스를 손에 넣은 뒤 동맹들은 남은 곳 가운데 어디를 다음으로 칠 것인지 의논했다. 엘리스인은 레프레온을 밀어붙였고 만티네이아인은 테게아를 밀어붙였는데, 아르고스인과 아테네인이 만티네이아인을 거들자 엘리스인은 그들이 레프레온에 표를 던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제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동맹들은 테게아를 치러 갈 채비를 만티네이아에서 했으니, 그 안에 있는 한 무리가 그 도시를 저희 손에 넘겨주기로 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인은 넉 달 휴전을 맺고 아르고스에서 돌아온 아기스를, 저희가 여태 가져 본 적이 없다고 여긴 그런 기회를 잡고도 아르고스를 굴복시키지 못했다고 맹렬히 나무랐으니, 그토록 많고 그토록 좋은 동맹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르코메노스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이르자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성이 나, 앞선 예를 모두 저버리고 치미는 대로 그의 집을 헐고 그에게 100,000드라크메의 벌금을 물리기로 정할 뻔했다. 그러나 아기스는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며 싸움터에서 훌륭히 봉사해 제 잘못을 갚겠고 그러지 못하면 그때 가서 저를 마음대로 하라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으름장을 놓은 대로 그의 집을 헐거나 벌금을 물리는 일은 삼갔으며, 다만 그때까지 스파르타에 없던 법을 만들어 스파르타 시민 10명을 조언자로 그에게 붙였으니, 그들의 동의 없이는 도시 밖으로 군대를 이끌 권한이 그에게 없게 한 것이다.

바로 이때 테게아에 있는 벗들에게서, 저희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테게아가 스파르타에서 떨어져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에게 넘어갈

것이며 이미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전갈이 왔다. 이 소식에 스파르타인과 헬롯이 온 병력으로 나선 구원군이 스파르타에서 나아갔으니, 그것도 곧바로 그리고 전에 없던 규모였다. 마이날리아의 오레스테이온까지 나아간 그들은 동맹에 든 아르카디아인에게 뒤를 바짝 따라 테게아로 오라고 지시했고, 저희는 오레스테이온까지 간 뒤 거기서 저희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자와 가장 어린 자로 이루어진 6분의 1을 제 고장을 지키라고 돌려보내고 나머지 군대와 함께 테게아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아르카디아 동맹이 곧 그들과 합류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코린트와 보이오티아인과 포키스인과 로크리스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되도록 빨리 만티네이아로 올라오라고 명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별은 촉박했고, 다 함께 모여 서로를 기다린 뒤가 아니면 적의 나라를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으니 그 나라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오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있는 대로 서둘렀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인은 합류한 아르카디아 동맹과 함께 만티네이아의 영토로 들어가 헤라클레스 신전 가까이에 진을 치고 그 땅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들은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에게 발견되었고,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은 곧바로 튼튼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자리를 잡아 싸움 대형을 갖추었다. 스파르타인은 즉시 그들을 향해 나아가 돌을 던지거나 투창을 날릴 만한 거리까지 다가갔는데, 그때 나이 든 사람 하나가 적의 자리가 튼튼한 것을 보고 아기스에게 지금 하나의 잘못을 다른 잘못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고 외쳤으니, 그 뜻은 아기스가 그토록 많은 나무람을 산 아르고스에서의 물러남을 지금의 때 이른 성급함으로 갚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아기스는 이 외침 탓이었는지 제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새 생각 탓이었는지 싸움을 벌이지 않고 얼른 군대를 되돌려 이끌었고, 테게아의 영토로 들어가 만티네이아인과 테게아인이 늘

다투는 그 물을 만티네이아 땅으로 돌리기 시작했으니, 두 나라 가운데 어느 쪽으로 흘러들든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그의 뜻은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이 물길이 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언덕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그 일을 알게 되면 그리하리라 본 것이고, 그리하여 평원에서 싸움을 벌이려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그날은 있던 자리에 머무르며 물길을 돌리는 일에 매달렸다.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은 적이 그토록 가까이 다가왔다가 갑자기 물러난 것에 처음에는 놀라 어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으나, 적이 떠나 사라져 버렸는데도 저희가 뒤쫓으러 움직이지 않은 뒤로는 제 장군들을 새삼 탓하기 시작했으니, 장군들이 앞서 아르고스 앞에서 그토록 다행스럽게 가로막았던 스파르타인을 놓아준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아무도 뒤쫓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달아나 느긋하게 빠져나가도록 두었으며 그러는 사이에 아르고스 군대는 느긋하게 배신당했다는 것이었다. 장군들은 그 자리에서는 얼이 빠져 있다가 나중에 그들을 언덕에서 이끌고 내려와 평원으로 나아가 진을 쳤으니, 적을 칠 작정이었다.

이튿날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은 적과 마주치게 되면 싸울 작정이었던 대형으로 늘어섰고, 물길에서 헤라클레스 신전 곁의 예전 진지로 돌아오던 스파르타인은 적이 바로 앞에 완전히 대형을 갖추고 언덕에서 내려와 있는 것을 갑자기 보았다. 지금 이 순간과 같은 충격을 스파르타인은 겪어 본 기억이 없었다. 채비할 겨를이 거의 없어 그들은 즉시 서둘러 제 대열에 들어섰고, 왕인 아기스가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지휘했다. 왕이 싸움터에 있을 때는 모든 명령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왕이 폴레마르코스에게 말을 전하면 그들이 로카고스에게, 이들이 펜테콘테르에게, 이들이 다시 에노모타르케스에게, 마지막으로 이들이 에노모티아[16]에 전한다. 요컨대 필요한 모든 명령이 같은 방식으로 내려가 병사들에게 빨리 이르니, 스파르타 군대는 작은 일부를

빼고는 거의 전부가 장교 밑에 장교가 있는 구조여서 해야 할 일을 챙기는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왼쪽 날개를 이룬 것은 스키리타이였으니, 스파르타 군대에서 그 자리는 언제나 그들만의 것이었다. 그들 옆에는 트라키아에서 온 브라시다스의 병사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네오다모데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파르타인 자신이 부대별로 늘어섰으며 그 곁에 헤라이아의 아르카디아인이 있었다. 이들 뒤에는 마이날리아인이 있었고, 오른쪽 날개에는 테게아인이 있었으며 맨 끝에 스파르타인 얼마가 있었다. 기병은 양쪽 날개에 배치되었다. 스파르타의 대형은 이러했다. 맞선 편의 대형은 다음과 같았다. 오른쪽에는 만티네이아인이 있었으니 싸움이 그들의 나라에서 벌어졌기 때문이고, 그들 옆에는 아르카디아에서 온 동맹이 있었으며, 그다음에 아르고스인 가운데 뽑힌 1,000명이 왔으니 나라가 이들에게 공공의 비용으로 오랜 군사 훈련을 시켜 온 터였다. 그들 옆에는 나머지 아르고스인이 있었고, 그 뒤에 그들의 동맹인 클레오나이인과 오르네아이인이 있었으며, 맨 왼쪽 끝에는 아테네인이 있었고 그들 자신의 기병이 함께 있었다.

두 싸움꾼의 대형과 병력은 이러했다. 스파르타 군대가 더 커 보였다. 그러나 어느 쪽 군세든, 또 그것을 이룬 각 분견대의 수든 적어 두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정확함도 갖추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파르타인의 수는 그 나라 정부가 비밀을 지키는 탓에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제 나라의 병력을 부풀려 자랑하기 쉬운지라 맞선 편이 어림한 수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셈하면 이때 나와 있던 스파르타인의 수를 어림할 수 있다. 600명이었던 스키리타이를 빼고 싸움터에는 일곱 부대가 있었다. 부대마다 펜테코스티스가 넷이었고 펜테코스티스마다 에노모티아가 넷이었다. 에노모티아의 첫 줄은 병사 4명으로 이루어졌다. 줄의 깊이로 말하자면 모두가 똑같이

늘어선 것은 아니고 부대장이 저마다 고른 대로였으나 대체로 여덟 겹으로 늘어섰으며, 스키리타이를 뺀 전열 전체의 첫 줄은 448명으로 이루어졌다.

두 군대가 이제 막 맞붙으려 할 때 각 분견대는 제 지휘관에게서 얼마간의 격려하는 말을 들었다. 만티네이아인은 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며 맛본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고 이미 겪은 예속을 다시 겪지 않으려 하는 것임을 되새겼고, 아르고스인은 제 옛 패권을 두고 겨루어 그토록 오래 빼앗겨 온 펠로폰네소스의 예전 몫을 대등하게 되찾고 천 가지 잘못을 저지른 적이자 이웃을 벌하려는 것임을 되새겼으며, 아테네인은 무장한 그토록 많고 용감한 동맹과 함께 그날의 영예를 얻는 영광을, 그리고 펠로폰네소스에서 스파르타인을 이기면 제 제국이 굳어지고 넓어질뿐더러 앞으로 아티카가 모든 침입에서 지켜지리라는 것을 되새겼다.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에게 주어진 북돋움은 이러했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인은 사람마다 서로에게 대열 속에서 군가를 부르며 용감한 동료 하나하나에게 전에 배운 바를 잊지 말라고 권했으니, 짧은 말의 권고는 아무리 잘 전해진들 오랜 실전 훈련보다 목숨을 지키는 힘이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싸움을 붙었으니,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은 서둘러 성난 기세로 나아갔고 스파르타인은 천천히 여러 피리 부는 자의 가락에 맞추어 나아갔는데, 이들이 대열 속에 자리 잡은 것은 종교 때문이 아니라 큰 군대가 맞붙는 순간에 흔히 그러하듯 대열이 흐트러지는 일 없이 박자를 맞추어 고르게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싸움이 붙기 바로 전에 아기스 왕은 다음과 같은 기동을 하기로 정했다. 모든 군대가 이 점에서는 한가지다. 싸움에 들어갈 때 군대는 오른쪽 날개 쪽으로 밀려 나가게 되고 양쪽이 다 이 날개로 상대의 왼쪽을 넘어서게 되니, 저마다 두려움 탓에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방패로 무방비인 옆구리를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방패가 촘촘히 맞물릴수록 저가 더 잘 지켜지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일차 책임은 오른쪽 날개의 맨 앞에 선 사람에게 있으니, 그는 늘 제 무방비인 옆구리를 적에게서 빼내려 애쓰며 같은 걱정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에 만티네이아인은 제 날개로 스키리타이를 한참 넘어섰고, 스파르타인과 테게아인은 제 군대가 더 컸던 만큼 아테네인을 그보다 더 멀리 넘어섰다. 아기스는 제 왼쪽이 에워싸일까 두렵고 만티네이아인이 그것을 너무 멀리 에두른다고 여겨, 스키리타이와 브라시다스 부대에게 대열의 제자리에서 나가 만티네이아인과 전열을 나란히 맞추라고 명했고, 폴레마르코스 힙포노이다스와 아리스토클레스에게는 오른쪽 날개에서 빼낸 두 부대를 그리로 던져 넣어 그렇게 생긴 틈을 메우라고 일렀으니, 제 오른쪽은 그러고도 남을 만큼 튼튼할 것이고 만티네이아인과 마주한 전열은 더 단단해지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명령을 적이 덮쳐 오는 순간에 촉박하게 내린 탓에, 아리스토클레스와 힙포노이다스가 옮겨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그 죄로 그들은 나중에 비겁했다는 이유로 스파르타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적이 다가왔으니, 두 부대가 옮겨 가지 않는 것을 본 아기스가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명한 스키리타이가 그 틈을 메울 겨를을 갖기도 전이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바로 이때 솜씨에서는 완전히 밀렸으되 용기에서는 저희가 더 낫다는 것을 보였다. 적과 몸을 맞대자마자 만티네이아인의 오른쪽이 그들의 스키리타이와 브라시다스 부대를 무너뜨렸고, 제 동맹과 뽑힌 아르고스인 1,000명과 함께 아직 메워지지 않은 전열의 틈으로 밀고 들어가 스파르타인을 베어 넘기고 에워쌌으며 그들을 온통 흩뜨려 짐수레까지 몰아붙이고 거기서 지키던 나이 든 사람들 얼마를 죽였다. 그러나 싸움터의 이 부분에서 밀린

스파르타인은 나머지 군대로, 특히 이른바 300명의 기사가 아기스 왕을 둘러싸고 싸운 중앙으로, 아르고스인 가운데 나이 든 자들과 그렇게 불리는 다섯 부대와 그들 옆의 클레오나이인과 오르네아이인과 아테네인을 덮쳐 즉시 흩뜨렸으니, 그 대다수는 한 대 칠 것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덮쳐 오는 순간에 물러났으며 더러는 뒤쫓아 오는 자들에게 따라잡힐까 두려워하다 발에 밟히기까지 했다.

이쪽에서 무너져 내린 아르고스인과 그 동맹의 군대는 이제 완전히 둘로 갈렸고, 동시에 스파르타와 테게아의 오른쪽이 아테네인을 에워쌀 만큼 뻗어 나간 병력으로 그들을 둘러싸자, 아테네인은 한쪽에서는 에워싸이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무너진 채 두 불길 사이에 놓인 자신을 발견했다. 참으로 그들과 함께 있던 기병이 애써 주지 않았더라면 아테네인은 군대의 어느 부분보다 심하게 당했을 것이다. 아기스 또한 만티네이아인과 아르고스인 1,000명을 마주한 제 왼쪽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알아채고 온 군대에 무너진 날개를 도우러 나아가라고 명했다. 이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적이 곁을 지나 비스듬히 멀어져 갔으므로 아테네인은 느긋하게 빠져나갔고, 무너진 아르고스 부대도 그들과 함께 빠져나갔다. 그러는 동안 만티네이아인과 그 동맹과 아르고스인 가운데 뽑힌 무리는 적을 밀어붙이기를 그치고, 제 편이 무너진 것과 스파르타인이 저희를 향해 한껏 나아오는 것을 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만티네이아인은 많이 죽었으나 아르고스인 가운데 뽑힌 무리는 대부분 무사히 빠져나갔다. 그러나 달아남도 물러남도 서두른 것이 아니었고 길지도 않았으니, 스파르타인은 적이 흩어질 때까지 오래 끈질기게 싸우지만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잠시만 뒤쫓고 멀리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내가 적은 것과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그러했으니, 아주 오랜만에 그리스인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큰 싸움이었고 가장 무게 있는

나라들이 함께 끼어든 싸움이었다. 스파르타인은 적의 주검 앞에 자리를 잡고 곧바로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죽은 자들의 무장을 벗겼으며, 제 죽은 자들을 거두어 테게아로 데려가 그곳에 묻고 적의 죽은 자들은 휴전 아래 돌려주었다. 아르고스인과 오르네아이인과 클레오나이인은 700명이 죽었고, 만티네이아인은 200명, 아테네인과 아이기나인도 200명이 죽었으며 두 장군도 함께 죽었다. 스파르타 쪽에서는 동맹이 말할 만한 손실을 입지 않았다. 스파르타인 자신에 관하여는 참된 수를 알기 어려웠으나, 그들 가운데 300명쯤이 죽었다고 한다.

싸움이 임박해 있는 동안 다른 왕인 플레이스토아낙스는 가장 나이 많은 자와 가장 어린 자로 이루어진 증원 부대를 이끌고 나아가 테게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갔다. 스파르타인은 또 사람을 보내어 코린트와 이스트모스 너머에서 오던 동맹을 돌려보냈고, 저희도 돌아가 동맹을 흩어 보낸 뒤 마침 그 무렵에 든 카르네이아 축제를 지켰다. 섬에서 겪은 재난을 두고 비겁하다느니 대체로 일을 그르치고 굼뜨다느니 하며 그때 그리스인이 그들에게 씌운 허물은 이 한 번의 싸움으로 모두 씻겼다. 운이 그들을 낮추었을 수는 있어도 사람들 자신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 싸움이 있기 하루 전에 에피다우로스인은 온 병력을 이끌고 비어 있던 아르고스 영토로 쳐들어가, 아르고스 군대가 없는 사이에 그곳에 남겨져 있던 수비병 여럿을 베었다. 싸움이 끝난 뒤 엘리스 중장보병 3,000명이 만티네이아인을 도우러 이르고 앞서 온 자들에 더해 아테네인 1,000명이 오자, 스파르타인이 카르네이아를 지키는 사이에 이 동맹들은 모두 곧바로 에피다우로스를 치러 나아갔고, 일을 저희끼리 나누어 그 도시 둘레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나머지는 그만두었으나 아테네인은 헤라이온 곶 둘레에 저희에게 맡겨진 몫을 곧바로 끝냈고,

모두가 함께 그 방어 시설에 수비대를 남겨 둔 뒤 저마다 제 도시로 돌아갔다.

이제 여름이 끝났다. 이듬해 겨울 첫머리에 카르네이아 축제가 끝나자 스파르타인은 싸움터로 나아가 테게아에 이른 뒤 아르고스로 화해의 제안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전부터 그 도시 안에 민주정을 뒤엎고자 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앞서 치러진 싸움 뒤로 이들은 이제 민중이 조건에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할 처지에 훨씬 가까이 서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먼저 스파르타인과 조약을 맺고 이어서 동맹을 맺은 뒤에 민중을 덮치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아르고스의 프록세노스인 아르케실라오스의 아들 리카스가 스파르타에서 온 두 가지 제안을 가지고 아르고스에 이르렀으니, 아르고스인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조건을 정하거나 화평의 조건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알키비아데스가 마침 그 도시에 있는 가운데 많은 논의가 오간 끝에, 이제 드러내 놓고 움직일 엄두를 내게 된 스파르타 편 무리가 아르고스인을 설득해 화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했으니, 그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스파르타인의 민회는 다음 조건으로 아르고스인과 조약을 맺는 데 동의한다.

1. 아르고스인은 오르코메노스인에게 그 아이들을 돌려주고 마이날리아인에게 그 사람들을 돌려주며, 만티네이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스파르타인에게 돌려준다.

2. 아르고스인은 에피다우로스에서 물러나고 그곳의 방어 시설을 헌다. 아테네인이 에피다우로스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하면, 그들을 아르고스인과 스파르타인과 스파르타인의 동맹과 아르고스인의 동맹의 적으로 선포한다.

3. 스파르타인이 맡아 두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하나하나 그 도시로 돌려보낸다.

4. 신에게 바칠 봉헌물에 관하여는, 아르고스인이 원하면 에피다우로스인에게 맹세를 지우고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스스로 그 맹세를 한다.

5. 펠로폰네소스의 모든 도시는 크든 작든 제 나라의 관습에 따라 독립을 유지한다.

6. 펠로폰네소스 바깥의 어떤 세력이든 펠로폰네소스의 영토를 침입하면, 조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물리치되 펠로폰네소스인에게 가장 공정한 것으로서 저희가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그리한다.

7. 펠로폰네소스 바깥에 있는 스파르타인의 모든 동맹은 스파르타인과 같은 처지에 서고, 아르고스인의 동맹은 아르고스인과 같은 처지에 서며, 저마다 제 소유를 그대로 누린다.

8. 이 조약은 동맹들에게 보이며, 동맹들이 옳다고 하면 맺는다. 동맹들이 알맞다고 보면 이 조약을 제 나라로 보내어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아르고스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했고, 스파르타 군대는 테게아에서 제 나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양쪽 사이에 왕래가 되살아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무리가 아르고스인으로 하여금 만티네이아인·엘리스인·아테네인과의 동맹을 버리고 스파르타인과 조약과 동맹을 맺게끔 꾸몄으니,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스파르타인과 아르고스인은 다음 조건으로 50년 동안 조약과 동맹을 맺는 데 동의한다.

1. 모든 다툼은 두 나라의 관습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중재로 가린다.

2.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 도시들은 독립된 주권국으로서 제 소유를 온전히 누리며 이 조약과 동맹에 들어올 수 있고, 모든 다툼은 그 도시들의 관습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중재로 가린다.

3. 펠로폰네소스 바깥에 있는 스파르타인의 모든 동맹은 스파르타인 자신과 같은 처지에 서고, 아르고스인의 동맹은 아르고스인 자신과 같은 처지에 서며, 저마다 제 소유를 그대로 누린다.

4. 어디서든 함께 원정에 나설 필요가 생기면, 스파르타인과 아르고스인이 그 일을 의논하여 동맹에게 가장 공정한 대로 정한다.

5. 펠로폰네소스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어느 도시가 국경 문제든 그 밖의 문제든 걸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매듭지어야 한다. 다만 동맹 도시 하나가 다른 동맹 도시와 다투게 되면, 그 일은 양쪽이 다 공평하다고 보는 제삼의 도시에 부쳐야 한다. 개인들 사이의 다툼은 저마다 제 나라의 법에 따라 가린다.

조약과 위의 동맹이 맺어지자 양쪽은 전쟁으로 얻었든 다른 방식으로 얻었든 모든 것을 곧바로 놓아주었고, 그때부터는 함께 움직여 아테네인이 제 요새에서 물러나 펠로폰네소스를 떠나지 않는 한 아테네인에게서 전령도 사절도 받지 않으며 함께가 아니면 누구와도 화약도 전쟁도 맺지 않기로 표결했다. 열의가 모자라지 않아 양쪽은 트라키아 방면의 여러 곳과 페르디카스에게 사절을 보냈고, 페르디카스를 설득해 제 동맹에 들어오게 했다. 그러나 그는 제 가문이 본디 나온 곳인 아르고스가 길을 보여 주는 것을 보고 그럴 마음이 들었으면서도 아테네와 곧바로 관계를 끊지는 않았다. 그들은 또 칼키디케인과 맺은 옛 맹세를 갱신하고 새 맹세도 받았다. 그 밖에 아르고스인은 아테네인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피다우로스의 요새에서

물러나라고 명했다. 아테네인은 제 사람들이 나머지 수비대보다 수가 적음을 보고 데모스테네스를 보내어 그들을 빼내 오게 했다. 이 장군은 그곳에 이르러 마련한 체육 경기를 구실 삼아 나머지 수비대를 그곳에서 끌어낸 뒤 그들 뒤로 성문을 닫아걸었다. 그 뒤에 아테네인은 에피다우로스인과 조약을 갱신하고 저희 손으로 그 요새를 내주었다.

아르고스가 동맹에서 떨어져 나간 뒤 만티네이아인은 처음에는 버티었으나, 끝내 아르고스인 없이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음을 알고 저희도 스파르타와 조건을 맺어 그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을 내놓았다. 이제 스파르타인과 아르고스인은 저마다 1,000명씩 함께 싸움터로 나아갔으니, 먼저 스파르타인이 저희만으로 시키온에 가서 그곳의 정부를 전보다 더 과두정으로 만들었고, 그런 뒤에 둘이 힘을 합쳐 아르고스의 민주정을 무너뜨리고 스파르타에 우호적인 과두정을 세웠다. 이 일들은 겨울이 저물어 봄이 오기 바로 전에 일어났고, 전쟁 제14년이 끝났다. 이듬해 여름 아토스의 디온 사람들이 아테네인에게서 떨어져 칼키디케인 쪽으로 넘어갔고, 스파르타인은 아카이아의 일을 제 나라의 이익에 더 맞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그러는 동안 아르고스의 민중 편은 조금씩 새로 결속과 용기를 모아, 스파르타에서 김노파이디아 축제[17]가 열리는 때를 기다렸다가 과두정 사람들을 덮쳤다. 도시에서 싸움이 벌어진 끝에 승리는 민중에게 돌아갔고, 민중은 맞선 자들 가운데 더러를 죽이고 더러를 내쫓았다. 스파르타인은 아르고스에 있는 제 벗들이 보낸 전갈을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그들은 김노파이디아를 미루고 그들을 구하러 나아갔으나, 테게아에서 과두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빠져나온 자들이 간곡히 청하는데도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제 나라로 돌아가 축제를 지켰다. 나중에 동맹들도 스파르타에 와 있을 때 도시 안의 아르고스인과 쫓겨난 자들에게서 온 전갈을 가지고 사절들이 이르렀고, 양쪽에서 많은 말이 오간 끝에

스파르타인은 도시 안의 무리가 잘못했다고 판단해 아르고스를 치러 나아가기로 정했으나 이 일을 자꾸 늦추고 미루었다. 그러는 동안 아르고스의 민중은 스파르타인이 두려워 다시 아테네와의 동맹을 구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다까지 긴 성벽을 쌓는 일에 나섰는데, 뭍에서 봉쇄를 당할 경우에 아테네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것을 바다로 들여오는 이점을 누리려는 것이었다. 펠로폰네소스의 몇몇 도시도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알고 있었다. 아르고스인은 여자와 노예까지 빼놓지 않고 온 백성이 이 일에 나섰고, 아테네에서는 목수와 석공이 그들에게 왔다.

이제 여름이 끝났다. 이듬해 겨울에 스파르타인은 쌓이고 있는 성벽 이야기를 듣고 코린트인을 뺀 동맹과 함께 아르고스를 치러 나아갔으니, 그 도시 안에 내통하는 자들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의 왕인 아르키다모스의 아들 아기스가 지휘를 맡았다. 도시 안에서 기대하던 내통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쌓이고 있던 성벽을 차지해 헐어 버렸고, 아르고스의 도시 히시아이를 차지해 손에 들어온 자유민을 모두 죽인 뒤 돌아가 저마다 제 도시로 흩어졌다. 그 뒤에 아르고스인은 플리우스로 쳐들어가 그곳을 약탈했으니, 쫓겨난 저희 사람들 대다수가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플리우스가 그들을 받아 주었기 때문이며, 그러고는 제 나라로 돌아갔다. 그해 겨울 아테네인은 마케도니아를 봉쇄했으니, 페르디카스가 아르고스인 및 스파르타인과 동맹을 맺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고, 또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의 지휘 아래 트라키아 방면의 칼키디케인과 암피폴리스를 치려고 아테네가 마련한 원정 때에 그가 약속을 어긴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으니, 그 원정은 주로 그가 저버린 탓에 흩어져야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적으로 선포되었다. 그렇게 겨울이 끝나고 전쟁 제15년도 함께 끝났다.

---

1. 에포로스 — 스파르타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5명을 뽑았고 왕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번역에서는 '감독관'으로 옮기고 첫 등장에만 원어를 함께 밝혔다. 그해의 으뜸 감독관의 이름으로 그해를 불렀다.

2. 아르콘 — 아테네의 정무관직. 해마다 뽑았고 그 가운데 수석 아르콘의 이름으로 그해를 불렀다.

3.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므나, 곧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4.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땅을 갈던 신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딸린 예속민으로 스파르타 시민의 토지를 부쳤다.

5. 네오다모데이스 — 해방된 헬롯으로 이루어진 스파르타의 병력. 자유는 얻었으나 시민권은 갖지 못했고 주로 국외의 임무에 쓰였다.

6.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7. 보이오타르케스 — 보이오티아 연방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11명을 뽑았고 연방의 군사와 외교를 맡았다.

8. 히아킨티아 — 아미클라이에서 아폴론과 히아킨토스를 기려 해마다 사흘 동안 치른 스파르타의 큰 축제.

9. 프록세노스 —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두었던 명예 대표. 제 나라에 살면서 상대 나라의 사절과 시민을 돌보았고, 그 직분은 흔히 집안 대대로 이어졌다.

10. 오볼로스·드라크메 — 그리스의 화폐 단위. 6오볼로스가 1드라크메였다. 아이기나 기준의 화폐는 아테네 기준보다 무거웠으므로 조약은 어느 기준인지를 밝혀 적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11. 프리타니스 — 아테네 평의회의 당번 기간, 또는 그 기간에 당번을 맡은 평의원들. 열 부족이 차례로 한 해의 10분의 1씩 평의회의 일을 주재했다.

12. 아르티나이·데미우르고이·테오로이·테스모필라케스 — 차례로 아르고스와 만티네이아·엘리스의 정무관직 이름이다. 도시마다 정부의 짜임과 관직 이름이

달랐으므로 조약은 맹세를 주관할 관직을 도시별로 따로 적었다. 본문의 '80인'과 '600인'도 각각 아르고스와 엘리스의 통치 기구다.

13. 파나테나이아 — 아테나를 기려 아테네가 치른 큰 축제. 4년마다 돌아오는 해의 것을 특히 성대하게 치러 대제라 불렀다.

14. 므나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00드라크메에 해당했고 60므나가 1탈란톤이었다.

15. 카르네이오스 달·카르네이아 — 카르네이아는 아폴론 카르네이오스를 기려 도리스계 도시들이 치른 축제로, 그 기간에는 군사 행동을 삼갔다. 카르네이오스는 그 축제가 든 달의 이름이다. 본문에서 아르고스인이 날짜를 그대로 붙들어 둔 것은 이 거룩한 달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쳐서 싸움을 이어 가려는 것이었다.

16. 폴레마르코스·로카고스·펜테콘테르·에노모타르케스 — 스파르타군의 지휘 계통이다. 폴레마르코스가 가장 큰 부대를, 로카고스가 로코스를, 펜테콘테르가 펜테코스티스를, 에노모타르케스가 가장 작은 단위인 에노모티아를 맡았다.

17. 김노파이디아 — 스파르타가 한여름에 여러 날에 걸쳐 치른 축제. 벌거벗은 젊은이들의 춤과 겨루기가 중심이었다.

17장 (제V권 제XVII장) — 전쟁 제16년 — 멜로스 회담 — 멜로스의 운명

이듬해 여름 알키비아데스는 함선 20척을 이끌고 아르고스로 가서, 아직도 의심스럽고 스파르타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이던 아르고스인 300명을 붙잡았고, 아테네인은 그들을 곧바로 제 제국에 속한 이웃 섬들에 가두어 두었다. 아테네인은 또 멜로스섬을 치러 원정에 나섰는데, 제 함선 30척과 키오스 함선 6척과 레스보스 함선 2척, 아테네에서 온 중장보병 1,200명과 궁수 300명과 기마 궁수 20명, 그리고 동맹과 섬사람들에게서 온 중장보병 약 1,500명이었다. 멜로스인은 스파르타의 식민시 사람으로 다른 섬사람들처럼 아테네인에게 굴복하려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중립을 지켜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으나 나중에 아테네인이 힘을 쓰고 그들의 땅을 약탈하자 드러내어 적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장군인 리코메데스의 아들 클레오메데스와 티시마코스의 아들 티시아스는 위의 병력을 이끌고 그들의 땅에 진을 쳤으나, 그 땅에 아무런 해도 입히기 전에 먼저 협상할 사절을 보냈다. 멜로스인은 이들을 민회 앞에 세우지 않고 사명의 목적을 정무관들과 소수[1]에게 밝히라고 일렀다. 이에 아테네 사절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테네인. 협상을 민회 앞에서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가 끊기지 않고 내리 말하면서 반박받지 않고 그냥 지나갈 그럴듯한 논변으로 대중의 귀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우리가 소수 앞에 불려

나온 뜻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 앉으신 여러분이 한층 더 조심스러운 방법을 따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쪽에서도 짜인 연설은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그것을 매듭짓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니 먼저 우리의 이 제안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멜로스 대표들은 이렇게 답했다.

멜로스인. 여러분이 제안하신 대로 서로 조용히 알려 주자는 그 공정함 자체에는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군사 준비는 그 말씀과 어울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갈 말의 재판관으로 이미 와 계심이 우리 눈에 보이고, 이 협상에서 우리가 이치에 맞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의가 우리 쪽에 있음이 드러나 우리가 굴복을 거절할 경우에는 전쟁이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노예 신세뿐이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이 앞날에 대한 예감을 따져 보려고, 또는 눈앞에 보이는 사실 위에서 나라의 안전을 의논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하겠습니다.

멜로스인. 우리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한 길만이 아니라 여러 길로 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담의 문제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안전입니다. 그러니 원하신다면 논의는 여러분이 제안하신 방식대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아테네인. 우리로 말하자면, 그럴듯한 구실을(우리가 메디아인을 무너뜨렸으므로 제국에 대한 권리가 있다거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금 여러분을 치는 것이라거나 하는 구실을) 들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믿기지도 않을 긴 연설을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여러분 또한 스파르타의 식민시이면서도 그들 편에 서지 않았다거나 우리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말고, 양쪽이 실제로 품고 있는 속마음을 눈앞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겨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한 자들 사이에서나 따지는 것이며 강한 자는 할 수 있는 만큼 해내고 약한 자는 그만큼 내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도 우리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로스인. 어쨌든 우리 생각에는 이러합니다(여러분이 정의는 접어 두고 이익만 말하라고 하시니 우리도 그에 떠밀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지켜 주는 것을 여러분이 허물지 않는 편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곧 위험에 처했을 때 공정한 것과 옳은 것을 불러낼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타당하지 않은 논거라도 통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덕을 볼 수 있는 특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걸린 이해는 여러분도 누구 못지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날에는 그것이 가장 무거운 보복의 신호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두고두고 곱씹을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 우리 제국의 끝은, 설령 끝이 온다 해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스파르타처럼 남을 다스리는 자들은 패자에게 그리 무섭지 않으며(게다가 지금 우리가 겨루는 상대는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속국들이 스스로 일어나 제 지배자를 쳐서 눌러 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무릅쓰는 위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제국의 이익을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과, 지금부터 할 말을 여러분 나라의 보전을 위해 하는 것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 없이 여러분 위에 그 지배를 행사하고, 양쪽 모두에게 좋도록 여러분이 보전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멜로스인. 그런데 대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테네인. 여러분은 최악을 겪기 전에 굴복한다는 이점을 얻고, 우리는 여러분을 없애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멜로스인.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으로 남아 적이 아니라 벗이 되되 어느 편의 동맹도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아테네인.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적의가 우리를 해치는 것보다, 여러분과의 우정이 우리 속국들에게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적의가 우리가 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멜로스인.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을, 대부분 여러분 자신의 식민시 사람이고 더러는 정복당한 반란자인 백성들과 같은 부류에 넣는 것이 여러분 속국들이 생각하는 공평함입니까?

아테네인. 권리로 말하자면 그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를 바 없다고 여기며, 누군가가 독립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복속시키면 우리는 제국을 넓히는 데 더해 안전까지 얻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섬사람이고 다른 자들보다 약하다는 사실이 바다의 주인들을 여러분이 따돌리는 데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만큼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멜로스인. 그러나 우리가 가리키는 방책에는 안전이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정의를 말하지 못하게 막고 여러분의 이익에 따르라고 하시니, 우리 또한 우리의 이익을 밝히고 그 둘이 마침 겹친다면 여러분을 설득해 보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립으로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경우를 보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자기들도 칠

것이라고 결론지을 터인데, 그들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미 가진 적을 더 크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조차 해 보지 않았을 자들을 억지로 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테네인. 실상을 말하자면 뭍에 사는 자들은 대체로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우리를 상대로 미리 손을 쓰는 일을 오랫동안 막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제국 바깥에 있는 여러분 같은 섬사람들과 멍에에 쓸려 아파하는 속국들이야말로, 경솔한 걸음을 내디뎌 저희와 우리를 뻔한 위험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멜로스인.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국을 지키려고 그토록 무릅쓰고 여러분의 속국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토록 무릅쓰는 터에, 아직 자유로운 우리가 여러분의 멍에를 지기 전에 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비루함이요 비겁함일 것입니다.

아테네인. 지혜롭게 헤아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겨룸은 명예를 상으로 걸고 치욕을 벌로 거는 대등한 겨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며, 여러분보다 훨씬 강한 자들에게 맞서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멜로스인.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운이 때로는 수의 차이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보다 더 공평하다는 것을 압니다.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를 절망에 넘겨 주는 일이지만 행동은 우리가 아직 똑바로 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남겨 두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 위험을 달래 주는 것인 희망은, 넉넉한 밑천에서 그것을 쓰는 자들에게는 해를 끼칠지언정 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본성은 도를 넘는 데 있어서, 가진 것을 모두 그 도박에 걸 만큼 멀리 간 자들은 파멸하고 나서야 비로소 희망의 참모습을 봅니다. 그

정체를 알아보는 일이 아직 몸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약하여 저울이 한 번 기우는 데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또 흔한 무리처럼 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궁지에 몰려 눈에 보이는 희망이 끊기면 사람의 힘으로 아직 얻을 수 있는 안전마저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곧 예언과 신탁에, 그리고 사람을 희망으로 홀려 파멸로 이끄는 그 밖의 온갖 지어낸 것들에 매달립니다.

멜로스인. 조건이 대등하지 않은 한 여러분의 힘과 행운을 상대로 겨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도 여러분만큼 잘 알고 있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자와 싸우고 있으니 신들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만 한 행운을 내려 주시리라 믿으며, 힘에서 모자라는 것은 스파르타인의 동맹이 채워 주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 때문에라도 같은 핏줄을 도우러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신감도 결국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테네인. 신들의 은총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못지않게 그것을 바랄 만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도 사람들이 신들에 대해 믿는 바에도 사람들이 저희끼리 행하는 바에도 조금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데, 그들이 제 본성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처음 만든 것도, 만들어진 그것을 처음 따라 행한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 뒤로도 길이 남도록 두고 갈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을 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든 누구든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힘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에 관한 한

우리가 불리한 자리에 서게 되리라는 두려움도 없고 두려워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스파르타인을 움직여 여러분을 돕게 하리라 믿게 만든 그 생각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여러분의 순진함에 복을 빌어 줄지언정 그 어리석음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스파르타인은 저희끼리의 관계와 제 나라의 관습에서는 덕을 누구보다 많이 행합니다. 남을 대하는 그들의 처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겠으나,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제게 이로운 것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점에서 그들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짧게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또렷하게 보여 줄 길은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여러분이 지금 까닭 없이 기대고 있는 그 안전을 그리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멜로스인. 그러나 바로 그 까닭에 우리는 지금 그들이 이익을 중히 여긴다는 점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제 식민시 사람인 멜로스인을 저버려 그리스에 있는 벗들의 신뢰를 잃고 제 적을 돕는 일을 막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익은 안전과 함께 가지만 정의와 명예는 위험 없이 따를 수 없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스파르타인은 대체로 위험을 되도록 적게 부르는 자들입니다.

멜로스인.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위험까지도 무릅쓸 가능성이 더 크고 남을 위할 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펠로폰네소스에 가까우니 그들이 움직이기가 더 쉽고, 같은 핏줄이니 우리의 충실함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 그렇기는 하나 동맹이 되려는 자가 믿는 것은 제 도움을 청하는 쪽의 선의가 아니라 행동에 나설 만한 뚜렷한 힘의 우위이며, 스파르타인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더 봅니다. 적어도 그들은 제 나라의

자원을 믿지 못하여 수많은 동맹을 거느리고서야 이웃을 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다의 주인인데 그들이 섬으로 건너올 법한 일이겠습니까?

멜로스인.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낼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크레타해는 넓으며, 그 바다를 지배하는 쪽이 남을 가로채기보다 그 눈을 피하려는 쪽이 무사히 빠져나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인이 이 일에 실패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땅으로, 그리고 브라시다스의 손이 닿지 않았던 나머지 동맹들에게로 쳐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도 아닌 곳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나라와 여러분 자신의 연합을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여러분도 겪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테네인이 남을 두려워하여 포위를 거둔 일이 여태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란 것은, 나라의 안전을 의논하겠다고 말씀하고서도 이 모든 논의를 통틀어 사람이 믿고 의지해 그것으로 구원받으리라 여길 만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한 논거는 희망과 앞날에 매달려 있고, 여러분이 실제로 가진 밑천은 여러분 앞에 늘어선 것에 견주면 이기고 나오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물러가게 한 뒤에 이보다 더 신중한 방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판단에서 크게 눈이 멀었음을 드러내는 셈이 될 것입니다. 부끄럽고 동시에 잘못 볼 수 없을 만큼 뻔한 위험 앞에서 사람에게 그토록 치명적임이 드러나는 저 치욕이라는 관념에 여러분이 설마 붙들리지는 않겠지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제가 무엇을 향해 달려드는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치욕이라 불리는 그것에 홀리는 이름 하나의 힘만으로 이끌려 가다가 마침내 그 말에 사로잡힌 나머지 실제로 제 발로 가망 없는 재앙 속에 빠지고, 불운의 결과로 오는 치욕보다 잘못의 동반자로 오는 더

치욕스러운 치욕을 스스로 뒤집어쓰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헤아린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경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시가 여러분의 땅을 그대로 누리게 두면서 그 도시에 조공을 바치는 동맹이 되라는 온건한 제안을 내놓을 때,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전쟁과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선택이 주어졌을 때 더 나쁜 쪽을 고를 만큼 눈이 멀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대등한 자에게 물러서지 않고 윗자리에 있는 자와는 사이를 지키며 아랫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온건한 자들이 대체로 가장 잘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러간 뒤에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의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과 여러분에게 나라는 하나뿐이라는 것과 이 한 번의 의논에 그 나라의 번영이냐 파멸이냐가 달려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새기십시오.

아테네인은 이제 회담에서 물러났고, 저희끼리 남은 멜로스인은 논의에서 내내 지켜 온 것과 같은 결정에 이르러 이렇게 답했다. "아테네인 여러분, 우리의 결의는 처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700년 동안 사람이 살아온 도시의 자유를 한순간에 빼앗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신들이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켜 주신 그 행운과 사람들, 그리고 스파르타인의 도움을 믿고 그렇게 스스로를 구해 보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는 벗이 되고 어느 편에게도 적이 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양쪽 모두에게 합당해 보이는 조약을 맺은 뒤 우리 땅에서 물러가 주십시오."

멜로스인의 답은 이러했다. 회담을 떠나면서 아테네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결의로 미루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만이 앞날의 일을 눈앞의 일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토록 바라는 나머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파르타인과 여러분의 행운과 여러분의 희망에 가장

많이 걸고 가장 크게 믿은 만큼, 여러분은 그만큼 가장 크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 사절들은 이제 군대로 돌아갔고, 멜로스인이 굽힐 기색을 보이지 않자 장군들은 곧바로 싸움에 들어가 멜로스인 둘레에 포위벽을 둘러쳤는데 그 일을 여러 나라에 나누어 맡겼다. 그 뒤 아테네인은 제 시민과 동맹 가운데 얼마를 남겨 뭍과 바다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군대의 대부분을 데리고 돌아갔다. 그렇게 남은 병력은 그곳에 머물며 포위를 이어 갔다.

그 무렵 아르고스인은 플리우스의 땅을 침입했다가 플리우스인과 아르고스 추방자들이 놓은 매복에 끊겨 약 80명을 잃었다. 한편 필로스의 아테네인은 스파르타인에게서 너무도 많은 것을 약탈해 갔으므로, 스파르타인은 여전히 조약을 깨고 아테네와 전쟁에 들어가는 일은 삼가면서도 제 백성 가운데 원하는 자는 누구든 아테네인을 약탈해도 좋다고 공포했다. 코린트인 또한 제 사사로운 다툼 때문에 아테네인과 싸움을 시작했으나 나머지 펠로폰네소스인은 가만히 있었다. 그러는 동안 멜로스인은 밤에 공격해 장터 맞은편 아테네 포위선의 한 구역을 빼앗고 사람 몇을 죽였으며, 곡식과 그 밖에 쓸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모두 들여온 뒤 그렇게 돌아와 조용히 지냈고, 아테네인은 앞으로 파수를 더 잘 세우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여름이 끝났다. 이듬해 겨울에 스파르타인은 아르고스 땅을 침입할 작정이었으나, 국경에 이르러 국경을 넘기 위한 제사[2]의 징조가 좋지 않음을 알고 다시 돌아갔다. 그들의 이 의도 때문에 아르고스인은 제 동포 가운데 몇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더러는 붙잡았으나 더러는 놓쳤다. 그 무렵 멜로스인은 수비가 허술하던 아테네 포위선의 또 다른 구역을 다시 빼앗았다. 그로 인해 뒤이어 데메아스의 아들 필로크라테스의 지휘 아래 아테네에서 증원이 도착하자 포위는 이제

힘껏 조여졌고, 안에서 얼마간의 배반이 일어나 멜로스인은 아무 조건 없이 아테네인에게 항복했다. 아테네인은 붙잡은 성인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았으며, 그 뒤 식민단 500명을 보내 그곳에 제 사람들이 살게 했다.

---

1. 소수 — 과두정 아래에서 실권을 쥔 소수의 유력자를 가리킨다. 멜로스는 민회가 아니라 이 소수와 정무관들에게 아테네 사절을 맞게 했으니, 회담의 내용이 시민 전체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2. 국경을 넘기 위한 제사 — 스파르타군은 국경을 넘기 전에 제물을 바쳐 징조를 살피고, 징조가 나쁘면 원정을 그 자리에서 거두었다. 이 관행 때문에 스파르타의 출정이 국경에서 되돌아서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18장 (제VI권 제XVIII장) — 전쟁 제17년 — 시칠리아 원정 — 헤르메스상 훼손 사건 — 원정대의 출항

같은 해 겨울 아테네인은 라케스와 에우리메돈이 이끌었던 것보다 큰 군세를 갖추어 다시 시칠리아로 건너가, 될 수 있으면 섬 전체를 정복하기로 결의했다. 그들 대부분은 그 섬이 얼마나 크고 그리스계와 이민족을 합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사는지 몰랐으며, 자기들이 펠로폰네소스인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크게 못지않은 전쟁을 떠맡는다는 것도 몰랐다. 상선으로 시칠리아를 한 바퀴 도는 데 여드레가 채 못 되게 걸리는데, 그만큼 큰 섬이면서도 겨우 20스타디온[1]가량의 바다가 가로막아 뭍에 이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 섬에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된 내력은 다음과 같고, 그곳을 차지한 종족은 이러하다. 이 땅의 한 지역에 가장 먼저 살았다고 전해지는 자들은 키클롭스와 라이스트리고네스인데, 나는 그들이 어느 종족이었는지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말할 수 없으므로, 시인들이 그들을 두고 한 말과 세상에 두루 알려진 이야기에 독자를 맡겨 둔다. 그다음으로 들어온 것은 시카니아인으로 보이는데, 그들 자신은 누구보다 먼저 이 땅에 있었던 원주민이라 내세우지만 사실이 보여 주는 바로는 이베리아의 시카노스 강가에서 리구리아인에게 쫓겨난 이베리아인이었다. 전에 트리나크리아라 불리던 이 섬이

시카니아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그들에게서 비롯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시칠리아의 서쪽에 산다. 일리온이 무너졌을 때 트로이인 얼마가 아카이아인의 손을 벗어나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와서 시카니아인과 이웃해 자리를 잡고 엘리미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 불렸는데, 그들의 도시가 에릭스와 에게스타다.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폭풍에 밀려 먼저 리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시칠리아에 닿은 포키스인 얼마도 그들과 함께 살았다. 시켈인은 본디 살던 이탈리아에서 오피키인을 피해 시칠리아로 건너왔는데, 전해 오는 말로도 그렇고 그럴듯해 보이기로도 뗏목을 타고 해협 아래로 바람이 부는 때를 기다렸다가 건넜다고 하며, 어쩌면 달리 배를 타고 건너왔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에는 여전히 시켈인이 있고, 그 땅이 이탈리아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렇게 불린 시켈인의 왕 이탈로스에게서다.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시칠리아로 건너가 시카니아인을 싸움에서 이기고 섬의 남쪽과 서쪽으로 밀어냈으며, 그리하여 섬은 시카니아 대신 시칠리아라 불리게 되었다. 건너온 뒤로 그들은 그리스인이 시칠리아에 오기까지 300년 가까이 그 땅에서 가장 기름진 곳을 누리고 살았고, 지금도 섬의 가운데와 북쪽을 차지하고 있다. 시칠리아 둘레에는 페니키아인도 살고 있었는데, 시켈인과 장사를 하려고 바닷가의 곶들과 거기 딸린 작은 섬들을 차지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인이 바다를 건너 상당한 수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페니키아인은 거점 대부분을 버리고 한데 모여 엘리미인 가까이 있는 모티에와 솔로에이스와 파노르모스에 자리를 잡았으니, 엘리미인과 맺은 동맹을 믿은 까닭도 있고 그곳이 카르타고와 시칠리아를 오가는 뱃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인 까닭도 있었다.

시칠리아의 이민족은 이러했고, 그들이 자리 잡은 내력은 내가 말한 대로다. 그리스인 가운데 가장 먼저 온 것은 에우보이아에서 건너온

칼키스인으로, 투클레스를 건설자로 삼아 왔다. 그들은 낙소스를 세우고 아폴론 아르케게테스[2]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지금 성 밖에 서 있고 경기에 나가는 사절들은 시칠리아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제물을 바친다. 시라쿠사는 그 이듬해에 코린트에서 온 헤라클레이다이[3] 가운데 한 사람인 아르키아스가 세웠는데, 그는 먼저 시켈인을 섬에서 몰아냈으며 지금 안쪽 도시가 서 있는 그 섬은 이제 물에 둘러싸여 있지 않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깥 시가지도 성벽 안에 들어와 사람이 많아졌다. 그사이 투클레스와 칼키스인은 시라쿠사가 세워진 지 5년째에 낙소스를 떠나 무력으로 시켈인을 몰아내고 레온티노이를 세웠으며 뒤이어 카타나를 세웠는데, 카타나의 건설자는 카타나인 자신들이 에우아르코스로 정했다.

그 무렵 라미스가 메가라에서 온 이주민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닿아 판타키아스강 너머에 트로틸로스라는 곳을 세웠다가 그곳을 떠나 잠시 레온티노이에서 칼키스인과 어울려 살았으나, 그들에게 쫓겨난 뒤 탑소스를 세웠다. 그가 죽은 뒤 그를 따르던 자들은 탑소스에서 쫓겨나 히블라이아 메가라라는 곳을 세웠는데, 시켈인의 왕 히블론이 그 땅을 내주며 그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245년을 살았고 그 뒤 시라쿠사의 참주 겔론에게 도시와 땅에서 내쫓겼다. 다만 쫓겨나기 전, 그 땅에 자리 잡은 지 100년째 되던 해에 그들은 파밀로스를 내보내 셀리누스를 세웠으니, 파밀로스는 그들의 모국인 메가라에서 건너와 그 건설에 함께한 사람이었다. 겔라는 로도스에서 온 안티페모스와 크레타에서 온 엔티모스가 함께 이주민을 이끌고 가서 시라쿠사가 세워진 지 45년째에 세웠다. 도시의 이름은 겔라스 강에서 왔고, 지금 성채가 서 있는 자리이자 가장 먼저 성벽을 두른 곳은 린디오이라 불렸다. 그들이 받아들인 제도는 도리스식이었다. 겔라가 세워진 지 108년쯤 뒤에 겔라인은 같은 이름의 강에서 이름을 딴 아크라가스를

세우고 아리스토노오스와 피스틸로스를 건설자로 삼았으며, 제 도시의 제도를 그 이주지에 그대로 주었다. 장클레는 본디 오피키인의 땅에 있는 칼키스인의 도시 쿠마이에서 온 해적들이 세웠으나, 뒤에 칼키스와 에우보이아의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이 건너와 땅을 함께 나누어 가졌으며 건설자는 쿠마이 출신의 페리에레스와 칼키스 출신의 크라타이메네스였다. 처음에 장클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시켈인인데, 그 땅이 낫처럼 생겼고 시켈인은 낫을 장클론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에 메디아인을 피해 시칠리아에 내린 사모스인과 다른 이오니아인이 처음의 정착민을 몰아냈고, 오래지 않아 레기온의 참주 아낙실라스가 이번에는 사모스인을 몰아낸 다음 여러 곳 사람을 섞어 그 도시에 살게 하고는 제 옛 고향을 따 이름을 메시나로 바꾸었다.

히메라는 장클레에서 나간 에우클레이데스와 시모스와 사콘이 세웠고, 그 이주지로 간 사람은 대부분 칼키스인이었으나 내분에서 져 시라쿠사에서 쫓겨난 밀레티다이라 불리는 자들도 합류했다. 말은 칼키스 말과 도리스 말이 섞인 것이었으나 자리 잡은 제도는 칼키스의 것이었다. 아크라이와 카스메나이는 시라쿠사인이 세웠는데, 아크라이는 시라쿠사가 선 지 70년 뒤에, 카스메나이는 아크라이보다 20년쯤 뒤에 세웠다. 카마리나도 처음에는 시라쿠사인이 세웠으니 시라쿠사가 세워진 지 135년이 다 되어 가는 때였고 건설자는 닥손과 메네콜로스였다. 그러나 카마리나인이 반란을 일으킨 탓에 시라쿠사인에게 무력으로 쫓겨난 뒤, 얼마 지나 겔라의 참주 히포크라테스가 시라쿠사인 포로의 몸값으로 그 땅을 받아 카마리나에 다시 사람을 들이고 스스로 건설자가 되었다. 끝으로 카마리나는 겔론에게 다시 비워졌다가 겔라인의 손에 세 번째로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시칠리아에 사는 그리스계와 이민족 종족의 목록은 이러하고, 아테네인이 이제 쳐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섬의 크기도 이러했다. 그들은 섬에 있는 동족과 그 밖의 동맹을 돕는다는 그럴듯한 명분도 내세웠지만 실은 섬 전체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부추긴 것은 아테네로 와서 어느 때보다 다급하게 도움을 청한 에게스타의 사절이었다. 에게스타인은 혼인 문제와 다툼이 된 땅 때문에 이웃인 셀리누스인과 전쟁에 들어갔는데, 셀리누스인이 시라쿠사인을 동맹으로 끌어들여 물과 뭍 양쪽에서 에게스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제 에게스타인은 지난번 레온티노이 전쟁 때 라케스가 있던 시절에 맺은 동맹을 아테네인에게 일깨우며 함대를 보내 도와 달라고 청했고, 여러 가지를 들어 말하는 가운데 가장 힘주어 내세운 것은 이런 논리였다. 시라쿠사인이 레온티노이의 사람들을 흩어 버린 일로 벌을 받지 않은 채 시칠리아에 남은 아테네의 동맹들을 무너뜨리고 섬 전체의 힘을 손에 넣게 둔다면, 그들이 언젠가 큰 군세를 이끌고 와서 도리스인으로서 도리스 형제들을 돕고 이주민으로서 자기들을 내보낸 펠로폰네소스인을 도와 아테네의 세력을 허무는 데 힘을 보탤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테네인은 아직 남은 동맹과 힘을 합해 시라쿠사인에게 맞서는 편이 좋을 것이며, 더구나 에게스타인 자신들이 전쟁에 넉넉할 만큼 돈을 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아테네인은 에게스타인과 그들을 편드는 자들이 민회에서 이 말을 거듭 되풀이하는 것을 듣고, 먼저 에게스타에 사절을 보내 그들이 말하는 돈이 정말로 국고와 신전에 있는지 보게 하고 아울러 셀리누스인과 벌이는 전쟁이 어떤 형편인지 알아보게 하기로 표결했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사절이 시칠리아로 떠났다. 같은 해 겨울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은 코린트인만 빼고 아르고스 땅으로 쳐들어가 얼마 안 되는 지역을 짓밟고 끌고 온 수레에 곡식을 얼마쯤 실어 갔다.

또한 그들은 아르고스에서 쫓겨난 자들을 오르네아이에 자리 잡게 하고 본대에서 병사를 얼마 떼어 남겨 두었으며, 오르네아이인과 아르고스인이 서로의 땅을 해치지 않기로 하는 한동안의 휴전을 맺은 뒤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오래지 않아 아테네인이 함선 30척과 중장보병 600명을 데리고 왔고 아르고스인이 전군을 이끌고 합류해 함께 나아가 오르네아이에 있는 자들을 하루 동안 에워쌌으나, 포위한 쪽이 얼마쯤 떨어진 곳에 진을 친 사이에 수비대는 밤을 타 빠져나갔다. 이튿날 그것을 알아챈 아르고스인은 오르네아이를 허물어 땅과 같이 만들고 돌아갔으며, 그 뒤 아테네인도 함선을 타고 본국으로 갔다. 그사이 아테네인은 제 기병 얼마와 아테네에 와 있던 마케도니아 망명자들을 배에 태워 마케도니아 국경의 메토네로 보내 페르디카스의 땅을 노략했다. 이에 스파르타인은 열흘마다 갱신하는 휴전을 아테네와 맺고 있던 트라키아의 칼키디케인에게 사람을 보내 페르디카스 편에 서서 전쟁에 나서라고 재촉했으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겨울이 끝났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전쟁의 열여섯째 해도 끝났다.

이듬해 여름철에 드는 이른 봄에 아테네의 사절이 시칠리아에서 돌아왔고 에게스타인도 함께 와서 주조하지 않은 은 60탈란톤[4]을 가져왔는데, 보내 달라고 청할 함선 60척의 한 달 치 급료였다. 아테네인은 민회를 열어 에게스타인과 제 사절에게서 형편 전반에 대한, 특히 신전과 국고에 넉넉히 있다는 그 돈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니, 듣기에 솔깃한 만큼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였다. 그러고는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알키비아데스와 니케라토스의 아들 니키아스와 크세노파네스의 아들 라마코스를 지휘관으로 삼아 전권을 주고 함선 60척을 시칠리아로 보내기로 표결했으며, 세 사람이 할 일은 셀리누스인에 맞서 에게스타인을 돕고 전쟁에서 유리한 것을 얻으면

레온티노이를 되세우며 시칠리아의 다른 모든 일은 아테네의 이익에 가장 낫다고 여겨지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닷새 뒤에는 두 번째 민회가 열려 함선을 가장 빨리 갖출 방도를 의논하고 원정에 필요하다고 지휘관들이 청하는 그 밖의 것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런데 제 뜻과 달리 지휘관으로 뽑힌 니키아스는 나라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가볍고 그럴듯한 구실을 붙들고 이루기 어려운 큰일인 시칠리아 전체의 정복을 넘보고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테네인을 그 일에서 돌려세우기를 바라며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이 민회는 시칠리아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의논하려고 소집된 것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살펴야 할 물음이 하나 남아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함선을 내보내는 것이 나은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만한 무게의 일을 이토록 가볍게 다루어서도 안 되고,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전쟁을 바깥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떠맡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저 한 사람으로 보면 이 길은 제게 명예를 가져다주며, 저는 제 한 몸을 두고 남들보다 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제 몸과 재산을 얼마쯤 돌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한 시민이 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 이익을 위해서라도 남보다 더 나라가 잘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명예를 얻자고 제 생각과 어긋나게 말한 적이 없으므로 이제 와서 그리하지 않고 가장 옳다고 여기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놓고 볼 때,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그 자체로 미덥지 못하며 얻을지 못 얻을지도 모를 이익을 위해 지금 여러분의 것인 바를 걸지 말라고 제가 권해 봐야 그 말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열의가 때에 맞지 않고 그 야심이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적을 여럿 남겨 둔 채 저 먼 곳으로 가서 적을 더 만들어 데려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맺은 조약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 조약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만 이름뿐인 것으로 이어질 터인데, 이곳과 스파르타의 몇몇 사람이 한 짓 때문에 이미 이름뿐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라도 우리가 크게 무너지는 날이면 그 조약은 적들이 우리를 치는 것을 한순간도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 협정은 재앙에 떠밀려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라 우리보다 그들에게 덜 명예로웠고, 둘째로 그 협정 자체에 아직 다투고 있는 대목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힘센 나라 가운데 더러는 그 합의를 아예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우리와 드러내 놓고 싸우고 있고, 더러는 스파르타인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까닭에 열흘마다 갱신하는 휴전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둘러 그리하려는 대로 우리 힘이 갈라진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예로부터 어느 동맹보다 귀하게 여겼을 시칠리아 그리스인과 손잡고 우리를 매섭게 칠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헤아려야 하고, 이토록 아슬아슬한 자리에 놓인 나라를 걸고 모험할 생각이나 이미 가진 제국도 굳히지 못한 채 다른 제국을 움켜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 트라키아의 칼키디케인은 이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 반란한 채 아직 굴복하지 않았고, 대륙에 있는 다른 자들도 우리에게 미덥지 못한 복종을 바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맹인 에게스타인이 해를 입었다 하여 우리는 달려가 도우려 하면서, 그토록 오래 우리에게 해를 입혀 온 반란자들은 아직 벌을 기다리는 채로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엣것들은 한번 굴복시키면 눌러 둘 수 있지만, 시칠리아인은 정복한다 해도 너무 멀고 너무 많아 어려움 없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정복해도 눌러 둘 수 없는 자들을 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실패하면 우리는 그 일을 벌이기 전과는 아주 다른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또 시칠리아 그리스인을 지금 그대로 놓고 보면,

에게스타인이 즐겨 내세우는 겁주기대로 시라쿠사인이 그들을 정복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그들이 지금보다 우리에게 덜 위험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스파르타를 아끼는 마음에서 저마다 따로 이리로 건너올 수 있겠지만, 그리되고 나면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치는 일은 좀처럼 없을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인과 손잡고 우리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바로 그 손이 그와 똑같이 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칠리아의 그리스인이 우리를 가장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아예 그리로 가지 않을 때이고, 그다음은 우리가 힘을 한번 보인 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돌아왔을 때입니다. 가장 멀리 있어 그 이름을 시험해 볼 길이 가장 적은 것이 우러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바이며, 작은 실패에도 그들은 곧 우리를 낮추어 보기 시작할 것이고 이곳의 우리 적들과 손잡고 우리에게 맞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을 두고 이것을 겪어 보셨습니다.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에 견주어 뜻밖의 성공을 거두자 여러분은 갑자기 그들을 업신여기게 되었고,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부추겨 시칠리아 정복까지 넘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의 불운에 우쭐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기 전에 그들의 기를 꺾을 일을 생각해야 하며, 스파르타인이 그 치욕으로 품게 된 단 하나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려 제 불명예를 씻자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용의 명성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오래, 가장 힘써 닦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롭다면 우리의 싸움은 시칠리아에 있는 이민족 에게스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의 과두정이 꾸미는 일에 어떻게 하면 가장 든든히 맞설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큰 역병과 전쟁에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려 재산과 몸에 적지 않은 이로움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힘은 저

망명자들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옳습니다. 저들은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것이 제 이익이고, 스스로는 말만 할 뿐 위험은 남에게 떠넘기며, 일이 되면 마땅한 고마움을 보이지 않고 일을 그르치면 제 벗들까지 끌고 넘어질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휘관으로 뽑힌 것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오직 제 잇속을 위해 이 원정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추기는 자가 있다면, 더구나 아직 지휘하기에는 너무 젊은 자라면, 제 말 떼로 우러름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무거운 비용 탓에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는 자라면, 그런 자가 나라를 걸고 제 개인의 화려함을 지탱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제 것을 탕진하면서 나라의 재산까지 축낸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일이지 젊은 사람이 결정하거나 서둘러 손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불러 모아 지금 그 곁에 앉아 있는 자들을 보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이 든 분들을 부릅니다. 그런 자가 옆에 앉아 있는 분이라면 전쟁에 손을 들지 않으면 겁쟁이로 보일까 두려워 부끄러움에 밀려 주저앉지 마시고, 바라는 마음으로 얻어지는 성공은 드물고 내다보는 눈으로 얻어지는 성공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어, 정복의 미친 꿈일랑 저들에게 맡겨 두고 제 나라가 그 역사에서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지금 나라를 참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반대편에 손을 드십시오. 시칠리아 그리스인은 우리와 저들 사이에 지금 있는 경계, 곧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 경계 안에, 연안을 따라가는 뱃길로는 이오니아 해요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로는 시칠리아 해인 그 경계 안에 그대로 두어 제 것을 누리고 제 다툼을 제 손으로 풀게 하자는 데에 손을 드십시오. 에게스타인에게는 아테네인과 의논도 없이 저들이 시작한 전쟁이니 셀리누스인과 저들끼리 끝내라고 이르자는 데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곤경에 처하면

우리가 도와야 하면서 정작 우리가 곤경에 처하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자들과 동맹을 맺지 말자는 데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프리타니스[5]께서는, 나라를 돌보는 것이 제 소임이라 여기시고 스스로 좋은 시민임을 보이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쳐 아테네인의 뜻을 한 번 더 물으십시오. 같은 문제를 다시 올리기가 두려우시다면,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마당에 법을 어겼다는 허물이 붙을 리 없다는 것을, 당신이 길을 잘못 든 나라의 의사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의 덕이란 한마디로 제 나라에 할 수 있는 만큼 이로움을 주는 것이며 적어도 피할 수 있는 해는 끼치지 않는 것임을 헤아리십시오.

니키아스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나온 아테네인은 대부분 원정에 찬성하고 이미 표결한 것을 뒤집지 말자고 말했으나 반대편에서 말하는 이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원정을 누구보다 뜨겁게 편든 것은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알키비아데스였으니, 그는 정적으로서도 그렇고 니키아스가 연설에서 자기를 공격한 일 때문에도 그를 꺾고자 했으며, 그 밖에도 시칠리아와 카르타고를 무릎 꿇리고 그 성공으로 제 재산과 명성을 불리기를 바라며 지휘권을 몹시 탐내고 있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그가 차지한 자리가 그로 하여금 말을 기르는 일에서나 그 밖의 씀씀이에서나 제 살림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제 취향을 좇게 했는데, 이것이 뒷날 아테네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데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의 생활과 버릇이 보이는 방종이 워낙 크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드러내는 야심 또한 워낙 커서 사람들 대다수는 그를 참주 자리를 노리는 자로 보고 그의 적이 되었으며, 나라의 일로 보면 그가 전쟁을 이끈 솜씨는 더 바랄 것이 없었으나 사람됨으로 보면 그의 버릇이 누구에게나 거슬렸으므로 사람들은 일을 다른 자들의 손에

맡겼고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 도시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아무튼 그는 이때 앞으로 나와 아테네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테네인 여러분, 저는 남들보다 지휘를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니키아스가 저를 공격했으니 이 말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제가 그 자리에 걸맞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헐뜯는 그 일들은 제 조상과 제게 이름을 가져다주고 더하여 나라에는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그리스인은 우리 도시가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기고 있다가, 제가 올림피아 경기에서 이 도시를 대표하며 보인 그 화려함 때문에 도시가 실제보다도 더 크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차 7대를 내보냈으니 여태 어느 개인도 낸 적 없는 수였고, 1등을 차지했으며 2등과 4등도 했고, 그 밖의 모든 것도 제 승리에 걸맞은 격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관습은 그런 과시를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그런 일을 벌이고 나면 힘이 있다는 인상이 남기 마련입니다. 또 제가 이 나라 안에서 합창대를 대거나 그 밖의 일로 보인 화려함은 같은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시샘을 사지만, 바깥 사람들의 눈에는 앞엣것과 마찬가지로 힘의 기색으로 비칩니다. 제 돈을 들여 저 자신만이 아니라 제 도시까지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쓸데없는 어리석음이 아니며, 제 자리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남들과 똑같이 취급받기를 마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한 일도 아닙니다. 형편이 나쁜 사람은 제 불운을 온전히 혼자 짊어지는 법이고, 역경에 처한 이에게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듯이 같은 이치로 사람은 번영이 부리는 오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먼저 모두를 똑같이 대접한 다음에 자기도 그렇게 대접받기를 요구할 일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무엇으로든 두드러진 자리에 오른 모든 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웃들 사이에서 특히 제 또래들 사이에서 미움을 살지라도, 뒷사람들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더라도 그들과 이어졌다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남기며, 그들이 속했던 나라에서 낯선 자나 악한 자가 아니라 동포이자 영웅으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이러하며, 사사로운 자리에서 그 때문에 아무리 헐뜯긴다 한들 물음은 하나입니다. 나라의 일을 저보다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펠로폰네소스에서 가장 힘센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에게 큰 위험도 큰 비용도 지우지 않고 스파르타인이 만티네이아에서 하루의 승패에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도 그 뒤로 자신감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 젊음과 이른바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은 펠로폰네소스인의 힘을 다루기에 알맞은 말을 찾아냈고 그 열의로 그들의 믿음을 얻어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제 젊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아직 그 한창때에 있고 니키아스에게는 운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동안 우리 두 사람의 쓰임을 끝까지 누리십시오. 또 큰 세력을 치러 가는 것이라 하여 시칠리아로 떠나기로 한 결의를 거두지도 마십시오. 시칠리아의 도시들에는 잡다한 무리가 뒤섞여 살고 있어 시민이 쉽게 바뀌고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없어 제 몸을 지킬 무기도 갖추지 않았고 땅에 단단히 뿌리내리지도 않았으며, 저마다 듣기 좋은 말로든 파당 싸움으로든 나라의 돈에서 무엇인가 얻어 낼 수 있다고 여기고 일이 그르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고 여기며 그에 맞추어 채비를 해 둡니다. 이런 무리에게서 의논의 한마음이나 행동의 발맞춤을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제안을 받으면 하나씩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이며, 들리는 말대로 그들이 내분에 찢겨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더구나 시칠리아 그리스인에게는 그들이 뽐내는 만큼 중장보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인 전체가 저마다 제 나라를 헤아려 잡던 수만큼 많지 않았던 것과 같아서, 그리스는 제 수를 크게 부풀려 잡았고 이 전쟁 내내

넉넉한 중장보병을 가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들은 모든 것으로 보아 시칠리아의 나라들은 제가 말한 대로일 것이며, 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점을 다 들지도 않았습니다. 시라쿠사인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우리와 함께 그들을 치러 나설 이민족이 많아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바르게 헤아리신다면 본국 쪽의 세력들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면 뒤에 남겨 두게 된다는 바로 그 적들에다 메디아인까지 적으로 두고도 오직 바다에서 앞섰다는 것 하나에 기대어 제국을 얻어 냈습니다. 펠로폰네소스인이 우리를 상대로 품은 희망이 지금처럼 적었던 적은 없으며, 그들이 아무리 자신만만하다 한들, 또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 땅에 쳐들어올 만큼은 강하다 한들, 우리가 그들과 맞설 만한 함대를 뒤에 남겨 두는 한 그들의 함대로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형편이 이러한데 우리가 물러서 있을 무슨 까닭을 스스로에게 댈 수 있으며, 시칠리아의 동맹들에게 돕지 않는 무슨 핑계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맹약을 맺은 이들이니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는 말로 발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동맹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그리스에서 우리를 돕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칠리아에서 우리 적들을 괴롭혀 그 적들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제국은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랬고 제국을 가졌던 다른 모든 이도 그랬듯이, 이민족이든 그리스인이든 도움을 청하는 이라면 누구든 늘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가만히 있거나 도울 상대를 가려 고른다면 우리는 새로 얻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고 이미 얻은 것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보다 강한 자의 공격을 막아 내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 공격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려고 먼저 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제국이 어디서 멈출지 그 지점을 정해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지키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넓힐 길을 꾀해야 하는 자리에 이르렀으니, 남을 다스리기를 그만두면 우리 자신이 다스림을 받을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것을 남들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버릇을 그들의 것처럼 바꿀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벌이는 이 모험이 안에서 우리 힘을 키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원정에 나섭시다. 그리하여 시칠리아로 배를 띄워 지금 누리는 화약을 우리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그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펠로폰네소스인의 자존심을 꺾읍시다. 아울러 우리는 시칠리아의 그리스인이 우리 편에 붙음으로써 십중팔구 그리스 전체의 주인이 되거나, 적어도 시라쿠사인을 무너뜨려 우리와 우리 동맹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되면 머무르고 그러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우리 함대가 지켜 줄 것이니, 시칠리아 그리스인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바다에서 우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키아스가 내세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책에도, 그가 젊은 사람을 나이 든 사람과 갈라 세우는 데에도 뜻을 꺾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늙은이와 젊은이가 함께 의논을 모아 우리 일을 지금의 높이까지 끌어올린 그 좋은 옛 방식대로 그것을 더 밀고 나가도록 애쓰십시오. 젊음도 늙음도 서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가벼움과 신중함과 깊이 헤아리는 판단은 하나로 묶일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도시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로 가라앉으면 스스로 닳아 없어지고 온갖 일에 대한 솜씨도 무디어지는 반면 싸움을 새로 치를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얻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 몸을 지키는 데 더 익숙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제 믿음은 이러합니다. 본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도시가 갑자기 그런 방책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빨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은 없으며,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법도는 좋든 나쁘든 제 기질과 제 제도를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인은 그의 말과, 앞으로 나와 맹세를 일깨우며 도움을 간청한 에게스타인과 레온티노이에서 쫓겨난 자들 얼마의 말을 듣고 전보다 더 원정을 바라게 되었다. 니키아스는 이제 전과 같은 논리로는 그들을 말려 보아야 소용이 없음을 알아차렸으나 군비를 엄청나게 잡아 보이면 그 결의를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두 번째로 앞에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이 이 원정에 단단히 마음을 굳히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빌며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모든 것으로 보아 우리가 치러 가는 도시들은 크고, 서로에게 매여 있지도 않으며, 억지로 진 종살이에서 더 나은 처지로 옮겨 가기를 반길 만큼 변화를 바라지도 않고, 자유를 내주고 우리의 지배를 받아들일 낌새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인의 도시만 치더라도 섬 하나에 있기에는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레온티노이와 이어져 있어 우리 편에 서리라 보는 낙소스와 카타나 말고도 우리 나라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무장을 갖춘 도시가 일곱이 더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셀리누스와 시라쿠사가 이번 원정의 주된 목표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중장보병과 궁수와 투창병이 가득하고 삼단노선이 넉넉하며 그 배를 채울 사람도 많습니다. 돈도 있어 얼마는 개인의 손에 있고 얼마는 셀리누스의 신전에 있으며, 시라쿠사에는 이민족 일부가 바친 첫 수확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가장 큰 점은 말의 수가 많다는 것과, 곡식을 들여오지 않고 제 땅에서 길러 낸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세력을 상대로는 약한 함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품은 뜻에 걸맞은 일을 하려면 또 많은 기병에게 막혀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일이 없으려면 큰 육군도 함께 배에 태워 가야 합니다. 더구나 그 도시들이 놀라 서로 뭉치고 에게스타인 말고는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기병을 대 줄 벗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 깊이 헤아리지 못한 탓에 떠밀려 물러나거나 본국에 증원을 청해야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한 군세를 갖추어 이 땅을 떠나야 하니, 우리는 조국에서 멀리 배를 타고 가는 것이며 이 원정은 여러분이 이곳 그리스에서 여러분에게 예속된 나라들 사이에 동맹의 자격으로 나섰던 어떤 원정과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더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우호적인 땅에서 쉽게 끌어올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그 줄을 끊고 아주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며 그 땅에서는 겨울 넉 달 동안 전령 하나가 아테네에 닿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중장보병을 많이 데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테네에서도 동맹에게서도 데려가되 우리에게 예속된 나라들에서만이 아니라 펠로폰네소스에서 우정으로든 돈으로든 얻을 수 있는 자들까지 데려가야 하고, 시칠리아의 기병에 맞서려면 궁수와 투석병도 많이 데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바다에서는 압도하는 우세를 지녀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쉽게 실어 들일 수 있습니다. 또 곡식은 우리 것을 상선에 실어 가야 하니 곧 밀과 볶은 보리이며, 방앗간에서 빵 굽는 자들을 알맞은 비율로 징발해 삯을 주고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씨에 발이 묶여도 군대가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을 터인데, 우리만 한 수를 받아 먹일 수 있는 도시가 어디에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손으로 갖추어 남에게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본국에서 돈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에게스타에 마련되어 있다는 그 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어디보다 말 속에 넉넉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가 싸움터에 세울 중장보병의 수만 빼고 적과 맞먹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적보다 나은 군세를 갖추어 아테네를 떠난다 하더라도, 시칠리아를 정복하기도 우리 몸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자들과 적들 한가운데에 도시 하나를 세우러 가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숨겨서는 안 되며,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은 상륙하는 첫날에 그 땅의 주인이 되거나 그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제게 적대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고, 우리에게 좋은 의논이 많이 필요하며 좋은 운은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을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라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배를 띄우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운에 매이지 않도록 해 두고 싶고, 막상 떠날 때에는 강한 군세가 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라 전체로 보아 가장 미더운 길이고 원정에 나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달리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제 지휘권을 그에게 넘기겠습니다.

니키아스는 이렇게 말을 맺었는데, 일의 규모로 아테네인의 마음을 질리게 하거나 그러지 못해 원정에 나서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전하게 떠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인은 준비의 짐스러움 때문에 원정에 대한 마음이 식기는커녕 어느 때보다 더 그것을 바라게 되었고, 니키아스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 그가 좋은 조언을 했으며 이제야말로 안전이 넉넉히 보장되리라는 의견이 퍼졌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 나이 든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서 칠 곳들을 굴복시키거나

적어도 그만한 군세라면 큰 낭패는 보지 않으리라 여겼고, 한창때의 사람들은 낯선 곳의 볼거리와 구경거리를 그리워하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보통 사람들과 병사들의 생각은 당장 삯을 벌고 앞으로 끝없이 급료가 나올 재원이 되어 줄 땅을 정복하자는 것이었다. 다수가 이렇게 들뜬 터라 그것이 내키지 않는 몇 사람은 반대편에 손을 들었다가 나라를 아끼지 않는 자로 보일까 두려워 잠자코 있었다.

마침내 아테네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니키아스를 불러 세우고, 변명하거나 미루지 말고 아테네인이 표결로 그에게 주어야 할 군세가 얼마인지 모두 앞에서 당장 말하라고 했다. 이에 그는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그 문제는 동료들과 좀 더 여유 있게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보기에는 적어도 삼단노선 100척을 갖추어 떠나야 하고, 수송선은 아테네인이 정하는 만큼 대고 모자라는 것은 동맹에게 청해 얻어야 하며, 아테네인과 동맹을 합해 중장보병이 모두 5,000명을 밑돌아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아야 하며, 나머지 군비도 그에 걸맞은 규모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국과 크레타에서 오는 궁수와 투석병, 그 밖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든 지휘관들이 갖추어 데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아테네인은 곧바로 군대의 규모와 원정 전반에 관한 일을 지휘관들이 아테네의 이익에 가장 낫다고 판단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전권을 주기로 표결했다. 그 뒤로 준비가 시작되어 동맹들에게 전갈이 갔고 본국에서는 명부가 작성되었다. 도시는 역병과 긴 전쟁에서 막 회복한 참이었고 젊은이가 여럿 자라났으며 휴전 덕분에 재물이 쌓여 있었으므로 모든 것이 그만큼 쉽게 갖추어졌다.

이런 준비가 한창일 때 아테네 시내에 있던 돌로 된 헤르메스상[6]이, 곧 개인의 집과 신전의 문간에 그토록 흔히 서 있던 그 네모난 기둥꼴

상들이 하룻밤 사이에 대부분 얼굴을 훼손당했다. 누가 한 짓인지 아무도 몰랐으므로 그 짓을 한 자들을 찾아내려고 나라에서 큰 상금을 걸었고, 나아가 신을 업신여기는 다른 짓이 저질러진 것을 아는 자가 있으면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노예든 뒤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서 알리라고 표결했다. 이 일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진 것은 그것이 원정에 흉한 조짐으로 여겨졌고 정변을 일으켜 민주정을 뒤엎으려는 음모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류민 몇과 하인 몇이 알려 온 것은 헤르메스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에 젊은 자들이 술김에 장난으로 다른 신상들을 훼손한 일과 개인의 집에서 치렀다는 비의[7] 흉내 내기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고발에 알키비아데스가 걸려들자, 그가 걸림돌이 되어 민중을 마음 놓고 이끌 자리를 얻지 못하던 자들, 그를 누구보다 견디지 못하며 그만 없어지면 으뜸가는 자리가 제 것이 되리라 여기던 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일을 부풀려 비의 사건과 헤르메스상 훼손이 민주정을 뒤엎으려는 계략과 한 덩어리이며 그 가운데 알키비아데스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고 소리 높여 떠들었고, 그 증거로 내세운 것은 그의 생활과 버릇에 두루 배어 있는 민주정답지 않은 방종이었다.

알키비아데스는 그 자리에서 이 고발을 물리쳤고, 이제 준비가 끝난 원정에 나서기에 앞서 자기에게 씌워진 짓을 저질렀는지 가려낼 수 있도록 재판을 받겠다고 나섰으니, 죄가 있다고 밝혀지면 벌을 받되 풀려나면 지휘권을 맡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자기가 없는 동안 자기를 헐뜯는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항의하며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죽이라고 청했고, 이토록 무거운 고발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채로 자기를 그만한 대군의 우두머리로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분별없는 일인지 짚었다. 그러나 그의 적들은 지금 곧 재판이

열리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설 것을 두려워했고,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 몇몇이 원정에 함께하게 된 것이 그의 덕이라 하여 이미 그를 떠받들던 민중이 그에게 너그러워질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안이 물리쳐지도록 온 힘을 다하며 다른 연설가들을 내세웠고, 그 연설가들은 그가 지금은 배를 타고 떠나 군대의 출발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돌아온 뒤 정해진 날수 안에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들의 속셈은 그가 없는 동안 더 쉽게 꾸며 낼 수 있는 더 무거운 죄목을 걸어 그를 불러들여 재판에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배를 타고 떠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뒤 시칠리아를 향한 출발이 이루어졌으니 때는 한여름 무렵이었다. 동맹의 대부분은 곡식을 싣는 수송선과 작은 배들과 나머지 원정 병력과 함께 코르키라에 모이라는 명을 이미 받아 두었고, 거기서 한 덩어리가 되어 이오니아해를 건너 이아피기아 곶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테네인 자신과 마침 그들과 함께 있던 동맹들은 정해진 날 동틀 녘에 피레우스로 내려가 바다로 나가려고 배에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도시의 온 사람이,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내려갔다고 해도 될 만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저마다 제게 딸린 이들, 곧 벗이나 친척이나 아들을 바래다주었는데, 가는 길에 희망과 탄식이 함께했으니 이루고자 하는 정복을 생각하기도 하고 제 나라를 떠나 오를 그 긴 항해를 헤아리며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를 벗들을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상 이제 막 서로 헤어지려는 이 순간에야 그 위험이 원정을 표결하던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다. 다만 군세의 강함과 어느 부문에서나 눈에 띄는 넉넉한 채비는 그들을 달래 주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외국인과 그 밖의 무리로 말하면, 그들은 그저 볼 만하고 믿기 어려운 구경거리를 보러 간 것이었다.

실로 이때 처음 떠난 이 군세는 그때까지 한 도시가 내보낸 그리스인의 군세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들고 가장 화려한 것이었다. 함선과 중장보병의 수만 따지면 페리클레스가 이끌고 에피다우로스로 갔던 군세, 그리고 하그논이 이끌고 포티다이아로 갔던 같은 군세도 그에 못지않았으니, 아테네 중장보병 4,000명과 기병 300명과 삼단노선 100척으로 이루어지고 레스보스와 키오스의 함선 50척과 그 밖에 많은 동맹이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 군세는 짧은 항해에 오른 것이었고 채비도 변변치 않았다. 이번 원정은 뭍에서나 바다에서나 오래 복무할 것을 내다보고 꾸려졌으며 필요에 따라 어느 쪽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함선과 병력을 갖추었다. 함대는 함장들과 나라에 큰 비용을 지워 가며 공들여 갖추어졌으니, 국고는 뱃사람 한 사람마다 하루에 1드라크메[8]를 주고 빈 배로 군선 60척과 수송선 40척을 대었으며 구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사람들로 그 배를 채웠다. 한편 함장들은 국고에서 나오는 급료에 더해 트라니타이[9]와 보조 승무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주었고 뱃머리 장식과 장비에도 아낌없이 돈을 썼으며, 하나같이 제 배가 아름다움과 빠르기에서 남보다 낫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 한편 육군은 가장 나은 명부에서 뽑혔고 무기와 몸에 갖추는 장구에 크게 마음을 쓰며 서로 앞을 다투었다. 이로부터 저마다 맡은 부문에서 서로 겨루는 일이 생겨났을 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인 사이에서는 이것이 적을 치려는 군세라기보다 힘과 재력을 내보이는 과시라는 생각이 퍼졌다. 누군가 나라가 쓴 공공의 비용과 개인이 쓴 사사로운 비용을, 곧 나라가 이미 이 원정에 쓴 돈과 지휘관들의 손에 들려 보내는 돈, 개인이 제 채비에 쓴 돈이나 삼단노선 함장으로서 제 배에 이미 들였고 앞으로 더 들일 돈을 헤아려 보고, 거기에다 그만큼 긴 항해를 위해 국고에서 나오는 급료와는 따로 저마다 마련했을 노자와 병사나 장사꾼이 물건을 바꾸려고 지니고 간 것까지 더해 보았다면, 모두 합해 여러 탈란톤이

도시 밖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실로 이 원정이 이름을 얻은 것은 그것이 겨냥한 종족들에 견주어 압도하는 힘을 지녔다는 것과 여태껏 본국에서 떠난 항해 가운데 가장 멀었다는 것과 그 일을 벌인 자들의 재력에 견주어 목표가 가장 컸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대담함과 겉모습의 화려함 때문이기도 했다.

이제 배마다 사람이 차고 싣고 갈 것을 모두 실은 뒤 나팔이 울려 조용히 하라 명했고, 바다로 나가기 전에 늘 올리는 기도를 배마다 따로 올리는 대신 전령의 목소리에 맞추어 모두가 함께 올렸다. 군세 전체에 걸쳐 포도주를 섞은 동이가 마련되었고 해병들과 지휘관들은 금잔과 은잔으로 헌주했다. 그 기도에는 물가에 모인 무리, 곧 시민들과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도 함께했다. 찬가를 부르고 헌주를 마친 뒤 그들은 바다로 나아가 처음에는 한 줄로 늘어서 나가다가 아이기나까지는 서로 앞을 다투어 달렸고, 그렇게 서둘러 코르키라로 향했으니 거기에는 나머지 동맹군도 모이고 있었다.

---

1.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의 좁은 해협을 가리킨다.

2. 아폴론 아르케게테스 — '길을 열어 준 아폴론'이라는 뜻. 이주민을 이끌어 새 도시를 세우게 하는 신으로 섬겼으므로, 시칠리아의 그리스인은 본토의 경기에 사절을 보낼 때 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다.

3. 헤라클레이다이 — 헤라클레스의 후손을 이르는 말. 도리스계의 여러 왕가와 귀족 가문이 스스로 그 후손이라 일컬었고 스파르타 왕가도 그러했다.

4.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5. 프리타니스 — 아테네 평의회에서 당번을 맡아 민회를 열고 의사를 진행하던 의장. 이미 표결이 끝난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은 법에 어긋날 수 있었으므로, 니키아스는 그 위험을 무릅써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6. 헤르메스상 — 네모난 돌기둥 위에 헤르메스의 머리를 얹어 새긴 상. 아테네에서는 집과 신전의 문간, 길목, 광장에 세워 두고 길과 문을 지키는 신으로 섬겼다. 기원전 415년에 일어난 이 훼손 사건이 이 장의 부제에 적힌 '헤르메스상 훼손 사건'이다.

7. 비의 — 엘레우시스에서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를 기려 치르던 비밀 입문 의식. 그 내용을 발설하거나 흉내 내는 것은 신을 업신여기는 무거운 죄였다.

8. 드라크메 — 그리스의 은화 단위.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대략 1드라크메였다고 전한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9. 트라니타이 — 삼단으로 노를 젓는 군선에서 맨 윗단의 노를 젓던 노잡이. 노가 길고 힘이 많이 들어 가장 숙련된 자들이 맡았고 삯도 더 받았다.

19장 (제VI권 제XIX장) — 전쟁 제17년 — 시라쿠사의 당파 —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 이야기 — 알키비아데스의 실각

그동안 시라쿠사에는 원정에 관한 소식이 사방에서 들어왔으나 오랫동안 조금도 믿음을 얻지 못했다. 실제로 민회가 열렸고, 아래에 보이는 대로 여러 연설자가 나와 아테네 원정에 관한 보고를 믿거나 반박하는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헤르몬의 아들 헤르모크라테스가 이 일의 진상을 자기가 안다고 확신하고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제가 이 원정이 실재한다는 것을 두고 말한다 해도 앞서 말한 다른 이들보다 더 믿음을 얻지는 못할 것이고, 믿을 만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말을 처음 꺼내거나 옮기는 자가 아무도 돌려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수고의 대가로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라가 위태롭고 이 일을 두고 제가 다른 누구보다 근거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마당에 겁을 먹고 입을 다물지는 결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워하셔도, 아테네인은 바다와 뭍의 큰 병력을 이끌고 우리를 치러 나섰으며,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에게스타인을 돕고 레온티노이를 되세운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시칠리아를, 무엇보다 우리 도시를 정복하려는 것이니, 우리 도시만 손에 넣으면 나머지는 쉽게 따라오리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머지않아 이곳에 나타나리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손안에 있는 수단으로 그들을 어떻게 가장 잘 물리칠 수 있을지 살피십시오. 소식을 업신여겨 방심하거나 믿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편 제 말을 믿는 분들은 적의 병력이나 대담함에 낙담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입히는 해가 우리가 그들에게 입히는 해보다 클 수 없으며, 그들의 군세가 크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로운 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칠리아의 나머지 그리스인을 생각하면 군세가 클수록 좋으니, 두려움이 그들을 더 기꺼이 우리 편에 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기거나 그들이 품은 야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쫓아 보낸다면(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으리라고는 저는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영광스러운 위업이 될 것이며, 제 판단으로는 결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도 아닙니다. 실로 그리스의 것이든 이민족의 것이든, 제 나라에서 멀리 나아가 성공을 거둔 큰 군세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주민과 그 이웃들보다 수가 많을 수는 없으니, 두려움이 이들 모두를 한데 묶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남의 땅에서 보급이 모자라 일을 그르친다면, 그들이 겪는 곤경의 주된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의 표적이 되었던 쪽에는 그에 못지않은 명성이 남습니다. 바로 그 아테네인이 메디아인의 패배로 일어선 것이 그러했으니, 그 패배는 대체로 우연한 원인들에서 비롯했고 아테네가 그 공격의 표적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명성이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자신 있게 준비를 시작합시다. 시켈인 가운데 일부에게는 사람을 보내어 마음을 굳히게 하고 다른 일부와는 우의와 동맹을 맺으며, 시칠리아의 나머지에는 사절을 보내어 이 위험이 모두에게 공동의 것임을 보이고, 이탈리아에도 사절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 동맹으로 삼거나 적어도 아테네인을 받아들이지 않게 합시다. 저는 카르타고에도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곳 사람들도 결코 마음을 놓고 있지 않으니, 아테네인이 언젠가 제 도시를 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시칠리아가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면 저희도 해를 입으리라고 여겨, 드러내 놓고는 아니더라도 은밀히,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우리를 돕고자 할지 모릅니다. 그럴 뜻만 있다면 오늘날 그 일을 해낼 힘이 가장 큰 것이 그들이니, 금과 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전쟁도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그 힘으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와 코린트에도 사람을 보내어 되도록 빨리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또 그리스에서 전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청합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무엇보다 참으로 해야 할 일은, 타고난 조용함을 사랑하는 여러분으로서는 좀처럼 알아보지 못할 것이면서도 제가 기어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칠리아 그리스인이 모두 함께, 적어도 우리 말고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가 함께, 지금 가진 함대 전부를 두 달치 양식과 함께 물에 내려 타렌툼과 이아피기아곶에서 아테네인을 맞이하고, 시칠리아를 두고 싸우기 전에 먼저 이오니아해를 건널 길을 두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군대에 두려움을 심어 놓고 우리에게는 방어의 근거지가 있다는 생각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 줄 것이며(타렌툼이 우리를 맞아들일 채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온 군세를 이끌고 넓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그토록 긴 항해 내내 대열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고 느리게 몇 척씩 나뉘어 다가오는 동안 우리가 치기에 쉬운 상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빠른 배들을 모아 그것으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그들이 노를 저어 지쳤을 때 덮치거나,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타렌툼으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해전만 치를 생각으로 얼마 안 되는 양식을

싣고 건너온 터라 황량한 곳에서 궁지에 몰려, 그대로 머물러 봉쇄를 당하든지 나머지 군세를 버리고 해안을 따라 항해해 보든지 해야 할 것이며, 도시들이 자기들을 받아 줄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탓에 더욱 기가 꺾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한 가지 고려만으로도 그들이 코르키라에서 배를 내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의논하고 우리의 수와 소재를 정찰하는 사이에 그들은 겨울이 닥칠 때까지 철을 흘려보내거나, 그토록 뜻밖의 사정에 당황해 원정을 걷어치울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듣기로 그들의 가장 노련한 장군이 제 뜻에 거스르며 지휘를 맡았으니, 우리 쪽에서 본때 있게 움직여 구실을 하나라도 내어 주면 그는 그것을 덥석 붙잡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가 실제보다 많다고 전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며, 사람의 마음은 제가 듣는 것에 움직이는 법입니다. 게다가 먼저 치는 쪽, 또는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를 지킬 뜻이 있음을 보이는 쪽이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니, 그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가 되어 있음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테네인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맞서지 않으리라 믿고 우리를 치고 있으며, 우리가 스파르타인과 함께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 본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비하지 못한 용기를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우리의 실제 힘보다 그 뜻밖의 일에 더 크게 낙담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해 이 용기를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전쟁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에 한순간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치러 오는 자를 업신여기는 마음은 싸움에 나서는 용맹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두려움이 시키는 준비를 가장 확실한 안전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위험이 실재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아테네인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는 것, 이미 바다에 나섰다는 것, 여기에 거의 다 와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헤르모크라테스는 여기까지 말했다. 한편 시라쿠사 사람들은 저희끼리 크게 다투고 있었으니, 어떤 이들은 아테네인이 올 생각이 전혀 없고 그의 말에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설령 그들이 온다 한들 더 크게 되갚음 받지 않을 해를 무슨 수로 입히겠느냐고 물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일 전체를 가볍게 여겨 웃음거리로 삼았다. 요컨대 헤르모크라테스를 믿고 앞날을 두려워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그때 민중의 지도자이자 그 무렵 대중에게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테나고라스가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테네인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남들이 짐작하는 만큼 판단을 그르쳐 이곳에 와서 우리의 신민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는 겁쟁이이거나 제 나라를 파는 자입니다. 한편 그런 소식을 실어 나르며 여러분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자들로 말하면, 우리가 저희 속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다면 나는 그 뻔뻔함보다 그 어리석음에 더 놀랄 것입니다. 사실인즉 그들에게는 두려워할 사사로운 까닭이 있고, 도시를 경악에 빠뜨려 제 공포를 공공의 불안 뒤에 감추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소문들의 값어치가 그 정도입니다. 그것들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시칠리아에서 늘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꾸며 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조언을 받는다면, 무엇이 있을 법한지 헤아릴 때 이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빈틈없고 경험 많은 사람이, 내가 아테네인을 그런 사람으로 보거니와, 함직한 일을 길잡이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펠로폰네소스인을 등 뒤에 남겨 둔 채, 그리스에서 벌이던 전쟁을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시칠리아에서 그에 못지않게 고된 새 전쟁을 일부러 찾아 나선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실로 내 판단으로는, 이토록 수가 많고 이토록 큰

도시를 가진 우리가 가서 저희를 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더없이 다행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대로 그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시칠리아가 모든 점에서 더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펠로폰네소스보다 이 전쟁을 감당할 힘이 크다고 보며, 우리 도시 하나만으로도 침입군이라 하는 이 병력이, 설령 지금의 두 배가 된다 해도, 맞설 상대가 못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들이 말을 데려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에게스타인에게서 얼마쯤 얻을지 모르는 것 말고는 이곳에서도 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또 우리와 수가 맞먹는 중장보병 병력을 배에 싣고 오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가볍게 실었다 해도 그 배들이 이 먼 길을 오는 것만으로 벅찰 터이고, 이만한 크기의 도시를 치는 데 드는 다른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양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한 내 생각이 어찌나 굳은지, 그들이 시라쿠사만 한 도시를 통째로 끌고 와 우리 국경에 자리 잡고 거기서 전쟁을 벌인다 해도 어떻게 몰살을 면할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시칠리아 전체가, 실제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들에게 적대하는 마당에 배에서 내려 천막과 최소한의 살림만으로 친 진영 하나를 가지고, 그나마 우리 기병이 두려워 거기서 멀리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성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들이 이 땅을 장악하지도 못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비가 그만큼 훨씬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인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이것을 보고 있으며, 내가 알 만한 근거가 있거니와 제 나라의 소유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의 어떤 자들은 사실도 아니고 앞으로도 결코 사실이 되지 않을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행동으로 나설 수 없을 때 이런 이야기로, 또 이보다 더 고약한 이야기로 여러분 민중을 겁주어

정권을 제 손에 넣으려 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 나는 늘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토록 자주 꾀하다가 언젠가 성공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않는 동안에는 그것을 미리 막는 일에도, 범인이 드러난 뒤에 뒤쫓는 일에도 너무 무력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탓에 우리 도시는 좀처럼 편안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분란에 시달리며, 적을 상대로 하는 싸움만큼이나 제 몸을 상대로 하는 싸움을 자주 겪으니, 이따금 들어서는 참주정과 더러운 음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받쳐 준다면 나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다수인 여러분을 내 편으로 얻고, 그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벌함으로써 그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만이 아니라(그것은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할 힘은 없으되 하려는 뜻을 품은 것만으로도 벌하겠습니다. 적을 벌할 때는 그가 한 일만이 아니라 그가 하려는 일을 두고 미리 벌해야 하는 법이니, 먼저 경계를 늦춘 자가 먼저 화를 입지 않으려면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소수의 무리를 꾸짖고 지켜보며 때로는 경고할 것이니, 내 생각에는 그것이 그들을 나쁜 길에서 돌려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물었듯이, 젊은이들이여, 도대체 무엇을 바라십니까? 당장 관직을 쥐고 싶습니까? 법이 그것을 금합니다. 그 법은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었을 때 여러분을 욕보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직 자격이 없기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수와 법 앞에 나란히 서기는 싫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같은 나라의 시민이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민주정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재산을 가진 자가 다스리기에도 가장 알맞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첫째, 데모스[1] 곧 민중이라는 말은 나라 전체를 아우르지만

과두정은 그 한 부분만을 가리킵니다. 둘째, 재산을 가장 잘 지키는 자가 부자이고 가장 잘 조언하는 자가 지혜로운 이라 하더라도, 듣고 판단하는 일에서는 다수만 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능은 저마다 따로도 다 함께도 민주정 안에서 제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과두정은 다수에게 위험의 몫은 나누어 주면서, 가장 큰 몫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익은 통째로 가져가 제 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 있고 젊은 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만, 큰 도시에서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어리석은 자들이여, 여러분이 제 계획의 악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아는 그리스인 가운데 가장 분별없는 자들이요 그것을 깨닫고도 감히 밀고 나간다면 가장 죄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깨닫거나 뉘우쳐서 나라의 이익을,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키우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번영하면 여러분 가운데 뛰어난 이들도 몫을 얻되 동포 대중보다 더 큰 몫을 얻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다른 것을 꾀한다면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문은 그만두십시오. 민중은 여러분의 목적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참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테네인이 온다면 이 도시는 제 이름에 걸맞게 그들을 물리칠 것이며,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 일을 맡아볼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쪽으로 기울듯이 이 가운데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도시는 여러분이 가져오는 소식에 공황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치자로 골라 스스로 택한 예속을 제게 씌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시가 스스로 이 일을 살펴 여러분의 말을 행동인 양 판단할 것이며,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제 자유를 빼앗기는 대신, 실제로 경계하며 여러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음으로써 그 자유를 지키려 힘쓸 것입니다.

아테나고라스의 말은 이러했다. 이제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다른 연설자가 더 나오는 것을 막고, 눈앞의 문제를 두고 제 말을 이렇게 덧붙였다. "연설하는 이들이 서로 헐뜯는 말을 내놓는 것도, 듣는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받은 소식을 살피고, 저마다 제 힘으로 또 도시 전체가 침입자를 물리칠 채비를 어떻게 가장 잘 갖출 수 있을지 보아야 합니다. 설령 그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나라가 말과 무기와 그 밖의 온갖 전쟁 장비를 갖추어 두어서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맡아 살피고 명령하겠으며, 여러 도시에 사람을 보내어 정찰하게 하고 그 밖에 바람직해 보이는 일도 모두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는 이미 살펴 두었고, 무엇을 알아내든 여러분 앞에 내놓겠습니다." 장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뒤 시라쿠사인들은 민회에서 흩어졌다.

그동안 아테네인들은 모든 동맹과 함께 코르키라에 이르러 있었다. 이곳에서 장군들은 먼저 군세를 다시 사열하고 어떤 차례로 닻을 내리고 진을 칠지 정했으며, 함대 전체를 세 부대로 나누어 제비를 뽑아 저마다 하나씩 맡았으니, 한꺼번에 항해하다가 들르는 곳마다 물과 정박지와 양식에 쪼들리는 일을 피하고 아울러 부대마다 제 지휘관을 두어 전체가 더 질서 있고 다루기 쉽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함선 3척을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로 먼저 보내어 어느 도시가 자기들을 받아들일지 알아보게 하면서, 도중에 자기들을 맞아 뭍에 닿기 전에 알려 주라고 일렀다.

그 뒤 아테네인들은 코르키라에서 닻을 올리고 시칠리아로 건너가기 시작했으니, 이때 군세는 삼단노선 모두 134척(그 밖에 로도스의 오십노선 2척이 있었다)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 100척이 아테네 배로 군선 60척과 병력 수송선 40척이었으며 나머지는 키오스와 다른 동맹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중장보병은 모두 5,100명이었으니, 곧

아테네의 명부에 오른 아테네 시민 1,500명과 해병으로 배에 태운 테테스[2] 7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동맹군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아테네에 복속한 자들이었으며, 이들 말고도 아르고스인 500명과, 만티네이아인과 용병을 합쳐 250명이 있었다. 궁수는 모두 480명이었고 그 가운데 80명이 크레타인이었으며, 로도스에서 온 투석병 700명과 메가라에서 온 경무장 망명자 120명, 그리고 기병 30명을 실은 말 수송선 1척이 있었다.

전쟁을 위해 바다를 건넌 첫 군세의 힘이 이러했다. 이 병력의 보급은 곡식을 실은 화물선 30척이 맡았는데, 이 배들은 빵 굽는 이와 석공과 목수, 그리고 요새를 쌓는 데 쓸 연장을 함께 실어 날랐고, 징발되어 화물선과 함께 간 작은 배 100척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장사를 하려고 제 발로 군세를 따라온 작은 배와 화물선이 많았다. 이 모두가 이제 코르키라를 떠나 다 함께 이오니아해를 가로질렀다. 온 병력은 저마다 운이 좋기도 하고 덜 좋기도 한 채로 이아피기아곶과 타렌툼에 닿은 뒤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 나아갔는데, 도시들은 시장과 성문을 닫아걸고 물과 닻을 내릴 자유 말고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으며 타렌툼과 로크리는 그것마저 내주지 않았으니, 그렇게 그들은 이탈리아의 끝인 레기온에 이르렀다. 마침내 이곳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로 모였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자 도시 바깥 아르테미스 신역에 진을 쳤으며 그곳에는 시장도 열어 주었으므로 배를 뭍으로 끌어 올리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레기온인과 교섭을 열어, 같은 칼키스인으로서 레온티노이의 겨레붙이를 도우라고 청했다. 레기온인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이탈리아의 나머지 그리스인이 내리는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아테네인들은 시칠리아의 일에서 어떤 행동이 가장 나을지 헤아리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에 먼저 보낸 배들이 에게스타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니,

아테네에 온 사자들이 말한 돈이 정말로 그곳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시라쿠사인들에게는 사방에서, 또 정찰하러 보낸 제 정찰꾼들에게서 함대가 레기온에 있다는 확실한 소식이 들어왔다. 그러자 그들은 믿지 않던 마음을 버리고 온 힘을 다해 준비에 들어갔다. 시켈인에게는 경우에 따라 수비대나 사절을 두루 보냈고, 시골에 있는 페리폴로이[3]의 초소에는 수비대를 넣었으며, 도시에서는 말과 무기를 사열해 모자란 것이 없는지 살폈고, 곧 닥칠, 아니 이미 눈앞에 와 있는 전쟁에 대비해 그 밖의 온갖 조치도 취했다.

그러는 동안 먼저 보냈던 배 3척이 에게스타에서 레기온의 아테네인들에게 돌아와, 약속한 액수는커녕 내놓을 수 있는 것이 30탈란톤[4]뿐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장군들은 시작부터 이렇게 기대가 어긋난 데다, 레온티노이와 겨레붙이인 데다 아테네와 늘 우의를 지켜 온 까닭에 가장 먼저 끌어들이려 했고 가장 믿을 만한 근거가 있던 레기온인이 원정에 함께하기를 거절한 일까지 겹쳐 적잖이 낙담했다. 니키아스는 에게스타에서 온 소식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도 그의 두 동료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에게스타인들은 아테네에서 온 첫 사절이 제 재력을 살피러 왔을 때 다음과 같은 술책을 썼다. 그들은 문제의 사절을 에릭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데려가 그곳에 바쳐 둔 보물을 보여 주었으니, 대접과 포도주 국자와 향로를 비롯해 수많은 그릇붙이였는데, 그것들이 은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 값어치에 견주어 터무니없이 큰 부의 인상을 주었다. 또한 그들은 배의 선원들을 따로 대접하면서, 에게스타 안에서 찾아낼 수 있거나 이웃한 페니키아와 그리스의 고을에서 빌릴 수 있는 금잔과 은잔을 죄다 그러모아 저마다 제 것인 양 잔치에 들고 나왔다. 모두가 거의 같은 잔을 돌려썼고 어느 자리에서나 그릇붙이가 잔뜩 나왔으므로 아테네

수병들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고, 아테네로 돌아가서는 제가 본 재물을 두고 큰소리로 떠벌렸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자들은 다시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했던 터라, 에게스타에 짐작하던 돈이 없다는 소식이 퍼지자 병사들에게 크게 비난받았다.

그러는 동안 장군들은 무엇을 할지 의논했다. 니키아스의 생각은 군세 전부를 이끌고 원정의 본래 목표인 셀리누스로 가서, 에게스타인이 전군에 쓸 돈을 댈 수 있으면 그에 맞추어 방책을 정하고, 댈 수 없으면 그들이 청했던 함선 60척에 쓸 양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다음, 그곳에 머물러 그들과 셀리누스인 사이의 일을 힘으로든 합의로든 매듭짓고, 그런 뒤에 다른 도시들을 해안을 따라 지나가며 아테네의 힘을 보이고 벗과 동맹을 위하는 열의를 증명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되 (레온티노이를 돕거나 다른 도시 몇을 끌어들일 갑작스럽고 뜻밖의 기회가 생긴다면 모르지만), 본국의 재원을 축내어 나라를 위태롭게 하지는 말자는 것이었다.

알키비아데스는, 지금과 같은 큰 원정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물러가 스스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셀리누스와 시라쿠사를 뺀 모든 도시에 전령을 보내야 하고, 시켈인 가운데 일부는 시라쿠사에서 떼어 내어 반란하게 하고 다른 일부와는 우의를 맺어 곡식과 병력을 얻도록 힘써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메시나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시칠리아로 드는 길목과 입구에 바로 자리 잡고 있어 군대에 더없이 좋은 항구와 근거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여러 고을을 끌어들이고 전쟁에서 누가 제 동맹이 될지 안 다음에야 마침내 시라쿠사와 셀리누스를 칠 수 있으며, 다만 셀리누스가 에게스타와 합의에 이르고 시라쿠사가 레온티노이를 되세우는 일에 반대하기를 그만둔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반면에 라마코스는 곧장 시라쿠사로 가서, 사람들이 아직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공황이 한창일 때 그 도시의 성벽 아래에서 당장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군세든 처음이 가장 무서운 법이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사람들의 용기가 되살아나 마침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거의 아무렇지 않아 한다는 것이었다. 시라쿠사가 아직 자기들이 온다는 것에 떨고 있는 동안 갑작스레 친다면, 지금보다 더 대단해 보일 때가 없을 제 수의 위세로, 닥쳐올 재앙을 미리 그려 보게 함으로써, 무엇보다 싸움이 눈앞에 닥쳤다는 위기로 스스로 승리를 거두고 적을 완전한 공황에 빠뜨릴 가장 좋은 기회를 얻으리라고 그는 보았다. 또 그들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성 밖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을 기습할 수 있을 것이며, 적이 제 재산을 안으로 들여 나르는 동안 군대가 싸움에서 이겨 도시 앞에 자리 잡는다면 노획물이 모자라지도 않으리라고 했다. 그리하면 시칠리아의 나머지 그리스인도 곧바로 시라쿠사와 동맹을 맺을 마음이 줄어들 것이고, 어느 쪽이 가장 강한지 지켜보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테네인 편에 설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메가라를 함대의 기지로 삼아 물러설 곳이자 치고 나갈 근거지로 삼아야 하니,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데다 뭍으로도 바다로도 시라쿠사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었다.

라마코스는 이런 뜻으로 말한 뒤에도 알키비아데스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 뒤 알키비아데스는 제 배를 타고 메시나로 건너가 동맹을 제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주민들은 성벽 밖에 시장을 열어 줄 수는 있어도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그는 레기온으로 되돌아갔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장군들은 함대 전체에서 60척을 골라 사람을 채우고 양식을 실은 뒤 해안을 따라 낙소스로 갔으며, 나머지 군세는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과 함께 레기온에 남겨 두었다. 낙소스인의 맞이를 받은 그들은 이어 해안을 따라 카타나로

갔는데, 그 고을에 시라쿠사 편을 드는 당파가 있어 주민들이 들이기를 거절하자 테리아스 강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이곳에서 한뎃잠을 자고 이튿날 배를 한 줄로 세워 시라쿠사로 갔으니, 앞서 보낸 10척만 빼고 모든 배가 함께였다. 그 10척은 큰 항구 안으로 들어가 물에 내린 함대가 있는지 살피고, 배 위에서 전령을 시켜 아테네인은 동맹이자 겨레붙이로서 레온티노이인을 제 나라에 되세우러 온 것이니 그들 가운데 시라쿠사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 제 벗이자 은인인 아테네인에게 오라고 알리게 했다. 이렇게 알린 뒤 도시와 항구들, 그리고 전쟁에서 작전의 근거지로 삼아야 할 그 땅의 생김새를 정찰하고 나서 그들은 카타나로 되돌아갔다.

이곳에서 민회가 열렸는데, 주민들은 군세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서도 장군들에게는 들어와 바라는 바를 말하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알키비아데스가 말하고 시민들이 민회에 마음을 쏟고 있는 동안, 병사들은 눈에 띄지 않게 허술하게 막아 둔 뒷문을 부수고 고을 안으로 들어가 장터로 몰려들었다. 고을 안의 시라쿠사 편 당파는 군대가 들어온 것을 보자마자 겁을 먹고 물러났으니 수가 도무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아테네인과 동맹을 맺기로 표결하고 레기온에 있는 나머지 병력을 데려오라고 청했다. 그 뒤 아테네인들은 레기온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군세 전부를 이끌고 카타나로 떠났으며, 닿자마자 진영을 꾸리는 일에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카마리나에서 그들에게 전갈이 왔으니, 그들이 그곳으로 가면 고을이 그들 편으로 넘어오리라는 것과 시라쿠사인이 함대에 사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아테네인들은 군세 전부를 이끌고 해안을 따라 먼저 시라쿠사로 갔으나 그곳에서 사람을 채우는 함대를 보지 못했고, 그대로 해안을 따라 카마리나까지 가서 바닷가에 배를 대고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서, 자기들이 더 청하지 않는 한 아테네인을 배 한 척으로만 맞이하도록 맹세에 매여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아테네인들은 다시 배를 돌렸고, 시라쿠사 땅에 올라 약탈하다가 시라쿠사 기병이 달려드는 바람에 경보병 가운데 낙오한 자 몇을 잃은 뒤 그렇게 카타나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알키비아데스를 데리러 아테네에서 온 살라미니아호[5]를 보았다. 그 배는 나라가 그에게 건 혐의에 답하러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가지고 왔으며, 그와 함께 비의[6]와 헤르메스상[7]을 두고 신성모독으로 고발된 다른 병사 몇에게도 같은 명령이 내려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원정이 떠난 뒤에도 비의와 헤르메스상에 관한 사실을 캐는 일에 여전히 열심이었으니, 밀고자를 따져 보는 대신 의심에 찬 마음으로 누구의 말이든 가리지 않고 반겼으며, 무뢰배의 증언을 근거로 가장 훌륭한 시민들을 붙잡아 가두었고, 밀고자가 무뢰한이라는 이유로 평판 좋은 피고인을 캐묻지 않고 지나가느니 차라리 이 일을 밑바닥까지 헤집기를 택했다. 민중은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그 아들들의 참주정이 끝나기 전에 얼마나 가혹해졌는지, 또 그것을 마침내 무너뜨린 것이 저희와 하르모디오스가 아니라 스파르타인이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늘 두려움에 싸여 무엇이든 의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실로 아리스토게이톤과 하르모디오스의 그 대담한 거사는 연애 사건에서 비롯한 것인데, 나는 이를 얼마간 자세히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들은 물론 아테네인 자신들도 제 참주들을 두고, 또 그때 일어난 일을 두고 정확한 말을 조금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 자리를 쥔 채 나이 들어 죽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은 세간에서 흔히 믿는 대로 히파르코스가 아니라 맏아들 히피아스였다. 그때 하르모디오스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한창이었고,

중간 형편의 시민인 아리스토게이톤이 그의 연인으로 그를 차지하고 있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파르코스가 구애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하르모디오스가 이를 아리스토게이톤에게 알렸고, 분노한 연인은 힘 있는 히파르코스가 하르모디오스를 강제로 빼앗을까 두려워 제 처지가 허락하는 만큼의 계획을 곧바로 세워 참주정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는 사이 히파르코스는 하르모디오스에게 두 번째로 구애했다가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힘을 쓰기는 꺼려, 그 일 때문인 줄 모르게 은밀한 방식으로 그를 모욕할 방도를 마련했다. 실로 그들의 통치는 대체로 백성에게 가혹하지 않았고 실제로 미움을 살 만한 데도 없었다. 이 참주들은 누구 못지않게 지혜와 덕을 닦았고, 아테네인에게서 수입의 20분의 1을 넘겨 거두지 않으면서도 도시를 훌륭하게 꾸미고 전쟁을 치렀으며 신전에 바칠 제물을 마련했다. 그 밖에는 도시가 기왕의 법을 온전히 누리도록 내버려 두었고, 다만 관직에는 늘 집안사람 누군가가 앉아 있도록 마음을 썼다. 아테네에서 해마다 뽑는 아르콘[8] 자리에 오른 집안사람 가운데에는 참주 히피아스의 아들이자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있었으니, 그는 재임하는 동안 장터에 열두 신의 제단을, 피티아 신역에 아폴론의 제단을 바쳤다. 아테네 백성은 뒷날 장터의 제단에 덧대어 길이를 늘이면서 그 새김글을 지웠으나, 피티아 신역의 것은 글자가 바랬을망정 지금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이러하다.

히피아스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제 아르콘 재임의 이 기록을 피티아 아폴론의 신역에 바쳐 올렸노라.

히피아스가 맏아들이었고 통치를 이어받았다는 것, 이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사실로 단언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적자인 형제들 가운데 자식을 둔 것으로 보이는 이는 그뿐이니, 그 제단이 이를 보여 주고

아크로폴리스에 세워 참주들의 죄를 기록한 기둥도 이를 보여 주는데, 그 기둥은 테살로스나 히파르코스의 자식은 하나도 적지 않으면서 히페레키데스의 아들 칼리아스의 딸 미리네에게서 얻은 히피아스의 자식 다섯을 적고 있다. 그리고 맏이가 먼저 혼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그 기둥에서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다음에 첫머리로 오는데, 그가 아버지 다음의 맏이이자 그때 다스리던 참주였으므로 이 또한 아주 자연스럽다. 또 나는 히파르코스가 살해될 때 권력을 쥐고 있었고 히피아스가 바로 그날 스스로 자리를 굳혀야 했다면 히피아스가 그토록 쉽게 참주 자리를 얻었으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래전부터 시민들을 위압하고 용병들에게 복종을 받는 데 익숙해 있었으므로, 권력을 부려 본 적 없는 아우가 겪었을 곤란은 조금도 겪지 않고 이겼을 뿐 아니라 손쉽게 이긴 것이다. 히파르코스를 이름나게 한 그 슬픈 운명이 후세에게서 그가 참주였다는 평판까지 그에게 안겨 주었다.

하르모디오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구애를 물리침당한 히파르코스는 마음먹은 대로 그를 모욕했으니, 먼저 그의 누이인 어린 소녀를 어느 행렬에 나와 바구니를 이고 가라고 부른 다음 그 아이가 자격이 없어 애초에 부른 적이 없다는 구실로 돌려보낸 것이다. 하르모디오스가 이 일에 분개했다면, 아리스토게이톤은 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격분했다. 그리하여 거사에 함께할 이들과 모든 것을 정해 둔 다음 두 사람은 파나테나이아[9] 대축제만을 기다렸으니, 행렬에 끼는 시민들이 의심을 사지 않고 무장한 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은 그날뿐이었다. 아리스토게이톤과 하르모디오스가 먼저 나서고 공모자들이 곧바로 호위대를 맡아 그들을 거들기로 했다. 음모에 든 이는 더 안전하도록 많지 않았고, 게다가 그들은 음모를 모르는 이들도 몇몇 대담한 이의 본보기에 휩쓸려 손에 쥔 무기로 제 자유를 되찾으리라고 기대했다.

마침내 축제 날이 왔고, 히피아스는 호위대와 함께 도시 바깥 케라메이코스에 나가 행렬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나아갈지 정하고 있었다.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은 이미 단검을 지니고 거사를 채비하고 있었는데, 공모자 가운데 하나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던 히피아스와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자기들이 발각되어 곧 붙잡히리라고 단정했다. 그리하여 될 수 있으면 자기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 그를 두고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쓴 바로 그자에게 먼저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그 차림 그대로 성문 안으로 달려 들어갔고, 레오코리온 곁에서 히파르코스와 마주치자 앞뒤 가리지 않고 단숨에 그에게 덤벼들었으니, 아리스토게이톤은 사랑에, 하르모디오스는 모욕에 미쳐 있었으며, 그들은 그를 쳐서 죽였다. 아리스토게이톤은 사람들이 몰려든 덕에 그 자리에서는 호위대를 벗어났으나 나중에 붙잡혀 험한 꼴을 당했고, 하르모디오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케라메이코스에 있던 히피아스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곧바로 사건이 일어난 곳이 아니라 행렬 안의 무장한 사람들에게로 갔으니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아직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였고, 제 속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 자리에 맞게 표정을 꾸미고는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무기를 두고 그리로 가라고 일렀다. 그들은 그가 할 말이 있는 줄로 여겨 그대로 물러났고, 그러자 그는 용병들에게 무기를 치우라고 이른 다음 그 자리에서 죄가 있다고 여긴 자들과 단검을 지닌 자를 모두 가려냈으니, 행렬에서 쓰는 무기는 으레 방패와 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상처 입은 사랑이 먼저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을 음모로 이끌었고, 그 순간의 놀람이 앞서 이야기한 무모한 거사로 그들을 몰아갔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참주정은 아테네인을 더 무겁게 짓눌렀고, 더욱 겁이 많아진 히피아스는 시민을

많이 죽이는 한편 정변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바깥에서 피신처를 찾으려고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아테네 사람이면서도 딸 아르케디케를 람프사코스 사람 아이안티데스에게, 곧 람프사코스 참주 히포클로스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그 집안이 다레이오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딸의 무덤은 람프사코스에 있고 거기에는 이런 새김글이 있다.

당대 그리스에서 으뜸가던 사람 히피아스의 딸 아르케디케를 이 흙이 덮고 있노라. 아비도 지아비도 오라비들도 아들들도 참주였으되 그 마음은 교만으로 치닫지 않았노라.

히피아스는 그 뒤로 3년을 더 아테네인 위에 군림하다가 4년째에 스파르타인과 추방당한 알크마이온 가문 사람들의 손에 쫓겨났고, 안전을 보장받아 시게이온으로, 다시 람프사코스의 아이안티데스에게로 갔으며, 거기서 다레이오스 왕에게로 갔다. 그는 20년 뒤 늙은 몸으로 그 궁정을 떠나 메디아인과 함께 마라톤에 왔다.

이런 일들을 마음에 두고 그 문제를 두고 들어서 아는 것을 모두 떠올리면서, 아테네 백성은 성미가 까다로워져 비의 사건으로 고발된 자들을 의심하게 되었고 일어난 일 전부가 과두정과 참주정을 노린 음모의 한 부분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긴 노여움 속에서 이미 이름 있는 사람이 여럿 옥에 갇혔고, 민심은 누그러질 낌새를 보이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사나워져 붙잡히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 그러다가 마침내 갇혀 있던 자 가운데 누구보다 죄가 크다고 여겨지던 한 사람이 같이 갇힌 자의 권유로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두고는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 그때도 그 뒤로도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그 다른 자는 이렇게 설득할 논거를 찾아냈다. 설령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 제 몸을 건지고 나라를

지금의 의심에서 풀어 주어야 하며,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백하는 편이 부인하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보다 안전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헤르메스상 사건에 자기와 다른 이들이 관련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아테네 백성은 민중을 겨냥해 음모를 꾸민 자들을 찾아내지 못해 그때까지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마침내 진상에 이르렀다고 여겨 기뻐하며, 곧바로 밀고자와 그가 지목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풀어 주었고, 고발된 자들을 재판에 넘겨 붙잡힌 만큼을 처형했으며 달아난 자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그 목에 상금을 걸었다. 결국 이 일에서 벌을 받은 자들이 부당하게 벌받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도시의 나머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띄게 마음을 놓았다.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가 떠나기 전에 그를 공격하던 바로 그 적들이 부추긴 탓에 여론은 그에게 몹시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인들은 헤르메스상 사건의 진상을 알아냈다고 여기게 되자, 그가 연루된 비의 사건 역시 같은 의도로 그가 꾸민 것이며 민주정을 노린 음모와 이어져 있다고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믿었다. 그런데 마침 이 소동이 한창일 때 스파르타의 적은 병력이 보이오티아인과 꾸민 어떤 계획에 따라 이스트모스까지 진출한 일이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오티아인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주로 미리 짜 둔 대로 온 것이며, 시민들이 들어온 정보에 따라 움직여 저들보다 앞서 그 죄인들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도시가 배신당했으리라고 여겼다. 시민들은 하룻밤을 성벽 안 테세우스 신전에서 무장한 채 자기까지 했다. 아르고스에 있던 알키비아데스의 벗들도 바로 이때 민중을 치려는 계획을 꾸민다는 의심을 받았고, 아테네인들은 그 때문에 섬들에 맡겨 두었던 아르고스 인질들을 아르고스 민중에게 넘겨 죽이게 했다. 요컨대 알키비아데스를 의심할 거리가 어디에서나 나왔다. 그리하여 그를 재판에 넘겨

처형하고자 그와 밀고에서 이름이 나온 다른 이들을 데려오라고 살라미니아호를 시칠리아로 보내면서, 그에게 와서 제게 걸린 혐의에 답하라고 명하되 그를 붙잡지는 말라고 일렀으니, 시칠리아에 있는 제 군대에도 적에게도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의 영향으로 함께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던 만티네이아인과 아르고스인의 복무를 붙들어 두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알키비아데스는 제 배를 타고 함께 고발된 이들과 더불어 아테네로 돌아가는 것처럼 살라미니아호와 함께 시칠리아를 떠나 투리이까지 동행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버리고 자취를 감추었으니 그토록 큰 편견이 자기들을 겨누고 있는 마당에 재판을 받으러 본국으로 가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살라미니아호의 선원들은 한동안 머물며 알키비아데스와 그 일행을 찾았으나 마침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자 돛을 올리고 떠났다. 이제 법 밖의 몸이 된 알키비아데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배를 타고 투리이에서 펠로폰네소스로 건너갔고, 아테네인들은 그와 그 일행에게 궐석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

1. 데모스 — 아테네와 여러 그리스 도시에서 '민중'이자 '시민 전체'를 함께 뜻하던 말. 민주정(데모크라티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2. 테테스 — 아테네의 재산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 중장보병의 무구를 스스로 갖출 형편이 못 되어 주로 함대의 노를 저었고, 이 원정에서는 나라가 무구를 내주어 해병으로 태웠다.

3. 페리폴로이 — 국경 수비 부대. 변경의 초소와 요새를 지켰다.

4.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5. 살라미니아호 — 아테네가 공적인 사명에 쓴 전용 함선. 사절을 보내고 국가의 명령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 살라미스섬과는 다른 것이다.

6. 비의 — 엘레우시스에서 데메테르 여신에게 바치던 비밀 의식. 입문자만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밖에서 흉내 내거나 발설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다루어졌다.

7. 헤르메스상 — 아테네의 거리와 집 앞과 신전 어귀에 세운 헤르메스 신의 네모진 석상. 기원전 415년 원정 직전에 이 상들이 하룻밤 사이에 훼손된 사건을 말한다.

8. 아르콘 — 아테네의 정무관직. 해마다 뽑았고 그 가운데 수석 아르콘의 이름으로 그해를 불렀다.

9. 파나테나이아 —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치던 도시 최대의 축제. 큰 행렬이 아크로폴리스까지 올라갔고, 4년마다 특히 성대하게 열렸다.

20장 (제VI권 제XX장) — 전쟁 제17년과 제18년 — 아테네군의 무위 — 스파르타의 알키비아데스 — 시라쿠사 포위

시칠리아에 남은 아테네 장군들은 이제 원정군을 둘로 나누어 제비로 하나씩 맡고 전군을 이끌고 셀리누스와 에게스타로 항해했으니, 에게스타인이 돈을 내놓을지 알아보고 셀리누스 문제를 살펴 그 도시와 에게스타 사이의 다툼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시칠리아 해안을 왼쪽에 두고 티레니아만 쪽으로 나아가다가 그들은 섬의 그 지역에서 유일한 그리스 도시인 히메라에 들렀으나 들여보내 주기를 거절당하자 항해를 이어 갔다. 가는 길에 그들은 시카니아인의 작은 항구 도시이면서도 에게스타와 전쟁 중이던 히카라를 빼앗아 주민을 노예로 삼고 도시는 에게스타인에게 넘겨주었는데, 에게스타의 기병 얼마가 그들에게 합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군대는 시켈인의 땅을 지나 카타나에 이르렀고, 함대는 노예를 싣고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그러는 동안 니키아스는 히카라에서 곧장 해안을 따라 에게스타로 가 다른 용무를 처리하고 30탈란톤[1]을 받은 뒤 본대에 다시 합류했다. 이제 그들은 노예를 팔아 120탈란톤을 얻었고, 시켈인 동맹들에게 배를 돌려 병력을 보내라고 재촉했으며, 그러는 동안 제 병력의 절반을 이끌고 겔라 땅에 있는 적대적인 도시 히블라로 갔으나 그곳을 빼앗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여름이 끝났다. 이어진 겨울에 아테네인은 곧바로 시라쿠사로 옮겨 갈 준비를 시작했고 시라쿠사인은 그들대로 아테네인을 치러 나아갈 준비를 했다. 처음에 두려워하며 예상했던 대로 아테네인이 곧바로 치고 들어오지 않은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라쿠사인의 용기는 조금씩 되살아났고, 적이 시칠리아 저편 멀리로 항해해 가고 히블라로 갔다가 그곳을 들이치는 데 실패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을 낮추어 보았으며, 자신감에 찬 순간의 군중이 으레 그러하듯 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 우리를 카타나로 이끌어 달라고 장군들에게 요구했다. 정찰을 맡은 시라쿠사 기병 부대들도 끊임없이 아테네 원정군 가까이 말을 몰고 와서는 여러 모욕을 퍼붓는 가운데, 너희가 레온티노이인을 그들의 땅에 되앉히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시라쿠사인과 함께 눌러앉으러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것을 알아챈 아테네 장군들은 시라쿠사인을 온 병력째 도시에서 되도록 멀리 끌어내고 그동안 저희는 밤에 해안을 따라 배를 몰아 느긋하게 편리한 자리를 차지하기로 정했다. 저희를 맞을 채비를 갖춘 병력 앞에서 배를 대고 내려야 하거나 드러내 놓고 육로로 가야 한다면 그 일을 그만큼 잘해 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럴 경우 시라쿠사의 많은 기병은(저희에게는 없는 병종이었다) 저희의 경보병과 뒤따르는 무리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힐 수 있을 터였으나, 이 계획을 따르면 기병이 이렇다 할 해를 끼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 군대에 딸려 온 시라쿠사 망명자 몇이 올림피에이온[2] 가까이의 그 자리를 그들에게 일러 주었고 그들은 나중에 그곳을 차지했다. 이 생각을 밀고 나가려고 장군들은 다음과 같은 계책을 꾸며 냈다. 그들은 저희에게 충실하면서도 시라쿠사 장군들에게는 못지않게 그들 편으로 여겨지던 사람 하나를 시라쿠사로 보냈으니, 그는 카타나 태생이었고 시라쿠사 장군들이 이름을 알고 있으며 아직 그 도시에 남아

있는 저희 당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자들이 자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아테네인이 무기에서 얼마쯤 떨어진 채 도시 안에서 밤을 보내니, 시라쿠사인이 날을 정해 온 백성을 이끌고 동틀 녘에 와 원정군을 친다면 자기들, 곧 그들의 벗들이 도시 안에 있는 병사들을 가두어 성문을 닫아걸고 배에 불을 지를 것이며, 그동안 시라쿠사인은 방책을 들이치기만 하면 진영을 쉽게 빼앗을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이 일에서 그들은 카타나 사람 여럿의 도움을 받을 터인데, 그들은 이미 움직일 채비를 갖추었고 자기도 바로 그들에게서 왔다는 것이었다.

자신감이 모자라지 않았고 이 일이 없었더라도 카타나로 진군할 뜻을 품고 있던 시라쿠사 장군들은 충분히 캐묻지도 않고 그 사람을 믿어 저희가 그곳에 이를 날을 곧바로 정하고 그를 돌려보냈으며, 이제 셀리누스인과 그 밖의 동맹들이 와 있었으므로 시라쿠사인 전부에게 온 병력으로 출진하라는 명을 내렸다. 준비를 마치고 도착하기로 정한 때가 가까워지자 그들은 카타나로 떠나 레온티노이 땅의 시마이토스 강가에서 밤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은 그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자마자 제 온 병력과 저희에게 합류한 시켈인이며 그 밖의 사람들을 데려다 배와 거룻배에 태우고 밤에 시라쿠사로 항해했다. 그리하여 날이 밝을 무렵 아테네인은 올림피에이온 맞은편에 배를 대고 진 칠 자리를 차지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며, 먼저 카타나로 달려갔던 시라쿠사 기병은 원정군이 모두 바다로 나갔음을 알고 돌아와 보병에게 알렸고, 그러자 모두가 함께 발길을 돌려 도시를 구하러 갔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인이 걸어야 할 길이 멀었으므로 아테네인은 조용히 편리한 자리에 군대를 앉혔으니, 저희가 원할 때 싸움을 열 수 있고 싸움에 앞서서도 싸우는 동안에도 시라쿠사 기병이 저희를 괴롭힐 틈이 가장 적은 곳이었다. 한쪽은 담과 집과 나무와 늪이 막아 주고 다른 쪽은 벼랑이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가까운 나무를 베어

바다로 날라 배 곁에 방책을 세웠고, 주워 모은 돌과 서둘러 마련한 목재로 제 자리에서 가장 허술한 지점인 다스콘에 보루를 쌓았으며, 아나포스강에 걸린 다리를 끊었다. 이 준비는 도시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진행되었고, 처음 나타난 적의 병력은 시라쿠사 기병이었으며 그 뒤로 보병 전부가 한꺼번에 따라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테네군 가까이까지 다가왔으나 아테네인이 싸움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물러나 헬로리네 길을 건너 그날 밤 진을 쳤다.

이튿날 아테네인과 그 동맹은 싸울 채비를 했는데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오른쪽 날개는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이 차지했고, 중앙은 아테네인이, 나머지 자리는 다른 동맹들이 맡았다. 군대의 절반은 여덟 겹으로 앞에 세우고, 절반은 천막 가까이에 역시 여덟 겹으로 속이 빈 네모꼴을 이루어 세워 두어 가장 심하게 밀리는 쪽을 살펴 도우러 갈 채비를 하라는 명을 주었다. 종군하는 잡역꾼들은 이 예비대 안에 두었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인은 중장보병을 열여섯 겹으로 세웠으니, 제 백성의 총동원 병력과 저희에게 합류한 동맹들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가장 강한 부대는 셀리누스인의 것이었다. 그다음은 겔라인의 기병으로 모두 200명이었으며, 카마리나에서 온 기병 20명가량과 궁수 50명이 있었다. 기병은 오른쪽에 두었는데 1,200명을 넉넉히 채웠고 그 곁에 투창병이 섰다. 아테네인이 막 공격을 열려 할 때 니키아스는 대열을 따라 걸으며 군대와 그것을 이룬 여러 종족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했다.

병사 여러분, 같은 싸움에 함께 나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긴 권고가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 제 생각에는 약한 군대를 앞에 둔 훌륭한 연설보다 이 병력 자체가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더 알맞습니다. 아르고스인과 만티네이아인과 아테네인과 섬사람 가운데 으뜸가는 이들이 한 대열에 나란히 서 있는 마당에, 이토록 많고 이토록 용감한

전우를 곁에 두고도 우리가 승리를 자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정예에 맞선 것은 총동원한 무리이고, 게다가 시칠리아 그리스인이니, 그들은 우리를 업신여길지언정 우리 앞에 버티고 서지는 못할 것이며 그 솜씨가 그 무모함에 조금도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의 칼이 얻어 낼 땅 말고는 가까이에 우호적인 땅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적이 내세우는 것과 정반대되는 동기를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제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지만 저의 외침은 우리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니, 그곳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면 빠져나가기조차 어렵고 그들의 기병이 큰 무리로 우리를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명성을 기억하고 담대히 적에게 나아가되, 지금의 이 궁지와 피할 길 없는 처지가 저들보다 더 무섭다고 여기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니키아스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다. 그때 시라쿠사인은 당장 싸움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더러는 가까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 있기까지 했는데, 이들은 이제 있는 힘껏 달려와 늦기는 했어도 합류하는 대로 본대의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 싸움에서도 다른 싸움들에서도 시라쿠사인에게 열의나 담대함이 모자랐던 것은 결코 아니었으나, 용기에서 뒤지지 않았어도 그것은 군사의 기술이 데려다주는 데까지였고 그 기술이 저희를 저버리는 자리에서는 결심마저 놓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그들은 아테네인이 먼저 공격을 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촉박한 통고에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곧바로 무기를 들고 맞서러 나아갔다. 먼저 양쪽 군대의 돌 던지는 자와 투석병과 궁수가 앞서 부딪쳐, 경보병끼리 으레 그러하듯 서로를 쫓거나 서로에게 쫓겼다. 다음으로 점술가들이 늘 바치던 제물을 앞으로 내왔고 나팔수들이

중장보병에게 돌격을 재촉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아갔으니, 시라쿠사인은 제 나라를 위해, 또 저마다 그날의 제 목숨과 앞으로의 자유를 위해 나아갔고, 적의 군대에서는 아테네인이 남의 나라를 제 것으로 삼고 패배로 제 나라가 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나아갔으며, 아르고스인과 독립한 동맹들은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을 아테네인이 이루도록 돕고 승리로써 두고 온 제 나라를 다시 볼 자격을 얻으려고 나아갔고, 예속된 동맹들은 그 열의의 대부분을 제 목숨을 지키려는 마음에 빚지고 있었으니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바랄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다음의 부차적인 동기로는 아테네인이 새로 정복하는 것을 도운 뒤에 더 가벼운 조건으로 복무하게 될 가망이 있었다.

이제 양군이 가까이 붙어 오랫동안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 그러는 사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비가 쏟아졌으니, 이것은 처음 싸움에 나서 전쟁을 거의 겪어 보지 못한 쪽의 두려움을 키우지 않을 수 없었던 반면, 더 노련한 적에게는 이런 현상이 철에 따른 것으로 보였고 그들에게는 적이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훨씬 더 큰 두려움이었다. 마침내 아르고스인이 시라쿠사의 왼쪽을 밀어붙였고 그 뒤에 아테네인이 제 앞의 병력을 쫓아 버리니, 시라쿠사군의 나머지도 무너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테네인은 멀리까지 쫓지 않았으니, 수가 많고 꺾이지 않은 시라쿠사 기병이 저희를 붙잡아 두어 대열보다 앞서 쫓는 중장보병이 보이면 달려들어 밀어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긴 쪽은 무리를 지어 안전한 데까지 뒤를 쫓다가 돌아와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인은 헬로리네 길에서 다시 모여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대열을 추슬렀고, 아테네인이 그곳의 보물에 손을 댈까 두려워 저희 시민으로 이루어진 수비대까지 올림피에이온으로 보냈다. 나머지는 도시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테네인은 신전으로 가지 않고 제 전사자를 모아 화장 더미 위에 얹은 뒤 그 벌판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그들은 휴전 아래 적에게 그 전사자를 돌려주었으니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을 합쳐 260명가량이었고, 저희 쪽의 유골도 아테네인과 동맹을 합쳐 50구가량을 거두었으며, 적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챙겨 카타나로 배를 몰아 돌아갔다. 이제 겨울이었고 당장은 시라쿠사 앞에서 전쟁을 이어 가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으니, 기병에서 크게 뒤지는 것을 없애려면 아테네에서 기병을 불러오고 시칠리아의 동맹들에게서도 거두어야 했고, 돈도 그 고장에서 모으고 아테네에서 받아야 했으며, 또 싸움을 치른 뒤라 이제는 저희 말에 더 기울리라고 바라던 몇몇 도시를 끌어들이고, 봄에 시라쿠사를 칠 원정에 쓸 곡식과 그 밖의 온갖 필수품도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품고 그들은 겨울을 나려고 낙소스와 카타나로 배를 몰았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인은 제 전사자를 장사 지내고 나서 민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헤르몬의 아들 헤르모크라테스가 앞으로 나와 그들을 북돋웠으니, 그는 으뜸가는 일반적 재능에 더해 이 전쟁에서 군사의 역량과 빛나는 용기를 이미 보여 준 사람이었다. 그는 일어난 일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고, 정복당한 것은 그들의 기개가 아니며 규율이 모자랐던 것이 해를 끼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도 그들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만큼 크게 지지는 않았으니, 말하자면 전쟁 기술에서는 풋내기였고 그리스에서 가장 단련된 병사들에 맞선 장인들의 군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 크게 해를 끼친 것은 장군의 수(그들은 15명이었다)와 내려진 명령의 많음이었고 거기에 병사들의 무질서와 불복종이 겹쳤다고 했다. 그러나 솜씨 있는 장군을 몇 사람만 두고 이번 겨울을 중장보병을 갖추는 데 써서 무기가 없는 자에게 무기를 마련해 주어 수를 되도록 늘리고 두루 훈련에 힘쓰도록

몰아붙인다면 적을 이길 가망이 얼마든지 있으니, 용기는 이미 그들의 것이고 거기에 싸움터의 규율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로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아질 터인데, 위험이 그들에게 규율을 익히게 하고 솜씨가 불어넣는 자신감이 그들의 용기를 저 자신을 넘어서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군은 수가 적어야 하고 전권을 주어 뽑아야 하며 그 지휘에 온전한 재량을 맡긴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고, 이 방안을 받아들이면 비밀이 더 잘 지켜지고 모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변명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리라고 했다.

시라쿠사인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권한 대로 모두 표결했으며, 장군 셋을 뽑았으니 헤르모크라테스 자신과 리시마코스의 아들 헤라클레이데스와 엑세케스테스의 아들 시카노스였다. 그들은 또 코린트와 스파르타에 사절을 보내어 저희에게 합류할 동맹의 병력을 얻고, 스파르타인이 저희를 위해 아테네인과의 전쟁에 드러내 놓고 진심으로 나서게 하여, 아테네인이 시칠리아를 떠나게 되거나 그곳의 제 군대에 원군을 보내기 어렵게 만들려 했다.

카타나에 있던 아테네 병력은 이제 곧바로 메시나로 배를 몰았으니 그 도시가 저희에게 넘어오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통은 끝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 일을 알고 있던 알키비아데스가 본국의 소환을 받아 지휘권을 놓을 때 저가 추방당하리라는 것을 내다보고 메시나에 있는 시라쿠사의 벗들에게 그 음모를 알렸고, 그들은 곧바로 주모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뜻을 같이하는 자들과 함께 반대 당파에 맞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아테네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테네인은 13일가량을 기다렸으나 비바람에 드러난 채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자 낙소스로 돌아가, 배를 댈 자리를 마련하고 진영 둘레에 방책을 세운 뒤 겨울 숙영에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봄에 저희와 합류할 돈과 기병을 청하러 아테네로 삼단노선

한 척을 보냈다. 겨울 동안 시라쿠사인은 아폴론 테메니테스 상을 안에 넣도록 도시에 잇대어 성벽을 쌓았으니, 에피폴라이를 바라보는 쪽 전체를 따라 쌓아 저희가 패할 경우 포위벽을 두르는 일을 더 길고 더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메가라에 요새 하나를 세우고 올림피에이온에 또 하나를 세웠으며, 배를 댈 만한 자리가 있는 바닷가마다 방책을 박아 두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이 낙소스에서 겨울을 나고 있음을 알고 그들은 온 백성을 이끌고 카타나로 나아가 그 땅을 짓밟고 아테네인의 천막과 진영에 불을 지른 뒤 집으로 돌아갔다. 또 아테네인이 라케스 시절에 맺은 동맹을 내세워 할 수 있다면 카마리나를 얻으려고 그곳에 사절을 보내고 있음을 알고, 그에 맞서도록 시라쿠사에서 다른 사절을 보냈다. 그들은 카마리나인이 첫 싸움에 보낸 것도 그리 기꺼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예리하게 의심하고 있었고, 이제 아테네인이 그 싸움에서 거둔 성공을 본 뒤로는 앞으로 저희를 전혀 돕지 않으려 하고 옛 우의를 내세워 아테네인 쪽에 붙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헤르모크라테스가 몇 사람과 함께 시라쿠사에서 카마리나에 이르렀고 에우페모스와 다른 이들이 아테네인 쪽에서 이르렀으며, 카마리나인의 민회가 소집되자 헤르모크라테스는 그들이 아테네인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하려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마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절로 온 것은 여러분이 아테네인의 실제 병력에 겁먹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듣기 전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 말에 여러분이 넘어갈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구실과 우리 모두가 의심하는 그 속셈을 품고 시칠리아에 왔으니, 제 생각으로는 레온티노이인을 그 집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를 우리 집에서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짓밟아 없앤 도시를 시칠리아에서는 되세운다는 것이, 또 레온티노이의 칼키스인은 핏줄이 같다 하여

아끼면서 레온티노이가 그 식민시로 나온 에우보이아의 칼키스인은 예속 아래 붙들어 둔다는 것이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에서 그토록 잘 통한 바로 그 방책을 이제 시칠리아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디아인을 벌하려고 이오니아인과 아테네에서 나온 다른 동맹들의 지도자로 뽑힌 뒤에, 아테네인은 더러는 군역을 다하지 않았다고 걸고 더러는 저희끼리 싸웠다고 걸고 또 다른 이들은 그때그때 찾아낼 수 있는 그럴듯한 구실이라면 무엇으로든 걸어 마침내 그들 모두를 굴복시켰습니다. 요컨대 메디아인과 겨룰 때 아테네인은 그리스인의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인도 제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니, 앞의 사람들은 제 동포가 그 왕 대신 저희를 섬기게 하려고 싸웠고 뒤의 사람들은 한 주인을 다른 주인으로 바꾸려고 싸웠을 뿐인데, 새 주인이 먼젓번 주인보다 더 영리하기는 했으나 악한 일에 더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온 것은 아테네처럼 탓할 거리가 훤히 드러난 나라의 악행을 그것을 이미 잘 아는 청중 앞에서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탓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쳐 주지 않은 탓에 노예가 된 저쪽 지역의 그리스인들에게서 경고를 얻어 가지고 있고 이제 그와 똑같은 궤변이 우리 자신에게 시험되는 것을 보면서도(레온티노이의 친족을 되세운다느니 에게스타의 동맹을 돕는다느니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데 뭉쳐 이곳에는 끊임없이 바꾸어 대면서도 언제나 주인을, 때로는 메디아인을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이오니아인도 헬레스폰토스인도 섬사람도 없고 독립한 펠로폰네소스에서 나와 시칠리아에 사는 자유로운 도리스인이 있을 뿐임을 단호히 보여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한 도시씩 차례로 따로 잡아먹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정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바로 이

방안으로 돌아서서 어떤 이들은 말로 갈라놓고 어떤 이들은 동맹이라는 미끼로 꾀어 서로 드러내 놓고 싸우게 만들며 또 어떤 이들은 저마다의 처지에 따라 먹힐 만한 아첨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멸망이 멀리 있는 동포를 먼저 덮칠 때, 그 위험이 우리 각자에게는 오지 않으리라고, 또는 우리보다 먼저 겪는 자가 저 혼자만 겪고 말리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까?

아테네의 적은 저가 아니라 시라쿠사라고 말하면서 저의 나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가혹하다고 여기는 카마리나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에게 이것을 새겨 두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저의 나라에서 싸운다 해도 그것은 저의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그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 게다가 제가 무너져 길이 열린 뒤에 혼자 싸움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동맹으로 두고 들어서는 것이니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아테네인의 목적은 시라쿠사의 적의를 벌하는 데 있다기보다 저를 가림막 삼아 카마리나의 우의를 붙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시새우거나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큰 세력은 언제나 시샘과 두려움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때를 보이려고 시라쿠사가 꺾이기를 바라면서도 제 안전을 생각해 시라쿠사가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그가 마음껏 품는 그 바람은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제 바람은 다스릴 수 있어도 형편까지 그렇게 다스릴 수는 없으니, 그 셈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그는 제 불운을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고 다시 저의 번영을 시새울 수 있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다르되 실상은 그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그 위험의 몫을 지금 나누어 지기를 마다하고 우리를 내버린다면 그것은 헛된 바람일 뿐이니, 이름으로는 우리 세력을 지키는 일이 실상은 그 자신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이, 카마리나 여러분이 우리의 바로 이웃이고 그다음으로

위태로운 처지이니 이것을 내다보았으리라고, 그래서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우리를 돕는 대신 오히려 제 발로 우리에게 와서, 만약 아테네인이 카마리나에 먼저 왔더라면 여러분이 카마리나에서 청했을 바로 그 도움을 이제 시라쿠사에서 내놓으며 침략자에게 맞서라고 우리를 북돋우리라고 마땅히 기대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나머지 사람들도 아직 이쪽으로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탓에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침략자에게도 옳게 처신하려고 애쓰면서 아테네인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내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동맹을 맺은 것은 여러분의 벗에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칠지도 모를 적에 맞서기 위해서였고, 아테네인이 남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였지 지금처럼 그들이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있을 때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레기온인조차 칼키스 혈통이면서 칼키스계인 레온티노이인을 되세우는 일을 돕기를 마다합니다. 그들은 이 그럴듯한 구실의 속내를 의심하여 까닭도 없이 지혜롭게 구는데, 온갖 까닭이 여러분 편에 있는 여러분이 도리어 타고난 적을 돕겠다고 나서고, 자연이 여러분의 친족으로 만들어 준 이들을 그 가장 모진 원수들과 손잡고 망치려 든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원정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버티면 그 군대는 조금도 무섭지 않고,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그들의 시도가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때에만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들은 우리만을 쳐서 싸움에 이기고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물러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뭉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낙담할 까닭이 없고 오히려 더 기꺼이 동맹에 나서야 합니다. 더구나 군사의 일에서 아테네인보다 뛰어남이 의심할 바 없는 펠로폰네소스인에게서 도움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양쪽 모두의 동맹이니 어느 쪽에도 서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신중한 방책이 여러분에게 안전하다거나 우리에게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것은 스스로 내세우는 만큼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합류하기를 거부한 탓에 해를 입은 쪽이 쓰러지고 공격하는 쪽이 이긴다면, 여러분이 물러서 있는 것의 결과가 앞의 쪽을 도움 없이 죽게 내버려 두고 뒤의 쪽이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도록 놓아두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해를 입은 쪽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친족이기도 한 이들과 손잡아 시칠리아의 공동 이익을 지키고 여러분의 벗인 아테네인이 그릇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건져 주는 편이 더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라쿠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다른 이들이 우리만큼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은 우리에게 부질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간청하며, 그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적인 이오니아인에게 위협받으면서 같은 도리스인인 여러분에게 배신당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바입니다. 아테네인이 우리를 굴복시킨다면 그 승리는 여러분의 결정에 빚진 것이겠으나 명예는 제 이름으로 거두어들일 것이고, 그 승리를 얻게 해 준 바로 그 사람들을 승전의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긴다면 여러분은 우리를 위태롭게 한 장본인이 된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장의 굴종이 주는 안전과, 우리와 함께 이겨서 아테네인 주인에게 수치스럽게 머리 숙이는 일을 면하고 시라쿠사의 오래가는 적의를 피할 가망 사이에서 선택하십시오.

헤르모크라테스의 말은 이러했다. 그 뒤를 이어 아테네 사절 에우페모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다만 앞서 맺은 동맹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였으나, 시라쿠사인이 걸어 온 공격 탓에 우리 제국과 그에 대해

우리가 지닌 정당한 권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증거는 앞서 말한 사람 자신이 이오니아인을 도리스인의 영원한 적이라 불렀을 때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의 도리스인이 수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바로 이웃이었으므로 우리 이오니아인은 그 지배를 벗어날 가장 좋은 길을 찾았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뒤에 우리에게 함대가 생겼고 그리하여 스파르타인의 제국과 패권을 벗어 버렸으니, 그들이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란 그때 가장 강했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그들에게 명령할 권리보다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왕의 옛 신민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뒤로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 우리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으면 펠로폰네소스인의 지배 아래 떨어질 가망이 가장 적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엄밀히 말해 시라쿠사인이 우리가 노예로 삼았다고 말하는 그 친족, 곧 이오니아인과 섬사람을 복종 아래 둔 데서 우리는 부당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족인 그들은 메디아인과 함께 제 모국을, 곧 우리를 치러 왔고, 우리가 우리 도시를 버렸을 때처럼 들고일어나 제 재산을 내던질 용기를 내는 대신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택했고 우리마저 그렇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함대와 망설임 없는 열의를 그리스인에게 바쳤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민인 이들이 메디아인에게 선뜻 굽힘으로써 우리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며, 그런 자격을 떠나서도 우리는 펠로폰네소스인에 맞서 우리 자신을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족을 우리 손만으로 무너뜨렸다고 해서, 또는 문제가 된 그 신민들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무릅쓴 위험을 무릅썼다고 해서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니, 그 위험은 모두의 자유를 위한 것이자 우리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안전을 제대로 돌보았다고 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칠리아에 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전을 위해서인데,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의 이익도 그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시라쿠사인이 우리에게 들씌우고 여러분이 다소 지나치게 겁먹은 채 의심하는 그 행실에서 바로 이것을 증명하니, 두려움 탓에 의심을 품게 된 사람은 한동안 말솜씨의 매력에 휩쓸릴 수는 있어도 막상 행동할 때가 되면 제 이익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에서 제국을 붙들고 있는 것도 두려움 탓이고, 벗들의 도움을 받아 시칠리아의 일을 안전하게 정돈하려고 이제 온 것도 두려움 탓이니, 누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전되어 시라쿠사인에게 맞설 수 있다면 그들이 펠로폰네소스인에게 병력을 보내어 우리를 해칠 가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우리와 온통 상관이 있으며, 그런 까닭에 우리가 레온티노이인을 되세우되 그들을 에우보이아의 친족처럼 신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강하게 만들어 제 국경에서 시라쿠사인을 괴롭힘으로써 우리를 돕게 하는 것은 더없이 이치에 닿는 일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우리 혼자서도 적들과 맞설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칠리아 사람은 자유롭게 하면서 칼키스 사람은 노예로 삼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주장을 두고 말하자면, 뒤의 사람들은 무기를 갖지 않고 돈만 내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 반면, 앞의 사람들 곧 레온티노이인과 우리의 다른 벗들은 아무리 독립해 있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참주와 제국을 거느린 도시에게는 이롭기만 하다면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 없고, 확실하지 않은 한 친족인 자도 없으며, 우의든 적의든 어디서나 때와 형편에 달린 일입니다. 여기 시칠리아에서 우리의 이익은 벗들을 약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적들을 꺾는 데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의심하십니까? 그리스에서도 우리는 동맹들이 저마다 쓸모 있는 만큼 그에 맞추어 대합니다. 키오스인과 메팀나인은 스스로를 다스리며 배를 내놓고, 나머지 대부분은 더 무거운 조건 아래 돈으로 공물을 바치며, 또 어떤 이들은 섬사람이라 우리가 빼앗기 쉬운데도 아주 자유로우니 펠로폰네소스 둘레의 편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칠리아의 나라들을 어떻게 할지 정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이끌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시라쿠사인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야심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의심을 이용해 여러분을 한데 묶었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간 뒤에 힘으로든 여러분이 홀로 남은 틈을 타서든 시칠리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한편이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주인이 되고 말 것이니, 그만한 크기의 병력이 하나로 뭉치면 우리로서도 더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물러가자마자 그들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달리 보는 어떤 견해도 사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처음 우리를 불렀을 때 여러분이 내세운 두려움은 우리가 여러분을 시라쿠사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내버려 두면 아테네가 위태로워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를 설득한다며 내세운 바로 그 논거를 이제 와서 믿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 도시의 힘에 맞서 더 큰 병력을 이끌고 왔다고 해서 의심에 굴복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지 말아야 할 자들은 시라쿠사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없이는 여기 머무를 수 없고, 설령 여러분을 복종 아래 둘 만큼 우리가 신의를 저버린다 해도 항해가 멀고 크면서 군사로 보아 대륙에 속하는 도시들을 지키기가 어려우므로 여러분을 묶어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시라쿠사인은 여러분 가까이에 살되 진영이 아니라 우리가 데려온 병력보다 큰 도시에 살며, 언제나 여러분을 노려 음모를 꾸미고 한번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니 레온티노이인과 다른 이들의 경우에서 그것을 이미 보여 주었고, 이제는 여러분이 바보라도 되는 양 뻔뻔스럽게도 그 일을 막고 여태껏 시칠리아를 독립되게 지켜 온 그 힘에 맞서 저희를 도와 달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 맞서 우리는 훨씬 더 실질적인 안전으로 여러분을 부르니, 서로가 서로에게 지니고 있는 그 공동의 안전을 저버리지 말라고, 또 그들은 동맹이 없어도 그 수만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는 길을 언제나 열어 두고 있는 반면 여러분은 이토록 많은 원군을 데리고 스스로를 지킬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리라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청하는 바입니다. 의심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군을 한 번 성과 없이, 또는 패한 채로 떠나보낸다면, 그들이 곁에 있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해 줄 수 있었던 그날이 지나간 뒤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한 줌만이라도 다시 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카마리나 여러분, 우리는 시라쿠사인의 중상이 여러분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받고 있는 일들을 두고 우리는 온전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했으니, 이제 여러분을 납득시키기를 바라며 짧게 되짚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에서 다스리는 자인 것은 신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고, 시칠리아에서 해방자인 것은 시칠리아인에게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많은 일에 끼어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고, 전에도 그랬듯 지금도 우리가 이 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동맹으로 온 것은 부름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 행실의 재판관이나 감찰관을 자처하며 이제 와서는 하기도 어려울 일, 곧 우리를 돌려세우려 애쓰는 대신, 우리의 간섭하는 방책이나 우리 기질 가운데 여러분의 이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취해 쓰십시오. 그리고 그 방책이 모두에게 똑같이 해롭기는커녕 그리스인 대부분에게는 이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 덕분에, 우리가 있지 않은 곳에서까지 어디서나 침략을 두려워하거나 침략을 꾀하는 모든 사람은, 앞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 편으로 끼어들어 주리라는 눈앞의 전망 때문에 제 수고 없이 보전되고, 뒤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타나면 그 모험이 위태로워지리라는 눈앞의 전망 때문에 제 뜻과 달리 삼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원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이제 여러분에게 내밀어진 이 안전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하는 대로 하십시오. 늘 시라쿠사인에 맞서 방어만 하고 있는 대신 우리와 손잡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을 위협할 차례로 나아가십시오.

에우페모스의 말은 이러했다. 카마리나인이 느낀 바는 이러했다. 그들은 아테네인이 시칠리아를 굴복시킬까 두려운 한에서만 아니라면 아테네인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이웃한 시라쿠사와는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시라쿠사인도 그에 못지않게 두려워했고 저희가 없어도 시라쿠사인이 이기지 않을까 걱정했으므로, 먼저는 앞서 말한 얼마 안 되는 기병을 그들에게 보냈고 앞으로도 실제로는 그들을 가장 많이 돕되 되도록 아끼며 돕기로 정했다. 다만 당장은 아테네인을, 더구나 싸움에서 이긴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양쪽에 똑같이 답하기로 했다. 이 결의에 따라 그들은 싸우는 두 편이 다 저희 동맹이니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 것이 저희 맹세에 가장 맞는다고 여긴다고 답했으며, 이 답을 받고 양쪽 사절은 떠났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가 전쟁 준비를 이어 가는 사이에 아테네인은 낙소스에 진을 치고 교섭으로 되도록 많은 시켈인을 얻으려 애썼다. 저지대에 가까이 살며 시라쿠사에 예속된 자들은 대개 발을 들이지 않았으나, 내륙의 주민들은 여태 독립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몇을 빼고는 곧바로 아테네인 편에 섰고 군대에 곡식을 날라 왔으며 더러는 돈까지 가져왔다. 아테네인은 합류하기를 거부한 자들을 치러 나아가 더러는 그렇게 하도록 억지로 시켰으나, 또 다른 자들의 경우에는 시라쿠사인이 수비대와 원군을 보내는 바람에 막혔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은 겨울 숙영지를 낙소스에서 카타나로 옮기고 시라쿠사인이 태운 진영을 다시 세워 남은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들은 또 도움을 얻을 가망을 보고 우의를 내밀며 카르타고로 삼단노선 한 척을 보냈고 티레니아로도 한 척을 보냈으니, 그곳의 몇몇 도시가 스스로 나서서 이 전쟁에 함께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시켈인과 에게스타에도 사람을 돌려 되도록 많은 말을 보내 달라고 청했으며, 그러는 동안 벽돌과 쇠를 비롯해 포위벽을 쌓는 일에 필요한 온갖 것을 갖추어 봄에는 싸움을 열 작정이었다.

그러는 동안 코린트와 스파르타로 보내진 시라쿠사 사절들은 해안을 따라가며 아테네인이 벌이는 일이 시라쿠사 못지않게 이탈리아도 위협한다는 것을 들어 그 일을 막아 달라고 이탈리아 그리스인을 설득하려 애썼고, 코린트에 이르러서는 같은 혈통임을 내세워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코린트인에게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코린트인은 곧바로 저희가 마음과 힘을 다해 그들을 돕기로 표결했고, 그다음에는 스파르타에도 사절을 함께 보내어 스파르타 역시 본국에서 더 드러내 놓고 아테네인과의 전쟁을 밀고 나가고 시칠리아에 원군을 보내도록

설득하는 일을 거들게 했다. 코린트에서 온 사절들이 스파르타에 이르러 보니 알키비아데스가 함께 망명한 자들과 더불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투리이에서 장삿배를 타고 곧바로 건너가 먼저 엘리스의 킬레네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스파르타로 왔으니, 스파르타인 자신의 초청을 받되 먼저 안전을 보장받은 뒤에 온 것으로 만티네이아의 일에서 저가 맡았던 몫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코린트인과 시라쿠사인과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인의 민회에서 모두 같은 청을 내세워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감독관(에포로스)[3]과 당국자들은 시라쿠사가 아테네인과 타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곳에 사절을 보내기로 결심하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보낼 뜻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말하여 스파르타인을 달구고 들쑤셨다.

저는 먼저 저를 향한 편견을 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의심 때문에 여러분이 공적인 일에 관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조상들이 어떤 불만 때문에 내던진 그 인연, 곧 여러분의 프록세노스[4]로서 여러분과 맺고 있던 인연을 저 자신은 여러분을 위해 힘씀으로써 되살리려 했으니 특히 필로스의 재난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우호적인 태도를 지켰음에도 여러분은 제 적들을 통해 아테네인과 화약을 맺는 길을 택하여 그들의 힘을 키우고 저의 신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티네이아인과 아르고스인 쪽으로 돌아서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해칠 다른 기회들을 붙잡았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불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간의 쓰라림에 저에게 부당하게 화를 냈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 일을 참된 빛 아래에서 보고 달리 여기실 때가 이제 왔습니다. 또 제가 민중 쪽으로 더 기울었다 하여 저를 나쁘게 판단한 분들도 그 싫어함에 더 나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언제나 참주에게 적대적이었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권력에 맞서는 자는 모두 민중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중의 지도자로 행동했으며, 게다가 민주정이 그 도시의 정체였으므로 대개의 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시대의 방종한 기질보다는 더 절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지금도 다중을 그릇된 길로 이끌려 한 다른 자들이 있었지만(저를 추방한 바로 그자들입니다), 우리 당파는 온 백성의 당파였으니, 도시가 더없는 위대함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었고 우리가 이미 있는 그대로 물려받은 그 정체를 지키는 데 우리 몫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조였기 때문입니다. 민주정으로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분별 있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저도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었으니 제게는 그것을 탓할 까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뻔히 드러난 어리석음을 두고 새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적의에 눌린 채 그것을 바꾸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저를 향한 편견에 관해서는 이쯤 해 두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헤아리셔야 할 문제들로, 또 아마도 남보다 나은 앎이 있어 제가 말할 수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의 주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칠리아로 배를 몬 것은 먼저 할 수만 있다면 시칠리아 그리스인을 정복하고 그다음에는 이탈리아 그리스인까지 정복하며 마지막으로 카르타고의 제국과 도시를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획이 모두, 또는 대부분 성공할 경우에 우리는 펠로폰네소스를 칠 작정이었으니, 그 지역에서 새로 얻은 그리스인의 온 병력을 데려오고, 이베리아인을 비롯해 그 나라들에 있는 자들로서 알려진 가운데 가장 호전적임을 누구나 인정하는 이민족 여럿을 삯을 주고 데려오며, 이탈리아에 목재가 넉넉하므로 이미 가진 것에 더해 삼단노선을 많이 지어, 이 함대로 바다에서 펠로폰네소스를

봉쇄하고 뭍에서는 우리 군대로 들이쳐 어떤 도시는 힘으로 빼앗고 어떤 도시는 둘레에 포위벽을 둘러 어렵지 않게 그것을 굴복시키기를, 그런 뒤에는 그리스라는 이름 전체를 다스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계획을 더 잘 이루는 데 필요한 돈과 곡식은 본국의 세입과는 따로 그 나라들에서 새로 얻은 곳들이 넉넉히 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 이번 원정의 내력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장군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목적을 똑같이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시칠리아의 나라들이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칠리아 그리스인은 그 온갖 미숙함에도 병력을 하나로 모으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건져질 수 있겠으나, 온 백성을 이끌고 싸운 한 번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바다에서 봉쇄당한 시라쿠사인만으로는 지금 그곳에 있는 아테네 원정군을 버텨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라쿠사가 무너지면 시칠리아 전체가 함께 무너지고 곧바로 이탈리아가 뒤따르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쪽에서 오는 위험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시칠리아만이 문제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서둘러 하지 않는다면 펠로폰네소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니, 제 배의 노를 제 손으로 저을 수 있고 뭍에 내리는 순간 중장보병으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배에 태워 시라쿠사로 보내야 하며, 제가 그 병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서 있는 병력에 규율을 세우고 복무를 마다하는 자들을 억지로 나서게 할 지휘관으로 스파르타 시민[5] 한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미 가진 벗들은 더 자신을 얻을 것이고 망설이는 자들은 여러분 편에 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이곳에서 전쟁을 더 드러내 놓고 밀고 나가야 하니, 그래야 시라쿠사인이 여러분이 저희를 잊지 않았음을 보고

저항에 힘을 낼 것이며 아테네인은 제 원정군을 보강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티카의 데켈레이아를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아테네인이 언제나 가장 두려워하는 타격이며 이번 전쟁에서 저희가 아직 겪지 않았다고 여기는 단 하나의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내어 그것으로 치는 길을 고르는 것이니, 누구나 제 약한 데를 가장 잘 알고 그에 따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그 요새는 여러분에게 이로운 한편 여러분의 맞수에게는 어려움을 안길 터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은 지나치고 으뜸가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장에 있는 재산은 무엇이든 그 대부분이 빼앗기든 넘겨지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인은 라우리온 은광에서 나오는 세입과 제 땅과 법정에서 지금 얻고 있는 이익을, 무엇보다 동맹들에게서 오는 세입을 곧바로 잃게 되니, 동맹들은 아테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이 힘차게 전쟁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돈을 전처럼 꼬박꼬박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는 일인지로 말하자면 저는 아주 자신하며 제가 틀렸을까 하는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제가 여태 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통하다가 이제 그 나라의 가장 모진 적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치는 일에 나섰다 하여 저를 더 나쁘게 여기지 않기를, 또 제 말을 추방당한 자의 열기에서 나온 열매라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방자가 된 것은 저를 내몬 자들의 불의 탓이지, 여러분이 제 말을 따라 주신다면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모진 적은 적을 해쳤을 뿐인 여러분이 아니라 벗을 원수가 되도록 몰아붙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시민으로서 제 권리를 안전하게 누리던 때에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실로 저는 제가 지금 여전히 제 것인 나라를 치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는 제 것이 아닌 나라를 되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나라를 치느니 차라리 부당하게 잃는 데 동의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너무도 그리워한 나머지 그것을 되찾으려고 어디까지든 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스파르타 여러분, 저를 두고 말씀드리자면 온갖 위험과 수고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저를 쓰시기를 청하며, 누구나 입에 올리는 그 논거를, 곧 제가 적으로서 여러분에게 큰 해를 끼쳤다면 벗으로서도 그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니, 저는 아테네인의 계획은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계획은 짐작만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는 지금 여러분의 가장 중대한 이익이 논의되고 있음을 믿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와 아티카로 보낼 원정을 망설이지 말고 내보내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병력의 작은 일부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그 섬의 중요한 도시들을 건질 것이고 아테네의 힘을 지금의 것도 앞으로의 것도 무너뜨릴 것이며, 그런 뒤에는 안전하게 살면서 온 그리스에 대한 패권을, 힘이 아니라 동의와 애정 위에 선 패권을 누릴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말은 이러했다. 스파르타인은 저희도 전부터 아테네로 진군할 뜻을 품고 있었으나 여전히 기다리며 주위를 살피던 참이었는데, 알키비아데스에게서 바로 이 소식을 듣자 곧바로 훨씬 더 진지해졌으니 이 일의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데켈레이아를 요새로 만드는 일과 시칠리아 사람들에게 곧바로 도움을 보내는 일로 눈을 돌렸고, 클레안드리다스의 아들 길리포스를 시라쿠사인의 지휘관으로 지명하여

그 백성과, 또 코린트인과 의논해 형편이 허락하는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길로 원군이 그 섬에 이르도록 준비하라고 일렀다. 길리포스는 코린트인에게 배 2척을 곧바로 아시네로 보내고 나머지 보내려던 배들을 갖추어 때가 되면 떠날 수 있게 해 두라고 청했다. 이 일을 정한 뒤 사절들은 스파르타를 떠났다.

그러는 동안 시칠리아에서 장군들이 돈과 기병을 청하러 보낸 아테네 삼단노선이 이르렀고, 아테네인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나서 원정군에 보낼 보급품과 기병을 보내기로 표결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났으며, 그와 함께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쓴 이번 전쟁의 제17년도 끝났다.

이듬해 여름, 철이 시작되자마자 시칠리아의 아테네인은 카타나에서 배를 내어 해안을 따라 시칠리아의 메가라로 갔으니, 앞서 말한 대로 시라쿠사인이 참주 겔론 시절에 그 주민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 곳이었다. 아테네인은 이곳에 내려 그 땅을 짓밟았으며, 시라쿠사인의 요새 하나를 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함대와 군대를 이끌고 테리아스 강으로 나아가 내륙으로 들어가 평야를 짓밟고 곡식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마주친 얼마 안 되는 시라쿠사 부대에서 몇을 죽이고 전승 기념물을 세운 뒤 배로 돌아갔다. 이제 그들은 카타나로 배를 몰아 그곳에서 식량을 실었고, 온 병력을 이끌고 시켈인의 도시 켄토리파로 가 협약을 맺어 그곳을 제 편으로 끌어들였으며, 이네사인과 히블라인의 곡식도 태운 뒤 떠났다. 카타나로 돌아와 보니 아테네에서 기병 250명이 와 있었는데(장비는 갖추었으나 말은 현지에서 구하기로 되어 있어 말은 없었다), 말 탄 궁수 30명과 은 300탈란톤도 함께였다.

같은 봄에 스파르타인은 아르고스를 치러 나아가 클레오나이까지 갔으나 지진이 일어나 돌아갔다. 그 뒤 아르고스인은 제 경계에 있는 티레아 땅을 침공해 스파르타인에게서 많은 노획물을 얻었는데 그것을

판 값이 25탈란톤에 못지않았다. 같은 여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테스피아이의 민중이 공직에 있는 당파를 쳤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테베에서 원군이 이르러 더러는 붙잡혔으며 다른 자들은 아테네로 달아나 몸을 맡겼다.

같은 여름에 시라쿠사인은 아테네인에게 기병이 합류했고 이제 곧 저희를 치러 나아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도시 바로 위에 자리 잡은 가파른 곳인 에피폴라이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아테네인이 싸움에 이긴다 해도 저희를 쉽게 에워쌀 수 없음을 알고 그 오르는 길을 지키기로 정했으니, 적이 눈에 띄지 않게 이 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곳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나머지는 높은 땅으로 도시까지 곧바로 떨어져 내려 안에서 전부 내려다보였기 때문이며, 나머지 땅보다 위에 놓여 있어 시라쿠사인은 그곳을 에피폴라이, 곧 윗마을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동틀 녘에 온 병력으로 아나포스강가의 풀밭으로 나아갔으니, 새 장군인 헤르모크라테스와 그 동료들이 갓 자리에 오른 참이었고, 그들은 중장보병을 사열하여 그 가운데 먼저 600명을 정예로 뽑아 안드로스에서 망명한 디오밀로스의 지휘 아래 두고 에피폴라이를 지키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로든 부르는 즉시 달려갈 채비를 하게 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은 시라쿠사인이 사열하던 그날로 이어지는 밤에, 이미 카타나에서 온 원정군 전부가 눈에 띄지 않게 뭍에 닿아 레온이라 불리는 곳 맞은편, 에피폴라이에서 6~7스타디온[6] 떨어진 곳에 군대를 내려놓았고, 함대는 탑소스에 닻을 내려 두었는데 그곳은 좁은 지협으로 이어진 채 바다로 뻗어 나간 반도로 뭍으로도 물로도 시라쿠사 도시에서 멀지 않았다. 아테네 해군이 그 지협을 가로질러 방책을 치고 탑소스에 조용히 머무는 동안 육군은 곧바로 달음질로 에피폴라이로

나아가, 시라쿠사인이 저희를 알아채거나 풀밭과 사열에서 올라오기 전에 에우리엘로스로 올라가는 데 성공했다. 디오밀로스는 제 600명과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되도록 빨리 나아갔으나 풀밭에서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25스타디온이 넘는 길을 가야 했다. 이런 식으로 자못 어지러운 채 부딪친 시라쿠사인은 에피폴라이의 싸움에서 패해 300명가량이 죽고 그 가운데 디오밀로스도 있는 채로 도시로 물러났다. 그 뒤 아테네인은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휴전 아래 시라쿠사인에게 그 전사자를 돌려주었으며, 이튿날 시라쿠사 도시 자체로 내려갔다. 그러나 아무도 맞으러 나오지 않자 다시 올라가 에피폴라이의 벼랑 끝, 메가라를 바라보는 자리에 라브달론 요새를 쌓아, 싸우러 나아가거나 공사에 나갈 때마다 짐과 돈을 두는 창고로 삼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게스타에서 기병 300명이 그들에게 왔고 시켈인과 낙소스인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100명가량이 왔다. 그리하여 아테네에서 온 250명까지 합쳐(그들에게는 에게스타인과 카타나인에게서 얻은 말과 그 밖에 사들인 말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그들이 모은 기병은 모두 650명이었다. 라브달론에 수비대를 둔 뒤 그들은 시카로 나아가 그곳에 자리 잡고 포위벽의 중심이 될 원형 보루를 빠르게 쌓았다. 공사가 나아가는 속도에 질린 시라쿠사인은 나가서 그들과 맞붙어 싸움을 걸고 그 일을 끊기로 정했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이미 싸움 대형을 갖추었으나, 시라쿠사 장군들은 제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는 데 그토록 애를 먹고 그토록 어지러운 것을 보고 기병 일부만 남기고 그들을 도시 안으로 도로 이끌고 들어갔다. 남은 기병은 아테네인이 돌을 나르거나 멀리까지 흩어지지 못하게 막았는데, 마침내 아테네 중장보병의 한 부족이 기병 전부와 함께 달려들어 시라쿠사 기병을 얼마쯤 잃게 하며 쫓아 버렸고, 그 뒤에 아테네인은 이 기병 싸움을 두고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이튿날 아테네인은 원형 보루의 북쪽으로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돌과 목재를 모아 큰 항구에서 바다에 이르는 제 공사의 가장 짧은 선을 따라 트로길로스 쪽으로 계속 내려놓았다. 한편 시라쿠사인은 장군들의, 무엇보다 헤르모크라테스의 이끎에 따라 더는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 아테네인이 성벽을 끌고 갈 방향으로 맞선 공사를 쌓기로 정했다. 이것을 제때 끝낼 수 있다면 적의 공사선은 끊길 터였고, 그러는 동안 적이 공격으로 그 일을 방해하려 든다면 저희는 병력 일부를 내보내 맞서고 미리 방책으로 오는 길을 막아 둘 것이며, 그러면 아테네인은 그들을 상대하느라 온 병력을 들인 공사를 멈추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아가 공사를 시작했으니, 제 도시에서 출발해 아테네인의 원형 보루 아래로 가로지르는 벽을 내고 신역의 올리브나무를 베어 내며 나무 탑을 세웠다. 아테네 함대가 아직 큰 항구로 돌아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시라쿠사인은 여전히 바닷가를 쥐고 있었고, 아테네인은 탑소스에서 뭍으로 식량을 날라 왔다.

이제 시라쿠사인은 제 맞선 성벽의 방책과 돌 쌓기가 충분히 나아갔다고 여겼고, 아테네인이 병력이 갈려 불리하게 싸우게 될까 두려워하고 제 성벽에 매달려 있느라 나와서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한 부족을 남겨 새 공사를 지키게 하고 도시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은 땅 밑으로 도시까지 들어가는 그들의 식수 관을 부수었다. 그리고 한낮에 나머지 시라쿠사인이 제 천막에 들고 더러는 도시로 돌아가기까지 하며 방책에 있는 자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기를 지켜보다가, 제 병력에서 뽑은 300명과 경보병에서 뽑아 이 일을 위해 무장시킨 얼마를 정해 느닷없이 있는 힘껏 달려 맞선 공사로 가게 했고, 그동안 나머지 군대는 두 부대로 나뉘어 하나는 장군 한 사람과 함께 적이 뛰쳐나올 경우에 대비해 도시 쪽으로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다른 장군과 함께 뒷문 곁의 방책으로 나아갔다. 300명은 공격해 방책을

빼앗았는데, 그 수비대는 방책을 버리고 아폴론 테메니테스 상 둘레의 외곽 공사 안으로 달아나 몸을 숨겼다. 쫓던 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들어간 뒤에 시라쿠사인에게 밀려 쫓겨났고 아르고스인과 아테네인 몇이 죽었다. 그 뒤 온 군대가 물러났고, 맞선 공사를 헐고 방책을 뽑아 그 말뚝을 제 공사선으로 날라 간 다음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이튿날 아테네인은 원형 보루에서 나아가 에피폴라이의 이쪽에서 큰 항구를 바라보는 늪 위의 벼랑을 요새로 만들었으니, 그곳이 그들의 공사가 평야와 늪을 가로질러 항구까지 내려가는 가장 짧은 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인은 나아가 두 번째 방책을 치기 시작했으니, 도시에서 출발해 늪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그 곁에 호를 파서 아테네인이 성벽을 바다까지 끌고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테네인은 벼랑의 공사를 끝내자마자 시라쿠사인의 방책과 호를 다시 쳤다. 그들은 함대에 탑소스에서 돌아 시라쿠사의 큰 항구로 들어오라고 명하고, 동틀 무렵에 에피폴라이에서 평야로 내려가 늪 가운데 진흙이 많고 가장 단단한 곳에 문짝과 널빤지를 깔아 그 위로 건너갔으며, 날이 밝을 무렵에는 호와 방책을 빼앗았고 다만 작은 한 부분만 남겨 나중에 차지했다. 이제 싸움이 벌어져 아테네인이 이겼으니, 시라쿠사인의 오른쪽 날개는 도시로 달아나고 왼쪽 날개는 강으로 달아났다. 뽑힌 아테네인 300명이 그 길을 끊으려고 달음질로 다리를 향해 밀고 나갔을 때, 기병 대부분을 곁에 두고 있던 시라쿠사인이 놀라 맞붙어 그들을 쫓아 버리고 아테네의 오른쪽 날개 위로 밀어냈는데, 그 충격에 오른쪽 날개의 첫 부족이 공황에 빠졌다. 이것을 보고 라마코스가 아테네의 왼쪽에서 궁수 몇과 아르고스인을 데리고 도우러 왔는데, 호 하나를 건너다가 함께 건넌 몇 사람과 더불어 홀로 남겨져 제 부하 대여섯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시라쿠사인은

이들의 주검을 곧바로 서둘러 낚아채 강 건너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고, 나머지 아테네군이 이제 올라오자 저희는 물러났다.

그러는 동안 처음에 도시로 달아나 몸을 숨겼던 자들은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이제 도시에서 다시 모여 제 앞의 아테네인에 맞서 대열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에피폴라이의 원형 보루로도 보냈으니 지키는 자들이 빠져나간 사이에 그것을 빼앗을 수 있으리라 바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10플레트론에 이르는 아테네인의 외곽 공사를 빼앗아 무너뜨렸으나 원형 보루 자체는 니키아스가 건졌으니, 그는 마침 병 때문에 그 안에 남아 있었고 이제 종들에게 명해 성벽 앞에 내려놓은 공성 기계와 목재에 불을 지르게 했다. 그가 알고 있던 대로 사람이 모자라 그 밖의 다른 방도로는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결과로 옳았음이 드러났으니, 시라쿠사인이 불 때문에 더는 나아오지 못하고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아래쪽에서는 제 앞의 병력을 쫓아 버린 아테네인들에게서 원군이 올라오고 있었고, 함대도 명령대로 탑소스에서 큰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높은 곳의 병력은 서둘러 물러났으며, 시라쿠사군 전체가 도시로 되돌아갔으니 지금의 저희 병력으로는 성벽이 바다에 이르는 것을 더는 막을 수 없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 뒤 아테네인은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휴전 아래 시라쿠사인에게 그 전사자를 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라마코스와 그와 함께 쓰러진 자들을 받았다. 이제 바다와 뭍의 병력 전부가 저희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은 에피폴라이와 벼랑에서 시작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겹으로 된 성벽으로 시라쿠사인을 에워쌌다. 이제 이탈리아 곳곳에서 원정군에 식량이 들어왔고, 여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켜보고 있던 시켈인 다수가 동맹으로 아테네인에게 왔으며, 티레니아에서도 노가 50개인 배 3척이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 다른 모든 일도 그들의 바람에 맞게 나아갔다.

시라쿠사인은 펠로폰네소스에서 아무 구원도 이르지 않자 무기로 안전을 찾는 일에 절망하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끼리, 또 라마코스가 죽은 뒤 홀로 지휘를 맡게 된 니키아스에게 타협할 길을 두고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아무 결정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곤경에 빠져 전보다 더 바짝 포위당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듯 니키아스와 주고받는 논의가 많았고 도시 안에서는 더 많았다. 지금의 불운은 또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재난의 탓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지휘를 맡고 있던 장군들의 불운이나 배신으로 돌려졌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대신 헤라클레이데스와 에우클레스와 텔리아스가 뽑혔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 사람 길리포스와 코린트에서 온 배들은 이제 레우카스 앞바다에 있었으니 서둘러 시칠리아를 구하러 가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른 소식이 불안한 것이었고 시라쿠사가 이미 완전히 에워싸였다는 거짓된 말에서 하나같이 일치했으므로, 길리포스는 시칠리아에 대한 희망을 모두 버리고 이탈리아만이라도 건지려는 마음으로 코린트 사람 피텐과 함께 라코니아 배 2척과 코린트 배 2척을 이끌고 이오니아해를 빠르게 건너 타렌툼으로 갔으며, 코린트인에게는 제 배 10척에 더해 레우카스 배 2척과 암브라키아 배 3척에 사람을 채운 뒤 뒤따라오라고 남겨 두었다. 타렌툼에서 길리포스는 먼저 투리이에 사절로 가서 제 아버지가 누렸던 시민권을 되살렸으나 그 도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하자 닻을 올려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 나아갔다. 테리나 만 맞은편에서 그는 그쪽에서 사납고 끊임없이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붙들려 바다로 밀려 나갔고, 몹시 거친 날씨를 겪은 뒤에 타렌툼으로 되돌아가 폭풍에 가장 많이 상한 배들을 뭍으로 끌어 올려 손보았다. 니키아스는 그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투리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배들의 적은 수를

업신여겼고, 그 항해의 목적은 해적질뿐이리라 여겨 당장은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다.

이번 여름 같은 무렵에 스파르타인은 동맹들과 함께 아르고스를 침공해 그 땅의 대부분을 짓밟았다. 아테네인은 함선 30척을 이끌고 아르고스인을 구하러 갔으니, 그리하여 스파르타인과 맺은 조약을 더없이 드러내 놓고 깨뜨린 셈이었다. 그때까지 아르고스인 및 만티네이아인과 함께한 일이라고는 필로스에서 나가 치는 것과 라코니아가 아닌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 해안에 내리는 것이 전부였고, 아르고스인이 잠깐만이라도 중장보병과 함께 라코니아에 내려 저희와 함께 그 땅을 아주 조금이라도 짓밟고 떠나 달라고 여러 번 청했음에도 그들은 늘 거절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피토도로스와 라이스포디오스와 데마라토스의 지휘 아래 에피다우로스 리메라와 프라시아이와 그 밖의 여러 곳에 내려 그 땅을 노략했고, 그리하여 스파르타인에게 아테네에 맞설 더 나은 구실을 안겨 주었다. 아테네인이 함대와 함께 아르고스에서 물러나고 스파르타인도 물러난 뒤에 아르고스인은 플리우스 땅으로 쳐들어가, 그 땅을 짓밟고 주민 얼마를 죽인 뒤 집으로 돌아갔다.

---

1.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2. 올림피에이온 — 시라쿠사 성 밖 아나포스강 가까이에 있던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봉헌된 보물이 모여 있었으므로 양쪽 모두 이곳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썼다.

3. 에포로스 — 스파르타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5명을 뽑았고 왕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번역에서는 '감독관'으로 옮기고 첫 등장에만 원어를 함께 밝혔다.

4. 프록세노스 — 제 나라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맞아 돌보던 사람. 나라가 그 자리를 맡겼고 대개 집안 대대로 이어졌으며 명예로 여겨졌다. 알키비아데스의 집안은 스파르타의 프록세노스였다.

5.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6.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뒤에 나오는 플레트론은 그 6분의 1로 약 30미터다.

21장 (제VII권 제XXI장) — 전쟁 제18년과 제19년 — 길리포스의 시라쿠사 도착 — 데켈레이아 요새화 — 시라쿠사인의 성공

배를 손본 뒤 길리포스와 피텐은 타렌툼에서 해안을 따라 에피제피리오이 로크리스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정확한 소식을 얻었으니, 시라쿠사가 아직 완전히 에워싸이지 않았고 에피폴라이에 이르는 군대라면 아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칠리아를 오른편에 두고 바닷길로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 아니면 시칠리아를 왼편에 두고 먼저 히메라로 배를 몰아 히메라인과 그 밖에 합류하기로 하는 이들을 데리고 뭍길로 시라쿠사에 갈 것인지를 의논했다. 마침내 그들은 히메라로 가기로 정했는데, 니키아스가 그들이 로크리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내보낸 아테네 함선 4척이 아직 레기온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특히 그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이 배들이 제자리에 닿기 전에 펠로폰네소스인은 해협을 건넜고 레기온과 메시나에 들렀다가 히메라에 이르렀다. 그곳에 닿은 그들은 히메라인을 설득해 전쟁에 함께하게 했고, 히메라인 자신이 함께 나설 뿐 아니라 히메라에 끌어 올려 둔 배에서 내린 뱃사람들 가운데 무기가 없는 이들에게 무기를 대어 주게 했다. 또 사람을 보내어 셀리누스인이 온 병력을 이끌고 자기들과 만날 자리를 정했다. 겔라인과 시켈인 가운데 일부도 얼마쯤 병력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은

이제 훨씬 더 선뜻 합류할 태세였으니 그 이웃의 힘 있는 시켈 왕이자 아테네와 가깝던 아르코니다스가 얼마 전에 죽었기 때문이고, 또 길리포스가 스파르타에서 오면서 보인 기세 때문이기도 했다. 이제 길리포스는 제 배의 뱃사람과 해병 가운데 약 700명을 데려갔는데 무기를 가진 것이 그만한 수뿐이었고, 여기에 히메라에서 온 중장보병과 경보병 1,000명과 기병 100기, 셀리누스에서 온 약간의 경보병과 기병, 얼마 안 되는 겔라인, 그리고 모두 합해 1,000명인 시켈인을 더해 시라쿠사를 향한 행군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 레우카스에서 온 코린트 함대는 서둘러 이르려 했는데, 그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곤길로스는 배 한 척으로 맨 나중에 떠나고도 길리포스보다 조금 앞서 시라쿠사에 가장 먼저 닿았다. 곤길로스가 보니 시라쿠사인은 전쟁을 끝낼 것인지를 의논하려고 민회를 열려던 참이었다. 그는 이를 막고, 배가 더 올 것이며 클레안드리다스의 아들 길리포스가 지휘를 맡도록 스파르타에서 파견되었다고 일러 그들을 안심시켰다. 이 말에 시라쿠사인은 용기를 얻어 곧바로 온 병력을 이끌고 길리포스를 맞으러 나아갔으니, 그가 이제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길리포스는 오는 길에 시켈인의 요새 이에타이를 차지한 뒤 군대를 전투 대형으로 세워 에피폴라이에 이르렀고, 아테네인이 처음에 했던 대로 에우리엘로스로 올라가 이제 시라쿠사인과 함께 아테네인의 방벽을 향해 나아갔다. 그가 다다른 때는 마침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아테네인은 큰 항구로 내려가는 7, 8스타디온[1]의 이중벽을 이미 마쳐 놓았고 다만 바다에 닿는 작은 구간만 아직 손대고 있었으며, 반대편 바다 쪽 트로길로스를 향한 나머지 원호에는 거리의 대부분에 걸쳐 쌓을 돌이 마련되어 있었고 어떤 곳은 반쯤 된 채로 남았으며 어떤 곳은 온전히 마무리되어 있었다. 실로 시라쿠사가 처했던 위험은 컸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은 길리포스와 시라쿠사인이 갑자기 다가오는 바람에 처음에 빠졌던 혼란에서 벗어나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길리포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서서 전령을 보내어, 닷새 안에 짐을 모두 꾸려 시칠리아를 떠난다면 그에 맞추어 휴전을 맺을 뜻이 있다고 전하게 했다. 아테네인은 이 제안을 업신여겨 전령을 답 없이 돌려보냈다. 그 뒤 양쪽은 싸울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길리포스는 시라쿠사인이 어지러워 대열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병력을 더 트인 땅으로 물렸고, 니키아스는 아테네인을 이끌고 나가지 않은 채 제 방벽 곁에 가만히 있었다. 길리포스는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군대를 테메니티스라 불리는 고지로 이끌고 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그는 군대의 본진을 이끌고 나와 아테네인의 방벽 앞에 전투 대형으로 세워 그들이 다른 곳을 구하러 가지 못하게 막아 놓고, 병력 일부를 라브달론 요새로 보내어 그곳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마주친 자를 모조리 칼로 베었으니, 그곳은 아테네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 같은 날 항구 앞바다에 매어 둔 아테네 삼단노선 한 척이 시라쿠사인에게 붙잡혔다.

그 뒤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도시에서 시작해 에피폴라이를 비스듬히 거슬러 올라가는 한 겹 벽을 쌓기 시작했으니, 아테네인이 그 일을 막지 못하는 한 더는 자기들을 에워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은 바다까지 내려가는 제 벽을 이제 다 쌓고 높은 데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 벽의 한 부분이 약한 것을 보고 길리포스가 밤에 군대를 이끌고 나와 그곳을 쳤다. 그러나 마침 바깥에서 한데 잠을 자던 아테네인이 낌새를 채고 맞으러 나오자, 그는 이를 보고 재빨리 부하들을 도로 데리고 갔다. 아테네인은 이제 그 벽을 더 높이 쌓고 앞으로는 이 지점을 스스로 지키면서 동맹들을 나머지 공사 구간에 저마다 맡은 자리로 배치했다. 니키아스는 또 도시 건너편에 튀어나와

큰 항구의 어귀를 좁히는 곶 플렘미리온을 요새로 삼기로 정했다. 그는 이곳을 요새로 만들면 보급을 들여오기가 더 쉬워지리라고 보았으니, 시라쿠사인이 쥔 항구 가까이에서 더 짧은 거리를 두고 봉쇄를 이어 갈 수 있고 적의 함대가 움직일 때마다 큰 항구의 안쪽 끝에서 배를 내어 맞서야 하는 일도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이제 바다의 전쟁에 더 마음을 쓰기 시작했으니, 길리포스가 온 뒤로 뭍에서 거는 희망이 줄어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배와 얼마간의 병력을 그리로 옮기고 요새 셋을 지어 그 안에 짐의 대부분을 두었으며 앞으로는 큰 배와 군선도 그곳에 매어 두었다. 선원들이 겪은 손실은 이것이 첫 번째이자 주된 계기였다. 그들이 쓰는 물은 넉넉하지 않아 먼 데서 길어 와야 했고, 뱃사람들은 그 땅을 주름잡는 시라쿠사 기병에게 잘려 나가지 않고서는 땔나무를 하러 나갈 수도 없었다. 적의 기병 3분의 1이 올림피에이온이라는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플렘미리온의 아테네인이 노략질하러 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니키아스는 코린트 함대의 나머지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함선 20척을 보내며 로크리스와 레기온 근처, 그리고 시칠리아로 드는 길목에서 그들을 지켜보라고 명했다.

그러는 동안 길리포스는 아테네인이 제 벽을 쌓으려고 놓아 둔 돌을 써서 에피폴라이를 가로지르는 벽을 이어 나가는 한편, 끊임없이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을 이끌고 나와 방벽 앞에 전투 대형으로 세웠고 아테네인도 그에 맞서 대형을 이루었다. 마침내 그는 때가 왔다고 보고 공격을 시작했다. 두 방벽 사이에서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그곳에서는 시라쿠사 기병이 쓸모가 없었고,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패해 휴전을 얻어 제 주검을 거두어 갔으며 아테네인은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그 뒤 길리포스는 병사들을 불러 모아,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대열을 공사 구간 안으로 너무 깊이

끌어들여 기병과 투창병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두 번째로 이끌고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물리적인 힘으로 보면 그들이 적과 넉넉히 맞먹는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청했고, 마음가짐의 이점으로 말하면 펠로폰네소스인이자 도리스인인 자들이 이오니아인과 섬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잡다한 무리를 이겨 그 땅에서 몰아낼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 뒤 그는 처음 찾아온 기회를 잡아 그들을 다시 적에게로 이끌었다. 한편 니키아스와 아테네인은, 설령 시라쿠사인이 싸움을 걸 뜻이 없다 하더라도 가로벽을 쌓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 벽이 이미 저희 벽의 끝점을 거의 지나쳐 뻗었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면 그 순간부터 싸움에서 아무리 여러 번 이기든 한 번도 싸우지 않든 아무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라쿠사인을 맞으러 나갔다. 길리포스는 지난번보다 중장보병을 방벽에서 더 멀리 이끌고 나와 싸움을 붙였고, 기병과 투창병은 두 벽의 공사가 끝나는 트인 땅에서 아테네인의 옆을 치도록 배치했다. 싸움이 한창일 때 기병이 저희와 맞선 아테네인의 왼쪽 날개를 쳐서 무너뜨렸고, 그 결과 아테네군의 나머지도 시라쿠사인에게 패해 제 방벽 안으로 곤두박질쳐 쫓겨 들어갔다. 그날 밤 시라쿠사인은 제 벽을 아테네인의 공사 구간까지 끌어 올려 그것을 지나쳐 버렸고, 그리하여 아테네인은 더는 그들을 막을 힘을 잃었으며 싸움터에서 이긴다 해도 앞으로 그 도시를 에워쌀 가망을 모두 빼앗겼다.

그 뒤 코린트 사람 에라시니데스가 이끄는 코린트인과 암브라키아인과 레우카스인의 남은 배 12척이 지키고 있던 아테네 함선을 따돌리고 항구로 들어와, 가로벽에 이르기까지 남은 구간을 시라쿠사인과 함께 쌓았다. 그러는 동안 길리포스는 시칠리아의 나머지

지역으로 가서 뭍과 바다의 병력을 모으고, 또 이 일에 미지근하거나 지금까지 전쟁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은 도시들을 끌어들이려 했다. 시라쿠사와 코린트의 사절도 스파르타와 코린트로 파견되어, 상선으로든 수송선으로든 성공할 성싶은 어떤 길로든 새 병력을 건너보내 달라고 청했으니 아테네인도 증원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 시라쿠사인은 함대에 사람을 채우고 훈련을 시작했으니 이 길로도 운을 걸어 보려는 것이었고 전반적으로 대단히 자신만만해졌다.

니키아스는 이를 알아채고 적의 힘과 제 어려움이 날마다 커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아테네로 사람을 보냈다. 그는 전에도 일이 일어나는 대로 자주 보고를 보냈으나 이제는 특히 그래야 한다고 여겼으니, 자기들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으며 빨리 소환되거나 본국에서 강한 증원을 받지 못하면 무사할 가망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전령들이 말솜씨가 모자라서든 기억이 흐려서든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는 마음에서든 사실대로 전하지 않을까 걱정했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편이 가장 낫다고 보았으니, 제 견해가 전해지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아테네인에게 그대로 알려져 그들이 일의 실상을 놓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보낸 사람들은 편지와 함께 전해야 할 구두 지시를 받아 떠났고, 그는 군대의 일을 돌보면서 이제는 지키는 데 힘쓰고 쓸데없는 위험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같은 여름이 끝날 무렵 아테네 장군 에우에티온은 페르디카스와 힘을 합해 많은 트라키아인을 이끌고 암피폴리스로 진군했으나,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자 삼단노선 몇 척을 스트리몬으로 돌려 들여보내 히메라이온을 근거지로 삼고 강에서 그 도시를 봉쇄했다.

이제 여름이 끝났다. 이어지는 겨울에 니키아스가 보낸 사람들이 아테네에 이르러 맡아 온 구두 전언을 전하고 묻는 말에 답한 뒤 편지를

내놓았다. 그러자 나라의 서기가 앞으로 나와 아테네인에게 그 편지를 읽어 주었으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테네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른 여러 편지로 이미 여러분께 알려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금 형편도 그만큼 소상히 아시고 그에 맞추어 조치를 취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치러 보내진 시라쿠사인과 싸워 대부분의 접전에서 이겼고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사를 쌓아 올렸는데, 그때 길리포스가 펠로폰네소스와 시칠리아의 몇몇 도시에서 얻은 군대를 이끌고 스파르타에서 왔습니다. 그와 벌인 첫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겼으나, 이튿날의 싸움에서는 수많은 기병과 투창병에게 눌려 우리 방벽 안으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맞선 자들의 수에 밀려 포위벽 쌓는 일을 그만두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병력조차 다 쓰지 못하고 있으니 중장보병의 일부가 우리 방벽을 지키는 데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적은 한 겹 벽을 우리 방벽 너머까지 쌓아 올렸고, 그리하여 이 가로벽을 강한 병력으로 쳐서 빼앗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에워싸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이름으로는 에워싼 쪽이 적어도 뭍에서는 실제로 에워싸인 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병 때문에 들판으로 조금 나가는 것조차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증원을 얻으려고 펠로폰네소스로 사절이 떠났고, 길리포스는 시칠리아의 도시들로 갔으니 한편으로는 지금 중립인 도시들을 설득해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다른 도시들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뭍 병력을 더 얻고 함대에 쓸 물자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들은 뭍 병력으로 우리 방벽을, 함대로 바다를 한꺼번에 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로도 친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놀라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토록 오래 바다에 나와 있어 배가 썩고 선원이 축났다는 것을, 그리고 선원이 온전하던 것과 배가 성하던 것과 함께 우리 함대의 예전 같던 실력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로서는 배를 뭍에 끌어 올려 기울여 손볼 수가 없으니, 적의 배가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많아 우리는 늘 공격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먼저 움직일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으며, 봉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배를 말리기에도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 있는 배가 넉넉하고 지금처럼 온 힘을 봉쇄에 쏟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난다 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시라쿠사를 지나 보급을 들여오는 일이 어려운 마당에, 우리가 경계를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그 일은 아주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원들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손실은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 옵니다. 땔감과 꼴을 구하러 나가는 일, 그리고 물을 길어 와야 하는 거리 때문에 우리 뱃사람들이 시라쿠사 기병에게 잘려 나갑니다. 우리가 전에 누리던 우세를 잃자 우리 노예들이 대담해져 달아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외국 뱃사람들은 우리를 맞상대하는 함대가 뜻밖에 나타난 것과 적의 저항이 억센 것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 가운데 억지로 끌려온 자들은 첫 기회를 잡아 제 도시로 떠나고, 본디 높은 삯에 끌려와 싸울 일은 적고 벌이는 크리라 여겼던 자들은 적에게로 넘어가거나 시칠리아가 워낙 커서 생기는 여러 도망칠 길 가운데 하나를 잡아 우리를 떠납니다. 어떤 자들은 아예 장사에 손을 대고 선장을 구슬려 제 자리에 히카라 노예를 태우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함대의 실력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선원이 한창인 때가 짧다는 것, 그리고 배를 움직여 나아가게 하고 노젓는 박자를 맞출 수 있는 뱃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은 굳이 여러분께

일깨워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제가 장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폐단들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인의 성품은 본디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선원을 새로 채울 곳이 없으니, 적은 여러 곳에서 채울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일하는 선원을 대는 일에서나 잃은 자리를 메우는 일에서나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편인 낙소스와 카타나는 우리에게 사람을 대어 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들에게는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됩니다. 곧 이탈리아의 시장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우리를 지금의 처지에서 건져 내는 일을 소홀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적에게 넘어간다면, 굶주림이 우리를 물러나게 할 것이고 시라쿠사는 한 번 치지도 않고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와 다른, 더 듣기 좋은 것을 써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이곳의 실상을 아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보다 더 쓸모 있는 것은 분명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여러분의 성품이 무슨 일이든 가장 좋은 쪽으로 듣기를 좋아하시다가 그렇게 품게 된 기대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한 사람을 탓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아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이곳에 온 목적에 관한 한 병사들도 지휘관들도 여러분께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나 시칠리아 전체의 연합이 우리를 겨누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펠로폰네소스에서 새 군대가 오리라는 것, 그리고 이곳의 병력은 지금의 적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소환하시든지, 아니면 지금만 한 함대와 군대를 다시 한 번 큰돈과 함께 이곳으로 보내시고 저를 대신할 사람도 보내시든지 지체 없이 정하셔야 합니다. 콩팥에

병이 들어 저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너그러움을 바랄 만한 까닭이 얼마쯤 있다고 봅니다. 한창때에는 지휘를 맡아 여러분께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시든 봄이 시작될 때 지체 없이 하십시오. 적은 시칠리아에서 오는 증원을 머지않아 얻을 것이고 펠로폰네소스에서 오는 증원은 그보다 늦게 얻을 것이니, 여러분께서 이 일을 돌보지 않으시면 앞의 것은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이를 것이고 뒤의 것은 전처럼 여러분의 눈을 피해 빠져나올 것입니다."

니키아스의 편지에 담긴 것은 이러했다. 아테네인은 그것을 듣고 그의 사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가 병든 몸으로 홀로 일의 무게를 온통 떠안지 않도록 새 동료가 이를 때까지 그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싸움터에 있는 장교 가운데 메난드로스와 에우티데모스 두 사람을 뽑아 붙여 주었다. 또 군대와 함대를 새로 내보내기로 의결했는데, 일부는 병적 명부에 오른 아테네인에서 일부는 동맹에서 뽑기로 했다. 니키아스의 동료로 뽑힌 이는 알키스테네스의 아들 데모스테네스와 투클레스의 아들 에우리메돈이었다. 에우리메돈은 동지 무렵에 곧바로 함선 10척과 은 120탈란톤[2]을 가지고 떠났으며, 증원이 올 것이고 그들을 돌보아 주리라는 것을 군대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데모스테네스는 원정을 꾸리려고 뒤에 남아 봄이 되는 대로 떠날 작정이었고, 동맹들에 사람을 보내어 병력을 청하는 한편 본국에서 돈과 배와 중장보병을 모았다.

아테네인은 또 코린트나 펠로폰네소스에서 아무도 시칠리아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배 20척을 펠로폰네소스 둘레로 보냈다. 코린트인은 사절이 돌아와 전한 시칠리아 정세의 좋은 변화에 자신을 얻었고 전에 내보낸 함대가 쓸모없지 않았다고 믿게 되어, 이제 중장보병 병력을 상선에 태워 시칠리아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었으며

스파르타도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코린트인은 또 함선 25척에 사람을 채웠으니, 나우팍토스에서 지키고 있는 함대와 싸워 결판을 볼 생각이었고 그동안 그곳 아테네인이 저희를 겨누어 늘어선 삼단노선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여 제 상선이 떠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인은 앞서 스스로 내린 결의에 따라, 또 아테네가 시칠리아로 보내려 한다는 증원을 막으려고 침공을 바란 시라쿠사인과 코린트인의 부추김을 받아 아티카 침공을 준비했다. 알키비아데스도 데켈레이아를 요새로 삼고 전쟁을 힘차게 밀고 나가라고 거듭 권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이 가장 큰 힘을 얻은 것은, 아테네가 자기들과 시칠리아 그리스인을 상대로 두 전쟁을 떠안았으니 굴복시키기가 더 쉬우리라는 믿음에서였고, 또 휴전을 먼저 깬 쪽이 아테네라는 확신에서였다. 앞선 전쟁에서는 잘못이 자기들 쪽에 더 있었다고 그들은 보았으니, 테베인이 평화로운 때에 플라타이아에 들어간 일 때문이었고 또 중재가 제안되는 곳에서는 무기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앞선 조약에 있었는데도 아테네가 내민 중재 제안을 듣지 않으려 한 일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제 불운이 마땅하다고 여겼고 필로스의 재앙과 그 밖에 자기들에게 닥친 일을 마음에 무겁게 새겼다. 그러나 필로스에서 약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테네 함선 30척이 아르고스에서 나와 에피다우로스와 프라시아이와 다른 곳들의 일부를 짓밟았을 때, 또 조약의 모호한 대목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들이 내민 중재 제안이 번번이 아테네인에게 거절당했을 때, 스파르타인은 마침내 아테네가 이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죄를 진 쪽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전쟁을 향한 열의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겨울을 동맹들에 두루 사람을 보내 쇠를 구하고 요새를 지을 다른 연장을 마련하는 데

썼으며, 그러는 한편 본국에서, 또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에서는 강제 징발로도 병력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니 상선에 태워 시칠리아의 동맹들에게 보내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겨울이 끝났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쓴 이 전쟁의 제18년이 끝났다.

이듬해 봄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여느 때보다 이른 시기에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은 스파르타 왕이며 아르키다모스의 아들인 아기스의 지휘 아래 아티카를 침공했다. 그들은 먼저 평야에 잇닿은 지역을 짓밟고 다음으로 데켈레이아를 요새로 삼는 일에 들어가 도시별로 일을 나누었다. 데켈레이아는 아테네 도시에서 120스타디온쯤 떨어져 있고 보이오티아에서도 그만한 거리이거나 그보다 그리 멀지 않으며, 그 요새는 아테네에서 바라보이는 자리에서 평야와 그 땅의 가장 기름진 지역을 괴롭히려고 지은 것이었다. 아티카에 있던 펠로폰네소스인과 그 동맹들이 요새 공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본국에 있던 그 동포들은 거의 같은 때에 중장보병을 상선에 태워 시칠리아로 보냈다. 스파르타인은 헬롯[3]과 네오다모데이스[4] 곧 해방된 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은 자들을 골라 모두 중장보병 600명을 내놓았고 스파르타 시민[5] 에크리토스가 이들을 지휘했으며, 보이오티아인은 중장보병 300명을 내놓았고 테베인 크세논과 니콘, 그리고 테스피아이 사람 헤게산드로스가 이들을 지휘했다. 이들은 라코니아의 타이나론에서 떠나 맨 먼저 넓은 바다로 나아간 축에 들었다.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린트인이 중장보병 500명을 내보냈는데 일부는 코린트 자체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아르카디아 용병이었으며 코린트 사람 알렉사르코스가 이들을 지휘했다. 시키온인도 코린트인과 같은 때에 중장보병 200명을 내보냈고 시키온 사람 사르게우스가 이들을 지휘했다. 그러는 동안 겨울에 코린트가 사람을 채워 둔 배 25척은 상선에 탄 중장보병이 펠로폰네소스에서

무사히 길을 떠날 때까지 나우팍토스의 아테네 함선 20척과 맞서 자리를 지켰으니, 아테네인의 눈길을 상선에서 삼단노선으로 돌려놓는다는 본디 그 배들에 사람을 채운 목적을 그렇게 이룬 것이었다.

이 무렵 아테네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데켈레이아가 요새로 굳어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바로 봄이 시작될 때 그들은 아폴로도로스의 아들 카리클레스의 지휘 아래 배 30척을 펠로폰네소스 둘레로 보내며 아르고스에 들러 동맹에 따라 함대에 태울 아르고스 중장보병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때에 그들은 작정한 대로 데모스테네스를 시칠리아로 보냈으니, 아테네 함선 60척과 키오스 함선 5척, 병적 명부에서 뽑은 아테네 중장보병 1,200명, 그리고 여러 곳에서 모을 수 있는 만큼의 섬사람을 딸려 보냈고 그 밖의 예속 동맹들에서도 전쟁에 쓸모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두어들였다. 데모스테네스는 먼저 카리클레스와 함께 배를 몰아 돌면서 그와 힘을 합해 라코니아 해안을 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리하여 아이기나로 가서 그곳에서 제 병력의 나머지와 아르고스 병력을 데리러 간 카리클레스를 기다렸다.

시칠리아에서는 이 봄 거의 같은 때에 길리포스가 합류하도록 설득한 도시들에서 데려올 수 있는 만큼의 병력을 이끌고 시라쿠사로 돌아왔다. 그는 시라쿠사인을 불러 모아 되도록 많은 배에 사람을 채워 해전에 손을 대 보아야 한다고 말했으니, 그 위험을 무릅쓸 만한 이점을 전쟁에서 얻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헤르모크라테스도 그와 함께 열심히 나서서 동포들에게 바다에서 아테네인을 치라고 북돋우며, 아테네인이 해군의 뛰어남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지니지도 않으리라고 말했다. 그들은 시라쿠사인보다도 더 뭍의 사람들이었고 메디아인에게 몰려서야 바다의 힘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테네인처럼 대담한 자들에게는 대담한 상대가 가장 무섭게 보이는 법이니, 힘에서 저희에게 뒤지지 않는 이웃을 대담한 공격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아테네인의 수법을 이제 시라쿠사인이 그들에게 똑같이 잘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시라쿠사인이 감히 아테네 함대와 맞선다는 뜻밖의 광경이 적에게 두려움을 심을 것이며, 그 이점이 아테네의 기술이 자기들의 서투름에 입힐 어떤 손실보다도 훨씬 크리라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그는 두려움을 떨치고 바다에서 운을 걸어 보라고 재촉했고, 시라쿠사인은 길리포스와 헤르모크라테스, 그리고 아마 다른 몇 사람의 영향을 받아 해전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배에 사람을 채우기 시작했다.

함대가 채비를 갖추자 길리포스는 밤에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그의 계획은 자기가 직접 뭍에서 플렘미리온의 요새들을 치는 동안, 시라쿠사 삼단노선 35척이 약속대로 큰 항구에서 적을 향해 배를 몰고 나머지 45척은 병기창이 있는 작은 항구에서 돌아 나와 안쪽 배들과 합류해 동시에 플렘미리온을 치게 하여, 두 쪽에서 한꺼번에 들이침으로써 아테네인의 정신을 흩어 놓는 것이었다. 아테네인은 재빨리 배 60척에 사람을 채우고 그 가운데 25척으로 큰 항구에서 시라쿠사 배 35척과 맞섰으며, 나머지는 병기창에서 돌아 나오는 배들을 맞으러 보냈다. 그리하여 큰 항구 어귀 바로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양쪽이 똑같이 끈질기게 버텼으니, 한쪽은 물목을 뚫으려 했고 다른 쪽은 그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는 동안 플렘미리온의 아테네인이 바닷가에 내려가 싸움을 지켜보고 있을 때, 길리포스는 이른 아침에 요새들을 느닷없이 들이쳐 가장 큰 것을 먼저 차지하고 이어 작은 두 곳도 차지했으니, 가장 큰 곳이 그토록 쉽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곳 수비병이 그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요새가 떨어질 때 그곳에서 빠져나와 제 배와 상선으로 피한 자들은 진영에 닿기가 몹시 어려웠으니, 큰 항구의 싸움에서 시라쿠사인이 우세했고 빠른 삼단노선 한 척을 보내어 그들을

뒤쫓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곳이 떨어질 때에는 시라쿠사인이 지고 있던 터라, 그곳에서 달아난 자들은 해안을 따라 더 수월하게 배를 몰았다. 항구 어귀에서 싸우던 시라쿠사 배들은 아테네 함선들 사이로 밀고 들어왔다가 대열 없이 항해한 탓에 저희끼리 부딪혀 승리를 아테네인에게 넘겨주었다. 아테네인은 이 함대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처음에 저희를 이기고 있던 항구 안의 함대도 무너뜨려, 시라쿠사 배 11척을 가라앉히고 사람 대부분을 죽였으며 다만 배 세 척의 선원은 사로잡았다. 저희 쪽 손실은 배 세 척에 그쳤다. 그런 뒤 시라쿠사인의 난파선을 뭍으로 끌어 올리고 플렘미리온 앞의 작은 섬에 전승 기념물을 세운 다음 제 진영으로 물러났다.

시라쿠사인은 바다에서는 이기지 못했으나 플렘미리온의 요새들을 손에 넣었고 그것을 두고 전승 기념물 셋을 세웠다. 나중에 차지한 두 곳 가운데 하나는 허물고 나머지 둘은 손보아 수비병을 두었다. 요새들이 떨어질 때 많은 사람이 죽고 사로잡혔으며 온갖 재물이 크게 빼앗겼다. 아테네인이 그곳을 창고로 썼던 터라 그 안에는 상인들의 물건과 곡식이 많이 쌓여 있었고 선장들의 것도 많았으며, 삼단노선 40척분의 돛과 그 밖의 비품이 빼앗겼고 뭍에 끌어 올려 둔 삼단노선 세 척도 함께 넘어갔다. 실로 아테네군이 무너진 첫째가는 주된 원인은 플렘미리온을 빼앗긴 일이었다. 이제는 항구의 어귀조차 보급을 들여오기에 안전하지 않게 되었으니, 시라쿠사 배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그것을 막았고 싸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들여올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밖에도 군대 전체에 낙담과 실의가 퍼졌기 때문이다.

그 뒤 시라쿠사인은 시라쿠사 사람 아가타르코스의 지휘 아래 배 12척을 내보냈다. 그 가운데 한 척은 사절을 태우고 펠로폰네소스로 가서 자기들 사정이 희망차다는 것을 알리고 그곳 펠로폰네소스인이 지금보다 더 힘차게 전쟁을 밀고 나가도록 부추기게 했고, 나머지 열한

척은 물자를 실은 배들이 아테네인에게 오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탈리아로 갔다. 그 배들을 만나 대부분을 부수고 카울로니아 땅에서 아테네인을 위해 마련해 둔 배 만들 재목을 많이 태운 뒤, 시라쿠사 함대는 로크리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닻을 내리고 있는 동안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상선 한 척이 테스피아이 중장보병을 싣고 들어오자, 그들은 이들을 배에 옮겨 태우고 해안을 따라 본국으로 배를 몰았다. 아테네인이 메가라에서 배 20척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사람과 함께 배 한 척을 잡았을 뿐 나머지는 무사히 시라쿠사로 빠져나갔다. 항구에서는 시라쿠사인이 옛 선창 앞 바다에 박아 둔 말뚝을 두고도 얼마간 싸움이 있었으니, 아테네인이 다가와 들이받아도 제 배가 상하지 않도록 그 안쪽에 배를 대어 두려고 박은 것이었다. 아테네인은 적재량 1만 탈란톤의 배 한 척에 나무 망루와 가리개를 갖추어 그곳으로 몰고 가서, 작은 배에서 말뚝에 밧줄을 걸어 비틀어 뽑고 부러뜨렸으며 물에 들어가 톱으로 잘라 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인은 선창에서 화살을 퍼부었고 아테네인은 그 큰 배에서 받아쳤으며, 마침내 말뚝 대부분이 아테네인의 손에 뽑혔다. 그러나 이 말뚝 울타리에서 가장 성가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다. 박아 둔 말뚝 가운데 어떤 것은 물 위로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탓에 암초에 올라앉듯 배를 그 위에 올려놓을까 두려워 다가가기가 위험했던 것이다. 그러나 잠수부들이 내려가 삯을 받고 이것들까지 잘라 냈고, 시라쿠사인은 다시 다른 말뚝을 박아 넣었다. 실로 이토록 가까이 마주 선 두 적군 사이에서 으레 그러하듯 서로를 겨누어 짜낸 꾀에는 끝이 없었고, 작은 싸움과 온갖 시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인은 코린트인과 암브라키아인과 스파르타인으로 이루어진 사절단을 여러 도시에 보내어 플렘미리온을 차지한 일을 알리고, 해전에서 진 것은 적이 강해서라기보다 저희가 어지러웠던 탓이라고

전했으며,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희망에 차 있음을 알리고 배와 병력을 가지고 도우러 와 달라고 청했으니, 아테네인이 새 군대를 이끌고 오리라고 하는 만큼 그것이 이르기 전에 이미 와 있는 군대를 부술 수 있다면 전쟁이 끝나리라는 것이었다.

시칠리아에서 겨루는 두 편이 이렇게 얽혀 있는 동안, 데모스테네스는 섬으로 가지고 갈 병력을 이제 다 모아 아이기나에서 배를 내어 펠로폰네소스로 항해해 카리클레스와 아테네 함선 30척에 합류했다. 아르고스에서 중장보병을 태운 그들은 라코니아로 배를 몰아, 먼저 에피다우로스 리메라의 일부를 노략질한 다음 키테라 건너편 아폴론 신전이 서 있는 라코니아 해안에 내려 그 땅의 일부를 짓밟고 지협 같은 곳에 요새를 세웠다. 스파르타의 헬롯이 그리로 달아날 수 있게 하고 필로스에서처럼 그곳에서 노략질하러 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곳을 차지하는 일을 돕고 나서 곧바로 코르키라로 배를 몰아 그 섬의 동맹 몇을 태우고 지체 없이 시칠리아로 나아가려 했고, 한편 카리클레스는 그곳의 요새 공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비병을 남겨 두고 그 뒤에 함선 30척과 아르고스인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여름에 칼을 쓰는 디이족 트라키아인으로 이루어진 경방패병[6] 1,300명이 아테네에 이르렀는데, 데모스테네스와 함께 시칠리아로 갈 예정이던 자들이었다. 너무 늦게 온 터라 아테네인은 이들을 온 곳인 트라키아로 돌려보내기로 정했으니, 한 사람마다 하루 삯이 1드라크메[7]였으므로 데켈레이아 전쟁을 위해 붙들어 두기에는 너무 비싸 보였기 때문이다. 실로 이 여름에 펠로폰네소스 군 전체가 데켈레이아를 처음 요새로 삼고 그 뒤로 여러 도시에서 온 수비대가 정해진 간격으로 서로 교대하며 그 땅을 괴롭히려고 그곳을 차지한 뒤로, 그것은 아테네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었다. 실상 이 점거는

재산이 무너지고 사람을 잃게 만들어 그들이 무너진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전에는 침공이 짧아 나머지 기간에는 제 땅을 누리는 데 걸림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적이 아티카에 눌러앉았다. 어느 때는 큰 병력을 몰아 치는 일이었고 어느 때는 정규 수비대가 그 땅을 휩쓸며 먹을 것을 찾아 노략질하는 일이었으며, 스파르타 왕 아기스가 싸움터에 나와 부지런히 전쟁을 밀고 나갔으므로 아테네인은 큰 해를 입었다. 그들은 제 땅을 통째로 빼앗겼다. 노예 2만 명이 넘게 달아났는데 그 가운데 큰 몫이 장인이었고 양과 짐 나르는 짐승도 모두 잃었으며, 기병이 날마다 데켈레이아로 나가 그 땅을 지키느라 말을 몰았으므로 말은 바위땅에서 끊임없이 부려진 탓에 절름거리게 되거나 적에게 다쳤다.

이 밖에도 전에는 오로포스에서 데켈레이아를 지나 뭍으로 훨씬 빠르게 실어 오던 에우보이아의 식량을 이제는 수니온을 돌아 바닷길로 큰 비용을 들여 들여왔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밖에서 들여와야 했고,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요새가 되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테네인은 성벽을 지키느라 지쳐 갔으니, 낮에는 번갈아 밤에는 기병을 빼고 모두가 여러 초소나 성벽 위에서 지켜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을 짓누른 것은 두 전쟁을 한꺼번에 떠안았다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누가 들었다면 아무도 있을 법하다고 믿지 않았을 고집스러운 승부욕의 지경에 이르렀다. 펠로폰네소스인이 아티카에 진을 치고 저희를 에워싼 처지에서도 시칠리아에서 물러나기는커녕 그곳에 남아, 도시로만 놓고 보면 아테네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도시 시라쿠사를 똑같이 에워싸고 있으리라고, 또 전쟁이 시작될 때 펠로폰네소스인이 제 땅을 침공하면 한 해는 버티리라고 여긴 이가 있고 두 해라고 여긴 이가 있었으며 세 해를 넘으리라고 여긴 이는 아무도 없었던 그 백성이 첫 침공으로부터

17년이 지난 이제 전쟁의 온갖 재앙을 이미 겪고도 시칠리아로 건너가 펠로폰네소스인을 상대로 이미 치르는 전쟁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새 전쟁을 떠맡는 광경을 보이리라고, 그리하여 그들의 힘과 대담함에 대한 그리스인의 평가를 그토록 철저히 뒤엎으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정과 데켈레이아에서 비롯한 큰 손실과 그 밖에 그들에게 떨어진 무거운 부담이 재정의 궁핍을 낳았다. 그리고 이 무렵 그들은 신민들에게 공납 대신 바닷길로 드나드는 모든 물품에 20분의 1세를 매겼으니,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오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출이 이제 처음과 같지 않고 전쟁과 함께 불어난 반면 수입은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돈이 없는 때에 비용을 더 지지 않으려고, 그들은 데모스테네스에게 대기에는 너무 늦게 온 트라키아인들을 곧바로 디이트레페스의 인솔 아래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에우리포스를 지나갈 것이므로 해안을 따라 배를 모는 동안 될 수 있으면 이들을 써서 적에게 해를 입히라고 지시했다. 디이트레페스는 먼저 이들을 타나그라에 내려놓아 재빨리 얼마간의 노획물을 채어 갔고, 이어 저녁에 에우보이아의 칼키스에서 에우리포스를 건너 보이오티아에 내려 이들을 이끌고 미칼레소스로 갔다. 그는 미칼레소스에서 16스타디온쯤 떨어진 헤르메스 신전 근처에서 들키지 않고 밤을 지낸 뒤 날이 새자 그 도시를 들이쳐 차지했는데, 그곳은 큰 도시가 아니었고 주민들은 경계하지 않았으며 바다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까지 누가 와서 저희를 괴롭히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성벽도 약해 어떤 곳은 무너져 내렸고 어떤 곳은 높이 쌓아 올리지도 않은 데다 마음을 놓은 탓에 성문마저 열어 둔 채였다. 트라키아인은 미칼레소스로 밀려들어 집과 신전을 털고 주민들을 베었으니, 젊은이도 늙은이도 가리지 않고 마주치는 자를 차례로 모조리 죽였으며 아이도 여자도 짐 나르는 짐승도

그 밖에 눈에 띄는 살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죽였다. 트라키아 종족은 가장 피에 굶주린 이민족과 같아 두려워할 것이 없을 때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어디에나 혼란이 넘치고 온갖 모습의 죽음이 판을 쳤으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큰 사내아이 학교를 덮쳐 아이들이 막 들어간 그곳에서 그들을 모조리 죽였다. 요컨대 그 도시 전체에 떨어진 재앙은 그 크기에서 견줄 것이 없었고 그 느닷없음과 참혹함에서는 가까이 다가설 것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테베인이 이 소식을 듣고 구하러 나아가, 트라키아인이 멀리 가기 전에 따라잡아 노획물을 도로 빼앗고 그들을 에우리포스와 바다로 쫓아 몰아붙였으니 그곳에는 그들을 실어 온 배들이 놓여 있었다. 가장 많이 죽은 것은 그들이 배에 오를 때였다. 헤엄칠 줄 몰랐기 때문이고, 배에 있던 자들은 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화살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배를 물려 놓았기 때문이다. 물러나는 나머지 과정에서 트라키아인은 먼저 자기들을 친 테베 기병을 상대로 꽤 훌륭하게 막아 내어, 제 나라의 전법대로 달려 나갔다가 대열을 좁히며 싸웠고 그 대목에서는 몇 사람만 잃었다. 노획물을 노리던 일부는 도시 안에서 그대로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모두 합해 트라키아인은 1,300명 가운데 250명을 잃었고, 테베인과 구하러 온 나머지 사람들은 기병과 중장보병을 합해 약 20명을 잃었으며 보이오타르케스[8] 가운데 하나인 스키르폰다스도 그 가운데 있었다. 미칼레소스인도 일부가 목숨을 잃었다.

미칼레소스가 이렇게 그 규모로 보아 전쟁 중에 일어난 어떤 일 못지않게 통탄할 재앙을 겪는 동안, 라코니아에 요새를 세운 뒤 코르키라로 배를 몰아 갔다고 한 데모스테네스는 엘리스의 페아에 상선 한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코린트 중장보병이 그 배로 시칠리아에 건너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그 배는 부수었으나 사람들은

달아났고, 이들은 뒤에 다른 배를 얻어 항해를 이어 갔다. 그 뒤 그는 자킨토스와 케팔레니아에 이르러 중장보병 한 무리를 배에 태우고, 나우팍토스에서 메세니아인 몇을 불러오게 한 다음 건너편 아카르나니아 해안의 알리지아로, 또 아테네인이 쥐고 있던 아낙토리온으로 건너갔다. 그가 이 지역에 있는 동안 시칠리아에서 돌아오는 에우리메돈을 만났으니, 앞서 말한 대로 겨울에 군대에 줄 돈을 가지고 파견되었던 사람이다. 에우리메돈은 그에게 소식을 전하며 바다에 있는 동안 시라쿠사인이 플렘미리온을 차지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곳에서 나우팍토스의 지휘관 코논도 그들에게 와서, 저와 맞서 자리 잡은 코린트 배 25척이 전쟁을 그만두기는커녕 한판 싸움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래서 제가 가진 18척으로는 적의 25척을 당할 수 없으니 배를 몇 척 보내 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데모스테네스와 에우리메돈은 배를 가장 잘 모는 10척을 코논과 함께 보내어 나우팍토스의 함대를 보강하게 하고 그러는 동안 제 병력을 모을 채비를 했으니, 이제 데모스테네스의 동료가 되어 그 임명 때문에 되돌아온 에우리메돈은 코르키라로 배를 몰아 그곳 사람들에게 배 15척에 사람을 채우라고 이르고 중장보병을 뽑았으며 데모스테네스는 아카르나니아 근방에서 투석병과 투창병을 모았다.

그러는 동안 플렘미리온이 떨어진 뒤 시라쿠사에서 여러 도시로 떠났다고 앞서 말한 사절들은 임무를 이루어 모아 놓은 군대를 데려오려던 참이었는데, 니키아스가 낌새를 채고 고갯길을 쥐고 있던 켄토리파인과 알리키아이인과 그 밖의 우호적인 시켈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적을 지나가게 두지 말고 힘을 합해 그 통행을 막으라고 청했다. 아크라가스인이 제 땅을 지나가게 해 주지 않을 터이므로 그들이 시도해 볼 만한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이다. 이 청에 따라 시켈인은 행군하는 시칠리아 그리스인을 노려 세 겹으로 매복을 깔았고, 그들이 경계하지

않는 틈에 느닷없이 쳐서 약 800명과 사절 전원을 죽였으며 다만 코린트 사절 한 사람만 살아남아 빠져나온 1,500명을 시라쿠사로 이끌고 갔다.

거의 같은 때에 카마리나인도 중장보병 500명과 투창병 300명과 궁수 300명을 데리고 시라쿠사를 도우러 왔고, 겔라인은 배 다섯 척분의 선원과 투창병 400명과 기병 200기를 보냈다. 실로 이제 시칠리아의 거의 전체가, 중립을 지킨 아크라가스인을 빼고는, 지금까지처럼 사태를 지켜보기만 하던 태도를 버리고 아테네인에 맞서 시라쿠사 편에 적극 가담했다.

시켈인에게 당한 재앙 뒤에 시라쿠사인이 아테네인을 당장 치는 일을 미루는 동안, 코르키라와 본토에서 모은 병력이 이제 채비를 마친 데모스테네스와 에우리메돈은 온 군세를 이끌고 이오니아만을 건너 이아피기아곶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떠나 이아피기아 앞바다에 놓인 코이라데스 섬들에 들러 메사피아 부족의 이아피기아 투창병 150명을 태웠으며, 이 투창병을 대어 준 족장 아르타스와 오랜 우의를 새로 다진 뒤 이탈리아의 메타폰티온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그들은 동맹인 메타폰티온인을 설득해 투창병 300명과 삼단노선 두 척을 딸려 보내게 하고, 이 병력을 더해 해안을 따라 투리이로 갔다. 그곳에서는 아테네에 적대하던 파당이 얼마 전 정변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그곳에 머물러 온 군대를 모아 점검하며 뒤처진 자가 없는지 살피고, 투리이인이 마음을 다해 자기들의 원정에 함께하도록, 또 처한 형편으로 보아 아테네인과 공수동맹을 맺도록 설득했다.

거의 같은 때에 시칠리아로 가는 수송선의 통행을 지키려고 나우팍토스의 함대와 맞서 자리 잡고 있던 펠로폰네소스인의 배 25척도 싸울 채비를 마쳤고, 배 몇 척에 사람을 더 채워 수에서 아테네인에게 별로 뒤지지 않게 한 뒤 아카이아의 리페스 지방 에리네오스 앞바다에 닻을 내렸다. 그들이 놓인 곳은 초승달 모양이었으므로 코린트인과 그곳

동맹들이 댄 뭍 병력이 올라와 양쪽으로 튀어나온 곶에 늘어섰고, 코린트 사람 폴리안테스의 지휘를 받는 함대는 그 사이의 물을 차지해 어귀를 막았다. 디필로스가 이끄는 아테네인이 이제 나우팍토스에서 배 33척으로 그들을 치러 나아갔고, 코린트인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마침내 기회가 보인다고 여겨 신호를 올리고 나아가 아테네인과 맞붙었다. 끈질기게 겨룬 끝에 코린트인은 배 세 척을 잃었고 한 척도 가라앉히지는 못했으나 적의 배 일곱 척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 배들은 뱃머리를 맞대고 부딪히면서 코린트 배들에 앞쪽 뱃전의 노 틀이 부서졌는데 코린트 배들은 바로 이를 위해 뱃머리 귀들보[9]를 두껍게 보강해 둔 것이었다. 이렇게 어느 쪽도 기울지 않은 싸움이 끝나 양편 모두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운데(다만 바람이 난파선들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 아테네인이 그것을 차지했으니 코린트인이 다시 배를 내어 맞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편은 갈라졌다. 뒤쫓는 일은 없었고 어느 쪽도 포로를 잡지 않았으니, 해안 가까이에서 싸우던 코린트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은 쉽게 빠져나갔고 아테네 배는 한 척도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테네인은 이제 나우팍토스로 배를 돌렸고 코린트인은 곧바로 승자로서 전승 기념물을 세웠으니, 적의 배를 더 많이 쓰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은 저희가 지지 않았다고 여겼는데 그 까닭은 상대가 저희가 이기지 못했다고 여긴 까닭과 똑같은 것이었다. 코린트인은 뚜렷하게 지지 않았으므로 이겼다고 헤아렸고 아테네인은 뚜렷하게 이기지 못했으므로 졌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인이 배를 몰고 떠나고 그 뭍 병력이 흩어지자 아테네인도 승자로서 아카이아에 전승 기념물을 세웠으니, 코린트인이 자리 잡았던 에리네오스에서 20스타디온쯤 되는 곳이었다.

나우팍토스의 싸움은 이렇게 끝났다. 데모스테네스와 에우리메돈에게로 돌아가자면, 투리이인이 이제 중장보병 700명과

투창병 300명으로 원정에 함께할 채비를 마치자 두 장군은 배들에는 해안을 따라 크로톤 땅으로 가라고 명하고, 그러는 동안 뭍 병력 전체를 점검한 뒤 먼저 이들을 이끌고 투리이 땅을 지나 시바리스 강으로 갔다. 힐리아스 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크로톤인에게서 군대가 제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전갈을 받았고, 그러자 아테네인은 바닷가로 내려가 바다와 힐리아스 하구 근처에서 한데 밤을 지냈다. 그곳에서 함대도 그들을 만났고, 이튿날 배에 올라 해안을 따라 배를 몰아 로크리를 빼고는 모든 도시에 들르며 레기온 땅의 페트라에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 시라쿠사인은 그들이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 함대와 뭍의 나머지 병력으로 두 번째 시도를 하기로 정했으니, 그 병력은 그들이 이르기 전에 무언가 해 보려고 바로 이 목적으로 모아 둔 것이었다. 그들은 앞선 해전에서 얻은 다른 개선점들을 함대의 장비에 받아들이는 데 더해, 뱃머리를 더 짧게 잘라 내어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귀들보를 더 두껍게 했으며, 거기서 배의 옆구리 안팎으로 6페키스[10]쯤 되는 길이의 버팀대를 질러 넣었으니 코린트인이 나우팍토스의 함대와 맞붙기 전에 제 뱃머리를 고친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시라쿠사인은 이렇게 하면 아테네 배보다 유리하리라고 보았다. 아테네 배는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아 이물이 약했으니, 뱃머리를 맞대고 맞서기보다 적의 옆구리로 돌아 들어가 들이받는 데 더 익숙했기 때문이다. 또 싸움이 큰 항구에서 넓지 않은 물에 많은 배를 두고 벌어진다는 것도 저희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뱃머리를 맞대고 들이받으면 단단하고 두꺼운 충각으로 속이 비고 약한 것을 쳐서 적의 이물을 부술 수 있을 것이었다. 다음으로 아테네인은 자리가 좁아 대열을 뚫거나 돌아 들어가는, 그들이 즐겨 쓰는 기동을 쓸 수 없을 것이었으니, 앞의 것은 시라쿠사인이 온 힘을 다해 막을 것이고 뒤의 것은 좁은 자리가 막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키잡이의 서투름으로 여겨지던 이 뱃머리 맞대기가 시라쿠사인의 주된 기동이 될 것이었으니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쓸모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아테네인은 밀리더라도 해안 쪽 말고는 어디로도 노를 거꾸로 저어 물러날 수 없고 그마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제 진영 앞의 좁은 자리에서만 그럴 수 있었다. 항구의 나머지는 시라쿠사인이 쥐게 될 터였다. 그리고 아테네인은 몰리면 좁은 자리에 모두 한곳으로 몰려들어 저희끼리 부딪히며 어지러워질 것이었으니, 실상 모든 해전에서 아테네인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힌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들에게는 시라쿠사인과 달리 물러설 항구 전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넓은 바다로 돌아 나가는 것으로 말하면, 시라쿠사인이 드나드는 길을 쥐고 있고 더구나 플렘미리온이 그들에게 적대할 터이며 항구의 어귀도 크지 않으므로 불가능할 것이었다.

저희 기술과 능력에 맞춘 이런 꾀를 갖추고 앞선 해전 뒤로 더 자신이 붙은 시라쿠사인은 뭍과 바다에서 한꺼번에 쳐들어왔다. 길리포스는 도시의 병력을 조금 먼저 이끌고 나와 도시 쪽을 바라보는 아테네인의 성벽으로 다가갔고, 그동안 올림피에이온의 병력 곧 그곳에 있던 중장보병과 시라쿠사인의 기병과 경보병은 반대쪽에서 성벽을 향해 나아갔으며, 시라쿠사인과 동맹들의 배는 바로 뒤이어 바다로 나왔다. 아테네인은 처음에는 뭍에서만 공격을 받는 줄 알았다가 함대까지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떤 이들은 성벽 위와 그 앞에 늘어서서 다가오는 적을 맞았고 어떤 이들은 올림피에이온에서, 또 바깥에서 오는 많은 기병과 투창병을 맞으러 서둘러 나아갔으며, 다른 이들은 배에 사람을 채우거나 바닷가로 달려 내려가 적에 맞섰고, 배에 사람이 채워지자 75척을 몰고 나가 시라쿠사인의 약 80척과 맞섰다.

그날의 큰 부분을 서로 나아갔다 물러났다 하며 작은 싸움을 벌이는 데 쓰고도 어느 쪽도 말할 만한 이득을 얻지 못했고, 다만 시라쿠사인이 아테네 배 한두 척을 가라앉혔을 뿐 두 편은 갈라섰으며 뭍 병력도 같은 때에 방벽에서 물러났다. 이튿날 시라쿠사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을 하려는지 아무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니키아스는 싸움이 비긴 것을 보고 그들이 다시 치리라고 예상해, 선장들에게 상한 배를 모두 손보게 하고, 닫힌 항구를 대신하려고 제 배들 앞 바다에 박아 둔 말뚝 울타리 앞에 상선들을 약 2플레트론 간격으로 매어 두었으니, 몰린 배가 있으면 안전하게 물러났다가 한숨 돌린 뒤 다시 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준비로 아테네인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매달렸다.

이튿날 시라쿠사인은 더 이른 시각에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뭍과 바다에서 치는 계획은 그대로였다. 그날의 큰 부분을 두 편은 전처럼 마주 선 채 작은 싸움을 벌이며 보냈다. 그러다 마침내 시라쿠사 쪽에서 가장 뛰어난 키잡이였던 코린트 사람 피리코스의 아들 아리스톤이 해군 지휘관들을 설득해, 도시의 관리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되도록 빨리 장을 바닷가로 옮기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그리로 가져와 팔게 하라고 이르게 했다. 그렇게 하면 지휘관들이 선원을 배에서 내려 배 가까이에서 곧바로 끼니를 들게 할 수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날 아테네인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다시 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언에 따라 사람을 보내 장이 차려지자, 시라쿠사인은 느닷없이 노를 거꾸로 저어 도시로 물러났고 곧바로 배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끼니를 들었다. 한편 아테네인은 그들이 저희가 졌다고 느껴 도시로 돌아간 줄 알고 느긋하게 배에서 내려 끼니를 차리고 다른 일을 보며 그날의 싸움은 끝났다고 여겼다. 그러자 시라쿠사인이 갑자기 배에 사람을 채워 다시 그들을 향해 배를 몰았고, 아테네인은 크게 어지러워진 채 대부분 끼니도 들지 못하고 배에 올라 몹시 힘겹게 배를

내어 맞섰다. 한동안 두 편은 맞붙지 않고 지키고만 있었으나, 마침내 아테네인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지치기보다 지체 없이 치기로 하고 함성을 올리며 싸움에 들어갔다. 시라쿠사인은 이를 받아 작정한 대로 뱃머리를 맞대고 들이받아 그 충각의 힘으로 아테네 배 앞쪽 뱃전의 큰 부분을 부수어 놓았다. 갑판 위의 투창병도 아테네인에게 큰 해를 입혔으나, 그보다 더 큰 해를 입힌 것은 작은 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아테네 삼단노선의 노 밑으로 파고들고 그 옆구리로 몰아붙여 거기서 뱃사람들에게 창을 던진 시라쿠사인들이었다.

마침내 이렇게 힘껏 싸운 끝에 시라쿠사인이 승리를 거두었고, 아테네인은 돌아서서 상선들 사이로 제 자리로 달아났다. 시라쿠사 배들은 상선들이 있는 데까지 그들을 뒤쫓았으나 그 배들에서 통로 위로 드리워 놓은, 돌고래[11]를 매단 들보에 막혀 멈추었다. 시라쿠사 배 두 척은 승리에 들떠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부서졌고 그 가운데 하나는 선원과 함께 붙잡혔다. 아테네 배 일곱 척을 가라앉히고 많은 배를 쓰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 대부분을 사로잡고 나머지는 죽인 뒤, 시라쿠사인은 물러나 두 싸움을 두고 전승 기념물을 세웠으니, 이제 바다에서 뚜렷한 우세를 잡았다고 자신하게 되었고 뭍에서도 그만한 성공을 거두리라는 희망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다.

---

1.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뒤에 나오는 플레트론은 그 6분의 1로 약 30미터다. 크롤리는 이 장의 거리를 영국식 단위(펄롱·마일·피트)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2.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그 무게의 은으로 헤아린 화폐 단위. 큰 액수나 큰 무게를 셈할 때 썼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3.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땅을 갈던 신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딸린 예속민으로, 수가 많아 스파르타 시민들은 늘 그들의 봉기를 경계했다.

4. 네오다모데이스 — 군역의 대가로 예속에서 풀려난 헬롯으로 이루어진 스파르타의 병력. 해방되었으나 완전시민권은 없었고, 본국 밖의 원정에 자주 투입되었다.

5.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6. 경방패병 — 작은 방패와 투창으로 무장한 경보병. 중장보병처럼 밀집 대형으로 싸우지 않고, 흩어져 던지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싸웠다.

7. 드라크메 — 그리스의 은화 단위.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대략 1드라크메였다고 전한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8. 보이오타르케스 — 보이오티아 연방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뽑혔고 연방군의 지휘도 맡았다.

9. 귀들보 — 삼단노선 뱃머리 양옆으로 튀어나온 굵은 들보. 그리스어로 에포티데스라 했다. 뱃머리를 맞대고 들이받을 때 제 이물을 버티게 하고 적선의 노와 뱃전을 부수는 구실을 했다.

10. 페키스 — 팔꿈치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잡은 그리스의 척도로, 완척이라고도 한다. 1페키스는 약 45센티미터다. 크롤리는 이를 큐빗으로 옮겼다.

11. 돌고래 — 활대나 들보 끝에 매달아 두었다가 다가오는 적선 위로 떨어뜨려 갑판을 뚫던 납이나 쇠 덩이. 그 모양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22장 (제VII권 제XXII장) — 전쟁 제19년 — 데모스테네스의 도착 — 에피폴라이에서의 아테네인 패배 — 니키아스의 어리석음과 고집

그동안 시라쿠사인들이 바다와 뭍 양쪽에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데모스테네스와 에우리메돈이 아테네에서 오는 증원을 이끌고 도착했으니, 외국 배를 합쳐 함선 약 73척, 아테네와 동맹의 중장보병 거의 5,000명, 그리스인과 이민족의 투창병 다수, 그리고 투석병과 궁수와 그 밖의 모든 것이 그에 걸맞은 규모였다.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데켈레이아에 요새가 세워졌는데도 앞선 것과 거의 맞먹는 새 군대가 도착하고 아테네의 힘이 어느 방면에서나 그토록 크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제 위험에 한계도 끝도 없으리라는 생각에 한동안 적잖이 낙담했다. 반면 먼저 와 있던 아테네 원정군은 불운한 가운데서도 얼마간 자신감을 되찾았다. 데모스테네스는 형편이 어떠한지 보고서, 니키아스처럼 질질 끌다 같은 꼴을 당할 수는 없다고 느꼈다. 니키아스는 시라쿠사를 곧바로 치는 대신 카타나에서 겨울을 난 탓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이 업신여김으로 바뀌어 사그라지게 두었고 길리포스가 펠로폰네소스에서 병력을 이끌고 올 시간을 내주었으니, 그가 즉시 쳤더라면 시라쿠사인들은 그 병력을 부르러 보내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만으로도 그를 당해 낼 만하다고 여겼으므로 이미 포위되고 나서야 제가 모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때 가서 증원을 부르러 보낸다 해도 그 도착을 똑같이 이롭게 쓰지는 더 이상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떠올리고, 또 자기도 니키아스와 마찬가지로 도착한 다음 첫날인 지금이 적에게 가장 두려운 때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데모스테네스는 제 군대가 당장 불러일으킨 경악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데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테네인이 시라쿠사를 에워싸지 못하게 막고 있는 시라쿠사인의 맞선 성벽이 하나뿐이며, 에피폴라이로 오르는 길을 손에 넣고 이어서 그곳 진영을 손에 넣는 자라면 아무도 그 공격을 기다리고 있지조차 않을 터이니 그 성벽을 빼앗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서둘러 그 일에 나섰다. 그는 이것이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았으니, 성공하여 시라쿠사를 손에 넣거나, 아니면 원정에 나선 아테네인의 목숨과 나라 전체의 재원을 헛되이 갉아먹는 대신 원정군을 데리고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테네인은 먼저 나아가 아나포스 부근 시라쿠사인의 땅을 짓밟고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뭍에서나 바다에서나 거칠 것 없이 밀고 나갔으며, 시라쿠사인은 올림피에이온에서 나온 기병과 투창병으로 맞서는 것 말고는 어느 쪽에서도 대적하려 들지 않았다. 다음으로 데모스테네스는 먼저 공성 기계로 맞선 성벽을 쳐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끌어온 기계가 성벽에서 싸우는 적에게 불타고 나머지 병력도 여러 지점에서 공격했다가 물러난 뒤, 그는 더 미루지 않기로 하고 니키아스와 동료 지휘관들의 동의를 얻어 에피폴라이를 치려던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낮에는 들키지 않고 다가가 올라가기가 불가능해 보였으므로, 그는 닷새 분 식량을 갖추라 명하고 석공과 목수를 모두 데려갔으며, 화살을 비롯해 일이 잘되었을 때 요새를 쌓는 데 필요할 만한 그 밖의 온갖 것을 챙겨, 첫 야경이 지난 뒤 에우리메돈과 메난드로스와 군대 전체를 이끌고 에피폴라이로 떠났고, 니키아스는

진지에 남았다. 적의 파수에게 들키지 않고 에우리엘로스 언덕(앞서 온 군대가 처음에 올라갔던 곳이다)으로 올라간 그들은 시라쿠사인이 그곳에 둔 요새로 다가가 그것을 빼앗고 수비대 일부를 칼로 베었다. 그러나 더 많은 수가 곧바로 달아나 진영에 위급을 알렸으니, 에피폴라이에는 외곽 보루로 지켜지는 진영이 셋 있어 하나는 시라쿠사인의 것, 하나는 나머지 시칠리아 그리스인의 것, 하나는 동맹의 것이었고, 에피폴라이의 이 구역을 본래 지키던 시라쿠사인 600명에게도 알렸다. 이들은 곧장 쳐들어온 쪽을 향해 나아갔다가 데모스테네스와 아테네인과 마주쳐 거세게 버틴 끝에 무너졌고, 이긴 쪽은 제 기세가 식을 틈을 주지 않고 이 공격의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에 즉시 밀고 나갔으며, 그러는 사이 다른 이들은 처음부터 수비대가 버리고 간 시라쿠사인의 맞선 성벽을 빼앗고 흉벽을 허물고 있었다. 시라쿠사인과 동맹들, 그리고 제 휘하 병력을 거느린 길리포스가 외곽 보루에서 구하러 나왔으나, 야습이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담한 짓이었으므로 적잖이 경악한 채로 맞붙었고 처음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승리에 달아오른 아테네인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거나 적에게 다시 모일 틈을 주지 않고 아직 싸움에 들지 않은 적 병력 전체를 되도록 빨리 뚫고 나가려 하여 대열이 흐트러진 채 나아가던 참에, 보이오티아인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맞서 버티고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달아나게 했다.

이제 아테네인은 큰 혼란과 당혹에 빠졌으니, 어느 쪽에서도 이 일의 자세한 전말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낮이라면 물론 싸우는 자들이 더 또렷이 알기는 하나 그때도 벌어지는 일 전부를 아는 것은 결코 아니어서, 누구도 제 바로 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밤에 벌어진 싸움에서(이 전쟁 동안 큰 군대들 사이에 벌어진 밤 싸움은 이것 하나뿐이었다) 누가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었겠는가? 밝은

달이 떠 있었으나 그들은 달빛 아래서 사람이 보는 만큼으로만 서로를 보았으니, 곧 몸의 윤곽은 가려낼 수 있었으되 그것이 아군인지 적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양쪽 다 좁은 자리에서 수많은 중장보병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테네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미 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아직 꺾이지 않은 채 첫 공격을 하러 올라오고 있었다. 나머지 병력의 큰 몫도 이제 막 올라왔거나 아직 오르는 중이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앞서 무너진 일 때문에 앞쪽은 온통 혼란에 빠졌고, 소란 탓에 무엇 하나 가려내기 어려웠다. 이긴 시라쿠사인과 동맹들은 밤에는 그것만이 서로 뜻을 통할 수 있는 길이었으므로 큰 소리로 외치며 서로를 북돋웠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달려드는 자를 모두 받아 냈다. 반면 아테네인들은 서로를 찾아다니며, 앞에 있는 자가 이제 달아나고 있는 제 편일 수도 있건만 그들을 모두 적으로 여겼고, 서로를 알아볼 유일한 수단인 암구호를 끊임없이 물어댄 탓에 모두가 한꺼번에 묻는 바람에 저희끼리 큰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적에게 알려 주기까지 했으며, 정작 적의 암구호는 그만큼 쉽게 알아내지 못했으니 시라쿠사인은 이기고 있어 흩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만큼 잘못 알아볼 일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테네인이 저희보다 약한 적의 무리와 마주치면 그 무리는 아테네인의 암구호를 알고 있어서 빠져나갔고, 반대로 아테네인 자신이 대답하지 못하면 칼에 베였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해친 것은 파이안[1] 노래였으니, 그것이 양쪽에서 거의 같았던 탓에 당혹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군대 안의 아르고스인과 코르키라인, 그 밖의 도리스계 사람들은 제 파이안을 올릴 때마다 적에 못지않게 아테네인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한번 어지러워지고 나자 그들은 싸움터 여러 곳에서 저희끼리, 동지가 동지와, 시민이 시민과 부딪치는 지경에 이르렀고, 서로 겁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맞붙어

싸우기까지 하여 겨우 떼어 놓을 수 있었다. 쫓기는 중에 많은 이가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 죽었으니 에피폴라이에서 내려가는 길이 좁았기 때문이고, 무사히 평지로 내려온 자들 가운데 많은 수, 특히 먼저 와 있던 원정군에 속한 이들은 그 지역을 더 잘 알았던 덕에 빠져나갔으나, 새로 온 이들 가운데 얼마는 길을 잃고 들판을 헤매다가 아침에 시라쿠사 기병에게 끊겨 죽임을 당했다.

이튿날 시라쿠사인은 전승 기념물 둘을 세웠으니, 하나는 에피폴라이에서 아테네인이 올라온 자리에, 다른 하나는 보이오티아인이 처음으로 그들을 막아선 자리에 세웠고, 아테네인은 휴전 아래 제 전사자를 거두어 갔다. 아테네인과 동맹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죽었으나 거두어들인 무구는 죽은 자의 수로 셈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았으니, 방패를 버리고 벼랑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들 가운데 얼마는 목숨을 건져 나머지처럼 죽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은 뒤 시라쿠사인은 뜻밖에 찾아온 이런 행운에 옛 자신감을 되찾아, 내란이 일어난 아크라가스로 시카노스를 함선 15척과 함께 보내 될 수 있으면 그 도시를 제 편에 끌어들이게 했고, 한편 길리포스는 증원을 데려오려고 다시 뭍길로 시칠리아의 나머지 지역으로 갔으니, 에피폴라이 일의 결말을 본 뒤로 이제 아테네 진지를 들이쳐 빼앗을 수 있으리라 바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테네 장군들은 벌어진 재앙과 군대 전체의 쇠약함을 두고 의논했다. 그들은 제가 벌인 일들이 성공하지 못했고 병사들이 이곳에 머무는 데 진저리 친다는 것을 보았으며, 한 해 가운데 병이 도는 철인 데다 진을 친 자리가 늪지고 몸에 좋지 않은 곳이어서 병이 널리 퍼져 있었고, 형편은 전반적으로 가망 없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데모스테네스는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으니, 에피폴라이를 치는 모험에 나설 때 품었던 본래 생각대로, 그것이 실패한 지금은 아직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늦게 온 증원 덕에 적어도 바다에서만은 우세할 수 있는 동안에 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떠나자는 데 표를 던졌다. 그는 또 이제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은 시라쿠사인을 상대로 하기보다 아티카에 요새를 쌓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이어 가는 편이 나라에 더 이롭다고 말했으며, 그 밖에도 포위를 계속하여 큰돈을 아무 보람 없이 탕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데모스테네스의 의견은 이러했다. 니키아스는 형편이 나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제 쪽의 약함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아테네인이 전원 회의에서 드러내 놓고 퇴각에 표를 던졌다는 것이 적에게 알려지는 것은 바라지 않았으니, 그리 되면 정작 물러나고자 할 때 들키지 않고 해내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가 따로 얻은 정보는, 아테네인이 포위를 굳게 이어 가기만 하면 적의 형편이 머지않아 제 쪽보다 나빠지리라고 바랄 만한 근거를 여전히 주고 있었으니, 특히 지금의 함대가 가져다준 더 넓은 제해권으로 돈이 모자라게 하여 시라쿠사인을 지치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이뿐 아니라 시라쿠사 안에는 그 도시를 아테네인에게 넘기려는 무리가 있어 그에게 계속 전언을 보내며 포위를 풀지 말라고 이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실은 두 길 사이에서 망설이며 앞일을 더 또렷이 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던 그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며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기를 거부했고, 아테네인이 제 표결 없이 돌아오는 것을 결코 승인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한 일을 두고 표를 던질 자들은 이곳의 저희처럼 제 눈으로 본 자로서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적의를 품은 비판자에게서 들었을 말로 판단할 것이니 그저 말 잘하는 첫 연설자의 중상에 이끌릴 뿐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이 자리의 병사들 가운데 많은 수, 아니 대부분은 지금은 제 처지가 위태롭다고 그토록 큰 소리로 떠들지만 아테네에 닿으면 그 반대를 똑같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장군들이 뇌물을 받고 저희를 배신하여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아테네인의 기질을 아는 자기로서는 아테네인의 손에 불명예스러운 죄목을 쓰고 부당한 판결로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다가, 죽어야 한다면 적의 손에 죽는 편을 택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시라쿠사인이 저희보다 형편이 더 나빴다. 용병에게 삯을 주고 요새 진지에 돈을 들이고 이제 꼬박 한 해 동안 큰 함대를 유지하느라 그들은 이미 쪼들리고 있었고 머지않아 옴짝달싹 못 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탈란톤[2] 2,000을 썼고 그 밖에도 무거운 빚을 졌으며, 삯을 주지 못해 지금의 병력 가운데 아무리 작은 몫이라도 잃는다면 그 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으니, 아테네처럼 복무의 의무를 진 병사보다 용병에 더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머물러 포위를 이어 가야 하며 훨씬 우세한 돈의 면에서 지고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니키아스가 이토록 단정해 말한 것은 시라쿠사의 재정난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곳에서 포위를 풀지 말라는 전언을 그에게 계속 보내던 친아테네 파의 세력이 컸기 때문이며, 그 밖에도 전보다 제 함대를 더 믿어 적어도 그것의 성공만은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모스테네스는 포위를 이어 간다는 말을 한순간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테네의 결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물러날 수 없고 머물러야만 한다면 탑소스나 카타나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곳이라면 뭍의 병력이 휩쓸고 다닐 넓은 지역을 얻어 적에게서 빼앗아 먹고살 수 있어 그로써 적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함대는 싸울 열린 바다를 얻게 되어, 곧 온통 적에게 유리한 좁은 자리 대신 제 기술이 쓸모 있을 넓은 바다를, 배를 내보낼 때나 들일 때나 갇히거나 에워싸이지 않고 물러나거나 나아갈 수 있는 바다를 얻는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데는 전적으로 반대하며 당장, 되도록

빨리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고집했고, 에우리메돈도 이 판단에 동의했다. 그러나 니키아스가 여전히 반대하자 그들에게 얼마간 자신 없는 마음과 망설임이 스몄으니, 니키아스가 저토록 단정하는 데는 무언가 더 아는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

1. 파이안 — 신에게 바치는 노래. 그리스인은 싸움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승리를 기릴 때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시라쿠사인은 도리스계였고 아테네 쪽 동맹에도 아르고스인과 코르키라인 같은 도리스계가 섞여 있어, 양쪽이 올리는 파이안이 거의 같게 들렸다.

2.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은의 무게로 셈했고 큰 액수를 헤아릴 때 썼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23장 (제VII권 제XXIII장) — 전쟁 제19년 — 대항구의 해전 — 아테네군의 퇴각과 궤멸

아테네인들이 이렇게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뭇거리는 동안 길리포스와 시카노스가 시라쿠사에 이르렀다. 시카노스는 아크라가스를 얻는 데 실패했으니, 그가 아직 겔라에 있는 동안 시라쿠사에 우호적인 당파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리포스는 시칠리아에서 모은 많은 병력뿐 아니라 봄에 펠로폰네소스에서 수송선에 실려 떠났다가 리비아를 거쳐 셀리누스에 닿은 중장보병까지 데리고 왔다. 그들은 폭풍에 밀려 리비아로 실려 갔는데, 키레네인에게서 삼단노선 2척과 물길잡이를 얻어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중 에우에스페리타이 편에 서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리비아인을 무찔렀고, 거기서 다시 해안을 따라 카르타고의 교역장이자 시칠리아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어서 이틀 낮과 하룻밤이면 건널 수 있는 네아폴리스까지 간 다음, 바다를 건너 셀리누스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르자마자 시라쿠사인들은 다시 뭍과 바다에서 한꺼번에 아테네인을 칠 채비를 했다. 아테네 장군들은 적에게 새 군대가 와서 돕는 것을, 그리고 제 처지가 나아지기는커녕 나날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병으로 괴로워하던 터라 이제 더 일찍 떠나지 않은 것을 뉘우치기 시작했고, 니키아스도 공개 투표를 하지 말자고 고집하는 것 말고는 전처럼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되도록 은밀하게 신호가 있으면 모두 진영에서 배를 띄울 채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 막 떠나려던 참에 마침

보름이던 달이 먹혔다. 아테네인 대부분이 이 일에 크게 마음이 흔들려 장군들에게 기다리자고 재촉했고, 점치는 일과 그런 따위에 다소 지나치게 빠져 있던 니키아스는 그때부터 예언자들이 이르는 대로 아홉 날씩 세 번을 기다리기 전에는 떠나는 문제를 의논하는 것조차 마다했다.

포위하던 자들은 이리하여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라쿠사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고 전보다 더 기세를 올려 아테네인을 몰아붙이려 했으니, 아테네인 스스로가 이제 바다에서도 뭍에서도 자기들보다 낫지 않다고 인정한 셈이었고, 그렇지 않다면 배를 띄워 떠날 궁리를 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라쿠사인들은 그들이 시칠리아의 다른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 상대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되도록 빨리 저희에게 유리한 자리에서 해전을 하도록 몰아붙이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에 사람을 태우고 넉넉하다고 여겨지는 날수만큼 훈련했다. 때가 오자 그들은 첫날 아테네의 방벽을 쳤고, 중장보병과 기병 얼마가 몇몇 성문으로 나와 맞서자 그 가운데 보병 일부를 끊어 내고 나머지를 무찔러 방벽까지 쫓았는데, 들어가는 어귀가 좁았으므로 아테네인은 말 70마리와 중장보병 몇을 잃었다.

그날은 군대를 물렸다가 이튿날 시라쿠사인들은 함선 76척으로 바다에 나가는 한편 육군으로 방벽을 향해 나아갔다. 아테네인은 86척으로 마주 나가 가까이 붙어 싸웠다.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먼저 아테네군의 중앙을 무찌른 다음, 적을 에워싸려고 전열에서 뭍 쪽으로 더 나가 항해하던 오른쪽 날개의 지휘관 에우리메돈을 항구의 후미진 구석으로 몰아넣어 그를 죽이고 그를 따르던 배들을 부수었으며, 그러고 나서는 아테네 함대 전체를 앞으로 몰아 뭍으로 밀어붙였다.

길리포스는 적의 함대가 패하여 그들의 방책과 진영 너머 뭍으로 밀려난 것을 보고, 배에서 내리는 자들을 끊어 내고 또 해안이 아군의 땅이 됨으로써 시라쿠사인이 배를 끌어내기 쉽게 하려고 병력 얼마를 데리고 방파제로 달려 내려갔다. 아테네인을 위해 그 지점을 지키던 티레니아인들은 그들이 대오 없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마주 나가 그 선두를 쳐서 무찔러 리시멜레이아 늪으로 몰아넣었다. 뒤이어 시라쿠사와 동맹의 병력이 더 많이 이르자 아테네인들도 배가 걱정되어 구하러 올라와 맞붙었고, 그들을 무찔러 얼마쯤 쫓으며 중장보병 몇을 죽였다. 그들은 배 대부분을 구해 내어 진영 옆으로 끌어내렸으나, 18척은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에게 빼앗겼고 그 배에 탔던 사람은 모두 죽었다. 적은 나머지 배를 태우려고 낡은 수송선에 섶과 관솔을 가득 채우고 불을 붙여 아테네인 쪽으로 곧장 부는 바람에 떠내려 보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배가 걱정되어 그것을 막고 끄는 수단을 마련해 불길과 수송선이 더 다가오는 것을 막았고, 그리하여 위험을 벗어났다.

그 뒤 시라쿠사인들은 해전에 대해, 그리고 방벽 위쪽에서 끊어 내고 말을 빼앗은 그 중장보병에 대해 전승 기념물을 세웠고, 아테네인들은 티레니아인이 늪으로 몰아넣은 보병을 무찌른 일과 나머지 군대로 거둔 저희 승리에 대해 세웠다.

시라쿠사인들은 이제 바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때까지는 데모스테네스가 데려온 증원군을 두려워하던 터였다. 그리하여 아테네인의 낙담은 깊었고 실망은 컸으며 원정에 나선 것을 뉘우치는 마음은 더욱 컸다. 그들이 이제까지 맞닥뜨린 도시 가운데 성격이 저희와 비슷하고 저희처럼 민주정 아래 있으며 함선과 기병을 갖추고 규모도 상당한 곳은 이들뿐이었다. 그들은 정체를 바꿀 전망을 내걸어 이 도시들을 갈라 제 편으로 끌어들이지도, 압도적인 병력으로 눌러 부수지도 못한 채 시도한 일 대부분에서 실패했고, 이미 어찌할

바를 모르던 터에 이제 패배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여기던 바다에서 지고 말았으니, 그리하여 전보다 더 깊은 곤경에 빠졌다.

그러는 사이 시라쿠사인들은 곧바로 항구를 마음대로 오가기 시작했고, 아테네인이 앞으로는 바란다 해도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어귀를 막기로 했다. 실로 시라쿠사인들은 이제 저희를 지키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적이 달아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도 생각했으니, 저희가 이제 훨씬 강하다고, 그리고 아테네인과 그 동맹들을 뭍과 바다에서 이기면 그리스에서 큰 영광을 얻으리라고 여겼고 그 생각은 옳았다. 그러면 나머지 그리스인은 곧바로 해방되거나 두려움에서 풀려날 것이니, 아테네에 남은 병력으로는 앞으로 그 나라를 상대로 벌어질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시라쿠사인 저희는 이 해방을 이룬 자로 여겨져 지금 살아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뒷사람에게도 크게 우러름을 받을 터였다. 이 싸움에 무게를 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테네인뿐 아니라 그 수많은 동맹까지 이기게 될 것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이들과 더불어, 코린트인 및 스파르타인과 나란히 지휘하며 이기게 될 것이며, 제 도시를 내놓아 위험의 맨 앞에 서게 했고 해전의 성공을 크게 앞장서 이끈 터였다.

실로 한 도시 앞에 이토록 많은 민족이 모인 일은 일찍이 없었으니, 이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래 모인 전체를 빼면 그러하다. 시칠리아를 위해 또는 시칠리아에 맞서 싸우려고, 이 섬을 정복하는 일을 돕거나 지키는 일을 도우려고 시라쿠사로 온 양편의 나라는 아래와 같다. 이들을 묶은 끈은 정의나 핏줄의 공통이라기보다 그때그때의 이해나 강제였다. 이오니아인인 아테네인 저희는 도리스인인 시라쿠사인을 제 뜻으로 치러 갔고, 아직 아티카 말을 쓰고 아테네의 법을 따르는 이들, 곧 렘노스인과 임브로스인과 아이기나인, 다시 말해

그때 아이기나를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 그 식민인 까닭에 함께 갔다. 여기에 에우보이아의 헤스티아이아에 사는 헤스티아이아인도 더해야 한다. 나머지 가운데 일부는 아테네의 속국으로, 일부는 독립된 동맹으로, 일부는 용병으로 원정에 함께했다. 공납을 바치는 속국에 속한 것은 에우보이아에서 온 에레트리아인과 칼키스인과 스티라인과 카리스토스인, 섬들에서 온 케오스인과 안드로스인과 테노스인, 이오니아에서 온 밀레토스인과 사모스인과 키오스인이었다. 다만 키오스인은 공납을 바치지 않고 함선을 대는 독립된 동맹으로 함께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오니아인이고 아테네인의 후예였으나 카리스토스인만은 드리오페스족이었다. 이들은 속국으로서 복무해야 하는 처지였어도 도리스인에 맞서 싸우는 이오니아인이기는 했다. 이들 말고도 아이올리스 혈통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공납이 아니라 함선을 대는 속국인 메팀나인, 그리고 공납을 바치는 테네도스인과 아이노스인이었다. 이 아이올리스인들은 시라쿠사군에 있던 제 창건자 아이올리스인, 곧 보이오티아인과 맞서 싸웠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반면, 보이오티아인에 맞선 유일한 토박이 보이오티아인인 플라타이아인은 정당한 원한 때문에 그리했다. 둘 다 도리스인인 로도스인과 키테라인 가운데 뒤의 사람들은 스파르타의 식민이면서 아테네 대열에 서서 길리포스와 함께 있는 제 스파르타 동족과 맞서 싸웠고, 로도스인은 혈통으로는 아르고스인이면서 도리스인인 시라쿠사인과, 시라쿠사인 편에서 복무하는 제 식민인 겔라인에 맞서 무기를 들도록 강요당했다. 펠로폰네소스 둘레의 섬사람 가운데 케팔레니아인과 자킨토스인은 독립된 동맹으로 아테네인을 따라갔으나, 섬에 산다는 처지 때문에 아테네의 제해권 앞에서 실은 달리 고를 길이 거의 없었다. 한편 코르키라인은 도리스인일 뿐 아니라 코린트인이면서도 코린트인과 시라쿠사인에 맞서 드러내 놓고

싸웠으니, 앞의 사람들의 식민이고 뒤의 사람들과 같은 혈통이면서도 강제를 내세웠을 뿐 실은 코린트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제 뜻으로 그리한 것이었다. 지금 나우팍토스에서 그렇게 불리는 메세니아인과 그때 아테네인이 쥐고 있던 필로스에서 온 메세니아인도 이 전쟁에 함께 데려갔다. 메가라에서 쫓겨난 이들도 얼마 있었는데, 이제 메가라 계통인 셀리누스인과 맞서 싸우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나머지가 함께한 것은 더 자발적인 성격이었다. 도리스인인 아르고스인이 이오니아인인 아테네인 편에 서서 도리스인과 싸우는 전쟁에 들어간 것은 동맹 때문이라기보다 스파르타인을 미워하는 마음과 저마다의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었다. 한편 그때그때 가리키는 적에게 나아가는 데 익숙한 만티네이아인과 그 밖의 아르카디아 용병들은 이익에 이끌려 코린트인 편에서 복무하는 아르카디아인도 다른 누구 못지않은 적으로 여겼다. 크레타인과 아이톨리아인도 삯을 받고 복무했으며, 로도스인과 함께 겔라를 세웠던 크레타인은 그리하여 제 식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맞서 삯을 받고 싸우는 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삯을 받고 복무하는 아카르나니아인도 얼마 있었으나, 그들이 온 것은 주로 데모스테네스를 아끼는 마음과 저희가 그 동맹이었던 아테네인에 대한 호의에서였다. 이들은 모두 이오니아만의 그리스 쪽에 살았다. 이탈리아 그리스인 가운데는 투리이인과 메타폰티온인이 있었는데 내란의 시절이 안긴 모진 필요에 끌려 이 다툼에 들어왔다. 시칠리아 그리스인 가운데는 낙소스인과 카타나인이 있었고, 이민족 가운데는 아테네인을 불러들인 에게스타인과 시켈인 대부분이, 그리고 시칠리아 밖에서는 시라쿠사와 원수진 티레니아인 얼마와 이아피기아 용병이 있었다.

아테네인과 함께 복무한 민족은 이러했다. 이들에 맞서 시라쿠사인 편에는 이웃인 카마리나인과 그 곁에 사는 겔라인이 있었고, 중립을

지킨 아크라가스인을 건너뛰면 그 너머에 자리 잡은 셀리누스인이 있었다. 이들은 리비아를 바라보는 쪽의 시칠리아에 산다. 히메라인은 티레니아 바다 쪽에서 왔는데, 그 지역에서 유일한 그리스인 주민이었고 그곳에서 시라쿠사인을 도우러 온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시칠리아 안의 그리스인 가운데 위의 민족들이 이 전쟁에 함께했으니 모두 도리스인이고 독립되어 있었으며, 이민족 가운데는 시켈인만이, 곧 아테네인 편으로 넘어가지 않은 자들만이 함께했다. 시칠리아 밖의 그리스인 가운데는 지휘를 맡을 스파르타 시민[1] 한 사람과 네오다모데이스[2], 곧 해방된 자들과 헬롯[3]으로 이루어진 병력을 댄 스파르타인이 있었고, 홀로 해군과 육군을 함께 보낸 코린트인이 레우카스와 암브라키아의 동족과 더불어 있었으며, 코린트가 아르카디아에서 보낸 용병 얼마와 억지로 복무하게 된 시키온인 얼마,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밖에서는 보이오티아인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바깥에서 온 원군에 견주면 시칠리아 그리스인의 큰 도시들이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이 댔으니, 중장보병과 함선과 기병의 수가 그러했고 그 밖에도 엄청난 무리가 모였다. 그리고 다시 이 모두를 합한 것에 견주어도 시라쿠사인 저희가 더 많이 댔다고 말할 수 있으니, 도시가 큰 까닭도 있고 저희가 가장 큰 위험에 빠져 있었던 까닭도 있다.

양편에 모인 원군은 이러했고, 이때까지 모두 합류하여 어느 쪽도 그 뒤로는 더 보태지 못했다. 그러므로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이 최근 해전의 승리에 이어 그토록 거대한 아테네 군대 전체를 사로잡아 바다로도 뭍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큰 영광을 얻으리라고 여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곧바로 거룻배와 상선과 삼단노선을 대항구의 어귀에 옆으로 늘어세워 매어 두고 그 어귀를 막기 시작했으니, 그 너비는 약 8스타디온[4]이다. 그리고 아테네인이 다시

바다에서 싸움을 걸어올 경우에 대비해 다른 모든 채비까지 갖추어 놓았다. 실로 그들의 계획에도 그 생각에도 작은 것이라고는 없었다.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항구를 막는 것을 보고 또 그 밖의 계획도 전해 듣고서 군사 회의를 열었다. 장군들과 대장들이 모여 처지의 어려움을 놓고 의논했는데, 가장 다급한 것은 당장 쓸 양식이 더는 없다는 것(떠날 참이라고 여겨 카타나에 사람을 보내 보내지 말라고 일러 두었던 것이다)과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양식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쪽 방벽을 비우고, 배에 가까운 좁은 터를 가로벽으로 둘러 지키되 그 터는 물자와 병자를 들일 만큼만 잡기로 했으며, 바다를 견딜 만하든 아니든 모든 배에 나머지 육군에서 뺄 수 있는 사람을 다 태워 바다에서 끝장을 보기로, 그래서 이기면 카타나로 가고 이기지 못하면 배를 태운 뒤 대오를 촘촘히 지어 그리스인의 것이든 이민족의 것이든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우호적인 곳을 향해 뭍으로 물러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하자마자 곧 실행에 옮겨, 그들은 위쪽 방벽에서 차츰 내려와 모든 배에 사람을 채웠고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을 나이면 누구나 배에 오르도록 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통틀어 110척쯤에 사람을 태우는 데 성공했고, 그 배에 아카르나니아인과 그 밖의 외국인에게서 뽑은 궁수와 투창병을 여럿 태웠으며, 계획의 성격과 그 계획을 강요한 절박함이 허락하는 한 다른 모든 채비도 갖추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 니키아스는 병사들이 일찍이 없던 뚜렷한 해전 패배로 기가 꺾여 있고 양식이 모자란 탓에 되도록 빨리 끝장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를 불러 모아 먼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테네와 동맹의 병사 여러분, 다가오는 싸움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몫을 걸고 있으니, 거기에는 적에게 그러한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목숨과 나라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함대가 오늘 이기면 저마다 제 고향

도시를, 그것이 어디에 있든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며, 첫 시도에서 실패하고는 그 뒤로 내내 앞일도 그만큼 참혹하리라고 겁에 질려 점치는 경험 없는 자들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여러 전쟁을 겪어 본 아테네인과 그 많은 원정에 우리와 함께한 동맹들은 전쟁이 얼마나 뜻밖의 일을 안기는지 떠올리고, 운이 늘 우리를 등지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고서, 여러분 스스로 보시는 그 수에 어울리게 다시 싸울 채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좁은 항구에서 배들이 뒤엉키는 것에 맞서, 또 앞서 우리를 괴롭힌 적의 갑판 위 병력에 맞서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조타수들과 함께 다 헤아렸고 우리 형편이 허락하는 데까지 갖추어 두었습니다. 궁수와 투창병이 여럿 배에 오를 것이며, 트인 바다에서 벌이는 싸움이라면 배가 무거워져 우리 기량이 굳어 버릴 터이니 쓰지 않았을 만큼 많은 수가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 위에서 벌일 수밖에 없는 이번의 육지 싸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쓸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적의 배 모양에 맞서 우리 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아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힌 저들의 두꺼운 뱃머리 귀들보에 맞서서는 쇠갈고리를 갖추었으니, 여기 갑판 위의 병사들이 제 할 일을 한다면 적이 들이받은 뒤 노를 저어 물러나지 못하게 막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함대에서 육지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터이므로, 우리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것도 적이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로운 듯하며, 우리 병력이 잡고 있는 만큼을 빼면 해안이 적의 땅인 만큼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새기고 힘이 닿는 한 끝까지 싸워야 하며, 뭍으로 밀려나도록 두어서는 안 되고, 일단 배가 맞붙거든 적의 갑판에서 중장보병을 쓸어 내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혀야 합니다. 이 말은 수부 못지않게 중장보병에게도 하는 것이니 갑판 위 사람들의

몫이 더 크기 때문이며, 우리 육군은 지금도 대체로 우세합니다. 수부들에게는 권하는 동시에 간청합니다. 이제 우리 갑판이 더 잘 무장되고 배도 더 많아진 터이니 겪은 불운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말을 알고 우리 풍습을 따랐기에 실제로는 아테네인이 아니면서도 늘 아테네인으로 여겨져 그리스 전역에서 존중받았고 우리 패권이 주는 이로움을 우리 못지않게 누렸으며 우리 속국들에게 두려움을 사고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데서는 제 몫 이상을 누린 이들이 있으니, 그 즐거움이 얼마나 지킬 만한 것인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패권을 거리낌 없이 함께 나누는 오직 여러분에게, 이제 그것을 저버리지 말 것을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이긴 코린트인과, 우리 해군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감히 우리 앞에 맞서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시칠리아 그리스인을 업신여기고서 그들을 물리쳐 주기를, 병들고 불운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량이 다른 누구의 운이나 기세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테네인에게는 이 생각 하나를 다시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이만한 배를 조선소에 더 남겨 두고 오지 않았고, 한창때의 중장보병도 더 남겨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한다면 이곳의 적은 곧바로 그리로 배를 몰 것이며, 아테네에 남은 우리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적과 새로 쳐들어오는 적을 함께 막아 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곧장 시라쿠사인의 손에 떨어질 것이요(여러분이 어떤 뜻을 품고 그들을 쳤는지는 굳이 일깨우지 않겠습니다), 고향의 동포는 스파르타인의 손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운명이 이 한 번의 싸움에 걸려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굳게 설 때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새기십시오. 지금 배에 오르는 여러분이 아테네인의 육군이요 해군이며 나라와 아테네의 큰

이름에서 남은 전부라는 것을. 그것을 지키는 데 기량이든 용기든 남보다 나은 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그것을 보일 때이며, 그리함으로써 제 몸을 구하고 모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니키아스는 곧바로 배에 사람을 태우라고 명했다. 그러는 사이 길리포스와 시라쿠사인들은 눈앞에서 진행되는 준비를 보고 아테네인이 바다에서 싸울 작정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들은 쇠갈고리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터라 그에 맞서 따로 대비했으니, 던진 갈고리가 걸리지 않고 미끄러지도록 뱃머리와 배 윗부분의 많은 데에 가죽을 씌웠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장군들과 길리포스가 다음과 같이 병사들에게 말했다.

시라쿠사인과 동맹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이룬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다가오는 싸움에 걸려 있는 결과가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토록 뜨겁게 이 싸움에 몸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밝히겠습니다. 아테네인은 먼저 시칠리아를 정복하려고 이 땅에 왔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는 펠로폰네소스와 나머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왔으니, 그들은 이미 지금이든 예전이든 그리스인 가운데 일찍이 알려진 바 가장 큰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어디서나 저희를 주인으로 만들어 준 그 해군에 맞선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났으니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앞선 해전에서 이미 그들을 이겼고 이번에도 십중팔구 다시 이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특별히 뛰어나다고 여기던 바로 그 점에서 한번 꺾이면, 처음부터 제 우월함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자신에 대한 생각 전체가 더 크게 흔들리며, 자부심이 뜻밖에 받은 충격

탓에 실제 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러섭니다. 지금 아테네인이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다릅니다. 서투르던 시절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던, 스스로에 대한 처음의 평가는 더 굳어졌고, 거기에 가장 뛰어난 자들을 이겼으니 우리가 이 시대 최고의 뱃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까지 더해져 우리 하나하나에게 갑절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희망이 가장 큰 곳에 행동의 열의도 가장 큽니다. 그들이 우리 장비를 흉내 내어 우리와 맞설 수단을 찾으려 한 것은 우리 싸움 방식에 낯익은 것이니 알맞은 대비로 맞설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제 관례와 달리 갑판에 중장보병을 여럿 두고 투창병을 여럿 둔다면(말하자면 타고난 뭍사람인 아카르나니아인과 그 밖의 사람들을 배에 태운 것이니, 앉은 채로 무기를 어떻게 던져야 할지 모를 자들입니다) 배가 거추장스러워지고 저희끼리 온통 뒤엉키지 않을 수 없으니, 제 전술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가 많다고 해서 그들에게 득이 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수가 적은 쪽에서 싸우는 것이 걱정스러운 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데에 배가 많으면 필요한 움직임을 하는 데 더 굼떠질 뿐이고 우리 공격 수단에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고자 하신다면, 믿을 만한 소식에 따르면 그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 크고 지금의 곤경이 너무 절박해 그들은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제 병력을 믿지 못하고 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운에 걸어 보려는 것이니, 길을 뚫고 배로 빠져나가든지 그도 안 되면 뭍으로 물러나든지 하려는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는 처지인 까닭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의 운이 이렇게 제 바닥을 드러냈고 그들의 어지러움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이니, 분노를 안고 싸움에 들어갑시다. 적과 적 사이에서 먼저 친 자를 벌하며 제 마음의 노여움을 남김없이

푸는 것보다 더 정당한 일은 없으며, 속담에 있듯 원수에게 갚는 것보다 더 단 것은 없다는 것을 굳게 믿읍시다. 이제 그 갚음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적이요 철천지원수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아십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노예로 만들려고 이곳에 왔으며, 뜻을 이루었더라면 우리 남자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것을,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에게는 가장 욕된 것을, 도시 전체에는 가장 큰 치욕을 담은 이름을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더 위험을 끼치지 않고 물러간다면 그것으로 득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기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들을 벌하고 시칠리아 전체에 옛 자유를 더 굳고 튼튼하게 물려주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드문 위험이란 실패해도 잃는 것이 적고 성공하면 얻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제 편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뒤, 시라쿠사 장군들과 길리포스는 아테네인이 배에 사람을 태우는 것을 알아채고 곧바로 저희도 배에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니키아스는 일이 돌아가는 꼴에 질려, 이제 막 해안에서 배를 띄우려는 마당에 위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깨닫고, 큰 고비에 사람이 흔히 그러하듯 할 일을 다 하고도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고 할 말을 다 하고도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고 여겨, 다시 선장들을 하나하나 불러 저마다 아버지의 이름과 제 이름과 제 부족의 이름을 불러 가며 저마다 제가 쌓은 명성을 저버리지 말 것과 조상들이 이름을 떨친 그 물려받은 덕을 흐리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유로운 나라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제 나라를,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나 제 뜻대로 살도록 허락된 그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일깨웠다. 그리고 그런 고비에 사람이 쓸 법한, 그리고 조금만 바꾸면 어느 자리에나 똑같이 쓰이는 다른 말들, 곧

아내와 아이들과 나라의 신들에 호소하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것이 진부하게 여겨지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순간의 경악 속에서는 쓸모가 있으리라고 믿으며 큰 소리로 불렀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기에 원하는 만큼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당부하고 나서 니키아스는 물러나 군대를 바다로 이끌고 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늘어세웠으니, 배에 탄 사람들의 용기를 되도록 북돋우기 위해서였다. 한편 배 위에서 지휘를 맡은 데모스테네스와 메난드로스와 에우티데모스는 제 진영에서 배를 띄워 항구 어귀를 가로막은 방책과 열린 채로 남겨진 통로를 향해 곧장 몰고 가 힘으로 뚫고 나가려 했다.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이미 전과 거의 같은 수의 배로 나와 있었는데, 그 일부는 어귀를 지키고 나머지는 항구의 다른 데를 빙 둘러 지켜 아테네인을 사방에서 한꺼번에 치려 했으며, 육군은 배가 뭍에 닿을 만한 지점마다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시라쿠사 함대는 시카노스와 아가타르코스가 지휘하여 저마다 전체 병력의 한쪽 날개를 맡았고 가운데는 피텐과 코린트인이 맡았다. 나머지 아테네인이 방책에 이르러 첫 돌격의 충격으로 거기 배치된 배들을 눌러 이기고 매어 놓은 것을 풀려 하자,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이 사방에서 덮쳐 왔고, 싸움은 방책에서 항구 전체로 번져 앞선 어느 싸움보다 끈질기게 다투어졌다. 양편의 노잡이들은 갑판장의 명령에 따라 배를 몰아붙이는 데 큰 열의를 보였고, 조타수들은 배를 부리는 데 큰 기량을 보이며 서로 앞다투었다. 배가 일단 맞붙으면 배에 탄 병사들은 갑판 위의 임무가 다른 이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려고 애썼으니, 요컨대 저마다 제가 맡은 부문에서 첫째임을 보이려고 힘썼다. 그리고 좁은 데에 많은 배가 얽혀 싸운 까닭에(이제껏 알려진 가장 좁은 자리에서 싸운 가장 큰 함대들로 둘을 합쳐 200척에 조금 못 미쳤다) 뱃부리로 들이받는 제대로 된 공격은 드물었으니, 노를 저어 물러나거나 적의 전열을 끊고 지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배가 다른 배를 피하다가 또는 제삼의 배를 치려다가 우연히 다른 배에 부딪히는 일이 더 잦았다. 배 한 척이 들이받으러 다가오는 동안에는 갑판 위의 사람들이 그 배에 투창과 화살과 돌을 퍼부었고, 일단 맞붙으면 중장보병들이 서로 상대의 배에 뛰어들어 맞잡고 싸우려 했다. 여러 곳에서 자리가 좁은 탓에 한 배가 한쪽에서는 적을 들이받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가 들이받히는 일이 벌어졌고, 두 척이 또는 때로 더 많은 배가 한 척을 둘러싸고 어쩔 수 없이 뒤엉키는 일이 벌어져, 조타수는 여기서는 막고 저기서는 치는 일을 한 번에 한 가지가 아니라 사방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야 했다. 한편 그 많은 배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엄청난 굉음은 공포를 퍼뜨렸을 뿐 아니라 갑판장의 명령도 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양편의 갑판장들은 제 임무를 다하느라, 또 싸움의 열기 속에서 쉴 새 없이 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외치고 호소를 외쳤다. 아테네인에게는 길을 뚫고 나가라고, 지금이야말로 제 기개를 보이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붙들라고 다그쳤고,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에게는 적이 달아나는 것을 막고 이겨서 제 나라를 드높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외쳤다. 게다가 양편의 장군들은 싸움의 어느 자리에서든 누가 어쩔 수 없는 까닭도 없이 뒤로 물러나 뭍으로 가는 것을 보면 그 선장의 이름을 불러 물었으니, 아테네 쪽은 더없이 적대적인 저 해안이 그토록 애써 얻은 저 바다보다 더 제 것이라고 여겨 물러나느냐고 물었고, 시라쿠사 쪽은 달아나는 아테네인에게서 달아나는 것이냐고, 그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그러느냐고 물었다.

한편 뭍에 있던 양쪽 군대는 승패가 저울 위에 걸려 있는 동안 더없이 괴롭고 서로 어긋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그 땅의 사람들은 이미 얻은 것보다 더 큰 영광에 목말라했고 쳐들어온 자들은 전보다 더 못한 처지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아테네인의 전부가 그 함대에

걸려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두고 느끼는 두려움은 일찍이 느껴 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고, 싸움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야는 싸움 자체와 마찬가지로 얼룩덜룩할 수밖에 없었다. 싸움터 가까이에서 모두가 한 지점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어떤 이들은 제 편이 이기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하늘을 향해 구원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부르짖었고, 지는 쪽으로 눈을 돌린 다른 이들은 소리 내어 울며 부르짖었고 구경하는 자이면서도 실제로 싸우는 자들보다 더 무너졌다. 또 다른 이들은 싸움이 팽팽한 어느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다툼이 판가름 나지 않은 채 길어지자 흔들리는 몸이 그 마음의 요동을 그대로 비추었고, 늘 구원에 손이 닿을 듯하다가 또 늘 파멸의 문턱에 선 채로 그들이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괴로움을 겪었다. 요컨대 그 하나의 아테네 군대 안에서는 해전의 승패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으니, 비명이 있었고 환호가 있었고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진다" 하는 소리가 있었고, 큰 무리가 큰 위험에 처하면 낼 수밖에 없는 그 밖의 온갖 외침이 있었다. 함대에 있던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마침내 오래 이어진 싸움 끝에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이 아테네인을 몰아내고,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하며 그들을 뭍까지 여지없이 쫓았다. 해군은 이리로 저리로 흩어져 바다에서 사로잡히지 않은 만큼은 이제 뭍으로 달려들어 배에서 내려 제 진영으로 달아났다. 한편 육군은 더는 갈라지지 않고 한 충동에 휩쓸려 모두가 비명과 신음으로 그 일을 애통해하며 달려 내려갔으니, 어떤 이들은 배를 도우러, 어떤 이들은 성벽에 남은 것을 지키러 갔고, 남은 대다수는 이미 제 몸을 어떻게 구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실로 그 순간의 공황을 넘어서는 것은 일찍이 없었다. 그들은 필로스에서 저희가 안겼던 것과 거의 같은 것을 이제 겪었으니, 그때 스파르타인이 함대를 잃으면서

섬으로 건너간 사람들까지 잃었던 것처럼, 이제 아테네인도 무슨 뜻밖의 일이 돕지 않는 한 뭍으로 빠져나갈 희망이 없었다.

해전이 모진 싸움이었고 양편이 배도 목숨도 많이 잃은 터에, 이긴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이제 부서진 배와 시신을 거두고 도시로 돌아가 전승 기념물을 세웠다. 아테네인들은 불운에 짓눌린 나머지 시신이나 부서진 배를 거두게 해 달라고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바로 그날 밤에 물러나고자 했다. 그러나 데모스테네스는 니키아스에게 가서 남은 배에 사람을 태워 이튿날 아침 다시 한번 길을 뚫고 나가 보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니, 아직 쓸 만한 배가 적보다 많이 남아 있어 아테네 쪽은 60척쯤인 데 견주어 적은 50척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니키아스도 아주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배에 사람을 태우려 하자 수부들이 오르기를 마다했으니, 패배에 하도 무너진 나머지 더는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모두 뭍으로 물러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는 사이 시라쿠사인 헤르모크라테스는 그들의 뜻을 짐작하고, 그만한 규모의 병력이 뭍으로 물러나 시칠리아의 다른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도록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 당국자들에게 가서 제 생각을 밝히고 적을 밤에 빠져나가게 두어서는 안 되며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 전부가 당장 나아가 길을 막고 고갯길을 차지해 지켜야 한다고 일렀다. 당국자들은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그리해야 마땅하다고 여겼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에 저를 내맡기고 큰 해전을 치른 뒤 편히 쉬고 있는 백성을 따르게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게다가 그날은 헤라클레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축제를 지내고 있었고, 대부분은 승리에 도취해 축제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터라, 지금 이 순간에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이든 다른 일에 동의할 법했다. 이런 까닭에 정무관들에게는 그

일이 될 성싶지 않아 보였다. 헤르모크라테스는 그들과 더 어찌해 볼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제 나름의 다음과 같은 꾀를 썼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아테네인이 밤사이에 가장 어려운 곳을 지나 조용히 앞서 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땅거미가 지자마자 제 친구 몇을 기병 얼마와 함께 적의 진영으로 보냈고, 그들은 말소리가 닿을 만한 데까지 말을 타고 다가가 마치 아테네인을 위하는 사람인 양 몇몇을 불러내어, 니키아스에게(그에게는 실제로 성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라쿠사인이 길을 지키고 있으니 밤에 군대를 이끌고 나서지 말고 느긋하게 준비해 낮에 물러나라고 전하라고 일렀다. 그들은 이 말을 하고 떠났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아테네 장군들에게 알리자 장군들은 그 말이 진심임을 의심하지 않고 그 전갈을 믿어 그날 밤 떠나는 것을 미루었다.

결국 곧바로 떠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이튿날도 머물기로 했으니, 병사들이 가장 쓸모 있는 물건을 되도록 잘 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 두고 저마다 제 목숨을 부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만 지니고 떠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는 사이 시라쿠사인과 길리포스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테네인이 지날 법한 길을 그 땅 곳곳에서 막았고, 개울과 강의 여울을 지켰으며, 그들을 맞아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그 군대를 멈춰 세우도록 진을 쳤다. 한편 저희 함대는 해안으로 올라가 아테네인의 배를 끌어냈다. 몇 척은 아테네인 자신이 뜻한 대로 태웠고, 나머지는 뭍에 밀려 올라와 있는 채로 시라쿠사인이 느긋하게 제 배에 잡아매어 아무도 막으려 하지 않는 가운데 도시로 끌고 갔다.

그 뒤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가 이제 준비는 넉넉히 되었다고 여겨, 군대의 이동은 해전이 있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참담한 광경이었으니, 배를 모두 잃고 큰 희망이 사라진 채 저희도 나라도 위태로운 가운데 물러난다는 그 한 가지 사정 때문만이 아니라,

진영을 떠나면서 눈과 마음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은 묻히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아는 이를 알아볼 때마다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한편 뒤에 남겨 두고 가는 산 자들, 곧 다치거나 병든 자들은 산 자들에게 죽은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고 죽은 자들보다 더 가여웠다. 이들은 애원하고 통곡하기 시작해 친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었으니, 저를 데려가 달라고 빌면서 눈에 띄는 동료나 친족 하나하나를 큰 소리로 불렀고, 떠나려는 막사 동무들의 목에 매달렸으며, 힘이 닿는 데까지 따라가다가 몸의 힘이 다하면 거듭 하늘을 부르며 뒤에 남겨진 채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그리하여 온 군대가 눈물에 젖고 이런 꼴로 마음이 흐트러져, 이미 눈물로도 감당 못 할 재앙을 겪었고 앞에 놓인 알 수 없는 앞날에서 더 겪을까 두려워하는 적의 땅에서조차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낙담과 자책도 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다. 실로 그들은 굶주려 빠져나가는 도시에, 그것도 작지 않은 도시에 견줄 수 있을 뿐이었으니, 길을 가는 무리 전체가 4만 명을 밑돌지 않았다. 모두가 쓸모 있을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들고 갔고, 중장보병과 기병은 평소와 달리 무장을 한 채로 제 양식을 제가 날랐으니, 시종이 없어서 그런 이들도 있었고 시종을 믿지 못해 그런 이들도 있었다. 시종들은 오래전부터 달아나고 있었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달아났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넉넉히 지니지는 못했으니, 진영에 양식이 더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당한 치욕 전체와 그 고통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쳤다는 사실은, 함께 겪는다는 것으로 얼마간 덜어지기는 했으나 그 순간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으니, 떠나올 때의 화려함과 영광을 끝에 이른 이 초라함과 견주어 볼 때 더욱 그러했다. 이것은 일찍이 그리스의 군대에 닥친 것 가운데 단연 가장 큰 뒤집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을

노예로 만들러 왔다가 제가 노예가 될까 두려워하며 떠나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와 파이안[5]과 함께 배를 띄워 나왔다가 이제는 그와 정반대의 조짐을 안고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바다가 아니라 뭍으로 가고 있었고 함대가 아니라 중장보병을 믿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머리 위에 걸려 있는 위험이 워낙 커서 이 모든 것이 견딜 만해 보였다.

니키아스는 군대가 낙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을 보고 대열을 따라 지나가며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북돋우고 위로했으며, 한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겨 갈수록 간절함에, 그리고 제 말의 도움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 갔다.

아테네인과 동맹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한 궁지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껏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겪은 재난 때문에도, 지금 겪고 있는 분에 넘치는 고통 때문에도 스스로를 너무 모질게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저 자신은 힘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 나을 것이 없고 (실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병중에 있습니다), 운이 준 것으로 치면 사사로운 삶에서든 그 밖에서든 누구와도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가장 낮은 이와 똑같은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신들을 향한 정성으로, 사람들을 향한 올바름과 허물없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날에 대해 여전히 굳은 희망을 품고 있으며, 우리가 겪는 불운이 그럴 법한 만큼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로 그 불운이 가벼워지리라고 바랄 만합니다. 우리 적들은 이미 넉넉한 행운을 누렸고, 신들 가운데 누가 우리 원정에 노여워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웃을 친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이 으레 하는 일을 하고서 감당 못 할 만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신들이 더 너그러우시기를

마땅히 바랄 수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시샘보다 연민을 받기에 더 알맞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열에 서서 행군하는 중장보병의 수와 그 힘을 헤아리고, 낙담에 너무 내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려앉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이 곧 하나의 도시이며, 시칠리아에는 여러분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거나 여러분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몰아낼 수 있는 곳이 달리 없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행군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이 살필 몫입니다. 저마다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그 자리가 어디든 그곳을 이겨서 제 나라요 제 성채로 삼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양식이 넉넉지 않으니 밤이나 낮이나 걸음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라쿠사인이 두려워 아직 우리에게 충실한 시켈인의 우호적인 어느 곳에 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맞으라는 지시와 함께 이미 전갈을 보냈습니다. 요컨대 병사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용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겁함이 몸을 숨길 곳이 가까이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적에게서 빠져나간다면, 나머지 분들은 다시 보기를 바라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 아테네인은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나라의 큰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도시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지, 사람 없는 성벽이나 배가 아닙니다.

니키아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대열을 따라 지나가며 줄에서 벗어나 흩어지는 병사가 보이면 제자리로 데려왔고, 데모스테네스도 제가 맡은 쪽 군대에 그렇게 하며 아주 비슷한 말로 그들에게 말했다. 군대는 가운데가 빈 네모꼴로 행군했으니, 니키아스가 이끄는 부대가 앞서고 데모스테네스의 부대가 뒤따랐으며, 중장보병이 바깥을 이루고 짐꾼과

군대의 대부분이 가운데에 들었다. 그들이 아나포스강의 여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의 부대가 늘어서 있었는데, 그들을 무찌르고 무사히 건너 앞으로 나아갔으나 시라쿠사 기병의 돌격과 경보병의 투창에 시달렸다. 그날 그들은 40스타디온쯤 나아가 어느 언덕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은 일찍 떠나 20스타디온쯤 더 나아갔고, 들판의 어느 자리로 내려가 거기에 진을 쳤으니,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집집에서 먹을 것을 얻고 거기서 물을 길어 가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가려는 쪽으로 앞쪽 여러 스타디온에 걸쳐 물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시라쿠사인들은 앞으로 나아가 앞쪽 고갯길에 방벽을 쌓았으니, 그곳에는 가파른 언덕이 있고 그 양쪽에 바위 골짜기가 있어 아크라이온 벼랑이라고 불렸다. 이튿날 아테네인이 나아가려 하자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의 기병과 투창병이 둘 다 아주 많아 그 투창과 돌격에 길이 막혔고, 오래 싸운 끝에 마침내 같은 진영으로 물러났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처럼 양식이 없었고 기병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그들은 다시 떠나 방벽이 쌓인 언덕으로 밀고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적의 보병이 그 방벽을 지키려고 여러 겹으로 방패를 겹쳐 늘어서 있었고 고갯길은 좁았다. 아테네인은 그 방벽을 쳤으나 언덕에서 퍼붓는 투창을 맞았으니, 언덕이 가팔라 그만큼 더 잘 맞았다. 그리하여 길을 뚫지 못하고 다시 물러나 쉬었다. 그러는 사이 가을에 흔히 그러하듯 천둥이 몇 차례 치고 비가 내렸는데, 그것이 아테네인의 마음을 더욱 꺾었으니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제 파멸이 다가온다는 조짐으로 여겼다. 그들이 쉬는 동안 길리포스와 시라쿠사인들은 군대의 일부를 보내 그들이 지나온 길에 그 뒤쪽으로 방벽을 쌓게 했으나, 아테네인이 곧바로 사람을 얼마 보내 막았다. 그 뒤 그들은 들판 쪽으로 더 물러나 밤을 지냈다. 이튿날 그들이 나아가자

시라쿠사인들은 그들을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서 많은 사람을 싸울 수 없게 만들었으니, 아테네인이 나아가면 뒤로 물러나고 물러나면 다가왔으며, 특히 그 뒤쪽을 쳐서 토막토막 무찔러 군대 전체에 공황을 일으키려 했다. 아테네인은 오래도록 이런 식으로 버텼으나, 5, 6스타디온을 나아간 뒤에는 들판에서 쉬려고 멈추었고 시라쿠사인들도 제 진영으로 물러났다.

밤사이에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는 제 병사들의 딱한 형편을 보고, 이제 온갖 필요한 것이 다 모자라고 적의 잦은 공격으로 많은 수가 싸울 수 없게 된 터라, 되도록 많은 불을 피워 놓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되 이제는 앞서 뜻했던 것과 같은 길이 아니라 시라쿠사인이 지키는 쪽과 반대되는 바다 쪽으로 가기로 했다. 이 길 전체는 군대를 카타나가 아니라 시칠리아의 다른 쪽으로, 곧 카마리나와 겔라와 그쪽에 있는 다른 그리스인과 이민족의 도시들 쪽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을 많이 피우고 밤에 떠났다. 그런데 모든 군대는, 그리고 큰 군대일수록 더욱, 두려움과 소동에 빠지기 쉬우니 특히 적의 땅을 밤에 적이 가까이 있는 가운데 지날 때 그러하다. 아테네인도 그런 공황에 하나 빠져, 앞선 부대인 니키아스의 부대는 뭉쳐서 한참 앞으로 나아갔으나 군대의 절반이 조금 넘는 데모스테네스의 부대는 떨어져서 다소 흐트러진 채로 행군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들은 바다에 이르러 헬로로스 길로 들어섰고, 카키파리스 강에 닿아 그 물길을 따라 내륙으로 올라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으니, 거기서 사람을 보내 부른 시켈인을 만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강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도 시라쿠사의 한 부대가 방벽과 울짱으로 여울을 막고 있었는데, 그 수비대를 힘으로 밀어내고 강을 건너 길잡이들의 말에 따라 에리네오스라는 다른 강으로 나아갔다.

한편 날이 밝아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이 아테네인이 떠난 것을 알자 대부분은 길리포스가 일부러 놓아주었다고 나무랐고, 그들이 간 길을 찾아내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서둘러 그 길로 뒤쫓아 한낮께니 무렵에 따라잡았다. 그들은 먼저 데모스테네스가 이끄는 병력과 마주쳤으니, 앞서 말한 밤의 공황 탓에 뒤처져 다소 더디게 흐트러진 채로 행군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곧바로 쳐서 맞붙었고, 시라쿠사 기병은 이제 그들이 나머지에서 떨어져 나온 터라 한결 쉽게 에워싸 한자리에 몰아넣었다. 니키아스의 부대는 50스타디온이나 앞서 있었으니, 그는 사정이 이러한 이상 안전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머물러 싸우는 데 있지 않고 되도록 빨리 물러나는 데 있으며 싸움은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여겨 더 빨리 이끌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데모스테네스는 대체로 더 쉴 새 없이 시달렸으니, 뒤에 선 자리 탓에 적의 공격에 먼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시라쿠사인이 뒤쫓는 것을 알고 그는 제 병사들을 싸움 대형으로 세우려고 앞으로 밀고 나아가기를 그만두었고,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뒤쫓는 자들에게 에워싸여 그 자신과 함께 있던 아테네인이 더없이 딱한 자리에 놓였으니, 사방에 담이 둘린 터 안에 몰려 이쪽에도 저쪽에도 길이 나 있고 올리브나무가 아주 많은 곳에서 사방에서 투창이 쏟아져 내렸다. 시라쿠사인이 가까이 붙어 싸우기보다 이런 방식의 공격을 골라 쓴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으니, 이제 죽기를 각오한 자들과 맞붙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저희보다 아테네인에게 더 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 승리가 워낙 확실해진 터라 그들은 승리의 순간에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제 몸을 조금 아끼기 시작했고, 이대로도 적을 눌러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실제로 온종일 사방에서 아테네인과 그 동맹들에게 투창을 퍼부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적이 상처와 그 밖의 고통으로 지쳐 버린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길리포스와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섬사람 가운데 제 편으로 넘어오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겠다고 널리 알렸고, 몇 안 되는 도시가 넘어왔다. 그 뒤 나머지 전부에 대해 데모스테네스와 항복 조건이 맺어졌으니, 누구도 폭력으로나 가둠으로나 목숨을 이을 것이 모자라서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들은 모두 6,000명이 항복했고, 지니고 있던 돈을 다 내놓으니 방패 네 개의 우묵한 곳을 채웠다. 그들은 곧바로 시라쿠사인에게 이끌려 도시로 옮겨졌다.

한편 니키아스는 제 부대와 함께 그날 에리네오스 강에 이르러 건넌 다음 건너편의 높은 데에 군대를 자리 잡게 했다. 이튿날 시라쿠사인들이 그를 따라잡아 데모스테네스가 이끌던 병력이 항복했다고 알리고 그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 니키아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 기병 한 사람을 보내어 보게 하겠다며 휴전을 청했고, 그 사자가 그들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길리포스와 시라쿠사인에게 전령을 보내어, 시라쿠사인이 이 전쟁에 쓴 돈이 얼마든 아테네인을 대신해 갚기로 합의할 뜻이 있으니 제 군대를 보내 달라고 말했고, 돈을 갚을 때까지 1탈란톤[6]마다 한 사람씩 아테네인을 볼모로 주겠다고 했다. 시라쿠사인과 길리포스는 이 제안을 물리치고 이 부대도 다른 부대에게 했던 것처럼 쳐서, 사방을 둘러싸고 저녁때까지 투창을 퍼부었다. 니키아스의 병사들도 제 동료들만큼이나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이 딱하게 모자랐다. 그런데도 그들은 밤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려 다시 행군하려 했다. 그러나 무기를 집어 드는 참에 시라쿠사인이 그것을 알아채고 파이안을 불렀고, 이에 아테네인들은 들킨 것을 알고 무기를 도로 내려놓았으나, 300명쯤은 파수를 뚫고 나가 밤사이에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

날이 밝자마자 니키아스는 군대를 움직였고, 전처럼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에게 몰리며 사방에서 투창을 맞고 창에 찔려 쓰러졌다. 아테네인은 수많은 기병과 떼를 이룬 다른 병종이 사방에서 퍼붓는 공격에 밀려 아시나로스 강으로 나아갔으니, 강만 건너면 한결 숨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여겼고 지친 몸과 물을 찾는 갈증에도 내몰렸던 것이다. 거기에 이르자 그들은 뛰어들었고 질서는 끝장이 났으니, 저마다 먼저 건너려 했고 적의 공격 탓에 건너기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로 엉겨 붙을 수밖에 없게 되자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밟았으며, 어떤 이들은 창과 짐 사이에서 곧바로 죽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 뒤엉킨 채 물살에 떠내려갔다. 그러는 사이 건너편 기슭은 가팔랐는데 거기에 시라쿠사인이 늘어서서 아테네인에게 투창을 퍼부었으니, 아테네인 대부분은 강의 우묵한 바닥에 어지러이 몰려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있었다. 펠로폰네소스인도 내려와 그들을 베었는데 물속에 있는 자들을 특히 그리했고, 물은 그리하여 곧바로 더러워졌으나 그들은 진흙이 섞이고 피가 어렸어도 그대로 계속 마셨으며 대부분은 그 물을 차지하려고 싸우기까지 했다.

마침내 많은 시신이 물줄기 안에 겹겹이 쌓이고 군대의 일부가 강에서 무너지고 거기서 빠져나간 몇 안 되는 자들마저 기병에게 끊긴 뒤, 니키아스는 시라쿠사인보다 더 믿었던 길리포스에게 제 몸을 넘기며 자기는 그와 스파르타인이 마음대로 하되 병사들을 죽이는 일만은 그만두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 뒤 길리포스는 곧바로 사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나머지는 병사들이 몰래 빼돌린 많은 수를 빼고 모두 산 채로 한데 모였으며, 밤사이에 파수를 뚫고 나간 300명을 뒤쫓는 부대가 보내져 그들도 나머지와 함께 사로잡혔다. 공공의 재산으로 거두어진 적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몰래 빼돌려진 수는 아주 많아 시칠리아 전체가 그들로 채워졌으니, 데모스테네스와 함께

사로잡힌 자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아무 협정도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큰 몫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살육이 아주 컸고 이 시칠리아 전쟁의 어느 것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 행군 중에 있었던 그 많은 다른 싸움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쓰러졌다. 그럼에도 많은 이가 빠져나갔으니,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이들도 있었고 노예로 부려지다가 나중에 달아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카타나에서 몸을 붙일 곳을 얻었다.

시라쿠사인과 그 동맹들은 이제 한데 모여 전리품과 사로잡을 수 있는 대로 사로잡은 포로를 거두고 도시로 돌아갔다. 아테네인과 그 동맹 가운데 사로잡힌 나머지는 채석장에 가두었으니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는 길리포스의 뜻을 거슬러 죽임을 당했으니, 길리포스는 적의 장군들을 스파르타로 데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승리의 면류관이 되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마침 그 가운데 하나인 데모스테네스는 섬과 필로스의 일 때문에 스파르타의 가장 큰 적이었고, 다른 하나인 니키아스는 같은 그 일 때문에, 곧 아테네인을 설득해 화약을 맺게 함으로써 포로들을 풀려나게 하려고 애쓴 까닭에 스파르타의 가장 큰 벗이었다. 이런 까닭에 스파르타인은 그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고, 니키아스 자신이 길리포스에게 몸을 넘길 때 주로 믿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시라쿠사인 가운데 그와 연락을 주고받던 이들이 그가 고문을 받아 제 입으로 밝히는 바람에 승리에 탈이 날까 두려워했다고 하며, 다른 이들 특히 코린트인은 그가 부자인 만큼 뇌물로 빠져나가 살아남아 저희에게 더 해를 끼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이들이 동맹을 설득해 그를 죽였다. 이것이, 또는 이와 같은 것이, 내가 사는 동안의 그리스인 가운데 그런 운명을 가장 받을 만하지 않았던 사람이 죽게 된 까닭이니, 그는 삶의 모든 과정을 덕에 엄격히 마음을 쏟으며 다스려 온 사람이었다.

채석장의 포로들은 처음에 시라쿠사인에게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지붕 하나 없는 좁은 구덩이에 빽빽이 갇혀 낮에는 햇볕의 열기와 숨 막히는 공기에 시달렸고, 이어 가을이 되어 밤이 쌀쌀해지자 그 급격한 변화로 병이 들었다. 게다가 자리가 없어 모든 일을 같은 자리에서 해야 했고, 상처로 죽거나 기온의 변화로 죽거나 그런 비슷한 까닭으로 죽은 자들의 시신이 겹겹이 쌓인 채로 버려져 있었으므로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일었다. 그러는 동안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치지 않고 그들을 괴롭혔으니, 여덟 달 동안 한 사람에게 날마다 주어진 것이 물 1코틸레[7]와 곡식 2코틸레뿐이었다. 요컨대 그런 곳에 던져진 사람이 겪으리라 여길 만한 고통은 하나도 그들에게서 면제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70일쯤을 다 함께 지냈고, 그 뒤에는 아테네인과 원정에 함께한 시칠리아 그리스인과 이탈리아 그리스인을 빼고 모두 팔렸다. 사로잡힌 자의 총수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7,000명보다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이 전쟁에서 그리스인이 이룬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고, 내 생각으로는 그리스 역사를 통틀어도 그러했으니, 이긴 쪽에게는 더없이 빛나고 진 쪽에게는 더없이 참혹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든 점에서 남김없이 졌다. 그들이 겪은 것은 무엇 하나 크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들은, 흔히 말하듯, 온전한 파멸로 파멸했으니 함대도 군대도 그 모든 것이 부서졌고 많은 사람 가운데 집으로 돌아간 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 시칠리아에서 있었던 일은 이러했다.

---

1.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2. 네오다모데이스 — 해방된 헬롯으로 이루어진 스파르타의 병력. 자유는 얻었으나 시민권은 갖지 못했고 주로 국외의 임무에 쓰였다.

3. 헬롯 — 스파르타에 예속되어 땅을 갈던 신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딸린 예속민으로, 수가 많아 스파르타인은 늘 그들의 봉기를 경계했다.

4.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마일)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이 장의 다른 거리 표기도 모두 같다.

5. 파이안 — 신에게 바치는 노래. 그리스인은 싸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6.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7. 코틸레 — 그리스의 부피 단위. 1코틸레는 약 0.27리터다. 크롤리는 이를 영국식 단위(파인트)로 바꾸어 옮겼으나, 이 판은 원문의 단위와 숫자를 따른다.

24장 (제VIII권 제XXIV장) — 전쟁 제19년과 제20년 — 이오니아의 이탈 — 페르시아의 개입 — 이오니아의 전쟁

소식이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아테네인은 싸움터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일을 분명하게 전한 병사들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자들의 말조차 오랫동안 믿지 않았으니, 그토록 완전한 파멸은 있을 법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원정을 밀어붙이는 데 함께한 연설가들에게 화를 냈으니 마치 자기들이 그것을 표결한 적이 없다는 듯했으며, 신탁을 읊는 자들과 점쟁이들, 그리고 그때 시칠리아를 정복하리라는 희망을 부추긴 그 밖의 모든 징조 장수들에게도 분노를 터뜨렸다. 이미 모든 점에서 모든 방면으로 시달리던 터에 이제 이런 일까지 닥치자 그들은 전에 없던 두려움과 경악에 사로잡혔다. 그토록 많은 중장보병과 기병과 한창때의 병사를 잃고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보는 일만으로도 나라에나 저마다의 몸에나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는데, 거기에 더해 선창에 넉넉한 배도 없고 국고에 돈도 없으며 배에 태울 선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살아남을 길에 절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칠리아의 적이 그토록 눈부신 승리에 달아올라 곧바로 함대를 이끌고 피레우스로 쳐들어오리라고, 한편 본토의 적은 채비를 곱절로 늘려 저희에게서 떨어져 나간 동맹들의 도움을 받아 바다와 뭍에서 한꺼번에

맹렬히 덤벼들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진 수단이 그만한 것뿐이었으나 끝까지 버티기로 정했고, 재목과 돈을 마련하고 힘닿는 대로 함대를 갖추며 동맹들을 무엇보다 에우보이아를 붙들어 둘 조치를 취하고, 도시의 일을 더 아껴 쓰는 쪽으로 고치며, 때에 따라 일이 생길 때마다 나라 형편을 두고 의견을 낼 원로 위원회를 뽑기로 의결했다. 요컨대 민주정이 으레 그러하듯 그들은 그 순간의 공포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중해질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 결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이제 여름이 끝났다. 이어지는 겨울에 그리스 전체가 시칠리아에서 아테네가 당한 큰 재앙의 인상에 들썩였다. 중립을 지키던 나라들은 이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도 더는 전쟁에서 비켜서 있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나서서 아테네인을 치러 가야 한다고 느꼈으니, 저마다 헤아려 보건대 시칠리아 원정이 성공했더라면 아테네인이 아마 저희에게 쳐들어왔으리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전쟁이 짧게 끝나리라고, 그리고 거기에 한몫 끼는 것이 저희에게 명예가 되리라고 보았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의 동맹들은 저마다 그 무거운 수고가 빨리 끝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테네에 예속된 나라들이 제 힘에 넘치도록 떨어져 나갈 태세를 보였으니, 형편을 감정에 실어 판단했고 아테네인이 다가오는 여름을 버텨 낼 수 있다는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스파르타는 봄에 시칠리아의 동맹들이 큰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리라는 가까운 전망에 힘을 얻었으니, 그들은 얼마 전 일이 돌아가는 형편에 밀려 해군을 갖추게 된 터였다. 이처럼 어느 방면으로 보나 자신할 까닭이 있었으므로 스파르타인은 이제 거리낌 없이 전쟁에 뛰어들기로 정했으니, 전쟁이 잘 끝나기만 하면 아테네가 시칠리아의 주인이 되었을 경우 저희를 위협했을 그런 위험에서 마침내

벗어나리라고, 그리고 아테네인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리스 전체의 패권을 조용히 누리게 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왕 아기스는 이 겨울에 곧바로 데켈레이아에서 얼마간의 병력을 이끌고 나아가 동맹들에게서 함대에 쓸 분담금을 거두었고, 말리스 만 쪽으로 돌아서는 오랜 적대를 앙갚음하여 오이타인의 가축 대부분을 몰아가는 것으로 그들에게서 얼마간의 돈을 받아 냈으며, 테살리아인의 항의와 반대를 무릅쓰고 프티오티스의 아카이아인과 그 지역에서 테살리아인에게 예속된 다른 이들에게 돈과 인질을 내놓게 하고 그 인질을 코린트에 맡겨 둔 뒤 그 동포들을 동맹에 끌어들이려 했다. 스파르타인은 이제 여러 도시에 함선 100척을 지으라는 할당을 내렸으니, 저희 몫과 보이오티아인의 몫을 저마다 25척으로, 포키스인과 로크리스인의 몫을 합해 15척으로, 코린트인의 몫을 15척으로, 아르카디아인과 펠레네인과 시키온인의 몫을 합해 10척으로, 메가라인과 트로이젠인과 에피다우로스인과 헤르미오네인의 몫을 합해 역시 10척으로 정했으며, 그러는 한편 봄까지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겨울에 그들은 정한 대로 재목을 내고 배 짓는 일을 밀고 나갔으며, 곡물선이 안전하게 돌아 나갈 수 있도록 수니온을 요새로 삼았고, 시칠리아로 가는 길에 라코니아에 지어 둔 요새는 비웠다. 그러는 한편 아껴 쓰려고 쓸데없어 보이는 다른 지출은 무엇이든 줄였으며, 무엇보다도 동맹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양편이 이렇게 움직이며 처음에 그랬던 것만큼이나 열심히 전쟁 채비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맨 먼저 에우보이아인이 이 겨울에 아기스에게 사절을 보내어 아테네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을 의논했다. 아기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에우보이아의 지휘를 맡을 사람으로

스테넬라이다스의 아들 알카메네스와 멜란토스를 스파르타에서 불러왔다. 그리하여 이들이 네오다모데이스[1] 300명쯤을 데리고 이르자 아기스는 그들을 건너보낼 채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레스보스인 몇이 이르렀는데 이들도 떨어져 나가기를 바랐고, 보이오티아인이 이들을 밀어주자 아기스는 설득되어 에우보이아 일을 미루고 레스보스인의 이탈을 준비했으니, 에우보이아로 갈 예정이던 알카메네스를 그들에게 총독으로 주고 자기는 함선 10척을 보이오티아인은 같은 수를 대겠다고 약속했다. 이 모든 일은 본국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으니, 아기스가 제가 거느린 군대와 함께 데켈레이아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드는 어느 방면으로든 병력을 보내고 사람과 돈을 거둘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동맹들이 본국 도시의 스파르타인보다 그에게 훨씬 더 복종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니, 그가 거느린 병력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곧바로 두려움을 샀기 때문이다. 아기스가 레스보스인의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역시 떨어져 나갈 채비가 된 키오스인과 에리트라이인은 그가 아니라 스파르타에 청을 넣었다. 그들은 티사페르네스의 사절과 함께 그곳에 이르렀는데, 티사페르네스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레이오스 왕이 해안 지역에 둔 사령관으로서 펠로폰네소스인에게 건너오라고 청하고 그 군대를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왕은 얼마 전 그에게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공납을 내라고 요구했는데, 그는 아테네인 때문에 그리스 도시들에게서 그것을 거두지 못해 밀려 있던 터였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인을 약하게 만들면 공납을 더 잘 받아 낼 수 있고 스파르타인을 왕과의 동맹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하면 왕이 명한 대로 카리아 해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피수트네스의 서자 아모르게스를 산 채로든 죽여서든 잡을 수 있으리라고 셈했다.

키오스인과 티사페르네스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은 목적을 이루려 하는 동안, 거의 같은 때에 메가라 사람 라오폰의 아들 칼리게이토스와 키지코스 사람 아테나고라스의 아들 티마고라스가 스파르타에 이르렀다. 둘 다 제 나라에서 쫓겨나 파르나케스의 아들 파르나바조스의 궁정에 머물던 자들로, 헬레스폰토스에 보낼 함대를 얻어 오라는 파르나바조스의 사명을 띠고 온 것이었다. 파르나바조스는 그 함대로 할 수만 있다면 티사페르네스가 노리던 바로 그것을 제가 먼저 이루어, 제가 다스리는 지역의 도시들을 아테네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납을 손에 넣고 제 손으로 왕에게 스파르타인의 동맹을 안겨 주려 했다.

파르나바조스의 사절과 티사페르네스의 사절이 따로 교섭했으므로, 스파르타에서는 이제 함대와 군대를 먼저 이오니아와 키오스로 보낼 것인가 헬레스폰토스로 보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키오스인과 티사페르네스 쪽으로 뚜렷이 기울었으니, 그해의 감독관(에포로스)[2] 가운데 하나인 엔디오스와 대대로 친분이 있던 알키비아데스가 이들을 거들었기 때문이다. 실로 알키비아데스 집안이 라코니아식 이름을 얻게 된 내력이 여기에 있었으니, 알키비아데스는 엔디오스 집안에 내려오는 이름이었다. 그런데도 스파르타인은 먼저 페리오이코이[3] 가운데 하나인 프리니스를 키오스에 보내어 그들이 말하는 만큼 배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도시가 대체로 알려진 만큼 큰지를 살피게 했다. 그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전하자 그들은 곧바로 키오스인 및 에리트라이인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함선 40척을 보내기로 의결했으니, 키오스인의 말로는 그 섬에 이미 60척 이상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 스파르타인은 그 40척 가운데 10척을 제독 멜란크리다스와 함께 저희가 보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나자 멜란크리다스 대신 칼키데우스를 보냈고 10척

대신 라코니아에서 다섯 척만 갖추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났고 투키디데스가 그 역사를 쓴 이 전쟁의 제19년도 그와 함께 끝났다.

이듬해 여름이 시작될 무렵 키오스인은 함대를 빨리 내보내라고 재촉했으니, 이 모든 사절 왕래를 감추어 온 아테네인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챌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스파르타인은 곧바로 스파르타 시민[4] 세 사람을 코린트로 보내어 배들을 되도록 빨리 이스트모스 너머로 곧 건너편 바다에서 아테네 쪽 바다로 끌어 옮기게 하고, 아기스가 레스보스에 보내려고 갖추던 배들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키오스로 가라고 명하게 했다. 동맹국들에서 온 배는 모두 39척이었다.

그러는 동안 칼리게이토스와 티마고라스는 파르나바조스를 대신해 키오스로 가는 원정에 함께하지 않았고 병력을 내보내는 데 보태라고 가져온 돈 25탈란톤[5]도 내놓지 않았으며, 나중에 따로 다른 병력을 이끌고 가기로 정했다. 한편 아기스는 스파르타인이 먼저 키오스로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스스로 그 뜻을 따랐다. 그리하여 동맹들이 코린트에 모여 회의를 열고 이렇게 정했다. 먼저 라코니아에서 다섯 척을 갖추고 있던 칼키데우스의 지휘 아래 키오스로 가고, 다음으로 아기스가 점찍어 둔 바로 그 알카메네스의 지휘 아래 레스보스로 가며, 마지막으로 헬레스폰토스로 가되 그곳의 지휘는 람피아스의 아들 클레아르코스에게 맡긴다는 것이었다. 또 우선은 배의 절반만 이스트모스 너머로 옮겨 그 배들을 곧바로 떠나보내기로 했으니, 아테네인이 뒤에 옮겨질 배들에 마음을 쏟느라 떠나는 함대에는 마음을 덜 쓰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항해를 굳이 감추려는 조심은 하지 않았으니, 아직 바다에 이렇다 할 함대를 두지 못한 아테네인의 무력함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배 21척이 곧바로 이스트모스 너머로 옮겨졌다.

이제 그들은 어서 떠나고 싶어 했으나 코린트인은 마침 그때에 든 이스트모스 축제[6]를 치르기 전에는 함께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에 아기스는 이스트모스 휴전을 깨는 일을 두고 그들이 품은 꺼림칙함을 덜어 주려고 그 원정을 제가 떠맡겠다고 제안했다. 코린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체가 생겼고, 그동안 아테네인은 키오스에서 무엇이 꾸며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게 되어 제 장군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크라테스를 보내어 그 사실을 따져 물었으며, 키오스인이 부인하자 충실한 동맹으로서 함께 보낼 배를 얼마쯤 내놓으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일곱 척이 보내졌다. 배를 보낸 까닭은 이러했다. 키오스인의 대다수는 그 교섭을 알지 못했고, 비밀을 아는 소수는 기댈 만한 확실한 것이 생기기 전에는 다중과 갈라서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펠로폰네소스인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들이 오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트모스 경기가 열렸고, 초청을 받은 아테네인도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키오스인이 꾸미는 일을 더 또렷이 보게 되어 아테네로 돌아오자마자 그 함대가 저희 모르게 켄크레아이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축제가 끝난 뒤 펠로폰네소스인은 알카메네스의 지휘 아래 배 21척을 이끌고 키오스로 떠났다. 아테네인은 먼저 같은 수의 배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며 넓은 바다 쪽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적이 멀리 따라오기 전에 돌아서자 아테네인도 돌아왔으니, 제 수에 든 키오스 배 일곱 척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뒤 그들은 모두 37척에 사람을 채워, 해안을 따라 가는 적을 쫓아 에피다우로스 국경 언저리에 있는 인적 없는 코린트 항구 스피라이온까지 몰아넣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은 바다에서 배 한 척을 잃은 뒤 나머지를 모아 닻을 내렸다. 이제 아테네인은 함대로 바다에서 칠 뿐 아니라 해안에 내리기까지 했고, 그리하여 더없이 어지럽고 사나운 난전이 벌어졌으니

그 싸움에서 아테네인은 적의 배 대부분을 쓸 수 없게 만들고 그 지휘관 알카메네스를 죽였으며 저희 쪽에서도 몇 사람을 잃었다.

그 뒤 양편은 갈라섰고, 아테네인은 적의 배를 봉쇄하기에 넉넉한 수의 배를 떼어 놓은 다음 나머지를 이끌고 곁의 작은 섬에 닻을 내려 그곳에 진을 쳤으며 아테네에 사람을 보내어 증원을 청했다. 한편 펠로폰네소스인에게는 싸움 이튿날 배를 도우러 온 코린트인이 합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근방의 다른 주민들도 합류했다. 이들은 인적 없는 곳에서 지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난감해하여 처음에는 배를 태워 버릴 생각을 했으나, 마침내 배를 뭍으로 끌어 올려 놓고 빠져나갈 알맞은 기회가 올 때까지 뭍 병력으로 눌러앉아 지키기로 정했다. 아기스도 이 낭패를 전해 듣고 테르몬이라는 스파르타 시민을 그들에게 보냈다. 스파르타인은 함대가 이스트모스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먼저 받았으니, 감독관들이 그 일이 일어나면 기마 전령을 보내라고 알카메네스에게 명해 둔 터였다. 그들은 곧바로 저희 배 다섯 척을 칼키데우스의 지휘 아래 보내고 알키비아데스도 함께 보내기로 정했다. 그러나 이 결의에 차 있는 동안 함대가 스피라이온으로 피했다는 두 번째 소식이 왔고, 이오니아 전쟁에서 내디딘 첫걸음이 실패로 드러난 것에 기가 꺾여 그들은 제 나라에서 배를 보내려던 생각을 접었으며 이미 떠난 배 몇 척은 도로 불러들이기까지 바랐다.

이를 알아챈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엔디오스와 다른 감독관들을 설득해 원정을 밀고 나가게 했으니, 키오스인이 함대의 불운을 듣기 전에 항해를 마칠 수 있으며 자기가 이오니아에 발을 딛기만 하면 아테네인이 약하고 스파르타가 열심이라는 것을 장담하여 어렵지 않게 도시들을 떨어져 나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그들이 제 증언을 선뜻 믿으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엔디오스에게 따로 말하기를, 이오니아를 떨어져 나오게 하고 왕을 스파르타의 동맹으로 만드는 일을 그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될 것이며 그 명예를 아기스에게 넘겨줄 일이 아니라고 했다(그는 마침 아기스와 사이가 나빴던 것이다). 엔디오스와 그 동료들이 이렇게 설득되자 그는 배 다섯 척과 스파르타 사람 칼키데우스와 함께 바다로 나아가 서둘러 항해했다.

이 무렵 길리포스와 함께 전쟁을 치러 낸 시칠리아의 펠로폰네소스 배 16척이 돌아오는 길에 레우카스 앞바다에서 붙들려, 시칠리아에서 오는 배를 지켜보고 있던 메니포스의 아들 히포클레스 휘하의 아테네 배 27척에게 호되게 당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한 척을 잃은 뒤 나머지가 아테네인에게서 빠져나와 코린트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칼키데우스와 알키비아데스는 저희가 온다는 소식이 새지 않도록 항해하며 마주치는 자를 모두 붙잡았다가, 뭍에서 처음 닿은 지점인 코리코스에서 놓아주었다. 그곳에서 그들과 내통하던 키오스인 몇이 찾아왔고, 그들에게서 온다는 기별 없이 곧장 도시로 올라가라는 재촉을 받아 느닷없이 키오스 앞에 이르렀다. 다수는 놀라 어쩔 줄 몰랐으나 소수는 마침 그때 평의회가 열려 있도록 미리 손을 써 둔 터였다. 칼키데우스와 알키비아데스가 배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함대가 스피라이온에 봉쇄되어 있다는 것은 입 밖에 내지 않자, 키오스인은 아테네에서 떨어져 나갔고 에리트라이인도 곧바로 뒤따랐다. 그 뒤 배 세 척이 클라조메나이로 건너가 그 도시도 떨어져 나오게 했고, 클라조메나이인은 곧바로 뭍으로 건너가 폴리크나를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으니 필요할 때에 제가 사는 섬에서 그리로 물러나려는 것이었다.

떨어져 나간 곳들이 저마다 요새를 쌓고 전쟁을 채비하는 동안 키오스의 소식이 빠르게 아테네에 이르렀다. 아테네인은 이제 저희를 위협하는 위험이 크고 뚜렷하다고 여겼으며, 가장 큰 동맹이 떨어져 나간 마당에 나머지 동맹들도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그 순간의 경악 속에서 그들은 전쟁 내내 아껴 손대지 않던 1,000탈란톤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표결에 부치는 자에게 걸려 있던 벌을 곧바로 풀었고 그 돈으로 많은 배에 사람을 채우기로 의결했으며, 스피라이온 봉쇄 함대에 속해 있다가 칼키데우스의 배를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온 여덟 척을 디오티모스의 아들 스트롬비키데스의 지휘 아래 곧바로 내보내기로 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봉쇄에서 빼낸 열두 척이 트라시클레스의 지휘 아래 뒤따르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또 스피라이온에서 함대를 봉쇄하던 제 전대에 속해 있던 키오스 배 일곱 척을 불러들여 배에 탄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자유민들은 가두었으며, 떠난 배들을 대신해 펠로폰네소스인을 봉쇄하도록 새 배 열 척에 서둘러 사람을 채워 내보냈고 서른 척에 더 사람을 채우기로 정했다. 열의는 모자라지 않았고 키오스에 구원을 보내는 데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스트롬비키데스는 배 여덟 척을 이끌고 사모스에 이르러 사모스 배 한 척을 데리고 테오스로 가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했다. 칼키데우스도 키오스에서 배 23척을 이끌고 테오스로 떠났고, 클라조메나이인과 에리트라이인의 뭍 병력이 그를 도우려고 해안을 따라 움직였다. 이를 제때 알게 된 스트롬비키데스는 그들이 이르기 전에 테오스를 떠났고, 바다에 나와 키오스에서 오는 배의 수를 보고는 사모스 쪽으로 달아났으며 적이 그를 뒤쫓았다. 테오스인은 처음에 그 뭍 병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나 아테네인이 달아나자 그들을 도시 안으로 들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칼키데우스가 추격에서 돌아오기를 얼마 동안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아테네인이 테오스인의 도시 뭍 쪽에 쌓아 둔 벽을 저희 손으로 헐기 시작했고 티사페르네스의 부관 스타게스가 이끌고 올라온 얼마 안 되는 이방인들이 이를 거들었다.

그러는 동안 칼키데우스와 알키비아데스는 스트롬비키데스를 사모스까지 쫓아 보낸 뒤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배의 선원들에게 무기를 들려 키오스에 남겨 두고, 그 자리를 키오스 사람으로 메우고 다른 스무 척에도 사람을 채워 밀레토스를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떠났다. 밀레토스의 유력자들 가운데 친구를 둔 알키비아데스는 펠로폰네소스에서 배가 이르기 전에 그 도시를 끌어오기를 바랐으니, 그렇게 하여 키오스의 힘과 칼키데우스의 힘을 빌려 되도록 많은 도시를 떨어져 나오게 함으로써 그 명예를 키오스인과 자기 자신과 칼키데우스에게,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들을 내보낸 엔디오스에게 돌리려는 것이었다. 항해가 거의 끝날 때까지 들키지 않은 그들은 스트롬비키데스와 트라시클레스보다 조금 앞서 이르러 밀레토스를 떨어져 나오게 했다(트라시클레스는 막 아테네에서 배 열두 척을 이끌고 와 스트롬비키데스와 함께 그들을 뒤쫓던 참이었다). 바짝 뒤따라 배 열아홉 척을 이끌고 올라온 아테네인은 밀레토스가 저희에게 문을 닫아건 것을 보고 곁의 섬 라데에 자리를 잡았다. 왕과 스파르타인 사이의 첫 동맹은 밀레토스인이 떨어져 나오자 곧바로 티사페르네스와 칼키데우스의 손으로 맺어졌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은 왕 및 티사페르네스와 다음의 조건으로 조약을 맺는다.

1. 왕이 가진 나라나 도시, 또는 왕의 조상이 가졌던 나라나 도시는 무엇이든 왕의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도시들에서 아테네인에게 들어가던 것은 돈이든 그 밖의 무엇이든, 왕과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함께 아테네인이 돈이든 그 밖의 무엇이든 받지 못하게 막는다.

2. 아테네인을 상대로 한 전쟁은 왕과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함께 치른다. 그리고 왕이 제 쪽에서,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제 쪽에서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아테네인과 화약을 맺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누구든 왕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의 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누구든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마찬가지로 왕의 적으로 삼는다.

이것이 그 동맹이었다. 그 뒤 키오스인은 곧바로 배 열 척에 더 사람을 채워 아나이아로 떠났으니, 밀레토스에 있는 이들의 소식을 알아보고 또 여러 도시를 떨어져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칼키데우스에게서 돌아오라는 것과 아모르게스가 뭍 병력을 이끌고 가까이 와 있다는 전갈이 이르자 그들은 제우스 신전으로 갔고, 그곳에서 디오메돈이 트라시클레스의 뒤를 이어 아테네에서 이끌고 온 배 열여섯 척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달아났으니 한 척은 에페소스로 나머지는 테오스로 갔다. 아테네인은 그 배 가운데 네 척을 빈 채로 빼앗았으니 사람들은 뭍으로 빠져나갈 틈이 있었고, 나머지는 테오스인의 도시로 피했다. 그 뒤 아테네인은 사모스로 떠났고, 키오스인은 남은 배를 이끌고 뭍 병력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 레베도스를 떨어져 나오게 했으며 이어 에라이도 떨어져 나오게 했다. 그 뒤 함대도 군대도 둘 다 본국으로 돌아갔다.

거의 같은 때에 스피라이온에 있던 펠로폰네소스 배 20척은, 앞서 뭍으로 쫓겨 같은 수의 아테네 배에게 봉쇄되었다고 말한 바로 그 배들인데, 느닷없이 쳐 나와 봉쇄하던 전대를 이기고 그 배 네 척을 빼앗았으며 켄크레아이로 돌아가 키오스와 이오니아로 갈 채비를 다시 갖추었다. 그곳에서 스파르타에서 온 해군 총사령관 아스티오코스가 그들에게 합류했으니, 이때부터 바다의 최고 지휘권은 그에게 있었다. 이제 뭍 병력이 테오스에서 물러나자 티사페르네스가 몸소 군대를 이끌고 그리로 가서 벽에 남아 있던 것을 무엇이든 마저 헐고 떠났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디오메돈이 아테네 배 열 척을 이끌고 이르러, 테오스인이 적에게 그랬듯이 저도 받아들이게 하는 협정을 맺은

뒤 해안을 따라 에라이로 갔고 그 도시를 치려다 이루지 못하자 도로 돌아갔다.

이 무렵 사모스에서 민중이 상류층에 맞서 들고일어났으니, 배 세 척으로 그곳에 와 있던 얼마간의 아테네인과 손을 잡은 것이었다. 사모스 민중은 상류층 가운데 모두 200명쯤을 죽이고 400명을 더 내쫓았으며 그 땅과 집을 제 것으로 삼았다. 그 뒤 아테네인은 이제 그들의 충심을 믿게 되어 그들에게 독립을 의결해 주었고, 그때부터 민중이 도시를 다스리며 지주들을 나라 일에서 모두 몰아냈고 앞으로 민중 가운데 누구도 그들에게 딸을 시집보내거나 그들에게서 아내를 얻지 못하게 금했다.

그 뒤 같은 여름에 키오스인은 열의가 여전히 식지 않았고 펠로폰네소스인이 없어도 여러 도시를 떨어져 나오게 하기에 넉넉한 힘을 가졌다고 여겼으며 또 위험을 함께할 동무가 되도록 많기를 바랐으므로, 제 배 열세 척을 이끌고 레스보스로 원정을 떠났다. 스파르타에서 내린 지시도 다음은 그 섬으로 가고 그곳에서 헬레스폰토스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키오스인과 함께 있던 펠로폰네소스인의 뭍 병력과 그곳 동맹들의 뭍 병력은 스파르타 시민 에우알라스의 지휘 아래 해안을 따라 클라조메나이와 쿠마이로 움직였고, 한편 페리오이코이 가운데 하나인 디니아다스의 지휘 아래 함대가 먼저 메팀나로 올라가 그곳을 떨어져 나오게 했으며 그곳에 배 네 척을 남긴 뒤 나머지로 미틸레네도 떨어져 나오게 했다.

그러는 동안 스파르타의 제독 아스티오코스는 작정한 대로 배 네 척을 이끌고 켄크레아이에서 떠나 키오스에 이르렀다. 그가 이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아테네 배 25척이 디오메돈과 레온의 지휘 아래 레스보스로 갔으니, 레온은 얼마 전 아테네에서 증원으로 배 열 척을 이끌고 온 터였다. 같은 날 늦게 아스티오코스는 바다로 나아가 키오스 배 한 척을

데리고 힘닿는 대로 도우려고 레스보스로 갔다. 피라에 이르고 그곳에서 이튿날 에레소스에 이른 그는 미틸레네가 거의 싸움 한 번 없이 아테네인에게 떨어졌다는 것을 그곳에서 들었으니, 아테네인이 배를 몰고 올라와 뜻밖에 항구로 들어와서는 키오스 배를 이기고 뭍에 내려 저희에게 맞선 병력을 무찌른 뒤 그 도시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에레소스인과 키오스 배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아스티오코스는 미틸레네로 나아가지 않았으니, 그 배들은 메팀나에 에우불로스와 함께 남겨졌다가 미틸레네가 떨어지자 달아난 것들로 그가 이제 마주친 것은 그 가운데 세 척이었고 한 척은 아테네인에게 빼앗긴 터였다. 그는 에레소스를 들고일어나게 하여 무장시켰고, 제 배에 탄 중장보병을 에테오니코스의 지휘 아래 뭍길로 안티사와 메팀나에 보낸 뒤 자기는 데리고 있던 배와 키오스 배 세 척을 이끌고 해안을 따라 그리로 나아갔으니, 메팀나인이 그들을 보면 힘을 얻어 이탈을 밀고 나가리라고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스보스에서는 모든 일이 그에게 거슬리게 돌아갔으므로 그는 제 병력을 거두어 키오스로 돌아갔고, 헬레스폰토스로 갈 예정이던 배 위의 뭍 병력도 저마다 제 도시로 도로 실려 갔다. 그 뒤 켄크레아이에 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 배 여섯 척이 키오스의 병력에 합류했다. 아테네인은 레스보스의 일을 옛 상태로 되돌려 놓은 뒤 그곳에서 떠나 클라조메나이인이 뭍에 요새로 만들고 있던 폴리크나를 빼앗고 그 주민들을 섬에 있는 제 도시로 도로 데려갔으며, 다만 이탈을 주동한 자들은 다프누스로 물러났다. 그리하여 클라조메나이는 다시 아테네의 것이 되었다.

같은 여름에 라데에서 배 20척으로 밀레토스를 봉쇄하고 있던 아테네인은 밀레토스 땅의 파노르모스에 내려,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이끌고 저희를 치러 온 스파르타 지휘관 칼키데우스를 죽였고, 사흘 뒤 건너가 전승 기념물을 세웠으나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밀레토스인에게 헐렸다. 그러는 동안 레온과 디오메돈은 레스보스에서 온 아테네 함대를 이끌고 키오스 앞바다의 섬들인 오이누사이에서, 그리고 에리트라이 땅에 있는 제 요새 시두사와 프텔레온에서, 또 레스보스에서 나와 배를 근거로 키오스인을 상대로 전쟁을 이어 갔으니, 병적 명부에서 뽑아 해병으로 복무하게 한 중장보병을 배에 태우고 있었다. 카르다밀레와 볼리소스에 내린 그들은 저희에게 맞서 싸움터에 나온 키오스인을 무찔러 크게 잃게 했고, 그 근방의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파나이에서 또 한 번, 레우코니온에서 세 번째로 키오스인을 무찔렀다. 그 뒤로 키오스인은 싸움터에서 그들을 맞는 일을 그만두었고, 아테네인은 그 땅을 짓밟았으니 그곳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고 페르시아 전쟁 뒤로 한 번도 해를 입지 않은 터였다. 실로 스파르타인 다음으로, 번영 속에서 지혜로울 줄 알았고 제 도시가 커질수록 그만큼 더 단단히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들은 내가 아는 한 키오스인뿐이다. 경솔한 쪽으로 잘못을 저지른 듯 보일 이번 이탈조차도 위험을 함께 나눌 동맹이 많고 용감하게 갖추어지기 전에는, 또 시칠리아의 재앙 뒤로 아테네인 스스로 제 형편이 아주 절망적임을 더는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기 전에는 감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의 셈을 뒤엎는 뜻밖의 일 가운데 하나에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저희처럼 아테네의 힘이 곧 무너지리라고 믿은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그 잘못을 깨달았다. 이렇게 바다에서 봉쇄되고 뭍에서 노략질을 당하는 동안 시민 가운데 몇이 그 도시를 아테네인에게 넘기려고 나섰다. 이를 알아챈 당국은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고 제독 아스티오코스를 그가 데리고 있던 배 네 척과 함께 에리트라이에서 불러와, 인질을 잡든 다른 수를 쓰든 어떻게 하면 가장 조용히 그 음모를 끝낼 수 있을지를 의논했다.

키오스인이 이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아테네 중장보병 1,000명과 아르고스인 1,500명(그 가운데 500명은 아테네인이 무구를 대어 준 경보병이었다)과 동맹 병력 1,000명이 같은 여름이 끝나 갈 무렵 프리니코스와 오노마클레스와 스키로니데스의 지휘 아래 배 48척을 타고 아테네에서 떠났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수송선이었다. 그들은 사모스에 들렀다가 건너가 밀레토스 앞에 진을 쳤다. 이에 밀레토스인이 중장보병 800명을 이끌고 나왔고 칼키데우스와 함께 온 펠로폰네소스인과 티사페르네스의 외국인 용병 얼마간, 그리고 티사페르네스 자신과 그 기병이 함께 나와 아테네인과 그 동맹에게 싸움을 걸었다. 아르고스인은 저희 돌격을 견뎌 낼 리 없는 이오니아인을 치러 간다는 태평한 업신여김을 품고 제 날개에서 앞으로 내달았다가 밀레토스인에게 패해 3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잃었고, 한편 아테네인은 먼저 펠로폰네소스인을 무찌르고 이방인과 군대의 잡다한 무리를 앞으로 몰아냈으며, 아르고스인이 무너진 뒤 제 편이 지는 것을 보고 도시 안으로 물러난 밀레토스인과는 맞붙지 않은 채 밀레토스 성벽 바로 아래에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그 승리를 마무리했다. 그리하여 이 싸움에서는 양쪽 모두 이오니아인이 도리스인을 이겼으니, 아테네인이 저희와 맞선 펠로폰네소스인을 무찌르고 밀레토스인이 아르고스인을 무찌른 것이었다. 전승 기념물을 세운 뒤 아테네인은 지협 위에 선 그곳 둘레에 벽을 두를 채비를 했으니, 밀레토스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도시들도 쉽게 저희 쪽으로 넘어오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해 질 무렵 펠로폰네소스와 시칠리아에서 오는 배 55척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수 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 가운데 22척은 시칠리아 그리스인이 낸 것으로 20척은 시라쿠사에서 두 척은 셀리누스에서 온 것이었으니, 시라쿠사 사람 헤르모크라테스가 아테네의 힘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데 함께하자고 무엇보다 앞장서

재촉한 결과였다. 그리고 앞서 펠로폰네소스에서 채비 중이라고 말한 배들도 이제 갖추어졌으므로 두 전대 모두 스파르타 사람 테리메네스에게 맡겨져 제독 아스티오코스에게 넘겨지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먼저 밀레토스 앞바다의 섬 레로스에 들렀고, 그곳에서 아테네인이 그 도시 앞에 와 있음을 알고 밀레토스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이아소스 만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알키비아데스가 말을 타고 밀레토스 땅의 테이키우사로 왔으니 그들이 밤을 지내려고 들어간 만 안의 그 지점이었다. 그는 저 자신이 밀레토스인과 티사페르네스의 편에 서서 싸운 그 싸움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오니아와 저희 대의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서둘러 밀레토스를 구하러 가서 그 포위를 막으라고 권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튿날 아침에 밀레토스를 구하러 가기로 정했다. 한편 아테네 지휘관 프리니코스는 레로스에서 온 그 함대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은 터였고, 동료들이 바다에 남아 결판을 내자는 뜻을 내비치자 저도 머무르지 않겠거니와 저가 막을 수 있는 한 그들도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앞으로 방해받지 않고 채비를 온전히 갖춘 뒤 적 함대의 수와 거기에 맞세울 수 있는 제 병력을 정확히 알고서 겨룰 수 있는 마당에, 수치스럽다는 비난에 떠밀려 이치에 닿지 않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아테네 함대가 형편에 맞을 때 물러나는 것은 수치가 아니며, 어떻게 말을 꾸미든 지는 편이 더 수치스럽고 도시를 수치에만이 아니라 더없이 심각한 위험에까지 내모는 일이라고 했다. 가까운 불운을 겪은 뒤이니 아무리 강한 병력을 가졌더라도 반드시 그래야 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물며 아무 강제도 없이 스스로 불러들인 위험에 뛰어드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되도록 빨리 다친

사람들과 데려온 병력과 물자를 거두어 싣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적의 땅에서 빼앗은 것은 두고 떠나 사모스로 가서 그곳에 제 배를 모두 모아 두었다가 기회가 오는 대로 치라고 일렀다. 그는 말한 대로 행했다. 그리하여 이때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이 일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손댄 모든 일에서 프리니코스는 분별 있는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바로 그날 저녁 아테네인은 승리를 끝맺지 못한 채 밀레토스 앞에서 진을 거두었고, 낭패에 자존심이 상한 아르고스인은 곧바로 사모스에서 본국으로 떠났다.

아침이 되자마자 펠로폰네소스인은 테이키우사에서 닻을 올려 아테네인이 떠난 뒤의 밀레토스로 들어갔다. 그들은 하루를 머물렀고, 이튿날 처음에 칼키데우스와 함께 항구로 쫓겨 들어갔던 키오스 배들을 데리고 테이키우사에 내려놓은 삭구를 가지러 도로 가기로 정했다. 그들이 이르자 티사페르네스가 뭍 병력을 이끌고 찾아와 제 적 아모르게스가 쥐고 있던 이아소스로 가도록 그들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느닷없이 이아소스를 쳐서 빼앗았으니, 그곳 주민들은 그 배가 아테네 배 말고 다른 것일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싸움에서는 시라쿠사인이 가장 두드러졌다. 피수트네스의 서자이며 왕에게 반기를 든 아모르게스는 산 채로 붙잡혀 티사페르네스에게 넘겨졌으니, 그가 받은 명대로 원한다면 왕에게 데려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아소스는 군대에게 약탈당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큰 노획물을 얻었으니 그 도시가 예로부터 부유했기 때문이다. 아모르게스 밑에서 복무하던 용병은 대부분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자들이었으므로 펠로폰네소스인은 그들을 해치지 않고 받아들여 제 군대에 넣었고, 그 도시는 노예든 자유민이든 사로잡은 자를 모두 딸려 한 사람마다 다레이코스 스타테르[7] 1닢으로 값을 정해 티사페르네스에게 넘겼다. 그런 뒤 그들은 밀레토스로 돌아갔다. 스파르타인이 키오스의 지휘를

맡기려고 보낸 레온의 아들 페다리토스를 아모르게스에게서 넘겨받은 용병과 함께 뭍길로 에리트라이까지 보냈고, 필리포스를 밀레토스에 남겨 총독으로 삼았다.

이제 여름이 끝났다. 이어지는 겨울에 티사페르네스는 이아소스에 방어 시설을 갖추고 밀레토스로 옮겨 가, 스파르타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배에 한 달치 삯을 나누어 주었으니 한 사람마다 하루 아티카 드라크메[8] 1닢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왕에게 물어보기 전까지 오볼로스[9] 3닢 넘게는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왕이 그렇게 명한다면 그때는 드라크메를 온전히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라쿠사 장군 헤르모크라테스가 항의하자(테리메네스는 제독이 아니라 배를 아스티오코스에게 넘기려고 따라온 것뿐이었으므로 삯을 두고 별로 따지지 않았다), 한 사람마다 하루 오볼로스 3닢에 더해 배 다섯 척분의 삯을 얹어 주기로 합의되었다. 티사페르네스는 배 55척에 대하여 한 달에 30탈란톤을 냈고, 그 수를 넘는 배를 가진 나머지에게도 같은 비율로 냈다.

같은 겨울에 사모스의 아테네인은 본국에서 카르미노스와 스트롬비키데스와 에우크테몬의 지휘 아래 배 35척이 더 와 합류하자 키오스에 있던 제 전대와 그 밖의 배를 모두 불러들였으니, 해군으로 밀레토스를 봉쇄하는 한편 함대와 군대를 키오스로 보내려는 것이었고 어느 쪽 임무를 맡을지는 제비를 뽑아 정했다. 그들은 이 뜻을 실행에 옮겼으니, 제비로 키오스를 맡게 된 스트롬비키데스와 오노마클레스와 에우크테몬이 배 30척과 밀레토스에 갔던 중장보병 1,000명 가운데 일부를 수송선에 태우고 키오스를 치러 갔고, 나머지는 사모스에 배 74척으로 남아 바다의 주인 노릇을 하며 밀레토스로 나아갔다.

그러는 동안 아스티오코스는 앞서 키오스에서 음모 때문에 받아 두어야 했던 인질을 거두고 있다고 말한 그 사람인데, 테리메네스와

함께 온 함대가 이르렀고 동맹의 형편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배 열 척과 같은 수의 키오스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 프텔레온을 쳤으나 헛일이 되자 해안을 따라 클라조메나이로 가서, 아테네 편에 선 자들에게 내륙의 다프누스로 옮겨 가 펠로폰네소스인에게 합류하라고 명했으며 이오니아에서 왕의 부관인 타모스도 이 명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명이 무시되자 아스티오코스는 성벽이 없는 그 도시를 쳤으나 빼앗지 못했고, 자기는 거센 바람에 밀려 포카이아와 쿠마이로 떠내려갔으며 나머지 배들은 클라조메나이 곁의 섬들인 마라투사와 펠레와 드리무사에 들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람에 막혀 여드레를 붙들려 있었고, 클라조메나이인이 그곳에 맡겨 둔 재물을 모두 털어 써 버린 뒤 남은 것은 배에 싣고 아스티오코스에게 합류하려고 포카이아와 쿠마이로 떠났다.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다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레스보스인의 사절이 이르렀다. 아스티오코스에게는 뜻을 이루었으나 코린트인과 다른 동맹들이 앞선 실패 때문에 이를 꺼렸으므로, 그는 닻을 올려 키오스로 떠났고 함대가 폭풍에 흩어진 터라 그들은 마침내 저마다 다른 방면에서 그곳에 이르렀다. 그 뒤 앞서 밀레토스에서 해안을 따라 행군하고 있다고 말한 페다리토스가 에리트라이에 이르러 그곳에서 군대를 이끌고 키오스로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칼키데우스가 다섯 척에서 무기와 함께 남겨 둔 병사 500명쯤도 만났다. 그러는 동안 레스보스인 몇이 떨어져 나가겠다고 제안해 오자, 아스티오코스는 페다리토스와 키오스인에게 배를 이끌고 가서 레스보스를 떨어져 나오게 하여 동맹의 수를 늘려야 하며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아테네인에게 해를 입혀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러나 키오스인은 이 말에

귀를 닫았고, 페다리토스는 키오스 배를 그에게 내주기를 딱 잘라 거절했다.

이에 아스티오코스는 코린트 배 다섯 척과 메가라 배 한 척, 그리고 헤르미오네에서 온 배 한 척과 저와 함께 라코니아에서 온 배들을 데리고 제독으로서 지휘를 맡으러 밀레토스로 떠났으니, 떠나기 전 키오스인에게 그들이 곤경에 빠지더라도 저는 결코 도우러 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에리트라이 땅의 코리코스에 배를 대고 밤을 지냈다. 사모스에서 키오스를 치러 오던 아테네 병력은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편에 배를 대고 있었으므로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밤중에 페다리토스에게서 편지가 이르러, 사모스에서 풀려난 에리트라이 포로 몇이 에리트라이를 넘기려고 그곳에 와 있다고 알리자, 아스티오코스는 곧바로 에리트라이로 되돌아갔고 그리하여 아테네인과 마주치는 일을 간신히 면했다. 그곳으로 페다리토스가 건너와 그에게 합류했고, 그 배신이라는 것을 조사한 끝에 그 이야기가 모두 사모스에서 사람들을 빼내려고 꾸며진 것임을 알아내자 그들은 그 혐의를 벗겨 주고 배를 몰아 떠났으니, 페다리토스는 키오스로 아스티오코스는 작정한 대로 밀레토스로 갔다.

그러는 동안 코리코스를 돌아 나아가던 아테네 병력이 아르기노스 앞바다에서 키오스 군선 세 척과 마주쳐 곧바로 뒤쫓았다. 큰 폭풍이 닥쳐 키오스 배들은 간신히 항구로 피했고, 추격에서 가장 앞섰던 아테네 배 세 척은 부서져 키오스 도시 가까이로 밀려 올라갔으며 그 선원들은 죽거나 사로잡혔다. 아테네 함대의 나머지는 미마스 산 아래 포이니쿠스라는 항구로 피했고, 그 뒤 그곳에서 레스보스로 들어가 요새를 쌓는 일에 채비했다.

같은 겨울에 스파르타 사람 히포크라테스는 디아고라스의 아들 도리에우스와 두 동료의 지휘 아래 있던 투리이 배 열 척과 라코니아 배 한 척과 시라쿠사 배 한 척을 이끌고 펠로폰네소스에서 나아가, 티사페르네스의 부추김으로 이미 떨어져 나간 크니도스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르렀다는 것이 밀레토스에 알려지자, 전대의 절반은 크니도스를 지키도록 남기고 나머지로 트리오피온 둘레를 돌며 이집트에서 오는 상선을 모두 붙잡으라는 명이 그들에게 왔다. 트리오피온은 크니도스의 곶으로 아폴론에게 바쳐진 곳이었다. 이것이 아테네인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사모스에서 배를 몰아 트리오피온에서 지키던 배 여섯 척을 붙잡았으나 선원들은 배에서 빠져나갔다. 그 뒤 아테네인은 크니도스로 들어가 요새가 없는 그 도시를 쳐서 거의 빼앗을 뻔했고, 이튿날 다시 쳤으나 효과가 덜했으니 주민들이 밤사이에 방어 시설을 손보았고 트리오피온의 배에서 빠져나온 선원들이 증원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아테네인은 물러났고 크니도스 땅을 노략질한 뒤 사모스로 돌아갔다.

거의 같은 때에 아스티오코스가 밀레토스의 함대에 이르렀다. 펠로폰네소스인의 진영은 삯을 넉넉히 받고 있었고 병사들이 이아소스에서 얻은 많은 노획물을 아직 손에 쥐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물자가 풍족했다. 밀레토스인도 전쟁에 큰 열의를 보였다. 그런데도 펠로폰네소스인은 칼키데우스가 맺은 티사페르네스와의 첫 협정이 미흡하며 저희보다 그에게 더 이롭다고 여겼고, 그리하여 테리메네스가 아직 그곳에 있는 동안 다른 협정을 맺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이 다레이오스 왕 및 왕의 아들들과, 또 티사페르네스와 조약과 우호를 맺는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스파르타인도 스파르타인의 동맹도 다레이오스 왕에게 속하거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상에게 속했던 나라나 도시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도, 달리 해쳐서도 안 된다. 또한 스파르타인도 스파르타인의 동맹도 그러한 도시에서 공납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다레이오스 왕도 왕에게 예속된 어느 누구도 스파르타인이나 그 동맹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도, 달리 해쳐서도 안 된다.

2. 스파르타인이나 그 동맹이 왕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왕이 스파르타인이나 그 동맹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 양쪽이 함께 합의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3. 아테네인과 그 동맹을 상대로 한 전쟁은 양쪽이 함께 치른다. 그리고 화약을 맺는다면 양쪽이 함께 맺는다.

4. 왕이 불러들여 왕의 나라에 와 있는 모든 병력의 비용은 왕이 진다.

5. 왕과 맺은 이 협정에 든 나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왕의 나라를 치면, 나머지가 그들을 막고 제 힘이 닿는 한 왕을 돕는다. 그리고 왕의 나라나 왕의 다스림 아래 있는 나라들 가운데 누구든 스파르타인이나 그 동맹의 나라를 치면, 왕이 그것을 막고 제 힘이 닿는 한 그들을 돕는다.

이 협정 뒤에 테리메네스는 함대를 아스티오코스에게 넘기고 작은 배로 떠났다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아테네 병력은 이제 레스보스에서 키오스로 건너가 바다에서나 뭍에서나 주인 노릇을 하며 델피니온을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으니, 그곳은 뭍 쪽이 본디 튼튼하고 항구를 하나 이상 갖추었으며 키오스 도시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는 동안 키오스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그토록 여러 번 싸움에 지고 나서 이제는 저희끼리도 반목했으니, 페다리토스가 이온의 아들 티데우스와 그 무리를 아테네 편향[10]의 혐의로 처형하고 이어 도시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과두정을 억지로 씌운 일이 그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도 페다리토스 밑의 용병도 적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래도 그들은 밀레토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티오코스에게 도와 달라고 청했으나 그가 거절했고, 그 때문에

페다리토스는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스파르타에 써 보내 고발했다. 키오스에서 아테네의 일이 돌아가던 형편은 이러했다. 한편 사모스의 아테네 함대는 밀레토스의 적을 치러 거듭 나갔으나 그가 싸움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사모스로 물러나 가만히 있었다.

같은 겨울에 메가라 사람 칼리게이토스와 키지코스 사람 티마고라스의 주선으로 스파르타인이 파르나바조스를 위해 갖춘 배 27척이 동지 무렵 스파르타 시민 안티스테네스의 지휘 아래 펠로폰네소스를 떠나 이오니아로 향했다. 스파르타인은 이들과 함께 스파르타 시민 11명도 아스티오코스의 조언자로 보냈는데 아르케실라오스의 아들 리카스가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이 받은 명은 밀레토스에 이르거든 전쟁이 잘 치러지도록 전반을 감독하는 일을 돕고, 알맞다고 보면 위의 배들을 또는 그보다 많거나 적은 수를 헬레스폰토스의 파르나바조스에게 보내되 함께 항해한 람피아스의 아들 클레아르코스를 그 지휘에 앉히며, 나아가 알맞다고 보면 페다리토스의 편지 때문에 의심을 사게 된 아스티오코스를 물리고 안티스테네스를 제독으로 세우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말레아에서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간 이 전대는 멜로스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아테네 배 열 척과 마주쳐 그 가운데 세 척을 빈 채로 빼앗아 태웠다. 그 뒤 그들은 멜로스에서 빠져나간 아테네 배들이 저희가 다가온다는 것을 사모스의 아테네인에게 알릴까 두려워(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크레타로 갔고, 조심하느라 항로를 늘려 아시아의 카우노스에 닿았으며, 그곳에서는 안전하다고 여겨 해안을 따라 호위해 달라고 밀레토스의 함대에 전갈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키오스인과 페다리토스는 아스티오코스가 미적거리는데도 꺾이지 않고 거듭 사람을 보내어, 함대를 모두 이끌고 와서 저희를

에워싼 자들을 막도록 도와 달라고, 이오니아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바다에서 갇히고 뭍에서 짓밟히고 털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다그쳤다. 키오스에는 스파르타를 빼면 어느 한 도시보다도 노예가 많았고 그 수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혹독하게 벌을 받았으므로, 아테네 병력이 섬 안에 요새를 갖추고 굳게 자리 잡은 것을 보자 그들 대부분이 곧바로 적에게로 넘어갔고 그 땅을 잘 아는 까닭에 더없이 큰 해를 끼쳤다. 그래서 키오스인은 아스티오코스에게 저희를 돕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다그쳤으니, 적이 나아가는 것을 멈출 희망과 가망이 아직 있고 델피니온이 아직 짓는 중이라 끝나지 않았으며 저희를 에워싼 자들의 진영과 함대를 지키려고 덧붙이고 있는 더 높은 방벽이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아스티오코스는 동맹들도 그것을 바란다는 것을 보고, 앞서 말한 으름장 때문에 그럴 뜻이 없었는데도 갈 채비를 했다.

그러는 사이에 스파르타 위원들을 태운 배 27척이 이르렀다는 소식이 카우노스에서 왔다. 아스티오코스는 바다를 더 잘 장악하려고 그만한 무게를 지닌 함대를 호위하는 임무와, 제 처신을 살피는 염탐꾼으로 보내진 스파르타 사람들을 무사히 데려오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워 곧바로 키오스로 가려던 것을 접고 카우노스로 떠났다. 해안을 따라 가다가 그는 메로피스 코스에 내려 그 도시를 약탈했으니, 그곳은 요새가 없었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것 가운데 단연 가장 컸던 지진으로 얼마 전 폐허가 된 터였다. 주민들이 산으로 달아났으므로 그는 그 땅을 휩쓸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노획물로 삼았으나 자유민은 놓아주었다. 코스에서 밤중에 크니도스에 이른 그는 크니도스인의 간청에 못 이겨 뱃사람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아테네 배 20척을 치러 곧장 나아갔다. 그 배들은 사모스의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카르미노스와 함께 아스티오코스가 몸소 합류하러 가던 바로 그

펠로폰네소스의 배 27척을 노리고 지켜보던 것이었으니, 사모스의 아테네인이 그들이 다가온다는 말을 멜로스에서 들었고 카르미노스는 시메와 칼케와 로도스와 리키아 앞바다에서 망을 보다가 이제 그들이 카우노스에 있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그리하여 아스티오코스는 그대로 시메로 나아갔으니, 저가 왔다는 말이 퍼지기 전에 적을 바다 어딘가에서 잡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와 안개가 그를 덮쳐 어둠 속에서 그의 배들이 뒤처지고 대열이 흐트러졌다. 아침이 되자 그의 함대는 갈라져 대부분이 아직 그 섬 둘레에 흩어져 있었고 왼쪽 날개만이 카르미노스와 아테네인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카우노스에서 오기를 기다리던 그 전대로 여겨 제 배 20척 가운데 일부만 이끌고 서둘러 맞서 나아갔고, 곧바로 쳐서 배 세 척을 가라앉히고 다른 배들을 쓸 수 없게 만들어 싸움에서 우세했으나 함대의 본진이 뜻밖에 눈앞에 나타나자 사방에서 에워싸였다. 이에 그들은 달아났고 배 여섯 척을 잃은 뒤 나머지를 이끌고 테우틀루사 곧 비트 섬[11]으로 빠져나갔으며 그곳에서 할리카르나소스로 갔다. 그 뒤 펠로폰네소스인은 크니도스로 들어가 카우노스에서 온 배 27척이 합류하자 다 함께 나아가 시메에 전승 기념물을 세웠고, 그런 뒤 도로 크니도스로 와 닻을 내렸다.

아테네인은 그 해전을 알자마자 사모스에 있던 배를 모두 이끌고 시메로 갔고, 크니도스의 함대를 치지도 그에게 공격받지도 않은 채 시메에 남겨진 배의 삭구를 거두었으며 뭍의 로리미에 들렀다가 사모스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이제 모두 크니도스에 모인 펠로폰네소스 배들은 손볼 데를 손보았고, 한편 스파르타 위원 11명은 저희를 만나러 온 티사페르네스와 함께 지난 거래에서 마음에 차지 않던 점들을,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 것이 가장 좋고 서로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의논했다. 지금까지의 일을 가장 매섭게 나무란 것은

리카스였다. 그는 두 조약 어느 것도 설 수 없으니 칼키데우스의 것도 테리메네스의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왕이 이제 와서 저 자신이나 제 조상이 다스린 적이 있는 나라를 모두 제 것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 주장은 모든 섬과 테살리아와 로크리스와 보이오티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은근히 다시 멍에 아래 놓는 것이며, 스파르타인이 그리스인에게 자유 대신 메디아인 주인을 안겨 주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티사페르네스에게 다른 더 나은 조약을 맺자고 청했으니, 저희는 지금 있는 조약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조건이라면 그가 주는 삯도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티사페르네스는 크게 기분이 상해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한 채 노여워하며 떠나갔다.

---

1. 네오다모데이스 — 해방된 헬롯으로 이루어진 스파르타의 병력. 자유는 얻었으나 완전시민권은 없었고 주로 국외의 임무에 쓰였다.

2. 에포로스 — 스파르타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5명을 뽑았고 왕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번역에서는 '감독관'으로 옮기고 첫 등장에만 원어를 함께 밝혔다.

3. 페리오이코이 — 스파르타 주변의 자유민. 스파르타에 딸린 도시에 살며 군역을 졌으나 완전시민권은 없었다.

4.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5.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은의 무게로 셈했고 큰 액수를 헤아릴 때 썼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6. 이스트모스 축제 — 코린트 지협의 포세이돈 성역에서 2년마다 열린 범그리스 경기. 축제 동안에는 참가자의 왕래를 보장하는 신성한 휴전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깨는 것은 신에게 죄를 짓는 일로 여겨졌다.

7. 스타테르 — 화폐 단위. 여기의 다레이코스 스타테르는 페르시아 왕이 찍은 금화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8. 드라크메 — 그리스의 은화 단위.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대략 1드라크메였다고 전한다. 아티카 기준으로 친 것을 '아티카 드라크메'라 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9. 오볼로스 — 그리스의 화폐 단위. 6오볼로스가 1드라크메였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10. 아테네 편향 — 원문 Atticism. 아테네 쪽에 마음을 두고 그 편에 서려 한다는 혐의를 가리킨다.

11. 비트 섬 — 크롤리가 테우틀루사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 나란히 적은 것이다. 그리스어 테우틀론이 비트를 뜻한다.

25장 (제VIII권 제XXV장) — 전쟁 제20년과 제21년 — 알키비아데스의 책략 — 페르시아 보조금의 중단 — 아테네의 과두정 정변 — 사모스 군대의 애국심

이제 펠로폰네소스인은 그곳 유력자 몇 사람의 초청을 받아 로도스로 가기로 정했으니, 뱃사람의 수로 보나 육군으로 보나 강한 섬을 얻기를 바랐고 또 티사페르네스에게 돈을 청하지 않고도 저희 동맹만으로 함대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같은 겨울에 곧바로 크니도스에서 배를 띄워 먼저 함선 94척을 이끌고 로도스 땅의 카미로스에 들어갔는데, 그 음모를 알지 못하던 주민 대다수가 크게 놀라 달아났으니 그 도시에 성벽이 없었던 탓이 특히 컸다. 그러나 뒤에 스파르타인이 그들을 린도스와 이알리소스라는 다른 두 도시의 주민과 함께 불러 모았고, 로도스인은 아테네인에게서 떨어져 나오도록 설득되어 그 섬은 펠로폰네소스인에게 넘어갔다. 그동안 아테네인은 경보를 받고 그들보다 앞서려고 사모스에서 함대를 띄워 그 섬이 보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조금 늦은 탓에 당장은 칼케로 물러갔다가 거기서 사모스로 갔으며, 그 뒤로는 칼케와 코스와 사모스를 근거지로 삼아 로도스를 상대로 싸움을 이어 갔다.

이제 펠로폰네소스인은 로도스인에게서 32탈란톤[1]의 분담금을 거두었고, 그러고 나서는 배를 뭍으로 끌어올린 채 8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그리고 그보다 앞서 그들이 로도스로 옮겨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책략이 벌어졌다. 칼키데우스가 죽고 밀레토스에서 싸움이 있은 뒤로 알키비아데스는 펠로폰네소스인에게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아스티오코스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스파르타에서 받았으니 그가 아기스의 개인적인 원수인 데다 다른 점에서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놀란 알키비아데스는 먼저 티사페르네스에게로 몸을 피했고, 곧바로 그를 통해 펠로폰네소스 쪽의 일을 해칠 수 있는 온갖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든 일에서 그의 조언자가 된 그는 급료를 하루 아티카 드라크메[2] 1닢에서 3오볼로스[3]로 깎고 그나마도 제때 주지 않게 했으며, 티사페르네스에게 펠로폰네소스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고 일렀으니, 곧 바다 경험이 저희보다 오래된 아테네인조차 제 사람들에게 3오볼로스밖에 주지 않는데 이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뱃사람들이 너무 넉넉해져 타락하고 기운을 빼는 방탕에 돈을 써서 제 몸을 망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며, 승무원에게 급료를 불규칙하게 치르는 것 또한 달아나면 잃게 될 밀린 급료를 담보로 삼아 이탈을 막으려는 것이라 하라고 한 것이다. 그는 또 티사페르네스에게 여러 도시의 함장과 장군들을 돈으로 매수해 눈감아 주게 하라고 일렀고, 이 수법은 시라쿠사인을 뺀 모두에게 통했으니 헤르모크라테스만이 동맹 전체를 대신해 그에게 맞섰다. 한편 돈을 청하러 온 도시들은 알키비아데스가 티사페르네스의 이름으로 딱 잘라 말해 돌려보냈으니,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인 키오스인이 남의 나라 군대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 자유를 위해 남들이 목숨만이 아니라 돈까지 걸기를 바라는 것은 크게 뻔뻔한 일이라 했고, 다른 도시들로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아테네에 많은 돈을 바쳐야 했으니 이제 저희 자신을 위해 그만큼이나 그보다 더 내놓기를 거절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는 또

티사페르네스가 지금은 제 돈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 아낄 만한 까닭이 충분하지만 왕에게서 돈이 오는 대로 급료를 온전히 치르고 도시들에게도 마땅한 대로 해 주리라고 일러 두었다.

알키비아데스는 나아가 티사페르네스에게, 전쟁을 끝내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저가 갖추고 있던 페니키아 함대를 끌어올리도록 설득당하지도 말며 더 많은 그리스인에게 급료를 대 주어 뭍과 바다의 힘을 한 손에 몰아주는 일도 하지 말고, 다투는 두 편에게 저마다 한 영역씩을 가지게 두어 왕이 한쪽을 성가시게 여길 때 다른 쪽을 불러 쓸 수 있게 하라고 조언했다. 바다와 뭍의 지배가 한 손에 합쳐지면 우세한 쪽을 무너뜨릴 도움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침내 왕 자신이 나서서 큰 비용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싸움을 끝까지 치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가장 값싼 방책은 그리스인이 서로를 지치게 하도록 두는 것이니, 비용은 얼마 들지 않고 저는 위험을 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테네인은 뭍에 대한 욕심이 덜하고 왕에게 가장 이로운 원칙과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므로 지배를 함께 나누기에 가장 편한 상대일 터였으니, 그들은 바다는 아테네를 위해 정복하고 왕의 땅에 사는 그리스인은 왕을 위해 정복하려고 힘을 모을 채비가 되어 있는 반면 펠로폰네소스인은 도리어 그 그리스인을 해방하러 온 자들이었다. 그런데 스파르타인이 그사이에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스인을 그리스인인 아테네인에게서 해방하면서 이방인인 메디아에게서도 해방하지 않을 리는 없었다. 그러므로 알키비아데스는 그에게 먼저 두 편을 다 지치게 하고, 아테네의 힘을 될 수 있는 대로 잘라 낸 다음에는 곧바로 펠로폰네소스인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권했다. 적어도 그 처신으로 미루어 볼 수 있는 한 티사페르네스는 대체로 이 방책을 받아들였으니, 좋은 조언에 값하여 이제 알키비아데스를 믿었고 펠로폰네소스인에게 돈을 넉넉히 주지 않았으며

바다에서 싸우지도 못하게 했고, 페니키아 함대가 오면 유리한 형세에서 겨룰 수 있게 되리라고 둘러대며 그들의 일을 망쳤으니, 그리하여 매우 뛰어났던 그들의 해군이 제 힘을 잃게 만들었고 전쟁에 대해 잘못 볼 수 없을 만큼 뚜렷한 냉담함을 두루 드러냈다.

알키비아데스가 그때 함께 있던 티사페르네스와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한 것은 그것이 참으로 가장 나은 길이라고 여겨서만이 아니라 제 조국으로 돌아갈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니, 조국을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언젠가 아테네인을 설득해 저를 불러들이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고 그들을 설득할 가장 좋은 길은 저가 티사페르네스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그들이 보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이 되어 가는 모양은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보여 주었다. 사모스에 있던 아테네인이 그가 티사페르네스에게 영향력을 지녔음을 알게 되자, 주로는 저희 스스로의 생각에서였으나 (알키비아데스 자신이 그들의 유력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저를 내쫓은 그 못된 민주정 대신 과두정만 선다면 기꺼이 조국으로 돌아가 티사페르네스를 그들의 벗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군대 안의 가장 나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 몫도 얼마간 있었다) 함대의 함장들과 유력자들은 곧바로 민주정을 뒤엎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 계획은 먼저 진영에서 거론되었고 그런 다음 거기서 도시로 흘러들었다. 몇 사람이 사모스에서 건너가 알키비아데스를 만났고, 그는 그들이 민주정을 버리고 왕이 그들을 믿을 수 있게만 해 준다면 먼저 티사페르네스를, 그다음에는 왕을 그들의 벗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제안했다. 전쟁으로 가장 심하게 고생하기도 했던 상층 사람들은 이제 정권을 제 손에 넣고 적을 이기리라는 큰 희망을 품었다. 사모스로 돌아온 사절들은 제 편에 선 사람들을 정치 결사로 묶었고, 알키비아데스가 돌아오고 민주정이 없어지면 왕이 그들의 벗이 되어

돈을 대 주리라고 함대의 다수에게 드러내 놓고 말했다. 다수는 이 책략에 처음에는 성이 났으나 왕에게서 급료가 나오리라는 이로운 전망에 잠잠해졌고, 과두파 음모자들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린 뒤 이제 저희끼리 동료 대부분과 함께 알키비아데스의 제안을 다시 따져 보았다. 그것을 이롭고 믿을 만하다고 본 나머지 사람들과 달리 아직 장군 자리에 있던 프리니코스는 그 제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키비아데스는 과두정도 민주정만큼이나 아랑곳하지 않으며 다만 제 동료들의 손으로 제가 불려 들어가게 하려고 조국의 제도를 바꾸려 들 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옳았으며, 저희로 말하면 오직 내분을 피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이 이제 바다에서 저희와 대등하고 왕의 지배 아래 있는 주요 도시 몇을 손에 넣은 마당에, 저를 한 번도 해친 적 없는 펠로폰네소스인과 벗이 될 수 있는데도 굳이 길을 돌아 믿지도 않는 아테네인 편에 서는 것은 왕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민주정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이제 과두정을 내밀게 될 동맹국들로 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오거나 충실한 자들이 충성을 굳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으니, 동맹들은 과두정 아래서든 민주정 아래서든 예속되는 것을 지금 실제로 누리고 있는 정체에서의 자유보다 더 좋게 여길 리가 없고 그 정체가 어느 쪽에 속하든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들은 이른바 나은 계층도 민중만큼이나 가혹하리라고 여겼으니, 동맹들에게 해가 되는 민중의 조치를 처음 꾸며 내고 발의하며 그 이득을 대개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실로 그 나은 계층에게 달려 있었다면 동맹들은 재판도 없이 폭력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나, 민중은 그들의 피난처였고 그자들을 벌하는 자였다. 도시들이 이것을 겪어서 배웠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알키비아데스의 제안도 지금 진행되는 책략도 그의 찬성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결사의 구성원들은 처음에 정한 대로 모여 제안된 것을 받아들였고, 알키비아데스를 불러들이는 일과 도시의 민주정을 없애는 일을 의논하여 그리하여 티사페르네스를 아테네인의 벗으로 만들기 위해 페이산드로스와 다른 이들을 사절로 아테네에 보낼 채비를 했다.

이제 프리니코스는 알키비아데스를 불러들이자는 발의가 나오리라는 것과 아테네인이 거기 동의하리라는 것을 알아챘고, 저가 그 일에 반대해 말한 바가 있어 알키비아데스가 돌아오면 그 반대를 앙갚음하리라고 두려워하여 다음과 같은 수를 썼다. 그는 아직 밀레토스 언저리에 있던 스파르타 해군 사령관 아스티오코스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어, 알키비아데스가 티사페르네스를 아테네인의 벗으로 만들어 그들의 일을 망치고 있다고 알리고 나머지 책략도 낱낱이 밝혔으며, 제 조국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원수를 해치려 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아스티오코스는 알키비아데스를 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게다가 알키비아데스는 전처럼 그의 손이 닿는 곳에 함부로 오지도 않았다) 마그네시아에 있던 그와 티사페르네스에게 올라가 사모스에서 온 편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밀고자가 되었으며, 전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면 티사페르네스에게 돈을 받는 앞잡이가 되어 이 일이든 다른 무슨 일이든 알려 주기로 했으니, 급료가 온전히 치러지지 않는 데 대해 더 강하게 따지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에 알키비아데스는 곧바로 사모스의 당국자들에게 프리니코스를 겨눈 편지를 보내어 그가 한 일을 밝히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고발로 넋이 나가고 더없는 위험에 놓인 프리니코스는 다시 아스티오코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앞서 보낸 편지의 비밀을 그토록 허술하게 지킨 것을 나무라고, 이제는 사모스에 있는 아테네 함대 전체를 없앨 기회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사모스에 성벽이 없으니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를 자세히 일러 주었으며, 그들 때문에 제 목숨이 위태로워진 마당이니 저를 죽이려 드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려고 이런 일이든 다른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을 이제 와서 나무랄 수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것 또한 아스티오코스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알렸다.

그러는 동안 프리니코스는 아스티오코스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과 그 일을 알리는 편지가 알키비아데스에게서 막 닿으려 한다는 것을 때맞추어 알아채고 스스로 그 소식에 앞질러 나서서, 적이 사모스에 성벽이 없고 함대도 모두 항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진영을 치려 한다고, 이 정보는 저가 틀림없이 장담할 수 있다고,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모스에 성벽을 쌓고 방비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군대에 말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장군이었으므로 이런 조치를 스스로 시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벽 쌓는 일에 착수했고, 그 덕에 사모스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보다 일찍 성벽을 갖추었다. 오래지 않아 알키비아데스에게서 편지가 왔으니, 군대가 프리니코스에게 배신당했고 적이 곧 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믿음을 얻지 못했으니, 그가 적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미움 때문에 그것을 프리니코스에게 뒤집어씌워 그가 적의 공모자인 것처럼 꾸미려 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그 소식은 프리니코스를 해치기는커녕 도리어 그가 한 말이 옳았음을 증언해 준 셈이 되었다.

그 뒤 알키비아데스는 티사페르네스가 아테네인의 벗이 되도록 설득하는 일에 나섰다. 티사페르네스는 펠로폰네소스인이 아시아에 아테네인보다 더 많은 함선을 두고 있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될 수만 있다면 설득당할 마음이 있었으니, 특히 크니도스에서 테리메네스의 조약을 두고 펠로폰네소스인과 다툰 뒤로 그러했다. 이 다툼은 이미

벌어진 뒤였으니 이때 펠로폰네소스인은 실제로 로도스에 있었고, 그 다툼에서 스파르타인이 모든 도시를 해방한다는 데 관한 알키비아데스의 애초의 논지는 리카스의 선언으로 사실임이 드러났으니, 곧 왕이나 그 조상들이 전에 한 번이라도 다스린 적 있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 왕이 되게 하는 협정에는 따를 수 없다고 리카스가 말한 것이다.

알키비아데스가 걸린 일의 크기에 걸맞은 간절함으로 티사페르네스의 호의를 얻으려 매달리는 동안, 페이산드로스와 함께 사모스에서 보내진 아테네 사절들이 아테네에 이르러 민중 앞에서 연설하여 저희 생각을 간추려 말했고, 특히 알키비아데스를 불러들이고 민주정체를 바꾸기만 하면 왕을 동맹으로 얻어 펠로폰네소스인을 이길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러 사람이 나서서 민주정 문제를 들어 그들에게 맞섰고, 알키비아데스의 원수들은 정체를 어겨 가며 이루어질 복귀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소리쳤으며, 에우몰피다이 가문과 케리케스 가문[4]은 그가 추방된 까닭이었던 비의[5]를 위해 항의하며 그의 소환을 막아 달라고 신들에게 빌었는데, 그때 페이산드로스가 거센 반대와 욕설 한가운데로 앞에 나와 맞서는 사람을 하나하나 따로 불러 다음과 같이 물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이 바다에서 저희와 맞서 저희만큼 많은 함선을 가지고 있고 동맹한 도시도 더 많으며 왕과 티사페르네스가 그들에게 돈을 대 주는데 아테네인에게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남지 않은 마당에, 누군가 왕을 저희 편으로 넘어오게 하지 못한다면 나라를 구할 가망이 그대에게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런 가망은 없다고 대답하자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잘라 말했다. “왕의 신임을 얻으려면 더 온건한 정체를 세우고 관직을 더 적은 사람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한 다음 곧바로 알키비아데스를 불러들여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 있는 이들 가운데 그 하나뿐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정체의 형태가 아니라 나라의 안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나중에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은 과두정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몹시 성을 냈으나, 이것 말고는 남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페이산드로스에게서 분명히 알아듣고는 두려움을 따라 의논한 끝에 언젠가 정체를 다시 바꾸리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물러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페이산드로스가 다른 열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티사페르네스와 알키비아데스와 될 수 있는 가장 나은 합의를 맺도록 표결했다. 같은 때에 민중은 페이산드로스가 내놓은 거짓 고발을 받아들여 프리니코스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동료 스키로니데스도 함께 물러나게 했으며, 디오메돈과 레온을 보내 함대의 지휘를 대신 맡게 했다. 그 고발은 프리니코스가 이아소스와 아모르게스를 넘겨주었다는 것이었고, 페이산드로스가 그것을 내놓은 것은 알키비아데스와 지금 벌이는 일에 그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페이산드로스는 또 소송과 선거에서 서로 돕자고 도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결사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함께 뭉쳐 민주정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모으라고 재촉했고, 형편이 요구하는 다른 조치도 모두 취해 시간을 조금도 헛되이 쓰지 않은 다음 열 사람의 동행과 함께 티사페르네스에게로 가는 배에 올랐다.

같은 겨울에 이때쯤 함대에 합류한 레온과 디오메돈이 로도스를 쳤다. 그들이 보니 펠로폰네소스인의 배는 뭍으로 끌어올려져 있었고, 그래서 해안에 상륙해 맞서 나온 로도스인을 무찌른 다음 칼케로 물러가 코스 대신 그곳을 작전 근거지로 삼았으니,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바다로 나오는지를 거기서 더 잘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라코니아 사람 크세노판테스가 키오스에 있던 페다리토스에게서 로도스로 와서, 아테네인의 축성이 이제 끝났으며 펠로폰네소스 함대 전체가 구원하러 오지 않으면 키오스의 일은 틀림없이 무너지리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그들은 그를 구원하러 가기로 정했다. 그사이 페다리토스는 저와 함께 있던 용병과 키오스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아테네 함선을 둘러친 공사를 쳐서 그 일부를 빼앗고 뭍에 끌어올려진 배 몇 척을 손에 넣었는데, 그때 아테네인이 구원하러 뛰쳐나와 먼저 키오스인을 흩고 다음으로 페다리토스를 둘러싼 나머지 병력을 무찔렀으니, 페다리토스 자신도 죽고 키오스인도 많이 죽었으며 무기도 아주 많이 빼앗겼다.

그 뒤 키오스인은 뭍에서나 바다에서나 전보다 한층 더 바싹 포위되었고 그곳의 굶주림은 심했다. 그러는 동안 페이산드로스와 함께한 아테네 사절들이 티사페르네스의 궁정에 이르러 제안된 합의를 두고 그와 의논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티사페르네스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으므로 (티사페르네스는 아테네인보다 펠로폰네소스인을 더 두려워했고 게다가 알키비아데스 자신이 권한 대로 두 편을 다 지치게 하고자 했다) 요구를 터무니없이 크게 하여 아테네인과 티사페르네스 사이의 조약이 깨지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술책을 썼다. 내 생각에 티사페르네스는 두려움에서 이런 결과를 바랐고, 알키비아데스는 티사페르네스가 어떤 조건으로도 협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음을 이제 알아채고는, 저가 티사페르네스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티사페르네스는 이미 설득되어 그들 편에 설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충분히 양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아테네인이 생각하기를 바랐다. 자리에 있던 티사페르네스를 대신해 말한 알키비아데스의 요구가 어찌나 터무니없었던지, 아테네인은 그가 청하는 것을 무엇이든 한참 동안 받아들였는데도 일이 깨진 책임을 뒤집어써야 했으니, 그는 이오니아 전체를 내놓으라 하고 다음으로는 거기 딸린 섬들을 내놓으라 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양보하라 했으나 이것들은 아무 반대 없이 지나갔고, 마침내 세 번째 만남에서

저의 무력함이 온전히 드러날까 두려워진 알키비아데스는 왕이 함선을 지어 제 해안을 따라 어디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많은 배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테네인은 더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며 저희가 알키비아데스에게 속았다고 단정하고는 성이 나서 자리를 떠나 사모스로 갔다.

티사페르네스는 그 직후 같은 겨울에 해안을 따라 카우노스로 갔으니, 펠로폰네소스 함대를 밀레토스로 되돌리고 급료를 대 주며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새 협정을 맺어 서로의 사이가 아주 끊어지는 데까지 가지 않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그들의 배 많은 수가 급료를 받지 못하고 남겨지면 어쩔 수 없이 싸우러 나갔다가 지거나, 배에 사람이 없어져 아테네인이 제 도움 없이도 목적을 이루게 될까 두려웠다.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펠로폰네소스인이 먹을 것을 찾아 대륙을 휩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 모두를 셈하고 헤아린 그는 두 편을 대등하게 유지한다는 저의 계획에 맞추어 이제 펠로폰네소스인을 불러 급료를 주고 그들과 세 번째 조약을 맺었으니, 그 문언은 다음과 같다.

다레이오스 왕 재위 13년, 스파르타에서 알렉십피다스가 감독관(에포로스)[6]이던 때에, 왕과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의 일에 관하여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이 티사페르네스와 히에라메네스와 파르나케스의 아들들과 마이안드로스 평원에서 협정을 맺는다.

1. 아시아에 있는 왕의 땅은 왕의 것이며, 왕은 제 땅을 뜻하는 대로 다룬다.

2.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은 왕의 땅을 침입하거나 해치지 아니하며, 왕 또한 스파르타인이나 그 동맹들의 땅을 침입하거나 해치지 아니한다. 스파르타인이나 그 동맹들 가운데 누구든 왕의 땅을 침입하거나 해치면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이 이를 막으며, 왕의 땅에서 누구든 스파르타인이나 그 동맹들의 땅을 침입하거나 해치면 왕이 이를 막는다.

3. 티사페르네스는 왕의 함선이 이를 때까지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금 와 있는 함선의 급료를 댄다. 다만 왕의 함선이 이른 뒤에는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이 원한다면 제 함선의 급료를 스스로 치러도 좋다. 그러나 그들이 티사페르네스에게서 급료를 받기로 한다면 티사페르네스가 이를 내주며,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은 전쟁이 끝날 때에 받은 돈을 그에게 갚는다.

4. 함선이 이른 뒤에는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의 함선과 왕의 함선이 티사페르네스와 스파르타인과 그 동맹들이 가장 낫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함께 전쟁을 치른다. 아테네인과 화약을 맺고자 하면 그 또한 함께 맺는다.

조약은 이러했다. 그 뒤 티사페르네스는 합의한 대로 페니키아 함대를 끌어올리고 다른 약속들도 지킬 채비를 했으니, 적어도 그렇게 채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겨울이 이제 끝나 가던 때에 보이오티아인이 아테네 수비대가 지키고 있던 오로포스를 배신으로 빼앗았다. 이 일에 함께한 자들은 에레트리아인 몇과 오로포스인 자신들 가운데 몇이었으니, 이들은 에우보이아의 반란을 꾀하고 있었고 그곳이 에레트리아 바로 맞은편에 있어 아테네인의 손에 있는 한 에레트리아와 에우보이아의 나머지 지역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로포스가 제 손에 들어오자 에레트리아인은 이제 로도스로 와서 펠로폰네소스인을 에우보이아로 청했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인은 곤경에 빠진 키오스인을 구하는 데 더 마음을 두고 있었으므로 바다로 나가 로도스에서 모든 배를 이끌고 떠났다. 트리오피온 앞바다에서 그들은 칼케에서 오는 아테네 함대를 먼바다에서 보았으나 어느 쪽도 상대를 치지 않았고, 아테네 함대는 사모스에, 펠로폰네소스인은 밀레토스에 이르렀으니 이제 싸우지 않고는 키오스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겨울이 끝났고, 이와 함께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이 전쟁의 제20년도 끝났다.

이듬해 여름이 시작되는 봄 이른 때에 스파르타 시민[7] 데르킬리다스가 적은 병력을 이끌고 육로로 헬레스폰토스에 보내져 밀레토스의 식민시인 아비도스의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키오스인은 아스티오코스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동안 포위의 압박에 못 이겨 바다에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스티오코스가 아직 로도스에 있는 동안 그들은 밀레토스에서 페다리토스가 죽은 뒤의 지휘관으로 안티스테네스와 함께 해병으로 나온 레온이라는 스파르타 시민을 받았고, 밀레토스를 지키고 있던 함선 12척도 함께 받았으니 그 가운데 5척은 투리이 배, 4척은 시라쿠사 배, 1척은 아나이아 배, 1척은 밀레토스 배, 1척은 레온 자신의 배였다. 그리하여 키오스인은 온 병력으로 나가 든든한 자리를 잡았고, 그들의 배 36척이 바다로 나가 아테네 함선 32척과 맞붙었으며, 힘겨운 싸움 끝에 키오스인과 그 동맹들이 조금도 밀리지 않았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저희 도시로 물러갔다.

그 직후 데르킬리다스가 밀레토스에서 육로로 이르렀고, 헬레스폰토스의 아비도스가 그와 파르나바조스에게 넘어가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틀 뒤에는 람프사코스도 그러했다. 이 소식을 받은 스트롬비키데스는 아테네 함선 24척을 이끌고 서둘러 키오스에서 배를 띄웠는데 그 가운데에는 중장보병을 실은 수송선도 몇 있었고, 맞서 나온 람프사코스인을 무찌르고 성벽이 없던 람프사코스를 첫 공격에 빼앗았으며, 노예와 재물은 전리품으로 삼되 자유민은 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비도스로 나아갔다. 그러나 주민들이 항복하기를 마다하고 그의 공격으로도 그곳을 빼앗지 못하자, 그는 맞은편 해안으로

건너가 이 역사의 앞선 시기에 메디아인이 차지했던 케르소네소스의 도시 세스토스를 헬레스폰토스 전체를 지키는 중심지로 정했다.

그사이 키오스인은 전보다 더 바다를 차지했고, 밀레토스에 있던 펠로폰네소스인과 아스티오코스는 그 해전과 스트롬비키데스가 이끄는 함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 용기를 얻었다. 아스티오코스는 배 2척으로 해안을 따라 키오스로 가서 그곳의 배들을 거두었고, 이제 함대 전체를 이끌고 사모스로 움직였으나 아테네인이 서로를 의심한 탓에 맞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밀레토스로 되돌아갔다. 아테네에서 민주정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거나 그보다도 앞서였기 때문이다. 페이산드로스와 사절들이 티사페르네스에게서 사모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곧바로 군대 안에서 저희 세력을 한층 더 굳혔고, 사모스인 가운데 유력자들을 부추겨 함께 과두정을 세우게 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얼마 전에 피하려고 들고일어났던 그 정체였다. 같은 때에 사모스의 아테네인은 저희끼리 의논한 끝에 알키비아데스가 저희와 함께하기를 마다하는 데다 과두정에 맞는 사람도 아니므로 그를 내버려 두기로 정했고, 이미 일을 벌인 마당이니 어떻게 해야 저희 일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살피기로, 그러는 동안 전쟁을 버텨 내고 이제부터는 오직 저희 자신을 위해 애쓰는 것이니 돈이든 필요한 다른 무엇이든 제 사사로운 재산에서 아끼지 않고 내놓기로 정했다.

이런 결의로 서로를 북돋운 그들은 이제 곧바로 사절의 절반과 페이산드로스를 보내 아테네에서 필요한 일을 하게 했고 (가는 길에 들르게 될 예속 도시마다 과두정을 세우라는 지시를 함께 주었다) 나머지 절반은 다른 예속지들로 저마다 다른 방향에 보냈다. 키오스 언저리에 있으면서 트라키아 도시들의 지휘를 맡도록 뽑혀 있던 디이트레페스도 제 관할로 보내졌고, 타소스에 이르러 그곳의 민주정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타소스인은 저희 도시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으니, 아테네를 끼고 하는 귀족정에 이미 싫증이 났고 스파르타에게서 자유를 얻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로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아테네인이 추방한 자들이었다) 펠로폰네소스인과 함께 있으면서 도시 안의 제 벗들과 더불어 함대를 불러들여 타소스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미 온 힘을 다하고 있었으니, 이 무리는 저희가 가장 바라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셈이었고 그것은 곧 위험 없이 정체가 바뀌는 것과 저희를 가로막았을 민주정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소스의 일은 아테네의 과두파 음모자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돌아갔고, 내 생각에는 다른 예속지 여럿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도시들은 온건한 정체와 행동의 자유를 얻자마자 아테네인이 내민 개혁의 겉모습에는 조금도 넘어가지 않고 곧장 온전한 자유로 나아갔던 것이다.

페이산드로스와 그 동료들은 해안을 따라가는 항해 중에 정해진 대로 여러 도시의 민주정을 없앴고, 몇몇 곳에서는 중장보병을 제 편으로 데려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테네에 이르렀다. 그곳에 와 보니 일은 대부분 동료들이 이미 해 놓은 뒤였다. 젊은 사람들 몇이 한데 뭉쳐 민중의 으뜸가는 지도자이자 알키비아데스가 추방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던 안드로클레스라는 자를 몰래 죽였으니, 안드로클레스가 골라진 것은 그가 민중의 지도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를 죽이면 곧 불려 들어와 티사페르네스를 벗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저희가 짐작한 알키비아데스의 환심을 사리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밖에도 거슬리는 자 몇을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몰래 없앴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내건 구호는 전쟁에 복무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에게도 수당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5,000명 넘지 않게 하되 그 사람들은 몸으로나 재산으로나 나라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를 향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으니, 실제로 다스릴 자들은 정변을 일으킨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회와 콩평의회[8]는 여전히 열렸으나, 음모자들이 찬성하지 않은 것은 무엇 하나 의제에 오르지 않았으니 발언할 사람을 대는 것도 그들이었고 그 사람이 할 말을 미리 검토하는 것도 그들이었다. 두려움과 음모자들의 수를 눈으로 보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의 입을 막았고, 누군가 감히 일어나 맞서기라도 하면 그는 곧 적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죽인 자를 찾는 일도 없었고 의심이 가는 자가 있어도 그를 걸어 얻을 수 있는 재판이란 없었으니, 민중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어찌나 철저하게 겁에 질렸던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도 폭력을 면한 것을 다행으로 여길 지경이었다. 음모자의 수를 실제보다 크게 믿은 것 또한 민중의 기를 꺾었으니, 도시가 워낙 큰 데다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도 못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 수가 참으로 얼마인지 알아낼 길도 없었다. 같은 이유로 누구도 이웃에게 제 괴로움을 털어놓고 스스로를 지킬 방책을 함께 꾸밀 수 없었으니, 말을 건네려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거나 알기는 하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로 민중 편에 선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의심하며 다가갔고 저마다 이웃이 지금 벌어지는 일에 끼어 있다고 여겼으니, 과두정에 가담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을 사람들이 음모자들 가운데 끼어 있었기 때문이며, 다수를 그토록 의심 많게 만들고 민중이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굳힘으로써 소수가 벌을 받지 않게 도운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바로 이때에 페이산드로스와 그 동료들이 이르러 남은 일을 지체 없이 해치웠다. 먼저 그들은 민회를 소집해, 전권을 가진 위원 10명을 뽑아 정체를 마련하게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정해진 날에 도시를 다스리는

가장 나은 방식에 관한 그 의견을 민중 앞에 내놓게 하자고 발의했다. 그 뒤 그날이 오자 음모자들은 도시에서 10스타디온[9]쯤 떨어진 포세이돈의 신전 콜로노스에 민회를 가두었고, 거기서 위원들이 내놓은 것은 오직 다음 한 가지 발의뿐이었으니, 곧 아테네인이면 누구나 원하는 어떤 안건이든 벌을 받지 않고 발의할 수 있으며 그 일을 두고 위법을 걸어 고발하거나 달리 괴롭히는 자에게는 무거운 벌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길이 트이자 이제 드러내 놓고 선언되기를, 지금의 제도 아래 관직을 맡는 일과 수당을 받는 일은 모두 끝났으며, 의장 다섯 사람을 뽑고 그 다섯이 다시 100명을 뽑되 그 100명이 저마다 세 사람씩을 뽑아, 이렇게 400명으로 채워진 이 집단이 전권을 가지고 평의회당에 들어가 가장 낫다고 판단하는 대로 다스리며 원할 때면 언제든 5,000명을 소집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의를 발의한 사람은 페이산드로스였으니, 그는 민주정을 무너뜨리는 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겉으로 드러난 으뜸가는 행위자였다. 그러나 이 일 전체를 꾸미고 그 파국의 길을 닦았으며 그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생각한 사람은 안티폰이었으니, 그는 그 시절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로 방책을 궁리하는 머리와 그것을 설득하는 혀를 함께 지녔으면서도 민회에서든 다른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든 기꺼이 앞에 나서지는 않았으니 재주로 이름이 난 탓에 다수에게 곱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법정에서든 민회 앞에서든 제 의견을 구하는 소송 당사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에서는 누구도 그를 따르지 못했다. 실로 뒷날 사백인회가 무너지고 민중에게 호되게 다루어졌을 때 바로 이 정권을 세우는 데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그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한 변론은 내 시대까지 알려진 어떤 변론보다도 나은 것으로 보인다. 프리니코스 또한 과두정을 향한 열성에서 누구보다 앞섰다. 알키비아데스를 두려워한

데다 사모스에서 아스티오코스와 벌인 제 책략을 그가 모르지 않는다고 확신한 프리니코스는 어떤 과두정도 그를 불러들일 리 없다고 여겼고, 일단 이 일에 뛰어든 뒤로는 위험을 마주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들 모두 가운데 단연 가장 굳건한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하그논의 아들 테라메네스 또한 민주정을 뒤엎은 자들 가운데 앞자리에 선 사람이었으니, 의논에서나 논쟁에서나 다 같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토록 많고 그토록 슬기로운 머리들이 이끌었으므로 이 일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 이상하지 않았으니, 참주들이 쫓겨난 지 거의 100년이 되도록 아테네 민중은 그 온 기간 동안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제 예속민을 다스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회는 반대하는 목소리 하나 없이 제안된 정체를 승인했고 그런 다음 해산했으며, 그 뒤 사백인회가 평의회당에 들어간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였다. 데켈레이아에 적이 있었으므로 아테네인은 모두 늘 성벽 위에 있거나 여러 초소의 대오 속에 있었다. 그날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되었고, 음모자들의 한패에게는 초소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아무 내색 없이 머물러 있다가 벌어지는 일에 맞서는 움직임이 있으면 무기를 잡고 그것을 눌러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안드로스인과 테노스인 몇, 카리스토스인 300명, 그리고 아테네인이 살라고 아이기나에 보낸 이주민 몇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제 무기를 들고 와 있었고 이들도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 이 배치가 끝나자 사백인회는 저마다 몸에 단검을 감추고, 폭력이 필요한 자리마다 부리던 그리스인 젊은이 120명을 데리고 가서 평의회당에 있던 콩 평의회 의원들 앞에 나타나 수당을 받아 들고 나가라고

말했으며, 남은 임기 전체에 해당하는 수당을 저희가 직접 가져와 그들이 나가는 대로 손에 쥐여 주었다.

평의회가 감히 아무 반대도 못 한 채 이렇게 물러나고 나머지 시민들도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사백인회는 평의회당에 들어가 당장은 제비를 뽑아 저희 프리타니스[10]를 정하고 취임하며 신들에게 기도와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그쳤으나, 그 뒤로는 민주적인 정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추방자들을 불러들이지 않은 것 말고는 힘으로 도시를 다스렸으니, 없애는 것이 편하다고 여긴 자들을 죽이고 (많지는 않았다) 다른 이들은 가두거나 추방했다. 그들은 또 데켈레이아에 있던 스파르타 왕 아기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저희가 화약을 맺기 바란다는 것과 변덕스러운 민중 대신 저희를 상대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협상에 더 마음을 기울일 만하다는 것을 전했다.

그러나 아기스는 도시가 잠잠하다는 것도 민중이 그렇게 한순간에 제 오랜 자유를 내놓으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이미 소란에 빠져 있지 않다면 (그 점을 그는 결코 확신하지 못했다) 스파르타의 큰 병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들쑤시기에 넉넉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사백인회의 사절들에게 타협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대답을 주었고, 펠로폰네소스에서 많은 증원병을 불러 오래지 않아 그들과 데켈레이아의 제 수비대를 이끌고 아테네의 성벽 바로 앞까지 내려갔으니, 내분이 그들을 제 조건에 굴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나 도시 안팎에서 예상되는 혼란 속에 그들이 한 번 싸워 보지도 않고 항복하기를 바랐고, 적어도 지키는 사람이 빠져나간 장성을 빼앗는 데에는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테네인은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도시 안에서 조금의 소란도 일으키지 않았고, 기병과 중장보병 일부와 경보병과 궁수를 내보내 너무 가까이 다가온 그의 병사 몇을 쏘아 쓰러뜨리고 무기와 주검을 얼마간 차지했다. 이에

마침내 납득한 아기스는 군대를 다시 이끌고 돌아갔고, 제 병력과 함께 데켈레이아의 예전 자리에 머물면서 증원병은 아티카에 며칠 머무르게 한 뒤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 뒤 사백인회는 뜻을 굽히지 않고 아기스에게 다시 사절을 보냈고 이번에는 더 나은 응대를 받았으므로, 그의 권고에 따라 조약을 의논할 사절들을 스파르타로 보냈으니 화약을 맺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은 또 사모스에 열 사람을 보내 군대를 안심시키고, 과두정이 도시나 시민을 해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구하려고 세워졌다는 것과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400명만이 아니라 5,000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했으며, 아테네인이 원정과 바깥에서 맡은 일 때문에 5,000명이 한자리에 모일 만큼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인 적은 여태 한 번도 없었다고도 말하게 했다. 이 사절들은 다른 모든 점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할지 일러받고 새 정권이 선 직후에 그렇게 떠나보내졌으니, 새 정권은 뱃사람의 다수가 과두정체 아래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악이 거기서 시작되어 저희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했으며 그 두려움은 결국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 사모스에서 과두정 문제는 이미 새 국면에 들어서 있었으니, 사백인회가 음모를 꾸미던 바로 그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상층 사람들에게 들고일어났고 민주파였다고 앞서 말한 사모스 주민의 그 부분이 이제 돌아서서, 페이산드로스가 왔을 때 그가 한 권유와 사모스의 음모에 가담한 아테네인의 권유에 넘어가 300명에 이르는 수로 맹세를 주고받아 스스로를 묶었고, 이제는 거꾸로 저희가 민주파로 여기게 된 나머지 동료 시민들을 치려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히페르볼로스라는 아테네 사람을 죽였으니, 그는 도편추방[11]을 당한 못된 자로 그 영향력이나 지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악당이고 도시의 수치였기 때문에 추방된 사람이었는데, 이 일에서 그들을 도운 것은 장군 가운데 하나인 카르미노스와 그들과 함께 있던 아테네인 몇으로, 이들과는 서로 벗이 되기로 맹세한 사이였고 이런 종류의 다른 일도 함께 저질렀으며 이제 민중을 치기로 정한 터였다. 민중은 다가오는 일의 낌새를 알아채고 장군 둘, 곧 레온과 디오메돈에게 알렸으니 이들은 민중에게 누리던 신망 때문에 마음에 없이 과두정을 따르던 자들이었고, 또 트라시불로스와 트라실로스에게도 알렸으니 앞의 사람은 삼단노선 함장이었고 뒤의 사람은 중장보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여태 음모자들에게 가장 반대한다고 여겨지던 다른 몇 사람에게도 알려, 저희가 죽는 것과 저희 지배의 마지막 남은 버팀목인 사모스가 아테네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병사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맞서라고 다그쳤고 특히 파랄로스호[12]의 승무원에게 그렇게 했으니, 그 배는 아테네 사람과 자유민만으로 채워져 있었고 아득한 옛날부터, 과두정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던 때조차 과두정의 적이었기 때문이며, 레온과 디오메돈은 저희가 어디로든 떠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그들을 지킬 배 몇 척을 남겨 두었다. 그리하여 삼백인이 민중을 쳤을 때 이들이 모두 구원하러 왔으며 그 가운데 맨 앞에 선 것이 파랄로스호의 승무원이었고, 사모스의 민중이 이겨 삼백인 가운데 30명쯤을 죽이고 우두머리 가운데 다른 세 사람을 추방한 다음 나머지에게는 죄를 묻지 않기로 하고 그 뒤로는 민주정 아래서 함께 살았다.

파랄로스호는 이 변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아테네 사람인 아르케스트라토스의 아들 카이레아스를 태우고, 벌어진 일을 알리도록 사모스인과 병사들의 손으로 지체 없이 아테네로 보내졌으니, 사백인회가 권력을 쥐었다는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때였다. 그들이

항구로 들어오자 사백인회는 곧바로 파랄로스호 사람들 가운데 두셋을 잡아 가두었고, 나머지에게서는 그 배를 빼앗아 병력 수송선으로 옮겨 태운 다음 에우보이아 둘레를 지키는 일을 맡겼다. 그러나 카이레아스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마자 용케 몸을 숨겼고, 사모스로 돌아가 아테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병사들에게 그려 보였는데 그 모두가 부풀려진 것이었으니, 모두가 매를 맞고 있고 권력을 쥔 자들에게 누구도 한마디 말대꾸를 할 수 없으며 병사들의 아내와 자식이 욕을 당하고 있고 사모스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권과 생각이 다른 자들의 친족은 모두 잡아 가두었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려 한다고 말했으며, 그 밖에도 해로운 거짓말을 수없이 지어냈다.

이 말을 들은 군대가 맨 처음 떠올린 것은 과두정을 일으킨 으뜸가는 자들과 거기 얽힌 나머지 모두에게 돌을 던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온건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거기 맞서며 적이 바로 곁에 싸울 채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일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하자 마침내 그 생각을 접었다. 그 뒤 이 변혁을 앞장서 이끈 리코스의 아들 트라시불로스와 트라실로스는 이제 사모스의 정체를 더없이 공공연한 방식으로 민주정으로 바꾸고자 하여, 모든 병사를 더없이 엄중한 맹세로 묶었고 과두파에 속한 자들은 누구보다 더 단단히 묶었으니, 민주정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로 뭉치며 펠로폰네소스인과의 전쟁을 힘써 밀고 나가고 사백인회의 적이 되어 그들과는 아무 연락도 주고받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같은 맹세를 나이가 찬 사모스인도 모두 했고, 병사들은 제 모든 일과 위험을 무릅써 얻은 열매에 사모스인을 함께 참여시켰으니, 저희에게도 그들에게도 빠져나갈 길이 없으며 사백인회가 성공하든 밀레토스의 적이 성공하든 그것은 저희의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제 싸움은 도시에 민주정을 강요하려는 군대와 진영에 과두정을 강요하려는 사백인회 사이의 것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병사들은 곧바로 집회를 열어 이전의 장군들과 의심스러운 함장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내쫓고 그들을 대신할 새 함장과 장군을 뽑았으니 트라시불로스와 트라실로스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또 일어서서 서로를 북돋웠고, 무엇보다 도시가 저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으니, 갈라져 나간 쪽이 저희보다 수도 적고 무엇으로 보나 가진 것도 모자랐기 때문이다. 저희에게는 함대 전체가 있어 수도를 근거지로 삼았을 때와 꼭 같이 지배 아래 있는 다른 도시들에게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었고, 사모스라는 도시를 가지고 있으니 그곳은 힘이 모자라기는커녕 전쟁을 벌였을 때 아테네인에게서 바다의 지배를 빼앗을 뻔했던 곳이었으며, 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전과 똑같은 작전 근거지를 지니고 있었다. 실로 함대를 손에 쥐고 있으니 저희가 본국의 정권보다 먹을 것을 마련하기에 더 나았다. 본국 당국자들이 여태 피레우스의 어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사모스에 나와 있는 저희의 앞선 자리 덕분이었으니, 그들이 정체를 돌려주기를 마다한다면 군대가 그들을 바다에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그들이 군대를 밀어낼 수 있는 힘보다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터였다. 게다가 도시는 적을 이기는 데에 거의 또는 전혀 쓸모가 없었고, 저희에게 보낼 돈도 없고 (그 돈은 병사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좋은 판단도 없는 자들을 잃었다고 해서 저희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도시가 군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좋은 판단이다. 도리어 바로 이 점에서 본국의 정권은 조상들의 제도를 없앰으로써 잘못을 저질렀으며, 군대는 그 제도를 지켜 왔고 본국의 정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참이었다. 그러니 좋은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진영에는 도시 못지않은 조언자들이 있었다. 더구나 알키비아데스에게 신변의 안전과 귀국만

보장해 주면 그는 기꺼이 왕과의 동맹을 저희에게 얻어다 줄 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진다 해도 저희가 지닌 해군이 있으니 물러가 몸을 둘 곳은 얼마든지 있었고 거기서 도시와 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의논하며 스스로를 다독인 그들은 전쟁에 관한 조치를 여느 때처럼 힘차게 밀고 나갔고, 사백인회가 사모스로 보낸 열 사람의 사절은 아직 델로스에 있는 동안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곳에 조용히 머물렀다.

이 무렵 밀레토스에 있던 펠로폰네소스 함대 안에서 아스티오코스와 티사페르네스가 저희 일을 망치고 있다는 소리가 일었다. 아스티오코스는 앞서 저희가 아직 온전한 기운을 지니고 아테네 함대는 적었을 때에도, 또 지금 전해 듣기로 적이 내분에 빠져 있고 그 함선들도 아직 한데 모이지 않았을 때에도 바다에서 싸우려 하지 않았고, 다만 이름뿐인 티사페르네스의 페니키아 함대를 기다리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들어 갈 위험을 무릅쓰게 했다. 한편 티사페르네스는 말만 나오던 그 함대를 끌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급료를 불규칙하게 주고 그나마도 온전히 주지 않아 저희 해군을 망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더는 미루지 말고 바다에서 결판을 낼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힘주어 내세운 바였다. 그 가운데 가장 다급하게 몰아붙인 것은 시라쿠사인이었다.

동맹들과 아스티오코스는 이런 불평을 알고 이미 회의에서 결판을 낼 싸움을 하기로 정해 둔 터였고, 사모스의 소동에 관한 소식이 이르자 배를 모두, 곧 112척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밀레토스인에게는 육로로 미칼레로 움직이라고 명하고서 그리로 배를 몰았다. 사모스에서 온 함선 82척을 거느린 아테네인은 그때 사모스가 대륙에 가까이 다가가는 지점인 미칼레의 글라우케에 머물고 있었는데,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저희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수로 보아 모든 것을 한 번의 싸움에 걸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여겨 사모스로 물러갔다. 게다가 그들은 적이 싸우고자 한다는 것을 밀레토스에서 전해 들었고, 이미 전령을 보내 둔 스트롬비키데스가 키오스에서 아비도스로 갔던 함선들을 이끌고 헬레스폰토스에서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테네인은 사모스로 물러갔고, 펠로폰네소스인은 미칼레에 배를 대고 밀레토스인과 그 언저리 사람들의 육군과 함께 진을 쳤다. 이튿날 그들이 사모스를 치러 떠나려던 참에 스트롬비키데스가 헬레스폰토스에서 함대를 이끌고 이르렀다는 소식이 닿았고, 이에 그들은 곧바로 밀레토스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병력을 보탠 아테네인은 이제 거꾸로 함선 108척을 이끌고 밀레토스를 치러 가 결판을 낼 싸움을 하고자 했으나 아무도 맞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모스로 되돌아갔다.

---

1. 탈란톤 — 그리스의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단위. 1탈란톤은 6,000드라크메에 해당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2. 드라크메 — 그리스의 은화 단위.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대략 1드라크메였다고 전한다. 아티카 드라크메는 아테네 기준으로 친 드라크메를 말한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3. 오볼로스 — 그리스의 화폐 단위. 6오볼로스가 1드라크메였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4. 에우몰피다이·케리케스 — 엘레우시스 비의를 대대로 주관하던 아테네의 두 사제 가문. 비의를 어긴 일을 두고 고발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권한을 지녔다.

5. 비의 — 엘레우시스에서 데메테르 여신에게 바치던 비밀 의식. 입문자만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밖에서 흉내 내거나 발설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다루어졌다. 알키비아데스는 그것을 사사로이 흉내 냈다는 죄목으로 추방되었다.

6. 에포로스 — 스파르타의 최고 정무관. 해마다 5명을 뽑았고 왕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번역에서는 '감독관'으로 옮기고 첫 등장에만 원어를 함께 밝혔다. 그해의 으뜸 감독관의 이름으로 그해를 불렀다.

7.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8. 콩 평의회 —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 후보의 이름표와 흰 콩·검은 콩을 함께 추첨기에 넣어 제비로 의원을 뽑았으므로 이렇게 불렀다. 민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심의하는 것이 그 주된 일이었다.

9.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 대목을 영국식 단위로 '1마일 남짓'이라고 옮겼다.

10. 프리타니스 — 500인 평의회는 열 부족에서 50명씩 뽑아 이루어졌고, 한 해를 열로 나눈 기간마다 한 부족의 50명이 당번을 맡아 평의회와 민회를 소집하고 일상 업무를 처리했다. 그 당번 의원들을 프리타니스라 불렀다.

11. 도편추방 — 아테네의 제도. 민회에서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적어 투표해 한 사람을 10년간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 시민권과 재산은 그대로 남았으므로 반역자에 대한 처벌과는 달랐다.

12. 파랄로스호 — 아테네가 공적인 사명에 쓴 전용 삼단노선. 사절을 보내고 국가의 명령을 전하는 일을 맡았으며 승무원을 아테네 시민으로만 채웠다.

26장 (제VIII권 제XXVI장) — 전쟁 제21년 — 알키비아데스의 사모스 소환 — 에우보이아의 반란과 사백인회의 몰락 — 키노세마 해전

같은 여름, 이 일이 있은 바로 뒤에 펠로폰네소스인은 스스로를 적의 맞수로 여기지 않아 함대를 한데 모아 싸우기를 마다했고 그만한 수의 배에 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으니 특히 티사페르네스가 봉급을 주는 데 그토록 인색했기 때문인데, 그리하여 펠로폰네소스에서 처음에 받은 지시대로 람피아스의 아들 클레아르코스를 함선 40척과 함께 파르나바조스에게 보냈다. 파르나바조스가 그들을 부르며 봉급을 댈 채비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비잔티움이 그들에게 반란의 뜻을 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펠로폰네소스 함선들은 아테네인의 눈을 피하려고 먼바다로 나갔는데 폭풍을 만나, 클레아르코스와 함께한 대부분은 델로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밀레토스로 돌아왔고 클레아르코스는 거기서 뭍길로 헬레스폰토스에 가서 지휘를 맡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10척은 메가라 사람 헬릭소스의 지휘 아래 헬레스폰토스로 건너가는 데 성공해 비잔티움을 반란으로 이끌었다. 이 일이 있은 뒤 사모스의 지휘관들이 이를 전해 듣고 헬레스폰토스를 지키도록 함대를 보내어 그들을 막게 했고, 비잔티움 앞바다에서 양편 8척씩이 맞붙는 짧은 싸움이 벌어졌다.

한편 사모스의 우두머리들, 그중에서도 정체를 바꾼 그 순간부터 알키비아데스를 불러들이기로 굳게 마음먹고 있던 트라시불로스는 마침내 민회에서 병사들 대다수를 제 편으로 끌어들였고, 그들이 알키비아데스의 소환과 사면에 표를 던지자 배를 타고 티사페르네스에게 건너가 알키비아데스를 사모스로 데려왔으니, 그가 티사페르네스를 펠로폰네소스인에게서 떼어 자기들 편으로 돌려놓는 것 말고는 살길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민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알키비아데스는 추방당한 제 개인의 불운을 하소연하고 한탄했으며, 나랏일을 아주 길게 이야기하며 앞날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한껏 부추기고 티사페르네스에게 제가 가진 영향력을 터무니없이 부풀렸다. 이렇게 한 그의 목적은 아테네의 과두 정권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치 결사가 흩어지는 것을 재촉하며, 사모스의 군대 안에서 제 신망을 높이고 그들 자신의 자신감도 북돋우며, 끝으로 적이 티사페르네스를 되도록 깊이 의심하게 만들어 그들이 품고 있던 기대를 꺾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알키비아데스는 군대에 이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늘어놓았다. 티사페르네스가 그에게 엄숙히 다짐하기를, 아테네인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게 무엇이든 남아 있는 한 그들이 물자에 아쉬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며 끝내 제 침구까지 돈으로 바꾸어야 하는 지경이 되더라도 그러하리라 했고, 지금 아스펜도스에 있는 페니키아 함대를 펠로폰네소스인이 아니라 아테네인에게 데려오겠다고 했으나, 다만 알키비아데스가 소환되어 아테네인의 보증이 되어 줄 때에만 그들을 믿을 수 있으리라 했다는 것이었다.

이 말과 그 밖의 많은 말을 듣고 아테네인은 곧바로 그를 앞서의 장군들과 함께 장군으로 뽑고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맡겼다. 이제 군대 안에는 무사히 살아남아 사백인회에 앞갚음하리라는 지금의 기대를

어떤 대가와도 바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들은 말이 그러하고 보니 그들은 눈앞의 적을 얕보고 당장 피레우스로 배를 몰아 가려는 마음이 되었다. 더 가까운 적을 뒤에 두고 피레우스로 가자는 그 계획을 알키비아데스는 그것을 우기는 사람이 많은데도 단호히 거절하며, 이제 자기가 장군으로 뽑혔으니 먼저 티사페르네스에게 배를 타고 가서 전쟁을 이어 갈 방책을 그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민회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길에 올랐으니, 둘 사이에 온전한 신뢰가 있다고 여기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 티사페르네스에게 제 무게를 더하는 한편 자기가 이제 장군으로 뽑혔으므로 마음먹기에 따라 그에게 이롭게도 해롭게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티사페르네스로 아테네인을 겁주고 아테네인으로 티사페르네스를 겁주었다.

한편 밀레토스의 펠로폰네소스인은 알키비아데스가 소환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미 티사페르네스를 믿지 못하고 있던 터라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그에게 정이 떨어졌다. 실상 아테네인이 밀레토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나가 싸우기를 마다한 뒤로 티사페르네스는 그 어느 때보다 봉급 주는 일에 굼떠졌고, 그 전에도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그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전과 같이 한데 모인 병사들과 병사 말고도 무게 있는 몇몇 사람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봉급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것, 받은 것도 양이 적은 데다 그나마 제때 주지 않았다는 것, 판가름 나는 싸움을 하거나 물자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으면 뱃사람들이 달아나리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잇속을 위해 티사페르네스의 비위를 맞추는 아스티오코스의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다.

군대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스티오코스의 몸을 두고 다음과 같은 소동이 일어났다. 시라쿠사인과 투리이 뱃사람은 대부분

자유민이었고, 이 함대에서 가장 자유로운 이 뱃사람들이 아스티오코스에게 달려들어 봉급을 내놓으라고 하는 데에도 가장 대담했다. 아스티오코스는 다소 뻣뻣하게 대답하며 그들을 을러댔고, 도리에우스가 제 뱃사람들을 두둔하고 나서자 그에게 지휘봉을 치켜들기까지 했다. 이를 본 무리는 뱃사람다운 기세로 성이 나서 아스티오코스에게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때맞춰 그들을 보고 제단으로 달아나 몸을 숨겼고, 그리하여 그가 맞지 않은 채로 둘은 떼어졌다. 한편 티사페르네스가 밀레토스에 세운 요새를 밀레토스인이 기습해 빼앗고 그 안의 수비대를 쫓아냈는데, 이 일은 나머지 동맹, 그중에서도 시라쿠사인의 지지를 얻었으나 리카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리카스는 나아가 밀레토스인과 왕의 땅에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은 전쟁이 잘 매듭지어질 때까지 티사페르네스에게 웬만큼 고분고분하게 굴고 그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밀레토스인은 이 일과 그와 비슷한 다른 일들로 그에게 성이 나 있었고, 뒷날 그가 병으로 죽자 군대에 있던 스파르타인이 바라는 자리에 그를 묻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아스티오코스와 티사페르네스에 대한 군대의 불만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민다로스가 아스티오코스의 뒤를 이어 해군 사령관이 되려고 스파르타에서 와서 지휘를 맡았다. 이제 아스티오코스는 고향으로 배를 몰았고, 티사페르네스는 두 나라 말을 하는 카리아 사람이자 제 심복 가운데 하나인 가울리테스를 그와 함께 보내어 요새 사건을 두고 밀레토스인을 걸어 따지게 하는 한편 밀레토스인을 맞받아 제 변호를 하게 했다. 티사페르네스가 알기로 밀레토스인은 주로 그의 행실을 고발하려고 스파르타로 가는 길이었고 헤르모크라테스를 데리고 있었는데, 헤르모크라테스는 티사페르네스가 알키비아데스와 손잡고 펠로폰네소스의 대의를 망치려 했으며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몰아붙일

참이었다. 실상 헤르모크라테스는 봉급을 온전히 되돌려 주지 않는 일로 늘 그와 사이가 나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시라쿠사에서 추방당하고 새 지휘관들, 곧 포타미스와 미스콘과 데마르코스가 시라쿠사인의 함선을 맡으러 밀레토스에 오자, 티사페르네스는 망명 중인 그를 그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붙였고, 그에게 씌운 여러 혐의 가운데에는 한때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얻지 못하자 스스로 자기 원수를 자처했다는 것도 있었다.

아스티오코스와 밀레토스인과 헤르모크라테스가 스파르타로 배를 몰아가는 동안 알키비아데스는 이미 티사페르네스에게서 사모스로 건너와 있었다. 그가 돌아온 뒤, 앞서 말한 대로 사모스의 병력을 달래고 일의 자초지종을 알리려고 보낸 사백인회의 사절들이 델로스에서 왔고, 민회가 열려 그들이 말을 해 보려 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민주정을 뒤엎은 자들을 죽이라고 외쳤으나, 마침내 어렵사리 가라앉아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사절들은 이번 변혁이 나라를 구하려는 것이지 망치거나 적에게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일러 주었으니, 자기들이 다스리는 동안 적이 나라 안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미 그럴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 오천인회의 모든 사람이 차례로 정치에 제 몫을 갖게 되며, 듣는 이들의 친족은 카이레아스가 헐뜯어 전한 것 같은 폭행도 그 밖의 학대도 당한 일이 없고 모두 떠날 때 그대로 제 재산을 아무 탈 없이 누리고 있다고 했다. 이 말 말고도 그들은 여러 가지를 더 말했으나 성이 난 청중에게 더 나은 효험을 보지는 못했고, 온갖 다른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은 피레우스로 배를 몰아 가자는 것이었다. 알키비아데스가 나라에 처음으로 공을 세운 것은 바로 이때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누구 못지않게 큰 공이었다. 사모스의 아테네인이 제 동포를 치러 가기로 마음을 굳혔을 때, 그리 되었더라면 이오니아와

헬레스폰토스는 틀림없이 당장 적의 손에 넘어갔을 터인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알키비아데스였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도 무리를 붙들어 둘 수 없었을 그 순간에 그는 벼르던 원정을 멈춰 세웠고, 사절들에게 사사로이 품은 원한을 꾸짖어 돌려세웠다. 그는 제 이름으로 답을 주어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오천인회의 정치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사백인회를 물리고 오백인 평의회에 다시 권한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와 함께 군대의 봉급을 더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씀씀이를 줄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대체로 그는 그들에게 버티며 적 앞에서 당당한 낯을 보이라고 일렀으니, 나라가 구원되면 언젠가 두 편이 화해할 좋은 가망이 있지만 사모스에 있는 쪽이든 아테네에 있는 쪽이든 한 번 무너지고 나면 화해할 상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아르고스인이 보낸 사절들이 와서 사모스에 있는 아테네 민중을 돕겠다고 했다. 알키비아데스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부를 때 와 달라는 청과 함께 돌려보냈다. 아르고스인과 함께 온 것은 파랄로스호의 뱃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앞서 사백인회의 손에 수송선에 실려 에우보이아 둘레를 돌라는 명을 받았던 자들로, 사백인회가 스파르타로 보내는 아테네 사절들, 곧 라이스포디오스와 아리스토폰과 멜레시아스를 실어 나르는 데 쓰였는데, 아르고스 옆을 지나가면서 그 사절들을 붙잡아 민주정을 뒤엎은 우두머리들이라며 아르고스인에게 넘겼고, 저희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대신 아르고스 사절들을 배에 태우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삼단노선을 몰아 사모스에 왔다.

같은 여름, 알키비아데스의 귀환과 티사페르네스의 전반적인 처신이 겹쳐 펠로폰네소스인의 불만이 극에 이르러 그들이 그가 아테네 편에 붙었음을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을 무렵, 티사페르네스는 아무래도 그들 앞에서 이 혐의를 벗고 싶었던 듯 페니키아 함대를 데리러

아스펜도스로 갈 채비를 하고 리카스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으며, 자기가 없는 동안 군대의 봉급을 대도록 타모스를 제 대리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하는 말이 저마다 달라서 그가 어떤 뜻으로 아스펜도스에 갔으면서도 끝내 함대를 데려오지 않았는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페니키아 함선 147척이 아스펜도스까지 왔다는 것은 틀림없으나 어째서 더 나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어떤 이들은 그가 펠로폰네소스의 힘을 소모시키려는 제 계획에 따라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여기는데, 아무튼 그의 대리인 타모스가 그보다 나은 것은커녕 봉급을 더 못 주는 자였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그가 페니키아인을 부릴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면서 그들을 풀어 주는 값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아스펜도스로 불렀다고 여긴다. 또 다른 이들은 스파르타에서 자기를 향해 터져 나온 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제 잘못이 아니며 배에 정말로 사람이 태워져 있었고 자기가 틀림없이 그것을 데리러 갔었다는 말을 들으려 한 것이라고 여긴다. 내가 보기에는 그가 함대를 데려오지 않은 까닭이 그리스인의 힘을 지치게 하고 마비시키려는 데 있었음이 너무나 분명하니, 곧 아스펜도스로 가는 여정에 허비된 시간으로 그 힘을 축내고 어느 쪽 저울에도 제 무게를 싣지 않음으로써 두 편을 팽팽하게 맞물려 두려 한 것이다. 전쟁을 끝내고자 했다면 그는 그럴 수 있었으니, 물론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면 그러했을 것이다. 함대를 데려왔더라면 그는 십중팔구 스파르타인에게 승리를 안겼을 터인데, 스파르타의 해군은 그 없이도 아테네 해군을 못한 편이라기보다 맞먹는 편으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가장 분명하게 옭아매는 것은 배를 데려오지 않은 데 대해 그가 내세운 핑계다. 그는 모인 수가 왕이 명한 것보다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의 돈을 적게 쓰고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의 공이 도리어 높아졌을 것이 분명하다.

어떻든 그 뜻이 무엇이었든 티사페르네스는 아스펜도스에 가서 페니키아인을 만났고, 펠로폰네소스인은 그가 바라는 대로 필리포스라는 스파르타 사람을 삼단노선 2척과 함께 보내어 함대를 데려오게 했다.

알키비아데스는 티사페르네스가 아스펜도스로 갔음을 알고 제 자신도 함선 13척을 거느리고 그리로 배를 몰았는데, 사모스의 아테네인에게 크고 확실한 공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니 페니키아 함대를 아테네인에게 데려오거나 적어도 그것이 펠로폰네소스인과 합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십중팔구 그는 티사페르네스가 애초에 함대를 데려올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 티사페르네스가 자기와 아테네인에게 보이는 겉보기의 우의를 빌미로 펠로폰네소스인의 눈에 그를 되도록 깊이 얽어 넣어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그가 아테네 편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알키비아데스가 닻을 올려 동쪽으로 파셀리스와 카우노스를 향해 곧장 배를 몰아가는 동안 사백인회가 사모스로 보냈던 사절들이 아테네에 이르렀다. 그들이 알키비아데스의 전갈을 전하여 버티며 적 앞에서 굳건한 낯을 보이라 하고 자기가 그들을 군대와 화해시키고 펠로폰네소스인을 이길 큰 가망을 품고 있다고 하자, 이미 불만을 품고 있었고 무슨 안전한 길로든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던 과두파 대다수는 곧바로 그 마음을 크게 굳혔다. 이들은 이제 한데 뭉쳐 정권을 거세게 헐뜯었는데, 그 우두머리는 과두정 아래서 으뜸가는 장군이자 관직에 있던 사람들, 곧 하그논의 아들 테라메네스와 스켈리아스의 아들 아리스토크라테스 같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정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축에 들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로는 사모스의 군대가, 그중에서도 알키비아데스가 두렵고, 또 자기들이 스파르타로 보낸 사절들이 민중의 권한도 없이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권력이 몇 사람

손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것을 굳이 물고 늘어지지는 않으면서도 오천인회가 이름뿐 아니라 실제로도 있음을 보여야 하며 정체를 더 공정한 바탕 위에 놓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들이 내건 정치의 구호였을 뿐이고, 그들 대부분은 사사로운 야심에 떠밀려 민주정에서 생겨난 과두정을 반드시 무너뜨리고야 마는 그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저마다 바로 그날로 동등한 자일 뿐 아니라 단연 으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정 아래서는 뜻을 이루지 못한 후보가 제 패배를 더 쉽게 받아들이니, 동등한 자에게 졌다는 수모를 겪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만을 품은 자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힘을 준 것은 사모스에서 알키비아데스가 가진 세력과 과두정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그들 자신의 믿음이었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민중의 지도자가 되느냐를 두고 겨루기가 벌어졌다.

한편 사백인회 가운데 민주 정체에 가장 반대하던 우두머리와 회원들이 있었으니, 사모스에서 지휘하던 시절 알키비아데스와 다투었던 프리니코스, 민중의 모질고 뿌리 깊은 원수인 아리스타르코스, 그리고 페이산드로스와 안티폰과 그 밖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이들은 권력을 잡자마자, 그리고 사모스의 군대가 자기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민주정을 내세웠을 때 다시 한번 제 무리 가운데서 사절을 스파르타로 보내어 화약을 맺으려고 온갖 애를 썼고 에에티오네이아에 성벽을 쌓았는데, 이제 사절들이 사모스에서 돌아오고 민중뿐 아니라 제가 가장 믿던 동료들까지 등을 돌리는 것을 보자 그 노력을 갑절로 했다. 아테네의 형편도 사모스의 형편만큼이나 걱정스러웠으므로 그들은 이제 안티폰과 프리니코스와 그 밖의 열 사람을 서둘러 보내며, 조금이라도 견딜 만한 조건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스파르타와 화약을 맺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에티오네이아의 성벽 공사를 그어느 때보다 힘껏 밀어붙였다. 그런데 테라메네스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말로는 이 성벽의 뜻이 사모스의 군대가 피레우스로 밀고 들어오려 할 때 그것을 막자는 데 있다기보다 적의 함대와 군대를 마음대로 들일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었다. 에에티오네이아는 항구 어귀 바로 옆에 붙은 피레우스의 방죽인데, 이제 뭍 쪽에 이미 서 있던 성벽과 이어 요새로 만들어졌으니 그 안에 몇 사람만 두어도 어귀를 장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뭍 쪽의 옛 성벽과 이제 그 안쪽 바다 쪽으로 쌓고 있던 새 성벽은 둘 다 항구의 좁은 입구에 서 있는 두 망루 가운데 하나에서 끝났다. 그들은 또 이 성벽과 바로 잇닿아 있는 피레우스에서 가장 큰 회랑을 담으로 둘러막아 제 손아귀에 두었고,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이미 있던 것이든 항구로 새로 들어오는 것이든 거기에 부리게 하고 팔 때에도 거기서 꺼내 가게 했다.

이런 조치들은 오래전부터 테라메네스의 불평을 자아냈고, 사절들이 아무런 전반적인 화의도 이루지 못한 채 스파르타에서 돌아오자 그는 이 성벽이 나라를 망치고 말 것 같다고 단언했다. 바로 이때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함선 42척이, 그 가운데에는 로크리와 타렌툼에서 온 시칠리아 그리스인과 이탈리아 그리스인의 배도 있었는데, 에우보이아인의 부름을 받고 이미 라코니아의 라스 앞바다에 떠서 에우보이아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지휘한 사람은 스파르타 시민[1] 아게산드로스의 아들 아게산드리다스였다. 이제 테라메네스는 이 함대가 에우보이아를 도우러 가는 것이라기보다 에에티오네이아에 요새를 쌓는 무리를 도우러 오는 것이며,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나라가 기습을 당해 잃게 되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것은 그저 헐뜯는 말이 아니었으니, 지목받은 자들이 실제로 그와 비슷한 계획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장 바란 것은 제국을 내놓지 않고 과두정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안 되면 배와 성벽만이라도 지켜 독립을 누리는 것이었으며, 이것마저 얻지 못하면 되살아난 민주정의 첫 제물이

되느니 차라리 적을 불러들여 화약을 맺고 성벽과 배를 내주더라도 목숨만 보장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손에 쥐고 있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뒷문과 출입구와 적을 끌어들일 방도를 갖추어 공사를 밀어붙였으니, 때를 놓치지 않고 끝내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들을 향한 불평은 처음에는 몇 사람에 그쳐 남모르게 오갔는데, 마침내 프리니코스가 스파르타에 사절로 갔다 돌아온 뒤 짜고 덤빈 페리폴로이[2]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저잣거리 한복판에서 칼에 찔려, 평의회 회의장에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죽었다. 찌른 자는 달아났으나 그를 도운 아르고스인 하나가 붙잡혀 사백인회에게 고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에게서 사주한 자의 이름을 캐내지 못했고 페리폴로이 지휘관의 집과 다른 집들에 모이곤 하던 사람이 많은 줄 안다는 것 말고는 더 알아내지 못했다. 일은 여기서 흐지부지되게 두었다. 이 일로 테라메네스와 아리스토크라테스와 사백인회 안팎에 있던 그 편 사람들은 크게 대담해져 이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다. 이때쯤에는 그 함선들이 라스에서 돌아 나와 에피다우로스에 닻을 내리고 아이기나를 휩쓸었기 때문인데, 테라메네스는 그 배들이 에우보이아로 가는 길이라면 자기가 늘 정권에 씌워 온 그 계획을 도우러 오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서야 아이기나로 들어갔다가 다시 에피다우로스로 돌아와 닻을 내렸을 리가 없다고 우겼다. 그러니 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끝내 숱한 선동 연설과 의심이 오간 끝에 그들은 정말로 일에 나섰다. 에에티오네이아에 성벽을 쌓고 있던 피레우스의 중장보병들, 그 가운데에는 제 부족을 거느린 대장 아리스토크라테스도 있었는데, 이들이 과두정 아래의 장군이자 그 도당에 헌신하던 알렉시클레스를 붙잡아 어느 집으로 끌고 가 가두었다. 이 일에는 무니키아의 페리폴로이 지휘관인 헤르몬이라는 사람과 다른

이들이 거들었고, 무엇보다 중장보병의 대다수가 그들 편에 있었다. 마침 평의회 회의장에 앉아 있던 사백인회에 이 소식이 닿자마자, 딴마음을 품은 자들만 빼고 모두가 당장 무기가 있는 자리로 가려 했고 테라메네스와 그 편 사람들을 을러댔다. 테라메네스는 제 변명을 하며 당장 가서 알렉시클레스를 구해 내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고, 제 편에 속한 장군 하나를 데리고 피레우스로 내려갔으며 아리스타르코스와 기병대의 젊은이 몇이 뒤를 따랐다. 이제 온통 공황과 혼란이었다.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피레우스가 이미 넘어가고 갇힌 자는 죽임을 당했으리라 여겼고, 피레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 쪽 무리가 당장에라도 쳐들어오리라 여겼다. 그러나 나이 든 이들이 도성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무기 걸이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세웠고, 이 나라의 프록세노스[3]인 파르살로스 사람 투키디데스가 나서서 맞선 두 편 사이에 몸을 던지고는 적이 아직 가까이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판에 나라를 망치지 말라고 호소해, 마침내 그들을 가라앉히고 서로에게 손을 대지 않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는 사이 테라메네스가 피레우스로 내려왔는데 그 자신이 장군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중장보병들에게 말로만 노발대발했으나, 아리스타르코스와 민중의 적들은 참으로 성이 나 있었다. 그러나 중장보병의 대다수는 흔들림 없이 하던 일을 이어 가며 테라메네스에게 이 성벽이 좋은 뜻으로 쌓인 것이라고 여기는지, 헐어 버리는 편이 낫지 않겠는지를 물었다. 이에 그는 헐어 버리는 것이 가장 낫다고 그들이 여긴다면 자기로서도 그들과 뜻이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중장보병과 피레우스에 있던 많은 사람이 곧바로 성벽 위로 올라가 그것을 허물기 시작했다. 이때 그들이 무리를 향해 외친 말은 사백인회 대신 오천인회가 다스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두 이 일에 함께하라는 것이었다. "민중이 다스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두"라고 드러내 놓고 말하는 대신 그들은 여전히 오천인회라는 이름

뒤에 몸을 숨겼으니, 오천인회가 정말로 있을까 두렵고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 모르고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실상 사백인회가 오천인회가 있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바라지도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었으니, 그만큼 많은 사람을 제 권력의 동무로 들이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정이 되겠으나 이 알 수 없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두려워하게 만들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튿날 사백인회는 놀라기는 했으나 그래도 평의회 회의장에 모였고, 한편 피레우스의 중장보병들은 가두어 둔 알렉시클레스를 놓아주고 성벽을 헐어 버린 뒤 무기를 들고 무니키아 가까이에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으로 가서 거기서 민회를 열어 도성으로 진군하기로 정했으며, 그에 따라 길을 나섰다가 아나케이온[4]에 멈춰 섰다. 여기서 사백인회가 보낸 대표 몇이 그들에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장 온건해 보이는 이들을 설득해 저희부터 조용히 있게 하고 나머지도 붙들어 두게 했다. 그들은 오천인회의 명단을 밝히겠으며 오천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운데서 돌아가며 사백인회를 뽑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나라를 망치거나 적의 품으로 밀어 넣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숱한 사람이 말하고 또 말을 듣고 난 뒤 중장보병 전체는 전보다 가라앉았으니 나라 전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이제 화합을 되살리기 위해 정한 날에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민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극장에서 민회를 열 날이 와서 막 모이려 할 때, 아게산드리다스가 이끄는 함선 42척이 메가라에서 살라미스 연안을 따라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것이야말로 테라메네스와 그 편이 그토록 여러 번 말한 그대로 그 배들이 그 성벽으로 오고 있는 것이라 여겼고, 성벽을 헐어 버린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아게산드리다스가 에피다우로스와 그 언저리를 맴돈 것이 짜고 한 일이었을 수는 있겠으나, 도성의 소란에서 기회가 생기리라는 기대만으로도 그가 거기 머물렀을 법하다. 어떻든 아테네인은 이 소식을 받자마자 떼 지어 피레우스로 달려 내려갔으니, 저희끼리의 싸움보다 더 나쁜 전쟁이 적의 손에서 저희를 위협하되 멀리서가 아니라 아테네의 항구 코앞에서 그러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미 물에 떠 있는 배에 올랐고, 어떤 이는 새로 배를 띄웠으며, 또 어떤 이는 성벽과 항구 어귀를 지키러 달려갔다.

그러는 동안 펠로폰네소스 함선들은 지나쳐 가서 수니온을 돌아 토리코스와 프라시아이 사이에 닻을 내렸다가 나중에 오로포스에 이르렀다. 아테네인은 도성이 변혁에 휩싸여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영지를 구하러 가는 데 한시도 늦출 수 없었으므로(아티카에서 막혀 버린 지금 그들에게 에우보이아는 전부였다) 서둘러, 그것도 훈련되지 않은 뱃사람들로 바다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티모카레스를 몇 척의 배와 함께 에레트리아로 보냈다. 이 배들은 이르러서 에우보이아에 이미 있던 배들과 합해 모두 36척이 되었고 곧바로 싸움에 끌려들어 갔다. 아게산드리다스가 뱃사람들에게 밥을 먹인 뒤 오로포스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오로포스는 바닷길로 에레트리아에서 60스타디온[5]쯤 떨어져 있었다. 아테네인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배에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여긴 대로 제 배 곁에 있지 않고 밥거리를 사러 도성 변두리의 집들로 가 있었다. 에레트리아인이 장터에 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미리 손을 써 둔 까닭이니, 아테네인이 배에 사람을 태우는 데 오래 걸리게 하고 적의 공격에 허를 찔려 있는 그대로 바다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에레트리아에서는 오로포스에 있는 그들에게 언제 바다로 나올지를 알리는 신호를 올렸다. 그토록 허술한 채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테네인은 에레트리아 항구

앞바다에서 맞붙었고, 그런데도 한동안 제 자리를 지켰으나 마침내 쫓겨 달아나 해안까지 몰렸다. 그 가운데 저희에게 우호적이려니 여기고 에레트리아로 몸을 피한 자들은 그 도시에서 주민들에게 도륙되어 목숨을 잃었고, 에레트리아 땅에 있는 아테네 요새로 달아난 자들과 칼키스에 닿은 배들은 살아남았다. 펠로폰네소스인은 아테네 함선 22척을 빼앗고 뱃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뒤 전승 기념물을 세웠고, 오래지 않아 에우보이아 전체를 반란으로 이끌었으며(아테네인이 몸소 지키고 있던 오레오스만은 빼고) 섬의 일을 전반적으로 매듭지었다.

에우보이아에서 일어난 일의 소식이 아테네에 닿자 그들이 전에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공황이 뒤따랐다. 시칠리아의 참사도, 그때에는 그토록 커 보였건만, 그 밖의 어떤 일도 그들을 그만큼 놀라게 한 적은 없었다. 사모스의 진영은 반기를 들었고, 배도 그 배에 태울 사람도 더는 없었으며, 저희끼리 불화해 당장에라도 주먹다짐이 벌어질 판이었다. 그런 판에 이만한 크기의 참사가 그 모든 것 위에 덮쳐 함대를 잃고 무엇보다도 아티카보다 저희에게 더 값진 에우보이아를 잃었으니, 그들이 더없이 깊은 낙담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크고 가장 급한 걱정은 적이 승리에 기고만장해져 곧장 자기들에게로 향해 피레우스를 치러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으니 피레우스를 지킬 배가 더는 없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시시각각 적이 닥치기를 기다렸다. 적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쉽게 그리할 수 있었을 터이고, 그리했더라면 그는 제가 나타남으로써 도성의 분열을 더 키웠거나, 머물러 포위했더라면 이오니아에서 온 함대가 과두정의 적이면서도 제 나라와 제 친족을 구하러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며, 그동안에 헬레스폰토스와 이오니아와 섬들과 에우보이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대충 말해 아테네 제국 전체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른 숱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파르타인은 아테네인이 전쟁을 치르기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대임이 드러났다. 두 기질 사이의 큰 차이, 곧 스파르타인의 굼뜸과 기력 없음이 그 상대의 과감함과 진취와 대비되는 그 차이가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으니, 특히 아테네 같은 해상 제국에 그러했다. 실상 이것은 시라쿠사인이 보여 준 바이니, 기질이 아테네인과 가장 닮았고 또 아테네인과 싸워 가장 크게 성공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런데도 아테네인은 이 소식을 받고 함선 20척에 사람을 태웠으며, 예전에 모이곤 하던 프닉스 언덕에서 곧바로 첫 민회를 열어 사백인회를 물리고 오천인회에 정권을 넘기기로 표결했다. 오천인회에는 제 무구 한 벌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들어가게 했고, 또 어떤 관직을 맡더라도 봉급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받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기기로 정했다. 그 뒤로도 민회가 여러 번 열려 거기서 입법 위원을 뽑고 정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온갖 조치를 취했다. 아테네인이 여태껏 누린 가운데 가장 좋은 정치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때가 바로 이 정체의 첫 시기였으니,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러하다.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섞는 일이 분별 있게 이루어졌고, 나라가 거듭된 참사를 겪고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알키비아데스와 그 밖의 추방자들을 불러들이기로 표결했고, 그와 사모스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힘껏 몸을 던지라고 다그쳤다.

이 변혁이 일어나자 페이산드로스와 알렉시클레스의 무리와 과두파의 우두머리들은 곧바로 데켈레이아로 물러났는데, 장군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타르코스만은 예외였으니 그는 궁수 가운데 가장 이방스러운 자들을 서둘러 데리고 오이노에로 갔다. 오이노에는 보이오티아 국경에 있는 아테네인의 요새로 그때 코린트인에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코린트인은 데켈레이아에서 돌아오던 제 무리가 그 수비대에게 끊겨 죽은 일로 성이 나 있었다. 코린트인은 이 일에 스스로 나섰고

보이오티아인에게 도와 달라고 청했다. 그들과 말을 맞춘 뒤 아리스타르코스는 오이노에를 지키던 수비대를 속여, 도성에 있는 저희 동포가 스파르타인과 타협을 보았으며 항복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곳을 보이오티아인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일렀다. 수비대는 그가 장군이었으므로 그 말을 믿었고 게다가 포위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으므로, 휴전을 맺고 요새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하여 보이오티아인이 오이노에를 손에 넣었고, 아테네의 과두정과 소란은 끝이 났다.

이야기를 다시 밀레토스의 펠로폰네소스인에게로 돌린다. 티사페르네스가 아스펜도스로 떠나면서 그 일을 맡겨 둔 대리인들 가운데 누구에게서도 봉급은 나오지 않았다. 페니키아 함대도 티사페르네스도 나타날 낌새가 없었고, 그와 함께 보내졌던 필리포스와 파셀리스에 있던 또 한 사람의 스파르타 시민 히포크라테스가 해군 사령관 민다로스에게 배는 아예 오지 않으며 자기들이 티사페르네스에게 심하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적어 보냈다. 그러는 동안 파르나바조스는 그들에게 오라고 청하며 함대를 얻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었고, 티사페르네스와 마찬가지로 제 관할 안에서 아직 아테네에 매여 있는 도시들을 반란으로 이끌고자 했으니 그 성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가 이제 이른 그 여름 무렵에 민다로스가 그 성화에 못 이겨, 사모스의 적을 따돌리려고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별안간 함선 73척으로 밀레토스에서 닻을 올려 헬레스폰토스로 배를 몰았다. 그리로는 같은 여름에 이미 16척이 그보다 앞서 가서 케르소네소스의 일부를 휩쓴 뒤였다. 민다로스는 폭풍을 만나 이카로스로 피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사나운 날씨에 닷새인가 엿새를 거기 붙들려 있다가 키오스에 이르렀다.

한편 트라실로스는 그가 밀레토스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사모스에서 함선 55척으로 배를 몰았으니, 헬레스폰토스에 그보다 먼저 닿으려고 서두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키오스에 있음을 알고 거기 머물리라 여겨, 그 함대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레스보스와 그 맞은편 뭍에 척후를 두었고, 자신은 해안을 따라 메팀나로 가서 그들이 키오스에 얼마간 머물 경우 레스보스에서 치려고 곡식 가루와 그 밖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란을 일으킨 레스보스의 도시 에레소스를 치러 가서 할 수 있다면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메팀나에서 쫓겨난 으뜸가는 망명자 몇이 저희와 맹세로 맺어진 중장보병 약 50명을 쿠마이에서 건너 데려왔고, 뭍에서 다른 이들을 고용해 모두 300명을 채운 다음, 테베인과 레스보스인 사이에 핏줄이 통한다는 까닭으로 테베 사람 아낙산드로스를 뽑아 그들을 지휘하게 하고는 먼저 메팀나를 쳤기 때문이다. 미틸레네에서 아테네 수비대가 나아오는 바람에 그 계획이 어긋나고 도시 밖의 싸움에서 두 번째로 물리쳐지자, 그들은 산을 넘어가 에레소스를 반란으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트라실로스는 배를 모두 거느리고 그리로 가서 그곳을 치기로 정했다. 그런데 트라시불로스가 망명자들이 건너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모스에서 함선 5척으로 그보다 먼저 그리로 갔는데, 에레소스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게 닿았으므로 그대로 나아가 그 도시 앞에 닻을 내렸다. 여기에 헬레스폰토스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배 2척과 메팀나인의 배들이 더해져 모두 67척이 되었고, 배에 탄 병력은 이제 공성 기계와 쓸 수 있는 온갖 수단을 갖추어 에레소스를 힘껏 쳐서 빼앗을 채비를 했다.

그러는 사이 키오스에 있던 민다로스와 펠로폰네소스 함대는 이틀 치 양식을 받고 키오스인에게서 사람마다 키오스의 테사라코스테 3닢[6]을 받은 뒤 사흘째 되는 날 서둘러 섬에서 나왔다. 에레소스에 있는 배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들은 먼바다로 나가지 않고 레스보스를 왼편에 둔 채 뭍을 향해 배를 몰았다. 포카이아 땅에 있는 카르테리아 항에 들러 낮밥을 먹은 뒤 그들은 쿠마이 연안을 따라 나아가 미틸레네 맞은편 뭍에 있는 아르기누사이에서 저녁을 먹었다. 거기서 그들은 밤이 깊었는데도 해안을 따라 항해를 이어 가 메팀나 맞은편 뭍에 있는 하르마토스에 이르러 거기서 밥을 먹었고, 렉톤과 라리사와 하마크시토스와 그 언저리의 도시들을 빠르게 지나쳐 한밤중이 되기 조금 전에 로이테이온에 이르렀다. 이제 그들은 헬레스폰토스 안에 들어와 있었다. 배 가운데 얼마는 시게이온과 그 언저리의 다른 곳에도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봉화의 경보와 적의 해안에 갑자기 불이 늘어난 것이 세스토스에 있던 아테네 함선 18척에게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바로 그날 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서둘러 배를 띄웠고, 케르소네소스의 해안에 바짝 붙어 엘라이오스까지 해안을 따라갔으니 적의 함대를 피해 먼바다로 빠져나가려는 것이었다.

아비도스에 있던 16척을 들키지 않고 지나쳤는데 그 배들은 다가오던 제 편에게서 아테네 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살피라는 경보를 받았는데도 그러했고, 새벽녘에 그들은 민다로스의 함대를 보았으며 그 함대는 곧바로 뒤를 쫓았다. 모두가 빠져나갈 틈이 있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은 임브로스와 렘노스로 달아났고, 맨 뒤에 있던 4척이 엘라이오스 앞바다에서 따라잡혔다. 그 가운데 하나는 프로테실라오스 신전 맞은편에서 좌초해 뱃사람과 함께 빼앗겼고 다른 두 척은 뱃사람 없이 빼앗겼으며, 네 번째 배는 임브로스 해안에 버려져 적의 손에 불탔다.

이 뒤에 아비도스에서 온 함대가 펠로폰네소스인에게 합류해 그 함대는 모두 86척이 되었다. 그들은 하루를 엘라이오스를 포위하는 데

썼으나 이루지 못하고 아비도스로 되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아테네인은 제 척후에게 속아 적의 함대가 들키지 않고 지나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채 한가로이 에레소스를 포위하고 있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당장 에레소스를 버리고 온 힘을 다해 헬레스폰토스로 향했으며, 쫓기에 열이 올라 먼바다로 너무 멀리 나갔다가 이제 그들의 길목에 걸린 펠로폰네소스 함선 2척을 빼앗은 뒤 이튿날 엘라이오스에 닻을 내렸고, 임브로스로 피했던 배들을 데려와 닷새 동안 다가올 싸움을 채비했다.

이 뒤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맞붙었다. 아테네인은 종대를 이루어 해안에 바짝 붙어 세스토스로 배를 몰았고, 이를 알아챈 펠로폰네소스인은 그들을 맞으러 아비도스에서 나왔다. 이제 싸움이 코앞에 닥쳤음을 알고 양편은 날개를 넓게 폈으니, 아테네인은 케르소네소스를 따라 이다코스에서 아리아니까지 함선 76척으로, 펠로폰네소스인은 아비도스에서 다르다노스까지 86척으로 폈다. 펠로폰네소스의 오른쪽 날개는 시라쿠사인이 맡았고 왼쪽은 민다로스가 몸소 그 해군에서 가장 잘 달리는 배들과 함께 맡았으며, 아테네의 왼쪽은 트라실로스가 오른쪽은 트라시불로스가 맡고 나머지 지휘관들은 함대의 여기저기에 있었다. 펠로폰네소스인은 먼저 맞붙으려고 서둘렀고, 제 왼쪽으로 아테네의 오른쪽을 에돌아 될 수 있으면 그들이 해협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끊고 그 중앙을 멀지 않은 해안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아테네인은 그 속셈을 알아채고 제 날개를 더 펴서 그들을 앞질러 나아갔고, 그동안 그들의 왼쪽은 이미 키노세마 곶을 지나 있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들은 중앙을 얇게 늘여 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 적보다 배가 적은 데다 키노세마 곶 둘레의 해안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루어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펠로폰네소스인은 이제 그 중앙을 쳐서 아테네인의 배들을 해안으로 몰아붙였고, 승세를 몰아가려고 뭍에 내렸다. 중앙에는 아무 도움도 갈 수 없었으니, 오른쪽의 트라시불로스 함대는 저를 치는 배가 많아서 그러했고, 왼쪽의 트라실로스 함대는 키노세마 곶이 벌어지는 일을 가린 데다 제 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시라쿠사인과 그 밖의 적들에게 발이 묶여 있어서 그러했다. 그러나 마침내 펠로폰네소스인은 이겼다는 자신감에 적의 배를 쫓느라 흩어지기 시작했고, 제 함대의 적잖은 부분이 흐트러지게 두었다. 이를 본 트라시불로스의 함대는 옆으로 펴던 움직임을 멈추고 뱃머리를 돌려 제 앞의 배들을 쳐서 쫓아냈고, 다음으로 이기고 있던 펠로폰네소스 부대의 흩어진 배들에게 거칠게 덤벼들어 그 대부분을 한 번 치지도 않고 달아나게 했다. 시라쿠사인도 이때쯤에는 트라실로스의 함대 앞에서 밀리고 있었고, 이제 제 동료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자 드러내 놓고 달아났다.

이제 궤멸은 완전했다. 펠로폰네소스인은 대부분 먼저 미디오스 강으로 피했다가 나중에 아비도스로 달아났다. 아테네인이 빼앗은 배는 몇 척뿐이었으니, 헬레스폰토스가 좁은 탓에 적이 안전한 데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이 승리보다 더 때맞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이때까지 그들은 자잘한 손실이 여러 번 있었던 데다 시칠리아의 참사도 있어 펠로폰네소스 함대를 두려워했으나, 이제는 제 자신을 못 미더워하기를 그쳤고 적이 바다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도 않게 되었다. 한편 그들은 적에게서 키오스 배 8척, 코린트 배 5척, 암브라키아 배 2척, 보이오티아 배 2척, 그리고 레우카스와 스파르타와 시라쿠사와 펠레네의 배를 한 척씩 빼앗았고 제 배는 15척을 잃었다. 키노세마 곶에 전승 기념물을 세우고 부서진 배들을 거두어들이고 휴전을 맺어 적의 주검을 돌려준 뒤, 그들은 승리의 소식을 실어 아테네로 삼단노선 한 척을 보냈다. 에우보이아의

최근 참사가 있고 아테네가 변혁에 휩싸인 가운데 이 배가 바라지도 못한 좋은 소식을 싣고 닿자 아테네인은 새로 용기를 얻었고, 어깨를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제 대의가 아직 이길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해전이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세스토스의 아테네인은 서둘러 배를 손본 뒤 반란을 일으킨 키지코스를 치러 갔다. 하르파기온과 프리아포스 앞바다에서 그들은 비잔티움에서 온 배 8척이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다가가 해안의 병력을 쫓아 버린 뒤 그 배들을 빼앗았으며,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 성벽이 없던 키지코스 도시를 되찾고 시민들에게서 돈을 거두었다. 그러는 사이 펠로폰네소스인은 아비도스에서 엘라이오스로 배를 몰아 빼앗겼던 삼단노선 가운데 아직 성한 것들을 되찾았는데 나머지는 엘라이오스인이 불태워 버린 뒤였고, 히포크라테스와 에피클레스를 에우보이아로 보내어 그 섬의 함대를 데려오게 했다.

그 무렵 알키비아데스가 제 함선 13척을 거느리고 카우노스와 파셀리스에서 사모스로 돌아와, 페니키아 함대가 펠로폰네소스인과 합치는 것을 막았고 티사페르네스를 전보다 아테네인에게 더 우호적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배 9척에 더 사람을 태웠고 할리카르나소스인에게서 많은 돈을 거두었으며 코스에 요새를 쌓았다. 이 일을 마치고 코스에 총독을 앉힌 뒤 그는 사모스로 배를 몰아 돌아왔으니, 이제 가을이 가까웠다. 그러는 동안 티사페르네스는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밀레토스에서 헬레스폰토스로 갔다는 말을 듣고 아스펜도스에서 진을 거두어 이오니아로 길을 재촉했다. 펠로폰네소스인이 헬레스폰토스에 있는 동안, 아이올리스 혈통의 사람들인 안탄드로스인은 아비도스에서 중장보병 얼마를 뭍길로 이다산을 넘어 실어 와 제 도시 안으로 들였으니, 티사페르네스의 페르시아 부관 아르사케스에게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아르사케스가 남모를 다툼이 있다는 핑계로 델로스인의 으뜸가는 사람들을 불러 군역을 맡으라고 했는데(이들은 델로스를 정화한다는 까닭으로 아테네인에게 제 고향에서 쫓겨난 뒤 아트라미티온에 자리 잡은 델로스인이었다), 그들을 제 벗이요 동맹이라 하여 도시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밥자리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에워싸고 제 병사들을 시켜 창을 던져 죽이게 했다. 이 일로 안탄드로스인은 그가 언젠가 저희에게도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가 그들에게 견디기에 너무 무거운 짐까지 지웠으므로 그들은 제 성채에서 그의 수비대를 쫓아냈다.

티사페르네스는 펠로폰네소스인의 이 짓을, 그리고 그에 더해 제 수비대가 마찬가지로 쫓겨난 밀레토스와 크니도스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이제 저와 그들 사이의 틈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그들에게서 더 해를 입을까 두려웠고, 또 파르나바조스가 그들을 맞아들여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어쩌면 자기보다 아테네를 더 잘 상대해 내리라는 생각에 속이 상했으므로, 그는 헬레스폰토스로 가서 그들과 다시 합치기로 마음먹었으니 안탄드로스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따지고 페니키아 함대 문제와 자기에게 걸린 그 밖의 혐의에 대해 되도록 잘 변명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에페소스로 가서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올렸다....[7]

[이 여름 다음의 겨울이 지나면 이 전쟁의 제21년이 끝난다.][8]

끝

---

1. 스파르타 시민 — 스파르타 사회는 완전시민권을 가진 스파르타 시민, 주변 자유민, 헬롯으로 나뉘었다. 원문에서 저자는 이 좁은 뜻의 '스파르타 시민'과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를 구분해 쓴다.

2. 페리폴로이 — 아티카의 국경 요새와 변경을 순찰하던 아테네의 수비 부대. 젊은 시민들이 정규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3. 프록세노스 — 제 나라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맞아 돌보던 사람. 나라가 그 자리를 맡겼고 대개 집안 대대로 이어졌으며 명예로 여겼다.

4. 아나케이온 — 아크로폴리스 북쪽 비탈에 있던 디오스쿠로이(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신전. 그 앞뜰은 병력이 모이는 자리로 자주 쓰였다.

5. 스타디온 — 그리스의 거리 단위. 1스타디온은 약 180미터이며, 도시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 크롤리는 이 대목을 영국식 단위로 '약 7마일'이라고 옮겼다.

6. 테사라코스테 — 키오스에서 통용되던 은화 단위. 이름은 '40분의 1'이라는 뜻이다. 크롤리는 원문의 화폐 단위를 옮기지 않고 '키오스의 돈'이라고만 적었다. 현대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7.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여기서 끊긴다. 마침표 넷은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라 글이 이 자리에서 멎었다는 저본의 표시다. 저자는 서술 도중에 죽었고, 전쟁 자체는 이로부터 여러 해를 더 이어져 기원전 404년 아테네의 항복으로 끝났다.

8. 이 문단의 대괄호는 저자가 아니라 판본 편집자의 것이다. 투키디데스는 해마다 그 해의 끝을 알리는 문장으로 서술을 맺었는데, 글이 앞에서 끊겼으므로 편집자가 그 형식에 맞추어 마지막 해의 마무리를 대괄호 안에 채워 넣었다. 저본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판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투키디데스 지음 리처드 크롤리 영역(1874)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이 책은 크롤리의 영역본을 한국어로 옮기고, 제2판에서 그리스어 원전과 대조해 고친 것이다. 문장의 짜임은 영역본을 따르므로 그리스어에서 직접 옮긴 번역과는 다르다.

1.1판(2026년 10월) · 총서 공통 인명·지명 표기에 맞춰 일부 표기와 띄어쓰기를 고쳤다(예: 헤르메스 상 → 헤르메스상, 카타네인 → 카타나인, 트로이아 → 트로이).

제2판(2026년 10월) · 한국어 본문 전체를 그리스어 원전(Stuart Jones·Powell 옥스퍼드판)과 문장마다 대조해, 뜻이 어긋나거나 크롤리가 덧붙이고 빠뜨린 450여 곳을 바로잡았다. 삼단노선 용어를 통일했다.

원저작물 퍼블릭도메인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etherxync.com